"오라버니, 이제 계속 수도에 있는 거야?"

황녀는 자연스럽게 황제의 앞에 놓인 잔을 들어 마시며 물었다. 그 모습에 절로 나오는 한숨을 삼킨 워로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일하라고 자리를 주셨으니 일을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로망 얼굴도 봤으니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폐하께서 창단하신 수사단의 출범일이니까요."

"오, 그거 축하할 일이네. 그럼 차를 마실 게 아니라 와인이나 한잔할까?"

어쩐지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대화에 워로드의 입이 다물렸다. 무엇보다 이미 홍차 석 잔을 연달아 들이켠 그는 무언가를 더 마시고 싶지 않았다.

황녀는 그 잠깐의 공백을 놓치지 않고 박력 넘치게 잔을 내려놓았다.

"잠깐! 내 생일 선물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니었어?"

그녀의 말에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워로드의 미간이 구겨졌다.

"아직 멀었잖아."

그러나 반박은 그녀가 아니라 황제에게서 돌아왔다.

"멀기는, 좋은 선물일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 중에서 한 번 골라 보거라!"

황제가 자신만만하게 꺼내 든 것은 카탈로그 더미였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카탈로그의 출처와 다양한 품목을 생각하면 이걸 모으는 것도 수고스러웠겠지만,

"와아."

꾸며낸 탄성과 함께 그것을 받아든 황녀가 시녀에게 넘기기까지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순식간에 빈손이 된 그녀가 해맑은 얼굴로 말했다.

"올핸 그냥 기부나 해줘요, 내 이름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그럼 다 정해진 거냐? 이제 가도 되지? 저 갑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워로드는 후회했다.

말하지 말고 갈 것을… 엉거주춤 일어난 그의 양손을 인질처럼 붙잡은 부녀가 소리쳤다.

"내 딸이 이렇게 기특한 소리를 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나? 칭찬 좀 하게, 이런 냉혈한 같으니!"

"오라버니가 줄 선물은 아직 안 말했잖아! 듣고 가!"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한쪽 눈을 찌푸린 그의 앞으로 네 번째 홍차가 놓였다. 그를 본 워로드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착석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빨리 끝내고 갈 심산으로 그가 물었다.

"뭔데."

그러자 황녀는 기다렸다는 듯 두꺼운 책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오, 황제는 그것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지 짧은 탄성과 함께 손에 얼굴을 괴고 짓궂은 미소를 드리웠다.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

터프하게 책을 올려놓은 것과 다르게 그녀는 붉어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점은 그 수줍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를 향하더라도 썩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다고 워로드는 생각했다.

책 표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에게 별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었다.

"아가씨? 요즘 요리책도 읽나?"

"요, 요리책?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오라버닌 책도 안 읽어? 눈도 없어? 이 야만인!"

순식간에 야만인이 된 워로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테이블을 내려친 황녀는 마치 준비한 것 같은 광고성 문구를 줄줄 외웠다.

"제국 최초의 여성 작가 ‘아가씨’가 그려내는 두 남녀의 극한 성장 드라마 ‘만찬’, 문맹 가구에도 1권쯤은 있다는 성서 다음으로 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아마도 전쟁 영웅 워로드 루푸스만 빼고 다 아는 전쟁 소설일걸!"

황녀의 비장한 외침 뒤에 황제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영문 모를 워로드만이 팔짱을 낀 채 그 이상한 작태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때맞춰 시녀가 건넨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황녀의 모습은 워로드로 하여금 핏줄을 부정하고 싶게 만들었다.

"오라버니도 읽어 봐. 이 소설은 인생의 지침서야,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어. ‘아가씨’라는 필명과 성별 외에 그녀에 대해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럼 나는 언제 작가님 만나서 대화 나누고, 악수하고, 친구가 되냐고! 빨리빨리 찾아서 내 생일기념 기부는 어디에 하면 좋을지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럼 좋잖아. 그렇죠, 폐하?"

말이 길어질수록 심드렁해지는 워로드의 얼굴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황제였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아주 똑똑한 선택이었다. ‘아가씨’가 황녀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던 황제는 딸의 마지막 말이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면 제국민에게 남은 것은 따르는 일뿐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제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래. 생각해보니 황녀에겐 스승이나 다름없는 자인데 아비 된 입장에 인사도 제대로 못 했구나. 이참에 찾아서 상을 내리는 것도 좋겠지. 워로드 백작."

"예, 폐하."

"황녀의 생일 선물이긴 하지만 제국의 인재를 찾는 일이니, 수사단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겠네."

빼도 박도 못하고 터무니없는 선물을 주게 생겼다. 그러나 엄숙한 황제의 음성에 대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예. 감사합니다."

비록 고귀한 피를 이은 부녀의 얼굴에 얄미운 미소가 대롱대롱 맺혀 있다 해도.

"친애하는 사촌 오라버니를 위해 ‘아가씨’의 팬으로서 힌트를 주자면, 그 섬세한 배경 묘사를 생각했을 때 분명 쿠피오 전쟁을 근방에서 겪어본 사람일 거야. 어쩌면 오라버니도 스쳤을지 모르지. 전쟁 중인 국경 지대의 어딘가에서..."

쿠피오 전쟁 8년, 포르스테리 제국 북부 레우카스 영지.

"가르송, 정말 이 전쟁이 끝날까?"

매니시는 바람에 휘날리는 누런 천들을 걷어 개면서 질문했다.

오로지 빨랫감에 시선을 고정한 그녀의 목소리는 여린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었다. 가르송은 빨랫줄이 즐비한 뒤뜰 한쪽에 위치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 피투성이가 된 손과 얼굴을 씻고 있었다.

"곧 끝나겠지. 이번에 새로 후송된 병사들이 그러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대. 사령관이 무시무시한 악명만큼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굳어있던 피들은 물속에서 붉은 실타래를 풀어냈다. 절박한 함성과 날카로운 병장기 소리가 들려올 듯한 수면 위로 깨끗해진 가르송의 얼굴이 비쳤다.

매니시에게선 여전히 힘겨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거 말고, 우리가 치르는 전쟁."

매니시의 부친 레우카스 자작은 장식용 무구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시골 귀족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그의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칼과 방패를 빼들었다.

자작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의 칼은 적군의 살 대신 병사들의 두려움을 베었고 그의 방패는 영지민을 지켰다. 코앞에 몰려온 병장기 소리를 밀어낸 것은 제국의 젊은 사령관이었지만, 그의 뒤에서 죽음과 싸운 것은 레우카스였다.

그 증거로 성의 작은 연회장은 임시 치료소가 되어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 부딪쳐 어지럽게 부서지던 마법등의 기이한 빛과 반짝이는 기억, 황홀한 음악으로 가득했던 홀은 각양 문장을 매단 병사와 기사들로 빼곡히 차서 신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전히 레우카스 영지로 실려 오는 부상병, 무딘 이빨로 물어뜯기만을 기다리는 전염병, 승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누런 천에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을 쓸며 말을 이었다.

"성안은 이제 텅텅 비었어. 아빠는 매일 돈을 구해보겠다고 나가시지만 나갔다 와서 아무 말씀도 없으셔."

헤진 신관복의 소매로 얼굴을 닦은 가르송이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갔다. 물기 어린 뜨거운 손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매니시, 승리가 코앞에 있어. 부상자도 눈에 띄게 줄었고 전염병도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는 게 밝혀졌잖아. 그건 엄청난 행운이야. 그리고 우린 모두 자작님을 믿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영지를 지키실 분이잖아."

매니시는 가르송의 손이 닿은 볼이 지나치게 뜨겁다고 생각했다. 너무 뜨거워서 그녀는 품 안의 천들을 더 꼭 끌어안았다.

"그래."

더운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하얀 머리칼은 영민들이 사랑하던 반짝임을 잃고 맥없이 늘어져 있었다. 매니시가 천방지축 시골 소녀의 태를 벗은 것처럼.

때문에 자작의 입에서 더운 바람만치 뜨거운 한숨이 나온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2층 창가에 서 있던 그는 뒤돌아 집무실에 하나 남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천으로 마감된 오래된 소파는 제 노고를 숨길 줄 몰랐다. 일시에 일어난 먼지가 큰 창으로 들어온 노을과 만나 금빛으로 부유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저 멀리 머리꼭지부터 타오르는 듯 붉어진 하늘을 둘러쓴 거대한 산맥까지도.

레우카스 자작도 이 방에서 바라보는 광경을 사랑했었다. 저 핏빛으로 물든 산맥이 생명을 앗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불행은 아무도 모르게 떠오른 초저녁달처럼 저 속에 숨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쿠피오 산맥이라 하면 제국에 모르는 자가 없었다.

그는 넓은 어깨로 북부 국경을 수호하는 기사이면서, 부푼 녹의 아래 보물을 감춘 탐욕스러운 거부였기 때문이었다.

산맥이 그 전혀 다른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험준한 산맥에만 나타나는 마수의 존재.

콰과광! 또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맑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뇌성도, 발바닥을 간질이는 바닥의 진동도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전쟁터에서 들리는 폭음이었다.

이 모든 게 마수의 존재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마수의 사체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마성구와 산맥에 매립된 마석은 제국에 엄청난 발전과 부를 안겨줬다. 세월은 흘러 바야흐로 응용 마도구의 시대, 그러나 쿠피오 산맥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마법은 인간의 욕심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제국의 철저한 통제에도 불법 사냥꾼이 끊이지 않았던 것만 봐도 그랬다. 그렇게 산맥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제국의 통제가 유명무실해지자 경쟁자는 불어났다. 산맥 너머 영토의 절반 이상이 얼어붙은 혹한의 나라 크로쿠타. 그곳의 굶주린 전사들에게도 산맥의 자원은 탐이 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수 사냥에 종사하는 네 명의 제국인이 시체로 발견되며 많은 이들의 머리 위에 밤이 도래했다. 양국 마수 사냥꾼들 간의 견제는 분쟁으로, 분쟁은 국지전으로.

레우카스 위에 떠오른 불행의 달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똑똑.

장장 8년간 이어진 전쟁은 전염병과 죽음의 고리를 끊임없이 달리는 일과 같았다. 그는 이제 지치고 피로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든 그가 시간을 확인했다. 어느새 성큼 지나간 시침이 운명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숨 막히는 목소리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 무섭게 문이 열렸다.

"불렀어요?"

그의 부인과 어린 딸 매니시였다. 아니, 어리기만 했던 딸은 어느새 성인식을 앞두고 있었다.

아이가 어린 손가락에 제 어미의 반지를 끼우고 놀 때만 해도, 그가 상상하는 딸의 미래는 까마득하게 멀지만 찬란한 것이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새 다 자란 딸은 그처럼 지치고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성인식은커녕, 올해는 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버겁겠지.

매니시는 마치 자작의 생각을 들은 사람처럼 불안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었다. 자작 부인은 그런 딸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앞서 집무실에 들어섰다.

"앉아."

자작은 이인용 소파의 한쪽에 앉아있었다. 방 안에 앉을 곳이라고는 그의 옆자리와 맞은편에 덜렁 놓인 의자 하나뿐이었다.

자리를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던 자작 부인이 이내 그의 옆자리에 앉았고 매니시는 고민할 것도 없이 식당에서 급히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의자에 착석했다.

사이에 테이블도 없이 껑충하니 마주 앉은 자리는 조용했다. 이따금 들리는 폭음을 제하면.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모녀는 이 자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었고, 한 남자는 너무 까마득했기 때문이었다.

"여보, 어두워지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자작 부인이었다. 그녀는 피로로 흐려진 눈동자로 연신 창을 흘깃거리고 있었다.

자작은 몸을 틀어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을 이루던 기분 좋은 곡선들도 우아하게 흘러내린 머리칼도 더는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천방지축의 평민 소녀처럼 짧아진 밀 빛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내렸다. 쇄골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 팽개쳐진 손가락이 어깨를 스치고 떨어졌다.

"고생 많았소."

고생이라는 두 글자에 담길 수 있는 나날이 아니었다. 손바닥을 다 못 채울 금화 몇 닢 때문에 귀부인의 자존심마저 짧게 쳐내야 했던 나날이었다. 그 하루하루를 짧은 단어에 담자니 그의 목소리는 속절없이 휘청거리고 있었다.

매니시는 코를 훌쩍였다. 그녀뿐만 아니었다. 세 사람 모두 두 눈 가득 넘실거리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 아직 끝난 여정이 아니었기에 차마 쏟아낼 수는 없었다.

신음은 끊이지 않았고 영지 밖 어디쯤에선 여전히 전염병자들이 쫓겨나고 있었다. 피골이 상접하도록 마른 노인부터 병든 부모의 손을 쥔 어린아이까지. 살고자 레우카스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레우카스의 병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었다.

"고생이야 당신이 제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일러요. 알고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미소를 걸친 자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조심스러운 대답과 다르게 꼿꼿하게 자작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 가닥 매듭이라도 지은 듯한 남편의 위로가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청천벽력 같은 그의 말이 이어졌다.

"아니, 지금밖에 없소. 이게 다니까."

"뭐가… 다예요?"

매니시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다. 어린애처럼 솔직하게 찌푸려진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 낯설어서, 무서웠다.

"돈, 이 지옥 같은 전쟁도. 이게 다야. 이게 결말이다."

"그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간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좀 더 기다려 봐요. 다시 전서구를 날렸으니 곧 황실에서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매니시의 손 아래 구겨진 치맛자락도, 너무 세게 맞잡아 하얗게 질린 자작 부인의 손도, 양손 안에 얼굴을 묻은 자작의 붉은 귀도. 하나같이 절규였다.

"안 와. 나라가 엉망인데 작은 영지의 구조요청쯤이야 귓등으로도 안 듣겠지. 다시 보낸 건 전서구가 아니라 전령이었고 어제 빈손으로 돌아왔소."

"안 돼."

매니시가 붙잡지 못한 절규가 작은 소리로 새어 나왔다.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불안감이 실체를 갖고 성큼 다가와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의 방문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다.

"그럼 이제 어쩌죠?"

자작 부인의 여린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곧 펼쳐질지도 모를 지옥이 스쳐 지나갔다.

가을 낙엽처럼 바싹 말라 바스러질 친숙한 얼굴들과 곪은 상처로 고통스럽게 죽어갈 이름 모를 청년들, 화려한 불꽃의 춤사위 사이로 장작더미처럼 쌓아 올려진 가련한 인생.

"설마, 내일 오기로 한 약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매니시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머니의 질문 위로 얹어졌다. 아무도 그녀의 무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자작의 시선은 매니시의 눈빛을 피해 바닥을 맴돌았다.

"안타깝지만 당장 먹을 것도 빠듯하다. 지금 있는 걸 최소한으로 배급하더라도 보름 정도 버티는 게 최선이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선, 그마저도 차등을 두고 배급해야 할 것 같구나."

군화에 짓밟히고 피를 먹은 밭은 좀처럼 소산을 내지 못했다. 세금을 면제해도 영지민의 굶주림은 끊이지 않았고 마지막 동아줄로 붙들고 있던 것이 자작의 자금이었다.

배급이 끊기면 전쟁터 못지않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 분명했다.

"차등을 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뜻이오."

"누가요? 뭘 근거로?"

"내가. 일단 살 가망이 낮은 자들부터 제하고, 그리고..."

제법 냉정하게 시작했던 자작의 말은 금세 울음 섞인 소리로 변했다. 더는 그의 말이 이어지지 않자 집무실에는 구역질을 삼키는 듯한 소리만 울렸다. 과하게 힘이 들어가 부르르 떨리는 자작의 턱 끝에 투명한 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결국 다 죽겠죠. 당신이 살려놓은 사람도, 당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도.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제국 사상 최악의 영주."

"엄마!"

"여태 괜한 고생을 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남들처럼 몸 사리고 있는 건데, 그랬으면 적어도 살 사람은 살았겠죠. 당신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엄마 왜 그래요. 아빠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알잖아요."

어깨를 떨던 자작이 이내 무너졌다.

그는 날 선 말과 다르게 다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아내를 피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아비의 우는 모습에 매니시는 숨이 막혔다. 존경하는 아비였다. 그녀가 아끼는 드레스와 장신구들을 팔기 위해 가져가실 때조차도 그랬다. 그녀가 처음 주방일을 돕고 숨죽여 운 날, 자랑스럽다 웃던 아비.

어깨 한 번 움츠리는 법 없던 듬직한 등을 보고 자랐다. 그녀뿐 아니라 가르송과 영지민들 누구든 그랬다.

그런 아비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었다. 누구에겐가 모를 사죄와 함께. 구부정하게 숙인 몸은 작고 불쌍해 보였다. 도망치듯 고개를 돌린 매니시의 입에선 막힌 숨인지 신음인지 애매한 것이 새어 나왔다.

"그러게 아직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목소리와 함께 자작 부인은 마치 어미가 아이를 어르듯 자작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토닥이는 손을 머리에 얹은 채 고개를 든 그가 부인과 마주 봤다. 헝클어진 머리에 빨개진 코가 언뜻 철없는 아이같이 보였다.

부인은 좀 더 분명해진 목소리로 재차 말했다.

"아직 팔 수 있는 게 남았어요."

"뭐?"

매니시는 저도 모르게 잘 땋아 내린 머리를 매만졌다. 자작 부인이 본인의 머리카락은 내 팔면서도 절대 안 된다며 지켜준 머리카락이었다. 북부에서도 드물게 나는 그녀의 고운 백발은 제값을 톡톡히 할 터였다.

그러나 시선이 마주친 자작 부인은 고개를 젓고 있었다. 그녀의 고갯짓을 따라 살랑이는 머릿결은 더할 나위 없이 산뜻해 보였다.

"여기. 이 영지요."

울음소리가 그친 집무실에는 별안간 치열한 침묵이 흘렀다. 뜻밖의 말에 대한 충격 때문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무슨 영지? 그게 뭐요?"

자작 부인의 어깨가 잘게 흔들렸다. 남편의 바보 같은 질문에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차가워진 손끝에도 온기가 돌았다.

"레우카스 영지요. 일찍 병자들을 추방했던 영지 중에 꽤 상황이 괜찮은 곳도 있대요. 알아보면 그들 중에 영지를 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돼!"

멍청한 표정을 거둔 자작의 대답은 빨랐다. 그는 어느새 부인의 손길도 뿌리치고 익숙한 영주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매니시는 갑자기 애통에서 불화로 건너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눈을 굴렸다. 그녀의 눈에 내내 고여 있던 눈물은 종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채였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지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작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한 마디를 뱉고 입을 다물었다. 철없는 아내에게 실망한 마음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아내는 떼쓰는 사내애처럼 구는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당신한테 레우카스가 그냥 땅 이름이었는지 몰랐네요. 제게 레우카스는 화목한 집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고 그늘 없이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예요."

우리가 이미 잃은 것들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작 부인의 얼굴은 이상했다. 그녀는 절망과 희망이 각각 반씩 뒤섞인 얼굴로 뚫어져라 자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레우카스들의 고향이고 무덤이오."

눈이 먼저였는지 음성이 먼저였는지 부인과 마주한 자작은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그는 내팽개쳤던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젠 당신 곁이 내 고향이고 무덤이 되겠군. 하지만 괜찮겠소? 영지를 잃은 귀족은 목숨보다 더한 것을 잃는 것이오. 평생 저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소."

그는 언제나처럼 그 자신보다 그녀를 걱정했다. 그녀가 존경하는 영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에 자작 부인은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당신의 명예도 긍지도 이 땅에 살아있을 거예요."

자작 부부는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처럼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매니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눈을 힘껏 깜빡였다. 매니시가 기억하는 인생 내에서 자작 부인은 언제나 여리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새로 생긴 무덤 앞에서 울다가 제 품에 쓰러지던 눈물 많고 약한 어미.

그러나 자작의 손을 잡고 울고 웃는 여인은 기사처럼 커다랗진 않았지만, 단단했다.

커다란 북소리가 조용한 방안을 둥둥 울렸다.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진 명확했다. 사실 방 안은 조용한 편이 아니었고, 벅찬 가슴이 다 못 담아낸 고동은 매니시의 온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

어떤 예감이 들었다, 기다리던 전쟁의 끝도 머지않았다는. 차마 꿈에서조차 기대치 못했던 승리는 여인의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아니라 우리겠지. 우리의 명예와 긍지. 난 참 운이 좋아. 이렇게 현명한 부인을 두었으니까. 내일부턴 바빠지겠소."

꽤나 맥이 빠진 목소리였지만 자작의 얼굴에도 후련함이 비쳤다.

그는 붙들고 있던 부인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가녀렸던 손은 요사이 거칠어져 그의 손안에 꼭 들어찼다. 그 느낌이 든든해 자작은 작게나마 웃을 수 있었다.

"당신에 비하면 멀었어요. 전 당신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요?"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당신이 포기하기 전에 제가 설득하는 게 마땅한 일이었는데, 미안해요. 당신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입이 안 떨어졌어요. 두려워서. 난 이 일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결정을 내리고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고요."

자작은 자책으로 물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내내 마주 잡아 따듯해진 손을 들었다. 거칠어진 손과 달리 여전히 부드러운 살결이 닿았다. 그는 마치 거센 풍파에도 헤지지 않는 그녀의 상냥한 마음 같았다.

"내가 요새 나무를 하러 다니긴 하지만 이래 봬도 영주잖소."

자작 부인은 볼에 와닿은 위로에 기대 작게 웃었다.

"맞아요. 당신은 훌륭한 영주예요. 지금까지도 아주 잘했고, 앞으로도 잘하리란 걸 믿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 이렇게 힘내지 마세요. 늦었지만, 앞으론 내가 당신 옆에 제대로 서 있을게요."

자작은 젖은 목소리로 말을 마친 부인을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훌쩍이는 소리는 서로의 품속에서 점차 소리를 더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매니시가 문을 나서며 집무실을 돌아보았다.

돌아본 집무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값나가는 책들은 모두 내다 팔리고 고풍스러운 책장은 쪼개져서 땔감이 되고, 그간의 재앙이 매니시 가족에게서 앗아간 많은 것들의 빈자리가 보였다.

그러나 그 시간이 선물한 것도 있음을 그녀는 오늘 알았다.

귀족으로서의 체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집무실. 본인도 아직 모를 ‘아가씨’의 이야기는 3년 전 그 초라한 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배달 왔습니다, 신관님!"

늙은 노새가 끄는 수레에는 나무 상자와 누런 포대들이 가득 실려있었다. 사방에 퍼지는 씁쓸한 약초 향은 속을 보지 않아도 물건의 정체를 알게 했다.

때문에 노새만큼이나 늙은 마부의 우렁찬 목소리에 헐레벌떡 뛰어나온 신관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렇게나 뻗친 머리를 한 신관부터 기름진 머리를 모자로 누른 마부까지 이 수레를 기다리지 않은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뭐가 급해서 머리도 못 빗고 나오셔요. 이 약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요놈 무릎이 안 좋아서 아주 어르고 달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떼니까 걱정 마십쇼."

타박하는 말투와 달리 다정한 손이 노새의 귀 사이를 훑었다. 오래간만에 듣는 마부의 농이었다. 그의 농담은 뾰족한 구석이 있는 편이라 싫어하는 이도 많았다. 그러나 그도 오랜만에 들으니 웃음이 나오는지 신관은 연신 싱글벙글했다.

"애들을 보던 중이라 얼른 옮기고 다시 들어가야 해서요."

새가 둥지를 틀 듯한 머리에 헤실거리는 얼굴은 결코 위엄있거나 경건해 보이진 않았지만, 레우카스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얼굴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신관의 어깨에 짐이 얹히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그것이 설령 마른 풀에 불과할지라도.

"가르송은 어디 가고요? 가뜩이나 할 일도 많으신 분이."

신관의 어깨에 있던 짐을 뺏어 든 마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뜩잖은 듯 콧등을 찌푸렸다. 아무리 찾아도 항상 빨빨거리며 부지런히 돌아다니던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르송은 아가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하니까요."

"...거참, 벌써 그렇게 됐군요."

통통 튀던 마부의 음성에도 무거운 추가 매달렸다.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지던 약초 꾸러미는 눅진한 감정이 섞이자 한 걸음 떼기도 힘들만치 무거워졌다. 흰 머리가 성성한 그에게도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은 그런 것이었다.

"아마 할 말이 많겠죠."

수레에서 다른 짐을 꺼내든 신관의 시선이 열 지어 누운 지붕들 너머 초록빛 어른거림을 찾아 멀어졌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영주 성을 중심으로 퍼진 민가 끝자락, 성당과 멀지 않은 골목에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여느 민가의 빛바랜 나무 지붕과 달리 선명한 초록색 지붕에 넓은 창이 여러 개 달린 아담한 주택. 커튼도 없이 거리로 나 있는 큰 창은 고요히 줄지어 선 책장들을 담고 있었다.

매니시와 가르송은 그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책장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간신히 가르송의 발끝을 간질였다. 그들의 머리 위에 벽등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불을 붙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도 공간은 충분히 밝았다. 그들이 앉은 구석 자리는 어둠을 한 겹 더 입고 있었지만 매니시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들었다.

매니시는 벽과 책장 사이에 쪼그리고 앉은 탓에 시야가 좁았지만, 고개를 쭉 빼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은퇴한 책 상인이 레우카스에 자리를 잡으며 영주와 함께 일궈낸 이곳은 영지의 자랑거리였다. 아카데미의 도서관이나 귀족의 서재처럼 정숙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영지민들의 학구열이 살아 숨 쉬는 곳이었다.

요리책을 정독하는 예비신부, 실감 나는 노인의 구연동화, 몰입한 아이들의 탄성, 구석에 앉아 자기들만의 동화책을 만드느라 바쁜 어린 매니시와 가르송이 있었다. 전쟁이 앗아가기 전에는.

시장통처럼 북적이던 도서관에 울리는 것이라곤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다.

"지금 아니면 인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잘 있어."

매니시는 가라앉는 마음을 뒤로하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가르송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치맛자락처럼 잔뜩 구겨진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언제 가는데?"

"모레 아침에."

가르송은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빼앗긴 사람처럼 황망한 얼굴로 물었다.

"그렇게 급하게?"

"새 영주 오기 전에 성을 비워줘야 하니까."

매니시라고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정든 집과 친구를 떠나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가르송의 얼굴에 비하면 그녀의 얼굴은 태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가르송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얼굴이었다.

그는 최근 들은 소문을 떠올렸다. 종전, 그것도 승리라 불릴만한 것에 대해 다들 떠들고 있었다. 크로쿠타국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해왔다는 소문은 꽤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은 제멋대로 협정서의 조항들까지 상상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영지에 들른 상인들은 하나같이 레우카스 자작을 비웃었다. 그의 바보 같은 선택에 대하여, 코앞의 전쟁 보상금을 못 기다려 영지마저 뺏긴 천하의 머저리라고. 시한부 영주는 대놓고 씹기 좋은 그네들의 안줏거리였다.

"어떻게든 조금 더..."

"가르송. 이거 생각나?"

매니시의 손가락 끝이 그들 앞의 책장 구석을 가리켰다. 딱 봐도 인기 없어 보이는 책들이 헐겁게 서 있었다. 그러나 가르송은 매니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손가락은 지금 그들의 눈높이엔 맞지 않았지만 어린 그들의 눈높이에는 딱 맞았을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꺼운 책들 사이로 힘겹게 버티고 선 얇은 녀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보면 엄청 유치할 거야? 그래도 이거 쓸 때 정말 재밌었는데."

'갈란투스 꽃잎 아래'

그녀가 빼든 책 표지에 엄청난 악필로 적혀있었다. 팔꿈치로 가르송의 옆구리를 찌른 매니시가 장난스레 입을 뗐다.

"글씨가 이게 뭐냐? 너 이땐 악필이었네."

"이거 네가 쓴 거야, 바보야."

상상을 옮겨 적던 그 옛날처럼 머리를 맞댄 두 사람은 어느새 입가에 미소를 달고 있었다. 안 그래도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이 술술 넘어갔다. 마지막 장을 잡은 매니시가 가르송의 웃는 얼굴을 돌아봤다.

"이 책이 십 년, 이십 년 후에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매니시는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을 덮어 가르송의 품에 안겨줬다.

"우린 버틸 만큼 버텼어. 더는 무리야. 더 버티면 십 년 후에는 그 책을 여기서 못 볼걸? 책도 이곳도 망가지겠지.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영주님이고 싶지는 않은 거야."

책을 끌어안은 가르송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확신해? 잘 풀릴 수도 있잖아. 오히려 영주님이 안 계셔서 이곳이 망가질 수도 있고."

"너랑 신관님이 있잖아. 영지 대금이랑 이곳도 이미 신전 재산으로 올려놨어. 그래야 새 영주도 못 건드릴 테니까. 할 일 많아서 어쩌니. 열심히 해봐."

매니시가 키득거리자 가르송은 신음 섞인 한숨을 쉬었다.

"웃음이 나와?"

"그러게, 나오네. 요즘 좀 그래. 아침 먹을 땐 왠지 뿌듯해서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인데 점심 먹고 나면 떠날 생각에 얹히고, 저녁 먹을 때쯤엔 또 스스로 자랑스러워서 또각거리며 걷는 거야. 그러다 침대에 누우면 무서워서 가슴이 벌렁거려."

"너만 그런 거 아냐. 나도 그래. 신관님도, 기사 아저씨들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책 영감님은 같은 페이지를 일주일 내 읽으시더라."

"그거 고맙네, 다들. 특히 너. 넌 정말 좋은 친구이자 오빠였어, 가르송."

"그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지 마. 그리고 아까 너 안 어울리게 영주님께 아버지라 그랬지? 나 소름 돋았었거든."

가르송은 팔을 걷어 아직도 쭈뼛 서 있는 털들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언제나 그랬듯 키득거리던 소리를 키워갔다. 창문 너머 조용한 거리로 매니시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더없이 산뜻한, 그런 이별이었다.

"얼마냐니까?"

그리 오래지 않은 추억에 잠겨있던 매니시는 억지로 눈을 떠야 했다. 가래 낀 한 사내의 음성 때문이었다.

사내의 손에서 턱까지 떠올랐던 동전이 천박한 소리를 내며 다시 손으로 떨어졌다. 매니시는 보지 않고도 그 동전이 제일 작은 동화일 거라 짐작했다. 영지를 나선 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낯선 사내의 이런 질문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았다.

"안 팔아요."

단호하게 대답한 그녀는 귀찮은 사내를 피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친척 집에 방문한 자작 부부와 동행하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랬다면 돈 많은 친척에게 동정받을지언정 매춘녀로 오해받진 않았을 테니까.

그녀가 이런 대답을 우물거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옳은 대답 속에서도 수치심은 여전히 그녀의 꽁무니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사내 또한 그녀의 꽁무니를 놓치지 않았다.

"아니긴, 아까부터 여기서 살랑거리는 거 다 봤어. 흥정하자는 거야?"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 매니시의 귓가에 대고 비웃은 사내가 곧 그녀를 잡아끌기 시작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매니시는 그에게 잡힌 팔이 목줄이나 된 듯 끌려갔다. 그녀의 닳은 구두는 쉽게 미끄러져 사내의 일을 한층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거, 놔요! 난 몸 파는 여인이 아니에요!"

매니시가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꽤 있어도 그녀와 시선을 맞추는 이는 없었다. 예상하던 일이었으나 사람들의 외면은 여전히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가슴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뜨거운 기운이 그녀의 얼굴을 붉히고 눈가를 간지럽혔다. 매니시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비록 이런 차림이나 엄연히 귀족이고 영주님의 친척이다. 이 영지는 영주의 손님에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제법 기세등등한 그녀의 눈빛에 방관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들었다. 날씨에 안 맞는 가벼운 옷차림과 풀어헤친 희귀한 백발은 인기 좋은 매춘녀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사내에게 손목을 잡히고도 꼿꼿한 몸 선은 그녀를 귀한 사람처럼 보이게도 했다.

사내는 미처 몰라뵀다는 듯이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아픈 손목을 제대로 매만지기도 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사내가 그녀의 손목 대신 새로운 목줄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니시의 머리칼을 쥐고 있었다.

"아이고, 아가씨셨습니까? 그거 잘됐네. 내가 예전부터 소원이 아가씨 한 번 자빠트리는 거였거든."

사내는 정말로 유쾌한 듯 웃으며 그녀의 머리채를 끌었다. 매니시는 고통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더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짐승 같았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었으며, 하녀의 노련한 솜씨는 아니었으나 스스로 머리를 정돈할 줄도 알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채곤 했다.

그녀가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계단을 내려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낯선 그녀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정작 짐승 같은 자도 짐승같이 끌려가는 매니시도 그녀가 흘린 눈물길을 밟고 따라오는 진짜의 기척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는 좁은 골목길로 나 있는 낡은 문 앞에 와서야 매니시의 머리채를 놓아주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머리채가 잡힐 줄 모르고서 말이다.

"아악! 어떤 새끼야!"

"사람 새끼."

머리채가 잡힌 사내보다도 불량한 느낌의 남자가 대답했다.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은 매니시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 하고 눈앞의 활극을 지켜봤다.

길게 찢어진 눈에 날카로운 선이 매력적인 남자였다. 실상 얼굴만 보자면 불량스럽다기보다 잘생긴 축이었지만, 평민처럼 까맣게 탄 피부에 신관복을 입은 모습이 위화감을 조성해 불량스러워 보이는 듯했다. 매니시도 오래도록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신관복 특유의 하얗고 긴 망토는 남자의 허리춤에서 뚝 잘려있었고 드문드문 갈색 문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양의 정체는 곧 알 수 있었다. 남자의 주먹이 사내를 칠 때마다 망토에는 싱싱한 붉은 문양이 늘어갔다.

"그러다 죽겠어요! 그만 하세요."

아랑곳없이 타격음이 이어졌다. 매니시는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그가 자신을 발견해주길 바라며 몸을 떨었다. 안타깝게도 남자의 주먹질이 끝난 것은 그녀 때문이 아니라 사내의 의식이 끊겼을 때였다.

그는 막 청소를 끝낸 사람처럼 손을 털었다.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손수건을 건넸다. 그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사람처럼 제 망토를 끌어다 손등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창녀? 귀족? 어느 쪽이야?"

남자의 질문에는 순수한 의문만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 악의 없는 질문이 매니시는 사내의 거친 손속보다 더 아팠다. 영지를 나온 후 계속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게 할 만큼.

"아니에요, 어느 쪽도. 귀족이었죠."

남자의 눈동자가 잠시 매니시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긴 머리칼을 꼭 붙잡고 있었다.

"어느 쪽도 아니면 분명히 해. 귀족도 아닌 여자가 그런 거추장스러운 머리라니 창녀밖에 더 있어?"

매니시는 멍한 눈을 제 머리칼에서 떼지 못했다. 남자가 자리를 뜨고서도 한참을, 정신을 차린 듯한 사내의 신음이 울릴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매니시는 결국 머리를 자르진 않았다.

짧은 머리에 두건을 쓴 시골 아낙 같은 모습의 자작 부인은 식은 빵 덩어리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 힘없이 뒤따라오는 자작의 주머니는 또 볼록하게 처져 있었다. 동정의 차가운 냄새를 풍기는 동화가 서로 몸을 부딪치며 상처 입는 소리가 들렸다.

레우카스들이 도움을 구하러 찾아간 가족들과 친구 누구도 적선 이상을 베풀진 않았다. 단 하룻밤의 따듯한 잠자리도 상냥한 위로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번째로 등 떠밀려 내쫓긴 이후, 레우카스 부부는 딸을 떼놓기 시작했다. 동정을 품에 안고 조롱은 삼켜도 돌아올 땐 기어코 웃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너무 귀해서 매니시는 머리를 자를 수 없었다. 그간 매니시는 귀족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았다. 레우카스의 핏줄은 영지를 벗어나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귀족은 비싼 드레스와 보석, 마차와 시종, 하녀와 기사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레우카스 부부는 너무 빛나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에 정말 귀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건 저 두 사람이어야 한다고 매니시는 다짐했다.

그래서 매니시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대답하고 싶었다. 귀족이에요, 저 두 사람의 딸인 나야말로 누구보다.

결국 매니시는 머리를 자르는 대신 틀어 올렸다. 유부녀들이나 하는 머리 모양에 자작 부부는 놀란 모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결의였다. 귀족의 조건이 돈이라면 그 조건대로 되찾을 것이었다.

결의를 가슴에 품은 채, 레우카스들은 남부로 이동했다. 북부 시골 영지부터 제국의 반절을 훑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연민과 조롱에 등 떠밀려 조금씩 내려온다는 것이 어느새 제국의 남부, 풍요와 귀족들의 집결지, 수도 입성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튼튼해 뵈는 동아줄이 도착한 것도 그쯤이었다. 매니시의 외숙부가 보낸 초대장은 친척 집을 돌고 돌아 기적적으로 레우카스 자작의 손에 들어왔다.

말 한 마리에 수레, 여벌 옷뿐이던 짐도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아버리고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맨몸 입성이었다.

레우카스 가족은 검문을 위해 늘어선 긴 행렬 끝에 섰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경비병이 지키고 선 문 너머의 소란스러움이 들리는 듯했다. 레우카스 영지를 비롯한 사람들의 빼앗긴 행복이 모두 다 그 너머에 모여있는 것 같았다.

성벽 안이고 밖이고 축제 분위기에 물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빠른 박자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검문을 위한 줄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경비병들이 평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사람들을 통과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유로운 분위기였냐 하면 레우카스 자작이 경비병 앞에 섰을 때 그의 신분이 귀족이란 것을 확인하고도 대놓고 비웃을 정도였다.

그들 가족이 구색이 안 맞는 옷을 아무렇게나 껴입고 있어서였다.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길 위에서 겨울을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봄의 초입, 비웃음당했을망정 기적처럼 온전한 몸으로 성문을 넘은 그들은 저 앞의 승전 행렬이 부럽지 않은 마음이었다.

"여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신식의 깨끗한 이 층 저택이었다. 덩굴이 늘어진 우아한 담이나 보초를 서는 기사 한 명 없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붉은 벽돌이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다. 어쩌면 앞으로 그들을 품어줄 집이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보이는지도 몰랐다.

자작이 애써 담담한 얼굴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애가 타는지 그는 잠깐새 침을 세 번쯤 삼켰다. 그는 손안의 편지를 꼭 쥐며 마음을 다졌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만일 편지였지만 당장 기댈 곳이라곤 그 종이 한 장이 다였다. 거절당하면 이젠 정말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신세였기 때문이다.

자작의 긴 기다림과는 달리 실상은 초인종이 끊기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잘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였다. 자작 부인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저의 오라비를 한눈에 알아봤다.

"오라버니."

여행길 내내 의연했던 자작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신사는 대답도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기억에 그녀는 원체 어리광이 많은 동생이었다.

"왜 이제 왔어."

그의 말에 자작의 어깨를 굳히던 힘이 빠졌다. 셋 중 누군가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토해졌다. 그 소리가 동생의 어깨에서 추억에 젖어있던 신사를 건져 올렸다.

그가 자작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남작가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작위를 물려받지 않은 그는 평민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장인의 지지를 빌어 유명 상단의 실세로 있는 그는 여느 귀족 못지않은 부유한 차림새였기에 레우카스 자작은 그의 정중함이 낯설게 느껴졌다. 고작 반년만의 변화였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저택은 평민들이 거주하는 근방에서 손꼽히는 크기를 자랑했지만, 그의 말 또한 진심이었다. 귀족들의 저택에 비하면야 평범한 집이었다. 그러나 겨우내 바람을 막아줄 벽과 지붕을 꿈꾼 매니시에게는 그 초대 말이 사치스럽게 느껴져 웃을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귀족과 부유한 평민 가족의 북적이는 동거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 경비병들은 근무시간에 왜 웃고 있지?"

남자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말했다. 그는 승전 행렬의 중심, 제국의 깃발들 사이로 화려하게 치장된 백마를 타고 있었다.

진작에 성문을 넘었던 그는 행진이 지연되며 수 시간째 성문에서 잡혀있었다. 설상가상 겨우 시작된 행진은 인파에 막혀 진행이 더딘 상태였다. 그러니 경박하게 낄낄거리는 경비병의 모습은 남자의 타는 인내심에 기름을 부었다.

"저들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온 국민이 들떠있을 겁니다."

그의 옆에서 밤색 말을 타고 따르던 기사가 즐거운 얼굴로 대답했다.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펴질 줄 모르고 경비병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제야 그의 시선을 따라간 기사는 순식간에 얼굴을 굳히고 말을 가까이 붙였다.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알아볼까요?"

"당연히 신경 쓰이지.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데 평소보다 긴장하지는 못할망정 저런 꼴이라니. 당장 가서 경비대장 불러와."

남자는 대답도 듣지 않고 행렬 무리에서 빠져나갔다. 명령을 들은 기사는 흰 말의 엉덩이를 향해 아련하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나름 이런 일에 단련이 되어있던 기사는 이미 경비초소를 향해 말의 행로를 틀고 있었다.

저들의 앞에 닥친 불행을 모르는 경비병들을 등지고 구멍 난 승전 행렬이 황궁을 향해 나아갔다. 구멍의 당사자는 어쩐지 신나 보이는 얼굴로 경비병들의 햇살을 가리고 섰다.

매니시가 목이 말라 식당을 찾았을 때였다. 식탁 위에 하녀가 준비해둔 컵과 물 주전자를 집어 들던 매니시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귀족이랍시고 일도 안 하고 매일 빈둥거리기나 하고 그렇다고 품위가 있길 해, 능력이 있길 해? 하여간 그 가족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맘에 안 들어."

언니라고 불리는 게 어울릴 정도로 젊은 외숙모의 목소리였다. 맞장구를 쳐주다가 드문드문 타이르기도 하는 하녀의 목소리도 들렸다. 외숙모가 그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녀에게까지 흉을 보는 그녀의 태도에 매니시는 뒤통수가 얼얼했다.

"이러다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내 팔자에 갑자기 웬 귀족 시누이 시중이냐고."

매니시는 한 모금쯤 마신 물컵을 내려놓고 식당을 나섰다.

"그래도 좋은 분들 같던데요. 귀족분들이래서 처음엔 좀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에요. 아기 도련님도 새로운 가족이 마음에 드신 눈치고요. 매일 숨어다니시면서도 근처만 맴도는 게."

"그게 싫어! 내 아들인데, 원래는 나만 졸졸 쫓아다녔었는데!"

"하여간 부인은 질투가 많으셔서 탈이에요."

매니시는 뒤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도 모르고 방에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녀의 서랍 구석에서 평민 소년들이나 입을 법한 셔츠와 바지가 나왔다. 옷을 갈아입은 매니시가 허리춤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남녀공용으로 신을 만한 무난한 단화를 신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년의 모습이 되었다.

거울 앞에서 평소처럼 머리를 틀어 올린 그녀는 이내 흰 스타킹이 보이도록 바지를 걷어 올렸다. 그 위에 길게 내려오는 로브까지 걸치니 그럭저럭 치마를 입은 것처럼 보일 듯했다. 거울을 보며 제 차림새에 만족한 매니시는 마지막으로 침대에 올려놓았던 갈색 털 뭉치를 품에 숨기고 방에서 나갔다.

"어디가요."

운 없게도 그녀는 마침 식당에서 나온 외숙모와 마주쳤다. 외숙모는 만난 지 일주일째인 오늘까지도 계급과 관계 사이에서 헤매느라 호칭을 못 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매니시에게 말을 붙이지도 않았지만, 몇 번 안 되는 필요한 순간엔 저렇게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곤 했다.

"일자리 알아보러요. 다녀오겠습니다."

짧게 대답한 매니시는 집을 나서 요 일주일간 익숙해진 거리를 걸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닌 길이었다. 처음 사흘은 가난한 귀족 여성으로서 이 길을 걸었다.

관광객의 어깨에 치이고 헤매가며 도시를 익힌 매니시가 깨달은 것은 그녀가 철저히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았다. 부엌일이나 식당 종업원, 하녀일 같은 몸을 쓰는 일이 주를 이뤘다. 글이나 기본 교육을 받은 여자가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점이 매니시가 자신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녀는 귀족으로 살며 고등 교육을 받았고 여느 귀족 여성보다 몸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상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매니시가 어떤 삶을 거쳐왔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 눈에 비친 매니시는 단지 몰락한 귀족가의 여식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아집만 남은 가여운 아가씨, 그것이 세상에 비치는 그녀였다.

잠깐 멈춰서 의상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던 매니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으로 몸을 틀었다. 머리에 망을 쓰고 품속에서 꺼낸 것은 갈색 뭉치가 된 짧은 가발이었다. 손가락으로 몇 번 쓸어내리고 머리에 쓰니 영락없이 이쁘장한 소년의 모습이었다. 손거울을 꺼내 머리를 확인하고 골목을 나서던 매니시는 주춤하더니 허리를 숙여 바지를 다시 내렸다. 이제야 완벽했다.

나흘째 되던 날, 매니시가 외숙부에게 받은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가발과 구두, 옷 한 벌뿐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걷는 거리는 자유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비웃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즐거움과는 다르게 일자리를 구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이 보기에 그녀는, 아니 소년은, 부실한 몸에 쓸데없이 사건을 일으킬 듯한 이쁘장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신원이 불분명한 고아였다. 혹자는 글과 산수를 할 줄 아는 그가 가출한 도련님이라 생각해서 거절했고 혹자는 보이는 그대로의 소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일 취업 낙방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다.

그런지도 일주일째, 그녀의 구직 열기는 한풀 꺾여있었다.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걷는 그녀는 누가 봐도 마지못해 길가의 상점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1초 이상 그녀의 시선을 잡아두는 곳이 없었다. 지난 엿새 동안 다 들러본 곳들이었기 때문이다.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는 사흘 전에 끝났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늘 우연히 주방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말마따나 매니시는 집에서 빈둥거릴 계획이었다.

힘없는 걸음걸이에 깊은 한숨까지 내쉬는 소년은 가련하기 짝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부산스레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다. 어느새 얼굴이 익은 소년이 원하는 바는 그들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다. 매니시는 자신이 지나갈 때면 두 배는 더 바빠 보이는 상인들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입을 삐죽이던 매니시는 상점이 드물어지는 거리에 들어서자 점점 빨라지는 제 발걸음을 몰랐다. 두리번거리던 고개도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미련 없이 시장을 벗어나던 그녀의 발을 잡은 것은 이제 막 진열을 시작한 빵집이었다. 매니시는 사이좋게 놓인 빵 두 개를 집어 들었다.

그녀는 갓 나온 따끈한 빵이 미지근해질 때쯤 제2 광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중심가의 광장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조형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색색의 타일로 제국의 문양을 그려낸 바닥은 감탄을 절로 자아냈다. 제2 광장은 축제나 각종 행사의 단골 섭외장소로 얼마 전 승전 행렬이 지나간 곳도, 축제의 중심부도 이곳이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지금 이곳은 하품이 날 만큼 한가로운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매니시의 조급한 걸음에 광장을 누비던 새 두 마리가 포르르 날아가 버렸다. 그녀의 걸음에 닿았던 웬 노인의 시선도 스치듯 날아간다. 그녀는 오늘도 일광욕 중인 노인들을 피해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나무 아래 자리한 낡은 벤치는 제법 운치 있었지만, 햇살이 닿지 않아 그다지 인기 있는 자린 아니었다. 그런데도 벤치에는 벌써 삼 일째 선객이 있었다.

후드를 쓴 사내였다. 후드는 언제나처럼 하관을 덮는 형태여서 매니시는 간신히 그의 코 근처만 볼 수 있었다. 수상한 차림새에 대한 경계쯤이야 뛰어넘은 지 오래였기에 그녀는 그와 살짝 떨어진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았다.

매니시는 봉투 안에서 빵을 꺼내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식사용 호밀빵이었다. 빈 봉투를 구겨 주먹 안에 쥔 매니시가 말했다.

"문 열자마자 갔더니 선택지가 이거뿐이었어요."

빵을 받아든 사내가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것이 긍정의 표시인지 감사 표시인지 알 수 없던 매니시는 후드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사내의 눈을 흘깃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빵을 먹기 시작했다. 축제가 끝난 사흘 전부터 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사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도시 안에서 매니시에게 가장 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커다란 덩치에 수상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에게 흐르는 낯설지 않은 분위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일자리를 찾아 발품을 팔다 쉬어가는 소년의 애환과 닮은, 그도 아니면 한순간 거리로 내쫓긴 물정 모르는 영애의 가련함과 닮은.

빵을 한 입 뜯어먹은 매니시는 외숙모의 말이 없었어도 집에서 빈둥거리겠다는 계획은 이루지 못할 일이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도 매니시에게서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일까, 이 소꿉장난 같은 식사 시간은 그가 시작한 것이었다. 덕분에 이제 매니시도 알 수 있었다. 호밀빵이 사내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요."

그가 생각하는 예의가 딱 그만치였는지, 사내의 손에 들려있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빵은 두 입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두 손으로 빵을 들고만 있는 남자는 처음이었지만, 가련해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왜지?"

사내는 빵을 노려보던 얼굴을 들어 갸웃거렸다. 매니시의 입가가 실룩였다. 그녀는 사내가 이럴 때마다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후드 안에 어떤 얼굴이 숨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는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갔다.

"부모나 선생님이 아닌 이상 누구도 억지로 권할 자격은 없잖아요. 싫은 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말은 싫은 걸 참고 억지로 먹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었지만, 남자는 싫은 사람이 건넨 빵을 먹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넌 싫지 않다. 이 빵이라면 모를까."

"내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 빵 싫으면 저 도로 주세요."

매니시는 눈을 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내내 사람들에게 거부만 당하다 듣는 '싫지 않다'는 말은 꽤 달콤하게 느껴졌다.

사내는 매니시의 웃는 얼굴에 홀려 그녀의 작은 손 위에 제가 먹던 빵을 내줬다. 내내 난감해 어찌할 줄 모르는 얼굴만 보다 저를 향해 기쁘게 웃는 얼굴은 호수 위에 뜬 한 장의 나뭇잎처럼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내가 자신의 실례를 깨달았을 때는 그가 먹던 빵이 대충 핀 봉투로 돌아간 후였다. 매니시가 쭈글쭈글한 빵 봉투를 툭툭 쓸고 있을 때 그는 평소 당황했을 때의 습관대로 남다르게 대처했다. 일단계는 쓸데없이 근엄한 훈계였다.

"전쟁터에서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중징계 감이야."

적어도 그의 억양과 목소리는 근엄 왕이었다. 여기서 문제점은 편식한 것도 그였고 떠넘긴 것도 그였다는 것과 전쟁이 끝났다는 것, 이곳이 승전국의 수도, 그것도 노인들이 햇볕을 쬐러 나오곤 하는 한가로운 광장의 한구석이라는 점이었다. 말을 하고 보니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무의식중에 이단계로 돌입했다. 난데없는 침묵이었다.

후드에 가려 보이진 않았지만, 사내의 동공은 허공을 떠다니는 먼지를 따라 정처 없이 유영하고 있었다.

매니시는 뜬금없는 말을 던지고 침묵하는 그를 황당하게 바라봤다. 수상쩍은 후드를 쓴 사내가 입까지 다물면 음산한 분위기가 흘러야 할 것 같은데 그를 감싼 공기는 앙증맞은 노란색이었다. 그녀는 후드 사이로 유일하게 보이는 코끝에서도 그의 당황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남자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아깝게 왜 버립니까.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했습니다."

"...좋아."

그의 대답과 동시에 매니시는 창피한 소리를 내며 웃음이 터져버렸다. 전혀 숙녀답지 못한 웃음소리였지만 매니시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지금 소년이었고 오랜만에 아주 즐거웠다.

"왜 웃지?"

궁금하긴 했지만, 사실 그는 이 웃음소리가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랐다. 예쁘게 정돈되지 않아 더 듣기 좋은, 그가 좋아하는 웃음소리였다. 그는 한때 이런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향했다. 제가 너무 몰랐는지 세상이 변한 것인지, 돌아와서 쭉 낯설기만 했던 세상이 이제야 제가 아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웃느라 숨이 찬 매니시가 헐떡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라던 명쾌한 대답은 아니었다. 그의 분위기가 날카롭게 벼려졌다.

"어떻게 알았나."

"악! 그만 웃겨요!"

그의 분위기가 날카롭든지 말랑하든지 광장 구석의 심각도는 오리 궁둥이가 실룩이는 수준이었다.

그도 더 이상 진지하기가 어려웠다. 분위기 잡고 말한 결과에 내심 당황한 그는 다시 일단계로 돌아갔다.

"웃음에 품위가 없군! 시정하도록."

매니시는 그의 패턴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대답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좋아!"

결국 매니시는 그가 바란 대로 시정하지 못하고 또 품위 없게 웃어 재끼고 말았다. 침묵하기에 돌입한 사내 옆에서 그녀는 한참을 더 웃고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붉게 달아오른 볼은 광장을 장식한 그 어떤 꽃보다 생기가 넘쳤다.

"각 잡고 그런 식으로 훈계한 게 몇 번인데 그걸 몰라요. 게다가,"

매니시는 숨을 멈추고 찔끔 새어 나온 눈물을 닦았다.

"내가 각 잡고 대답하면, 항상 '좋아.'라고, 힘차게 대답하잖아요!"

중간중간 비집고 나올 기회만 엿보는 웃음을 부여잡느라 뚝뚝 끊긴 말 사이로 사내의 민망한 헛기침이 들어찼다.

그의 헛기침은 매니시를 더 즐겁게 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지난 사흘 중 가장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새들에게 빵을 조금씩 떼주던 매니시는 사내의 눈치를 살폈다. 기분 탓인지 그도 조금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이참에 근질거리는 입을 풀어놨다. 시작은 조금 신세 한탄 같았다.

"날 써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를 위해 뭔가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쪽은요? 왜 매일 이러고 있어요?"

"비슷해."

"에이, 그쪽은 이미 멀쩡한 직업이 있잖아요."

"전쟁은 끝났다. 검을 들 필요도, 구실도 없어졌지. 요즘 하는 일이라곤 숨 쉬는 게 다야. 그나마 여긴 피 냄새라도 안 나니 다행이군."

공허하게 울리는 목소리는 매니시가 수도까지 오며 몇 번이고 접했던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쟁은 끝이 나도 바로 희망차게 웃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 중에 입은 상처는 칼을 내려놓았을 때야 비로소 아파 왔으니까.

그들이 싸운 것은 전혀 다른 전장이었지만, 매니시는 이 이름 모를 동지를 위로하고 싶었다.

"열심히 훈련해서 기사 같은 거 하면 되죠. 왜, 기사를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힘들게 전쟁터에서 검 들고 싸우지 말고 검이 돼서 지키는 사람 해요."

"누구를?"

"그건 당신이 정해야죠. 아닌가? 귀족이 당신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매니시의 노력이 통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그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게 신나서였는지도 몰랐다. 매니시가 또 다른 제안을 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지?"

며칠간의 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간은 이제 그들 사이에 없었다. 매니시는 저를 사로잡는 충동에 몸을 맡겼다.

"따라와요."

매니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를 보며 손짓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엉거주춤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근방에 온갖 분홍빛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게 했던 남남 커플의 달콤한 동행이었다. 불쌍한 소년과 수상한 사내의 꿈같은 동행.

"그쪽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매니시와 사내는 제2 광장에서 만나 가벼운 점심을 함께하고 길을 나섰다. 그동안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수도의 곳곳을 돌아다녔다.

제1 광장의 분수대에 앉아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남의 잔치에 끌려가 생판 모를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도 했다. 매니시는 음유시인의 노래를 듣고 돈을 내려놓는 사내의 뒤통수가 얼마나 부끄럼을 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사내는 시장에서 흥정하며 가격을 후려치는 소년의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향하는 곳은 시끌벅적했던 지난 며칠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었다. 평민에게도 개방된 국립 도서관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일정은 사내가 그녀의 고향 얘기를 듣고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팔씨름판에 눈이 팔린 사내는 저절로 틀어지는 발길을 단속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보고 가고 싶어."

사내가 매니시의 옷자락을 잡고 눈을 맞춰왔다. 그녀가 약해지는 순간을 학습한 결과였다. 사내의 차림새는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그는 얼굴을 거의 가리는 후드 대신 일전에 매니시가 사준 신사모를 눌러쓰고 있었다.

"...그럼 보고 가죠, 뭐."

이렇게 그녀가 그의 떼를 받아줄 때면 그는 드물게 미소 짓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매니시는 야생동물을 길들인 기분에 뿌듯해지곤 했다.

사내는 떠들썩한 무리에 끼어들어 남정네들의 결투를 관람했다. 실상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전장에서도 금세 저렇게 뭉쳐 놀던 전우들의 모습, 과거의 한때였다. 과거에 젖어 든 남자의 얼굴은 그를 본 이래 처음으로 너무도 평화로워서 매니시는 그저 가만히 지켜봤다. 서로 다른 것을 그들은 하염없이 바라봤다.

심하게, 하염없이.

결국 판이 흩어질 때까지 남아있던 둘은 애매한 시간 탓에 도서관을 코앞에 두고 발길을 돌렸다. 평소라면 내일을 기약하며 헤어질 시간이었지만, 꽉 찬 일정에 익숙해진 그들은 유난히 한가했던 오늘을 끝마치기가 아쉬웠다. 목적지 없는 걸음이 이어졌다.

날이 채 저물기도 전인데 곳곳에 등불이 달리더니 상인들은 밤을 준비하기에 바빴다. 시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거리로 나온 가판들은 야시장만의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사줄게."

매니시의 시선이 막 불판에 올라간 양념 꼬치구이에 오래 머물러있자 사내가 나섰다. 그의 말을 듣자 그녀도 출출함을 느꼈기에 두 사람은 곧 입에 꼬치를 하나씩 물게 됐다.

그러나 그녀가 두 입도 다 씹어 넘기기 전에 사내의 '사줄게' 행렬이 이어졌다. 그는 매니시의 시선이 잠깐이라도 닿을라치면 헤프게 지갑을 열어젖혔다. 잠자코 지켜보던 그녀가 양념 한 방울 남지 않게 깨끗이 먹어 치운 꼬치를 무기처럼 들어 사내를 취조했다.

"미안해요?"

사내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꼬치를 빼앗아 들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먼저 가자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었다.

"괜찮아요. 나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팔씨름을 좋아하나?"

사내의 얼굴이 삽시간에 밝아졌다. 팔씨름을 어지간히도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아뇨. 그쪽 얼굴 구경했어요. 엄청 따듯하고 평화로운 얼굴이라."

"내가?"

사내가 들고 있던 꼬치 하나를 떨어뜨렸다. 어느새 그들의 걸음도 멈췄다. 꼬치를 주울 생각이 없는 사내 대신 매니시가 꼬치를 주워들고 그의 손에 있던 나머지 하나도 빼앗아 들었다. 그는 손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든 말든 정신이 없어 보였다.

"왜 그래요? 혹시 나 때문에 기분 나빠요?"

"끔찍하군."

평소 똑 부러지게 말하는 사내가 말을 늘이며 허리춤을 더듬었다. 그가 불안할 때면 나오는 버릇이었다. 그러나 사내의 손에 닿은 것은 항상 그를 지켜주던 검이 아니라 매니시의 작은 손가락이었다.

"뭐가요?"

"내가."

"왜요?"

"...그때 난 전우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돌아가고 싶다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으로.

어둠과 등불이 조화를 이룬 거리, 멈춰선 자와 스쳐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작은 목소리는 금세 흩어져버리고 말았다. 풍경과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마치 꿈처럼.

"나도 가끔 그래요."

길을 잃고 헤매던 사내의 시선이 매니시를 향했다.

"지금이 꿈인지 그때가 꿈인지, 돌아가고 싶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럼 좀 어때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건데, 그만큼 애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지?"

"아무렇지 않긴요. 우리가 광장 친구란 거 잊었어요? 나도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적응하느라 힘들다고요. 단지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그건 딱 한 마디 차이예요."

"그게 뭔데."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예쁜 밤거리를 걸을 수 있게 해줘서."

뜬금없는 매니시의 말에 사내의 눈이 진지함을 잃고 동그랗게 떠졌다. 매니시는 먼저 한 걸음 내디디며 말을 이었다.

"지난 며칠간 꽤 즐겁지 않았어요? 난 즐거웠어요, 지금 상황도 다 잊고. 사람들도 그래요.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많이 봤지만, 어쨌든 살다 보면 잠깐 웃을 날 안 오겠어요? 당신이 지킨 게 그런 거라구요.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고마워요."

당신은 그 말을 진작 들었어야 해요.

빈 허리춤을 더듬다 여태 잡고 있던 매니시의 손가락이 그를 끌었다. 활기를 띤 야시장의 길은 조금 전까지와 다르게 더 풍요롭고 몽환적으로 보였다. 곳곳을 밝힌 등불은 따듯한 색으로 빛났고 드문 그늘조차 평온한 흙빛이었다.

"우리 저거 먹어요. 이번엔 내가 사줄게요."

매니시가 가리킨 것은 반죽 안에 설탕과 견과류를 넣어 기름에 구워낸 팬케이크였다. 달콤해서 그가 좋아하는.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느라 맡아보지 못한 단내가 그의 후각을 황홀하게 감쌌다.

사내는 소년의 얇은 손가락에 의지해 걸음을 내디뎠다.

"다녀왔습니다."

매니시는 습관처럼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에 들어섰다. 그러나 여상한 대답 대신 고함이 그녀를 반겼다.

"지금이 몇 시야!"

매니시의 숙모였다. 웬일로 반말로 소리친 그녀가 눈을 부릅뜨고 매니시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아들 플럼도 종종거리며 엄마 뒤를 쫓아왔다.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다 큰 아가씨가 혼자 외출해서 이 시간에 들어왔으니 문제지!"

그녀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눈을 깜박이는 매니시에게 바짝 다가섰다. 고함보다 매서운 콧김이 얼굴을 때릴 만큼 가까워지자 매니시는 숙모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눈물이 찬 눈가는 금방이라도 넘쳐흐를 것 같았고 붉게 물든 눈꺼풀과 코는 마치 한바탕 울어 재낀 어린아이 같기도 했다. 모두 앙칼진 숙모에게서 보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덕분에 매니시는 숙모의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동그래져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무슨 일이에요?"

비슷한 연배의 조카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해오자 그녀는 화보다도 안도에 휩싸였다. 그녀의 대답에 훌쩍이는 소리가 섞였다.

"네가 안 오는 줄 알고."

"제가요? 왜요?"

"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자꾸 눈치 줘서 집에 안 오는 줄 알았어."

찔리는 게 많은지 눈치를 보던 숙모는 말을 못 잇는 매니시를 보고 손가락을 접어가며 고해성사를 시작했다. 매니시는 숙모의 풍부한 상상력과 예상 밖의 귀여움에 놀라며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던 제가 한없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런 줄도 모르고 숙모는 세 번째 손가락을 접고 있었다. 일부러 식은 차를 가져다준 일을 고백하는 그녀의 뒤로 하녀가 다가왔다.

"자작님과 어르신은 밖에서 아가씨를 찾아본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자작 부인은 몸이 안 좋아 누워계시고요.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푸근한 미소를 지은 하녀의 시선이 매니시의 허리 아래로 쑥 내려갔다. 이 집의 귀염둥이 플럼이 제 사촌 누나의 로브를 꼭 쥐고 있었다. 하녀가 말한 '다들'에 저도 포함된다는 뜻인 것 같았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렇게들 걱정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녀는 정말 몰랐다. 마음 약한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새침한 숙모가 울면서 기다리거나 수줍음 많은 사촌 동생이 껌딱지가 되는 반응은 그녀의 예상 밖이었다. 그렇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정말 나쁘지 않았다.

"우선 자작 부인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좋겠어요.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요. 저녁은 드셨어요?"

"밖에서 간단하게 먹긴 했어요."

"그럼 신사분들이 돌아오시면 함께 차를 드시는 게 좋겠네요. 잔소리를 잔뜩 들으시면 아마 배가 부를 거예요."

난감한 미소로 대답한 매니시는 양팔을 꼭 닮은 모자에게 내준 채 자작 부부의 방으로 발을 옮겼다. 두 명분의 체온이 더해져 그녀는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의 방 앞에 선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고 따듯한 것이 파고들었다. 낯가림이 심한 플럼의 꼬물거리는 손가락이었다. 그녀는 너무 부드러워 연약하게 느껴지는 작은 손에 붙들려 문득 깨달았다.

사내의 앞에서 잘난 척 떠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 덕이었다는 것을.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들이 그녀의 곁에는 있었고 그의 곁에는 없었다.

어젯밤 생각보다 찰진 잔소리를 듣고 진이 빠졌던 매니시는 덕분에 잠에 온몸을 맡길 수 있었다. 커튼에 부드럽게 걸러진 햇살이 살며시 뜬 매니시의 눈을 쓸었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올라 있었지만, 그녀를 생각해 아무도 깨우러 올라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매니시의 얼굴이 묻힌 이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비실비실 새어 나왔다. 그러다 뚝 멈추더니 그녀의 눈이 빼꼼 삐져나와 방 안의 동태를 살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는 소녀풍의 방이었다.

방 안에 저 혼자뿐인 것을 확인한 눈이 가늘게 접히고 벌떡 일어난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다시 엎드렸다. 높게 솟은 엉덩이가 부들부들 떨리고 침대에 주먹질하는 매니시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기쁨이 혹 방 밖으로 새어 나갈까 이상한 소리로 몸부림을 치던 매니시가 진정한 것은 숨이 막혀 얼굴이 달아오를 즈음이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숨을 진정시키던 그녀는 돌연 벌떡 일어났다.

가족의 지지와 사랑은 정말 이상한 것이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초조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광장 친구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변화를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녀의 지지와 그녀가 속으로만 생각해왔던 허무맹랑한 꿈도, 그라면 진지하게 들어줄 것 같았다.

마침 그와의 암묵적인 약속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사실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도 일찍 나올 것만 같았다. 누가 뭐래도 두 사람은 어제 그 길을 함께 걸었으니까.

매니시는 늦은 아침을 그와 함께할 생각으로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특별한 이 아침은 그녀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매니시, 오늘도 외출할 거니?"

방을 나오자마자 마주친 플럼은 토끼 같은 눈으로 계단을 뛰쳐 내려가더니 문지기를 데려온 것이다. 눈을 치뜬 숙모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전투태세를 다지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숙모? 오늘은 어제처럼 늦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매니시에게 숙모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매니시의 밝은 아침 인사에 허리에 올린 숙모의 손이 슬쩍 내려갔다.

수줍은 얼굴로 저도 아침 인사를 하는 숙모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레 1층으로 내려간 매니시는 그녀와 플럼을 응접실 소파에 앉혔다. 이제 탈출의 순간이었다.

"이게 뭐야?"

그러나 그녀보다 플럼이 빨랐다. 플럼의 손에 들린 로브 사이로 스타킹 위로 한껏 걷어 올린 바지를 입은 매니시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매니시, 너, 차림새가 이게 뭐니? 세상에."

당황한 매니시가 로브를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제의 그 작은 손은 생각보다 단호했다.

"그게 제가 요즘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차림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면접에서요! 활동성을 강조한달까 그런?"

횡설수설하는 매니시의 말에 숙모의 눈에는 또 눈물이 맺혔다. 사실 그녀의 별명은 옛적부터 울보 아가씨였다.

"매니시, 난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 걱정 마.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그이한테 말해볼게."

"누나, 치마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아빠한테 말해? 엄마 치마 많아."

상황은 매니시의 손을 떠나 멀리 뛰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매니시는 처음 들어가 본 숙모의 드레스룸에서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수선화의 여린 꽃잎처럼 주름진 노란 원피스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옷처럼 잘 어울렸다. 마치 레우카스 성의 제 방 거울 앞에 다시 선 듯한 기분이었다.

"뭔가 부족하다 했어."

턱 밑에 손을 괴고 노려보던 숙모가 중얼거리더니 매니시의 올림머리를 풀어내렷다. 자유분방한 매니시의 곱슬머리는 몸도 마음도 푹 파묻히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햇살 아래 눈처럼 반짝이는 사촌 누나의 머리칼을 넋 놓고 구경하던 플럼은 좋은 생각이 났다. 플럼의 부름에 두 여자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아기 유령이 있었다.

"누나, 여기 날개! 누난 사람이라서 없는 거야? 울 엄마 꺼 써. 어젠 이게 없어서 늦은 거지?"

연한 회색의 숄을 뒤집어쓴 플럼의 팔이 날갯짓을 할 때마다 숙모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매니시는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빌려주는 천사 같은 숙모를 놀리지 않기로 했다. 삐져나오는 웃음은 그녀의 고의가 아니었다.

부끄러워하는 숙모 덕에 별 의심 없이 외출한 매니시는 어느 모로 보나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코앞에서 봐도 그녀가 비실거리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소년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옷을 몇 벌 갈아입는 사이 시간은 많이 흘러 있었다. 일찍 출발하려던 계획은 고사하고 조금 늦기까지 한 것이다. 그녀는 하염없이 어미를 기다릴 불쌍한 새끼 오리를 상상하며 발걸음을 빨리했다.

매니시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떤 계기처럼 느껴졌다.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가 많이 달라진 것처럼 그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기회였다.

사내에게 저를 다시 소개하고 오늘은 그의 이름을 묻고 싶었다. 그녀는 매니시 레우카스고, 돈을 벌고 싶은 영애며, 작가가 되고 싶은 아가씨라고.

건물을 따라 코너를 돌자 기다리던 광장이 나타났다. 바람결처럼 다리 사이를 살랑이는 치마가 그녀의 가슴도 간지럽히고 있었다.

수도 기사들의 집결지, 기사 본부의 넓은 연무장에는 평소와 다르게 힘찬 기합 소리 대신 텅 빈 공터를 지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도란거리는 수다 소리가 전부였다. 어제 오랜만에 만난 전우와 회포를 푼 기사들이 대부분 자리를 보전하고 누운 탓이었다.

워로드 루푸스는 특수범죄와 귀족들의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새롭게 창설된 수사단의 집무실 창가에서 그 한심한 꼴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회포의 주인공으로 오늘부터 기사 본부의 최상위 기관으로 오른 로얄 수사단의 단장이 된 차였다.

"기사단장에게 체력 단련 스케줄을 새로 짜라고 해야겠습니다."

남을 괴롭히길 좋아하는 그의 보좌관이 말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은 상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창 너머 한가로이 수다나 떨던 기사들은 저들의 불행한 미래와 갓 취임한 상관의 시선을 느끼기라도 했는지 하나둘 일어나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워로드도 창가에서 시선을 떼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를 집어 들었다.

"어디 가십니까?"

고개를 끄덕인 워로드를 보좌관이 가로막았다.

"좀 이따 황성에 가셔야 합니다."

"금방 다녀오지."

"또 광장에 가십니까?"

보좌관의 움찔대는 미간이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좌관을 지나쳤다.

"가셔도 못 만날 겁니다. 그냥 스쳐 간 인연 아닙니까. 겨우 이삼 주 남짓이었습니다."

워로드의 걸음이 멈췄다. 보좌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얼마 전 마리티무스 영지에서 만난 젊은 신관을 기억하십니까?"

돌아선 워로드와 보좌관의 시선이 마주쳤다. 보좌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말을 이었다.

"각하께서 말씀하신 추억들을 근거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는 영지, 나이대, 곱상한 외모의 갈색 머리 소년, 그놈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이 제국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신관이요."

"틀렸다. 그가 아니야."

"네. 각하의 반응을 보고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그뿐입니다. 애초에 평민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특이한 조건이니까요. 무슨 이윤지 모르지만, 그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집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2년 치의 기다림과 체념이 보좌관의 어깨를 눌렀다. 그도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작 말하지 않은 것이 죄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황성으로 가지."

승전 2주년 파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남겨둔 오후였다. 밝은 햇볕의 움직임에 따라 성안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높게는 황제부터 낮게는 외성의 시동까지 다들 제 할 일로 바빴다.

그중에서도 황족의 의식주를 보좌하는 내성의 하급 시녀들은 지금이 자리를 비운 주인의 처소를 청소할 얼마 없는 기회였다. 언제 방의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녀들의 걸음에서 교육받은 단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남들 다 급한 와중에도 유난히 조용한 곳도 있었으니, 그곳은 내성 심처의 한 복도였다.

갑옷과 용맹한 기사의 조각상들로 장식된 복도는 올해로 17살이 된 황녀의 공간이었다. 자칫 황자의 취향으로 오해를 사곤 하는 이 복도는 카펫도 깔려있지 않아 다니는 시녀마다 뒤꿈치를 들어야 했다.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어떡하죠?"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한 하급 시녀는 황녀에게 배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녀였다. 소녀의 초조한 질문에 다부진 목소리가 대답해왔다.

"어제 늦게 주무셨으니까. 아직 안 왔니?"

"네. 근데 정말 그거면 돼요?"

"그래. 늘 그러셨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책장이 많아서 청소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더군다나 황녀 전하가 저리 기다리시잖아요. 사람들이 좀 융통성이 없나 봐요."

"괜히 황녀 전하 핑계 대지 말고 치마 좀 그만 뜯어. 쭈글쭈글 난리가 났구나.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품행이 전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기 왔나 봐요!"

상급 시녀의 잔소리는 맥없이 끊겼다. 도대체가 아무리 가르쳐봐야 변하는 게 없는 아이였다. 주근깨 소녀는 이미 저 멀리 뛰쳐나간 상태였기에 상급 시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녀의 찰랑거리는 말총머리를 따라 걸었다. 기다리던 물건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도 반가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근깨 시녀는 소포 꾸러미를 두 손 위에 모시고 오는 하녀를 달려가 맞이했다.

"얘, 빨리빨리."

깨지는 물건도 아닌데 시녀의 눈에 하녀의 걸음은 지나치게 느렸다. 어느새 하녀의 코앞까지 다가간 시녀가 하녀의 손에 있던 꾸러미를 낚아챘다. 평범한 누런 포장지 안의 정체를 아는 시녀는 잠시 의무도 잊고 품에 꽉 차는 설렘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녀의 설렘은 곧 상급 시녀의 손에 넘어갔다.

"제때 도착했네. 황녀 전하가 연달아 끼니를 거르시게 할 수는 없으니, 너는 빨리 주방으로 가서 전하의 기침을 알리고 침실로 오너라."

"네."

소녀의 기운 빠지는 목소리는 조건반사로 한 대답이었는지 발을 뗄 기색이 없어 보였다. 시선은 오로지 조금 전까지 품고 있다가 빼앗긴 소포에 달라붙어 있었다.

"대답만 말고 어서!"

상급 시녀의 호통이 떨어지고 그제야 시녀의 발은 제 할 일을 했다. 말총머리를 방정맞게 흔들며 달려가는 시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상급 시녀도 이내 발길을 돌렸다. 황녀의 침실로.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며 그녀가 제법 묵직한 꾸러미에 얼굴을 비빈 것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한편, 황녀의 침실은 아직도 한밤중이었다.

두꺼운 암막 커튼에 가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방에 빛으로 된 하얀 실금이 하나 생겼다. 실금은 곧 옆으로 넓게 번지며 상급 시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방 한가운데 화려한 캐노피가 달린 침대에는 이 방의 주인이 푹신한 이불에 파묻혀 있었다. 몇 겹의 자수 레이스가 드리워진 침대 안으로는 한 점의 빛도 그림자도 닿지 못했다.

"황녀 전하, 일어나셔요."

시녀는 방을 가로질러 암막 커튼을 걷으며 말했다. 그녀의 신조대로 그리 크지 않은 고상한 목소리였지만, 의사 전달은 확실했다. 눈부신 햇살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번엔 레이스 캐노피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황녀의 천진하게 잠든 얼굴 위로 레이스를 통과해 부서진 햇살 조각들이 흩어져 내렸다. 황녀는 얼굴에 흩뿌려진 따듯한 보석가루들을 손으로 한번 쓸고 눈을 떴다. 세상이 보일지 의문일 정도로 가늘게. 그마저도 초점은 없었다.

"정오에..."

"벌써 지났습니다. 그만 일어나셔요."

황녀는 다시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힝, 조금만."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봅니다?"

"응?"

거짓말처럼 황녀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기대감에 잠을 설칠 정도로 기다린 것이 있었다. 산발 머리로 침대를 짚고 상체를 일으킨 황녀는 괴담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눈을 굴렸다. 창가에 서 있는 시녀의 손에 눈부시게 빛나는 소포가 들려있었다.

"그거야?"

소포는 황녀의 콩깍지 때문만 아니라 정말로 햇살을 받아 발광 중이었다. 황녀의 콩깍지도 빛을 받아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네. 이겁니다."

상급 시녀가 소포를 흔들어 보였다. 황녀는 대답을 듣기 전부터 손을 내밀고 있었다.

"줘!"

그러나 소포는 금세 시녀의 뒤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일단 씻고 식사부터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치사하게 정말 이럴 거야?"

"예. 이럴 겁니다."

황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이불 위에 엎어졌다. 엎어진 김에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휘적여 보기도 했다. 그녀가 그럴 때마다 상급 시녀의 얼굴이 재밌어지기 때문이었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시죠."

황녀의 예상대로 시녀의 얼굴은 이상해졌다. 어느 날 자신의 속옷을 입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라도 마주친 듯 황망한 얼굴이었다. 황녀는 여전히 이불에 엎어진 채로 고개만 돌리고 시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노려보긴 하는데, 입은 웃고 있었다.

"그거 주면."

"이건..."

"흐흐흐. 나 또 파닥거린다?"

망설이는 상급 시녀의 모습에 황녀는 실실 웃으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씻고 옷만 갈아입으세요. 식사하시면서 보는 건 봐 드리죠."

"역시 치사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황녀가 욕실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상급 시녀는 최근 혼담이 오가는 다 큰 황녀의 뒷모습을 보고 다섯 살 꼬마의 재롱이라도 본 듯이 웃었다. 하지만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하, 혼자서 씻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버터에 굴린 감자와 버섯 리소토, 상큼한 샐러드 위에 얹어진 닭튀김과 훈제해 저민 오리고기까지 아침상치고 거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황녀는 정오의 실랑이가 언제 있었냐는 듯 우아하게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있었다.

"전하, 거긴 접시가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응."

정확히는 식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만 우아했다. 연신 테이블보를 괴롭히던 포크가 옆으로 이동했다.

"전하, 그건 물잔이 아니라 소스병입니다."

"응."

소스병 손잡이를 쥐고 있던 손이 이번에는 허공을 휘젓다 물잔을 쳤다.

"전하!"

상급 시녀는 황녀의 손에 들려있던 문제의 원인을 덮어버렸다. 황녀를 귀여워하는 그녀라도 황족의 손에 든 것을 빼앗을 배짱까진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도 못 했는데."

"제가 봐뒀습니다. 어서 식사부터 하세요."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자기가 봐도 된다고 해놓고는."

"식사하시면서 보면 안 말립니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엄청 진도 빼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알아? 빨리 몇 페이지였는지 불어."

아무 데나 무작정 펼쳐 책장을 넘기던 황녀가 울상이 되어 말했다. 영지전이 끝나지 않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여주와 그녀가 적령의 영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하는 외팔의 퇴역기사,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감정선은 한창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식사부터 하세요. 폐하께서 오후에 함께 차를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으셨습니다."

"아빠가? 그냥 내일 마시자고 해."

"정말요? 루푸스 백작님도 오신다고 하던데."

책장을 넘기던 황녀의 손이 멈췄다. 그만큼 반가운 이름이었다.

"오라버니? 그럼... 아냐, 어차피 이제 쭉 수도에 있을 텐데 뭐."

하지만 좋아하는 책에는 살짝 밀리는 이름이기도 했다.

"저는 전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요즘 폐하께서 전하의 성인식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다던데, 두 분께 힌트를 드리지 않으시게요?"

그제야 책에 박고 있던 황녀의 고개가 들렸다. 반짝거리는 두 눈에 혈색 좋은 뺨이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생일선물! 마차를 새로 뽑아 달랄까? 지금 건 너무 촌스럽지?"

"전하, 올해는 과소비를 줄이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녀의 나긋한 질문에 입이 나온 황녀가 말을 흐렸다.

"응. 그렇지만 선물은 내 돈 나가는 게 아닌데..."

"지금 마차도 아름다우세요. 그래도 바꾸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죠."

슬픈 얼굴의 상급 시녀가 황녀의 책을 넘겨 맨 앞장을 펼쳤다. 한정판으로 나온 책은 비싼 값을 하는 듯 꽤 섬세한 삽화가 들어있었다. 쓰러진 사람들과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 폐허가 된 마을, 그 마을 한가운데 선 남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본 황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상급 시녀는 어느새 슬픈 표정은 내던진 채 한결 간소해진 아침상을 보고 웃고 있었다. 그것은 뿌듯함이 담긴 미소였다.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황녀가 이번에도 결국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끙끙거리던 황녀가 책을 덮었다.

"기부나 할래. 대신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할 거야. 생색내고 싶어!"

황녀는 내내 그녀와 테이블 사이에 끼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자신이 먹던 음식들과 첫 대면을 했다. 황녀의 포크가 씩씩하게 날아 얇게 저민 고기에 꽂혔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전하. 폐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식은 고기는 약간 퍽퍽했지만, 꾸중을 벌고 싶지 않은 황녀는 열심히 고기를 씹었다. 그녀는 이왕 갈 일 사촌 오라비가 돌아가기 전에 늦지 않게 가고 싶었다.

"잠깐, 오라버니가 있잖아!"

포크를 창처럼 쥔 황녀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진동에 식기들은 부르르 앓는 소리를 내고 황녀가 애지중지하던 책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놀란 시녀가 되물었다.

"예?"

"오라버니한테는 당연히 따로 받아야지. 내 선물 말이야."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은 채 책을 줍느라 낑낑거리며 황녀가 대답했다. 식당 한쪽에 없는 듯 서 있던 하급 시녀의 발이 움찔거렸다.

"아, 선물이요? 기부가 아니라요?"

"그건 아버지가 해주실 거니까 오라버니껜 다른 걸 받을 거야."

혹시라도 책에 먼지가 묻었을까 후후 불어가며 털던 황녀의 뇌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슨 선물을 원하시는데요?"

"찾아달라고 해야겠어."

포크질이 다시 시작되었다. 황녀는 전투적인 자세로 고기를 씹으며 말했다.

"이걸 쓴 작가님을 찾을 거야."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 그가 있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매니시가 달리기 시작했다. 성큼성큼 가까워지는 그는 평소와 다른 차림새였다. 몸에 꼭 맞는 제복에 부츠, 검집까지.

달리던 매니시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마침내 그녀가 광장 구석 자리에 도착했을 땐, 그의 자리엔 웬 낯선 남자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없었다.

"누나!"

매니시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녀는 노란 원피스는커녕 잠옷으로 입는 헐렁한 원피스 차림으로 누워있었다. 다리 사이에 낀 이불을 다시 몸 위에 덮은 그녀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자지 마, 일어나! 밥 먹으래."

그러나 플럼은 끈질겼다. 이제 7살이 된 녀석은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 매니시의 몸을 타고 놀았다. 그게 플럼이 늘 자진해서 매니시를 깨우러 오는 이유였다.

"플럼, 내려가 줘. 누난 아침 안 먹을래."

매니시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손을 흔들었다. 새벽에 잠들어 악몽까지 꾼 그녀는 종잇장보다 힘이 없는 상태였다. 사실 악몽이라고 하기엔 모호한 것이었다. 과거의 기억이었으니까.

2년 전 광장에서 그녀는 한참을 기다렸다. 온갖 불안과 걱정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꼬박 사흘을 기다린 후에 분하지만 그녀는 인정해야 했다.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이었다.

매니시는 그가 볼일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설레발을 친 자신이 미웠다.

그 후로 다시는 그 광장을 찾지 않았다. 그가 앉아있던 벤치를 확인할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안돼. 얼른 일어나 누나. 곰 마수가 쫓아와!"

매니시의 귀로 추정되는 부분에 손 깔때기를 댄 플럼이 제법 다급하게 속삭였다. 매니시의 눈이 번쩍 떠진 것과 동시에 부서질 듯 문이 열렸다. 거의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이었으니 그녀의 방문은 전쟁터에서 방패로 써도 될 정도로 튼튼하다고 볼 수 있었다.

"매니시! 또 밤새고 아침 거르려고?"

"...결국 거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얼른 일어나서 눈곱 떼!"

매니시의 엉덩이에 불벼락이 떨어졌다. 플럼과 매니시가 숙모의 별명을 곰 마수로 지은 것은 이렇듯 타당한 사정이 있었다. 불벼락의 위력을 아는 플럼은 깨끗한 제 눈가를 비비적거렸고 매니시는 엉덩이를 문질렀다.

유난히 개운하다는 것만 빼면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다. 매니시는 염원하던 작가가 되었고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소설 마지막 원고가 잠들어 있었다.

"다녀올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제 방에서 두툼한 종이봉투를 들고 내려온 매니시가 가족들을 돌아보며 인사했다.

"출판사에 가니? 이번에 가면 네가 낸 책 좀 가져와 보렴. 도대체 네가 쓴 레시피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구나. 실전과 이론은 다른 건가?"

차를 마시던 자작 부인은 농담이라기엔 지나치게 진지한 얼굴로 고민에 빠져있었다. 그녀의 고민은 당연했다. 종종 파괴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매니시가 인기 요리책을 펴냈다면 말이다. 식구들은 모두 매니시의 봉투 안에 든 것이 레시피 묶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원래 글쟁이는 요리도 펜으로 하는 법이지.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매니시는 유일하게 비밀을 알고 있는 숙부의 윙크를 받으며 집을 나섰다. 출판사에 마지막 원고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매니시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다. 책을 내고 인기를 얻고, 돈을 쥐었다. 유부녀처럼 틀어 올리던 머리는 다시 자연스레 늘어뜨리게 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레우카스 영애가 아니었다.

가족들의 새 옷을 맞추고 새 보석함을 채워나갔다. 실크로 된 장갑을 끼고 다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천 자락을 느끼며 거리를 걷노라면, 어디선가 나타난 신사들이 에스코트를 자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니시는 자신이 번 돈이 잃었던 것을 되찾아 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귀금속 상점에서 사귄 영애의 다과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깨달았다. 그녀가 아무리 돈으로 덮고 가꿔도 땅에 떨어져 상처 입은 가문의 이름만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를 무시하는 예쁜 영애들 사이에서 가식적으로 호호 웃으며 매니시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 했던 것의 실체를 만난 것이다. 꿈꾸고 상상하는 동안 그것은 아름다운 살을 더해갔지만, 실은 별것이 아니었다. 남의 소문이나 읊어대고 요리조리 선두를 쫓아 치맛자락을 살랑이는 것, 그것이 다였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삶에 비하면 너무나 밍밍한 것이었다. 매니시는 이제 자신이 꽃향기나 따듯한 차, 나긋한 말들이 오가는 곳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가문의 이름에 상처가 났으면 또 어떤가. 전쟁 중 입은 상처는 영광이자 그녀의 자랑이었다.

덕분에 매니시는 아가씨들의 호호 놀이에 별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다. 머리를 내려뜨리고 수수한 밤색 옷을 입은 매니시 레우카스가 된 것이다.

출판사에 마지막 원고를 건넨 매니시는 그길로 시장에 들어섰다. 소년 매니시의 시선을 끈질기게 피하던 상인들은 그녀를 잡기 위해 안달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낡은 건물로 들어갔다.

조용한 복도에 문만 여러 개 있는 이 건물은 매니시가 계약한 하숙집이었다. 매니시는 깔개가 깔리지 않은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 2층 끝에 있는 문에 열쇠를 꽂았다.

낡은 경첩이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오랜만에 들른 작은 방은 언제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다. 창가에 놓인 넓은 책상과 책으로 가득 찬 책장 두 개, 미처 꽂지 못한 책들이 벽마다 쌓여있었다.

현 황권에 들어서 여성에게 관대해졌다고는 하나, 소위 바깥일은 여전히 남자들의 영역이었다. 책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요리나 살림, 육아에 관한 책이 아니고서는 여자가 발을 들일 곳은 없었다. 매니시 이전에는 말이다.

그래서 이 방이 필요했다. 그녀가 남자의 영역에 발을 들이기 전에 남몰래 신발을 갈아신을 곳이.

매니시는 책상과 책장을 제외하고 작은 방에 유일하게 들어선 가구에 몸을 묻었다. 그녀가 직접 고른 소파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몸을 반쯤 먹어치웠다. 엄청 푹신했다는 소리다.

엎드려 누운 그녀의 손끝에는 소파 근처에 놓여있던 책이 걸렸다. 그녀의 소설 첫권이었다. 오기와 욕심으로 써 내려간 글은 과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소문에는 황제의 금지옥엽 첫째 딸, 제국의 황녀조차 그녀의 팬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돈 때문에 시작해 그녀는 필요한 것을 얻었고, 이야기는 오늘 새벽 끝이 났다.

목표 끝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표지에는 오늘 막 끝을 본 이야기의 제목과 그녀의 다른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러니 가족들이 요리책으로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매니시는 할 일이 떠올라 벌떡 일어났다.

우선은 축배를 들어야겠다. 사내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아가씨를 위하여.

책상 서랍을 열자 언젠가 그녀가 사용한 갈색 가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가씨 혼자 축배를 드는 것도 처량하니 오랜만에 꺼내 써도 될 듯했다.

옷을 갈아입는 그녀의 등 뒤, 넓은 책상과 어울리지 않는 작은 창은 제2 광장의 한편을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다.

잠시 후 소년의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온 매니시를 잡은 이는 하숙집 주인이었다.

"잠깐, 2층 끝 방?"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이 큰 하숙집을 혼자 몸으로 감당하느라 소 마수의 힘줄만큼이나 질기고 억센 구석이 있었다. 매니시는 그 심드렁한 얼굴 앞에만 서면 어깨가 좁아졌다.

"저, 저희 누나 방이에요."

"그렇다고 해두든가. 여기 편지 갖고 가."

너무 말라 되려 뾰족해 보이는 여주인이 근처 빵 가게의 봉투를 들어 보였다. 봉투 안에는 빵가루 범벅인 편지봉투들이 중구난방으로 담겨있었다. 그녀가 빵 봉투를 통째로 내밀었다.

"네? 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시가 받을 찰나, 여주인이 손을 뒤로 물렸다.

"혹시 어디 빚졌어?"

"아뇨?"

눈을 가늘게 뜬 여주인은 평소보다 두 배는 무서워서 매니시의 대답은 빨랐다.

"근데 편지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앞으로 조심해! 집세 잊지 말고!"

버럭 소리친 그녀는 봉투를 매니시에게 던지고 안쪽으로 사라졌다. 매니시는 그녀의 조심하라는 말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경고인지 빚지지 말라는 걱정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급하게 사라지는 여주인의 뒷모습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 매니시는 두둑한 돈주머니에서 집세를 챙겨 그녀를 따라갈 수 있었다.

"맥주 한 잔 주세요."

충동적으로 들어온 곳은 2년 전 사내와 한번 왔던 식당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피해놓고 오랜만에 가발을 써서였을까, 매니시는 이 식당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인지도 몰랐다.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계산을 끝낸 매니시는 맥주를 기다리며 편지를 하나씩 꺼내 봤다. 출판사에서 달에 한 번 모아서 보내주는 편지는 대개 그녀의 팬들이 보낸 것이었다. 물론 시간과 정성과 돈을 써서라도 매니시에게 욕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은 뽑기 운이 제법 좋은지 줄줄이 기분 좋은 편지를 읽은 매니시였다. 최고의 축배와 안주였다. 호의에 찬 한 문장에 한 모금씩 마시다 보니 슬슬 취기가 올라왔다. 그녀가 유독 해진 편지를 집어 든 것은 그때였다. 편지는 신세 한탄으로 시작됐다.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 말을 알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내게는 건강한 몸도, 집도, 돈도 없으니까. 나 같은 거지가 편지를 보냈으니 좀 놀랐겠지? 당신이 의심할까 봐 미리 말하는데, 직접 쓴 게 맞아.

걸걸한 말투와 다르게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해 쓴 편지였다. 포장지로 썼던 것인 듯 질이 안 좋은 편지지 위에 최대한 틀리지 않고 번지지 않게 쓰기 위해 고심한 냄새가 났다. 매니시가 맥주를 한 모금 넘기자 딸랑, 하고 종소리가 났다. 새 손님이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랑곳없이 편지를 이어 읽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야. 난 글을 배웠고 산수를 조금 하고 누구보다 활기찼지만, 이렇게 거지가 됐어. 그 후로 난 배운 걸 거지가 아닌 사람들을 욕하는 데 써먹고 있지.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도 바닥에서 먹고 자는데 침대에서 자려면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을까, 난 당당해.

그러다 어느 날은 길을 헤매는 신관을 봤어. 그를 도와준 건 변덕이었지. 어쩌면 그 눈빛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나만큼이나 세상을 미워하는 눈이었거든. 아니면 그 입버릇 때문이던가, 그는 그때 내 앞에서 딱 세 마디를 내뱉었는데 그중 두 마디는 욕이었어. 암튼 내가 나름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자, 그자는 그 짧은 대화 사이에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책을 선물하고 떠났어.

식당이 조금 소란했다. 팔에 털이 숭숭 난 식당 주인이 새로 들어온 여자 일행을 사나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그가 시뻘게진 얼굴로 소리쳤다.

"더러운 년들이 어딜 낮부터 기웃거려?"

"우린 몸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말 마. 너희 요 앞에서 일하는 년들이잖아. 붉은 코르사주 안 달면 누가 못 알아볼 줄 아냐?"

붉은 꽃장식은 수도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것이었다. 매니시는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아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 식당 주인과 씨름하던 한 여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매니시는 찌푸렸던 얼굴을 피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럴 때 사람들이 눈을 피하면 어떤 기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여자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음식값은 다 두 배로 계산하고 구석 자리에서 식사만 하고 가죠."

이번에는 매니시의 한쪽 눈썹이 들렸다. 여자의 음성은 사교계에서나 들을법한 고압적인 톤이었다. 그러나 톤과 상관없이 썩 마음에 드는 제안이었는지 신기하게도 식당 주인의 얼굴이 제 색을 찾아갔다.

곧 매니시의 뒷자리에 여자들이 착석했다. 식당은 평화를 되찾았다.

댁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썩 좋은 선물은 아니었지. 먹을 수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난 그걸 깨끗하게 보관할 능력도 없지마는 알잖아? 침대에서 자는 놈들은 돈을 더 주더라도 새것만 찾거든. 한동안 베개로 잘 썼어. 미안, 벌레 지나갈 때 그걸로 무심코 잡기도 했어. 두 마리 정도, 아니 세 마린가?

"부엌에서 우리 욕하느라 바쁜가 봐. 물도 안 주네."

"어쩐지 귀가 가렵더라니."

구슬 같은 웃음소리가 대롱대롱 굴러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 태평한 웃음소리에서 편지 속의 능청스러운 말투처럼 여러 번 담금질한 흔적이 느껴졌다. 2년 전의 매니시는 상상도 못 할 단단함이었다.

그러니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지. 근데 난 그걸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거야. 누군가에게 동전이 아닌 걸 선물 받은 건 너무 오랜만이라, 암튼. 더는 책을 다른 식으로 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책뚜껑을 넘겼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나, 난 평소에 절대 글 같은 거 안 읽어. 침대에서 자지도 못할 바엔 인간답게 살지 말자는 주의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몰입해있던 매니시는 다음 문장을 몇 번씩 눈으로 읽었다.

그래도 이미 소중해진 터라 당신은 안 읽고 버틸 수가 없었어.

남은 맥주를 다 털어 마신 매니시가 테이블에 볼을 대고 엎드렸다. 테이블 표면은 그녀의 뜨거워진 볼을 달래줬다. 많은 사람이 매니시의 소설을 읽고 쪼개고 붙이고 분석하고 평가했지만,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평가보다 더 떨렸다. 소중해졌다는 말이 너무 달콤해서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엎드린 채 한 손으로 편지를 들고 마저 읽어내려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 이 친구야. 네 뜻대로 됐어. 나는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쌔고 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우릴 지켜보는 시선도 있다는 걸 알았지. 거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따듯하고..., 또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난 이제 빈둥거릴 수 없게 됐다구. 그리고 네 그 오글거리는 눈이 옮기라도 했는지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침대 없는 친구들이 신경 쓰여 죽겠어. 난 요즘 그 친구들한테 당신 책을 조금씩 읽어주는 중이야. 웃긴 건 평소에 우리가 모여있기라도 하면, 부랑자가 위험한 집회를 갖는다고 득달같이 쫓아오던 경비 녀석들이 우릴 내버려 둔다는 거야. 알고 보니 당신 책이 녀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서 지들끼리 그냥 해프닝으로 여기는 모양이더라고. 덕분에 처음으로 살맛 나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어진 거야. 너무 그런 기분이니까 표현하지 않고는 못 참겠더라고.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겠지? 그러니까, 고마워.

추신. 아, 우린 당신 책 1권뿐이 없는데 혹시라도 2권을 보내겠다면 사양하지 않을게. 알다시피 우린 책상도 의자도 글눈도 없는 놈들이라 단지 한 권만 있어도 모여앉아 함께 볼 수 있거든.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다. 매니시의 입술 사이로 떨리는 숨이 새어 나왔다. 손가락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설이 세상에 공개된 후로 매니시는 종종 편지를 받았다. 받은 편지 중엔 이보다 길고 유려한 문체로 쓰인 것도 있었고 그림 같은 필체에 향기를 입힌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만큼 묵직한 편지는 처음이었다.

매니시가 소설의 소재를 전쟁으로 정한 것은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다. 비싼 책을 사 볼 사람은 주로 이전의 그녀처럼 할 일 없는 귀족 집안 여인들이었고, 그네들은 부채를 우아하게 흔드는 법 수십 가지는 알아도 전쟁에 대해선 똥배만큼도 아는 게 없는 이들이었으니까. 전쟁과 사랑의 조화는 흥미로우면서도 자극적이고, 다행히 그녀가 잘 아는 것이었다. '만찬'은 그런 계산으로 쓴 글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매니시는 그것을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최선을 다한 만큼 불순한 노림수 또한 있었다. 그 위로 쏟아지는 찬사는 간지럽고 부끄러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매니시의 책을 베고 벌레를 두세 마리, 아마 그 이상으로 잡아댔을 사람의 말은 달랐다.

그녀의 글에 위로받았고 살맛이 난다고, 매니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면 그녀 때문에 그의 삶은 조금 다른 길로 들어섰고 그는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다. 그건 무척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가 알아준 것들은 성공에 대한 계산 이전에 매니시 속에 도사리던 꿈의 조각들이었다.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차곡차곡 그녀 안에 쌓이다가 쓰지 않고는 터질 것처럼 부풀어서 숨이 막혔었다.

정해진 토대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놓고는 자신의 계산속에 환멸을 느꼈었다. 꿈을 더럽힌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그녀를 응원해주는 숙부나 출판 사장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내는 책 위에 쌓여 그녀를 조여왔었다. 그런데 그 속내마저 면죄부를 얻은 기분이었다. '아가씨'의 명성이 누군가 그 책을 읽는데 당위성을 주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으니까.

숨죽여 살던 죄인을 잡아놓고 벌 대신 상을 준 것이다. 용서와 기회가 매니시의 온몸을 적셨다. 젖은 몸은 무거웠다.

기분은 떠오를 듯 좋았지만, 탈력감인지 책임감인지 모를 것이 옷을 잡아당겼다. 그때였다.

"이봐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매니시의 정신을 깨웠다. 옆 테이블에서 나는 소리였다. 타오를 것 같은 붉은 머리의 여자가 음식을 내려놓던 주인의 팔목을 붙잡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야!"

접시를 팽개치듯 여자의 손도 털어낸 주인이 소리쳤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모여들었을 때 그는 매고 있던 앞치마로 팔목을 닦고 있었다. 매니시의 눈에는 그의 팔에 난 수북한 털이 제멋대로 엉킨 것이 보였다.

"...내가 더러워?"

"언니, 참아."

머리처럼 얼굴까지 붉어진 여자의 주먹 쥔 손 위로 까무잡잡한 손이 덮였다. 그러나 까무잡잡한 여자의 손이 잡아야 할 손은 그 하나뿐이 아니었다.

"네가 더러운 게 아니라 주인이 상식이 없는 모양이네. 진짜 더러운 게 뭔지도 모르는 걸 보면 말이야. 도저히 못 먹겠으니 그만 일어나자."

우아하게 머리를 땋아 내린 여인은 주인이 내팽개친 접시를 보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넘친 국물이 기운 테이블을 따라 긴 실선을 그렸다. 여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도저히 그냥 시비 거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표정에 매니시는 자신이 앉은 테이블과 잔을 샅샅이 뜯어봤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매니시는 작은 얼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스로는 몰랐지만, 컵을 눈앞에 대고 인상을 찌푸린 매니시의 모습은 여인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었다. 여인에게도 그런 매니시의 행동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런, 모르고 다 마셨나 봐요. 속은 괜찮으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난 여인은 가여워 죽겠다는 얼굴로 매니시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얼결에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꾸벅 숙인 매니시에게 주인의 따가운 시선이 날아왔다.

"이년들이 어디서 작당을 하고 영업 방해야! 너네 한 패거리지, 네가 이년들 기둥서방이냐?"

순식간에 멱살이 잡혀 끌어 올려진 매니시는 변명은커녕 뒤꿈치를 들고 그의 팔에 매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숨이 막힌 매니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질려갔다.

"놔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병사 아저씨, 이쪽이에요!"

누군가의 외침에 주인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때, 다른 억센 손이 매니시의 팔을 잡아당겼다. 순식간이었다. 그녀의 시야에 잡히는 풍경들이 자꾸만 뒤로 도망가고 있었다.

"거기서! 너희들 내가 영업방해로 신고한다!"

열이 오른 주인이 문 앞까지 쫓아 나와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주변의 눈살만 찌푸리게 했을 뿐, 그녀들은 이미 저만치 달아난 상태였다.

매니시가 정신을 차린 것은 숨소리로 가득한 좁은 골목에서였다. 바닥을 보고 헐떡이는 그녀의 머리 위로 높은 음성이 내려앉았다.

"괜찮아?"

여전히 매니시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의 주인이었다. 달리는 내내 그녀의 시야에서 춤추던 붉은 머리칼의 여자. 가만히 숨쉬기도 벅차하는 매니시와 달리 여자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후, 차라리 나가서 진짜 병사를 불러오지 그랬어."

"그럴 시간이 어딨어. 당장 한 대 맞게 생겼던데."

"역시 언니, 순발력 죽인다."

짓궂은 얼굴의 까무잡잡한 소녀가 앉아있던 바닥을 치며 연신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 바람에 숨을 고르고 있던 여인은 한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거울도 없이 풀린 머리를 다시 땋고 있었다.

"말려들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여인이 머리를 만지며 다가오자 매니시 곁에 있던 여자가 리본을 받아들고 시중을 들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인은 마치 수도 귀부인의 표본 같은 모습이었다.

숨을 되찾은 매니시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봤자 가발 위였지만.

"괜찮아요. 아주 시원했거든요."

매니시는 소년답지 않게 예쁘게 웃었다. 그녀는 여인의 귀족 같은 면모에서 자신을 떠올리고 있었다. 2년 전 그녀는 머리를 틀어 올렸지만, 이런 방법도 있었다. 매니시는 그녀들의 방식이 제법 마음에 들었다.

"뭘 아는 남자네. 여러모로 우리랑 잘 통할 것 같아."

여인의 머리를 곱게 묶어준 붉은 머리 여자는 돌아서더니 잇몸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어 보였다. 매니시는 다 큰 여자가 그 정도로 환하게 웃는 것은 처음 보았지만, 그 순간 그 미소만큼 그녀에게 어울리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난 페니야. 바로 여기가 우리 일하는 데인데 들렀다 갈래?"

페니는 자신의 붉은 머리를 귀 뒤에 대강 꽂은 후 그녀 등 뒤의 건물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꽃 덩굴로 장식된 칙칙한 이층짜리 건물이었다. 창문마다 드리워진 커튼은 호기심을 자극해 신비로운 느낌을 줬다.

"언니, 제대로 설명해야지. 우리 몸 파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긴 그냥 좀 특이한 카페예요. 그리고 이거요."

엉덩이를 턴 소녀가 다가와 구겨진 편지와 봉투를 내밀었다. 매니시의 편지들이었다. 소녀의 장난스러운 얼굴은 그런 오해 속에서 산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다.

"되게 인기쟁인가 봐요. 아까부터 읽고 있길래 눈이 갔었거든요. 중요한 거 같아서 들고 튀느라 힘들었네."

"고마워요. 하지만 그냥 카페라는 말은 믿을 수 없겠는데요?"

편지를 받아든 매니시의 말에 세 사람의 몸이 굳었다. 매니시는 그녀를 뒤흔든 편지를 잘 접어 봉투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다.

유부녀인 척하고 소년인 척하고, 편한 길로 간 후 부끄러워하고 흔들리는 일은 그만하고 싶었다. 저지르고 도망가는 길이 너무 시원하고 짜릿하단 걸 매니시는 알아버렸다.

"솔직히 그쪽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여기서 제가 제일 약골인 것 같은데, 저기가 혹시 훈련소라면 미리 말해줘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봉투를 흔들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까지 마치자 소녀는 기쁜 얼굴로 매니시의 팔에 매달렸다. 조잘거리기 시작한 소녀의 손에 이끌려 코너를 도니 평범한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문이 보였다.

페니가 앞장서 다가가자 안쪽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머리를 시원하게 민 덩치 큰 남자였다. 페니를 본 그는 반가운 얼굴로 한쪽 비켜섰다가 매니시를 발견하더니 이마를 찌푸렸다. 그것은 결코 환영의 의미 같지는 않았다.

의심의 눈길 하나에 화려한 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어둡고 낯선 복도, 매니시는 손에 든 봉투를 꼭 쥐었다.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이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다.

편지와 우연한 만남. 길 끝에 선 매니시는 여기 어딘가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다는 듯 커다란 눈을 바쁘게 움직이며, 낯선 세상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손님으로 받아들여진 매니시가 들어서자마자 당부받은 일은 반 가면을 착용하는 것이었다. 흰 바탕에 모조 보석과 빨간 물감으로 꾸며진 가면이었다.

그녀들의 일터는 확실히 범상치 않은 곳이었다. 제법 큰 홀, 어두운 톤에 무거워 보이는 테이블과 소파들이 즐비했다. 매니시도 그중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페니의 수다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뜨거운 홍차로 바지 중앙에 지도를 그려줬지. 그 의원 다신 안 오더라."

페니의 무용담은 끝도 없이 튀어나왔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녀들의 직업환경은 다소 변태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테이블마다 남녀가 섞여 앉아 있었지만, 가면을 쓴 쪽은 모두 남성들이었다.

손님은 모두 남자, 일하는 쪽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들. 따지고 보면 무용담을 쌓기 좋은 환경이었다. 매니시의 훈련소 타령은 변태 퇴치라는 분야에 한해서 그럴듯한 부분이 있었다.

"틀렸어. 그건 소설가 때지."

어느새 땋은 머리를 풀어 내린 여인, 코이가 지나가며 훈수를 뒀다. 그녀와 소녀는 건물에 들어선 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설가?"

익숙한 단어가 나오자 매니시의 몸은 대답해줄 만한 사람에게로 기울었다.

"맞다. 의원이 아니라 소설가였어. 꽁꽁 가린다고 큰 가면을 썼는데 머리 까진 걸 못 가려서 아들한테 들켰었지. 알고 보니 부자가 다 우리 단골이더라고."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례하게 캐물었다거나 멋대로 소재 삼아서 취재를 부탁했다거나, 매니시의 머릿속에는 바지에 지도를 그린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다. 매니시는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페니의 대답을 기다렸다.

"날 찬양하더라고. 음탕한 육체에 순수한 아이의 영혼이 들었다나 뭐라나, 내가 거시기의 여신이라도 된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뜨거운 성수를 부어준 거야. 정화 작업."

말을 끝내고 윙크까지 하는 페니의 모습에 매니시는 결국 웃음을 터트렸다. 웃음이 잦아들자 자연스레 소파에 몸을 기댄 매니시는 그제야 연회장을 구석구석 뜯어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박혀있는 비싼 마법등과 시종일관 들리는 음악, 여인들의 나긋한 걸음걸이는 매니시도 종종 보던 것들이었다. 마치 귀족들의 사교장같이, 페니의 무용담이나 이상한 남녀의 성비와는 다르게 가게의 분위기도 제법 좋았다.

그런데도 이곳을 떠도는 기묘한 분위기는 가면 때문이었다. 매니시는 시선 안에 들어오는 가면 쓴 남자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봤다. 가면 때문인지 모두 은밀하고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온갖 보석과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가면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하얀 가면을 쓴 남자도 있었다. 하얀 가면을 쓴 남자의 진한 금빛 눈은 조도가 어두운 홀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를 향해.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남자의 곧은 눈빛은 가면 속까지 훑을 듯 강렬했다. 먼저 눈을 피한 것은 매니시였다. 그녀의 경우 변장 위에 변장을 한 격이라 지레 발이 저린 것이었다.

"뭐 좀 마실래? 내가 살게."

"난 잘 몰라서, 추천해줘."

"좋아. 기대해!"

붉은 눈썹이 불길하게 춤을 춤과 동시에 사라진 페니는 웬 병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전설 속 마룡이 조각된 금색 뚜껑부터가 시선을 사로잡는 병이었다. 페니의 걸음을 따라 투명한 유리 안에 든 새까만 액체가 찰랑거렸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직 먹고 죽은 사람은 없어."

페니가 손가락 사이에 끼고 온 잔 한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술을 따랐다. 그와 동시에 테이블 위로 몇몇 시선이 쏟아졌다.

"마셔봐."

"넌?"

"난 나름 근무시간이라 안 되지."

턱을 괸 페니의 눈동자가 불편할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다. 매니시는 따라오는 시선들을 떨굴 생각에 잔을 들었다.

멋모르고 한 모금 넘긴 매니시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감겼다. 타들어 가는 통증에 목을 부여잡은 매니시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때 그녀의 입술에 차가운 유리잔이 닿았다.

"마셔요."

눈을 번쩍 뜬 매니시는 내용물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잔을 받아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타들어 가는 길을 쓸어내렸다. 물을 남김없이 마신 매니시는 그제야 한숨 돌리며 목소리의 주인을 쳐다봤다.

양 갈래로 땋은 머리와 프릴이 잔뜩 달린 원피스, 실내에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망토까지 두른 코이였다. 코이는 저를 기묘하게 바라보는 매니시의 시선도 모르고 웃어 재끼는 페니를 타박 중이었다.

"물을 미리 준비했어야지. 내가 안 쫓아왔음 어쩔 뻔했어?"

"미안 미안. 신나서 깜박했어."

"어쨌든 이제 그만 놀고 따라와. 시간 다 됐어."

코이는 아까부터 그녀가 드나들던 홀의 쪽문을 향해 턱짓하고 돌아갔다. 대화의 흐름상 그 뒤를 페니가 따르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매니시는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갑작스레 분주해지는 분위기에 매니시는 따지려던 것도 잊고 자리에서 일어난 페니의 손을 붙잡았다. 페니는 가면 사이로 보이는 불안에 갇힌 눈동자를 보고 약간의 가책을 느꼈다. 그녀의 입에서 모처럼 친절한 설명이 나왔다.

"공연 시간이 돼서 그래. 이제부터 재밌을 거야."

"공연? 무슨 공연? 노래해?"

"아니,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연. 직접 보면 알아."

매니시의 입장에서는 썩 불친절한 설명일 뿐이었다. 그러나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페니는 좀 이따 보자는 말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갔다. 정신을 차린 매니시가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나 혼자 있으라고?"

"기대해!"

손까지 흔든 페니가 쪽문으로 떠나고 해가 지는 것처럼 홀의 조명이 차차 어두워졌다. 간신히 사물의 윤곽만 느낄 정도로 어두워지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홀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사그라들었다.

매니시는 밝은 홀 가운데 혼자 앉아있는 것보단 나은 기분이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녀를 먼저 놀라게 한 건 어떤 소리가 아니라 황홀한 빛이었다. 홀이 적당히 어두워지자 테이블마다 박혀있던 야광석이 은은한 녹빛을 뿜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에 내려와 군락을 이룬 것처럼 환상적인 광경이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는지 홀은 야광석이 빛나는 소리라도 들릴 듯 조용했다.

매니시는 시꺼먼 술이 담긴 유리잔을 흔들며 혼자 남은 뻘쭘함을 달랬다. 차마 마실 용기까지는 없었던 매니시가 세 번쯤 돌린 잔을 코 가까이 갖다 댔을 때였다.

동그랗게 잘린 것처럼 응축된 조명이 페니가 나간 쪽문으로 쏘아졌다. 곧이어 열린 쪽문으로 분홍 망토를 둘러쓴 코이가 들어섰다. 어둠 속에 홀로 빛을 받는 코이에게서 좀 전까지의 냉소적이고 귀부인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전쟁 이전의 매니시처럼 생기 넘치는 소녀로만 보였다.

테이블 사이로 지나가는 분홍 망토의 소녀를 따라 동그란 불빛이 함께 움직였다. 코이는 능청스럽게도 허공에 손짓해 뭔가를 걷어내는 척하며 허리를 굽혔다. 소녀는 시종일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에 대해 투덜거렸고 우거진 숲길을 혼자서 헤치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연일 것이라는 페니의 말은 한 치의 거짓도 없었다. 심부름을 위해 숲길을 거니는 분홍 망토의 소녀라니, 제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스토리였다. 그러나 제국민에게 익숙한 형태는 아니었다.

늙은 촌부의 마른 입술이 빚어낸 음성도, 종이 위에 죽은 듯 누워있는 활자도 아니었다. 매니시는 눈부신 빛 속에서 실현되는 이야기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낯선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처음이신가 보군요."

매니시가 앉은 소파가 한쪽으로 기운 것은 철없는 늑대 마수가 등장해 여기저기 웃음이 터질 때였다. 그를 틈타 태연하게 질문을 던진 이는 웃는 것처럼 눈이 휜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쓴 신사였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매서 유독 가면만 수상한 녹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태껏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의 모습이었다.

당황한 매니시에게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는지 야광석에 의지해 매니시의 행색을 살펴보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푸석하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들뜬 머리꼭지를 한참 들여다보던 그의 입가에 가늘 한 미소가 걸렸다.

"독한 술을 마시던데, 좋아하십니까?"

공연에 방해되지 않게 속삭이는 신사의 목소리는 나무를 타고 오르는 뱀처럼 기척이 없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젓는 매니시의 목에 소름이 돋았다.

가면 신사의 긴 손가락이 매니시가 남긴 술잔을 타고 미끄러져 얇은 기둥을 죄었다. 그는 그녀 대신 독주를 한 모금 넘기고 공연에 눈길을 주었다. 흥미로워하는 시선은 아니었다. 늑대 분장을 한 까무잡잡한 소녀가 나무를 괴어 홀에 덜렁 세워놓은 낡은 나무문을 노크했다.

"난 좋아."

분홍 망토의 소녀인 척하는 늑대와 할머니의 대화 속에 덩그러니 끼어든 그의 음성이 밝았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할머니를 속인 늑대가 문을 열기 전 지은 미소와 소름 끼칠 만큼 닮아 있었다.

"이런 심부름은 처음인가 보군. 현금은 물론 준비했겠지?"

마치 늑대 마수의 대사 같은 말이었다. 순식간에 말투를 바꾼 남자의 수상함 때문이었을까, 매니시는 과할 정도로 챙겨 넣은 돈주머니에 절로 손이 갔다. 물론 딴에는 가려보려는 의도였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켰다. 주머니를 주시하던 남자는 가득 찬 제 금고라도 열어본 양 즐거운 기색이었다.

매니시는 그쯤에서 그 즐거운 얼굴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심부름 중인 분홍 망토 소녀가 아니었다. 이 늑대 같은 가면 신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녀를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이 매니시가 마신 비싸고 화려한 독주와 들뜬 가발 때문임을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겁먹은 매니시가 그의 착각을 바로잡기도 전에 상황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붉은 조명과 할머니의 끔찍한 비명을 배경으로 그가 꺼내 든 것은 장갑 한 짝이었다. 장갑은 보석상들이나 낄 법한 부드러운 직물로 짜인 장갑이었지만, 붉은빛에 물들어 힘없이 늘어진 모습은 전혀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가면 신사의 손에 장갑이 씌워진 순간 매니시는 물씬 풍기는 범죄의 냄새를 맡았다.

"댁네 주인이 주문하신 공격계통으로 2급, 3급이 있는데, 급하나 차이면 공 하나가 더 붙어. 일단 물건부터 보여드리지."

매니시는 바로 귀 옆에서 뛰고 있나 싶을 만큼 크게 들리는 심장박동 소리에 온몸이 휘청일 지경이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언뜻언뜻 위험한 단어가 들린 듯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였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제 와서 그의 착각을 정정해주고 빠져나가기란 요원치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도망가는 것도 좋은 대응은 아닐 테고. 도움을 바라는 매니시의 간절한 눈빛이 어두운 홀 안을 떠돌았다. 그러나 야광석의 미약한 불빛은 은밀한 구조신호를 보내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조차 다른 테이블에 앉은 면면들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건 3급."

기어이 남자의 품에서 손바닥만 한 케이스가 꺼내졌다. 입을 벌린 케이스 안으로 구슬의 모습이 드러났다. 지름이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구슬은 들어온 위명에 비해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매니시는 그것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마성구였다. 마수의 사체에서 드문 확률로 찾아지는 마법의 정수. 그것은 마수의 고유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성질을 띠고 있어 능력의 위험성에 따라 특급부터 5급까지 분류되었다. 4, 5급의 마성구라면 일상에서 간혹 접할 수 있는 마도구의 재료였다.

이 홀을 밝히고 있던 등만 해도 가장 흔한 종류의 마도구가 틀림없었다. 주체못할 자금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소지할 수 있는, 하지만 3급 이상은 얘기가 달랐다. 그것은 제국의 허가 없이 유통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그것이 공격성을 띠는 것일 경우는 더더욱.

그러니까, 일 났다.

때아닌 해일은 매니시의 얼굴에서 핏기를 쓸어갔다. 2급 이상의 마성구는 제국법상 거래조차 금지된 품목이었다. 그를 위반한 죄인의 죄목은 때에 따라 반역이 될 수도 있는 중죄였다.

어두운 환경과 가면의 조화는 창백해진 매니시의 얼굴을 썩 잘 가려주고 있었다. 덕분에 남자는 급변한 매니시의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얼어붙은 그녀의 모습은 침착함으로 오인당해 점수를 더 얻고 있었다. 그런 탓에 그의 손은 함부로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이게 2급이지."

스치듯 옷깃을 만진 가면 신사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보석함이 조개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새끼손톱만 한 마성구가 함 속에 반쯤 묻혀있었다. 2급 공격계 마성구가 가지는 위험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기자기한 모습이었다.

불시에 얼어붙은 몸을 해동 당한 매니시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고 구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쨌든 평생에 다시 못 볼 진귀한 것이었으니까.

마성구에 홀린 게 그녀만은 아니었는지 남자의 목소리도 황홀감에 젖어있었다.

"가공된 후에 내뿜는 마법은 더 아름답다고. 이 작은 구 하나에 수십 명을 일시에 쓸어버릴 힘이 담겨있어."

내용은 전혀 황홀하지 않았다. 매니시는 뜨거운 탕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놀라 몸을 젖혔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칼날이 떨어진 것은. 소리도 바람도 통제된 듯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훈련된 칼은 매니시와 가면 신사의 사이로 끼어들어 음산한 예기를 자랑할 뿐 고요했다. 생각에 잠겨 부산스레 몸을 추스른 매니시는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였다. 찰나 같은 정적이 지나고, 그녀는 한발 늦게 쏟아지는 현실에 발을 들였다.

공연을 긴박감 넘치게 만들던 음악은 자취를 감췄고 조명 밑에서 반짝이는 여인들의 비명이 자리를 대신했다. 여인들의 경악스러운 눈동자와 부딪힌 매니시의 심장은 여느 때보다 크고 빠르게 연주되고 있었다. 침을 삼킨 매니시의 고개가 고장 난 오르골처럼 더듬더듬 돌아갔다.

"움직이지 마."

그녀의 고개는 목적지를 앞두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때문이었다. 나직한 사내의 음성은 소란과 침묵을 버무린 현장 속에서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매니시의 목가에 드리워진 그의 칼처럼.

"젠장."

뻣뻣하게 굳은 매니시가 움직일 마음이 없는 것은 명백했다. 그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떨고 있는 것을 예외로 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녀와 같은 소파에 앉은 신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다. 작은 욕설과 함께 눈을 굴리던 신사의 허벅지 근육이 팽팽해졌다.

가면 신사는 왼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오른쪽에 드리워진 칼을 쳐내고 테이블 위를 박찼다. 그는 금방이라도 저 멀리 쏘아져 나갈 듯 몸을 낮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검을 드리운 자가 범상치 않은 실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지팡이와 맞닿은 칼은 가면 신사의 생각처럼 튕겨 나가지 않고 지팡이를 타고 올랐다. 아슬아슬하게 걸친듯한 칼날은 실상 새끼줄 꼬듯 단단하게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다. 신사의 몸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체념한 듯 감긴 남자의 눈꺼풀 속에 불안한 미래가 절로 떠올랐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면 신사가 처박힌 곳은 바로 맞은편 자리였다. 갑작스레 불똥이 튄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분노에 찬 고음이 꽂혔다.

"꺅. 어딜 감히!"

맞은편 자리에 몸통박치기를 펼친 남자의 머리 위치가 문제였다. 그는 엄한 곳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있었는데 몸의 상처 때문인지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그의 얼굴에 덮인 하늘색 치맛자락의 주인은 그 점을 이해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윽."

여인은 가면이 벗겨진 신사의 오뚝한 코가 얄궂은 불씨라도 된 듯 구두로 비벼 끄고 있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어딘가 가련한 남자의 신음만이 울렸다.

그때 홀의 문이 열리고 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검은 망토와 금장, 창단부터 제국 수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황제의 특별 기사단 표식이었다.

매니시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 굳어있던 몸을 긴 한숨과 함께 풀어냈다. 수도의 특수 범죄를 다루는 기사들이 왔으니 어쨌거나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알아서 해결해 줄 터였다. 매니시는 몸을 기댄 푹신한 소파에 새삼 감탄하며 돌아가는 상황을 살폈다.

빵 반죽처럼 부푼 신사의 주위로 검 손잡이를 쥔 기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매니시는 그들의 떡 벌어진 어깨며 잘 벼려진 눈빛이 더없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무너져 그녀의 발등을 찍을 줄도 모르고.

남자를 포위한 그들의 진형은 원 모양이라기보다는 눈사람 모양에 가까웠다. 작은 원의 중심에는 아직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빵 반죽이 있었고, 큰 원의 중심에는 얄궂게도 그녀 자신이 있었다. 매니시의 몸은 궁지에 몰린 초식 동물처럼 떨리고 있었다.

"체포해라. 심문은 본부로 압송한 후에 한다."

검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사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원이 조여들었다. 기사들의 굽 소리와 마지막 발악인지 실성한 듯 악을 쓰는 반죽의 고함, 그 사이로 파고든 금빛 눈동자를 스치듯 일별하고 매니시는 홀을 떠났다. 아니, 끌려갔다.

로얄 수사단의 단장 워로드 루푸스는 부하들에게 끌려나가는 작은 뒤통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가면에 가려진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머리 모양부터 실루엣까지 그의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 듯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기억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소년이 이런 일에 휘말릴 인사가 아니란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눈길을 잡아채는 찝찝함이 문틈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검을 갈무리한 워로드의 발이 멋대로 움직였다. 한 걸음, 두 걸음,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발이 바닥을 박찼다. 그러나 채 두 걸음을 떼기도 전에 그를 붙잡는 것이 있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제 말 좀 들어줘요."

타는 듯한 붉은 머리의 여인, 홀 밖에서 공연을 진두지휘하던 페니였다. 홀 안의 소란에 달려들어 온 그녀는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페니가 주춤한 워로드를 잡아챈 순간 홀의 문이 닫혔다. 그녀는 워로드의 험악한 시선 아래 입을 열었다.

"몸수색 금지, 무력행사 금지, 남자 금지!"

미친 듯이 단장에게 달려가는 여자를 주목하고 있던 기사들이 발을 삐끗했다.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은 그들이 단장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도 워로드는 이미 닫힌 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워로드가 근처에 서 있던 기사에게 눈짓하자 그가 가까이 다가와 페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사 된 도리로 차마 여성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순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해요."

한층 낮아진 목소리의 페니가 가리킨 것은 그녀를 향해 내민 기사의 손이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기사와 여자를 한심스러운 눈초리로 본 워로드가 팔을 털어내자 꼭 붙어있던 페니의 손이 쉽게 떨어져 나갔다.

"해결해. 난 먼저 간다."

"...여자에요."

또 채 두 걸음을 걷지 못한 워로드가 한숨을 내쉴 때였다. 페니는 참을성이 다해가는 상대방의 안색에 더 뜸 들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방금 당신들이 끌고 간 내 손님, 여자라고요."

"여자?"

뒤따라온 기사의 귓속말에 에이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다리를 치료받고 있는 반죽남을 노려보다 덜덜 떠는 매니시를 턱으로 가리켰다.

"쟤야?"

"예."

"단장님은?"

"중요한 진술만 듣고 따라오시겠답니다."

에이드의 입에서 익숙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가 워로드의 보좌관으로 있으며 하루에 한 번 이상 내는 소리였다. 오늘도 에이드의 상관은 그에게 색다른 난관을 선사하고 있었다. 그만큼 에이드는 여자라면 질색이었다.

그 사이 남자의 다리 치료가 끝났는지 죄인 호송용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에이드는 반죽남과 매니시를 번갈아 살폈다. 반죽남은 혼자서 잘 일어서지도 못해 병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가 덜덜 떠는 중이라고 판단했던 남장여자는 손을 코앞까지 들어 수갑을 살피고 있었다.

영락없이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도주를 계획하는 모습이었다. 한두 번 해본 남장이 아닌 듯 자연스러운 연기 또한 여간 수상한 것이 아니었다. 에이드는 덜 익은 감을 입에 문 듯 찝찝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네이브 녀석 붙여."

"직접 가진 않으십니까?"

"난 단장님 수행하고 갈 거니까 알아서들 해. 네이브가 그래도 실력은 믿을만하니까. 다만 실수 안 하게 여자라고 귀띔해주고 잘 지켜보라고 해."

명을 받은 기사가 한참 손거울을 들여다보느라 바쁜 네이브에게로 가자 에이드는 애써 몸을 돌렸다. 짐이 늘어난 나귀인 양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그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이일 저일 떠넘기기 좋아하는 단장 밑에 있자면 이 정도 꾀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마차 안에는 이렇게 셋이 앉게 된 것이다. 현장 검거된 절뚝이는 반죽 하나, 남자 옷을 입은 수상한 여자 하나, 벌건 얼굴의 기사 하나.

기사의 눈은 연신 가면을 벗은 매니시의 얼굴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완만한 곡선을 따라 눈매를 올랐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면 진주처럼 은은히 빛나는 콧방울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얼굴이 핑크빛으로 물든 네이브는 금방이라도 침이 흐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매니시는 개 앞의 뼈다귀라도 된 기분으로 몇 분째 집요한 시선을 견디고 있었다. 처음에야 낯설고 무서웠다지만, 마차에 탈 때부터 묘하게 친절한 기사들의 태도와 눈앞의 대형견 한 마리로 인해 긴장이 풀린지도 오래였다. 죄가 없는 그녀가 자신의 무죄를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제 매니시에게 남은 것은 작가의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 그리고 경계뿐이었다.

매니시는 남자 행색의 자신을 침 흘리며 바라보는 변태와 확정적 범죄자를 피해 마차 내부를 관찰했다. 우습게도 죄인을 실어나르는 이 마차는 평민들의 삯마차보다 안락했다. 단지 거슬리는 냄새를 뺀다면 말이었다.

"...저기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헉, 그게 나요?"

당황한 네이브는 제 가슴께의 옷자락을 집어 코에 들이댔다. 그러나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옷자락이 그의 코까지 닿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그의 고개가 구부려졌다.

그 순간 네이브의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남자의 수갑 찬 손이 올라갔다. 매니시와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무슨,"

놀란 매니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손은 네이브의 목덜미로 떨어져 내렸다. 네이브의 머리칼이 차가운 수갑의 표면을 스치고 남자의 손은 허공을 강타했다. 네이브의 등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불어터진 남자의 입꼬리가 삐죽 솟았다.

마차의 끝까지 굴러간 네이브가 고개를 들었을 땐 매니시가 남자의 수중에 들어간 후였다. 매니시는 수갑 줄을 초커처럼 목에 걸치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오늘만 두 번째로 느끼는 살해 위협에 매니시는 울고만 싶었다.

"미안하게 됐어. 감옥은 영 취향이 아니라서 말이야."

폭력이 이끈 흥분으로 뜨겁게 달궈진 숨이 매니시의 귓가로 스며들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습기 진 목소리는 그녀의 목을 조이는 쇠사슬보다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었다.

네이브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매니시를 주의 깊게 살폈다. 조금 전까지 그가 속으로 찬양해 마지않던 부드러운 눈매는 돌덩이처럼 굳어있었고, 마치 장갑이라도 낀 양 하얗게 질린 손은 차가운 쇠사슬을 더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식한 행동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생존 본능은 깨어있는 모양이었다.

네이브가 시간을 끌기 위해 입을 열었다.

"인질이라고 잡은 게 고작 같이 쇠고랑 찬 인간이냐?"

내부의 소란을 감지한 마부가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그와 함께 마차 뒤에 따라붙었던 기사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도 들렸다. 이에 네이브는 아무도 모르게 어깨에서 힘을 뺐고, 발효된 반죽처럼 부푼 얼굴의 남자는 웃었다.

"글쎄."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부의 비명과 함께 요란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차는 길을 잃은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황한 마부와 기사의 고함이 날아들었다.

무승 일이야?

부, 불이!

남자에게 박혀있던 네이브의 시선이 흔들렸다. 곧이어 그가 남자의 뒤에서 넘실거리는 검은 연기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남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네이브가 작은 비명과 함께 밀쳐진 매니시를 받아내자 마차는 일순 넘어가기라도 할 듯 휘청였다. 천둥이라도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고 찬 기운이 몰아쳤다. 그러나 네이브의 품에 싸진 매니시는 말할 것도 없고 매니시를 감싸느라 바쁜 네이브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매니시 대신 여기저기 부딪힌 네이브의 몸이 멍투성이가 되리라는 것뿐이었다.

휘청이던 마차가 균형 아닌 균형을 찾은 것은 더는 바퀴가 구를 수 없게 됐을 때였다. 바퀴 하나가 혼자만의 길을 떠나고 마차는 남자가 있던 쪽으로 푹 꺼져 당장이라도 미끄러질 듯 기운 상태였다. 마차를 가득 메운 연기, 커다란 구멍이 생긴 마차, 당연하게도 한 덩이처럼 붙어있는 매니시와 네이브를 제하곤 아무도 없었다.

"...난 망했어."

절망에 빠진 음성이 매니시의 고막을 찔렀다. 마차는 더할 나위 없이 통풍이 잘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탄내로 가득해 매니시의 상황 판단은 빨랐다.

네이브는 기운 마차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한 손으로는 문손잡이를 한 손으로는 매니시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매니시의 동공에 초점이 돌아온 줄도 모른 채 반대쪽 문을 발로 걷어찼다. 튼튼해 보이는 나무문이 공처럼 멀리 튕겨 나가고, 두 사람은 무사히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정확히는 네이브의 발만 뛰어내린 것이다.

매니시는 곧바로 네이브에게서 떨어져 제 발로 섰다. 불과 몇 분 전에 마주했을 법한 놀란 시선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불붙은 꽁무니를 바닥에 굴리고 있는 마부의 뒤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사도 보였다.

매니시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머리를 움켜쥐었다. 미끄러지는 그녀의 손에는 갈색 가발이 들려있었다. 머리에는 골무 같은 황토색 망을 쓰고 박력 넘치게 걸어간 매니시의 목표는 구경꾼이 들고 있던 물통이었다.

갈색 가발이 찬물에 젖어 들고 그것은 곧 정확한 솜씨로 마부의 엉덩이에 안착했다. 작은 불씨는 곧 사그라들었다.

마침내 가발을 쥐고 몸을 일으킨 마부의 눈에 답답한 망 위로 머리를 꾹꾹 긁는 매니시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수갑이 무색하게도 영웅 같은 모습이었다.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모자를 털어 두 손으로 내민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어쩌죠?"

마부의 호의를 받아들여 모자를 쓴 매니시가 떨떠름한 미소로 말을 꺼냈다. 가발 대신 모자를 얹은 그녀는 여전히 미형의 남자 같은 차림새였기 때문에 그 미소는 뭇 여성의 가슴을 들썩이게 했다. 그리고 네이브의 가슴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우선, 꽃을 좀 따오겠습니다!"

달려가는 네이브의 뒷모습이 지나치게 상큼했다. 폭풍은 급작스럽게 온 것처럼 빠르게 멀어졌다. 그 뒷모습이 안 보이게 되자 기사가 입을 열었다.

"봉부가 가까우니 걸어가도 됩니다."

"그보다 저 사람 갑자기..., 안 말려도 되나요?"

"도맘갈 겁니까?"

"아뇨?"

"그럼 됐습니다. 없늠 게 남습니다."

이상한 말투의 기사는 환한 얼굴로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남은 게 많은 얼굴이어서 매니시가 멍하니 그의 얼굴을 구경하는 동안 경비대가 도착했다.

반파된 마차를 경비대에게 맡기고 걷기 시작한 세 사람은 건물들 위로 둥글게 솟은 기사 본부가 보일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매니시가 죽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입을 뗐다.

"항상 저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안이 궁금했는데 정말 들어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별거 아닙니다. 수감 찬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 보능 곳인데요."

심드렁한 얼굴의 기사가 손목을 공손하게 만드는 장신구에 대해 잠시 잊고 있던 매니시를 일깨웠다. 얼굴을 붉힌 매니시는 제 처지가 처량해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저 감옥으로 가는 건 아니죠? 저 진짜 억울해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쇼. 수사관님이 다 들어주실 터이니."

마부가 저를 부축하는 기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평민과 기사 사이의 거리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친근한 태도였다.

"수사관님? 이 기사님이요?"

"기사가 아닙니다. 수사광이죠."

"수사광? 그치만 소문에 그 복장이 특별 기사단복이라고..."

시중에는 이미 검은 망토에 금장을 단 인형이 특별 기사단의 이름을 달고 판매 중이었다. 매니시는 당장에 근처 아무 잡화점에 들어가더라도 그 인형을 한 개쯤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뭉은 그렇지맘 실제로 우리 중에 기사 작위가 있는 건 단잠님과 에이드 씨뿐입니다. 우린 다들 평밍이라."

매니시는 그가 생략한 말 뒤에 어떤 것이 숨어있을지 짐작이 갔다. 특권의식에 찌든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으리라. 그러나 평민이라 기사가 될 수 없었다는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수도 기사들의 집결지, 수도 기사 본부의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경비를 서고 있던 병사들은 그에게 공손히 인사까지 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그리고 여긴 기사들이 사용하는 곳 아닌가요?"

"폐하께서 내리신 정식 명칭이 로얄 수사단이긴 한데 다른 기사단보다 상위기관이기도 하고 구성원도 별 차이 없고, 다들 수사단장님을 존경하니까요. 그냥 특별 기사단이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난 여기서 이만. 아가씨, 행운을 빌어요."

엉덩이를 부여잡은 마부가 건물 입구에 위치한 의무실로 사라지자 기사의 걸음은 언제 느렸냐는 듯 빨라졌다. 매니시는 마부의 설명을 머리 한쪽에 밀어두고 그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긴 복도를 따라 들어가 고소한 고기 냄새를 마주했을 때였다.

칠이 벗겨진 나무문에는 로얄 수사단이라고 대충 휘갈긴 종이가 붙어있었다. 그마저도 종이 가장자리가 들떠 접히고 찢어진 채였다. 예상과는 다른 첫인상에도 매니시의 떨리는 마음은 도통 누그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부러 가볍게 말을 꺼냈다.

"신생 기관이라 아직 정리가 안?"

그러나 매니시는 애써 꺼낸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근원지를 알 수 없이 울려 퍼지는 커다란 종소리 때문이었다.

"이런."

기사는 매니시의 손목을 붙들고 문에서 물러서더니 벽에 최대한 달라붙었다. 그 순간 짐승의 울부짖음과 악단의 북소리 같은 것이 복도를 울렸다. 규칙적인 여러 개의 소리가 겹쳐 군중의 박수 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바닥의 진동은 그 소리가 정신 나간 발소리라고 알려주고 있었다.

성난 소 떼라도 몰려올 듯한 느낌에 매니시는 영문도 모르고 기사를 따라 벽에 붙어 섰다. 소리의 정체가 밝혀진 건 바로 매니시가 벽에 붙어 선 직후였다.

그들이 붙어 선 벽의 양쪽에 달린 문들이 벌컥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는 매니시의 목적지이기도 한 로얄 수사단의 문이었다.

"밥!"

"야, 오늘 후식 뭐래?"

"생딸기 푸딩. 늦게 가면 하나도 없을걸?"

"이거 오늘도 근무조는 경쟁이 치열하겠구만."

"무슨 소리, 경쟁은 이미 시작됐어. 달려!"

매니시가 지나온 복도를 흘긋 본 사내가 소리치더니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곧 뛰어가는 선두그룹의 뒤로 정신 나간 발소리의 원인이 따라붙었다. 수십 명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이 일으키는 바람에 매니시는 빌려 쓴 모자가 날아갈까 한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이따금 자연 그대로의 상반신을 한 사내들이 섞여 있는지 매니시는 살색 잔영을 따라 사라지는 무리를 황망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들의 목적지가 생각보다 가까웠는지 웅성거리는 소리도 더해졌다.

무리에 끼지 못한 낙오자들이 하나, 둘, 복도의 북소리는 한동안 끊이지 않을 모양이었다. 무리가 사라진 저편에선 싸움이라도 난 듯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매니시는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전쟁?"

"그냥 식사 시감입니다. 이 코너망 돌면 식당이라서 이 시간대는 위헝하죠."

"그냥, 식사."

기사는 넋을 놓은 매니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매니시는 그렇게 심호흡을 할 필요성이나 심지어는 긴장 그 자체도 잊은 채, 맥없이 로얄 수사단에 몸을 들였다.

물론, 그녀가 긴장을 안 했다고 해서 일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왔나?"

찍 휘갈겨 쓴 종이만큼의 존재감을 가진 로얄 수사단, 그 안에서 매니시를 기다린 것은 날카로운 창끝을 눈 속에 담은 검의 주인이었다.

가면을 벗은 민얼굴이었지만, 매니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위협, 그 목소리와 기세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서늘한 기운에 목을 어루만질 때 기사는 어눌한 어조로 간단한 보고를 끝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부덕과 실수와 책임을 강조한 이야기였으나, 그럼에도 철저히 사실에 입각한 보고였다. 실제로 폭풍 같은 사내의 일 처리는 엉망이었으니까.

보고를 듣는 내내 수사단의 단장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냉랭한 표정으로 매니시만을 응시했다.

"그럼 저능 이만."

보고를 마치고 돌아선 기사와 눈이 마주친 매니시는 저절로 볼살이 떨리는 기이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생각 같아선 발이라도 걸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기사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떨쳐내는 손길은 가차 없었다.

"딸기 푸딩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는 매니시를 만나고 처음으로 한 군데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제국어를 구사해냈다.

로얄 수사단의 사무실 그 안쪽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다. 바로 수사단의 단장, 워로드의 집무실이었다. 매니시는 그곳에 수갑을 찬 채 강제적으로 초대받아 서 있는 참이었다. 시계의 분침이 껑충껑충 나아갈 동안 앉으라는 권유도 없이 그녀를 노려보는 방 주인을 원망하며.

아무리 그녀가 어디 가서 귀족 대접을 못 받는다지만, 여성을 이토록 오랜 시간 세워놓는 남귀족은 처음이었다. 물론 어떤 영애도 남장에 수갑이라는 파격적인 패션 감각을 선보이지는 않았을 테지만.

"아."

매니시의 입에서 깨달음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휑한 목덜미를 쓸고 올라간 작은 손이 모자를 더듬는 동안 워로드는 책상에 기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찾는 소년과 눈앞의 여자가 동일인물이 아님을 알고서도 두 사람을 머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꼭 그의 어깨에 간신히 닿을 듯한 키라던지, 그의 한 손으로 터트릴 수 있을 만치 작은 얼굴. 어쩌면 드디어 만난 것은 아닐까, 그런 그의 생각을 막은 것은 매니시의 돌발 행동이었다.

매니시는 문득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존중받길 기대하면 안 되는 차림새라는 것을. 그녀의 고민은 짧았다. 어차피 조사 중에 밝혀질 일이라면 그녀의 손으로 드러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했다.

묶인 손으로 힘들게 실핀을 제거한 매니시가 모자와 머리망을 한 번에 벗어들었다.

구불구불하게 엉킨 하얀 실타래가 툭 터져 나와 둥근 어깨를 쳤다. 매니시가 고개를 흔들자 초승달처럼 둥글게 휜 귀밑머리도 파르르 떨리며 그녀의 볼을 간지럽혔다. 워로드는 떨리는 귀밑머리를 보다가, 그녀의 엉성한 손길로 낸 가르마를 보다가, 흘러내린 머리칼을 따라 얼굴을 응시했다.

그가 찾던 소년과는 전혀 달랐다. 앞에 선 여자의 얼굴은 훨씬 맑고 부드러웠다. 소년 같은 차림은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더없이 여자였다.

"일단 앉아라."

워로드는 페니의 진술을 다 듣고 온 참이라 매니시를 목격자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그 사실은 함구했다. 그녀가 정체를 숨긴 이유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매니시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발을 벗는 순간 긴장의 끈이 탁 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머리를 풀러 내린 매니시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내심 어떤 말이 나올까 긴장하고 있었다. 분노나 당황, 경계와 의심, 그 무엇이든 받아들일 셈이었다. 그런 그녀가 느끼기에 그의 첫 마디는 허탈할 정도로 건조했고, 이상스레 부드러웠다.

어쨌든 다리가 슬슬 저리는 그녀에게 나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기다리던 제안에도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워로드의 집무실에는 그를 위한 책상과 한 쌍인 의자, 서류철을 정리해놓은 책장 세 개가 있을 뿐 매니시가 앉을만한 의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니시가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자 워로드는 그제야 제 실수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기대고 있던 몸을 일으켜 책상 옆에 무덤처럼 쌓인 서류들을 책상 위로 던졌다. 보지도 않고 던진 서류 뭉치들이 맞춘 듯 쌓여갔다. 곧 새로 생긴 서류 탑 옆으로 등받이가 없는 둥근 나무 의자 하나가 드러났다.

"앉아."

하얀 탑을 질린 얼굴로 노려본 워로드가 책상을 돌아 그의 체구만큼이나 큰 의자에 앉아 말했다. 매니시는 어쩐지 그런 그가 처음보다 덜 무섭게 느껴졌다.

"이름."

"매니시, 레우카스. 요."

수갑을 차고 레우카스를 입에 올리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그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당했다. 그러한 마음속의 당당함이 짧은 말로 표현된 것은 고의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언젠가의 외숙모처럼 엉성한 존댓말로 진술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그런데요. 원래 이렇게 심문할 때 얼굴을 안 보고 하나요?"

매니시는 양 손바닥에 예쁘게 턱을 괴고 물었다. 그와 그녀 사이엔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는 서류 탑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눈앞의 하얀 서류 탑을 떠돌다 초점을 잃은 지 좀 되어 멍하니 굴러다니고 있었다.

"...내가 너무 편하게 대했나 보군. 엉뚱한 데에 신경 쓸 정신 있으면 심문에나 집중해라!"

어떤 상황에도 차분하던 그의 언성이 높아지자 매니시는 편하게 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타이밍 좋게 그는 서류 탑을 책상 반대편으로 제쳐두었다.

그의 운동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높이 쌓인 서류 뭉치들은 조금 미끄러지거나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가 서류 탑에서 손을 떼면서 잉크병을 치지만 않았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으로 보였을 것이었다.

쏟아진 검은 잉크가 책상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뚝, 뚝, 물방울 고이는 소리와 함께 집무실에는 다시 한번 정적의 시간이 찾아들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워로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깃펜을 쥐고 질문했다.

"그게... 처음에는 형편상... 요즘에야 여러모로 편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이랄까, 걸레 없어요?"

그의 노력을 봐서 모른 척해주고 싶은 매니시였지만, 그가 깃펜을 쓰기 위해 책상에 고인 잉크를 두 획에 한 번씩 찍어대는 모습은 너무 가여웠다. 책상에 고여있던 소량의 잉크는 금방 마를 테고 매니시는 그가 한 획에 한 번씩 찍어대는 모습까지는 차마 볼 수 없었다.

"...질문에 집중해."

"하지만 그 글씨 같은 걸 나중에 읽을 수 있을까요?"

매니시의 눈길을 따라간 워로드는 제가 쓰던 진술서를 내려다봤다. 깃펜이 말라 드문드문 글씨가 끊겨있었다. 평소의 그가 악필이라 보좌관이 암호 해독 수준의 임무를 했다면 이번엔 소실된 고대 언어를 복구해서 해독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악필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좌관을 괴롭히는 것이 일상인 그도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한 글씨였다.

워로드는 망설임 없이 종이를 구겨버리고 첫 번째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양 열 맞춘 잉크병 군단과 깃펜 다발이 들어있었다. 새 잉크병을 뜯은 워로드는 마치 글자 공부를 하는 플럼처럼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써나가기 시작했다.

"매, 니시, 레, 우우가, 스."

"거기 가가 아니라 카예요. 레우카스."

"나도 알아."

고개를 숙인 채 눈썹과 눈동자만 들어 올린 워로드의 인상은 결코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매니시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최대한 등지고 반대 손으로 가려가며 글자를 고쳐 쓰는 남자는 무섭게 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걸레는요? 그러다 옷 다 버려요."

"여기 있을 리 없지."

"그치만 요기 이 자국이나 저 얼룩도 잉크 자국 같은데, 이렇게 뭘 자주 엎으면서 놓아둔 게 하나도 없어요?"

매니시가 책상 오른쪽 모서리와 깃펜꽂이 아랫부분을 짚어내자 그는 다시 한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서랍이었다. 서랍에서 그가 꺼내 든 것은 용도가 명확해 보이는 쥐색의 손수건이었다.

그는 받아들려는 매니시를 무시하고 스스로 책상을 닦았다. 매니시는 냉랭하다 생각했던 워로드의 얼굴이 자꾸만 불퉁해 보여 수시로 눈을 비벼야 했다.

그리고 심문은 계속됐다, 진하게 남은 잉크 자국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올려놓고. 매니시의 입이 수차례 열렸고 워로드의 입도 그만큼 열렸다 닫히길 반복했다.

"그럼 수도에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군요?"

"응."

"근데 다들 너무 치사하네요. 특별 기사단의 창단 사유가 이렇게 쪼잔했다니, 나라를 위해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기사 작위 하나 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혹시 식당 앞에 단실이 있는 것도 신분 차별이나 텃세 같은 거 때문인가요?"

매니시는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수갑 찬 손을 쉬지 않았다. 어느새 수갑이 익숙해진 손은 빠르게 진술서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아니. 이 자리는 경쟁이 세. 다들 식당이 가까운 걸 좋아하지."

이번에도 매니시는 워로드의 여전한 무표정이 뿌듯해하는 얼굴로 보여 눈을 비볐다.

"뭐가 들어갔나?"

"아뇨. 눈이 침침한가 해서요."

"천천히 써라."

"거의 다 써 가요. 그나저나 차별받진 않는다니 다행이네요. 하긴 다들 영웅이니까 당연하겠죠. 제 고향도 전쟁이 일어났던 국경지대 쪽이라 백작님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막 페니가 술을 가져온 얘기까지 쓴 매니시는 처음 본 공연에 대한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하며 깃펜을 흔들었다. 워로드는 조용히 그녀의 진술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매니시는 짤막한 대답이라도 잊지 않던 그가 아무 말이 없자 생각을 중단하고 고개를 들었다.

한 진술서를 사이에 두고 어느새 가까워진 거리에 그의 반듯한 이마가 마중 나와 있었다. 진술서를 보느라 내리뜬 눈 위로 생각보다 긴 그의 속눈썹이 보이고 곧 고개를 든 그와 매니시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낀 것이 먼지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매니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믿기로 했다. 포르스테리 제국의 영웅 워로드 루푸스 백작은 보기보다 귀여웠고, 듣기보다 상냥했으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였다. 그녀는 왠지 풀죽은 듯 보이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어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꽤 어린 병사였을 거예요. 단장님 잔심부름을 맡아 하던 녀석이었는데 부상을 당해 우리 영지로 왔었거든요. 백작님이 살려주셨다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그 녀석 때문에 우리 영지 사람들은 백작님이 무슨 색 속옷을 주로 입는지도 다 알아요."

"뭐?"

"제가 알기로 그건 바로..."

이번에는 매니시의 착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그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 매니시는 둥글게 삐친 귀밑머리처럼 짓궂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

"악!"

"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워로드의 비명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보좌 에이드가 외쳤다. 매니시는 부끄러움에 식은땀을 흘리는 얼굴이 풀죽은 얼굴보다 나은 것인지 뒤늦게 고민이 들었다.

"농담이에요. 그 애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백작님께 감사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종류의 얘기가 떠돌진 않았어요."

"그런 종류?"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꺼."

매니시는 어쨌든 목표를 완수한 데에 만족스러워 웃으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그녀가 종이를 들고 일어섰다.

"그냥 다들 고마워한다구요. 저 다 썼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우리 애기 기다릴 텐데."

플럼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었지만, 역시 그 또래의 아이가 풀 죽었을 땐 칭찬을 하거나 약 올려서 까먹게 하는 게 최고였다.

"레우카스..."

매니시가 떠난 집무실, 워로드는 그녀가 쓴 진술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끈 것은 사건의 개요보다는 낯익은 여인의 성이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지명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회한 것이었다. 그가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에이드의 보좌가 빨랐다.

"몰락한 가문입니다. 단장님께서 그곳을 구하신 후 전염병이 그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 타격으로 우리가 크로쿠타로 진격할 때쯤엔 영지의 주인이 바뀌었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마리티무스에 흡수되었습니다."

"맞아. 처음 출정했을 때만 해도 마리티무스가 아니었지. 까맣게 잊고 있었군."

"워낙 정신없이 지나갔으니까요."

"레우카스라면 그분이잖아, 다친 병사들을 돌봐주시던. 바로 내 영지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것도 몰랐어."

"그땐 아직 단장님이 영지를 하사받기 전이었잖습니까. 단장님은 그때 정신없어서 모르셨겠지만, 당시 일은 사교계에선 꽤 유명합니다. 영지를 판 대금으로 영지민들의 살길을 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신 분이죠. 귀족들 사이에선 우스갯거리로 여겨지지만, 평민들 사이에선 영웅 그 이상입니다. 그 아가씨가 레우카스가의 따님이었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는군요. 2년도 더 지나긴 했지만, 쫄딱 망했던 집안이 2급 마성구를 살 형편은 아닐 테죠. 듣기로 평민인 친척 집에 얹혀산다던데."

"자세히 알고 있군."

의아한 워로드의 시선에 에이드의 얼굴이 떨떠름해졌다.

"단장님의 그 소년을 조사하는 길에 주워들은 겁니다. 그 평민 도서관을 세운 것도 레우카스 자작이시니까요."

에이드는 이 우연이 달갑지 않았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워로드의 기억 속에서 소년에 대한 기억을 도려내고 싶은 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는 급히 다른 화제를 꺼내 들었다.

"참, 좀 전에 '페라'에서 그 여자의 소지품이 왔습니다. 수신인이 아가씨로 된 편지 더민데, 몇 개 훑어본 바로는 추종자들의 편지인 것 같습니다."

"추종자라니?"

에이드는 들고 있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고 펼쳐진 편지 한 장을 꺼내 워로드에게 건넸다. 편지를 읽던 워로드의 무표정이 무너진 것은 열렬한 사랑 고백을 세 줄까지 읽었을 때였다.

"아무래도 평범한 영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소문과 마냥 일치하지만도 않습니다. 증언도 실은 매수를 당했거나 우연이라고 느낄 만큼 치밀한 계획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애 먹이라고 푸딩까지 챙겨주나?"

편지를 끝까지 읽기를 포기한 워로드가 봉투를 책상 위에 엎었다. 모양도 크기도 색도 가지각색인 편지들이 밀물처럼 쏟아졌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는 단장님께선 같이 먹으라고 하나 더 챙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먹는 동안 엄마가 옆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애가 편히 먹겠나?"

무심한 표정으로 편지를 고르던 워로드가 멈칫했다. 그의 잘난 시력이 익숙한 이름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생딸기 푸딩과 이 일은 별개입니다. 생각할수록 수상해요. 아무래도 재소환하기 전에 편지 발신인들도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몰락한 집안의 애 딸린 여자에게 암호로 전할 말은 뭘 거 같나?"

"돈이 될 만한 일이죠. 혹시 마성구를 운반하는 심부름이 아닐까요?"

"그럼 자네 동생이 마성구가 필요한 모양이군."

워로드가 검지와 중지 사이에 낀 편지를 흔들어 보였다. 붉은 리본이 달린 편지 봉투에는 꼭 본인처럼 가녀린 필체로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름의 주인은 홀린 듯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댄 에이드의 여동생이었다.

"얘가 왜...?"

워로드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왼손에 든 편지에 홀린 에이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워로드의 오른손에도 편지가 한 통 들려있었다. 포르스테리 로망, 워로드의 사촌 동생이자 제국의 황녀가 보낸 것이 틀림없는 편지였다.

"또 줘!"

한 손에 대롱대롱 매달린 플럼이 이 아침에만 열 번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매니시는 한숨이 폭 나왔다.

어젯밤 플럼을 떠올리며 그녀가 한 말은 어마어마한 돌풍을 몰고 왔었다. 순식간에 재소환 명령서가 떨어지고 마차가 준비되고 생딸기 푸딩이 품에 안겨졌다.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오해가 펼쳐졌을지 매니시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어차피 조사하면 금방 풀릴 오해 정도로 집에 갈 수 있다면 몇 번이고 당연한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구구절절 설명을 안 했을 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덕분에 어제 매니시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뿔난 가족들의 입에 성난 소 떼가 좋아하는 생딸기 푸딩을 물려줄 수 있었다.

"먹고 싶다아. 푸우딩."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말이다.

"그건 파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 사람이 준 거야."

어제부터 이어진 억지를 무시하기로 한 매니시는 플럼을 매단 채 창가로 다가갔다. 하얀 꽃이 핀 작은 화분 옆에 쥐색 손수건이 펼쳐져 있었다.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워로드의 손수건이었다. 어젯밤 정신없는 와중에 그녀의 발밑에서 혹사당한 손수건을 발견해 무심코 주워왔었다. 사실 무심코라는 말에는 흑심이 좀 섞여 있었는데, 까맣게 물든 손수건에는 분가루라도 밟은 듯 하얀 그녀의 발자국이 몇 개나 찍혀있어 은밀히 주워온 것이었다.

잉크에 절은 손수건에 하필 남아도 하얀 발자국이 남다니, 그녀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듯한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이 손수건을 빨아 놓았었다. 그러나 잘 마른 손수건을 만져본 매니시의 표정이 밝진 않았다.

"안돼요. 별로 안 친해."

그리고 나도 염치가 있지. 엄지와 검지로 못 만질 것을 만진다는 듯이 손수건을 들어 올린 매니시는 냉정한 표정으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대지 않겠다고.

사실 진한 회색 천에 은색 실로 테두리를 장식한 손수건은 잉크 엎지른 데 쓰기에는 과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러나 지금 매니시의 앞에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잉크나 닦는 걸레로 보였다.

매니시는 귀족의 딸로 자란 것 치고 나름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손수건 빠는 일 정도는 자신 있었다는 소리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미 물든 잉크를 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손수건의 소재가 생각보다 섬세했다는 것, 매니시가 그간 한 번도 직접 빨래를 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친구 하면 되잖아. 친구 해서 푸딩 달라고 하자. 응?"

"...이미 늦었어. 나랑 친구 하기 싫을 것 같아."

뜻 모를 소리에 동공 지진을 일으키던 플럼도 매니시를 불쌍하게 바라볼 무렵, 하녀 내니가 두 사람을 불렀다.

"아가씨, 도련님. 다들 아래 모여서 차 마시는 중인데 같이 안 드세요? 에그 타르트도 있어요."

"갈래!"

생딸기 푸딩을 위해 매니시에게 매달려있던 플럼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을 나섰다.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성격이 급해 이미 찻잔을 비운 자작이 자신 앞에 놓인 타르트 조각을 포크로 쪼개며 물었다. 순간 응접실에 모인 네 쌍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다.

"네가 늦어서 출판사에 갔었는데 일찍 다녀갔다고 하더구나."

매니시의 사회활동을 응원하는 숙부가 바른 대답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줬다. 동시에 평소 완벽한 매너로 소리 없이 차를 마시는 자작 부인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매니시는 찻잔 뒤에서 입술에 침을 바르는 수밖에 없었다.

"어제 식당에서 새 친구를 사귀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자작 부인이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자 매니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자 친구를 새로 사귀었나 보구나."

자작 부인의 눈이 번뜩였다. 매니시도 승부수를 던졌다.

"아뇨."

누군가의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친구들이었어요. 귀여운 세 자매."

"세 자매라니 재밌었겠구나. 어디서 놀았다고?"

매니시는 어디서 놀았는지까지 얘기한 기억이 없었지만, 자작 부인의 질문은 자연스러웠다.

"식당에 한참 있다가 쇼핑 좀 하고 그 애들 집에 다녀왔어요."

"처음 만난 사람 집에 다녀왔다고?"

"광장 쪽 하숙집에서 지내더라고요. 손님 출입도 자유롭고 다른 하숙생들도 많아서 좀 편하게 생각됐나 봐요."

예의 때문인지 안전 때문인지 마뜩잖은 얼굴의 자작에게 변명을 늘어놓던 매니시를 구해준 것은 예상외의 인물이었다.

"친구들이 네가 정말 맘에 들었나 보다. 벌써 집에도 초대하고 선물도 주고."

다급한 말투로 끼어든 사람은 매니시의 숙모였다. 그녀는 레우카스 자작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가 함께하는 자리에선 말이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선물? 아, 그건 집에 동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오래 붙잡아서 미안하다고 챙겨준 거예요."

"어머, 상냥하기도 해라. 오늘은 안 놀러 가니?"

"글, 쎄요?"

매니시는 어제 두 개의 푸딩 중 한 개를 먹어치운 사람이 숙모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숙모의 치켜뜬 두 눈과 앙다문 입술은 속내를 빤히 보여주고 있었다. 청문회 분위기를 풍기던 응접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가벼워졌다.

"친구들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가 봐. 이 타르트를 좀 싸서 방문하는 건 어떠니? 받은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돌아올 땐 푸딩을 들고 오면 되나요?"

"바로 그거야!"

무릎을 탁 치는 숙모의 행동에 작은 웃음들이 터졌다. 타르트를 입에 물고 깡충거리는 플럼을 제하고 모두 웃고 있는 가운데 홀씨처럼 가닐거리는 웃음소리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하녀 내니였다.

".. 니까?"

"누구세요?"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간 내니가 확인차 질문을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이 돌아왔다.

"매니시 부인 계십니까?"

아가씨에게는 모욕적이고 퍽 이상한 호칭이었다. 아직도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응접실을 돌아본 내니가 문을 열었다.

어쩐 일이세요? 내니는 분명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질문 대신 수차례 고개만 끄덕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새벽노을 같은 시린 눈동자가 그녀를 다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워로드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하녀를 두고 뒤에서 빼꼼 얼굴을 내민 꼬마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이 아이가 생딸기 푸딩의 주인이었을까 생각하며 그가 입을 열었다.

"좀 불러줄래?"

입가에 가루를 잔뜩 묻히고 있던 플럼은 집안 어른들보다 훨씬 큰 덩치의 남자가 말을 걸어오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더군다나 뒤늦게 내니의 뒤꽁무니를 쫓아 남자가 찾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플럼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뒤돌아 뛰며 외쳤다.

"엄마!"

워로드의 오해는 깊어져만 갔다. 주로 기사들 사이에서 살았던 그가 어린아이의 나이를 헤아릴 수 있을 리 없었다.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단지 매니시에게 말 못 할 깊은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엄마, 이렇게 커다란 아저씨가 왔어!"

팔을 번쩍 들고 최대한 큰 포물선을 그리며 뛰던 플럼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에선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워로드는 내니의 어깨너머로 플럼이 들어간 문을 비롯해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깨끗하고 따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워로드가 말없이 집안을 관찰하는 동안 내니의 정신은 먼 곳을 항해하고 있었다. 작은 오두막 앞을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장작을 패는 노을을 품은 남자. 그녀는 수건을 들고 그의 땀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랬다. 그녀는 금전 감각이 밝고 세상 물정 좀 아는 여자였지만, 얼굴을 밝히는 탓에 여태 결혼을 못 했다. 기묘한 정적 속에서 혼자 얼굴을 붉히고 있는 그녀에겐 다행히도 워로드는 그녀의 존재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누군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플럼이 사라졌던 문에서 매니시의 두 배쯤 나이를 먹었을 법한 남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다. 워로드는 레우카스 자작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참전 당시 첫 전투에서 본 레우카스 자작을 그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색채의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나이 든 남자, 워로드는 매니시 레우카스의 인생이 손에 잡힐 듯 보였다. 몰락한 귀족 영애와 돈 많은 평민 사이의 추잡한 인연, 흔한 일이었다.

'그냥 다들 고마워한다구요.'

어제의 그녀는 그의 추억 속 소년과 비슷한 다정한 눈으로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 그녀에게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인연이라고, 워로드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시죠?"

제법 힘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워로드에게는 불한당의 목소리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이들은 호적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다.

"매니시 영애와 볼일이 있습니다."

매니시의 숙부는 아내를 찾는다는 덩치 큰 남자의 정체를 눈여겨봤다. 직접 보니 그의 아내를 찾는 이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그에게 소중한 인물을 찾고 있었다.

"매니시는 왜 찾으시죠?"

호기심보다는 말을 길게 끌 목적이었다. 그사이 그는 워로드가 입은 제복의 품질과 그가 찬 검집의 가격, 사용 연도와 장인이 누군지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물론 워로드가 불쾌한 그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워로드는 그를 제지하기보단 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매니시에게 제 방문을 알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동태를 살피듯 눈을 굴리던 매니시와 워로드의 시선은 곧 마주쳤다.

"재, 회를 허락받았으니까."

재소환이라는 수상쩍은 말은 다소 낭만적인 단어로 치장되었고 눈 깜빡할 사이 매니시는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까지 챙겨 들고 있었다.

숙부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분홍빛으로 해석하며 눈을 빛냈지만, 치마 속 매니시의 다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는 몰랐다.

"숙부, 저 나가요. 내니, 정신 차려요."

갔다 올게. 플럼의 볼에 입을 맞춘 매니시가 부랴부랴 워로드의 어깨를 돌려 밀었다.

그 순간 내니의 머릿속에선 땀범벅의 워로드가 수건을 든 그녀를 지나치고 있었다. 오두막에서 아기를 안고 나온 매니시가 맞춘 듯 그의 팔 안에 안기고 밝게 웃는다. 상상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떨떠름한 얼굴이 된 내니는 하다못해 상상에서마저 남의 살림을 하고 있는 제 처지에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제 밥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내니는 아가씨의 남자에 대해 부인들과 수다 떨 생각에 들떠 이상한 호칭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말았다.

어머머를 노래처럼 연달아 부르는 내니의 뒤에서 숙부는 나란히 걸어가는 선남선녀를 지켜보았다. 체격 차이가 커서 마치 까만 곰이 하얀 꽃을 들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제법 보기 좋다고 생각하며 그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숙부?"

"네?"

그것은 혼잣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워로드는 굳이 다시 묻지 않고 매니시의 팔꿈치를 잡아끌었다.

"이쪽."

골목 안쪽에서 작은 사륜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워로드의 도움으로 얌전히 마차에 오른 매니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어제 그 집무실?"

"아니, 네가 잘 아는 곳."

그 말 외에 그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어제의 화기애애했던 심문시간은 선잠이 만들어낸 환상 같았다. 사실 그들이 친근하게 대화할 사이가 아니긴 했다.

매니시는 지방에 작은 영지를 가진 자작의 딸이었다. 그나마도 아버지는 영지를 잃었기에 사교계에서 그녀의 위치는 구석진 테이블에 올려진 인기 없는 디저트만도 못한 것이었다.

그에 반해 워로드 루푸스는 태어나길 공작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워로드 모나쿠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군의 지휘권을 맡아 7년간 이어온 전쟁을 단 1년 만에 승리로 이끌었다. 그로 인해 황제로부터 영광된 성을 하사받고 스스로 백작위를 움켜쥔 그는 명실상부한 사교계의 주인공이었다.

매니시는 언젠가 그를 따라다니는 인간 장벽 사이로 워로드를 본 적이 있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도 그 자리에서 그만큼 빛나지는 않았다. 그는 이런 일이 아니라면 매니시가 다가갈 수 없는, 평생 말 한마디 섞을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워로드가 입을 열었다.

"딸기 푸딩은 좋아했나?"

썩 친절한 말투였다. 그러나 매니시는 뜨끔할 수밖에 없었다. 명색이 수사단의 단장인 그가 서툰 오해 따위는 이미 풀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심이 찔린 매니시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

그의 대답이 진심인지 비꼬는 말인지 알 수 없어 매니시는 이쯤에서 대화를 끊고 싶었다.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손가방을 연 매니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획기적인 무언가가 이 속에 있길 간절히 바랐다.

잘 정리되어있는 가방 안을 침범한 손은 태연함을 가장하고 모든 걸 엉망으로 휘저어놓고 있었다. 마치 찾는 것이라도 있는 양 가방을 들여다보던 매니시는 차마 빈손을 꺼내지도 못하고 때 이른 더위를 느끼고 있었다. 숙인 정수리 위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맹렬한 집중력이었다.

그러나 매니시의 가방에서 획기적인 무언가를 발견해낸 것은 워로드였다. 바로 어제 사라진 그의 손수건이었다. 확인을 위해 그가 물었다.

"혹시 손수건 좀 빌릴 수 있겠나? 내 건 없어져서 말이야."

"그럼요!"

머리 위에서 들린 목소리에 흠칫한 매니시가 재빠르게 가방 입구를 가리며 외쳤다. 곧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노란 꽃이 수놓아진 하얀 손수건이었다. 워로드는 매니시의 가방 안에 든 것이 그의 손수건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마차가 덜컹거리며 매니시의 몸이 토끼처럼 튀었다. 그녀가 연달아 두세 번쯤 튀어 오르며 엉덩이로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 워로드는 의자에 접착이라도 된 듯 그대로였다. 덕분에 그는 허공을 뛰노는 하얀 머리칼 사이로 날아오르는 회색 물체를 목격할 수 있었다.

회색 물체는 짧은 포물선을 그리고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매니시는 제 가방에서 무엇이 탈출했는지도 모른 채 고른 길이 나오자 쥐고 있던 손수건을 건넸다.

마른 손을 한번 훔친 워로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진짜 그의 손수건을 발로 차 매니시의 근처로 밀어 넣었다. 매니시의 치맛자락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이윽고 마차가 멈춰서자 마부가 도착을 알렸다. 워로드는 매니시보다 먼저 내려 그녀가 내리는 것을 도왔다. 눈앞에 보이는 익숙한 건물에 정신을 못 차리던 매니시는 뒤에서 손수건을 챙기고 문을 닫는 워로드를 몰랐다.

"들어가지."

"여긴 왜?"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눈빛이 돌아왔다.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남장을 한 매니시가 심부름꾼 행세를 하며 자주 듣던 소리였다. 바로 어제도, 원고를 든 그녀가 방문한 곳이었으니까.

들어서자마자 직원을 붙들고 '아가씨'의 담당자를 찾은 워로드는 다른 곳에서라면 여자 뒤나 쫓는 한량으로 보였겠으나, 출판사의 간판스타 '아가씨'를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비록 그 얼굴부터 본명, 출신성분에 이르기까지 베일에 싸여있다지만 말이다.

직원은 워로드의 제복과 허리에 찬 검, 무엇보다 귀티가 줄줄 흐르는 얼굴을 보고 그가 원하던 바를 이루어주었다. 아가씨의 담당자는 출판사 내 단 한 명이었고 워로드와 매니시는 2층의 사장실로 안내되었다.

그사이 모든 직원의 시선은 '아가씨'일지도 모를 아가씨에게로 모여있었다. 매니시는 지레 찔리는 마음에 숙인 고개를 사장실에 들어설 때까지 들지 못했다.

"아가씨?"

얄궂게도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에 사장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소리는 이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신분과 사회적 통념에 걸맞게 사장이 평소 매니시를 부르는 호칭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겐 다른 의미로 들렸다.

호기심 어린 눈의 직원이 쫓겨나고 상황파악이 덜 된 사장은 워로드에게 탈탈 털렸다. 아니, 사실 사장은 먼지떨이 정도로 이용당했을 뿐 털린 것은 매니시였다.

계약서와 지급된 판세 내용 등 그 유명세가 평민들의 저잣거리부터 황실까지 이른다는 유명 작가 '아가씨'로서의 그녀를 발뺌할 겨를 없이 완벽하게, 들키고 만 것이다.

몰아치는 상황에 정신을 내놓은 매니시와 상관없이 워로드의 마음은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재산 상황이 생각보다 넉넉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마음에 품고 있던 마지막 한 줄기 의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마부에게 조용히 새로운 목적지를 이르고 매니시와 함께 다시 마차에 올랐다.

흐려진 마음이 그녀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았는지 매니시의 입은 꼭 다물릴 줄 몰랐다. 워로드는 살짝 벌어진 매니시의 입술을 바라보며 그녀의 정체를 곱씹었다. 언젠가 그의 부하가 콧수염을 푹 적셔가며 읽던 책이 바로 매니시의 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안 사실이었다. 그때 워로드도 그 책을 궁금해했었다.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사실이 그를 한순간에 질리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맞은편에 앉은 매니시에게 약간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여느 귀족들이 그에게 그러하듯 미지의 것, 정반대의 것에 대한 선망이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나요?"

매니시가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걱정 마라. 적어도 네게 불리한 일정은 아니니."

아마도 그만큼 더 피곤하게 할 테지만.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품고 마차는 황성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차의 작은 창밖으로 뾰족한 성탑을 주시하며 워로드가 입을 뗐다.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 봐라. 왜 굳이 남장을 하고 다니지?"

밖으로 향한 워로드의 눈을 보던 매니시도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지나온 길들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굳이가 아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겠죠."

2년 전 매니시는 여러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었다. 그러나 그녀는 원고를 봉투에서 꺼내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길 반복해야 했다. 이유는 매니시의 원고가 반죽의 농도나 얼룩 지우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여성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무대는 딱 그 정도였다.

매니시에겐 늘 비웃음이나 안쓰러워하는 시선이 따라다녔다. 그런데도 열 명 중 한 명 정도는 그녀를 응원했고, 또 그중 전부에 가까운 사람이 매니시의 몸이나 수중에 있을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얼마 안 가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이나 그때나 가족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지금의 출판사를 만났다.

그마저도 평범치는 않았다. 사실 사업상 외숙부와 교류가 잦았던 그 출판사는 이미 매니시를 한 번 문전박대한 곳이기도 했다.

어느 날 그들의 약속이 어긋나 20분 정도 출판사 사장의 시간이 떴고, 그사이 그를 접대한 것은 무심하게 놓여있는 원고 한 부와 매니시였다. 어수룩하게 전쟁을 더듬은 매니시의 소설에 매료된 젊은 사장의 탄사 뒤엔 사촌 누나를 위해 영문도 모르고 가짜울음을 터트린 플럼과, 어린 아들의 연기에 속아 진땀을 뺀 외숙부의 노고가 있었다.

다행히 며칠 뒤 거친 얼굴의 사장이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다. 외숙부는 그제야 이야기의 경위를 알았고, 그의 방에서 매니시와 출판 사장은 각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매니시는 계약서를, 사장은 다음 편 원고를 말이다.

"어젠 원고를 갖다 줘야 해서 그런 거예요. 출판할 때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양쪽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필명 외에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작가로서의 정체를 숨기려고 남자 행세를 했다? 누가 궁금해한다고?"

워로드는 자신이 뱉은 말에 가슴을 찔렸다. 그들이 바로 아가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철없는 숙녀에게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아가씨라는 필명은 사장이 놓은 불씨예요. 그는 그 불이 저 스스로 커질 거라고 예상했죠. 결국 그의 뜻대로 됐고요. 1권이 세상에 나오고, 난 그 조항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아가씨의 정체를 궁금해했어요. 개중 실천력이 좋은 사람들은 출판사 근처에 진을 치고 나를 기다렸죠."

전쟁이 끝나고 잠시 수도에 머물렀다 새 영지로 떠난 워로드에겐 낯선 얘기였다. 그에게 여자 소설가란 그저 몰랐는데 있었구나 싶은 정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아주 새삼럽게 느껴졌다. 어느새 인상까지 찌푸린 그가 매니시 쪽으로 좀 더 몸을 기울였다.

"그런데 여자가 출판사에 드나들 일이 생각보다 없는 거 알아요? 가사에 대한 책이라고 해봐야 보통 단발성이고, 자주 나오지도 않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럼 이 일은 생각보다 비밀인 모양이군."

"네. 저랑 숙부, 출판 사장 이렇게 셋만 아는 사실이었죠. 어제까지는. 설마 치사하게 소문내거나 하진 않으실 거죠?"

"안 낸다. 사람을 뭐로 보고."

워로드의 양심에 난 털이 그를 살살 간지럽히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사실 요즘 같아선 정체를 숨기길 잘했다 싶어요. 작위를 내세워서 만나러 오라는 협박 편지가 오질 않나, 집에서 설거지나 하라는 편지가 오질 않나, 면전에서 들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워로드의 양심이야말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는 결국 마부 쪽 벽을 콩콩 두들겨 마차를 세우고 새로운 목적지를 알렸다. 상황을 지켜보던 매니시가 물었다.

"그럼 지금까진 어디로 가고 있던 건데요?"

"...알 필요 없다."

"설마 지금 이거 심문한 거였어요? 일부러 뺑글뺑글 돌면서?"

워로드의 생각엔 진실보다 나은 오해 같았다. 때문에 굳이 해명하지 않고 입을 다문 그는 마차가 멈춰 설 때까지 매니시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의 그러한 희생 덕분인지 비밀의 공유자가 한 명 더 늘었기 때문인지 마차에서 내리는 매니시의 마음은 맑게 개어있었다.

"다행히 아직 시작하지 않았나 보군."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온 '페라'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활기찬 모습이었다. 문은 활짝 열려있고 벽을 따라 줄줄이 일렁이는 촛불이 복도를 환하게 밝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니시는 이게 그녀가 놓친 '페라'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뭡니까? 오늘 영업 시작했으니 방해하지 말고 가슈, 제발. 웬만하면 저 안에 기산지 수사관인지 돼지 같은, 잘 먹는 분들도 데리고."

어제도 문을 지키던 덩치 큰 남자였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려 화려한 '페라'의 입구조차 지옥문으로 보이게 할 정도였다. 다행인 것은 그 얼굴이 향하는 곳이 워로드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명백했다. 어제 매니시도 경험한 기사들의 무시무시한 식탐 때문이었다.

"협조만 해준다면 영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 내 부하들이 먹은 건 모두 청구하도록."

그 순간 불구대천의 원수는 큰 고객님이 되어 문지기를 미소짓게 했다. 증오를 떨쳐낸 그의 눈은 더욱 시야가 넓어져 큰 고객님의 뒤에 가려져 있던 성스러운 어른거림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어서 오십, 여자?"

매니시가 찔끔한 것과 상관없이 문지기는 하루 만에 성별이 바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본인의 민머리와 비슷해 보일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기처럼 순해 보여 매니시는 용기를 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팔이 반사작용처럼 벌떡 들렸다. 그의 양손이 공손하게 문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워로드와 매니시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페라'에 들어섰다.

"왜 저러죠?"

입을 떼기 무섭게 그들의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영업이 시작됐다는 말을 떠올리며 돌아본 매니시는 안쪽에서 문을 지키듯 서 있는 문지기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씩 웃자 매니시의 고개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빠르게 정면을 향했다.

"글쎄. 쓸데없이 비장해 보이지만, 적의는 없어 보이는군."

"저게 적의가 아니라구요?"

두 손을 맞잡은 매니시를 보던 워로드가 뒤를 힐끗했다. 기뻐 보이는 얼굴이었다. 적의라면 오히려 그의 주머니에 있었다. 하루 만에 헤지고 늘어난 그의 손수건. 워로드는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사촌 동생의 부탁도 저버렸지 않은가.

그를 모르는 매니시는 아랑곳없이 그의 상념을 깼다.

"근데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모양인데 여긴 벌써 영업을 해도 되나요?"

홀 앞에서 가면을 받아 착용한 매니시는 입장하자마자 빈 접시로 가득한 테이블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면을 쓰고 만족스레 배를 쓸어내리는 저 남자들이 워로드의 부하들이라는데 제 머리카락도 걸 수 있었다. 그 외에 진짜 손님은 몇 보이지도 않았다.

워로드는 매니시에게로 몰리는 시선들과 어수선한 분위기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법률상 타,"

"타국 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함부로 건드릴 순 없으니까요."

워로드의 말을 끊고 등장한 것은 어제보다 한층 화려해진 페니였다. 그녀가 쇄골에 무슨 짓을 했는지 윤기 도는 우물에선 곧 샘이라도 솟을 듯 싱그러움이 느껴졌다. 더없이 귀족 같은 그 모습에 홀린 매니시가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페니."

"음? 절 알고... 매니시?"

완벽하게 계산된 그림처럼 펼치지 않은 부채 끝을 입술에 대고 고개를 기울이던 페니의 눈이 커졌다. 제 실수를 깨달은 매니시가 한걸음 물러서기 무섭게 어제의 시원스러운 미소를 매단 페니가 다가왔다.

"맙소사.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라니. 어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양 볼을 내준 매니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페니의 모습에 눈만 끔뻑이고 있었다. 페니의 뒤에서 그 눈을 마주 보던 워로드가 보다못해 말했다.

"이 여자가 꼼꼼히 알려주더군. 너에 대해서."

"에?"

"하는 일이 이런데 내가 그 정도 분장도 못 알아볼까 봐? 그래도 제법 괜찮은 연기였어."

매니시는 어제 공연 중 사냥꾼으로 분장했던 여자를 떠올렸다. 확실히 저와 비교하기엔 훨씬 본격적인 분장이었다.

"안 바쁜가 보지? 이제 그만하고 가라."

"어머, 우리 '페라'에 첫 여자 손님이 왔대서 부랴부랴 나온 건데 단장님도 계셨군요. 딱 봐도 그냥 놀러 온 건 아니겠고, 그럼 천천히 둘러보고 가세요."

워로드를 향한 페니의 붉은 입술이 그린 듯 올라갔다가 매니시에게로 돌아서자 크게 올라갔다. 사내아이처럼 장난스러운 얼굴이 매니시도 편하게 마주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미소였다.

별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반짝이는 페니가 다른 테이블에 인사하러 가자 워로드와 매니시는 비어있던 문제의 테이블, 어제 매니시가 수상한 거래를 제안 당했던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워낙 털털해서 몰랐는데 저렇게 꾸미니까 엄청난 미인이네요. 다들 눈을 못 떼잖아요."

멀리 떨어진 페니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매니시가 그렇게 말하자 워로드도 그녀를 흘끗 보더니 대답했다.

"어제보다 화려하긴 하군, 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래 봬도 주인이니까 위기를 대처하는 저만의 자세겠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 얼굴이 미인이 아니면 누가 미인이라고."

뒤는 매니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소리였지만, 워로드의 좋은 귀는 그녀의 혼잣말도 놓치지 않았다. 예상치 않은 대답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런가? 당신 같은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녀의 애매한 신분은 평민 남자든 귀족 남자든 어려워했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의 매니시는 외모 칭찬에 익숙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흠흠,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죠?"

차마 하루 만에 다시 앉을 줄 몰랐던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 칼을 겨눴던 남자에게 물었다. 옆에 앉은 범죄자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던 등 뒤의 사신은, 어느새 같은 편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었다.

"어제 했던 그대로."

매니시에게는 반가운 주문이었다. 따라오는 워로드의 시선을 외면하며 종업원을 부른 그녀는 어제 마신 독약 같은 술을 길게 설명했다. 유난히 짙은 눈썹의 종업원은 그녀의 긴 설명이 무색하게도 쉽게 알아채고 술을 가지러 갔다.

그 잠깐의 공백이 매니시를 움직이도록 부추겼다. 그녀는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소파를 툭툭 치며 딴청을 피우는 중이었다. 그러나 워로드는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요란하고 바빠 보이게 해내는 매니시의 기행보다도 그녀의 볼을 물들인 색의 감미로움에 빠져있었다. 어딘가 익숙하고 그리운 색이었다.

매니시는 뺨에서 붉은 기운을 모두 몰아냈을 때쯤 다시 입을 열 수 있었다. 워로드의 아쉬움과는 상관없이 태연한 목소리의 매니시가 물었다.

"근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어제 전 오늘처럼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여기에 흔한... 남자였고, 얘기한 거로 봐선 서로 약속이 돼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서로 얼굴을 알고 하는 거래가 아니니까 신호가 있었을 거다. 네가 엄청난 사기꾼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불운해서 우연히 뭔가 맞아떨어졌던 거야."

"둘 다 사양이네요."

매니시가 서운해지려는 찰나 종업원이 술을 내왔다. 다만 어제처럼 요란한 병째가 아니라 삼 분의 일 정도 찬 술 잔과 얼음이 담긴 유리그릇, 집게, 물 한 잔이 함께 쟁반에 올라가 있었다.

"오늘은 좀 다르네요? 어제는 병째로 내왔는데."

"마시던 게 있으신가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제 페니가 갖고 온 건 마룡이 조각된 병이었거든요. 평소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 보통 병으로 사놓으신 분들만 그렇게 나갑니다. 어제 그건 가게에서 쓰는 병이었을 겁니다."

매니시가 워로드의 눈치를 살폈다.

"어제랑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어제 그 병으로 가져와라."

워로드가 은화 한 개를 꺼내 쟁반 위에 올려두자 잽싸게 챙긴 종업원이 병을 들고 나왔다.

"이겁니다. 어제 손님은 스트레이트로 드셨는데 물과 얼음은 치울까요?"

주머니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무게감이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만든 듯했다. 그 속 보이는 행동이 나쁘지 않아 매니시도 웃으며 은화 한 개를 꺼내 들었다.

"용케 기억하고 있네요? 본인이 나른 것도 아닌데."

종업원이 우쭐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 술은 주문이 드문 편이라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곤 하니까요. 저는 항상 저쪽에서 홀을 살피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홀의 중심부에 가까운 쪽문을 가리킨 종업원의 오른쪽 눈썹 산이 거만하게 으쓱거리다가 푹 꺼졌다.

"그럼 혹시 어제 사건의 범인이 어디 앉았었는지도 아나요?"

"물론입니다. 기사님들껜 벌써 말씀드렸죠. 저 맞은 편의 바 테이블에 앉아있었습니다. 거기 앉는 손님은 흔치 않아서 분명히 기억나요."

"완전 반대편이네요? 다들 비슷한 차림이었는데 확실한가요?"

"전 불이 꺼지면 연기자들이 출입하는 쪽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맞은편 벽에 붙어서 움직이는 손님을 봤죠. 술을 가지러 갔을 때 본 장식 없는 하얀 가면이었어요."

"얘기 고마워요. 물은 두고 얼음만 좀 치워줘요."

매니시의 손에 있던 은화가 종업원의 손에 넘어가자 그는 얼음을 들고 사라졌다. 곧 그의 말대로 쪽문 근처에 서 있는 모습도 보였다.

"말이 많은 사람이네요."

매니시는 한 손에 턱을 괴고 종업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더니 금방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그러고 보니 단장님도 혹시 하얀 가면 쓰시지 않았어요? 눈 마주쳤던 것 같은데."

"맞아."

"역시. 그럼 그때부터 저 의심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분위기가..."

그 애를 닮아서. 워로드는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함부로 떠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소중한 기억이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흰 가면 쓴 남자들이 나를..."

매니시는 말하는 중 내용 속에 어떤 오류가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오류의 실체는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가는 바람처럼 실오라기 하나 잡히지 않았다. 술잔을 집어 든 매니시가 기억 속으로 발을 디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시고... 윽. "

술을 한 모금 머금은 매니시는 여전히 충격적인 맛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 술이 '페라'의 메뉴판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자랑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제처럼 급히 물을 들이켰다.

그러자 마치 짠 것처럼 홀의 조명도 점점 어두워졌다. 야광석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기 시작하자 매니시는 어제보다 여유롭게 홀을 살필 수 있었다.

가운데 쪽문을 중심으로 피어난 초록색 빛무리가 숲길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어제는 매니시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효과였다.

"그놈은 언제쯤 접근했지?"

"좀 더 있다가요. 늑대 마수가 등장할 때였어요."

대답과 함께 돌아본 매니시의 눈에 녹빛으로 빛나는 가면이 보였다. 금색 테두리가 있던 부분이나 모조 보석이 박힌 부분, 하얀 이마 부분과 그 아래 맨살까지 전부 신비로운 녹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매니시는 종업원이 서 있는 쪽문의 맞은편 벽을 바라보았다. 완전한 어둠에 물들어 있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날이 아닌가 봐요. 우리 바 쪽으로 가요."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킨 매니시가 워르드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녀는 종업원의 눈치를 살피며 벽 쪽으로 붙어섰다.

"갑자기 왜?"

워로드는 작은 손에 맥없이 맡겨진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뭔가 얻어걸린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죠. 엄청 두근거리네요. 이런 게 적성에 맞나?"

구부정하게 몸을 숙인 매니시는 맞은편의 종업원을 주시하며 조금씩 전진했다. 멀리서 누가 보면 우스꽝스러울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는 워로드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말마따나 고동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손, 치마가 벽을 스치는 소리, 이름 모를 은은한 꽃향기가 워로드를 가뒀다.

"여기 정말 어둡지 않았어요?"

매니시의 목소리가 어둠을 깨우고 날아들었다. 어느새 바 앞이었다.

"그래."

의식의 흐름 속에서 깨어난 워로드는 따끔거리는 뒤통수를 쓸어내리며 주먹을 쥐었다. 여태 열심히 먹기만 하다 경계 임무는 내팽개치고 엉뚱한 걸 구경한 그의 부하들에게 보내는 성명이었다. 그를 주시하고 있던 부하들은 어둡고 넓은 홀에서도 워로드의 주먹을 똑똑히 보았다.

"손님들은 모두 가면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을 쓴 누군가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찾고 있으면 직원들의 관심을 끌겠죠. 그렇다면 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직원들 눈에 띄지 않고 거래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시각에 의존한 신호가 아니거나, 대신 보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말을 하는 내내 매니시의 입꼬리는 뾰족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를 올려다보느라 그렇다기엔 과도하게 힘이 들어간 목, 말이 끝나자 꾹 다물려 힘이 들어간 입술, 영락없이 잘난 체하는 아이 같았다.

"마침 말 많은 종업원 하나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하얀 가면을 쓴 범죄자를 봤다는데 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녹색 아래 어떤 색이 숨어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는 그녀가 듣고 싶어 할 대답을 들려줬다.

"아니."

그가 놓친 부분이 맞았다. 이 정도 어둠은 야광석 빛이 닿지 않더라도 워로드와 부하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진술에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저기, 어제도 여기서 일했나요?"

그의 대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매니시는 이미 바 테이블에 매달려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유명한 워로드 루푸스를 뒤에 달고 있으니 든든하다 못해 신이 나 주체할 수가 없는 그녀였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몇 번 테이블에 터프한 손님이 있는데 자기가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걸 봤다나 뭐라나. 원래 좀 수다스러운 녀석이라 종종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늘어놓고 갑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은 매니시와 워로드는 곧 자리로 돌아갔다. 쓰러진 늑대 마수와 사냥꾼의 품에 안긴 분홍 망토 소녀, 공연은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다.

"이 정도면 제대로 된 목격자 아닌가요?"

수사단장으로서의 미진한 경력으로도 매니시가 보통의 목격자를 많이 벗어났단 걸 알 수 있었지만, 워로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심지어 그는 약간 웃고 있었다. 때맞춰 몇 안 되는 군중의 박수 소리가 울리고 홀이 환해졌다. 좀 떨어진 곳에선 밝은 조명 아래 그보다 더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연기자들이 인사하고 있었고, 박수 소리는 어둠과 정적 속에 조여들었던 숨통을 트여줬다.

거기에 성취감까지 더하자 매니시는 제법 기분이 좋았다. 어쩌면 그의 미소가 칭찬처럼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사실 미리 써놨던 원고도 넘기고 나니까 더는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소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페니를 따라왔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얻어가네요. 단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불운하진 않죠?"

이틀 내 저녁 시간에 늦을 수 없었던 매니시는 워로드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갔다. 그녀를 마차까지 배웅한 워로드는 연회장으로 돌아와 직원들이 이용하는 문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의 뒤편, 직원들의 공간은 부산스러운 활기로 가득했다.

공연이 끝난 연기자들의 수다 소리, 쟁반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식기들의 투정이 복도를 채웠다. 그럼에도 한 남자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가려주지는 못했다.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뭐가."

"꺄아아!"

갑자기 끼어든 워로드의 목소리에 놀란 네이브는 여성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었는데 양손은 마치 역기를 들듯 노란 들꽃의 줄기를 떠받치고 있었다. 놀란 네이브의 몸짓에 금세 노란 꽃잎 한 장이 떨어졌다.

"쌩쌩해 보이는군."

"아니, 어디가요! 충분히 반성했으니 이제 그만 용서해주십쇼."

아침부터 계속된 고행으로 들꽃은 네이브의 손에 풀물을 흘리며 늘어져 있었다. 워로드는 꽃이 불쌍해서라도 그를 용서해야 했다.

"글쎄, 그러다 또 다 내팽개치고 뛰쳐나갈지 모를 일이지."

"그건, 그건,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네이브가 우렁차게 외치자 행주를 들고 지나가던 종업원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워로드는 마주 오는 종업원의 비죽 올라간 입꼬리 대신 들썩이는 짙은 눈썹을 보고 있었다.

연회장에 돌아가기 위해 막 그의 왼편으로 스쳐 가는 종업원의 앞에 워로드의 팔이 드리워졌다. 그대로 종업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은 워로드는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 걸어갔다.

"가서 극단주나 데리고 와라."

워로드가 흘리고 간 말에 네이브는 신이 나서 일어나다 비틀거렸다. 흔들리는 그의 시야로 당황한 종업원의 얼굴이 들어왔다. 영문도 모르고 탄탄한 팔에 매달려 뒷걸음치던 종업원은 복도 끝의 휴게실로 끌려 들어갔다.

휴게실에는 조리모를 벗은 주방장이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는 사뭇 험악한 두 사람의 분위기에 조리모를 쥐고 벌떡 일어났다. 눈이 마주친 워로드가 종업원을 밀치고 고갯짓을 하자 주방장은 바람을 일으키며 그들이 들어온 문으로 빠져나갔다.

상냥하게도 그는 문까지 닫아주었고 휴게실에는 오로지 두 사람뿐이었다. 뒷걸음질하다 스툴에 걸려 넘어진 종업원은 속눈썹이 바짝 올라갈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워로드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대화를 좀 해볼까. 네가 뒤에 찬 게 돈 주머닌지 칼인지 내가 알아야겠거든."

종업원의 이마를 타고 흐르던 땀 한 방울이 눈물로 대체된 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가까운 스툴에 마주 보고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날을 드러낸 검의 손잡이가 삐죽 솟아있었다. 워로드는 종업원이 걸려 넘어졌던 스툴에 앉아 맞은편 스툴에 꽂힌 검을 손질 중이었다.

검이 꽂힌 스툴에 앉은 종업원은 아슬아슬하게 고간을 위협하는 예리한 검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종업원은 처음 칼이 절묘한 자리에 박혔을 때 궁핍한 그의 경제 사정에 대해 토로했고, 칼과 자신 사이의 각도가 점차 좁아지자 특정 술을 병째 시키는 것이 암호임을 시인했다.

"그래서?"

종업원은 코 훌쩍이는 소리를 섞어가며 말했다.

"그래서, 바에 앉은 흰 가면한테 자연스럽게 위치를 흘, 리면 도, 돈을..., 그치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 그냥 본 것만 전한 게 다예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암호를 통해 만나는 가면 쓴 사람들이 뭘 할지, 전혀 몰랐다고?"

"그건..."

워로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종업원의 다리 사이에서 칼을 도로 빼 들었다. 숨을 삼키는 소리를 들으며 워로드는 조금 전의 종업원처럼 그를 비웃었다.

종업원은 그도 모르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오므리고 감싸느라 바빴다. 원하는 바를 이룬 워로드가 칼을 갈무리하자 때마침 문이 열렸다.

"단장님!"

여전히 노란 들꽃을 손에서 놓지 않은 네이브였다. 방에 들어선 그가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서자 아까와는 차림새가 많이 달라진 페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지만, 드러난 어깨 위에 꽃무늬의 숄을 두르고 눈썹을 간지럽히던 앞머리는 과감하게 넘긴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죽지 않아서 페니의 손에는 네이브가 바친 노란 꽃 한 송이가 들려있었다.

"내 직원이 왜 저 모양이죠?"

"얘길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이 아니던데."

페니의 미간이 구겨졌다. 워로드는 아랑곳없이 말을 이었다.

"블랙럼을 병째로 시킨 사람들이 구매자다. 이자가 그놈의 눈이었어."

워로드가 검집 끝으로 종업원의 다리를 쳤다.

"과연, 화이트럼이라면 그럴 만하죠."

그렇게 말하는 페니의 차가운 시선은 종업원에게 닿아 있었다. 네이브가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화이트럼?"

"애주가들 사이에서 도는 별칭이에요. 멋모르고 마시면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든다고 해서. 독하고 비싼 데다 제국에선 인지도가 낮은 술이라 병째로 주문하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걸 주문한 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나?"

"글쎄요. 병마다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진짜 이름들을 써놓진 않아서요."

"글쎄라, 불가능하진 않단 말이군."

워로드와 페니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붙었다. 먼저 줄을 놓은 것은 페니였다. 그녀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짓고 워로드의 팔을 붙들었다.

"귀족으로 살길 20년에 내가 여기 주인이에요. 듣는 것도 있는데 그만한 눈치도 없겠어요? 제 구미만 맞춰주시면 머릿속에 든 걸 못 털어낼 이유도 없죠."

옷에 붙은 벌레를 놓아주듯 페니의 팔을 떼어 낸 워로드가 말했다.

"원하는 걸 말해."

"좋아요. 당신 부하들이 내 업장에서 가면을 벗고 수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용하게요."

"우리야 좋지. 알았다."

흔쾌한 수락에 페니의 비장한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는 다시 워로드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괜찮겠어요? 당신들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우리가 파는 건 술과 연기뿐이지만, 건물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출입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서 저 밖에서부터 가면을 쓰고 온다구요."

스스로 말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워로드는 여전한 태도로 페니의 손목을 잡아채 허공에 떨구며 대답했다.

"그 정도 일은 내 부하들을 흠집 내지 못한다. 애초에 그딴 게 없는 녀석들이기도 하고."

워로드는 페니의 뒤에 서 있는 네이브가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터져 나오는 한숨을 삼키느라 나직한 목소리가 나왔다.

"잡아."

그 말에 굳어있던 페니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이던 네이브는 움직였다. 뛰어간 네이브의 발밑에는 휴게실 반대쪽 문 근처까지 기어간 종업원이 있었다.

"하! 당신 해고야."

정신을 차린 페니가 말해도 종업원은 제 머리를 뜯느라 들을 귀가 없었다. 대신 워로드가 반응했다.

"잘됐군. 내가 끌고 갈 테니 넌 홀에 가서 녀석들 가면 수거하고 그만 처먹으라고 해. 에이드 불러서 화이트럼의 고객 명단 정리하고."

네이브에게 뒷덜미가 잡혀 끌려오던 종업원은 워로드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가 휴게실을 나서려는 순간 페니의 입이 다시 열렸다.

"수사에! 좀 더 협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처럼 여자 손님이라도 오신다면..."

매니시가 워로드와 함께 '페라'에 다녀온 지도 며칠이 지났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준 마차에는 잃어버린 지도 몰랐던 편지 꾸러미가 있었고, 그녀는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시선은 불편하리만큼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다. 다만 건전한 이성 교제에 대해 그녀의 기준으로는 좀 많이 편협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 후로 매니시는 다시 불려가는 일도 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맛은 있네."

매니시는 한 손에 턱을 괴고 입안에 들어온 땅콩 쿠키를 오독오독 씹었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잉크를 듬뿍 묻힌 깃펜이 들려있었지만, 종이에 늘어가는 것은 검은 점뿐이었다.

그녀는 자꾸만 입술을 두들기는 것에 결국 입을 열었다.

"아직 입에 있어."

"누나, 나 언제까지 해?"

땅콩 쿠키를 겨우 두 개째 나른 플럼의 입에서 불만이 새어 나왔다.

"숙부 화 풀리실 때까지. 그러게 누나가 책상에 앉아있을 땐 방해하지 말랬지? 누나 일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악의 없는 대답에 매니시는 한숨과 함께 웃고 말았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넘쳐나는 의욕과 달리 지난 며칠간 종이를 채우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정확히는 한 문장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게. 누나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나랑 놀려고?"

"그런가?"

키득대던 두 사람의 술래잡기가 시작되고 집안은 한동안 어린 남자아이의 고성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의 술래잡기가 끝난 것은 남자들이 모두 외출하고 아이와 여자들끼리 맞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였다.

진이 빠진 매니시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물을 마시다 마주친 플럼의 눈빛이 못다 한 아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참에 '페라'에 들러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

누나의 외출에 잔뜩 실망한 플럼의 추천대로 레이스로 짜인 샛노란 원피스를 입은 매니시가 집을 나섰다.

그녀는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는 여자처럼 번뜩이는 눈을 굴리며 걷고 있었다. 요즘 언제나 그녀와 함께하는 편지가 지금도 손가방 안에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빚쟁이라면 빚쟁이였다.

너무 선해서 채무자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빚쟁이.

누군가 기다린다는 사실이 못내 괴로운 매니시의 발걸음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작은 천 조각이 띈 것은 또 다른 채무감 때문이었다.

순간 멈칫한 발로 인해 매니시의 걸음이 엇갈렸다. 박자를 잃은 두 발은 곧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판대에 진열된 것은 투박한 솜씨를 부린 손수건들이었다. 결코 귀족들의 것처럼 고급스러운 생김새는 아니었다. 어딘지 부스럭거릴 듯한 뻣뻣한 천에 또 어딘지 흐리멍덩한 색감. 전부 물 탄 오렌지 주스나 오래된 숯 색, 안개 낀 하늘색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바짝 마른 숯 위에 먼지라도 낀 듯 흐린 색이 매니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친 손수건에는 비싼 은실 대신 그녀의 머리칼처럼 하얀 실로 작은 꽃 두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새 잃어버린 수사단장의 손수건과 퍽 비슷한 느낌이었다. 사실 재질 차이가 심했지만 쏟은 잉크를 닦기엔 더 알맞아 보였다.

손수건의 값을 치른 매니시는 그것을 접어 가방 한쪽에 잘 집어넣었다. 언제든 그를 만나면 건네줄 수 있도록.

가벼운 발걸음의 매니시는 곧 민머리 문지기의 환대를 받으며 '페라'에 들어섰다. 이번에 그는 평범하게 문지기다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매니시의 주의를 끌었다.

어떤 위화감에 자꾸만 뒤로 돌아가는 고개를 바로잡은 매니시의 앞에 연회장의 문이 나타났다.

매니시는 그제야 위화감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홀의 문은 닫혀있지 않았고, 손님을 위해 준비된 가면은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매니시!"

반가움에 소리친 페니가 상대하고 있던 여자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페니의 주위에 모여있던 여자들은 인기척을 느낀 파리 떼처럼 구심점으로부터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페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을 커다랗게 뜬 매니시가 묻자 페니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끌었다.

사건 후 한산하던 홀은 전보다 더 북적이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남성이 더 많아 불균형했던 성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리에 앉거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프릴이 잔뜩 달린 드레스, 높게 솟은 깃털 장식과 반짝이는 보석, 여느 사교장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두리번거리던 매니시는 막 잔을 부딪친 귀부인들을 보고 두 눈을 비볐다.

야속하게도 그녀의 눈에는 보통 여인과 귀족 여인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분명하게 보였고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한 귀족 여인들이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매니시의 턱이 내려갔다. 그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얼굴을 드러낸 채였다.

빈자리에 앉은 페니가 옆자리에 매니시를 끌어앉히곤 입을 열었다.

"짜잔! 보통 사교장 같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페라'야.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페니는 웃었다. 그것은 매니시가 익히 아는 요염한 미소도 개구쟁이 같은 미소도 아니었다.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덜 마른 수건처럼 눅눅했다.

"그러고 보니 페니는 타국의 귀족이라고 했지? 어쩌다 제국까지 와서 사업을 하게 된 거야?"

"사업이 아니라 예술. 사교 데뷔하던 날 파티장에서 만났어, 운명처럼. 연극이라고 해봐야 기껏 귀족들의 스캔들을 흉내 내는 게 다였지만, 난 좀 멀리 봤지."

소파 등받이에 거칠게 한쪽 팔을 걸친 페니는 전혀 귀족답지 않았지만, 매력적이었다.

소파에 걸친 팔을 굽혀 머리를 받친 페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만의 무대와 흥미로운 이야기, 그를 받쳐줄 적절한 준비물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환상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어. 포르스테리로 온 건 그중에서도 무대를 위해서였지."

"'페라'를 말하는 거야? 왜 하필..."

"제국에서 연극은 생소한 문화니까 어떤 편견도 없이 시작하기 좋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전쟁 중에 귀족 간의 사교 활동이 금지되고 심심한 귀족들은 적법한 놀 거리가 필요했지. 틈을 노린 거야.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뭐 사실 도망치느라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

태연하게 나온 말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매니시가 되물었다.

"응?"

"하하, 사실 아버지 반대가 심해서 돈 들고 집 나왔거든. 좀 많이."

페니는 트레이드마크인 개구쟁이 같은 얼굴로 매니시의 벌어진 입을 닫아줬다.

"그래서 정말 잘 돼야 하는데 여자들끼리 운영을 해서 그런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낙인이라도 찍힌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지 뭐야. 거기에 범죄까지 연루돼서 꼼짝없이 망했구나 싶었는데 루푸스 백작님 덕분에 손님이 넘쳐나. 이런 게 기사회생인가 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며칠 만에 이 정도로 바뀌어?"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매니시의 표정은 '어떻게' 보다는 '왜'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를 못 알아볼 페니가 아니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가야. 수사관분들이 며칠간 가면을 벗고 있던 데다 그제는 백작님이 황녀님을 모시고 다녀가셨어. 귀족들 소문 빠른 거 알잖아."

"황녀님? 대체 뭘 어떻게 협조하면 황녀님까지..."

"그러게 말이야. 자세한 건 비밀이라 말 못 하고 내가 대가로 여자 손님을 바라긴 했어. 솔직히 사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자 손님을 기대하긴 했지만, 황녀님을 모셔올 줄은 나도 몰랐지. 하지만 덕분에 '페라'는 전환을 맞았어."

페니는 이번에야말로 기쁨으로만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웃었다. 순간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액자로 향한 페니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매니시가 말했다.

"정말 잘됐다, 페니."

이후로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다. 긴장을 내려놓은 매니시는 모난 페니의 화법에도 휘말리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의외로 서로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페니의 눈길이 닿았던 그림 액자는 평화를 가장하고 있었다.

금테를 두른 나뭇결로 둘러싸인 네모진 세상 속에는 햇살 아래 독서 중인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 여인이 막 넘긴 듯한 책장이 파르르 떨린 것은 그때였다.

벽과 맞닿은 액자가 부르르 몸을 떠는소리 뒤로 누군가의 외침이 묻히고 있었다.

"저 여자는!"

목소리의 정체는 벽 너머 연기자들이 사용하는 방에 숨어있던 네이브였다. 액자의 떨림은 그의 주먹 탓인 듯 다부진 주먹부터 팔꿈치 부근까지가 벽과 맞닿아 있었다.

며칠간 혹사당해 퀭하니 마른 네이브의 눈은 마침 웃음을 터뜨린 매니시를 향해 빛났다.

네이브의 눈이 이토록 피폐해진 것에는 페니의 공이었다. '페라'는 무대 연출을 위해 다양한 마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페니가 그중 하나를 수사단에게 빌려준 것이었다.

본래 공연 중 페니가 무대 연출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마도구는 겉보기엔 한 쌍의 그림 액자에 불과했다.

연회장에 걸린 책 읽는 여자의 그림과 그 벽 너머 같은 위치에 걸린 책을 덮은 여자의 그림. 그러나 연기자들의 대기실에 걸린 이 '책을 덮은 여자의 그림'은 노크 세 번이면 연회장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덕분에 네이브는 워로드의 명에 따라 지난 며칠간 홀을 감시하는 중이었다. 사실 감시치고는 좀 당당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벽을 친 그의 주먹이 번들거리는 점도 그를 반증했다. 오늘 네이브의 수사 파트너는 감자튀김이었다.

아무튼, 오늘도 함정 수사를 위해 해고가 유예된 종업원과 그와 접촉하는 인물들을 살피던 네이브의 피로는 뇌에 도달해 있었다. 예쁠 것 없는 놈의 꽁무니만 쫓자니 식욕도 떨어지고 초점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눈이 샛길로 빠진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그는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 붉은 머리를 찾아 고개를 돌렸다.

깔끔하게 다듬은 갈매기 모양 눈썹을 늘어뜨리고 큰 입으로 시원스레 웃는 얼굴은 감자튀김보다 질리지 않는 별미였다. 네이브는 숙련된 스토커처럼, 입에 든 감자튀김을 다 씹기도 전에 페니를 찾아냈다. 그녀는 오늘도 웃고 있었다.

페니의 웃는 얼굴이 향한 곳을 따라 시선을 돌린 네이브의 눈에 그녀가 들어왔다. 매니시 레우카스.

노란 원피스에 하얀 머리카락을 늘어트린 여자. 그 흔치 않은 머리 색과 노랑의 조합은 그를 2년 전 어느 벤치로 데려갔다.

네이브가 있는 곳은 제2 광장의 낡은 벤치였다. 황제에게 새로운 성과 영지를 하사받고 급하게 떠난 그의 상관 대신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다리던 이는 오지 않았다.

네이브는 그때도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한눈을 팔며 견뎠었다. 저 멀리 광장의 끝에서 등장하면서부터 그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던 노란 원피스의 여자.

보기 드문 백발이 흘러내린 모습이, 마치 노란 꽃잎 위에 내린 눈꽃처럼 아름다웠었다.

누군가를 기다린 듯 사흘을 함께 했던 그녀는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고, 네이브가 혹시 모를 가능성을 떠올린 것은 한참이 흐른 뒤였다.

그녀 또한 그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워로드가 기다리는 소년을 대신해서 나왔을 가능성을.

멍청한 그도 아직 단장의 마음에 매듭짓지 못한 그리움이 있단 것을 알고 있었다.

"단장님!"

닿지 못할 외침은 그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 뿐이었다.

"음?"

귀가 간질거린 워로드는 손을 들어 올리다가 테이블을 치고 말았다. 미관을 위해 가는 쇠로 된 테이블의 다리는 약간의 휘청임을 버텨내지 못하고 머리를 덜덜 떨었다.

그에 맞은편에 있던 상대에게서 괴성이 터져 나왔다.

"뭐야!"

워로드의 사촌, 황녀 로망이었다. 그녀는 최근에 나온 '만찬' 2부를 다 읽어 오랜만에 1부를 다시 펼쳐 든 참이었다.

이제 막 전쟁 속에 주인공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찰나, 옆으로 미뤄뒀던 설탕을 잔뜩 넣은 밀크티가 로망의 왼손을 적셨다. 로망은 혹시라도 책에 튈까 화들짝 놀라 손을 들어 올렸다.

"실수다, 그러게 책은 나중에 보라고 했잖아."

다행히 테이블이 흔들리며 출렁인 밀크티가 조금 넘쳤을 뿐, 잔이 쓰러지진 않은 상태였다. 책을 무릎 위에 놓아둔 로망은 왼 소매를 걷고 그대로 손바닥을 내보였다.

"이씨, 그랬어? 암튼 손수건 줘 봐."

워로드는 한 손에 잔을 여전히 든 채로 다른 손을 써서 주머니를 뒤졌다. 곧 그의 손에 잡혀 나온 것은 이 순간 그가 꺼내놓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황급히 주머니로 다시 돌아가는 손을 로망은 놓치지 않았다.

"그거 아냐? 손수건."

"아니야."

"아닌데, 분명 손수건이었는데."

"네 것 써."

그렇게 내뱉은 워로드가 한 손은 주머니에 그대로 꽂은 채 잔에 입을 묻었다. 로망은 입을 삐죽 내밀고 투덜거렸다.

"힝, 내 건 관상용인데. 뭐 묻는 거 싫다구."

멀쩡한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든 로망이 망설이며 손을 닦았다. 그녀의 손수건은 하얀 레이스와 진주 장식으로 도배되어있어 물기가 잘 흡수되지 않았다.

"로망, 손수건은 관상용이 아니다."

울컥한 그녀가 워로드의 낡은 손수건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러는 백작님은요. 걸레는 관상용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걸레를 왜 주머니에 넣고 다녀?"

얼추 물기를 제거한 로망은 얼룩이 묻은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허리에 매단 주머니에 넣었다. 하얗고 보송한 가죽으로 된 주머니는 황녀라는 직위에 걸맞게 금사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주 귀해 보였다. 그럼에도 이 주머니는 아름다운 외관 이상의 가치가 있었는데 금사의 끝에 달린 마성구가 그것이었다.

주머니는 로망이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담고 또 담아도 터지지 않았고 부피가 커져 표를 내는 일도 없었다.

"걸레가 아니야."

"그럼 정말 손수건이야? 물어뜯었어?"

철없는 황녀와 대화하면서도 늘 태연하던 워로드의 얼굴이 상처받은 듯 잠시 허물어졌다. 그에 놀란 로망은 제 말이 심했나 생각하면서도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다.

"물어뜯었다고?"

워로드는 망설이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런가?"

로망이 워로드에게서 난생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무릎에 올려놓았던 책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테이블에 팔을 기댔다.

워로드 쪽으로 몸을 기울인 로망은 태연한 척이 심해 오히려 위화감이 도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오라버니가 그런 게 아닌가 봐? 시종이?"

워로드는 그 위화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답도 없었다. 손수건을 다시 꺼내 물어뜯은 자국은 없는지 확인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마차 바닥에서 주운 그의 근심거리는 그날부터 쭉 그의 주머니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님 오라버니 보좌관이 그랬어?"

그 후로도 그녀가 아는 그의 지인들이 줄줄이 읊어졌다. 그러나 워로드는 황녀의 호위였던 기사 프릴경부터 이름 모를 황궁의 마사 관리인이 거론될 때까지도 묵묵부답이었다. 제풀에 지친 로망이 투덜거렸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쌓인 게 많나 보네. 그러게 평소에 주변 좀 챙기라니까."

워로드에게서 로망이 바란 반응이 나온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손수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워로드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날 싫어하는 건가?"

"누군데? 아냐 아냐, 말하기 싫음 하지 마.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선물 같은 건 어때?"

로망은 어렵게 입을 연 워로드가 다시 입을 닫을까 조심스럽게 권했다. 워로드는 그녀의 뜻대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

"...뭘 좋아하는데?"

"응?"

"여자는 뭘 좋아하냐고."

눈을 커다랗게 뜬 로망은 워로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속삭였다.

"여자가 그런 거였어?"

로망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한 박자 쉰 워로드는 다행히도 긍정을 표했다.

"그래."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로망은 속으로 연달아 중얼거렸다.

전쟁이 끝나고 결벽증이라도 생긴 것처럼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던 워로드였다. 그런 그에게 고민거리나마, 아니 무려 그런 것을 안겨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누군데? 어느 집 딸이야? 나도 아는 사람이야? 몇 살?"

로망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쏘아댔다. 그런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워로드가 로망의 질문 세례에 인상을 찌푸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네가 그건 왜?"

"그거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선물을 고르지?"

의문형으로 끝난 말에도 제법 그럴싸한 핑계는 워로드의 감탄을 자아냈다. 덕분에 그는 로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든 말든 짧은 기억을 되감느라 바빴다.

"안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별로..."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의 짧은 기억 속에도 쓸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의 파급력과는 별개로.

"아, 애가 생딸기 푸딩을 좋아한다."

태연히 나온 말에 로망의 입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소리나 경악성을 내뱉기도 전에 끼어드는 음성이 있었다.

"전하. 말씀 중 죄송하지만, 백작님께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테이블에서 멀찍이 물러나 있던 시녀였다. 그녀의 손에는 문밖에서 숨을 헐떡이는 남자가 준 쪽지가 들려있었다.

쪽지의 내용은 간결했다.

'2년 전 제2 광장 여자 발견, 페라에 대기 네이브'

그러나 쪽지를 읽은 워로드의 반응은 간결하지 않았다. 요란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워로드에게서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가 났다.

"간다."

입만 뻐끔거리던 로망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애? 애애? 잠깐만, 오라버니!"

감탄성인지 '애'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소리를 내던 로망이 손을 뻗었지만, 워로드의 등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로망의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이 따끈한 바통을 넘길 다음 주자로 알맞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착실하게 찾아가고 있었다.

막 그의 추종자 하나를 추려낸 로망은 문득 그와 관련된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잠깐, 내 생일 선물에 관한 얘기하러 온 거였잖아! 그건 얘기해 주고 가야지..."

절대 돌아보지 않는 듬직한 등판은 간절한 로망의 목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에이드를 발견하고도 마찬가지였다.

"단장님 여기 계셨, 가셨군요."

워로드가 스케줄에도 없는 황궁행을 했다는 소식에 하던 일도 팽개치고 급하게 따라나섰던 에이드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보며 한숨지었다.

"어차피 올 거였음 보고 좀 직접 하시지. 어째 평민으로 태어난 내가 옆집 아저씨보다 폐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됐는지."

페니에게 받은 명단의 귀족들을 감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에이드는 투덜거리며 걷다가 무척 억울한 얼굴의 황녀와 마주쳤다.

아무리 황족이라도 얄미운 직속 상관 가족의 속을 풀어줄 의리 따위는 그에게 없었다. 둘은 시무룩한 얼굴로 성의 없는 인사를 나눴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럼 이만."

"그래요."

잘 지내? 그럼 잘 지내, 수준의 인사를 끝으로 두 사람은 각자 제 갈 길을 향해 발을 돌렸다. 그러나 한 걸음을 다 내딛기도 전에 멈추게 하는 소리가 있었다.

"응? 넌 '페라'의?"

에이드의 음성이었다. 그가 말을 건 사람은 쪽지를 전하고 복도 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페라'의 직원이었다. 곁에 있던 시녀가 말했다.

"백작님께 전갈을 가지고 온 심부름꾼입니다."

로망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페라'?"

응접실을 나서던 로망이 몸을 돌렸다. 그녀에게도 낯익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로망은 얼마 전 워로드를 따라 다녀온 재밌는 사교장을 떠올렸다.

아름다운 여자들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매력적인 여주인과 낯선 워로드의 행동, 둘 사이의 어떤 관계가 그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로망은 확신했다.

"요즘 단장님께서 자주 찾으시는 곳입니다. 괜찮으시면 이자를 그만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수사에 대해 노출할 수 없었던 에이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호기심 많은 황녀가 혹시나 사건에 관심을 가질까, 심부름꾼을 내보낼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모호한 설명이 로망의 상상에 불을 붙였다.

잘 찾아오지도 않던 사촌 오라비의 갑작스러운 나들이 제안과 아름다운 여주인이 이끄는 망해가는 사교장, 로망은 자신의 거동이 사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었다. 요즘 '페라'가 귀족들의 새로운 놀이터로 떠올랐다는 사실도.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심부름꾼은 하녀들이 쓰는 통로로 안내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마실 것과 휴식처를 제공받아 호사를 누릴 수 있을 테지만, 에이드의 상황은 달랐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고를 위해 황제의 집무실로 가는 길은 어쩐지 그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팔짱을 낀 황녀가 있었다. 가늘게 뜬 눈에 게걸음까지 불사하는 그녀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오라버니한테 여자 생겼죠?"

"예?"

"시치미 뗄 생각 말아요. 그래서 내 생일 선물은 뒷전이고 연애질을 하시겠다?"

"선물? 연애요?"

"그런 주제에 날 이용해서 그 여자의 사업을 키우기까지!"

"저, 죄송하지만 전하,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난스레 시작한 타박이 진심이 된 황녀가 씩씩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리석은 생물체에 대한 동정이 깃든 에이드의 얼굴은 열을 식히는데 특효였기 때문이다.

로망이 내쉰 긴 한숨이 멎길 기다렸다가 에이드가 말을 이었다.

"생일 선물은 누구 생일 얘깁니까?"

"내 생일 선물이요. 오늘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얘기하러 와놓고 그냥 갔다니까요."

황녀의 입술이 불만으로 삐죽거렸다.

"생일 선물을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찾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부탁했거든요."

미간을 좁힌 에이드의 시선이 멀어졌다.

"실례가 아니라면 뭘 찾으시는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가 좋아하는 책의 작가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에이드 경도 몰랐다니 시작도 안 한 것 같지만요. 연애하느라."

마지막 말은 작게 투덜거린 소리였지만, 에이드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그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한 그에게는 오히려 앞부분이 신경 쓰였다. 어딘지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그 작가가 쓴 책이..."

"만찬."

"역시."

에이드는 이 기막힌 우연에 새어 나오는 말을 감출 수 없었다.

얼마 전 여동생을 추궁한 그는 매니시의 진짜 정체를 알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었다. 여동생을 통해 그녀가 직접 일군 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그는 반대로 여동생에게 추궁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여동생의 눈빛은 마치 지금 그를 바라보는 황녀의 굶주린 눈빛과 찍어낸 듯 닮아있었다.

"찾았어? 요?"

잠시 망설이던 에이드가 대답했다.

"예."

그는 단장이 제 발로 보고하러 왔었다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워로드가 로망에게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한 죄책감에 그녀와 어울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리지 못했을 결정이었다.

한편, 반쯤 내려놓았던 기대에 대어가 걸린 로망은 연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대더니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이 걷던 방향 그대로, 황제의 집무실을 향해서.

"...누군지는 듣고 가셔야죠."

에이드는 결국 보고 거리를 늘린 스스로를 탓하며 황녀의 뒤를 따랐다.

사이좋게 수다 삼매경일 부녀 사이에서 톡톡히 감초 역할을 해낼 생각에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냐, 아냐. 더 먹어. 나 때문에 사건에 휘말려서 고생도 하고, 내가 미안해서 그래."

말을 마친 페니는 네이브의 눈동자라도 보이는 사람처럼 홀의 그림을 훑었다. 그녀는 호들갑을 떨며 매니시를 붙잡아달라 부탁하던 네이브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안달복달하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무슨 일 있어?"

"그냥, 미안한 마음은 큰데 보상할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1부 공연은 끝났지만, 2부 공연을 보고 가는 게 어때? 내용도 바뀌었는데."

"음, 그건 안 되겠어. 가족들한테 특별히 말을 안 하고 나와서 늦지 않게 들어가 봐야 해. 다음에 볼게."

"그럼 그냥 좀 더 있다 가. 이거 어때?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오렌지를 넣은 치즈 케이크야. 우리나라 오렌지는 신맛보다 단맛이 강해서 딱 먹기 좋거든."

그 외에도 페니는 매니시의 포크가 테이블에 닿으려고만 하면 새로운 설명을 이어갔다.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매니시는 십여 가지의 접시를 한 번씩 거쳤고 이내 그녀는 부른 배를 감싼 채 소파에 파묻혀야 했다. 체면이고 뭐고 드러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런,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반성의 뜻으로 소화가 잘되는 차를 우려 올 테니까 차 들어갈 자리 마련하고 있어."

"아냐, 페니! 나 그냥 좀만 이러고… 있을게."

페니는 쫓아오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매니시의 말은 허공에 대고 끝맺은 꼴이었다. 매니시는 이 배에 뭘 더 넣느니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홀의 소란을 눈치챘다.

한쪽으로 쏠린 시선, 동시에 일어난 웅성거림. 언젠가 겪었던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진 매니시가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다.

그녀의 뒤를 점거한 이는 이번에도 역시 그였다. 워로드 루푸스.

"단장님?"

그는 흐트러진 머리를 채 정리하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매니시의 부름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워로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오직 시각만 남은 이처럼 그의 시선이 맹목적으로 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정착한 곳은 쪽문 틈으로 고개만 내민 네이브에게였다. 워로드와 시선이 마주치자 쪽문을 더 닫아 틈을 좁힌 네이브는 손가락으로 한곳을 가리켰다.

워로드와 매니시가 재회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간 워로드의 눈이 까만 눈 한 쌍을 만난 것이다.

"레우카스?"

"네?"

다시 쪽문을 바라본 워로드는 완전히 닫힌 문을 확인하고 매니시를 마주했다. 네이브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제대로 찾았다는 뜻이었다.

"혹시 남자 형제가 있나?"

그 뜬금없는 질문에도 매니시는 제법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워로드는 이미 엉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소파의 한쪽으로 옮겨 앉은 매니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촌 동생은요. 일단 앉으세요. 목 아프니까."

말 잘 듣는 개처럼 덥석 앉은 그가 연이어 질문했다.

"몇 살이지?"

성급함이 느껴지는 어조에 매니시도 지체 않고 대답했다.

"여섯 살이요."

"그럼… 남편은?"

이 질문에는 매니시도 당황하지 않을 방도가 없었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길게 늘어트린 제 머리칼을 만지고 주변을 둘러봤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몇몇 귀족들은 착각이었나 싶을 만치 재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매니시는 곧 제가 어느 사교장의 간식거리가 되어 씹히고 뜯기고 맛보이고 즐기게 하는 불길한 미래가 보일 듯했다.

"그런 거 없어요!"

매니시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던 귀족들이 꼭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2년 전에는 왜…,"

그 순간 워로드의 귀에 유독 또렷이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가발이에요."

워로드는 하던 말도 멈추고 음성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어머나, 정말 감쪽같네."

갈색 머리 여성이 신기한 듯 앞에 선 여자의 금발을 만지고 있었다.

"좀 더운 것만 빼면 진짜나 다름없죠."

여자는 ‘페라’의 배우인지 상대의 질문에 착실하게 대답했다. 그는 워로드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서 대답을 들은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들이 있었다.

선선한 날씨에도 땀을 흘리던 소년, 약속 장소에 대신 나타난 매니시, 가발을 쓴 채 붙잡혔던 매니시,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 소년이 지었던 그 미소.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지금 표정 엄청 웃긴 거 알아요?"

아주 작은 미소였다. 그러나 워로드의 얼굴을 덥히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붉게 물든 얼굴에 미간을 좁힌 워로드는 가까이서 보는 매니시에겐 화가 난 사람처럼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눈치 문제라기보단 그의 표정이 목적지를 못 찾고 다른 장르를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화났어요?"

워로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올려다보는 매니시가 그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갑자기 왜…, 그보다 2년 전에 뭐라고요?"

"아니."

그의 입장에선 2년 전의 의문은 풀린 상태였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매니시는 연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시선도 마주치지 않는 그가 당황스러웠다.

그녀의 말문마저 막히자 둘 사이는 소음에 잠겨 들었다. 매니시가 다 못한 숙제를 떠올리기 전까지는.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자 계속 가방 안이 신경 쓰였다.

언젠가 그를 만나면 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오늘일 줄은 그녀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저기..."

그녀가 입을 열자 멀리 헤매던 워로드의 시선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고 밑을 맴돌았다.

워로드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작고 하얀 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가방으로 들어간 작은 손이 아쉬웠다. 그리고 다시 나온 그녀의 손은 가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하얗고, 작고, 단정해 보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 끝엔 마치 그가 쓰는 손수건과 비슷한 것이 물려있었다. 워로드는 그 작은 공통점이 더없이 달가웠다. 그 손수건을 선택한 매니시의 안목은 더없이 사랑스럽기도 했다.

"이거 받으세요."

"?"

매니시가 그의 눈동자를 살피며 이어 말했다.

"지난번에 단장님 손수건을 주워서 깨끗하게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세탁이 잘못됐는지 좀 망가졌어요. 마침 비슷한 게 있길래, 근데 이건 비싼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두서없는 말에도 그의 굳은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매니시는 손수건이 좀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거나 그마저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의 생각과 달리 워로드는 제멋대로 날뛰는 속을 달래느라 곤란할 지경이었다. 아무리 날고뛰는 그라도 얼굴로 몰리는 더운 피까지 제어할 재주는 없었다. 그렇기에 그가 취할 행동은 이뿐이었다.

"괜찮다. 그럼 이만."

전쟁 영웅의 속도와 순발력은 평범하지 않아서 그는 거의 말과 동시에 사라졌다.

"손수건은 가져가셔야… 응?"

매니시가 제 빈손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워로드가 사라진 ‘페라’의 홀은 마치 크기만 키우던 먹구름이 소낙비를 뿌리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시에 터져 나왔다.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여성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내가 뭘 본 거죠?"

아직도 워로드가 사라진 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여자는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하던 여인은 대답인지 다짐인지 모를 소리를 했다.

"뭘 보긴요. 백작님께서 화나신 모양이죠. 여자들이 귀찮게 해서 얼굴 붉히신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그렇다기엔..."

처음 말을 꺼냈던 여자는 조금 전 목격한 워로드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꾸만 배어 나오는 웃음을 입술 안쪽으로 사리물고 얼굴이 벌게져서 나간 남자. 그간 그녀 혼자 거짓된 인생을 산 게 아니라면 분명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회상에 빠진 동안 앞에 앉은 깡마른 여인이 말을 채갔다.

"백작님께서 화가 나신 것도 이해되네요. 좀 당황스러운 구석이 있으신 영애거든요."

깡마른 여인의 거들먹거리는 말에 얼굴을 붉히고 있던 여자는 더운 기운이 싹 빠지는 기분이었다. 유명인의 연애를 목격해 마냥 들떠있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 아시는 분인가요?"

본격적으로 들을 준비를 하는 듯 부채질을 하던 여인이 부채를 접어 들었다. 그 태도가 썩 만족스러웠는지 깡마른 여인의 입이 열렸다.

"고매하신 레우카스의 따님이에요. 반년 전까지만 해도 사교계에 간간이 얼굴을 보였죠."

"그래요?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너무 고풍스러운 차림새는 눈에 띄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여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해 듣고만 있던 여자의 턱에는 힘이 들어갔다. 평소 눈치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그녀라 해도 그 표현이 레우카스가의 형편없는 경제력을 비꼬는 소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눈치 없는 딸의 사교계 데뷔 날부터 걱정이 끊이지 않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다.

"그야 전혀 그런 티가 안 났을 테니까요. 제가 저분을 처음 뵌 건 중심가의 보석상이었는데 온갖 보석을 저분 혼자 쓸어가서 그날 저는 헛걸음을 했을 정도랍니다."

작위적인 한숨 소리가 마치 무슨 신호라도 되는 양 다른 여인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맙소사. 없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사치병이 심하네요. 몹쓸 피해의식 때문일까요?"

아주 대단한 농담이라도 들은 듯 자리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와중에도 여인들은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이가 보이지 않게 그린 듯 미소짓고 있었는데 웃지 않고 있던 한 사람에게는 몹시 바보처럼 보이는 광경이었다.

"도대체 짐 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한쪽으로 땋아 내린 하얀 머리를 금사로 짠 레이스와 루비로 장식한 여자가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글램 마리티무스, 쿠피오 산맥을 관리하는 마리티무스 후작가의 고명딸이었다.

"이게 벌써 며칠째야. 내가 뭐 어려운 거 시켰어?"

머리를 움켜쥐고 미간을 찌푸린 글램의 뒤에서 드레스를 가방에 담던 하녀의 얼굴이 실룩였다. 창밖에 서 있는 다섯 대의 마차를 채운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의 진척이 더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잠깐, 거기 너! 그 드레스는 레이스가 약해서 아기 다루듯 조심히 다뤄야 돼. 한 올이라도 끊겼다간 네 급여도 끊길 줄 알아."

아기를 보살핀 적도 없는 글램은 사사건건 아기를 찾아댔다. 이에 며칠 동안 시달린 하녀들은 그녀의 눈을 피해 눈물을 찍어가며 짐을 싸는 중이었다. 지적당한 하녀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조심하겠습니다."

하녀는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진 손길로 드레스를 다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글램의 깊은 한숨이었다.

"그렇게 느리게 움직여서 어느 세월에 끝나겠어. 너희들한테 완전히 맡기자니 어느 한 명 똑 부러지길 해? 이러다 수도에 도착하면 우리 백작님 유부남 되어있겠어! 수도에 불여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거긴 정글이라고, 정글!"

글램이 핏대를 세우고 자기소개 비슷한 것을 읊자 초임 하녀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눈치 빠른 다른 하녀가 꽉 찬 상자를 문가에 세게 내려놓아 소리를 덮지 않았다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글램의 타박을 완전히 피해갈 순 없었다.

"뭐야, 내용물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세게 놔?"

상자 내려놓는 소리에 놀란 글램이 벌떡 일어나자 깊이 파인 옷 사이로 둥그렇게 찬 가슴이 찰랑거렸다. 상자를 가지러 왔던 시종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 자리를 훑고 지나갔지만, 글램은 보란 듯 가슴을 내밀고 하녀에게 다가갔다.

"죄송해요, 아가씨. 이건 깨지는 종류가 아니라서..."

"깨지는 게 아니면 내 물건을 함부로 내팽개쳐도 돼?"

글램은 전혀 화 난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이 하녀를 더욱 두렵게 했다. 그녀가 아랫것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내리는 처벌들은 하나같이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 하녀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바닥을 통해 점점 다가오는 글램의 뾰족한 구두 굽이 느껴졌다. 하녀의 심장에는 그보다 무거운 구두 수십 켤레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바닥으로 내리깐 하녀의 시선에 마침내 글램의 붉은 구두가 들어왔을 때였다.

"아가씨!"

"뭐야?"

글램의 신경질적인 대꾸에도 기죽지 않은 사람은 마리티무스가의 늙은 집사였다. 오랜 세월 후작의 곁에서 일한 그는 글램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였다.

요령 좋게 짐 상자를 피해 들어온 그가 무릎 꿇은 하녀에겐 시선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영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중이랍니다. 마중할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벌써? 이번 출타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이 그 일주일째랍니다."

짧은 감탄성을 내뱉은 글램은 팔짱을 끼듯 양팔을 감싸 무언가가 심히 두드러지는 자세로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를 지켜보던 집사는 그녀가 완전히 잊은 듯한 하녀의 머리를 도닥여주고 눈짓으로 하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때 글램의 고개가 반짝 들렸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일단 싸놓은 거랑 먼저 갈 테니까 짐 확실하게 싸서 올려 보내."

그 말과 함께 방을 나선 그녀의 머릿속엔 더 이상 하녀도 마리티무스 후작도 없었다. 워로드 루푸스, 오로지 갖고 싶은 한 남자의 이름뿐이었다.

"…라고 하시고는 곧장 출발하셨습니다."

집사는 상큼한 어조로 보고를 마무리했다. 마무리가, 그러니까 그녀의 부재가 썩 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철없는 딸을 둔 죄로 그를 알고도 차마 나무랄 수 없는 후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 그 애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나도 아내도 안 그랬는데 말이야."

"결혼을 하면 마음을 잡으시겠죠."

제가 하고도 신통치 않은 말에 집사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니나 다를까 후작도 그 부분을 꼬집었다.

"자네 정말 몰라 그러나? 그 결혼 하겠다고 저 모양 아닌가."

후작은 정말 재밌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제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레우카스 영애, 정말 반가워요. 당신을 내 티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작은 자리이니 부담 갖지 말고 와서 자리를 밝혀주세요. 부디.

"아버지, 황실 초대장은 보통 이런가요?"

오늘 아침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매니시와 가족들을 당황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황녀인 로망 포르스테리의 친필 서명까지 들어간 편지라면 더더욱.

편지를 읽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던 가족들은 짧지만 강렬한 내용과 난데없는 황녀의 존재감에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기에 소리 내 편지를 읽던 매니시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일걸?"

레우카스 부인의 자신감 없는 대답은 흔치 않은 것이었지만 그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이 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매니시는 당연한 순서처럼 의심을 품었다.

"가짠가?"

"아니... 준비를 해야겠구나."

매니시의 옆에서 침묵을 지키던 레우카스 자작이 입을 열었다.

그는 편지를 전한 심부름꾼의 차림새와 황실에서 사용하는 편지지의 무늬, 황녀의 친필 서명을 들어 이 초대장의 신뢰성을 끌어모았다. 가족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내내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처럼 제가 말하고 제가 끄덕거리는 기행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 넘어간 매니시가 던진 새로운 과제는 그로서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황실 티파티에 초대되었을 때는 어떻게 입고 가야 하죠?"

"황녀님의 개인 파티는… 당신 알아?"

사교계에 별 관심이 없는 시골 남자 레우카스는 부인에게 공을 넘겼다.

"아뇨. 오라버니는요?"

시골 남자의 아내로 살며 황실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한 귀부인 레우카스는 믿음직한 오라비에게 공을 넘겼다.

"나야 당연히 모르지. 여보 알아?"

"내가 알겠어요? 매니시 모르니?"

공은 돌고 돌아 매니시에게로 돌아왔다. 매니시는 초대장을 고이 접어 넣고 비장하게 말했다.

"저는 당연히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을 알 것 같아요. 나갔다 올게요!"

달려 나가는 매니시의 뒤로 한시름 놓은 중년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쟤가 생각보다 사교적이라니까요."

웅성거리는 중년들 뒤로 대화에 끼지 못해 뿌루퉁한 아이의 한탄이 이어졌다.

"바부들, 그것도 몰라? 성에는 공주님이 있으니까 요정처럼 꾸미면 되잖아! 공주님이랑 요정은 친구야, 천사는 없어..."

엄마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일곱 살 플럼의 눈초리는 뾰족했다.

그리고 뾰족한 시선에 괴롭힘당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매니시 레우카스였다.

"아냐 아냐. 그건 너무 야해."

페니의 말에 코이의 미간이 좁아졌다. 분홍 망토를 벗은 코이는 다시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실상 진짜 귀족 아가씨라고 할 수 있는 페니보다도 더 우아한 모습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야하긴, 사교계에서 저 정도면 겨울옷 아냐?"

지난 방문에서 새침한 코이를 함락시킨 매니시는 종종 그녀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녀들은 문제의 초대장을 들고 온 매니시를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의견의 합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들은 ‘페라’의 전담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살롱을 차지하고 치열한 설전 중이었다. 몇 번째 이어지는 패턴에 매니시는 등이 휑한 드레스를 입고도 식은땀이 흘러내릴 듯했다.

"그렇긴 한데..."

말을 흐린 페니는 얼굴이 빨개져 도망치던 워로드를 떠올렸다. 기실 오늘 설전의 대부분은 그 때문이었으니까. 페니는 은혜 갚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작은 모임이라고?"

"응. 그냥 몇 사람 모이는 작은 자리래."

"그 정도 규모면 남자는 초대되지 않았겠네. 그럼 이걸로 하자."

코이의 의심 섞인 시선에도 페니는 꿋꿋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은혜를 갚기 위한 그녀의 노력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교계는 오랜만인데, 그것도 황실이라니. 나, 별일 없겠지?"

매니시는 근심거리가 제 어딘가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불안한 얼굴로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제법 매니시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코이는 그녀의 엄살에 페니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전에 보니까 귀여운 분이던데 뭔 일 있겠어?"

"그렇지?"

미약하게 밝아진 매니시의 얼굴은 여전히 가여운 데가 있어서 페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가족 연애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실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할까?"

"그래, 애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와중에도 황제의 바늘은 멈추지 않았다.

"예."

"약혼자는?"

황제의 손 아래서 금방이라도 쫑긋할 듯한 앙증맞은 강아지의 귀가 탄생했다. 그를 감탄하며 바라보던 심복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래? 잘됐네!"

바늘까지 놓아가며 눈을 반짝거리는 황제는 얼마 전 기뻐 날뛰던 로망과 찍어낸 듯 닮아있었다.

"예? 뭐가…?"

"내 조카가 23년 만에 관심 가진 여자가 미혼이라니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어딨겠나? 가만, 둘을 어떻게 엮어준다?"

흥분한 황제는 자수 천에 대롱거리는 바늘을 위험하게 흔들어댔다. 한걸음 물러난 심복이 말했다.

"…신이 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티 나나? 실은 신나 죽겠네. 내가 또 중신에는 일가견이 있지 않은가. 아야."

그새 다시 바늘을 잡은 황제는 수선을 떨다가 기어코 피를 봤지만, 심복은 놀라지 않고 태연히 제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도 그럴 게 심복의 손수건에는 이미 대여섯 개의 핏자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 번째 피를 볼 때까지만 해도 호들갑을 떨었던 자신을 까맣게 잊고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폐하. 폐하의 중신이야 늘 완벽하시죠. 실패하신 적이 없잖습니까."

정확히는 실패란 있으려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다. 감히 누가 황제의 중신을 거절하겠는가.

"하하하, 이 사람아 그래 봐야 아무것도 없네. 내 기분만 좋을 뿐이지."

부상 투혼으로 결 좋은 털을 수놓던 황제는 심복의 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리 말했다.

그의 바늘을 쥔 손은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이 그의 기분만큼이나 높이 올라갔을 때, 황제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그 아가씨가 오늘 궁에 온다지?"

"예, 곧."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군. 아무래도 지금 당장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야겠어. 어이쿠 이런, 중요한 보고서가 찢어졌구만. 수사단에 다시 제출하라고 하게. 화이트럼의 고객을 회유하는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책임자도 함께 부르고, 이를테면 워로드나 루푸스 말이네. 빨리빨리."

말릴 새도 없이 황제는 자수 천 밑에 깔려있던 기밀 서류를 찾아 들었다. 보고서를 찢는 그의 얼굴은 단지 중신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좀 더 케케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닦아낸 듯 시원해 보였다.

황제의 얼굴이 밝아지는 만큼 심복의 얼굴은 빛을 잃어갔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황족 포르스테리 로망도 아랫사람들을 열심히 부리는 중이었다.

"그건 이쪽!"

황녀의 손가락을 따라 하녀들의 치마가 검은 물결을 일으켰다. 물결이 지나간 자리로 화려한 꽃들과 아름다운 테이블보 같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냐, 이쪽?"

하나만 빼고. 그것은 정원에 오붓하게 차려진 티파티와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커다란 그림이었다. 로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림을 정원에 전시하고 싶었다.

"이쪽!"

마침내 로망이 가리킨 곳은 처음 그림이 놓였던 테이블 바로 옆자리였다. 그러나 거치대를 바닥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로망의 입술이 또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상급 시녀가 나섰다.

"마중 가시려면 서두르셔야 해요."

"맞다! 나 괜찮아?"

괜스레 머리를 매만지는 황녀에게 시녀는 웃으며 손거울을 건넸다.

"괜찮다마다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좋아, 가자."

빗장뼈에 잔뜩 힘을 주고 심호흡을 끝낸 로망이 비장하게 말했다. 그녀처럼 과장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뒤를 따르는 상급 시녀의 걸음 또한 평소보다 보폭이 좁고 다급해져 있었다.

"어디쯤 오셨을까?"

"신호가 온 지 좀 됐으니까 곧 보일 거예요."

성의 출입구를 지키던 기사는 눈에 힘을 주고 마차를 찾았다. 벌써 몇 분째 코앞에서 서성이는 황녀를 못 본 체하는 것도 꽤 지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마차는 그의 눈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순순히 나타나 주었다.

"왔어 왔어, 왔어!"

"진정하세요, 전하. 태연하게, 태연하게 일단… 웃으세요."

"태연하게? 흐, 으흐흐흣."

몹시 태연하지 못한 두 여자 사이에서 기사는 결국 제 임무를 잠시 내려놓고 손을 들어 귀를 틀어막았다. 대놓고 귀를 막는 행동은 일견 무례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소리를 얌전히 듣고 있는 쪽이 더 큰 무례라고 확신했다.

황녀의 기묘한 웃음소리는 마차가 그들 앞에 멈춰서자 끝이 났다. 황녀가 조용해지자 소란스럽던 자리도 금세 조용해졌다. 오로지 말의 투레질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고 막혀있던 기사의 귀까지 가 닿았다.

두 여자의 긴장이 옮은 듯 그는 웬만한 고위 귀족을 맞이할 때보다 꼿꼿하게 발을 내디뎠다. 그의 손에 마차 문이 열리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머리칼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게 마차에서 내려선 매니시가 본 풍경의 이유였다.

매니시는 뭐라고 입을 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성의 중앙 문은 황성 내에서 귀족들의 마차 통행이 허가된 마지막 지점. 그 때문에 황족들의 개인 공간이나 황제의 집무실과는 꽤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매니시가 아무리 눈에 힘을 줘 봐도 앞에 선 사람은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윤기 도는 금발 머리, 그녀보다 한 뼘은 큰 키, 날카롭고 섬세한 얼굴선, 워로드를 닮은 차가운 미인. 페니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매니시는 조심스럽게 정적을 깼다.

"황녀 전하?"

"…네."

얼굴을 붉힌 로망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인사를 나눌 때도, 정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착석 와중에도 매니시는 황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었다.

기나긴 적막 끝에 보다 못한 시녀가 끼어들었다.

"원래 좀 내성적인 분이세요."

차를 따라준 시녀가 매니시의 귀에 속삭인 말이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듣던 바와 영 다른 황녀는 차치하고서라도 티파티 분위기가 수상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다.

파티라고 부르기에도 죄송스러운 크기의 테이블에는 단 두 개의 의자만 놓여있었다. 그러니까 황녀와 매니시의 착석과 동시에 파티의 정원은 차버린 셈이었다.

"초대객이 다 온 건가요?"

이번엔 매니시가 속삭였다.

상급 시녀는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법 귀여운 그녀의 고갯짓에도 매니시의 몸은 얼음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뻣뻣해져 갔다. 이제 매니시에게는 여태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황녀를 잡아채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전하, 이제 그만 이 자리가 어떤 의민지 알 수 있을까요?"

낮고 차분한 음성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과 두려움이 엿보였다. 뜬금없이 인생에 찾아온 황족과의 독대란 그런 것이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사건의 예고.

매니시의 차가운 반응에 몽상을 헤매다 깨어난 로망은 일단 두 손부터 흔들고 봤다. 안 그래도 큰 그녀의 눈은 억울함을 담고 더 크게 뜨여 있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티파티가 맞아요."

매니시는 차분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난 그저…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니시의 표정을 본 로망은 함부로 다음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단단하게 다물렸던 그녀의 입술은 속을 보인 채 떨고 있었다. 로망은 그제야 제 말이 얼마나 수상쩍은지 깨달았다.

이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야 할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그저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로망의 머릿속에는 만남, 환희, 감동, 친교의 절차만 있을 뿐이었다. 매니시가 느낄 의심이나 당혹감, 두려움은 상상해본 적도 없는 현실이었다.

로망은 기지개를 켜는 죄책감을 애써 외면하고 다시 입을 뗐다.

"영애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핑계가 필요해. 테이블을 사이에 둔 두 여자의 머릿속을 동시에 스친 생각이었다.

별거 아닌 진실도 쫓는 자가 있으면 더 열심히 도망가는 법. 로망의 입이 한 자 한 자 뱉어낼 때마다 매니시의 머릿속도 점점 바빠졌다. 그녀는 찔리는 게 많았으니까.

남장이나 영애답지 못한 직업, 얼마 전 얽힌 사건들, 그에 대해 질책하는 황녀와 옆에서 아무 변명도 못 하는 자신이 절로 그려졌다. 하얗게 빈 머리에 매니시의 표정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를 보는 로망의 표정은 더 좋지 못했다.

로망은 '아가씨'가 아닌 매니시 레우카스와는 친해질 명목이 없었다. 그러나 저 지경으로 질색하는 '아가씨'에게 대놓고 아는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작한 말을 끝내기 위해 분주해진 로망의 머릿속에 언뜻 튼튼해 보이는 동아줄 한 가닥이 비친 것은 그 순간이었다.

"아이를 키우신다면서요. 아주 귀엽고 똘똘한, 애가 있다고…"

매니시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잇던 로망은 결국 어설프게 입을 다물었다. 실상 로망은 매니시에게 아이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자세한 사정은 몰랐다. 그래도 일단 칭찬부터 하고 본 그녀는 심각했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로망을 두고 매니시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허무맹랑한 데다 자극적이기까지 한 얘기의 출처는 짐작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니시의 경계심에도 금이 간 것이다.

이후 분위기는 꽤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황녀의 이유 모를 호감은 다소 찜찜했지만, 눈치를 볼 정도로 호감을 뿜어내는 상대에게 계속 날을 세울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매니시의 해명과 함께 둘만의 오붓한 티파티는 제법 순조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오해였네요. 정말 죄송해요. 전 정말 좋은 의도로,"

그때, 누군가 그들의 정원에 들어섰다. 황녀의 답답한 모습에 치마만 쥐어뜯던 상급 시녀가 그를 가로막았다.

"그럼 어쨌거나 티파티인거죠?"

매니시가 웃으며 마카롱을 하나 집자 로망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것보다 이게 맛있어요."

로망의 권유에 따라 케이크를 뜬 매니시의 곁으로 시녀가 다가왔다. 그녀는 은색 리본을 두른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매니시 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방금 도착했어요."

그리고 영문모를 소리와 함께 상자를 로망의 앞에 내려놨다. 로망은 ‘그냥 오셔도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상자를 풀고 있었다.

"…이건!"

선물을 확인한 로망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몸을 떨었다. 그 옆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반응에 매니시의 몸이 기울었다. 그녀도 모르는 제 선물은 수상할 정도로 얇은 책이었다.

그러나 로망은 그 정체를 아는 눈치였다. 어느새 눈물까지 머금은 로망은 퍽 감동한 얼굴이었으니까. 그것이 페니가 인맥을 총동원해 얻은 비장의 무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어머나, 이건."

위쪽에서 고개를 빼고 들여다보던 상급 시녀의 입에서도 같은 감탄성이 나자 매니시의 의문은 더욱더 깊어갔다. 다행히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고 로망의 입을 통해 곧 밝혀졌다.

"'만찬' 완결편! …의 도입부네."

얇은 두께가 약간 아쉬웠지만, 로망의 기분은 상승기류를 타고 저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매니시 레우카스, 바로 '아가씨'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선물을 받을 줄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작가님!"

그것이야말로 매니시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황녀의 입에서 나온 매니시의 정체, 그녀도 모르는 그녀의 선물. 심지어 그 선물은 미출간된 제 소설의 일부였다.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한 일투성이였다.

하얀 꽃잎을 늘어트린 꽃대가 바람에 휘청이고 있었다.

그를 본 워로드의 발걸음이 멈췄다. 꽃잎처럼 살랑이는 머리칼, 끝없이 이어진 동굴처럼 깊은 눈동자, 상냥하게 휘어지는 눈매, ‘페라’의 어둠 속에서 흥분에 차 조잘거리던 목소리.

그리움은 시도 때도 없이 그를 괴롭혔다.

"쟤는 왜 저렇게 퀭한 얼굴로 혈색이 좋대?"

엇갈린 두 단어의 조합은 실제로 워로드의 얼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황제는 부랴부랴 도착한 워로드와 에이드를 이끌고 정원을 종횡무진하는 중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보고를 이어가던 에이드도 워로드의 얼굴을 보고는 한숨이 나왔다.

"안 하던 짓을 하셔서 그렇죠. 요 며칠 갑자기 책을 읽으시겠다더니 덕분에 잠은 많이 주무십니다."

"오, 혹시 그 책이 만찬인가?"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폐하께서 명하신 겁니까?"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황제를 돌아본 에이드는 못 볼 것을 본 양 황급히 시선을 뗐지만, 특유의 음흉한 웃음소리는 막을 수도 없어 그의 귓속을 휘저었다. 그는 언젠가 들은 황녀의 똑같은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입을 다물었다.

"흐흐."

그러나 더 낮은 음역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 에이드의 고개가 바람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그는 도저히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이마가 당길 정도로 세게 눈을 감았다 뜨길 반복했다. 바뀐 것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손수건을 든 채 실실거리는 워로드가 있었다.

"저 손수건은 뭐지?"

어느새 멀쩡해진 목소리로 황제가 물었다. 에이드는 황실 핏줄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대답했다.

"선물 받으신 모양입니다."

"아니, 벌써?"

황제는 제 중신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당사자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것만큼 맥빠지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황제는 심각한 얼굴로 걸어가며 요즘 젊은것들이 무시한다는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어느새 다시 한숨을 흘리는 워로드와 불만에 가득 찬 황제, 황족들 사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에이드의 걸음은 얄궂게도 또 다른 황족을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철저히 의도된 만남이었다.

그들이 황녀와 매니시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것은 잔뜩 높아진 황녀의 음성 때문이었다.

"알아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이에요."

황녀는 매니시의 곁에 꼭 붙어 앉아 그림을 보고 있었다. 로망이 그토록 고심해 세워 둔 그림은 '만찬'의 두 주인공이 한 담요를 덮고 서로에게 기댄 뒷모습이었다. 정말 매니시가 상상한 그대로였다.

"정말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누가 그린 거죠?"

매니시의 목소리가 들리자 워로드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녀를 발견한 그는 무엇을 발랐는지 반짝이는 매니시의 입술에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대답은 그의 옆에서 들렸다.

"날세."

능글맞게 미소짓는 황제의 등장에 놀란 매니시의 눈이 있는 대로 커졌다. 황제는 일어나 인사하려는 그녀를 만류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만찬'은 나도 꽤 좋아하는 소설이네. 작년에 그걸 선물한 덕에 뽀뽀를 다섯 번이나 받았거든."

"아버지! 그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요."

황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불구하고 부녀의 친근한 대화는 정원에 느긋한 기류를 불러왔다. 그러나 그 속은 겉과 달리 요란했는데, 다들 알게 모르게 매니시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하하, 그게 비밀이었느냐? 미안하다, 미안해. 머리라도 환기시킬 겸 정원에서 보고를 듣는다는 게 영애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한 모양이네."

턱도 없는 소리였다.

에이드는 찢겨 있던 보고서와 지금쯤 황제의 집무실 어딘가에 박혀있을 새로 제출한 보고서를 떠올렸다. 게다가 황제는 보고를 핑계로 가로질러 온 길이 무색하게도 제 생각에 빠져 보고 한 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아닙니다, 폐하. 제겐 큰 영광인걸요."

매니시는 마치 그와의 우연한 만남이 영광이라는 듯 인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온기를 담고 그림에 머무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황제의 시선도 부드럽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호의는 매사 음흉했다.

"그렇다면 내가 영애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황녀에게 중히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잠깐만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나?"

"아, 그럼 저는 이만…"

"아니 아니.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서, 정원을 둘러보고 오는 건 어떤가? 꽤 아름답다고 자부한다네."

정원을 돌아본 매니시가 미소로 동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황제는 미처 못다 한 말을 이었다.

"그럼 워로드 백작, 안내를 부탁하네."

그 말에 당황한 사람은 꼭 술 취한 이처럼 발간 얼굴의 워로드뿐이었다. 그러나 거절은 없었다. 그는 잘 돌아가지 않는 몸을 움직여 매니시와 함께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둘만 남자 어색한 침묵이 매니시와 워로드를 감쌌다.

정갈한 정원수 너머 이국적인 꽃밭이 매니시의 시야에 들어찼을 때, 그녀는 얼핏 워로드의 침 넘기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오랜만이다."

"요샌 꽤 자주 뵌 것 같은걸요? 그보다 지난번엔 표정이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가 바란 대답은 아니었다.

워로드가 오랜만이라고 한 사람은 2년여 전의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감정을 알 리 없는 매니시였기에 워로드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걱정했나? 지난번엔… 사정이 있었다."

"혹시 그 사정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초대가 영 뜬금없다 했더니 황녀님께서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던걸요. 비밀 못 지켜서 미안했죠?"

"로망이 알고 있다고?"

종일 딴생각에 빠져있던 워로드는 포르스테리 부녀의 수상쩍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의아한 얼굴을 예상하지 못한 매니시가 다시 질문했다.

"아니었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온 건 폐하께 보고할 게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보고서가 훼손돼서 다시 보고하라고…, 이런. 폐하께서도 알고 계셨나 보군."

워로드가 자신 때문에 일부러 들렀다고 생각했던 매니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를 잠재울 새도 없이 연이어 튀어나온 황제의 이야기는 그녀의 발이 꼬이게 했다.

워로드는 이 폭로 사건의 단 하나 있는 용의자를 지목하며 넘어지려는 매니시를 붙들었다.

"내가 아니니 에이드가 분 거다."

"그, 그랬군요.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에이드가 그녀의 정체를 황제 부녀에게 얘기한 것과 오늘의 우연한 만남이 어떤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워로드의 품에서 빠져나온 매니시의 얼굴은 좀 전의 부끄러움과는 다른 이유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의식적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피하던 워로드의 눈에도 그가 들어왔다. 침묵은 삽시간에 다시 찾아왔다.

조용한 정원,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색채 어디에도 매니시보다 그를 사로잡는 꽃은 없었다. 적당한 곳을 반환점 삼아 돌아선 그가 매니시에게 사로잡힌 시선을 숨기지 않고 입을 열었다.

자의적으로 열었다기보다 넘쳐흐른 것에 가까웠다.

"전우인지 동지인지 마음이 가는 녀석이 있었다."

매니시의 하얀 머리칼 위로 짧고 푸석거리는 갈색 모발이 덧그려졌다. 워로드의 멀어진 시선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쓰는 새에 사정이 안 좋아져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모양이야."

수갑을 차고 떨던 매니시, 필명을 쓰게 된 연유에 대해 고백하던 매니시, 아이의 볼에 입 맞추던 매니시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런."

좋은 청자의 태도를 갖춘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엾은 남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다시 만난 그 애는 여전히 작고, 여리고, 상냥해서, 왜 바보같이 못 알아봤나 싶을 만치 사랑스러운, 여자애였고."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매니시의 눈도 워로드를 향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아직도 혼란스럽지만, 그 애를 지켜주고 싶다. 내 곁에 두고."

워로드의 진지한 고백에 매니시의 심장은 주책없이 반응하고 있었다.

매니시는 그 반응이 달갑지 않았다. 안 그래도 그녀가 목 빠지게 올려다봐야 할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랑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도 될까? 이 감정의 이름도 확실히 모른 채로."

용기 없는 남자의 애먼 질문에 매니시는 어떤 확답을 내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둔한 남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해 보였다. 얄궂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선뜻 손을 내밀었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을 천천히 살펴봐요. 아마 주변에도 있을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없이 가엽다가도 또 한순간 눈이 멀 것처럼 빛나는 사람, 을 이미 찾은 사람들."

매니시의 설명은 마치 그의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다.

덕분에 그의 머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본 어떤 이들보다 끈끈한 사이를 자랑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에게 매니시와 저를 대입해본 워로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는 정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그래, 그거였군. 알 것 같다."

"뭔데요?"

기대하지도 않은 빠른 결론이 매니시를 들뜨게 했다. 그녀는 ‘페라’의 어둠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흥분에 찬 목소리로 질문했다. 돌아온 대답도 들떠있긴 마찬가지였다.

"우애야. 그래서 동생처럼 아껴주고 싶고 예뻐 보였던 거다."

온몸을 뒤흔드는 심장의 고동도 여동생 문제에 늘 가슴을 쓸어내리는 에이드를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랜 고민에 종지부를 찍은 워로드의 얼굴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환했다.

"그, 게 꼭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거였어."

기어코 매니시에게서 대답 비슷한 것을 끌어낸 워로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는 연달아 확신에 차 중얼거렸다.

매니시는 그의 열렬한 고백 엇비슷한 것을 끌어낸 상대가 진심으로 가여웠다.

"영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만간 우리 꼭 또 봐요. 꼭!"

"그럼 영애 이번 승전기념 파티에 보지. 기다리고 있겠네."

부담스러운 두 황족의 인사와 함께 그날 파티는 끝났다. 매니시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기고.

"하아…합!"

따끈한 한숨과 함께 갑자기 입안으로 들이닥친 당분 덕에 매니시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부드러운 크림이 입에서 녹아내리는 기분이 갑자기 당한 일에도 나쁘지 않았다.

"누나, 맛있쪄?"

포크를 창처럼 쥔 상남자 플럼의 흔치 않은 애교에도 매니시는 잠깐 웃고 말았다.

누가 봐도 건성인 그 태도에 플럼의 눈은 세모꼴이 돼서 매니시와 겨루기 시작했다. 물론 혼자만의 눈싸움은 의미 없는 한 방울의 눈물과 함께 얼마 못 가 끝나고 말았지만, 플럼의 관심 끌기는 끝나지 않았다.

플럼은 포크 손잡이를 이용해 열심히 식탁을 두들겨 댔다. 그 힘겨운 노력 끝에 매니시의 시선 한 자락이 허락됐다.

"왜 그래?"

"요즘 누나 재미없어."

매니시가 또 김빠지는 미소를 짓자 플럼의 손가락이 그녀의 볼을 노리고 찔러왔다. 넋 놓고 있던 매니시는 꽤 매서운 아이의 손가락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또 그래. 누나 누가 괴롭혀?"

"아니?"

한손으로 뺨을 감싼 매니시가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매니시는 그 질문을 플럼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웃어?"

플럼의 심각한 얼굴에 그녀는 테이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다. 평범하게,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볼이 조금 부은 것만 빼면.

"고민이 좀 있어서?"

"뭔데? 내가 해결해줄게, 말해봐."

플럼은 가슴을 쑥 내밀고 말했다. 자연스레 치켜든 턱에는 하얀 크림이 덕지덕지 묻어있어 웃음이 터졌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터진 매니시의 모습은 플럼의 가슴을 한층 부풀리기 좋은 소재였다.

매니시는 사촌 동생의 허리가 반대로 접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우리 플럼, 흡, 듬직하네. 흠흠, 그럼 누나 고민 좀 들어줄래?"

고개를 끄덕인 플럼은 비장한 얼굴로 포크를 쥐고 케이크를 크게 찍었다.

"누나가 요즘 일이 잘…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데, 황… 어떤 어르신이 누나한테 고마운 일이 있다고 수사… 공부방을 소개해주셨어. 이해돼?"

플럼은 전혀 이해가 안 된 얼굴로 입에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매니시는 찜찜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음, 그런데 그 공부방이 남자… 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래. 누나가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플럼의 고개가 어깨에 닿을 만큼 기울어지더니 바로 섰다.

"누난 공부가 좋아?"

"음, 아마?"

"집에서 하면 안 돼?"

"아무래도 집에선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공부하고 일찍 와. 내가 허락해줄게!"

이번엔 제법 얌전해진 포크가 매니시의 입 앞까지 배달됐다. 달콤한 크림이 마치 그날처럼 매니시의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들었다.

며칠 전, 황성의 정원을 산책하고 돌아온 매니시를 기다린 것은 황제와의 독대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무실에 불려간 기분으로 앞에 선 그녀에게 황제가 내민 것은 상상도 못 한 어떤 제안이었다.

‘난 영애에게 고마운 일이 많네. 황제라도 자식 교육은 힘든 법이거든. 생각 같아선 영애를 공주의 선생으로 두고 부와 명예를 안겨주고 싶지만, 그래서야 재능 낭비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이야, 내가 그쪽으로라도 좀 보답을 하고 싶네.’

그렇게 말한 황제는 그녀를 위한 상급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영화와 즐거움을 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상하기 이를 데 없는 얼굴로,

‘출판 사장에게 듣기로는 요즘 집필을 좀 힘들어한 모양이던데, 현장에서 일해 보는 건 어떤가? 그곳에서라면 소재 거리는 넘쳐날 걸세.’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야 거기까지는 유혹적인 제안이었다. 그녀의 종이는 여전히 깨끗했으니까.

'프릴경은 충직한 기사지. 그는 워낙 남의 손 타길 싫어해서 일도 별로 없을걸세. 아직까지 전담 시종이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네.'

황제는 정말 다행이지 않냐는 듯 웃었다. 매니시는 도대체 뭐가 다행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하고 싶다는 보답이 복수가 아니고서는.

기사의 전담 시종이란, 수습 기사의 자리. 미래 제국의 검이 될 예비 기사의 자리이자 여자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자리였다.

끝에서 끝을 질주하는 마음에 괜한 낙서만 반복하던 매니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만 앉아있다고 종이가 채워지거나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손가방과 플럼이 남겨두고 간 빈 접시를 들고 내려간 매니시는 주방으로 향했다. 빈 접시를 갖다 놓기 위해서였다. 주방에는 매니시를 제외한 집안의 여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다들 모여서 뭐해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던 여자들의 고개가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손에는 감자 하나씩을 들고.

현란한 솜씨로 껍질을 깎던 하녀가 대답했다.

"감자 다듬어요. 오늘 저녁에 감자 크로켓 괜찮죠?"

감자를 씻던 자작 부인은 애교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딸을 집요하게 보다가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끼어들었다.

"어디 나가니?"

그녀가 한 손으로 손가방을 가리키자 매니시는 난처한 표정으로 긍정했다. 자작 부인의 표정은 순식간에 생감자처럼 쌉싸름해졌다.

"너 혹시 소개받았다는 그 일자리 때문이니? 그건 안 된다고 난 분명 말했다. 여자애가 기사들 사이에서 일이라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싶어서 그러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일하는 여자들도 꽤 있을 텐데 새삼 나만 입방아에 오를 게 뭐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지만, 그 제의가 황제의 입을 통했다는 것이 매니시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것이 문제였을까, 기사나 시종 얘기는 빼고 그녀에게 유리하게 각색된 이야기였음에도 자작 부인의 반대는 극렬했다.

불퉁한 매니시의 태도에도 자작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매니시의 손을 붙들고 말했다.

"넌 귀족이잖니. 비록 못난 부모 때문에 지금도 온갖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사내들 사이에서 일하는 영애는 없었어."

못난 부모라는 말은 매니시를 약하게 만드는 단어였다. 힘 빠진 매니시의 손을 움켜쥔 자작 부인이 이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래, 사실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 그렇다고 하필 네가 해야 될 이유는 없잖니? 아무도 함부로 가지 않은 길은 그만한 이유가 있단다. 그냥 지금처럼 요리책을 써서 벌면 됐어."

자작 부인은 정작 귀족 영애가 기사단의 하녀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영락없이 매니시의 정곡을 꿰뚫고 있었다. 귀족 영애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기사의 전담 시종이 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깊은 사랑 위에 퇴적된 불안이 자작 부인의 얼굴에 드러나자 매니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빈 접시를 개수대에 올려놓은 매니시는 무거운 공기에 짓눌릴 것만 같았다.

그때, 주방에 흐르는 침중한 분위기를 깬 사람이 있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야, 매니시?"

숙모였다. 그녀 특유의 통통 튀는 목소리는 단번에 가라앉은 분위기를 흐트러트렸다.

"일이요. 요즘 새로 나온 메뉴 연구하러?"

매니시가 작업실에 갈 때마다 하는 변명이었다. 익숙한 변명에 자작 부인의 얼굴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잘됐다! 급한 일 아니니까 심부름 좀 해줄래? 레우카스 사람들 인심이 너무 후해서 좀 나눠줘야겠어."

"레우카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 올해도. 요번엔 특히 풍작이었나 봐. 근처 보육원에 갖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차 불러줄 테니까 네가 들렀다 갈래?"

매니시는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 흐르던 무거운 공기도 멀리 물러간 후였다. 매니시는 마차가 올 동안 주방에서 잡담을 즐기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마차에 오를 수 있었다.

마차는 얼마 달리지 않아 그녀의 집에서 가까운 사설 보육원의 앞에 멈춰 섰다.

울타리 하나 없이 덜렁 놓인 건물은 매니시 가족이 사는 숙부의 저택보다 작고 허름했다. 귀족들의 저택이 아닌 이상 대개 그럴 테지만, 이 낡은 건물에 스무 명이 넘는 아이가 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건물 앞에서 놀던 대여섯 명의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마차의 등장에 놀라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부의 도움을 받아 감자 두 상자와 함께 땅을 디딘 매니시는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의 부름에 끌려 나온 원장과 곧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세요?"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원장은 주름이 펴질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두려움에 가까운 그 반응에 매니시는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고 방문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내 나이든 여인의 눈가는 다시 삶이 할퀴고 간 흔적으로 빛났다. 원장은 주름이 더 깊어지도록 눈매를 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제국법상 보육원의 운영은 오로지 신전의 영역.

때문에 그녀와 같이 사설 보육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의 지원도 바랄 수가 없었다. 불법 시설로 신고당하지나 않으면 감지덕지한 것이다.

그들이 귀족이나 돈 많은 상인의 동정을 게걸스레 먹어치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익숙한 상황에 눈치 빠른 아이들은 매니시의 옆에 놓인 것이 저들의 몫인 것을 알아봤다. 그들은 원장이 매니시를 붙들고 틀에 박힌 공치사를 하는 동안 무거운 감자 상자를 질질 끌어 원장의 등 뒤로 사라졌다.

그 모습이 매니시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그녀도 저렇게 주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내던진 차가운 동정을.

아이들이 사라진 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매니시가 입을 열었다.

"애들이 조숙하네요."

매니시의 얼굴을 훑은 원장이 받아 말했다.

"어린애인 채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요."

원망 어린 목소리였다. 방향을 잃은 원망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원장과 그녀의 후원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원장은 혹시라도 후원자 한 명을 잃을까 봐 급하게 덧붙였다.

"그래도 아가씨처럼 마음 좋은 분들이 있어 다행이죠."

그때 비쩍 말라 눈만 큰 여자아이가 건물에서 툭 튀어나왔다.

아이는 닫힌 문을 노려보다가 매니시의 눈치를 보고 원장에게 달라붙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쓸데없이 원장을 잡아두는 매니시가 달가울 리 없었다. 여자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원장에게 칭얼거렸다.

"우리 빨리 들어가요."

속닥이는 아이의 목소리는 의도대로 매니시에게도 들렸다. 원장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살포시 미소짓고는 화난 척 아이를 나무라고 있었다. 매니시는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고 말했다.

"내가 엄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미안."

울타리도 흙도 없는 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곳곳에 쓸린 상처가 있었다. 매니시는 쪼그려 앉아 아이의 피가 나는 무릎을 털어주고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인사까지 마친 매니시가 돌아서려 하자 얼떨떨한 표정의 아이가 손을 내보이고 물었다.

"이건요?"

방금 매니시가 아이의 손에 밀어 넣은 제 손수건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야무지게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친구들 다친 곳은 네가 털어주렴. 원장님 걱정 안 하시게 조심해서 놀고."

"잠시만요."

말을 마치고 돌아선 매니시는 이내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다시 붙잡혔다. 이번에는 원장이었다.

그녀의 부름에 다시 돌아선 매니시의 눈에 아이를 달래 들여보내는 원장이 보였다. 매니시에게서 눈을 못 떼던 아이가 들어가자 고개를 든 원장은 이날 가장 솔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관계입니까?"

그 질문에 매니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다. 보육원 원장의 부탁이라는 실낱같은 인연 외에는 그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매니시는 작가적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야 했다.

"제 동생을 가르치던 신관님이세요. 벌써 며칠째 행방불명이에요."

"신전에선 그런 신고가 없었는데요?"

경비병의 의심 서린 눈이 매니시를 위아래로 훑었다. 서민들이 입을 법한 간편하고 칙칙한 옷은 그런 의심에 확신을 불어넣었다.

"아가씨 동생을 신관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어느새 그의 말이 짧아져 있었다. 그도 그럴 게 신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돈이 많이 들었다. 그는 평범한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 차림새를 깨달은 매니시의 입이 꾹 다물렸다. 당황 다음으로 그녀에게 찾아든 것은 분노였다. 어리숙한 거짓말일지언정 비웃음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사람이 없어졌다는데 뭐가 웃겨요?"

"뭐?"

"신관님이 사라졌다구요. 온다간다 말도 없이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는데 제 재산 상황이나 인간관계가 무슨 상관이죠?"

매니시는 정말 누구에게든 묻고 싶었다. 곤란한 얼굴을 한 원장이 떠올랐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끌어안은 죄로 범법자가 되어 실종 신고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녀였다. 스승을 잃고 두려움에 떤다는 아이들만큼이나 그녀도 두려워 보였다. 매니시는 아직도 원장에게 잡혔던 손이 조여 오는 듯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뭐야, 무슨 일이야?"

흥분해 일어난 병사의 뒤에서 소란을 들은 다른 이가 끼어들었다.

병사는 큰 목소리로 그에게 제 억울함을 토로했다. 옆에서 듣던 매니시에겐 코웃음이 날 소리였으나 흥분한 그는 그마저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이는 매니시에게 자리를 피하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

"요새 신관 찾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 막 돌아선 매니시의 귀에 꽂혔다. 그녀의 걸음은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느려졌다.

"그러게. 수사단 그놈들은 우리가 지들 부한지 아나, 찾았대?"

"몰라. 우리한테 찾아보라고 해놓고 지들은 찾았다 못 찾았다 가타부타 말도 없으니 알 게 뭐야. 할 만큼 했으니 신경 끄는 거지 뭐."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경비대에서 나온 매니시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잡혀갔던 수사단 건물이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방금 들은 얘기가 그녀에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웠다. 매니시가 현재 수사단에 들어서기 껄끄러운 마음이라고 해도 말이다.

"매니시 양?"

귀에 익은 목소리와 함께 매니시의 갈등도 끝이 났다. 답이 제 발로 찾아온 바에야 따를 수밖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에이드 경."

갑작스러운 만남에 우물거리던 매니시의 시선은 경비대의 문과 에이드의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에 눈치 좋은 에이드가 바로 그녀의 방문 목적을 알아챘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게, 실종된 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에이드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매니시의 맑은 목소리가 아니라 황제의 음흉한 목소리였다.

'최선을 다해 꼬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파티까지는 꼬셔 오라구.'

"마침! 우리 수사단에 적당한 인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하는 당사자도 안내받는 당사자도 여간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에이드는 목적도 수단도 없이 매니시를 이끌었다.

익숙한 길을 따라 걷던 그의 귀에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 것은 우연이었다.

식당 근처에 자리 잡은 수사단 사무실은 필연적으로 하녀들의 휴게공간과도 가까웠다. 에이드는 이 우연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길 빌었다.

"가는 길에 차를 한 잔 부탁해야겠군요."

혼잣말 같은 사족을 덧붙이며 휴게실로 들어선 에이드가 마주한 것은 그가 바라던 풍경은 아니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글쎄,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동굴처럼 울리는 남자의 목소리 주위로 여자들의 높은 목소리가 휘감겼다. 목소리 주인들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짧은 신관복을 입은 남자가 한량 같은 느낌으로 소파 하나를 차지해 누워있었고, 하녀복을 입은 여자들은 그 주위에 쪼그려 앉거나 걸터앉아 있었다.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에이드가 바라던 젊은 여자의 열정이나 활기로 가득 찬 근무환경은 아니었다. 보이는 것이라곤 윤락업소라는 오명에 시달리던 ‘페라’보다도 문란해 보이는 광경뿐이었다.

"또 여기 계셨습니까?"

에이드로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있기 싫으니까, 꼬우면 놔주든가?"

"가시라니까요, 집에."

"아아, 나 여기서 이 언니들이랑 살아야겠다."

신관의 말에 젊은 하녀들에게서 비명 같은 소리가 튀어나왔다.

"여기가 무슨 가출 청년 보호소인지 아십니까?"

"아니었어? 너희 단장도 그거잖아."

"이콜로지 신관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하녀들은 하나둘 일어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매니시는 스쳐 가는 하녀들 사이에서 놓칠 수 없는 한마디를 들었다.

"이콜로지?"

그를 불렀다기보단 혼잣말에 가까운 물음이었다. 그러나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천장만 보던 이콜로지의 시선도 음성을 따라 헤맸다. 마침내 이콜로지와 매니시의 시선이 마주쳤다.

"누구?"

그 순간 매니시의 머릿속엔 은인에게 닥쳤을 끔찍한 사건 사고를 열 가지쯤 뽑아가며 애타 하던 보육원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워로드는 도저히 읽히지 않는 책을 그만 덮었다.

매니시의 뜨뜻미지근했던 반응과 함께 시작된 고민은 워로드의 독서 의욕을 뚝 꺾어놓고 있었다. 그래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어서 그는 오늘도 만찬의 1부를 놓고 씨름 중이었다.

"하아..."

두 쪽을 읽는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수마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 대가로 눈 깜박할 새 시간 이동을 겪은 그는 결국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허공에 팽개쳐놓은 머리 탓에 뻐근한 고개를 주무르며 그는 아주 오랜만에 집무실을 벗어났다. 오늘따라 조용한 복도는 그를 더욱 골몰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블랙럼을 신호로 나타나는 마성구 밀매상, 일명 화이트럼. 최근 조용한 그자와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 예쁘고 똑똑하고 용감한 아가씨 매니시 레우카스. 그 모든 것이 워로드를 어지럽게 했다.

한때 잡힐 듯했던 그녀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위로 형 한 명에 막내인 그는 여동생을 어떻게 아껴줘야 할지 도통 알 수 없었고, 사정을 들은 전문가 에이드는 워로드를 대차게 비웃었다.

워로드 그가 잉크를 쏟거나 졸다가 서류에 낙서를 해도 한숨만 쉬고 마는 에이드의 비소는 그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가 서류를 쳐서 잉크병을 넘어뜨리고, 그 잉크를 닦다가 책상에 머리를 박은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비소였다.

워로드는 힘들게 쓴 감정의 이름을 구겨서 저 멀리 내던졌다. 그리고 그의 고민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최근 들어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보다 어디선가 답이 뚝 떨어지길 기도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까지 이른 상태였다.

기도의 응답은 그의 생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산책을 충분히 만끽한 그가 집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랑이에요."

거짓말처럼 어디선가 뚝 떨어진 매니시의 음성에 워로드의 심장은 둔탁한 울림과 함께 요동쳤다.

"아니, 명확한 건 없었어. 그러니 과대해석은 금물이지. 단지 힘든 순간을 함께 한 그들 사이에 전우애 같은, 좀 더 특별한 우정이 생겼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

뒤이어 들려온 남자의 대답은 지나치게 가볍고 느끼한 목소리라고 워로드는 생각했다.

"아뇨. 연민에 적당한 시간과 애정이 섞이면 사랑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안쓰러운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 사이에 있던 게 단지 우정뿐이었다면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땐 좀 더 자기 자신으로 있었겠죠.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근데 얘네는 너무 보이지 않아요?"

매니시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미 머릿속이 점령당한 거, 서로에게."

워로드의 심장이 초조하게 뛰기 시작했다. 적의 선전포고를 들을 때처럼.

"아니야."

워로드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었다.

점령은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바쁘게 일했고 문화생활을 즐겼으며 평소처럼 훈련에 매진했다. 그것은 워로드 루푸스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실은, 그도 알았다.

수사가 막히며 그는 요즘 한가했고, 즐기지도 않던 책을 본다고 내내 혼몽한 상태였으며, 훈련 시간에는 실수 연발로 기물 파손 기록을 경신해내고 있었다.

그는 전혀 워로드 루푸스답지 않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워로드 그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그는 저를 점령한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발을 내디뎠다.

"경험담이니까 믿어도 돼요."

이어진 말은 이제 막 내디딘 워로드의 발을 멈추기에 충분했다. 사랑을 깨닫기 무섭게 한 대 맞은 그의 고개가 바닥을 향했다.

흔들리는 워로드의 눈은 소파에 팔을 괴고 누워있던 이콜로지에게는 너무도 잘 보였다. 곧 흰 신관복을 입은 신관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런가?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 '만찬'의 주인공들 말이야."

소파에서 일어난 이콜로지의 시선이 제 등 뒤를 향하자 따라 돌아본 매니시는 어두운 얼굴의 워로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콜로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아직 다 못 읽어서 할 말이 없군. 왜 여기 있지?"

"보면 몰라? 냄새나는 기사들 피해 있느라 수고 중이잖아. 난 칼 든 귀족 새끼들만 보면 속이 메슥거리거든. 딱딱하고 위험하고 냄새나고, 그에 비하면 여자는 부드럽고 달콤하지."

아주 자리에서 일어난 이콜로지는 나무처럼 키가 크고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에 대해 말하며 매니시에게 다가선 그가 혀로 입술을 핥았다.

뒤돌아서 있는 매니시는 이콜로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정면에서 그를 본 워로드의 가슴은 심한 열기가 치솟아 도리어 시원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저를 향한 매니시의 눈앞에서 속의 열기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입 조심하지. 여긴 내 구역이야. 내 허락 없인 내 사람들이 단지 쓴지 맛 볼 권한도, 메슥거릴 권한도 없다."

"…거 살벌하기는, 됐어 됐어.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퉁명한 말투였지만, 이콜로지의 얼굴은 한여름 바닷바람이라도 쏘인 사람처럼 상쾌해 보였다. 그는 움푹 들어간 보조개를 숨길 생각도 없이 기어코 한마디를 더하고 나갔다.

"참, 원장한테 나 잘 있다고 전해줘라!"

"…네."

쾅, 애써 한 대답은 문에 막혀 방안을 맴돌았다.

실없는 사건과 실없는 남자에 질린 에이드는 일찌감치 자리를 떴기 때문에 작은 휴게실 안에는 매니시와 워로드 둘뿐이었다.

“또 뵈네요.”

매니시는 황실 정원에서의 이상한 대화 후로 처음 보는 워로드에게 어색하게 인사했다. 워로드는 그녀의 인사에 어떤 대꾸도 없이 어깨만 뒤로 젖히더니 대뜸 본론을 꺼내 들었다.

"내가 졌어."

본론의 짧고 굵은 정도는 남달랐다.

매니시는 새 부리 수준으로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는 입의 잘생긴 남자를 평생 이해하지 못할 듯했다. 그래도 예의상 '누구한테 뭘요?' 정도의 대답을 하려는 찰나, 워로드의 부리는 다시 열렸다.

"나만 질 순 없지. 그 점령이란 건 어떻게 하면 되지?"

워로드는 선배 정복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정복자인지도 몰랐던 매니시는 전쟁 영웅의 질문이 단순하게 들리지 않았다. 한 분야에 통달한 자가 낸 원초적인 질문은 그녀가 한창 구직에 열을 올릴 때 자주 들어본 것이기도 했으니까.

매니시는 그에게서 면접관의 향기를 맡았다.

그녀는 진지한 워로드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쳐다보며 어떤 의문을 떠올렸다. 어쩌면 황제의 제안이 그녀에게만 당혹스러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썩 유쾌하지 않은 가정이었다.

그것이 매니시에게 어떤 오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서리가 만져질 것처럼 딱딱했고, 지극히 옳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건 저보다 단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아니면 참모가요."

"좋아."

그 성의 없지만 정석인 대답에 그도 만족한 듯, 워로드는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방을 나섰다. 그 의문의 긍정이 혼자 남겨진 매니시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수사단장의 시험에 합격한 것은 아닌지 뒤늦게 걱정이 들었다. 매니시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다.

당황한 매니시가 그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단을 몰래 빠져나가는 동안, 그를 모르는 워로드는 그의 참모 에이드에게 가 있었다.

"어떤 이의 머리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원수가 되거나 연인이 돼야겠죠."

사생활부터 공적인 일까지 워로드의 온갖 질문에 익숙한 에이드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연인이 되려면?"

그제야 고개를 든 에이드의 눈에 워로드의 진지한 얼굴이 들어왔다. 에이드는 여동생의 첫 요리를 대접받았을 때 만큼이나 벅찬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

툭. 워로드와 에이드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다.

"저, 저는 교대…, 존경, 아니 존중..."

동료와 잠복 임무를 교대하고 오랜만에 본부에 들렀던 네이브는 평소처럼 함께 있는 상관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온 참이었다. 그런 그의 귀에 들어온 대화 내용은 평소와 한참은 다른, 이상한 것이었다.

"존중? 그게 중요한 건가?"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워로드는 홀로 다른 세상에 있는 듯 고고했다.

"허억, 사, 상관 없으시구나아. 그럼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이브는 직각으로 인사하고 뒤돌아 뛰어갔다. 그가 떨어트렸던 상자의 존재는 완전히 잊은 듯했다.

에이드는 그 상자에서 삐져나온 생크림처럼 창백한 얼굴을 쓸어내렸다.

"존중, 존중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워로드는 저를 둘러싼 상황에 아랑곳없이 수하의 참 가르침을 되새기는 중이었다.

쪼오오오옥. 짙은 미련이 느껴지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플럼의 빨대는 사명을 완수했다. 하지만 플럼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 방울을 위해 컵을 한껏 기울여 얼굴을 묻고 있었다.

"결정은 했니?"

매니시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답을 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작은 책을 한 장 넘기며 가득 찬 제 컵을 플럼에게 밀어주었다. 우유에 딸기와 꿀을 넣고 간 음료는 생딸기 푸딩 이후로 플럼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었다.

"혹시 돈 때문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은 충분해요."

아버지의 말에 손사래를 친 매니시가 한숨을 푹 내쉴 때였다.

"그래. 이상할 정도로 충분하긴 하더구나. 그간 아무 능력도 없는 가장이라 모른 척하긴 했다만 말이다."

"아빠!"

"오랜만에 들으니 좋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난 상관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매니시는 주방 쪽으로 돌아가는 고개를 붙잡고 어설프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관심이 있는 거지 꼭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얼굴인데? 넌 집중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거울! 매니시는 속으로 애타게 외쳤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응접실에 거울은 없었으므로, 아쉬운 대로 입술을 말아 문 매니시였다.

"눈치 보지 마라. 네 엄만 영지도 판 배짱 있는 여자야. 그 딸이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이상하잖니?"

맞는 말이었다. 짧은 머리, 마른 얼굴로 그들의 종전을 지휘한 여자. 세월은 짧은 머리를 길게, 마른 얼굴을 윤기 돌게, 음각된 기억을 무디게 만들었다.

매니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기억의 굴곡을 더듬었다. 시간의 선득한 유속에도 그날의 심장 어림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매니시는 웃었다.

"나갔다 올게요."

뒤돌아 방으로 향하는 매니시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딸기 음료를 대가로 어른들끼리 하는 대화를 조용히 기다려주던 플럼도 신이 나서 일어났다.

"플럼, 누나를 응원해주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의 의미를 플럼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플럼은 자작의 품에 안겨 얼굴을 문대고 매니시를 따라갔다. 하얀 셔츠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고 웃음이 터진 자작을 뒤로하고.

에이드는 이른 시간부터 저를 호출한 방문자 앞에 섰다. 그에게는 퍽 의외의 인물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애."

방문자는 매니시였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녀였지만, 상사의 짝사랑 상대라는 것을 알기 전과 후는 사뭇 달라 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안쪽으로 이끌었다.

머뭇거리던 매니시가 입을 연 것은 에이드에게 이끌려 로얄 수사단의 초라한 사무실에 재입성했을 때였다.

"황제 폐하께 직접 말씀드리기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폐하께 제안받은 게 있는데…,"

매니시의 시선은 에이드 너머를 흘긋대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이번에 그녀는 수갑 따위를 차고 있진 않았지만, 한편에 위치한 단장의 집무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결심한 바를 단숨에 털어내기 위해 자꾸만 돌아가는 눈동자를 붙잡았다. 곧게 마주쳐오는 시선에서 그녀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급한 태도에 여유를 잃은 것은 에이드였다.

불안한 상상을 침과 함께 삼킨 에이드가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결정하신 겁니까?"

"네. 오래 고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본 중 가장 단호한 얼굴로 매니시가 말했다.

"제가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런, 할 일이 있습니다. 많아요. 아니 많진 않고..."

매니시는 답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제 말을 얹었다.

"열심히 해볼게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도장을 찍듯 분명한 어조였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요?"

지적인 얼굴을 함부로 쓰는 그에게 매니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어 보였다. 그 때문에 이어 나온 말은 다소 무책임한 어조였다.

"한번 해보죠. 뭐"

매니시는 찝찝한 표정의 에이드에게 이어 말했다.

"잘은 모르지만 시종 일이 에이드 경보다 높은 지위도 아닐 텐데, 앞으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을까요?"

그 태연한 목소리에 한숨을 내쉰 그가 굳게 닫힌 집무실 문을 보고 대답했다.

"오늘부터."

매니시의 입이 벌어지든 말든 평소의 페이스를 되찾은 에이드였다.

그는 제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검토는 끝났지만, 시간이 없어 정리하지 못한 서류가 한가득 있었다. 켜켜이 쌓여가는 종이의 산만큼 그의 기분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프릴경은 파견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 업무 보조를 하면서 적응기를 먼저 갖죠."

옆의 빈 책상에 종이 산을 옮긴 그가 산뜻하게 웃었다.

창단과 함께 야심 차게 들여놓은 책상 네 개, 주인도 정해놓았건만 제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제야 사내들의 냄새 나는 엉덩이 대신 제 주인을 찾은 책상에 에이드의 마음은 넉넉해졌다.

"우선 점심부터 먹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아직 정식 출근도 아니니 구내식당은 좀 그렇고 밖으로 다녀와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을 마친 그는 단장실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매니시는 믿을 수 없는 서류량에 책상 위를 훑어보다가 에이드의 책상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다. 책상의 주인과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연애 박사 되기 당신도 할 수 있다!', '연애의 기초, A부터 Z까지.'

사랑이 사람 가려가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지만, 매니시는 어쩐지 돌아온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단장실의 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열렸다.

“단장님.”

그녀에게는 다행히도 돌아온 에이드는 혼자가 아니었다.

매니시는 에이드를 따라 나온 워로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를 반겼다. 책 제목에서 오는 충격으로 인해 그를 두고 튀었던 이전 날은 기억에서 까맣게 잊힌 채였다.

에이드는 그런 이유로 제법 사이좋게 보이는 남녀의 어깨를 잡아 돌리고, 한 방향으로 밀며 통보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천천히 오십시오."

손을 흔드는 에이드를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문이 닫혔다.

어색하게 둘이 남은 워로드와 매니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곧 가장 가까운 식당을 선택해 마주 앉았다. 식당을 찾아 걸을 때나 메뉴를 선택하며 나눈 대화도 끝이 나자 테이블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찾아들었다.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다."

매니시는 최대한 천천히 씹고 최대한 느리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을 반영하듯 물잔은 비어 있었다.

차라리 처음 만나 심문당할 때의 분위기가 그리울 지경이었다. 몇 번의 만남 동안 이상한 모습만 보이던 그는 어쩐지 벽이 더 높아져 내내 경직된 모습만 보이고 있었다.

매니시의 입에서 한숨이라도 나올 찰나, 드디어 워로드의 입이 열렸다.

"취미가 뭐지?"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매니시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독서요. 단장님은요?"

대답을 들은 그의 얼굴이 조도를 한 단계 낮춘 듯 어두워졌다.

"마수 사냥. 좋아하는 음식은?"

"야시장에서 사 먹는 꼬치구이요. 드셔본 적 있으세요? 진짜 맛있는데."

이번에는 두 단계쯤 밝아진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대답했다.

"있다. 나도 좋아해."

발긋발긋한 워로드의 얼굴은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다. 포크를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후식을 기다리는 플럼이라든지?

매니시는 예의에는 맞지 않지만, 플럼과 있을 때 으레 그렇듯 풀어진 얼굴을 손에 괴고 대화를 이어 나갔다. 워로드 앞에 놓인 빈 접시가 말라붙을 때까지. 그들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였다.

"잘 먹었습니다. 본부 주방장 솜씨가 좋던데 내일부턴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니, 너랑 먹는 게 좋아."

매니시는 가끔 선수 같은 말을 뱉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학습효과란 것이 있었다. 일단 웃자. 매니시는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었다.

"방금 그 표정…, 나한테 반했나?"

"아뇨!"

그답지 않은 농담에 매니시는 눈을 끔벅였다. 그러나 그녀의 키가 작아 그를 올려다보는 탓일까, 매니시는 그의 처진 입꼬리가 눈에 밟혔다. 실망한 표정은 아닐 테고.

"단장님, 세수하고 탄력 크림 정도는 바르시죠?"

"…당연히."

안 바른다. 그는 돌아가자마자 에이드에게 그것의 정체를 묻고 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후식은 ‘페라’에서 먹지."

매니시는 급작스러운 화제 전환과 함께 발길을 돌린 워로드를 종종거리며 쫓아갔다.

"후식 아까 나왔잖아요. 왜요? 저번 사건 때문인가요?"

워로드는 유유자적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떠올렸다. 존중에 대해.

'존중이라,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존중은 모르겠고 전 우리 주방장님을 존경합니다!'

'밥…'

그런 의미에서 ‘페라’행은 수사단을 나설 때부터 워로드의 계획 속에 있었다. 술을 사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이제 내 사람이 됐으니 너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지. 놈은 귀족들 사이에서 유명한 마성구 상인이다. 일명 화이트럼. 네가 마신 술병이 놈을 부르는 신호였고 그 종업원이 눈이야."

그녀도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사실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 먼저 묻진 않았지만,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었다.

워로드는 귀엽게 눈을 반짝이는 매니시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 이어 말했다.

"놈을 놓친 건 뼈아프지만, '페라' 단주의 협조 덕분에 화이트럼의 고객 명단까진 입수했다. 그 덕에 에이드가 좀 바쁘지. 감시하고 찔러보고 털고, 뜯느라고."

"음, 어쩐지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하긴 구매자들도 다 범법자니까요. 그럼 그날 저 말고 오기로 했던 진짜 구매자도 알아냈나요?"

워로드의 손이 떠난 머리를 괜히 쓸며 매니시가 물었다.

"아아, 운이 좋았지. 며칠 있다 나타났는데 우리 잠복조에 걸렸다. 2급짜린 정보를 흐리기 위한 주문이었고, 진짜 원한 건 3급.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추적용 마도구를 연구 중이라더군."

"집 나간 아들?"

언젠가 들은 듯 낯설지 않은 느낌에 매니시가 되물었다. 워로드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다.

"불량 신관."

"아, 이콜로지 신관님!"

워로드는 만날 때마다 그에게 연애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불량 신관을 떠올렸다. 그에게 전수받은 것은 톡톡히 써먹고 있었지만, '님'자를 붙이기에는 꺼림칙한 남자였다.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미간을 찌푸린 워로드는 무의식중에 이콜로지의 기술을 또 한 번 써먹으며 입을 열었다.

"파르두스 후작가의 외동아들이 가출해서 신관이 됐다는 얘기가 새어 나가면 곤란하니까, 연구가 꽤 진행됐던 모양인데 우리한테 걸려버린 거지."

그들을 스쳐 지나간 마차의 뒤로 흙먼지가 일어났다.

평소 같았으면 멀찍이 물러났을 테지만, 매니시는 그럴 수 없었다. 어깨에 둘린 단단한 남자의 팔 때문이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매니시는 그저 앞만 바라보며 대화를 연결해줄 말을 그럴듯하게 내뱉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거래를 한 거다. 어차피 후작의 목적은 아들이니까. 비밀리에 찾을 수만 있다면 무산된 연구를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지. 대신 우리는 어마어마한 벌금과 화이트럼에 대한 정보를 챙겼다."

앞만 보고 가는 매니시는 몰랐지만, 워로드의 시선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나름 매니시의 눈치를 보는 중이었다. 마차가 지나갔으니 팔을 내리긴 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 문제였다. 그녀도 아무렇지 않아 하니 이대로 조금 더...

"정보요?"

매니시가 고개를 워로드 쪽으로 돌리며 자연스럽게 한 걸음 멀어지자 그의 팔은 쉽게 떨어져 나갔다.

"우선 놈의 지팡이, 늘 가지고 다니는 거라던데 마차에 났던 불은 그것 때문인 것 같다. 흔한 물건은 아니니 추적해 봐야지. 그리고 놈이 진짜배기를 거래하는 날은 항상 개조한 장신구를 이용해 몸에서 떨어트리지 않는다는군."

"그럼 그 2급 마성구의 케이스는,"

"펜던트나 브로치로 추정하고 있다."

그 순간 매니시의 머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브로치! 그 남자, 브로치를 하고 있었는데 마차에선 브로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꺼내 든 케이스, 사라진 브로치, 마성구는 분명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꼼꼼히 기억을 살펴도 그의 브로치가 언제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랬군. 잘했다. 정보가 하나 늘었어."

워로드는 만족한 얼굴이었다. 동시에 그가 얼굴에 띤 미소는 그동안 그가 보여준 어떤 미소보다 깊고 부드러워서, 이후 매니시의 머릿속에서 브로치에 대한 생각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곧 ‘페라’에 도착했다.

"그럼 오늘은 수사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감시?"

이제는 익숙한 복도를 지나며 매니시가 워로드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작은 속삭임은 선뜩한 기습이었다. 그는 이미 점령된 땅 위에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여인에게 떨리는 제 몸이 들키지 않길 바랐다. 오늘만큼은 ‘페라’의 침침한 조명이 더없이 고마운 그였다.

"지켜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한잔하지."

칵테일 두 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워로드는 매니시에게 네이브의 존재와 액자의 비밀에 대해 알렸다. 보고를 듣고 잠복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오늘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도.

매니시는 그제야 페니가 말했던 협조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과연 저런 신기한 기능이라면 황녀의 행차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건너편의 흔적을 찾는 듯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매니시를 워로드는 마음껏 감상했다. 주문한 칵테일이 나올 때까지, 마음껏.

"오늘은 단장님이랑 같이 왔네?"

잔을 기울이던 매니시에게 말을 건 사람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페니였다.

"응. 한 잔 마시자더니 저러고 사라져버렸지만."

맥 빠진 음성으로 가리킨 것은 워로드의 자리에 놓인 빈 잔이었다.

매니시는 주문한 칵테일이 나오자마자 잔을 부딪칠 새도 없이 입으로 가져간 워로드를 떠올렸다. 그 시원한 목 넘김은 길게 이어지지도 못하고 잔을 비워버렸다.

방문의 주목적이 상황파악인 것은 알지만, 매니시로서는 서운한 마음이 안 들 수 없었다. 한숨 섞인 매니시의 말에도 페니의 음성은 밝았다.

"도대체 언제부터 같이 술 마시는 사이까지 된 거야?"

"이게 어디가 같이야. 혼자 먹는 거 안 보여?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난 확실하지 않은 건 딱 질색인데."

한숨을 내쉰 매니시가 털퍼덕 소파에 파묻혔다. 등받이에 기대 바라본 천장은 마법이 내는 빛과 샹들리에의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복잡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머릿속처럼.

그의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게다가 그 잘생긴 얼굴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돌덩이가 아닌 이상 설레기 마련. 그러나 매니시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미 가슴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조심, 또 조심 중이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착각하고 기대하고, 또 혼자 남겨지긴 정말이지 싫었으니까.

"좀 난해한 상대긴 하지. 모르는 거 있으면 종종 이 언니한테 물어봐."

페니는 다리를 척 꼬고 팔을 등받이에 걸쳐 한껏 거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매력적인 그녀를 보자면 신용이 가는 말이었지만, 매니시의 눈은 불신으로 좁아지고 있었다.

"됐네요. 또 무슨 오지랖을 부리시려고."

황녀에게 넘어간 원고가 페니의 수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황당했었던가. 그를 떠올린 매니시는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어머,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그게 얼마나 힘들 게 구한 건지 알아?"

말하면서 소파 끝 쪽으로 몸을 기울인 페니의 머리칼이 우수수 쏟아졌다.

평소라면 윤기 도는 어깨가 반짝 드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홀렸을 그녀가 웬일로 어깨를 덮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페니의 노출도는 매니시와 처음 만났을 때와 거의 같아져 있었다.

몸을 다시 일으킨 페니의 손에는 부채가 들려있었다. 그녀가 한 번 손을 털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부채가 펼쳐졌다.

매니시는 연극을 막 끝낸 배우들이 어떻게 부채를 흔들 수 있었는지 깨달았다.

"와, 그걸 숨겨둔 거야? 어디?"

도도한 얼굴로 부채를 살랑이던 페니는 부채를 접더니 인격이 변한 것처럼 소파에 늘어졌다. 부채 끝으로 목덜미를 긁적이던 그녀가 대답했다.

"소파 밑에. 가장자리마다 다 붙어있어."

무척 뿌듯한 얼굴의 페니 옆으로 매니시가 처음 앉았던 테이블이 눈에 띄었다. 비슷한 가구들 사이에서도 유독 거슬려서, 오늘은 의식적으로 피해 앉은 탓이었다. 머리가 생각해낸 회피라고 해봐야 바로 옆 테이블이었지만.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바로 한 매니시는 유리잔에 담긴 푸른 음료를 보고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화이트럼이 처박혔던 어떤 여인의 하늘빛 치맛자락, 그 여인이 앉아있던 소파가 바로 지금 그녀가 앉은 자리라는 것.

뇌리를 스치는 어떤 예감과 기묘한 흥분 가운데 매니시는 막 홀에 들어선 워로드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에게 향하는 그 곧은 시선은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매니시는 곧바로 소파 앞에 주저앉아 엎드렸다.

"뭐해?"

그녀의 돌발 행동에 페니가 물었지만, 매니시는 대답 없이 기어들어 갈 듯 소파 밑을 향할 뿐이었다. 그때, 소파 밑을 휘적이던 매니시의 손끝에 무언가 닿았다.

그것은 소파 밑면에 붙어있다가 매니시와 충돌하자 바닥으로 떨어졌다. 매니시는 이내 그것을 쥐고 일어났다.

"무슨 일이지?"

어느새 다가온 워로드가 걱정스레 물었다. 손 안에 느껴지는 차갑고 매끄러운 보석의 감촉, 확신에 찬 매니시의 심장은 그의 걱정이 타당할 정도로 뛰고 있었다.

고동 소리가 일궈낸 축제의 한가운데서 매니시가 대답했다.

"반지를 떨어트려서요."

간신히 웃으며 맞붙인 엄지와 검지까지 들어 보이니 제법 그럴듯했다.

그녀는 빈 손가락을 들키기 전에 재빨리 워로드 품에 안겨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손에 쥔 것을 그의 목덜미에 대기 위해서였다.

보석의 둥근 부분을 그의 목덜미에 댄 매니시가 가슴팍에 대고 속삭였다.

"브로치예요."

화이트럼이 이걸 여기에 두고 갔다면 절대 ‘페라’를 포기할 리 없었다. 잠복은 계속돼야 했다.

그 순간 매니시의 머릿속은 이미 있을지 모를 적의 시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평안을 가장한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워로드는 목덜미에 닿은 브로치보다도 차가운 그 손에서 그녀의 긴장을 알아챘다.

곧 그의 따뜻한 손이 매니시의 등을 감싸왔다. 그의 온기는 긴장과 흥분으로 터질 듯이 뛰던 심장을 제 속도로 돌려놓았다.

"세상에, 매니시 너 알아서 잘하는구나. 근데 계속 그렇게 있어도 되니?"

페니는 온통 그들을 주목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매니시의 잔을 들었다. 좋은 풍경을 감상할 땐 응당 좋은 술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으니까.

워로드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매니시는 평생 모를 일이었지만, 워로드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가릴 것 하나 없이 보이고 있었다.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는 페니를 비롯한 홀 안의 모든 손님에게.

페니의 말에 정신을 차린 매니시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을 때 처음 본 것은 경악에 치켜뜬 눈이었다.

여인들의 부채질이 빨라지고 귓속말을 하는 듯 가깝게 붙어선 사람들이 보였다. 시선은 모두 매니시와 워로드를 향한 채였다. 매니시는 쏟아지는 시선들에 당황해 그를 볼 정신이 없었다.

"일단… 나가지."

워로드는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듯이 꼭 끌어안고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실상은 형편없이 달아올랐을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페니는 한 몸처럼 붙어 인사도 없이 나가는 그들에게 닿지 않을 말을 하며 손을 흔들었다.

"이런, 서로 코 꿰여버렸네."

사교계의 소문은 그만큼 빨랐다.

"그래서 지금 온 겁니까?"

서류를 든 에이드가 싸늘한 얼굴로 다그쳤다. 그러나 브로치를 손에 쥔 매니시의 얼굴은 당당했다.

"아직 더 있어요. 갔다가 이걸 찾아왔다고요."

손에 든 걸 내민 매니시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 순간 사람들의 경악 서린 눈빛이 떠올랐지만, 출근 첫날 이룬 커다란 한 걸음에 비하면 그 정도 사건은 별 의미도 아니었다.

라고 워로드와 마주친 시선을 비끼며 매니시는 생각했다.

"그게 뭡니까."

매니시의 손에 올려진 것은 커다란 흑진주를 백금 꽃잎이 둘러싼 모양의 브로치였다. 그것을 본 에이드에게선 어떤 열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에 매니시는 입술을 모으고 어둠 속에서 화이트럼의 손이 움직였던 방향을 떠올렸다.

매니시가 동그란 진주를 비틀자 에이드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대로 브로치가 입을 벌렸냐 하면 그는 아니었다. 브로치는 아무 변화 없이 여전히 값진 자태로 빛나고 있었다.

당황한 매니시의 입이 벌어지고 옆에선 에이드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비틀고 누르고 당기고, 별의별 시도가 다 이어졌지만, 브로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매니시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워로드를 찾아갔다.

"화이트럼이 그날 저한테 보여준 2급 마성구요. 틀림없이 그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놓고 낑낑거리는 매니시를 감상하던 워로드는 불시에 받은 시선에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의의 몸짓이 마음에 든 매니시는 마지막으로 브로치를 귓가에 대고 흔들었다.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워로드는 실망한 얼굴의 매니시에게서 브로치를 넘겨받았다.

"어디서 찾은 겁니까?"

화이트럼의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 적극적으로 된 에이드가 물었다.

"화이트럼이 처박혔던 소파 밑면에 달려있었어요. 그때 여자분 드레스 밑에 반쯤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충분히 숨길 수 있었잖아요."

그때였다.

"열렸다."

덤덤한 목소리의 주인은 워로드였다. 매니시의 고개가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냉철한 에이드의 질문도 이어졌다.

"마성구가 있습니까?"

그러나 워로드는 에이드를 본체만체하며 브로치를 건네고 궁금해할 매니시에게 얘기했다.

"그냥 옆으로 슬쩍 미니까 열리던데?"

그 말에 브로치를 본 에이드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손에 놓인 브로치는 뚜껑이 덜렁덜렁해서 금방이라도 분리될 듯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든 마성구였으니 그는 그 부분을 굳이 꼬집지 않았다. 그저 제 앞에서 내숭을 부리는 단장을 가증스럽게 흘길 뿐이었다. 에이드와 눈이 마주친 워로드는 초점을 최대한 멀리 잡아 시선을 피했다.

"이음새를 보니 눌러서 돌리는 구조였군요. 브로치는 고쳐서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놈들이 이걸 놓칠 리 없으니 아마 좋은 미끼가 될 겁니다. 일단, 이 마성구부터 증거물 보관실에 좀..."

마성구에서 눈을 뗀 에이드가 고개를 들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한 명, 그 신입밖에 모르는 상관 한 명이 보였다. 말을 흐린 그의 입에선 오늘만 몇 번째일지 모를 한숨이 나왔다.

"하아, 놀고 있지 말고 서류 보는 법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게 에이드의 덧없는 말이 있고 며칠, 수사단 내에서 매니시의 자리는 이렇게 고정되고 말았다.

"아하,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돈이 많았군요?"

"그래. 영악한 자야."

언젠가 진술서를 작성했던 자리에 앉은 매니시는 워로드의 서류를 함께 보며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워로드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지고 검토가 끝난 그가 서명을 하면 대화의 주제도 옮겨갔다.

비록 세세한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매니시였지만, 이런 식으로 지난 며칠간 워로드의 업무량은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에이드의 입꼬리도 내려올 줄 몰랐다.

워로드는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서명이 끝난 서류를 정리하는 매니시의 옆얼굴을 관찰하고 있었다. 매니시는 그를 알면서도 끝끝내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오늘 점심은 뭘 먹고 싶나?"

"글쎄요. 이 근방은 대부분 돌아봐서 딱히 당기는 게 없는데. 단장님은요?"

"그럼 오늘은 ‘페라’로 갈까? 가서 보고받고 바로 퇴근하지. 점심 먹고 연극도 한 편 보면 좋고."

워로드의 제안은 자연스러운 자세와 달리 보고서라도 읽는 투로 이어졌다.

그의 딱딱한 제안은 데이트 신청에 가까웠다. 그래서일까, 매니시는 평소와 달리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질질 끌기 싫어하는 그녀답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마침내 생각을 끝낸 매니시가 외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이 호선을 그렸다.

그 미소엔 솔직하게도 안도가 섞여 있어 그녀도 설핏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설익은 미소를 머금은 매니시는 바랐다. 이 데이트가 끝난 후에는 고통이든 환희든,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 좀 더 선명해지길.

“가요.”

자리를 마무리한 두 사람은 최근 들어 향상 얼굴이 밝은 에이드의 배웅까지 받아가며 사무실을 나섰다. 문을 나서자마자 식당 쪽에서 다가오는 익숙한 기척을 워로드는 알아챘지만, 굳이 아는 척하지 않고 돌아섰다.

"여어, 그림 좋다?"

그러나 그쪽은 아니었다. 몇 걸음 못 간 그들의 뒤에서 길거리 시정잡배나 할 법한 대사가 들려왔다. 그는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짧은 망토는 스카프처럼 둘둘 말아 목덜미에 끼워 넣은 채였다.

"이콜로지 신관님?"

눈이 동그래진 매니시가 워로드를 쳐다보는 사이 이콜로지는 허공에서 머리 쓰다듬는 시늉을 하며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워로드는 매니시가 볼까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감싸 걸음을 내디뎠다.

"가지."

"저분이 왜 아직도 여깄어요?"

매니시는 순순히 이끌리면서도 고개를 돌려 이콜로지에게 마주 손을 흔들어주었다.

"집에 가기 싫다고 눌러앉았어."

"그래도 돼요?"

"알아서들 하겠지."

가벼운 어조와 다르게 그의 표정은 모호했다.

"어쨌든 노는 입 먹여주고 재워준 값은 따로 청구할 거야."

어깨에 있던 워로드의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매니시는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다른 화제를 꺼내 들었다.

"노는 입이라고 하시니까 저 조금 찔리는 것 같아요. 저 언제까지 단장님 보조해요? 저야 배우는 게 많으니 좋은데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날로 먹다니, 에이드가 좋아하는 거 못 봤나? 작업 속도도 조금. 올랐고."

사실 조금이라고 할 만한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워로드는 뻔뻔하게 말했다. 매니시의 앞에서 그의 근무 태만에 관해 설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프릴 경은 언제 돌아오세요?"

"한동안은 못 볼 거다. 추적은 그 녀석이 제격이니까."

워로드의 몸은 어느새 매니시 쪽으로 완전히 틀어져 그는 옆으로 걷다시피 하고 있었다.

"어떤 분인데요? 제가 잘 보필할 수 있을까요?"

"보필? 왜?"

"저 그분 시종으로 들어왔잖아요."

매니시가 황제와 있었던 대화를 알리자 워로드는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뭐, 돌아와도 일은 달라지지 않아. 녀석은 시중들어주는 걸 귀찮아하니까. 밥이나 제때 챙겨주면 아무 불만 없을 거다."

"그래도 폐하께서 명하신 일인데 그렇게 맘대로 해도 될까요?"

"상이라며, 폐하께서 내리신."

그의 커다란 손이 매니시의 머리를 덮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어떤 무게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투박한 손은 비누 거품이라도 만지듯 덜덜 떨면서 머리의 윤곽만 겨우 스치고 지나갔다.

"넌 네게 도움 되는 일만 하면 돼."

그 눈빛은 그녀가 지금껏 경험한 어떤 눈빛보다도 다정해서 도저히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매니시의 속에서 들불처럼 무섭게 달콤한 의혹 하나가 싹텄다.

혹시 그에 대해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는 모를 전우애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의 서툰 마음이 향한 사람은... 매니시의 벽은 꼭대기부터 허물어지고 있었다.

"단장님도. 머리 쓸어도 돼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매니시가 흘리듯 말하자 워로드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매니시가 힘줄 선 그의 손등에 의아할 찰나, 그의 대답이 들려왔다.

"머리 예쁘니까, 다음에."

워로드는 고개 숙인 매니시의 입가가 설핏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후작에게 보낼 청구서에서 불량 신관의 밥값 정도는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착한 ‘페라’는 어딘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분위기가 뭔가 다르지 않아요?"

두리번거리는 매니시의 옆에서 워로드의 표정도 진지해졌다.

"그렇군. 보고부터 받으러 가야겠다. 문에서 가깝게 앉아있어."

그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인 매니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테이블을 지나쳐 자리에 앉았다. 워로드는 매니시가 앉은 자리를 확인하자마자 쪽문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매니시를 접객하기 위해 다가온 사람은 평소와 달리 '페라'의 인기 배우 코이였다.

"오랜만, 오늘은 페니가 붙잡혀 있어서."

자리에 앉은 그녀가 턱짓으로 한 쪽을 가리켰다. 턱짓을 따라간 곳엔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페니가 있었다. 낯설 만큼 얌전하게 웃는 페니에게서 시선을 떼고 매니시가 물었다.

"극단에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걸 무슨 일이라고 해야 하나, 평상시라고 해야 하나. 잘 봐봐. 가면을 안 써서 헷갈리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모두 검은 부채를 들고 있어."

여인들을 가리키는 코이의 손에도 검은 부채가 들려 있었다. 매니시는 그제야 페니가 소파 아래서 꺼내 들곤 했던 부채가 모두 검은색이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또 하나, 홀 안의 여인들이 모두 검은색 부채를 들고 있는 이유도.

"여자 손님들이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 요즘은 하루에 두어 명 올까 말까? 황녀님 화력이 떨어지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태연한 말투였지만 '페라'의 모두가 황녀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기꺼워했는지 아는 매니시는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자신의 기색을 살피는 매니시를 느낀 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신경 쓰지 마.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니까."

코이의 작은 목소리는 그녀가 자리를 뜬지 한참이 되도록 매니시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 음성은 자리로 돌아온 워로드가 그녀의 곁에 앉았을 때에서야 사라졌다.

"요즘 수상한 놈 몇이 드나들긴 했다는데, 놈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모양이야."

"그러고 보니 최근 ‘페라’의 성황은 황녀님 덕이 크니까 그들의 예상에 없었을 거예요. 다시 손님이 줄어들길 기다렸나 봐요."

어느 여인의 손에 들린 검은 부채를 응시한 채 매니시가 말했다. 워로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홀을 쓱 훑었다. 확신에 찬 말투로 그가 덧붙였다.

"아마 곧."

홀을 훑은 눈이 다시 매니시에게로 돌아오기 전, 한참 전부터 그를 바라보고 있은 듯한 남자와 워로드의 눈이 마주쳤다.

마른 체구의 귀족이었다.

그는 워로드와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쭈뼛쭈뼛 다가오기 시작했다. 짧은 사이에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머리를 넘긴 남자는 긴장한 얼굴로 워로드의 앞에 섰다.

"오랜만입니다, 백작 각하."

그는 전혀 귀족답지 않게 허리를 푹 숙여 인사한 다음에야 바지에 닦은 손을 내밀었다. 워로드는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곱씹으며 그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러나 과거의 접점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그 의아함이 눈에 떠올랐는지 남자는 워로드와 맞잡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가 놓으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바이올런스 코로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하와 같은 전장에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짧지만 단번에 이해가 가는 소개였다. 워로드와 그런 식으로 인연이 닿은 남자들은 아주, 아주 많았다. 물론 그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아아, 반갑네. 바이올런스 경."

"이런 곳에서 다시 뵐 줄이야. 제가 운이 좋군요."

어느 정도 긴장이 걷힌 바이올런스는 이 우연한 만남이 즐거운 듯 연신 싱글벙글했다. 순간 매니시와 시선이 마주친 그는 이제 능청스럽게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가 방해하고 말았군요. 성함이?"

유려한 말솜씨와 함께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 위에 제 손을 얹은 매니시가 대답했다.

"매니시 레우카스라고 해요."

일순 굳어진 그의 얼굴은 매니시와 워로드에게 또렷이 보였다. 그에 맞춰 워로드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매니시는 여전히 태연했다.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후 닿기 싫다는 듯 손등을 살짝 비켜 간 그의 입술은 매니시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다. 매니시는 그 순간 바이올런스의 무례한 입술보다도 찰나에 마주친 워로드의 눈으로부터 더 도망치고 싶었다.

"볼일 끝났으면 가."

워로드는 전쟁터에서나 보이던 사나운 얼굴로 남자에게 명령했다. 바이올런스는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을 훑어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승전 2주년 파티 때, 다시 뵙겠습니다."

다가올 때와 달리 돌아선 그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게 제 탓인 것만 같아 매니시는 워로드를 볼 면목이 없었다. 혼자서는 곧게만 서던 그녀의 고개가 그의 앞에선 자꾸만 고꾸라졌다.

워로드는 매니시의 악문 입술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베일 것 같던 조금 전과 달리 부드러운 어조였다.

"매니시."

온기가 닿았다. 그녀의 손을 덮은 그의 손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린 동물을 끌어안은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서부터 물들어갔다.

처음으로 그가 불러준 이름은 그랬다.

워로드는 잡고 있는 손을 통해 매니시의 동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그만큼 빠르게 뛰었다. 그는 그 사랑스러운 박동 위로 입술을 얹고 눈을 감았다. 가냘픈 꽃향기가 그의 머리를 헤집었다.

"매니시."

두 사람은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매니시의 손등에서 힘겹게 입술을 뗀 워로드가 입을 연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감싼 여운은 그의 입을 더디게 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을 쓰는 느낌으로 서툴게 말을 꺼냈다.

"내 파트너가 되어 줘. 이번 파티에서."

술이라도 마신 것처럼 어눌한 말투, 내용은 늦어도 한참 늦은 질문이었다. 파티까진 얼마 남지 않았고, 매니시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참석하기로 얘기를 끝낸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모든 결정이 흐려졌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강한 사내가 두려운 눈을 하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같이 가요."

내려앉은 하얀 속눈썹이 그녀의 발긋해진 뺨을 더욱 돋보였다. 워로드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발 정도는 들어섰다고.

그리고, 승전 2주년 기념 파티 당일. 축제의 열기는 황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한 번 봤다고 했으니 믿어도 되겠지? 그 여자 잘 잡고 있어."

금사로 짠 올록볼록한 무늬의 드레스는 스치기만 해도 피부를 모두 벗겨놓을 듯 흉흉했다. 그러나 글램의 육감적인 몸매는 그마저도 매력으로 느껴질 듯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네."

바이올런스가 대답했다. 그의 마른 몸은 글램의 굴곡과 부드러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곧 구겨진 얼굴을 환하게 핀 글램과 바이올런스가 연회장의 입구로 들어섰다.

계단을 따라 이어진 붉은 융단 끝을 밟고 서자 수천 개의 초와 마법등, 아름다운 음률이 발하는 환락의 세계가 나타났다. 온갖 귀한 소재와 다채로운 색감의 드레스, 최고급 깃털, 가죽, 시기와 욕망이 뒤섞인 소용돌이의 중심에 매니시와 워로드도 서 있었다.

글램과 바이올런스는 그 점잖은 소란 가운데서 그들을 발견했다. 홀 기둥 근처, 사실 구석이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모두의 시선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여우 같은 년."

짓씹듯 내뱉은 글램은 뾰족한 구두 굽을 성큼 내디뎠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또각거리는 소리가 저들에게 간 시선을 끌어모았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워로드에 대한 글램의 집착은 유명했기 때문에 흥미에 젖은 시선들이 모여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평소와 달리 멀찍이 떨어져 그를 둘러싼 인파는 더 쉬이 길을 터줬다.

"백작님."

글램은 은근한 미소를 띠고 워로드의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은밀하게 먹이의 몸을 휘감는 촉수처럼 그에게 찰싹 붙어 팔뚝을 타고 올라갔다.

"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폐하의 명이라지만, 그렇게 갑자기 영지를 비우시는 게 어딨어요?"

그의 팔을 붙잡은 글램과 매니시의 시선이 마주쳤다. 글램은 큰 키를 이용해 눈을 내리뜨고 말을 이었다.

"함께 왔으면 좋았을걸."

솔직히 말하자면 매니시는 그때까지도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분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은 다음 순간부터였다.

"글램."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다정하게 들리는 이름자였다. 하얀 속눈썹 아래 감춰진 매니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처럼 하얀 글램의 뒷머리가 시야를 가리고 워로드와 마주 서 있었다.

매니시는 키가 큰 그녀의 위로 워로드의 검은 머리칼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그 색의 조화가 저와 다름없으면서도 퍽 잘 어울려 매니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이가 살갑게 말을 붙여왔다.

"영애, 지난번엔 실례가 많았습니다."

바이올런스였다. 그는 매니시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서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그의 뒤늦은 호의가 반갑지 않았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대답과 동시에 매니시의 시선은 다시 워로드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하얀 뒤통수 뒤에 숨어 이쪽은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 그에게 저를 돌봐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이올런스의 접근에도 신경 쓰지 않는 그가 야속했다.

매니시는 아끼는 파란 드레스의 치마를 움켜쥐고 뒤돌아 걸었다.

"생각보다 거침없는 분이셨군요. 억지로는 아니었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바이올런스는 옆에서 그녀와 같은 속도로 걸으며 끝없이 말을 걸었다. 그는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매니시는 화장으로 끈적해진 입술이 영영 붙어버린 사람처럼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신문을 펴들고 앉아있을 거실의 소파가 그리웠다. 그녀가 지금 느끼는 썰렁함도 플럼을 끌어안고 뒹굴면 아무것도 아닐 테였다.

"글램 영애는 백작님과 떨어져 있는 게 익숙지 않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녀가 무시로 일관하자 바이올런스는 더는 무시할 수 없는 화제를 던졌다. 연회장을 벗어난 매니시의 걸음이 멈췄다. 마주한 그의 눈빛은 진중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루푸스 영지와 마리티무스 영지는 많이 가까우니까요."

물론 매니시도 잘 알았다. 루푸스 영지와 맞닿은 지금의 마리티무스 끄트머리는 바로 레우카스의 영지였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언젠가 워로드가 말했던 그의 마음을 어지럽힌 여자가 바로 글램 마리티무스, 그녀일 가능성에 대해서.

"왜 제게 그런 얘길 하죠?"

"아가씨가 레우카스니까요.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맹세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이름이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당황했을 뿐이죠."

"왜요? 그게 당신한테 어떤 의미라고?"

매니시는 공격적인 어조로 따져 물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전쟁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레우카스 자작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사적으로는 자작 부인께서 돌아가신 제 모친과 친교를 나누셨고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힌 매니시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가 말을 덧붙였다.

"이 정도면 제 실수가 용서될까요?"

곧게 마주쳐오는 가라앉은 눈빛에 매니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둘만 서 있던 복도에 짧은 침묵이 스쳐 갔다.

정적을 깰 겸 그녀는 내심 궁금했던 질문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어떤 남녀의 친분에 대해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죠?"

"아가씨가 다치는 게 싫으니까요."

그 진심 섞인 대답은 마냥 고마워하기엔 너무 불길한 내용을 품고 있었다.

매니시는 결국 진짜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그 두 분이 그렇게 친한가요?"

내가 상처 입을 만큼? 차마 못 한 말은 가슴속에 묻고 그를 바라봤다. 짧은 시간 매니시는 극렬한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입이 열려 이 두려움이 별것 아닌 보푸라기에 불과했다고 판명 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당장이라도 뒤돌아 도망가고 싶었다. 그의 입이 열리기 전에.

그가 꾸물거릴수록 저울은 도망간다는 선택지로 기울었다. 매니시의 저울이 급격히 기운 순간, 그의 대답이 떨어졌다. 빈틈없이 딱 떨어지는 단호한 대답이었다.

"친하다마다요. 백작님같이 능력 있는 남자가 아직 정혼자도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별거 없는 대답에 매니시는 저 혼자 선득함을 느꼈다. 그러나 매니시는 그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빼죽 나온 입으로 태연함을 가장한 그녀가 대답했다.

"연애를 할 줄 몰라서 그렇나 보죠."

그 불퉁한 대답에 바이올런스에게서 유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두 사람밖에 없는 차가운 복도에 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왔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사실 그 두 사람이 무슨 사이는 못 되니까요."

그가 여태 하던 말과 전혀 다른 소리였다. 바이올런스는 의문으로 올라간 매니시의 눈썹을 보며 마저 말했다.

"글램 영애가 워낙에 쫓아다니시니 친분은 두터운 편이지만, 그게 연애는 아니죠."

"이랬다저랬다 지금 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매니시가 놀아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따질 때 그는 그녀의 뒤를 힐끗 보고는 난처하게 웃었다.

"아가씨를 여기 붙들어놓는 중이죠. 글램 영애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럼 여태 한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도, 충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번 매니시의 뒤를 힐끗 본 그가 좀 더 다가가 속삭였다.

"둘 사이에 장애물이 정말 글램 영애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작님의 본가 모나쿠스 공작가는 귀족 중의 귀족이랄 수 있는 가문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귀족들은 함부로 넘볼 수도 없는 철옹성."

순간 매니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는 매니시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그녀의 손을 받쳐 들고 되새겼다.

"글램 영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녀는 좀 철이 없을 뿐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정말 무섭고 나쁜 사람들을 당신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충고예요."

말을 마친 그의 입술은 이번에야말로 매니시의 손등에 와 닿았다.

"영애!"

그의 입술이 떨어지기 무섭게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저를 부르는 소리라고 매니시가 확신한 이유는 그것이 황녀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황녀 전하?"

급하게 바이올런스에게 잡힌 손을 회수한 매니시가 뒤돌아보며 외쳤다. 생각보다 크게 나온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당황한 매니시는 그 울림 속에 멀어지는 발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로망은 가늘게 뜬 눈으로 그녀의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남자 같았는데."

매니시는 그제야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은 저를 발견했다. 그가 조성하던 묘한 기류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채였다.

그 사실을 인지하자 경직돼 있던 매니시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이내 기운 빠진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글램."

워로드는 제게 다가온 이웃 영애를 바라봤다. 마리티무스 후작과는 자주 마주치는 사이기 때문에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백작님."

그가 부를 때마다 환히 웃으며 대답하는 글램은 매니시와 같은 하얀 머리였지만 그녀보다 로망과 닮은 구석이 많았다. 그가 없는 곳에서 종종 철없는 짓을 한다는 점까지도.

그래서 그는 글램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도대체 그런 옷은 어디서 나는 거지?"

그의 찌푸려진 미간에 글램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왜요? 너무 야한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꼭 금 수세미 같군. 이상해."

그의 말에 그림 같은 글램의 얼굴에 금이 갔다. 그러나 워로드의 시선은 이미 매니시에게 돌아간 후였기 때문에 그는 그마저도 알지 못했다.

그는 막 뒤돌아 나가는 매니시와 그 뒤를 쫓는 바이올런스를 발견한 참이었다. 글램이 붙잡은 팔을 빼낸 워로드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매니시?"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고 하자 그새 그림 같은 얼굴을 되찾은 글램이 그의 팔을 다시 붙잡았다.

"그냥 두세요. 바이올런스 경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나 그는 글램의 말에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얼마 전 바이올런스가 매니시에게 보인 무례한 태도를 생각하자 그의 걱정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떨궈도 다시 달라붙는 글램의 손을 포기하고, 그녀를 매단 채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글램의 마음도 다급해졌다.

"그가 영애에게 실수한 게 있어서 사과할 모양이던데, 그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빼앗을 생각인가요?"

"사과?"

그의 반응이 돌아오자 한시름 놓은 글램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요. 연애에 서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도 생기는 법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바이올런스 경은 매니시 영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외모나 환경도 그렇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부러 호들갑스럽게 말을 마친 글램은 그의 눈치를 살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있을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백작님!"

워로드는 뒤에서 들리는 간절한 외침을 무시한 채 연회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귀족들도 어쩐 일인지 파도가 갈라지듯 그를 피해 멀어졌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오라버니?"

"바쁘니까 나중에."

사촌 동생 로망마저도 그의 발길을 붙잡을 순 없었다. 그러나 씩씩한 숙녀 로망은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치는 워로드를 그대로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를 따라 달렸다.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뭐."

"그래, 그거야 원래 더럽다 치고. 우리 작가님은?"

그 순간 워로드의 표정이 한층 험악해졌다.

"잠깐! 둘이 싸웠어? 지금 싸우러 가는 거야?"

"아니야!"

"그럼 좀 멈춰봐. 오라버니 얼굴 보면 무서워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겠다!"

그가 멈칫한 사이 로망은 대차게 제 몸을 내던졌다. 워로드의 앞으로.

"로망!"

"…아, 아슬아슬했다."

로망은 워로드의 튼실한 팔뚝에 빨래처럼 걸려 바닥을 구경 중이었다. 워로드는 그녀를 제대로 세워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는데?"

"오라버니가 너무 흥분해서 일을 망칠까 봐 그러지.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오라버닌 연회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볼 테니까. 작가님은 이쪽에 있는 거지?"

"네가 왜."

복도 저편을 가리키는 로망의 손가락을 친절하게 접어준 워로드가 불만스레 대답했다. 로망은 그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듬직하게 읊조렸다.

"내 새언니는 내가 지켜. 언니 데리고 아버지 만나서 수사단 비공개 임명식까지 마치고 올 거니까, 걱정 말고 얌전히 기다려?"

응? 으응? 거듭되는 물음에 워로드의 고개가 마지못해 위아래로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 확신할 순 없었지만, 로망은 구태여 다시 확인하진 않았다.

"혹시라도..."

"응?"

"혹시라도 아직까지 같이 있는 놈이 있으면."

"있으면?"

"들이받아라. 방금 나한테 그런 것처럼."

로망의 고개가 비장하게 끄덕였다.

본의 아니게 그녀를 배웅한 꼴이 된 워로드는 퇴장할 때와 다르게 조용히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목을 축이던 그는 연회장을 떠도는 저와 관련된 온갖 소문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와 글램을 엮은 말도 안 되는 소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와 매니시에 대한 소문들이었다. 워로드의 입가에 만족의 미소가 어릴 찰나, 그에게 접근하는 발소리가 있었다.

"워로드."

팔짱을 끼고 나타난 중년의 부부는 워로드의 부모, 선대 모나쿠스 공작 부부였다.

들고 있던 잔을 한 번에 털어 넣은 워로드는 지나가는 시종의 쟁반 위에 빈 잔을 올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들 사이에는 가족이라고 믿기 힘든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무뚝뚝한 남자들은 절대 먼저 입을 열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모나쿠스 부인이 대화를 이끌었다.

"같이 온 아가씨가 안 보이는구나?"

모나쿠스 부인은 황가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금발을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틀어 올린 채였다. 그녀가 매니시를 찾아 두리번거릴 때마다 머리띠처럼 얹힌 빛의 고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녀 제 윤기를 뽐냈다.

"예. 아마 폐하를 뵙고 있을 겁니다."

"폐하를?"

모나쿠스 부인은 설령 혼잣말이라 하더라도 제 남동생을 편하게 부르는 법이 없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워로드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같이 가주지 않고."

모나쿠스 전 공작이 모처럼 한마디를 얹었다. 그는 워로드도 바라는 바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저절로 불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로망이 따라갔습니다. 그 애가 매니시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의 불퉁한 목소리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부터 흔들리더니, 곧 깨져버렸다. 이내 그의 입가는 잔잔한 미소까지 머금었다.

그를 본 모나쿠스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아가씨랑은 무슨 사이니?"

그는 연회장에서 아들의 입장을 지켜봤을 때부터 품어왔던 궁금증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귀를 닫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부부도 요즘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아들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웬 여자와 껴안고 맞대고, 연애에 푹 빠졌다는 아들의 소문은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빨갛게 익었는지까지 빠뜨리지 않고 전해졌다. 오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끝끝내 믿지 못했을 이야기였다.

궁금한 게 많은 모나쿠스 부부는 아들의 대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워로드는 잠깐 사이 입이 붙기라도 한 것인지 묵묵부답이었다.

그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와 매니시의 사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워로드는 갑작스레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듯 얼얼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나쿠스 전 공작은 워로드가 발하는 불안한 침묵을 깨기 위해 먼저 입을 열었다.

"모처럼 네가 수도에 머무른다기에 기다렸는데 어찌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게냐. 둘이 같이 한번 들르거라."

아버지의 타박과 권유에 겨우 충격에서 벗어난 워로드는 무심코 끄덕이던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녀와 집에 가는 것도 좋고, 요즘 들어 부쩍 다정한 그녀에게 허락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얻은 짧은 끄덕임에 모나쿠스 부부가 한시름 놓을 때였다.

"들르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매니시는 애 때문에 같이 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저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는 워로드의 앞에서, 모나쿠스 부부는 딱딱하게 굳고 있었다.

그러나 눈치 없는 아들은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약삭빠른 중년 하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백작,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겠나."

빠르게 다가와 속삭인 중년의 남자는 불량 신관의 부친, 파르두스 후작이었다.

고개를 끄덕인 워로드는 모나쿠스 부부에게 인사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오히려 파르두스 후작이 부부의 벌어진 입을 걱정해 멋쩍은 헛기침을 남길 정도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회장의 작은 테라스로 자리를 옮긴 워로드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콜로지 얘기일세."

파르두스 후작은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처럼 말을 받았다. 그의 길게 찢어진 눈꼬리는 주름이 잔뜩 져 젊은 시절의 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미간을 찌푸린 워로드가 할 말이 많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는,"

"난 약속을 모두 지켰어. 내 아들은 대체 언제 오나."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불호령이라고 할 법한 어조였다. 그는 좀 전까지의 지친 인상은 착각이라는 듯 주름진 눈을 부릅뜨고 워로드를 쏘아 봤다. 이콜로지의 불량함은 그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을 만치 위압적인 인상이었다.

"다 큰 아들을 찾아줬으면 됐지 집까지 데려다줘야 합니까?"

그러나 그에 휩쓸릴 워로드가 아니었다. 알록달록한 생화로 장식된 돌난간과 그 너머로 펼쳐진 드넓은 정원이 주는 풍치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약속이 다르잖나!"

가까이 다가간 후작은 누가 들을까 작은 소리로 외쳤다. 커튼이 처진 유리문 너머로 잔잔한 음악이 들려왔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난 찾아준다고 했지 데려다준다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쪽이 할 일은 끝난 것 같지만, 정 그러면 직접 데려가십시오."

제가 할 말을 마친 워르드는 연회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커튼을 걷었다. 혹시라도 매니시가 돌아와 그를 찾고 있을까, 워로드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잠깐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버리나? 내가 미안하네. 그래, 그게 자네 탓은 아니지. 해줄 이유도 없고. 그럼 내 부탁이니 좀 들어줄 순 없겠나?"

한숨을 내쉰 워로드가 뒤돌아 후작과 눈을 맞추고 질문했다.

"억지로 집에 데려다 놓으면 됩니까?"

그뿐이었다. 후작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워로드는 다시 돌아서서 충고를 남기고 테라스를 나갔다.

"두 사람 사정은 모르겠지만, 때를 놓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겁니다."

문이 닫히자 파르두스 후작은 혼자 남겨졌다.

커튼이 걷힌 유리문을 통해 음악에 몸을 맡긴 사람들, 가족, 연인, 다정한 귓속말과 친근한 스킨십이 후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즐거워 보였다. 그만 빼놓고.

커다란 저택에서도 이 작은 테라스에서도 후작의 곁엔 언제나 지독한 적막뿐이었다. 그는 언제까지고 따라올 듯한 이 지긋지긋한 적막이 가려질까 마른 손으로 눈가를 지그시 쓸어내렸다.

그때, 덜컥이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소리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소리를 몰고 후작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워로드였다. 막 연회장으로 돌아갔던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난간을 밟고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손가락에 작은 빛이 어려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후작이 놀라 손을 뗐을 때는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활짝 열린 유리문과 조급한 발아래 짓이겨진 빨간 꽃만이 지나간 바람의 흔적을 알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레우카스 영애."

매니시는 황제를 만나고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쩐 일인지 황제가 그럴싸한 임명장을 읽는 내내 황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지금쯤 그녀는 잔뜩 부어오른 눈에 얼음찜질하느라 바쁠 테였고, 황녀를 달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매니시에게는 정말 이 만남이 반갑지 않았다.

"네, 오랜만이네요. 그럼."

그대로 지나치려는 매니시를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가 막아섰다. 그녀는 매니시에게 말을 건 영애의 뒤에서 분신술이라도 쓴 듯 튀어나왔다. 분신 같은 여자들은 그 옆에도 있었다. 또 그 옆에도.

빨간 구두를 신은 깡마른 여자가 입을 열었다.

"어머, 우린 보이지도 않나 보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잘 만나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여자."

"쉿, 들리겠어요."

저들끼리 떠들고 재밌다는 듯 웃고, 오랜만에 와닿는 사교계의 광기였다. 그녀들이 내는 높은 웃음소리가 살갗을 자꾸만 간지럽혀서, 매니시야말로 웃고 싶었다.

"네, 잘 들리네요. 더 할 말 없으면 그만 가도 될까요?"

"영애는 이 상황이 우습나 봐요? 뭐가 그렇게 항상 혼자서 잘났어?"

날카로운 눈매를 치켜뜬 여자가 돌돌 말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말했다. 그녀는 한때 매니시를 수도 사교계로 이끈 장본인이었다. 더불어 그녀를 사교계에 질리게 한 인물.

"그러는 영애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늘 남을 깎아내리려고 안달이죠? 그마저도 혼자서는 못하나요?"

매니시는 나란히 서서 복도를 가로막고 있는 영애들을 죽 훑어보더니 눈을 찡그리고 이어 말했다.

"그렇게 함께 다니는 게 좋으면 다음부턴 옷을 좀 맞춰 입으시는 게 좋겠네요. 보는 사람 눈이 아프니까."

그러자 맨 끝에 서 있던 여자가 제 옷을 내려다봤다. 젊은 영애들이 자주 입는 평범한 분홍빛 드레스였다. 그녀의 옆에 초록색, 주황색, 검은색만 없었더라면 말이다.

"야!"

분노 가득한 고함과 함께 당황한 여자들의 부채질 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떠들썩하게 했다. 부채 바람에 휘말린 공기는 길을 잃고 위태로운 춤을 췄다. 그러나 그도 매니시를 붙잡을 이유는 되지 못했다.

다른 길을 찾기 위해 그녀가 돌아섰을 때였다.

"품위 없게 이게 무슨 소리죠?"

다른 목소리가 끼어든 것은.

"글램 영애."

"영애의 목소리가 저 복도 끝까지 들린답니다. 전 돼지가 우는 줄 알고 병사를 대동할 뻔했지 뭐예요."

싸늘하게 식은 공간에 저 혼자 태연한 음성이 매끄럽게 흘러나왔다.

"워로드 못 보셨어요? 레우카스 영애."

글램은 멀어지는 매니시의 등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물었다. 매니시의 걸음이 멈췄다.

"첫 춤은 늘 그이와 함께했는데 안 보여서요."

사르르 녹을 것처럼 미소 짓는 글램의 옆에서 분홍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헛숨을 들이켰다.

글램과 워로드의 소문이야 오래된 것이었으나, 사교계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녀에게는 매니시야말로 진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점에서 내연녀나 마찬가지인 글램의 저 당당함은 사교계 병아리에겐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이?"

돌아선 매니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요. 이제 본인이 누구 앞에서 꼬리를 흔든 건지 알겠어요?"

글램은 아이를 가르치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여자들은 한쪽에 조경처럼 서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폐하께서 갑자기 그분을 부르시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결혼 예복을 맞추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 혼담이 오가는 중인가요?"

비 맞은 정원수처럼 조용히 몸을 떨던 초록색 영애는 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저흰 아직 생각이 없는데 어른들이 급하시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텐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격 맞는 집안이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전 행운아예요. 제게 맞는 상대와.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매니시의 기분은 나빠졌다. 더는 참을 수 없던 그녀가 글램의 말에 반박하고 나섰다.

"진실을 아는 상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은 바로 해야죠. 사랑에 몸을 담근 건 영애 혼자 아닌가요?"

어디선가 참다못해 나온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글램의 커다란 눈이 경고의 의미로 여자들을 훑었다. 마디마디가 하얘지도록 주먹을 쥔 그녀가 그 사나운 눈에 마지막으로 담은 것은 매니시였다.

"진실? 당신이 아는 게 뭐든 이게 진실이에요. 제게 맞지 않는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비극인 일도 없다는 것. …감히."

내세울 것 없는 레우카스주제에. 글램의 내리깐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매니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글램은 마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아름답게 미소 지었다. 그때, 어디선가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매니시의 옆에 있던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매니시."

"워로드?"

글램과 그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탓이었을까, 매니시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익숙한 호칭 대신 이름을 외쳤다. 그는 높은 창문에 얼굴만 빼꼼 걸친 워로드를 굳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단장님?"

"워로드!"

금세 제 호칭으로 돌아간 매니시와 지지 않겠다는 듯 호명하는 글램. 워로드는 글램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백작님이라고 해."

도약도 없이 높은 창문을 단숨에 넘은 그가 글램을 흘기며 한 말이었다. 글램의 얼굴이 붉어지자 매니시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단속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했다.

"가죠, 매니시"

워로드가 그들 앞에서 한 말이라고는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존댓말과 그가 부른 그녀의 이름에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워로드가 매니시를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는지.

그래서 매니시는 그에게 손을 잡혀 이끌리면서 참지 않고 웃을 수 있었다.

"단장님한테 존댓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매니시의 웃음기 서린 목소리에 워로드의 입가에도 미소가 감돌았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하기는 싫지만."

꼭 잡아 오는 손에서 그의 마음이 읽힐 듯했다. 다른 사람 앞에선 그녀가 존중받도록 제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면서, 그 약간의 멀어짐도 견딜 수 없어 애달픈 마음.

더 가까이 서고 싶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요?"

매니시의 질문에 워로드는 깨어난 듯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발에 힘을 더하며 빈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왼손 검지에는 투박한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네이브한테 연락이 왔어."

"연락? 성으로요? 무슨 일 있대요?"

"성이 아니라 이 연락용 반지로. 마석없이 순수 마성구로 가공한 거라 거의 일회용에 가깝지만, 마력을 다루는 자들은 몇 번이고 쓸 수 있어. 마력만 넘쳐난다면. 이 작은 게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으니까."

"마도구로, 마력을 먹히면서까지 한 연락이면 급한 거 아니에요?"

"아주. 화이트럼이 꼬리를 드러냈어."

그의 걸음에 맞춰 거의 달리고 있던 매니시의 눈이 커졌다.

"브로치를 회수하러. 지금 네이브가 미행 중이야."

매니시는 워로드의 찡그려진 미간이 부하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연회장의 문을 지나쳐 건물 밖으로 나와 숨을 골랐다. 그사이 매니시가 물었다.

"전 뭘 하면 되죠?"

그녀가 곧게 맞춰 오는 깊은 눈동자에 목이 메었다.

사실 연락이 와서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로지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무 말 없이 이 사나운 곳에 그녀만 남겨둘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계획 따위는 없었다. 워로드는 이 와중에도 그를 사로잡는 눈에서 벗어나지 못해 눈을 맞춘 채로 고개를 수그렸다. 그 모습이 눈치 보는 플럼의 모습과 똑 닮아 매니시의 입가가 꿈틀거렸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그럼 일단 같이 가서 본거지를 확인하고 저는 수사단에 돌아가 알릴게요.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마력은 아껴야죠."

매니시의 시선이 그의 왼손을 훑었다. 그 시선을 쫓다가 잠시 머뭇거리던 워로드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다.

어느새 연회장까지 쫓아온 여자들과 연회장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는 황녀, 굳은 얼굴의 모나쿠스 부부가 보였다. 순진한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는 집토끼 한 마리가 남기에는 거친 야생의 세계였다.

결심한 그가 매니시의 손을 잡아끌어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의 앞에는 때맞춰 준비한 것처럼 마차 한 대와 경비 기사가 서 있었다.

"좀 빌린다."

워로드가 경비 기사에게 던진 말이었다.

검을 드는 자라면 모를 수 없는 인사가 제게 다가오자 뻣뻣하게 굳었던 기사는 날 선 소리와 함께 허리춤이 가벼워지자 그의 말뜻을 이해했다. 워로드의 손에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예장용 검이 들려있었다.

슥, 그가 소리 없이 휘두른 검에 마차와 말을 연결한 수 가닥의 가죽 줄이 끊겼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무딘 예장용 검의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단숨에 쌍두마차를 단두마차로 만든 워로드는 저 혼자 태연한 얼굴로 마부석의 사내에게 일렀다.

"로얄 수사단의 단장 워로드 루푸스다. 긴급한 일이니 값은 나중에 청구해."

그와 동시에 그가 대충 던진 검이 기사의 앞에 꽂혔다. 경비 기사가 검을 뽑아 검집에 갈무리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말에 올라탄 워로드가 매니시를 제 앞에 앉히고 있었다.

"혀 깨물 수도 있으니까 입 열지 마."

그가 매니시의 귓가에 속삭였다.

워로드는 몸을 움츠린 그녀를 팔 안에 가두고 허벅지를 꽉 조였다. 당황한 사람들이 입을 열 찰나, 그의 구두가 말의 옆구리를 찼다. 우렁찬 말의 울음소리와 함께 건장한 밤색 말이 바람을 갈랐다.

그것은 매니시의 상상처럼 상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부딪치는 바람에 얼굴은 얼 듯했고 숨이 막혔다. 말발굽이 땅을 박찰 때마다 충격은 고스란히 엉덩이로 전해졌다. 안장도 없는 말 위는 몹시 불안정해서, 매니시는 말의 머리에 씐 굴레를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꼭 붙들어야 했다. 마차용으로 묶여있던 말에는 고삐마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로드는 제 존재를 잊지 말라는 듯 매니시의 창백하게 질린 손 위로 손을 얹었다. 그는 한 손은 그녀의 허리에 그대로 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매니시의 손에서 빼낸 굴레를 쥐었다. 이어 그가 몸을 숙이자 매니시는 맞춘 듯 그의 품 안에 숨어들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몸처럼 붙은 그들은 복잡한 황성을 벗어나 대로를 질주해 나갔다.

모든 귀족이 황성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오늘, 화려한 저택이 늘어선 거리는 텅텅 비어 꺼릴 것이 없었다. 그러나 황실의 승전 기념 파티에 맞춰 축제가 벌어진 광장은 달랐다. 그들은 곧 많은 인파에 밀려 말에서 내려섰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근처 여관에 돈을 주고 말을 맡긴 워로드가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시장 중심부였어."

그들은 평소보다 배는 많은 인파 속에 서로 헤어지지 않기 위해 꼭 붙어 전진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들의 화려한 예복이 전혀 튀지 않을 지경이었다.

"일부러 오늘 같은 날을 골랐나 봐요."

"그래. 미리 대비해놨어야 했는데."

"네이브 경이 최선의 대비였어요. 강한 분이시잖아요."

매니시의 작은 손이 그를 찾아들었다. 그는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시장의 중심부였다.

"여기서 어디로 갔을까요? 연락이 끊기니 답답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쪽에서 먼저 연락할 순 없어. 기다려 봐야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기요."

매니시가 가리킨 곳은 비교적 축제의 열기에서 벗어난 평범한 포목점이었다. 사람과 먹거리가 즐비한 거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운영 중인 가게는 손님 한 명 없었다.

그런 가게가 매니시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는 외부 매대에 묶인 감색 천 조각 때문이었다.

"페니 거예요. 요즘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 말을 들은 워로드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매니시는 페니 특유의 짓궂은 미소를 따라 짓고 그를 잡아끌었다.

"봄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 어디 제대로 쇼핑 한번 해 봐요."

워로드는 그 미소가 매니시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장난기에 동참했다. 매니시가 매대에 묶인 손수건을 챙기는 동안 워로드가 먼저 가게에 발을 들였다.

"어서오십쇼!"

포목점 주인의 씩씩한 인사가 그들을 반겼다.

포목점은 선반에 켜켜이 쌓인 옷감부터 천장에 드리워진 천까지, 다채로운 색들이 방문자의 눈을 흐리는 곳이었다. 그 가운데 선 포목점 주인은 툭 튀어나온 입으로 염소 같은 목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다가섰다.

"잘 어울리는 커플이 오셨구만. 축제 구경 나오셨어요?"

"네. 이이가 새 옷을 사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좀 까다로워서 옷감부터 같이 고르려고요."

말을 끝낸 매니시는 워로드를 돌아보며 한껏 접힌 눈으로 웃었다. 어떻게 보아도 갓 사랑에 빠진 풋풋한 연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물론 워로드의 붉어진 얼굴은 연기가 아니었다.

"신랑이 아주 다정하시네,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게 재질도 부드럽고 색감도 다양하게 나와서 요즘 인기가 좋은 상품이에요."

주인의 손에서 고가의 천들이 휘리릭 펼쳐졌다 접히기를 반복했다. 매니시는 주인이 추천하는 천들을 하나하나 성의 있게 들여다보고 만져가며 난감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찌르자 워로드가 입을 열었다.

"마음에 안 들어?"

"음, 조금요. 옷감이 약간 거칠고 색이 좀 투박하네요. 너무 평범하기도 하고, 역시 다리가 아파도 다른 가게를 찾을 걸 그랬나 봐요."

아주 절묘한 크기의 목소리였다. 얼핏 속삭이는 듯했던 매니시의 목소리는 주인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찾으시는 게 뭔데요?"

기분이 상한 주인의 목소리가 뾰족하게 나왔다. 매니시는 주춤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여기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특별한 색의 옷감이요. 맨살에 어울릴만한."

매니시는 눈을 새초롬하게 뜨고 부끄러운 생각을 마구마구 떠올렸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진 않아서 그녀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포목점 주인은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딴청부리는 남녀를 번갈아 보고는 능글맞게 미소 지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잠깐만 기다리세요. 좋은 걸로 찾아드릴게."

그가 자리를 비우자 매니시는 고개를 퍼뜩 들고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는 거 맞죠?"

"응."

"오기 전에 빨리 뒤져 봐요."

워로드에게 부끄러워할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듯 매니시의 손은 이미 옷감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연신 안쪽 문을 흘낏대며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그녀를 따라 워로드도 서툰 손을 보탰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던 매니시가 무심코 돌아봤다가 놀랄 정도의 재주였다.

"그렇게 티 나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작게 외친 매니시가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워로드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건 현장처럼 잔뜩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옷감을 빼앗아 든 매니시는 제 몸보다 큰 옷감을 접기 위해 팔을 양쪽으로 쭉 뻗었다. 그때, 매니시의 팔꿈치에 부딪힌 선반이 덜컹, 위로 들리며 맞물리는 소리를 냈다.

알 수 없는 위화감에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난 매니시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에 눈을 크게 떴다.

찰나의 순간, 놀란 워로드의 시선과 그에게로 뻗은 제 손을 마지막으로 시야의 양옆에서부터 어둠이 몰려왔다. 쿵.

"매니시."

"단장님?"

무언가에 둘려 넘어졌던 매니시는 코앞에서 들리는 소리에 제 어깨를 두른 것의 정체를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방이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가 어디죠?"

매니시는 몸이 묶인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물었다.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였다. 맞닿아 있는 몸에서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는지 느껴졌다.

"거울 너머. 괜찮아?"

그녀도 제가 괜찮은지 알 수 없었다. 워로드는 대답이 없는 매니시를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뒤늦게 입을 연 매니시는 꼭 졸린 사람처럼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단장님은요?"

워로드는 대답 대신 여태껏 제 위에 누워있는 그녀를 번쩍 안고 일어났다.

"비밀 공간이야."

매니시를 내려준 그가 말했다.

매니시의 팔꿈치가 선반을 들어 올린 순간 그녀의 뒤편에 있던 큰 거울이 돌아가며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다. 워로드는 돌아가는 거울에 휘말린 그녀 대신 거하게 찧은 엉덩이를 털며 주변을 살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괜찮아, 그냥 복도야."

그가 불안해하는 매니시의 손을 찾아 잡고 일렀다. 길은 양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거울 하나 차이라기엔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숨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저도 모르게 거친 숨을 내뱉고 있던 매니시가 제소리에 지레 놀랄 정도로.

"어떡하죠?"

쉿, 그의 짧은 대답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매니시는 혹시 제 숨소리가 방해될까 이를 악물고 숨을 골랐다.

"소리가 들려."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그것이 브로치를 회수하러 온 화이트럼의 발소리인지 그 뒤를 쫓는 네이브의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쫓아야겠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매니시가 워로드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여기서 혼자 기다리란 말만 아니면 좋겠네요."

"…꼭 붙으라고."

"이렇게요?"

매니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이 거짓인 것처럼 그를 향해 순한 눈망울을 끔벅였다. 워로드의 한쪽 팔은 그녀의 품에 파묻혀 자유를 잃은 채였다.

그가 바싹 마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응. 그렇게."

온 신경이 한쪽으로 곤두섰다. 옷감 위로 닿는 여린 숨결도 느껴질 정도로.

팔에는 기이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제 것이 아닌 듯 느껴지는 팔 한쪽을 매니시에게 맡기고 소리가 난 쪽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잠깐만요."

몇 걸음 걷지 않아 매니시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워로드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조심히 몸을 숙여 더듬더듬 구두를 벗어들었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이쪽에서 들은 것처럼 저쪽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였다. 그러나 귀하게 자란 아가씨가 맨발로 걷기에는 험한 길이었다. 그렇다고 한참은 클 그의 구두를 신기면 발소리가 더 크게 울릴 터였다.

"내가 안고 갈까?"

한 손에는 구두를, 다른 한 손에는 워로드를 붙든 매니시는 차가운 바닥을 딛고 섰다. 워로드의 눈에는 울상을 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과 꾸물거리는 발가락이 얼핏 보였지만, 매니시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빨리 가요."

매니시가 조금 앞서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워로드의 시각과 청각에 의지해 나아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그저 쭉 뻗은 길이 이어졌다. 조급하게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조금 더 빨리 가야겠어."

"네."

아무리 일반인보다 나은 그라도 어둠 속에서 창백해진 매니시의 안색까지 알아챌 수는 없었다. 매니시는 맨발바닥에 닿는 소름 끼치는 티끌들의 움직임을 애써 무시하며 발을 빨리 놀렸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곧 자취를 감췄다. 멀어졌다기보단 숨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디선가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희미한 발소리 대신 통로를 울렸다.

"이게 무슨 소리죠?"

매니시는 제가 안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만큼 오랫동안 편안하게 붙들고 있던 그의 팔을 꽉 조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전히 어둠뿐이었다.

"바깥 소리 같아."

그들 앞으로 기어오는 벌레를 발로 걷어차며 그가 대답했다. 어디선가 소리뿐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소리는 선명해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기사 행진곡의 타악기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다. 몇 걸음 더 가자 거기에 쨍한 금관악기의 소리가 얹어졌고, 매니시가 신선한 공기에 섞인 부드러운 목관악기의 음을 느꼈을 때는 그녀가 더러워진 제 발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져 있었다.

바닥에는 그녀가 평소에 봤다면 기겁할만한 벌레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매니시는 절로 들리는 뒤꿈치를 모른 척하고 그와 함께 빛이 새어 나오는 방으로 향했다.

문 없이 뻥 뚫린 그곳은 두 사람이 한쪽씩 팔을 뻗으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은 방이었다. 천장의 거대한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신선한 자연의 흐름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환기구예요."

그러나 매니시에겐 금은보화가 든 방보다 반가운 등장이었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통일된 세상에서 직직 그어진 검은 창살의 무늬가 보이도록 푸른 하늘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워로드는 고개를 한껏 쳐들고 배시시 웃는 매니시에게서 제 팔을 빼 들고 여전히 그녀의 한쪽 손에 있던 구두를 가져갔다. 의아한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그가 다음으로 한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매니시는 반사적으로 왼발 위에 오른발을 덮어 엉망일 제 발을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위로 덮인 오른발 또한 엉망이긴 마찬가지라 워로드의 시선에 고스란히 노출된 그녀의 발가락이 오그라들었다.

"왜, 왜요?"

가만히 그를 보고 있는 워로드에게 묻자 그는 웃음기 서린 목소리로 바로 대답했다.

"귀여워서."

정말로 그랬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로 시커멓게 물든 작은 발이 잔뜩 움츠린 모습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귀여워서, 더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무슨, 얼른 따라가야죠... 이러다 놓치겠어요."

얼굴이 빨개진 매니시가 웅얼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그가 구두를 내려놓고 매니시의 발 한쪽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이미 놓쳤으니까 구두 신자."

그가 더러워진 매니시의 발바닥을 제 손으로 닦아내며 말했다.

뜨거운 그의 손이 예민하게 돋아있던 신경을 위로했다. 몇 번이고 씻어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소름 끼치는 벌레의 느낌도, 얼음처럼 싸늘한 바닥의 냉기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가 또 속삭였다.

"발이 너무 차."

거칠고 커다란 손이 그녀의 발을 꼭 감싸 온기를 전했다. 언 발에 닿은 열기는 저릿저릿한 간지러움을 동반했다. 묵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매니시의 발바닥을 털지 않고 연신 비벼댄 그의 손바닥은 어느새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신을 테니까 놔주세요. 괜히 단장님 손만 더러워져요."

"이러면 어때?"

그는 평민 아이처럼 더러워진 손을 제 허벅지에 실컷 문댔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속눈썹에 맺혀 장난스러운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다. 매니시는 그 순간만큼은 어두운 비밀 통로에 맨발로 선 제 상황도 잊고 웃음을 터뜨렸다.

"예복이 검은색이길 다행이네요."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 그는 따듯해진 발 한쪽에 구두를 신기고 이내 다른 쪽 발을 들어 비벼대기 시작했다. 매니시는 균형을 잡기 위해 그의 어깨를 쥐고 몸을 기울였다.

"하얀색이었으면 네 발을 직접 닦았겠지. 아주 예쁜 무늬가 생겼을 텐데."

"농담도 하실 줄 아세요?"

머리 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살랑였다. 마치 지금 그의 뺨을 간지럽히는 하얀 머리카락처럼 부드러운 울림이었다.

"농담 아니야."

마저 구두를 신긴 그가 일어나 살포시 웃었다. 어둠 속이라는 특성 때문이었을까, 매니시는 그의 목소리가 감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가볼까?"

"…네."

그가 제 팔을 내밀었다. 그를 물끄러미 보던 매니시는 그의 팔꿈치 아래를 살짝 잡았다가 그의 팔을 쓸어내리던 글램을 떠올리며 손을 미끄러뜨렸다.

"가요."

그의 손을 맞잡은 매니시가 말했다.

"손 더러워져."

거부의 말과는 다르게 그의 손은 매니시에게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듯 힘이 하나도 없었다.

"단장님 옷에 닦죠, 뭐."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다시 어둠에 잠겨 들었다. 행진곡의 소리는 금세 멀어졌다.

매니시는 또다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아까만큼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란히 걷는 두 개의 구두 소리는 어떤 행진곡보다도 섬세하고 웅장했다.

그러나 남녀의 옥신대는 소리가 끼어들며 행진곡은 곧 사랑 노래로 길을 달리했다. 목표를 잃은 추격자들의 입은 쉬지 않았다.

"꽤 친해 보이시던데요?"

"그러는 너야말로, 남작과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지?"

"…인사요!"

잠깐의 망설임이 신경 쓰였지만, 매니시의 뾰족한 어조에 그는 더 파고들지 않았다.

"나도 인사일 뿐이었어."

"다정하게 이름으로 부르면서?"

얘기하는 사이 그들은 새소리가 들리는 환기구를 하나 더 지나쳤다. 워로드는 창살 사이로 보이는 녹음을 흘깃하고 대답했다.

"다정하게? 그랬나? 마리티무스 후작과는 자주 마주치는 편이니까 한쪽은 이름으로 부른 것뿐이야."

"핑계는, 그냥 영애라고 부르면 될걸."

그가 들으라고 하는 혼잣말이었다. 애초에 아무리 작게 말한들 저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까지 포착하는 그가 못 들을 리 만무했다.

"마리티무스 영애 얘기는 그만하고. 이름하니까 생각났는데, 왜 날 단장님이라고 부르지?"

그의 바뀐 호칭에 슬며시 미소를 띤 매니시가 입술을 한 번 깨물고 대답했다.

"단장님을 단장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해요?"

"다른 것도 있잖아."

"백작님?"

"그거 말고."

"단장님!"

매니시가 자리에 멈춰 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녀의 눈이 커다랗게 뜨여 있었다. 워로드는 그제야 그녀가 저를 부른 이유가 단순한 호칭 정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까부터 벽을 만지면서 왔는데 여기 벽에 금이 가 있어요."

워로드가 잡은 오른손과 달리 비어있던 그녀의 왼손은 차가운 벽 위를 더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선 워로드의 눈에도 그녀가 더듬는 검은 경계가 보였다.

똑바르게 올라가다가 날카롭게 90도로 꺾이고, 조금 더 가다가 또 90도로 꺾이는 선. 사람 키만 한 직사각의 틈은 마치…

"문?"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문이요?"

"그래. 손잡이는 안 보이지만."

그것은 벽과 같은 돌이었고 문고리나 문설주, 문지방도 없었다. 익숙한 크기와 모양의 틈이 아니었다면, 또는 매니시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놓치고 지나갔을 정도로 무심한 등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속삭이듯 작아져 있었다.

"안에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들이 놓친 발소리의 주인이라거나. 둘은 동시에 생각했다.

"가능성이 없진 않아. 어쨌든 이 정도로 비밀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건 놈들에게 중요한 방이라는 뜻이겠지. 들어갈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그들은 차가운 돌문을 더듬어 수색해 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만지고 만져도 매끄러운 돌만 느껴질 뿐, 문을 열 만한 장치는 없었다.

지친 매니시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문에 몸을 기댔을 때였다. 그그극, 틱

매니시의 머리꽂이가 벽에 긁히며 낸 아주 미세한 소리였다. 그를 이상하게 여긴 워로드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잠깐만."

워로드가 매니시의 몸을 당겨 그녀의 머리가 닿았던 부분을 살폈다. 좁아진 그의 눈이 직사각 경계의 바깥쪽, 작고 검은 점을 찾아냈다. 오른손 검지로 그를 만져본 그가 말했다.

"여기 골이 파여 있어. 뾰족한 게 필요하겠는데."

미간을 찌푸린 그가 제 몸을 더듬어봤자 나오는 것은 없었다. 그는 그 흔한 브로치 하나 달고 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매니시가 제 머리꽂이를 빼 들었다. 꽃을 모티브로 한 흑진주와 수정 장식 아래로 긴 꼬챙이 두 개가 달려 있었다.

"이건 어때요?"

"딱이야."

매니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그의 표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의 손발이 착착 맞을 때 그러하듯, 만족스럽게 미소짓고 있을 테였다.

매니시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해볼게, 뒤에 서 있어."

그에게 이끌려 뒤로 물러난 매니시는 손대신 그의 옷자락을 쥐고 침을 삼켰다. 워로드는 머리꽂이의 두 다리 중 하나를 꺾어 들고 하나만 남은 꼬챙이를 작은 구멍 끝에 맞췄다.

힘을 주어 밀어 넣자 머리꽂이는 점점 벽 사이로 몸을 감췄다. 꼬챙이의 3분의 2가 들어갔을까, 마치 벽에 보석 꽃이 핀 것처럼 보일 때쯤 꼬챙이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작지만 의미심장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찰칵, 드르르륵.

뭔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와 돌바닥 위를 구르는 바퀴의 묵직한 소리였다.

매니시는 고개를 빼고 앞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앞의 어둠이 워로드의 어깨인지 그 너머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함부로 입을 뗄 수 없는 긴장감에 그녀는 애꿎은 그의 옷자락만 괴롭힐 뿐이었다.

그 순간 워로드에게는 보이고 있었다. 활짝 열린 문이.

꼬챙이가 무언가를 건드린 순간, 돌문은 육중한 몸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눈 깜짝할 새 옆으로 밀려났다. 까맣게 아가리를 벌린 미지의 방은 통로보다 더한 어둠이 서려 있었다.

워로드의 눈에도 그것은 그저 까만 직사각형으로 보일 뿐이었다. 문이라기보단 관 같다는 생각을 하며 그가 걸음을 뗐다.

인기척은 없었다. 그와 매니시의 조용한 걸음 소리만이 방을 울렸다. 두 사람이 기차놀이를 하듯 방안으로 완전히 발을 들였을 때였다.

드르르르륵. 등 뒤에서 다시 한번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재빠르게 돌아본 워로드의 눈에 닫히는 문이 보였다. 그러나 그 혼자라면 모를까 매니시를 데리고 빠져나가기엔 문이 닫히는 속도가 빨랐다.

찰칵.

"뭐예요? 설마 우리 갇힌 거예요?"

"일단은. 이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매니시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아 연락용 반지 위에 얹은 워로드는 저와 비교되는 작은 손을 한참 응시하다 이상함을 알아차렸다.

"밝아지고 있어."

매니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깜깜하던 그녀의 시야에도 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쓰는 곳인가 봐요."

마치 귀족의 옷방 같은 구조였다. 잡화점처럼 벽을 따라 놓인 진열대에는 온갖 귀한 패물들이 늘어져 있었고 한편에 무심하게 꽂혀있는 지팡이들은 화이트럼의 그것이었다.

꽤 오랜만에 워로드에게서 떨어진 매니시는 진열대를 따라 걸으며 연신 감탄성을 내뱉었다. 썰렁해진 팔 한쪽을 끌어안은 워로드의 입술이 빼죽 나왔다.

"이것 봐요. 이거 다 마성구죠?"

이미 닫혀버린 손잡이 없는 문을 살피던 워로드가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매니시가 살피던 진열장 안에는 오묘한 빛깔의 구슬이 하나씩 담긴 작은 케이스가 줄지어 놓여있었다. 진열장 하나를 빼곡히 채운 케이스는 얼추 서른 개도 더 될 듯했다.

"열지는 마. 아직 어떤 장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행히 이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쪽이라면 모를까?"

깡총 뛰듯이 한걸음 이동한 매니시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 그녀는 금화가 잔뜩 쌓인 상자는 본 체도 않고 장신구가 늘어선 곳에 붙어 섰다.

"오, 이건 색이 정말 신기해요. 너무 예쁘다. 이런 보석은 처음 보는데? 마성구일까요?"

그녀를 만나고 처음 보는 아가씨다운 관심사였다. 매니시는 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연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도 그 자신이 매니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워로드는 능숙한 남자가 아니었기에, 매니시가 주의 깊게 보는 장신구를 확인하는 대신 즐거워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관찰하며 하는 생각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갇힌 사람다운 태도는 아니었다.

"어? 여기서부턴 개조된 장신구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어느새 다음 진열대로 넘어간 매니시의 앞에는 조개처럼 입을 벌린 알이 큰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들이 있었다.

"벌어들인 돈이며 놈이 쓰는 마도구, 개조 장신구에 마성구까지 싹 다 있어. 이 방의 은밀성과 보안성을 생각해도 이 정도면 과해."

"이게 다 함정이라는 얘기에요?"

"가능성은 높지만, 이 마성구들은 진짜야. 어차피 갇히면 그만인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함정이지."

워로드의 눈이 아직 살피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돌아다녔다. 이미 마도구로 만들어진 지팡이와 장신구 몇 개를 빼면 동력원인 마석이 박힌 물건은 없었다.

조금 안심한 그가 이것저것 들춰내고 다니자 매니시도 브로치를 하나 집어 들고 말했다.

"이건 꼭 우리가 찾았던 브로치랑 똑같이 생겼네."

그녀의 혼잣말에 바로 다가온 워로드가 브로치를 넘겨받았다. 자신이 망가뜨린 브로치의 이음새를 살펴본 그가 확신 어린 어조로 말했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거야. 여기 이 부품만 새거잖아."

눈을 찌푸린 채 그가 가리킨 부분을 살핀 매니시가 대답했다.

"그게 여기 있단 건 우리가 쫓던 사람이 조금 전에 여길 다녀갔다는 뜻이네요. 함정이 아니라면…,"

워로드가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래. 어딘가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야."

"이 화려한 방 어딘가에는요."

매니시는 여태까지 자신이 내뱉은 감탄은 까맣게 잊은 듯 낯선 눈으로 방을 둘러 봤다. 나무를 덧댄 바닥, 실크 벽지, 고풍스러운 진열장들과 그를 채운 더 호화스러운 것들. 심지어 천장에 덧댄 나무에는 싱싱한 포도 넝쿨이 양각되어 금색 칠까지 되어 있었다.

그러니 그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가의 마도구나 금화 상자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온 문이었다. 아무 장식도 안 되어있는 돌덩어리 문.

알다시피 그 문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도 없었다. 손잡이나 경첩 같은.

"바깥처럼 꼬챙이를 꽂을 만한 곳은 없었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은 필요 없겠죠. 좀 더 편하고 어렵지 않은 방법일 거예요. 예를 들면…"

문으로부터 이리저리 헤엄치던 매니시의 시선이 꽂힌 곳은 의미 없이 벽에 고정되어 있던 촛대였다. 천장 모서리를 따라 빛을 발하는 마법등이 빈 촛대를 을씨년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이런 거?"

촛대로 다가간 매니시는 손을 걸기 좋게 곡선을 이룬 부분을 잡아당겼다. 반신반의하며 당긴 촛대는 그녀를 무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촛대의 머리는 마치 그녀에게 인사하듯 부드럽게 아래를 향했다.

찰칵. 연이어 들린 원하던 소리에 매니시와 워로드의 시선이 마주쳤다. 감탄이 서린 그의 눈동자 속 매니시도 눈이 동그래져 있긴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됐으니 이제 그만 나갈까요?"

헛웃음과 함께 매니시가 말했다.

"그래."

그는 대답과 달리 열린 문을 등지고 걸었다. 매니시는 까만 속을 드러낸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워로드는 한편에 꽂혀있던 화이트럼의 지팡이를 집어 들고 주먹만 한 구 아래 나란히 박힌 마석들을 뜯어냈다.

"빈손으로 너무 오래 있어서. 명색이 적진인데 무기 하나쯤은 있어야지."

마도구로써의 가치를 잃은 지팡이를 검처럼 쥔 그가 그것을 두어 번 휘둘러보더니 벨트에 꽂고 다가왔다. 매니시는 내밀어진 손을 잡고 익숙하게 어둠에 몸을 맡겼다.

"아무도 없지만요."

"그러게. 이 정도면 네이브 혼자서도 충분했겠어."

오는 동안 위험한 함정이나 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네이브의 활약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통로를 빠져나가면 포승줄에 묶인 밀매단원이 제일 먼저 그를 반길지도 몰랐다.

"본진에 사람 한 명 안 보이는 것도 그렇고, 아까 그 방도 그렇고, 화이트럼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소수 정예 같은?"

"그럼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게 낫겠어. 음?"

워로드는 발아래 느껴지는 다른 감촉에 걸음을 멈췄다. 그가 흐릿한 시야에 의존해 발밑을 확인하고 있을 때 매니시가 물었다.

"왜요?"

발밑에 있는 것의 정체를 확인한 그가 침음하듯 읊조렸다.

"지푸라기..."

그사이 한 걸음을 더 내디딘 매니시의 발아래도 푹신한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융단 대신 깔았다고 하기에는 전혀 고르지 않게 분포해 있어 뭉치로 놓인 것이 더러 밟혔다.

뚜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녀가 발을 이리저리 놀리며 바닥을 더듬자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워로드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느낌이 이상해. 돌아가야겠어."

"네?"

그의 불길한 상상 탓인지 순간 워로드의 코끝에 기름 냄새가 스쳤다.

전쟁 중에 자주 맡았던 냄새였다. 그는 이어질 상황이 손에 잡힐 듯 그려졌다. 비명, 혼란, 누군가의 타들어 가는 인생에 누군가는 입맛을 다시는 그 절규의 현장을. 워로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매니시를 안아 든 워로드가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매니시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목에 매달렸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 갑자기 피어난 붉은 꽃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름답게 피어나 매니시를 향해 꽃잎을 흔들고 있었다. 꽃잎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유연했지만, 동시에 힘이 넘쳐서 작은 움직임에도 통로의 어둠이 맥을 못 추고 몸을 떨어 댔다.

그 기이한 자연현상을 매니시가 인지했을 때는 삽시간에 커진 불길이 통로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후끈한 열기에 감싸인 워로드의 관자놀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 뒤를 쫓았다.

공기의 흐름을 따라 불꽃은 계속 전진했다. 그러나 지푸라기를 모두 태우고 맨바닥에 발을 디딘 불꽃의 속도는 더뎠다. 한시름 놓은 워로드가 중얼거렸다.

"완전히 들킨 모양이야. 저쪽에서도 눈치채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해."

매니시는 불안으로 급박하게 뛰는 가슴을 감추고 애써 태연하게 말을 꺼냈다.

"콜록콜록, 연기가 야시장 꼬치구이 저리 가라네요. 나가면…"

한동안 그쪽으론 눈도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매니시는 그 말을 끝낼 수 없었다.

천둥소리 같은 울림과 동시에 엄청난 풍압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의 몸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자욱한 회색 연기 속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연기 속으로 먹혀들어 간 매니시의 하얀 머리칼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던 워로드의 시야가 깜박, 깜박.

마침내 까맣게 물들었다.

네이브는 남자의 뒤통수가 뚫어져라 노려보는 걸 멈추지 않았다. 눈 두 개, 코 하나, 합이 셋일진대, 그 안에 동그라미를 네 개나 가진 괴상하고 욕심 많게 생긴 남자를.

"예? 예."

그는 허공에 대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네이브는 그것이 연락용 마도구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네이브의 거친 손에 전혀 안 어울리는 장신구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가 화이트럼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날 마차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네이브는 혹시나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최대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들리는 거라곤 남자의 가래 낀 목소리뿐이었다.

알 수 없는 단답형의 대답에 지친 네이브는 검지에 끼워진 반지를 매만지다가 그가 빠져나온 거대한 바위틈을 응시했다. 그 까만 구멍 속에는 아직 누군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높은 확률로 그의 단장일 누군가가.

하지만 단장은 걱정할만한 인사는 아니었다. 걱정할 틈도 없었고. 연락을 끝낸 남자가 몸을 틀자 네이브는 수풀 뒤로 몸을 숙였다.

"대체 어떤 새끼들이야."

눈, 코만큼이나 일그러진 입으로 욕을 되뇌는 남자를 주시하며 네이브의 머리도 바쁘게 돌아갔다. 저치를 지금 잡을 것인가, 쫓을 것인가.

남자는 무슨 명을 받았는지 바위틈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자가 통로를 통과하는 동안 손에서 내내 놓지 않던 이동식 마법등을 목에 걸고 있었다.

네이브의 입에서 가벼운 침음이 새어 나왔다.

"수상한데..."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킨 네이브는 다시 기척을 죽이고 남자의 뒤를 따랐다.

마법등은 남자의 목덜미에서 겨우 그의 발밑만 비추고 있었다. 남자는 바위틈으로 들어오는 소량의 빛과 마법등에 의지해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젠장, 설마 진짜로 이걸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는 불안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감추려는 듯 연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상자 안에서 달그락대는 소리가 들렸다. 네이브는 그 거슬리는 소리에 맞춰 지푸라기 위를 디뎠다.

마침내 지푸라기가 아닌 맨바닥에 선 남자는 저도 모르게 고여 있던 숨을 내뱉었다. 그가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쭈그려 앉자 뒤에 있던 네이브는 마법등의 강렬한 빛 속에 그늘진 남자의 뒷모습밖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잠시 후 남자 너머에 있던 빛이 이리저리 휘청이더니 똑바로 앞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가 마법등을 입에 물었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네이브는 남자의 실루엣을 통해 그가 열린 나무 상자 속에 한 손을 집어넣은 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순간 남자의 오른발이 바깥쪽을 디뎠다.

오른발을 축으로 남자의 몸이 돌아서려는 찰나였다. 네이브의 몸은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돌아서 출구를 향해 쏘아져 나갔다.

뒤를 돈 남자가 앞을 비췄을 때는 통로에 그밖에 없었다. 남자는 어떤 이상도 알아채지 못하고 상자 안에 있던 손을 빼 들었다.

입안에 꽉 차는 크기의 동그란 것을 물고 침을 삼키던 그가 실수로 마법등을 놓치자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몸을 흔들었다. 안 그래도 긴장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던 남자에게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그는 얼얼한 입을 우물거리며 중얼거렸다.

"미쳤어. 내 손으로 이 짓을 하다니."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주먹 두 개를 세로로 이어붙인 크기의 호리병이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키고 그것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리병의 둥근 부분이 지푸라기 위를 뒹굴었다.

흔들리는 빛 속에서 그를 본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곤 다른 병을 꺼내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깨진 병에서 튀어나온 액체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자는 파열음 때문인지 사방으로 튀는 액체 때문인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는 욕을 기도문처럼 외며 반대편 벽에 붙어 전진했다. 그리고는 아예 뒤돌아서서 주춤대며 뒷걸음질을 시작했다.

엉성한 뒷걸음질과 달리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상자가 빌 때까지 병을 던지고 깨트리길 반복했다. 통로에는 역겨운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후우."

어느새 출구 근처까지 온 남자가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는 여전히 뒤돌아 서 있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네이브에게는 그의 긴장이 보이지 않았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미친 짓이지만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남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소리는 네이브에게도 들렸다. 네이브는 고개를 쭉 빼고 남자가 말한 미친 짓을 훔쳐보기 위해 애썼다. 남자는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바닥에 내려치고 있었다.

상자를 조각조각 해체해 그것을 통로에 내던지는 일까지 마친 남자는 그제야 돌아서 통로를 빠져나왔다. 그의 목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마법등이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네이브는 그 빛 속에서 낯익은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안돼!"

그러나 네이브보다 남자가 좀 더 빨랐다. 그의 손을 떠난 지팡이에서 새빨간 불길이 연기처럼 기어 나왔다.

걸리적거리는 남자를 밀친 네이브가 통로를 향해 던져진 지팡이의 끝에 닿을 찰나, 일렁이던 불길은 순식간에 몸을 키워 어둠 속으로 솟구쳤다.

흐릿한 매니시의 시야에 제일 처음 잡힌 것은 울 것 같은 얼굴의 사내였다. 그는 2년 동안 그녀가 가끔가다 꾸는 악몽의 주인공이었다.

"…아, 저씨?"

끊어질 듯 희미한 목소리로 매니시가 물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와 온몸을 뒤덮은 그을음 때문에 엉망인 얼굴로 워로드가 눈을 깜빡였다. 그만큼 그에게는 그리운 호칭이었다.

"매니시."

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을까, 하지만 그를 눈치채지 못한 매니시는 초점을 되찾고 다시 입을 열었다.

"단장님?"

다시 본 그는 엉망이었다. 재투성이 얼굴은 귀족스러운 하얀 피부를 감췄고 먼지와 엉겨 붙은 피가 굳어 검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괜찮아?"

"단장님이야말로 괜찮으세요? 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누굴 걱정해요!"

울상을 지은 매니시가 그의 얼굴로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더럽고 생채기 가득한 손이었다.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만질 수 없어 멈칫한 그녀를 워로드가 잡아채 제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매니시의 손에서 입술을 떼지 않은 채 뭉개진 음성으로 말했다.

"네가 안 깨어나서, 무서웠어."

"..."

그의 눈은 감겨있어 알 수 없었지만, 매니시는 그가 흐느끼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제 손을 거머쥔 그의 손가락을 힘줘서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려줬다.

그 사이 그녀의 기억도 순차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에게 안겨 어둠 속을 헤치다가 붉은 꽃을 발견한 일, 거친 움직임에 달아오른 그의 몸, 그리고.

"…폭발! 여긴 어디죠?"

마지막 기억을 떠올린 매니시가 목이 졸린 듯 헐떡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불안하게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는 매니시의 눈에 금빛의 포도 넝쿨이 들어왔다.

"화이트럼의 보물 창고."

낯익은 천장 무늬를 보고서야 그녀는 제가 여태껏 누워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워로드는 상체를 일으키는 그녀를 부축하며 나머지 설명을 이었다.

"입구가 폭파됐어. 근처 환기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이미 누군가 막아놓은 후였고… 여기가 최선이었어. 미안해."

"뭐가요."

"내가 기절하지만 않았으면 이미 빠져나갔을 거야. 아니, 최소한 널 데리고 이런 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매니시는 엄지와 검지로 그의 머리카락을 조금 잡아당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 선택이었어요. 잘못한 건 악의적으로 불을 놓은 사람들이고요. 알았어요?"

그의 머리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잿가루가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좋은 동체 시력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그를 따라갔다 온 워로드의 눈에 매니시의 엄격한 얼굴이 비쳤다.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 봐요."

워로드의 고갯짓에 따라 매니시의 손도 같이 흔들렸다. 매니시는 그의 머리카락을 당기던 손에 마지막으로 힘을 줘 당기고 손을 미끄러트렸다. 마침내 붙들고 있던 것을 놓친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검은 머리칼 두어 개가 있었다.

워로드는 따가운 모근을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며 맹목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긴 드레스 자락을 이용해 그의 얼굴을 닦으며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문 너머는 어떤 상태예요? 빠져나갈 틈이라곤 전혀 없나요?"

그녀가 들친 드레스 밑으로 얼핏얼핏 하얀 속치마가 드러나자 워로드는 눈동자가 굴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응. 들어오고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양쪽에서 통로를 다 먹어치웠을 거야. 이 돌벽이 두꺼워서 그렇지 열리기만 해도 공기가 뜨거워서 숨이 막힐걸."

"연락은요? 밖에 연락해 봤어요?"

"아니, 미안."

그가 제 손을 들어 금이 간 반지를 보여주곤 고개를 숙였다. 반지나 다른 상황을 살피느라 바빴던 매니시는 본의 아니게 치마로 그의 정수리를 털어주고는 말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탈출해야 한다는 소린데… 저 문이 얼마나 버텨줄까요? 지금도 연기가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얼굴이 빨개져 눈을 감고 있던 워로드는 눈을 번쩍 뜨고 문을 살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이리 와! 연기를 맡으면 타 죽기 전에,"

그는 차마 매니시를 상대로 다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상처 하나 없이 제 곁을 떠났던 병사들의 얼굴에 그녀를 그려 넣은 것만으로도 신물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얼추 재를 닦아 드러난 잘생긴 수사단장의 얼굴이 그답지 않게 애처로워 보여 매니시는 저를 잡아당기는 손길에 순순히 이끌렸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의 상흔을 못 본 척 손을 잡아주는 것이 다였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선 곳은 문의 반대편이었다. 문에서 떨어진 구석진 자리는 방 안의 전경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평범한 장신구인 척하는 마도구들의 모습도. 매니시는 부러 가벼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곳을 주시하며 내뱉은 매니시의 말에 그의 시선도 그녀를 따라갔다.

"뭔데?"

"마도구 들고, 뚫고 나가기?"

그러나 그녀의 말투에도 확신은 없었다. 워로드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양 미안한 얼굴로 대답했다.

"화이트럼이 취급하는 마도구는 대부분이 공격용이라서 잘못 걸리면 통로가 무너질 거야."

"잘못 걸리는 건 뭐고 잘 걸리는 건 뭔데요?"

"물을 이용한 마법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 외에는 글쎄. 문제는 마도구가 어떤 마법을 담고 있는지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죽는 결말이라면 뭐든 해보고 죽어야죠."

그로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매니시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손에 들어온 온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혼자 다짐했다.

이미 마도구가 진열된 곳에서 몰두 중인 매니시를 따라 그도 머리를 보탰다. 신중한 고민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를 골라 들었다.

실상은 찍기에 불과했지만, 워로드의 손에 들린 것은 인적 드문 산중에 있을 법한 고요한 호수의 빛깔을 띠고 있었다. 워로드는 브로치 형태로 제작된 그것을 옷에 달고 말했다.

"내가 나가서 사용해볼게. 여기 있어."

매니시는 마치 그의 말을 못 들은 사람처럼 문까지 앞서가며 질문했다.

"어떻게 쓰는지는 아세요?"

"마력을 쓰면 사용법을 몰라도 강제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넌 여기 있어 줘."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워로드가 어깨를 붙잡고 타일렀다. 매니시의 눈이 뾰족해졌다.

"단장님이 잘못되면 저라고 무사할까요? 마법의 파동에 휩쓸려 죽거나 여기 갇혀서 천천히 죽어 가겠죠. 그러니까 죽든 살든 같이 있어요. 우린 지금 운명 공동체라구요."

말을 마친 매니시의 손이 말릴 새도 없이 벽에 달린 촛대를 잡아 내렸다. 워로드는 '죽든 살든 같이'라는 달콤한 말에 빠져 그를 막지 못했다. 그런 그를 비웃듯 등 뒤의 돌문은 쏜살같이 열렸다.

"콜록, 이런."

동화책에 나오는 악마의 등장이 이러할까. 열린 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온 검은 연기가 워로드를 에워쌌다. 두 사람은 통로의 어둠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매니시의 콜록거리는 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워로드는 감에 의지해 발을 내디뎠다.

갇혀있던 연기는 탐욕스레 새로운 공간을 차지했다.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워로드의 시야도 점점 밝아졌다. 그는 매니시의 손을 잡고 한 발 앞장서 뜨거운 통로에 발을 들였다.

"잠깐, 콜록, 잠깐만요!"

뒤에서 따라오던 매니시가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돌아본 워로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을 향해 고개를 쳐든 매니시였다. 그의 시야는 어느새 더 선명해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간 그는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검은 연기는 천장의 나무 장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마도구가 즐비한 밀폐된 방에 환기를 위한 마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매니시와 워로드의 시선이 마주쳤다. 죄책감에 잠겨있던 워로드의 눈에도, 두려움에 떨던 매니시의 눈에도 생기가 감돌았다.

매니시는 황성 앞에서 말을 강탈하다시피 한 때를 떠올리며 물었다. 질문이라기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담뿍 묻어 확신에 가깝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그걸로 가능하시겠어요?"

그녀는 워로드의 허리춤에 꽂혀있는 지팡이를 보고 있었다. 이미 그 끝을 잡고 있던 그의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다.

"물론."

대답과 함께 그는 매니시가 눈에 담을 수 없는 속도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뭉툭한 지팡이 끝에서 예리한 기운이 천장으로 쏘아졌다. 그것은 날카롭게 찢어발기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 듯이 나무 장식 너머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고요한 기운은 종이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내부를 진탕 시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얇은 나뭇가지 하나가 만들어냈다고 믿을 수 없는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어릴 적 이불을 뒤집어쓰고 들었던 태풍 소리처럼 무시무시한 소리에 매니시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의 지팡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잿빛 바람은 규칙성 없이 사방으로 부딪치며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끝없는 회오리 속에서 매니시는 간신히 뜨고 있던 실눈마저 질끈 감아버렸다. 괴롭힘을 당한 눈에서 의미 없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내렸다.

워로드는 두려워하는 듯한 매니시의 어깨를 끌어안고 최대한 팔꿈치를 들어 올려 그녀의 머리를 보호했다. 그의 나머지 한 손은 여전히 지팡이를 휘두르는 중이었다.

아까처럼 어떤 기운이 담겨있는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그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얇은 기둥에는 바람에 날려 온 화이트럼의 보물들과 천장의 파편이 부딪혔다.

차츰차츰 바람이 잦아들자 표창처럼 방안을 날아다니던 보물들이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쯤 고개를 들던 매니시는 문득 목 뒤로 서늘한 바람 한 점을 느꼈다.

천천히 워로드의 어깨너머로 고개를 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걸음 뒤에서 그들을 비웃고 있는 지긋지긋한 불길이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저를 감싼 단단한 몸에 달라붙었다.

"불! 바로 뒤에!"

워로드도 느끼고 있었다. 화마의 탐욕스러운 혀가 날름거릴 때마다 그의 등은 뜨거운 공기에 달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뚜벅뚜벅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쫓던 화마는 그의 먹잇감이 탈출의 희망을 본 순간,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다. 워로드가 일으킨 바람이 녀석에게 빠른 발을 달아준 격이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녀석보다 워로드가 좀 더 빨랐다.

"실례."

엉덩이를 받쳐 왼팔 하나로 그녀를 안아 든 워로드가 한 말이었다. 상황도 잊고 붉어지려던 매니시의 얼굴은 다음 순간 창백하게 질렸다. 워로드가 그녀를 안은 채로 한 걸음 물러섰기 때문이었다.

금방이라도 불길이 옮겨붙을 듯 가까웠다. 매니시는 타들어 갈 것처럼 뜨거운 얼굴보다 눈 끝에 걸리는 붉은 어른거림이 두려웠다. 그녀는 움츠러든 고개를 애써 워로드의 귀에 고정했다. 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 열기 때문인지 그의 귀는 발긋하게 피어있었다.

매니시의 느낌과 다르게 그가 불 앞에 머무른 순간은 아주 찰나에 불과했다. 워로드는 준비 동작을 모두 마쳤다는 듯 바로 땅을 박찼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귀나 관찰하고 있던 매니시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줄만 알았다. 워로드의 뜀박질에 따라 통통 튀던 몸은 그가 뛰어오르며 확 젖혀졌다. 그러나 엉덩이를 받친 그의 팔은 그녀의 종아리를 단단하게 조이고 있었고 워로드의 목에 걸린 매니시의 팔도 필사적이었다.

높이 뛰어오른 워로드가 놀고 있던 손을 힘껏 뻗었다. 그의 손가락은 아슬아슬하게 뚫어놓은 천장을 벗어나 가장자리에 걸렸다.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흙에 덮인 돌이었다. 지하의 싸늘함이 배어 있는 돌이 아니라 태양에 한껏 노곤해진 돌. 워로드는 갈고리처럼 바깥세상에 걸린 그의 손가락에 의지해 흔들리는 몸을 견뎠다.

긴장으로 거칠어진 워로드와 매니시의 숨이 한데 엉켜 지하를 맴돌았다. 오직 잿빛 연기만이 두둥실 떠올라 붉은 하늘에 퍼져 나갔다. 불길은 그들 발밑까지 와있었다.

추처럼 오가던 두 사람의 몸이 힘을 잃고 늘어지자 워로드의 손가락에는 반대로 힘이 들어갔다. 그의 손가락이 지표의 무른 부분을 뚫고 들어갔다.

그의 한쪽 팔근육이 팽팽해졌다. 그는 상체가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외쳤다.

"올라가!"

그것이 그가 내린 살기 위한 단 하나의 명이었다.

매니시는 품위나 위생, 차림새 따윈 생각도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근처에 난 잡초를 움켜쥐고 기어오르는 매니시도 그녀의 몸에 손을 대고 밀어주던 워로드도 그 순간만큼은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매니시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마침내 그녀의 발이 땅을 밟았다. 눈이 쟁반 위에 놓인 구슬처럼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지러운 시야를 바로 잡을 새도 없이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옆으로 기어갔다.

이제 그가 올라올 차례였다. 양손을 다 쓸 수 있게 된 워로드는 쉽게 몸을 끌어올렸다. 매니시는 주저앉아 숨을 고르다가 중얼거렸다.

"살았다."

소리는 한숨처럼 흘러나왔고 벅차오른 감정은 미소로 피어났다. 워로드는 환한 미소를 머금은 매니시를 보며 땅을 디뎠다. 그 순간 주저앉아 있던 매니시는 워로드의 발밑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균열을 발견했다.

"안돼!"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딘 입을 움직이는 대신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모든 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눈을 크게 뜬 워로드가 마주 손을 뻗었고, 그의 발밑이 가장자리부터 내려앉고 있었다. 까슬까슬한 흙은 심술 맞게 그의 구두를 미끄러트렸고 워로드의 머리가 뒤쪽으로 기울었다.

매니시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워로드는 몸이 뒤로 기운 상태에서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일그러진 얼굴까지 아름다운 사람에게서.

그의 발 앞축에 힘이 들어갔다.

이미 45도 정도 기운 지면을 그가 박차자 작은 땅덩이는 불길 속으로 추락했다. 워로드는 허공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손을 뻗었다.

매니시의 작은 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갖은 애를 써 그를 당기자 워로드의 커다란 몸이 매니시를 덮쳐들었다. 그대로 곤두박질치는 매니시의 뒤통수를 워로드의 손이 감쌌다.

그의 손이 바닥에 닿는 순간 느리게 흘러가던 시간도 제 속도를 찾았다. 한 몸처럼 엉킨 그들은 부딪힌 힘이 사그라질 때까지 바닥을 힘껏 굴렀다.

무너진 지면을 시작으로 무섭게 자라난 균열이 그들을 쫓아 달렸다. 워로드의 어깨가 바퀴처럼 몇 번이나 바닥에 닿는 동안 매니시는 제가 듣는 소리가 구르면서 나는 소리인지 바닥이 무너지는 소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속에 숨겨진 희미한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라는 것이 그녀를 위로했다.

숨 가쁘게 돌아가던 몸은 점점 힘을 잃더니 곧 나무뿌리에 닿아 멈췄다. 땅의 울림과 무섭게 뛰는 심장 박동이 한데 어우러져 머리끝이 쭈뼛 섰다. 이내 눈을 뜨고 상황을 살피던 워로드에게서 길고 가는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들을 아슬아슬하게 추격하던 균열은 멀어진 후였다. 그가 마른입을 뗐다.

"이번엔 진짜야. 살았어."

그는 구덩이에서 피어오르는 자욱한 먼지와 연기를 바라보며 품에 묻힌 매니시에게 속삭였다. 웃음기 맺힌 그의 거친 호흡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통통 튀어 다녔다.

움찔한 매니시가 동태를 살피는 작은 동물처럼 고개를 빼 들자 그의 몸에서도 힘이 빠졌다. 매니시를 놓아주고 몸을 굴려 누운 그는 심호흡하며 노을 진 하늘을 눈에 담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구름과 타오르는 듯 붉은 하늘이 지겨워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서 볼 때와 달리 평범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지는 태양 앞으로 유유히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보며 매니시가 입을 뗐다.

"벌써 저녁이네요. 배고프다."

매니시가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에 워로드의 여유는 깨졌다. 벌떡 일어난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보이는 건 나무뿐, 주변에 먹을 거라곤 그림자뿐인 새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딱히 입맛을 돋우는 생김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나가서 쉬자."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이 놀랐을 텐데."

실제로 매니시의 몸에는 힘 한 점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가 걱정한 이는 조금 전에 발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워로드였다.

"안아줄까?"

그러나 그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멀쩡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들어 올릴 기세인 그 때문에 매니시는 기대고 앉았던 나무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아뇨, 가요."

일어난 매니시는 어딘가 불편한 모양새였다. 힘 빠진 몸을 바로 세우느라 정신이 팔린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지만, 워로드는 낮아진 시선을 눈치챘다.

"구두는?"

"구두요?"

그제야 매니시도 위화감을 느낀 듯 누더기가 된 드레스 자락을 들치고 제 발을 확인했다. 한쪽은 맨발 한쪽은 구두, 맨발인 쪽은 바닥을 디딘 채였고 구두를 신은 쪽은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구부정한 상태였다.

재빨리 치마를 내린 그녀가 그를 붙잡고 남은 한 짝의 구두를 벗어들며 말했다.

"오늘은 구두랑 인연이 없네요. 한 짝은 저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이 구덩이를 향했다. 그가 두 팔을 내밀고 들어 올리는 시늉을 멈추지 않자 매니시는 웃으며 그를 잡아끌었다.

"벌레투성이인 통로를 걸었더니 찝찝해서 풀에다 좀 닦으려고요. 얼른 가요, 이 고생을 했는데 범인들은 잡아야죠. 불도 꺼야 하고."

"그럼 일단 통로가 이어졌던 방향으로 가자. 출구 쪽에 누군간 있겠지. 그게 네이브면 불을 끌 사람도 금방 부를 수 있고."

"근데 지금 뭐 해요?"

"신 벗잖아."

양말까지 벗어 구두 안에 욱여넣은 그가 몸을 일으키고 손을 내밀었다. 의식 없이 그 손을 잡은 매니시는 그와 나란히 걸어가며 못다 한 궁금증을 풀었다.

"멀쩡한 구두를 두고 왜요?"

"나도 맨발로 걷고 싶어서."

매니시는 자꾸만 굴러가는 눈동자를 어쩔 수 없었다. 그 고생을 하고도 구두 속에 꽁꽁 감춰져 있던 워로드의 발은 깨끗해서, 온통 시꺼먼 그들 사이에 있으니 더욱 눈에 도드라져 보였다.

"전 어차피 옷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난 발이 예뻐서 자랑하려고 그런 거야."

그가 뻔뻔하게 대꾸했다. 매니시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참지 않았다.

"좀 그렇긴 하네요. 정말 예뻐요."

매니시가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말갛게 웃으며 칭찬했다. 조금 전까지 능청스럽게 대꾸하던 워로드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들 사이로 풋풋한 침묵이 오갔다. 성큼성큼 걸을 때마다 밤이슬이 발을 적시는 것처럼 그들도 젖어가고 있었다.

깨끗한 예복과 광을 낸 가죽 구두, 부드러운 융단과 은은한 촛불은 없었지만, 그들은 걸음마다 진심으로 즐거웠다. 함께한 시간 동안 해진 옷과 귀엽고 예쁜 발 두 쌍, 이슬 맺힌 풀밭에 내려앉은 희미한 노을도 제법 낭만적이었으니까.

흑, 끅, 어허엉.

어디선가 들리는 방정맞은 울음소리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이 소리 혹시?"

"그래."

워로드는 깊은 곳에서 새어 나오는 한숨을 감추지 않고 내뱉었다. 소리를 따라 길을 벗어난 그들이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꽤 들어가자 등을 돌린 채 울고 있는 소리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단장님, 끅, 불쌍해서 허헝, 어떡해!"

팔짱을 낀 워로드의 눈이 차가웠다. 그러나 고삐 풀린 네이브의 입은 혼자서 멈출 줄을 몰랐다.

"여자랑 뽀뽀도 한번 못 해보고! 흐흑, 취향도 이상한데, 끄흑, 그마저도 차이고… 에이드 씨 너무해! 허엉헝,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라도…!"

우웩. 매니시가 이해 못 할 소리를 늘어놓던 네이브는 격한 슬픔 때문인지 다른 어떤 것 때문인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웁, 하아. 슬프지만 역시 그건 무리… 악!"

불시에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은 네이브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때문에 바로 조금 전 그가 묶어놓은 남자의 기름 낀 코에 입을 맞춘 네이브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다시 튕겨 올랐다.

"우웨에엑. 닦아야, 아니 뜯어야 돼. 흑. 더럽혀졌어, 죽어야 돼. 웩..."

한참 요란을 떨던 그가 워로드를 발견한 것은 반 컵 정도의 침을 이미 뱉고 반 컵 한 스푼째의 침을 뱉을 때였다.

"단장님? 살아계셨어요?"

토하는 소리와 함께 뱉어지던 침은 그의 의문 섞인 목소리와 함께 턱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더러우니까 좀 닦아."

"네!"

싱글벙글 웃으며 소매를 늘려 입가를 닦던 네이브는 매니시를 발견하더니 멈칫 굳었다. 그가 눈알을 굴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기, 아가씨. 이 일은 비밀로 좀..."

"그래요. 페니한테 말이죠?"

매니시는 흔쾌히 그의 부탁을 수락했다. 그녀라고 할지라도 침을 흘리며 웃는 워로드의 모습은 결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매니시의 대답에 네이브는 한시름 놓았다는 듯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네! 제 입술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면 많이 충격받을 테니까요."

"아, 그쪽. 네."

떨떠름하게 대답한 매니시가 내친김에 포목점에서 챙긴 그의 손수건을 돌려주자 그는 발을 땅에 붙이고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방방 뛰어다녔다. 그사이 까맣게 그을린 바위틈과 바닥에 남은 싸움의 흔적을 살피고 돌아온 워로드가 말을 꺼냈다.

"이거 포함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포박된 채 정신을 잃은 남자를 턱 끝으로 가리킨 워로드의 눈이 네이브를 향하자 그는 단숨에 차분해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표면적으로 따졌을 때였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불꽃 아가씨가(여기서 불꽃 아가씨는 페니의 애칭입니다.) 직접 간식을 가져다줬을 때였습니다. 갓구운 거였는데 다꾸와즈라고, 아니 다크아주? 다쿠… 암튼 그 비슷한 건데 단장님은 들어보셨어요? 전 생전 처음 들은 건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꽃 아가씨의 손가락이 제,"

네이브의 혼란한 정신세계와 대화법을 잘 알고 있는 워로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5초 안으로 줄여서."

말이 끝나자마자 워로드가 한 손가락을 접었다. 마음이 급해진 네이브의 보고는 이랬다.

"얘가 통로에 불 질렀어요, 누가 시켜서."

워로드는 바닥에 누운 남자를 가리킨 네이브의 손가락을 잘근잘근 씹고 싶다는 얼굴로 말했다.

"더 길게 안 해?"

"그래서 잡아서 누구였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웬 가면을 쓴 놈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공격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얍실한 게 분명 화이트럼이었어요. 그날 마차에서부터 마음에,"

"빼고."

"헙, 네. 놈이 조직의 주축인지 얘가 묶여있으려니까 몸 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불을 내라고 명령한 것도 그놈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딱 교활해 보였어."

팔을 휘둘러가며 설명을 이어가던 네이브는 워로드가 한숨을 쉬자 눈치를 보고 말을 맺었다.

"그래서 싸우다가 저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잽싸게 꽁무니를 빼던데요?"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네이브의 힘이 들어간 턱이 하늘을 향했다. 매니시와 워로드는 그를 무시하고 흔적이 남은 땅 위를 살피며 대화를 이어갔다.

"굳이 마도구에 의지하지 않아도 실력은 꽤 좋은 것 같아."

"이쪽에 인질이 있어서 그냥 물러섰겠죠?"

"그래. 놈이 조금만 빨리 왔어도 네이브가 불리할 뻔했어. 2대 1로도 낙승을 거둘 만한 상대는 아니야."

고개를 끄덕이던 매니시가 어느새 나뭇가지 끝으로 의식이 없는 포로를 찌르고 있던 네이브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언제 와요?"

"예? 무슨 사람들이요?"

"불 꺼야죠?"

"아!"

워로드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탁’ 치는 네이브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가 쫙 펼친 손을 한껏 들어 올렸다가 급하게 내려 네이브의 머리를 쓰다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데자뷔처럼 네이브의 머리가 앞으로 확 기울었다. 반사적으로 뒤통수 대신 입을 가린 네이브에겐 얼얼한 고통이 동반되었다.

"잘했다. 잘했으니까 이만 쉬어."

칭찬을 받은 네이브는 너무 강한 나머지 다소 손이 거친 단장을 관대하게 이해하기로 했다. 이어 반지를 요구하는 단장에게 네이브는 흥겨운 마음으로 그것을 건넸다.

워로드의 연락이 있고 얼마 후 진화 작업을 위해 마도구로 무장한 사내들이 도착했다. 매니시는 워로드의 겉옷을 걸치고 커다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어느새 어두워진 사위에 그녀는 어깨를 감싼 옷깃을 좀 더 끌어당겼다.

"추워?"

뒤늦게 도착한 에이드를 만나고 돌아온 워로드가 물었다. 그의 손에는 기름을 먹은 종이봉투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뇨, 그냥. 그건 뭐예요?"

매니시의 질문에 자랑스레 웃어 보인 워로드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내려놓곤 바위 위로 훌쩍 올라앉았다. 매니시는 그가 편하도록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며 부스럭거리는 봉투를 바라봤다.

"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가 꺼내 든 것은 양념이 맛있게 배어든 꼬치구이였다. 주인이 성심껏 모락모락 피웠을 훈연 향이 가득한, 꼬치구이.

매니시는 당분간 쳐다보기도 싫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이렇게 빨리 마주치게 될 줄 몰라 당황했지만, 그가 내민 꼬치를 선뜻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말끝에 그녀의 웃음이 배어 있었다. 이 상황이 어이없고 웃기면서도 나쁘지 않았다. 살았다는 기쁨인지, 배가 고파서인지, 그가 귀여워서인지, 매니시도 알 수 없었다.

워로드는 맛있게 꼬치구이를 빼 먹는 매니시를 관찰하며 함께 야시장을 걷던 언젠가의 그녀를 떠올렸다. 그날의 매니시는 항상 그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재회한 그들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상황도 차림새도, 하물며 외모도 달라져서 때로는 즐거웠고 때로는 그를 씁쓸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이후로 가슴 속 그 자리를 또 다른 그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감했다.

그녀는 하루하루, 또 매 순간 아름다워졌다. 워로드는 이슬이 맺힌 듯 달빛에 희게 빛나는 그녀의 속눈썹에서 눈을 떼는 일이, 불타는 비밀통로에서 탈출하기보다 어려웠다.

"안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녀의 말은 진심인지 어느새 매니시의 꼬치에는 고기가 두 점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에 워로드는 한 번에 세 점을 입안에 쓸어 넣어 그녀와 속도를 맞췄다.

"많으니까 더 먹어."

"그럼 염치 불구하고 하나만 더 먹을게요."

귀엽게 손가락 하나를 펴든 매니시는 그의 품에 있던 봉투에서 직접 꼬치 하나를 꺼내 들고 먹기 시작했다. 맛있게 먹고 있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문득 깨달은 듯 짧은 탄성과 함께 바지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가 꺼내 든 것은 손수건이었다. 언젠가 매니시가 선물한.

"그걸 가지고 다니세요? 집무실에서 쓰시라고 드린 건데..."

손수건은 귀족이 휴대하며 사용하기엔 지나치게 투박한 생김이었다. 제 선물이 그에게 흠이 될까 말을 흐리는 그녀를 그는 간단한 답으로 일축해 버렸다.

"갖고 다니는 게 더 좋아."

유치한 대답이 그렇게 들리지 않으니 큰일이었다. 매니시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부러 웃으며 질문했다.

"그럼 아깐 왜 옷으로 닦으신 거예요? 손수건 있으면서."

"이건 쓰는 용이 아니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났어."

대답과 함께 그가 손수건을 건네며 제 입가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들겼다. 그를 멀뚱히 바라보던 매니시는 퍼뜩 드는 생각대로 손수건을 받아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지 말고 마음껏 쓰세요. 다음엔 정말 좋은 거로 사드릴게요."

워로드의 입술에 부드러운 손길이 와 닿았다. 사이에 낀 손수건은 아무 방해도 되지 않았다. 그가 귓가를 붉히며 예상치 못한 친절을 받아들이는 동안 입술을 토닥이던 매니시의 손길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었다.

식사 후 입술을 벅벅 닦는 것은 레우카스 부인도 어쩌지 못한 매니시의 나쁜 버릇이었다. 그러나 워로드의 입술을 스치는 그녀의 손길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볍고 부드러웠다.

지금처럼 남자 앞에서 단숨에 고쳐질 버릇이란 걸, 레우카스 부인은 몰랐다. 불행히도, 아니 그녀의 혈압을 위해 어쩌면 다행하게도.

문제는 손수건으로 톡톡 두드린다고 해서 입술이 깨끗해질지 매니시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 입술을 닦기에는 지나친 시간이 흘러갔다.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손수건 아래로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자 그녀는 깜짝 놀란 사람처럼 손을 뗐다. 공중에 내팽개쳐진 손수건을 아래에서 받아낸 워로드는 다정하게 눈매를 휘고 있었다.

그가 손수건을 깨끗한 부분으로 접어들고 말했다.

"실례할게."

그의 손수건이 매니시의 턱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보다 더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손수건에 새로 생긴 빨간 자국만큼 매니시의 얼굴도 달아올랐다.

"왜 빨리 안 알려주고 가만있었어요."

매니시가 이미 깨끗해진 제 턱을 쓸며 타박하자 그도 모처럼 짓궂은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마침 다 먹어서 입을 닦으려던 참이었거든."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함께 웃음을 터뜨린 매니시가 꼬치에 남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쥔 그의 손을 그대로 들어 스스로 입을 문대고 말했다.

"저도 마침 식사가 끝나서요. 하지만 전 제힘으로 닦은 거고 단장님은 제 덕분에 식사를 깔끔하게 마쳤으니 이번엔 손수건을 빨아드리지 않겠어요."

그녀의 새침한 말이 끝났을 때 그는 또 웃고 있었다. 실은 그녀가 스스로 입술을 문댔을 때부터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애초에 돌려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깜짝 놀라셨을걸요? 쪼금 틀어지긴 했지만, 얼룩 하나 안 남게 얼마나 잘 빨았는데요."

그는 매니시가 걸친 그의 겉옷 안주머니에 든 것을 떠올리며 제 무릎에 턱을 괴었다.

"그래?"

그의 되물음에 혹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나 살피던 매니시는 여전히 그에게 머문 다정한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언제든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는 그는 언제고 그렇게 다정히 웃고 있었다.

"그럼요."

그 사실이 매니시를 편안하게 했다. 그녀는 구덩이에서 탈출해 노을을 바라볼 때처럼 나른해져 하품이 나왔다.

"단장님."

"응?"

"좀 기대도 돼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몸을 바로 했다. 매니시는 그를 허락의 뜻으로 알아듣고 무겁게 느껴지는 머리를 그에게 맡겼다. 딱딱하게 경직된 그의 어깨는 더없이 안락했다.

"빨리 집에 가서 글 쓰고 싶다."

그녀가 나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떤 글?"

"아무거나요."

매니시는 다 먹은 꼬치로 허공에 '아무거나'라고 쓰며 대답했다.

"피곤할 텐데. 지금이라도 데려다줄까?"

"아뇨. 마무리까지 다 보고 싶어요. 어쩌면 오늘 겪은 일에 관해 쓸 수도 있잖아요. 실례일까요?"

그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왜 그게 실례냐는 듯 찌푸린 미간으로 대답했다.

"전혀?"

매니시는 그의 어감에서 표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잘게 웃는 그녀를 통해 워로드의 어깨도 잘게 떨렸다.

"그럼 됐어요. 난 그저, 실례가 될까 봐. 항상 그게 어려웠거든요."

매니시는 자신이 든 얇은 펜이 내는 위력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마음을 찾아 위로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

"생각해보면 '실례'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

그녀는 역사책에나 나오는 지팡이를 든 마법사처럼 가느다란 꼬치를 휘두르며 말을 이었다.

"오늘 단장님이 저한테 실례한다는 말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글쎄. 많이 했어?"

그는 이제 와 걱정이 드는지 얼굴을 굳히고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급박한 순간의 기억은 제멋대로라 건질 수 있는 게 얼마 없었다.

"저도 모르죠. 한 번도 실례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요."

정수리 너머로 그의 김빠진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김빠지는 일이었다.

그녀의 작업실 서랍 마지막 칸에 쌓인 원고들이 딱 그랬다. 누구의 상처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가며 쓴 소설은 결국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단장님이 실례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저를 위해서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실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서랍이 채워질수록 매니시는 펜을 드는 일이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잠깐 쉬었던 것이 종국에는 잉크가 떨어진 펜처럼 아무것도 써내지 못했다.

바싹 마른 펜촉이 꼭 그녀와 같았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안겨 구덩이를 빠져나오며 내내 어두웠던 마음에도 빛이 비쳤다.

"죽을 뻔했다 살아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들은 실례가 아닐 수도 있다, 어렵겠지만?"

워로드의 어깨에 기댄 탓에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매니시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소설을 더는 쓰고 싶지 않았다.

쓰고 싶은 소재가 많았다. 그동안 수사단 일을 하며 들은 이야기, 페니의 이야기, 신관의 이야기.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보통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실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의 이야기.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그녀를 비춘 빛은 기막힌 운명처럼 그를 닮은 홍차색이었다. 매니시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이 그의 눈이 그리웠다.

"그거 제 얘긴 아니죠? 좀 찔리는데..."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워로드에게서 떨어지며 매니시는 그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그녀는 워로드에게 민폐 인간이 되느니 힘껏 버둥대 보겠다고 다짐했다.

"이거 많아 보이는데 저기 유능하고 부지런한 분들 좀 나눠드릴까요?"

그녀가 여전히 그의 품에 있던 봉투를 가리키자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넘기고 먼저 바위에서 내려섰다.

"잠깐만."

그가 아래에 뒀던 상자를 열어젖혔다. 안에 든 것은 발목 둘레와 안감에 털이 보숭보숭 달린 검정 단화였다. 그는 그걸 매니시의 발에 신기며 말했다.

"급해서 색까지 맞추진 못했어."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구두를 구경하던 그녀가 뒤늦게 대답했다.

"마음에 쏙 들어요. 오늘의 저만큼 이 구두가 간절한 사람도 없을걸요?"

"예쁜 드레스에는 안 어울리지만."

"지금 차림에는 이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백작님?"

그의 손을 잡고 바위에서 내려온 매니시는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의 까만 예복 소매를 쥐고 흔들어 보였다. 그녀의 귀여운 대꾸에 그도 웃으며 동참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럼 가실까요, 아가씨?"

그가 내민 손을 짝 내리치며 매니시가 대답했다.

"좋죠, 백작님. 하지만 그 전에 본인 구두부터 신으세요."

"굉장하네요."

빠르게 손을 움직이면서도 에이드의 감탄은 끊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중에 떠서 따라오는 마법등이 에이드의 움직임에 따라 요리조리 흔들리며 빛을 내뿜었다. 그 속에서 거대하게 꿈틀거리는 에이드의 그림자는 음흉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하, 이거 참. 이렇게 많으면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겠군."

음산하게 중얼거리는 에이드에게서 떨어진 매니시는 빛 아래서 처음 제대로 마주한 통로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었다. 까맣게 그을려 위태로워 보이는 벽, 흙과 돌무더기가 무질서하게 범벅된 방, 돌과 나무 파편을 던져가며 보물을 챙기는 도굴꾼, 같은 기사 하나.

매니시는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진짜 보물처럼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걱정스레 말했다.

"무너지는 건 아니겠죠?"

"저거 보여?"

워로드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구멍 난 천장과 그들 머리 사이에 떠 있는 돔 형태의 반투명한 막이었다. 매니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설명을 이어갔다.

"원래 전쟁터에서 쓰이는 막사 방어용 마도구야. 저게 받치고 있는 한 위에서 황소 마수 같은 게 뛰어놀아도 무너질 일 없어."

매니시는 막을 쏘아 올리는 플럼만한 돌덩이를 보며 감탄했다. 무식한 크기와 무게 때문에 옮기는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다.

"와, 그럼 엄청나게 귀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화재 현장에도 그런 게 지원되나 봐요."

"…뭐, 그렇지."

애써 멀리 떠도는 워로드의 시야에 콧방귀를 뀌는 에이드가 보였다. 어두운 먼지 구덩이에서 강렬한 빛을 쬔다는 것은 콧바람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날아오르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아아, 사랑에 눈먼 남자는 이 앞방이나 열었으면 좋았을걸."

에이드가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는 매니시에겐 들리지 않았지만, 워로드에겐 또렷하게 들렸다. 진화가 끝난 후 통로를 지나며 발견한 첫 번째 방은 온갖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화재로 망가지지 않았다면 사람 하나 처리하기 딱 좋은 곳이었다.

워로드는 이를 갈며 보물을 수집 중인 에이드의 손을 밟았다. 마침 드물게 살아남은 반지 하나를 줍던 그는 그것에 흠집이라도 날까, 손에 힘을 주고 버텼다.

"단장님, 찾으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 우리도 같이 도와요."

그때 어딘가 들뜬 듯한 매니시의 목소리가 그를 잡아끌었다. 워로드는 그녀가 혼자 수색에 나섰다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잽싸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위험할 텐데."

그가 인상을 찌푸리고 만류하자 그녀가 눈을 맞춰왔다. 천장 너머로 반짝이던 별이 그녀의 눈 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과하게 생기 넘치는 눈이었다.

"걱정 마세요. 손 안 대고 눈으로만 찾을게요. 저 보석 진짜 잘 찾아요. 좋아하니까!"

풋. 저를 향한 말이 아니라도 둥실 떠오를 만큼 좋았던 기분을 깨뜨리는 소리였다. 워로드가 돌아본 자리에는 짓밟힌 손을 털며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에이드가 있었다.

"그래. 찾으면 나한테 말해."

"네. 일단 저기요! 그리고 저기, 저기도."

매니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빠르게 마성구와 귀금속들을 찾아냈다. 어느새 워로드를 따라 그녀의 손과 발이 된 에이드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매니시 영애는 사무 일을 할 게 아니라 프릴 경과 함께 현장에 투입해야겠습니다.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쓰이면 이렇게 훌륭하군요."

그는 여전히 홀쭉한 주머니의 밑바닥을 가득 찬 양 들어 보이며 툭툭 쳤다. 워로드의 아니꼬운 눈길 너머로 놀란 매니시의 음성이 날아들었다.

"계속 넣어댔는데 왜 그렇게 홀쭉해요? 그거 혹시 폭발 주머니예요?"

"폭발?"

폭발이란 단어에 유감이 많은 워로드가 인상을 찡그리는 동안 에이드는 태연하게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예. 수사단에겐 기본으로 지급되는 물품이죠."

"부럽다, 저는요? 저 오늘 정식 시종으로 임명됐는데, 지급 안 되나요?"

부스럭거리며 부푼 치맛자락을 헤친 매니시가 꺼내 든 것은 주머니 안에 잘 말아놓았던 임명장이었다. 여자들의 신비로운 수납공간을 목격하고 얼굴이 벌게진 워로드가 그를 받아드는 동안 매니시의 간절한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에 한없이 약한 남자였으나, 작은 문제가 있었다.

"…폭발 주머니가 뭐지?"

그는 매니시에게 차마 향하지 못한 시선을 데구르르 굴리며 머쓱하게 물었다. 에이드가 대답했다.

"티 나지 않게 공간 확장이 되는 마법 주머니를 요즘 시중에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워로드가 되묻자 에이드에게선 미지근한 대답이 돌아왔다.

"글쎄요. 그냥 상인들이 상품의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쓰는 흔한 광고 문구 아닙니까? "

그때 입이 근질거리던 매니시가 영 동떨어진 얘기만 하는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게 아니라 작년 말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작년 말?"

그리 되물으면서도 워로드는 주머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매니시에게 제 주머니를 넘겨줬다. 매니시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고 주머니를 풀었다 조였다 안팎으로 살피며 호기심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정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녀에게서 동떨어진 에이드는 막 주운 마성구의 먼지를 옷에 닦으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러고 보니 그쯤부터긴 했죠. 폭발 주머니란 별칭이 쓰이기 시작한 게."

"맞아요. 황성에서 여는 송년 파티 때거든요. 어떤 영애의 마법 주머니가 폭발한 일이었어요."

"…폭발이요?"

이번엔 에이드가 찝찝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는 꼭 안고 있던 주머니를 약간 몸에서 떨어트리며 매니시의 대답을 기다렸다.

매니시는 워로드가 찾아 건네준 화이트럼의 장신구를 직접 주머니에 넣어보며 설명을 이었다.

"사실 폭발이라기보단 분사나 역류에 가깝달까, 그건 이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제품의 부작용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주 소비층인 귀족들은 전통적인 걸 좋아해서 이런 건 실용적으로 쓰기보단 색다른 액세서리로 취급하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이 주머니를 가득 채운 사람은 없었죠."

"그 얘긴 가득 채우면…"

"맞아요. 파티에 온 그 영애는 마광산을 소유한 부유한 시골 영지 출신이었는데 쇼핑을 좋아했대요. 모처럼 수도에 와서 쇼핑을 즐기는데 돌아갈 때 마차를 줄줄이 끌고 돌아가면 부친에게 혼날 테니까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과했는지 주머니의 용량을 넘어섰고 그게 하필이면 그녀가 파티에서 짐을 맡길 때, 펑!"

"그래서 어떻게 됐어?"

워로드가 마침 금 간 마석 조각을 찾아 매니시에게 건네며 물었다. 그녀는 신나는 얼굴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대답했다.

"그녀가 새로 산 옷들이 사방을 날아다닌 거죠. 특히 그녀가 포목점에서 새로 맞춘 부드럽고 특별한 옷들이요."

순간 매니시와 워로드의 시선이 마주쳤다. 입이 벌어진 워로드에게 확신을 주듯 매니시의 눈가가 의뭉스럽게 접혔다. 그에게서 시선을 뗀 매니시가 마저 말했다.

"입장 전이라 귀족들 사이에 소문은 덜 난 편인데 차라리 그게 나을 뻔했어요. 시종들 사이에서 터진 바람에 저잣거리에 소문이 쫙 났거든요. 모르는 평민이 없을걸요?"

매니시의 말이 끝나자 에이드는 불안한 얼굴로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더니 물었다.

"용량이 찬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미 꽤 찬 것 같은데요."

"입구가 저절로 조여든대요. 그걸 무시하고 벌려서 더 넣으면 주머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거기까지 가지만 않으면 터지는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갖고 싶었던 거라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오히려 주머니의 인기가 올라가서 가격이 폭등했어요."

"돈은 꽤 버시지 않았습니까?"

"그야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간 확장이 되는 주머니인 걸 감안해도 그 가격은 저한테 너무 사치스러워요."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주머니를 들여다보던 매니시는 한을 풀고 가겠다는 듯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를 지켜보던 워로드가 그녀에게서 주머니를 빼앗아 들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무언갈 빼앗다니, 그는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 매니시와 에이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의아한 시선들을 받으며 워로드가 한 일은 주머니를 거꾸로 터는 것이었다.

"아니 언제, 뭐 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의 주머니 밑에는 에이드의 손에서 강탈한 마법 주머니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에이드의 울분에 찬 고함과 함께 여태껏 정성 들여 모은 보물들이 후두둑 쏟아져 또 다른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금 조여드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급박한 외침과 함께 엄지손톱만 한 마성구 하나가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통과했다. 꽉 조여든 입구가 살아있는 듯 단호해 보였다.

"자."

볼 일을 마친 워로드가 주머니를 그에게 던지자 그것은 속이 불편한 동물처럼 가죽을 꿀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에이드가 소리쳤다.

"이거 어떡합니까! 토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열어서 좀 빼내 봐요!"

매니시는 멀찍이 선 워로드의 등 뒤에서 얼굴만 내밀고 외쳤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폭발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었다.

"힘내."

워로드의 무책임한 응원을 받으며 에이드는 주머니를 풀고 심호흡을 했다. 아까까지 평범하기만 했던 주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입구를 뻐끔거려 손을 넣기가 더욱 꺼려졌다.

인상을 한껏 찌푸린 그가 손을 집어넣자 가죽의 요동이 더 심해졌다. 금방이라도 탈출 직전의 폭풍이 재현될 듯했다. 워로드의 등에 얼굴을 묻은 매니시의 귀로 허탈한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 뒤집어서 빼냈어도 되는 거잖아요?"

살짝 뜬 눈 사이로 보인 것은 짐승의 내장 같은 것을 든 에이드의 붉은 손이었다.

매니시가 지른 비명이 마법의 막에 막혀 울렸다. 에이드는 그보다 큰 소리로 그녀의 착각을 해명해야 했다.

"팔찌입니다, 팔찌! 루비로 만든 팔찌요."

"에이드, 그 흉악한 손 모양 저리 치워라. 팔찌면 팔찌답게 들어야지. 그렇게 드니 꼭 장기라도 뜯은 것 같군."

"…팔찌?"

매니시가 비명을 멈추고 묻자 에이드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거나 그쪽 주머니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나 에이드가 내민 붉은색 팔찌는 워로드에게 가로막혔다.

"주머니도 다 찼는데 본부 가서 비우고 와. 나머진 바지 주머니에라도 잘 챙겨라, 흘리지 말고."

"예?"

"잘 가라."

"아니,"

"잘, 가."

에이드는 워로드의 배웅을 받으며 억지로 방을 나서야 했다.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는 에이드의 한숨 소리가 여전히 맴도는 것 같았다.

귓가를 문지르던 매니시는 언제 다시 들렸는지 모를 마법 주머니를 내려다보다 돌아온 워로드에게 내밀었다.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셋이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순순히 멀어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워로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거 비워주려고. 새거가 더 좋아?"

"…이거 제 거예요?"

머뭇거리며 질문을 했을 때는 그를 향해 쭉 뻗고 있던 팔이 이미 살짝 접힌 후였다. 그녀의 팔꿈치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뾰족하게 솟으며 주머니를 완전히 품 안으로 끌어들였다.

"시종한테도 지급이 된다고요? 정말?"

"그래."

매니시는 속물적인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평소보다 멋져 보였다. 주머니를 껴안고 치아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던 그녀가 입가의 미소도 지우지 못한 채 마지막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럼 저 말고 다른 시종도 있는 거죠? 단장님 시종도?"

"앗, 저기, 마성구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둘둘 만 매니시가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한참을 베개에 얼굴을 박고 있던 그녀는 숨이 막힐 때쯤 몸을 굴려 공기를 들이마셨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 좋다..."

팔이며 다리가 말도 못 하게 무거웠다. 아무렇게나 뻗은 몸은 점점 이불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매니시의 정신은 창밖으로 고요히 떠 있는 달 위를 뛰어다닐 듯 멀쩡했다.

"앗, 저기, 마성구가!"

꽤 그럴듯한 흉내를 낸 매니시는 바람 빠지는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다시 데굴 굴러 낮은 탁자로 손을 뻗었다. 그녀와 함께 목욕재계한 마법 주머니였다.

아직 축축한 그것은 그녀의 손에 진한 초콜릿색 몸통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힛, 귀엽긴."

그의 거짓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설픈 거짓말까지 해가며 안겨준 그의 선물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사실, 거절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탐이 났다.

워로드 루푸스의 마음이.

“미쳤나 봐!”

팡팡, 매니시의 주먹이 움직일 때마다 참견 많은 먼지가 소란을 떨었다.

그녀는 홀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제 마음을 매트리스에 실컷 풀고 앓는 소리를 내며 이불을 끌어안았다. 차갑게 식은 이불은 달아오른 얼굴에 기분 좋게 맞닿았다. 동동거리는 매니시의 발재간에 곧 침대 끄트머리로 밀려났지만.

이불을 덮지 않은 몸은 금세 차갑게 식었다. 찬바람이 그녀를 훑고 지나갔다.

매니시는 흘러내린 수건을 정리하며 쉬겠다고 아우성치는 몸을 일으켰다. 촉촉한 주머니에 살짝 입술을 맞춘 그녀는 혹시 이 일로 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에이드를 통해 몰래 변상할 각오를 다졌다.

주머니를 다시 탁자에 올려놓은 매니시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활짝 열린 창문 앞에 섰다. 늦은 귀가를 서두르는 마차의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이리저리 어둠을 헤매고 있었다. 황성의 파티가 이제야 끝난 모양이었다.

덕분에 가족들에게 늦은 귀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니 그녀에겐 좋은 일이었다.

매니시는 그와 함께 보물을 찾고, 에이드의 주머니를 한 번 더 부풀린 후에 비밀 통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그녀는 파티를 다녀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꼴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늦은 시간 다른 하숙생들의 눈을 피해 매니시의 작업실에 들렸다.

'여기서 광장이 보이네.'

그녀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털고 화장을 고치는 동안 워로드는 책상 앞에 붙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봤자 맞은편 건물에 가려 끄트머리만 보이는 광장을.

그의 말에 정곡을 찔린 듯한 기분이 든 것은 왜일까.

매니시가 같은 것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는지 모를 워로드의 얼굴은 물색없이 밝았다.

"인제 그만 작업실, 옮길까..."

차가운 밤공기 사이로 흩어지는 음성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창문을 반쯤 닫던 매니시는 인적 없는 어두운 거리에 낯익은 등을 발견했다. 하나, 둘, 등은 계속해서 떠올랐다. 북적이는 인파, 소리 높여 사람을 끌어모으는 상인들, 양념 꼬치를 하나씩 든 사내와 소년.

그는 어미 잃은 새끼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그녀를 좇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은 곧 힘을 잃고 스러졌다. 떠오를 때처럼 하나둘 빛을 잃은 거리는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다. 대신 매니시는 잠든 거리에서 눈을 떼고 저 멀리 잠들지 않은 수도의 불빛을 응시했다. 지금쯤 저 어딘가에서 피로와 싸우며 일하고 있을 성실한 기사 한 명을 떠올리며,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그는 바랜 기억 위를 덧그리며 그녀를 쫓아 왔다.

"취향이란 게 참 무섭구나. 그럼 졸졸 쫓아오는 개 같은 남자가 내 취향?"

설핏 남긴 혼잣말과 함께 그녀의 창문은 굳게 닫혔다.

"화이트럼의 텅 빈 창고를 위하여!"

위하여! 축배를 드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고 있었다. 뜻밖의 수확에 수사단의 밤은 이렇게 떠들썩했다. 축배를 드는 사람, 뒷정리로 바쁜 사람,

그리고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 한편에서 혼나는 사람.

"도대체 언제부터 시종이 마도구를 지급받았습니까?"

수사단의 사무실, 축배를 드는 대신 보고서를 쓰기 위해 모인 세 남자는 에이드의 책상을 둘러싸고 수다를 늘어놓고 있었다. 특히 대표로 깃펜을 잡고 있던 에이드가 네이브의 수다에 지쳐 펜을 내려놓았을 때부터 본격적인 수다는 시작됐다.

"터진다는 걸 알고서도 그 행동은 또 뭡니까, 가뜩이나 망가진 것들 아주 박살을 내서 가져와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러나 네이브는 에이드의 수다, 아니 잔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

"에이드 씨, 그만 용서해 주세요. 단장님도 반성하고 계시잖습니까. 주머니야 그냥, 음..."

"내 봉급에서 까면 된다."

"맞아요! 그럼 되잖아요."

에이드는 깊은 한숨과 함께 깃펜을 다시 쥐었다.

에이드의 타박과 네이브의 장황한 얘기가 이어지고 워로드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였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막힘없이 움직이던 깃펜이 멈춰 섰다.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준 건 아니시겠죠?"

"아, 근처 여관에 돈을 주고 맡겼다. 내일 사람 보내 찾아와."

"제가 가겠슴다!"

네이브가 왼팔을 귀 옆에 붙이고 흔들었다.

"어느 귀족의 말인지는 아십니까?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볼까요?"

네이브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기웃거렸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다. 곧 직접 갈 거니까."

"그래서 알아봐요?"

워로드와 에이드 사이로 손을 흔드는 그의 얼굴이 애처로웠다.

"직접? 혹시 공작가입니까?"

워로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드는 깃펜을 다시 놀리며 인상을 찡그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도 헷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연인은 언제부터 되는 거지?"

워로드의 질문은 풀이 죽은 네이브조차 뜬금없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예?"

"머릿속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나. 내가 점령했는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하지? 본가에 들르면 뭐라고 소개하냔 말이야."

속사포로 이어진 그의 질문에 에이드는 황망한 얼굴로 깃펜을 놓쳤다. 네이브는 에이드가 떨어뜨린 깃펜을 주워들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잠깐만요. 두 분 이미 사귀는 거 아니었습니까? 식사며 퇴근이며 항상 함께한다고 난리였잖습니까. 그리고 본가는 무슨, 사귀는 것도 아닌데 소개를 하시겠다고요?"

"두 분?"

의문에 찬 네이브의 작은 속삭임은 이번에도 방안 누구의 관심도 사지 못했다.

"그야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본가에 동행하는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아직 본인이 초대받은 걸 모르거든."

"교제하는 사이도 아닌데 무슨 초대요! 두 분께 제대로 설명한 거 맞습니까? 갑자기 그런 제안은 매니시 영애에게도 실례입니다."

헛. 갑작스레 등장한 이름에 놀란 네이브의 입속으로 헛숨이 빨려 들어갔다.

"뭘 모르는군. 실례를 신경 쓰다간 중요한 걸 놓치는 법이다."

워로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었던 매니시의 혼잣말을 인용하며 뿌듯하게 웃었다.

에이드는 그런 워로드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존경하는 단장은 나날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와, 단장님 방금 엄청나게 있어 보이셨어요!"

때맞춰 호들갑을 떠는 네이브만이 워로드의 뿌듯함을 이해하는 듯했다. 네이브는 조금 전까지 머릿속에서 펼쳐졌던 삼각 스캔들에 대해선 잊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단장님이 말을 훔친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급할 땐 훔쳐도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매니시에게 물어보지."

"매닛..., 아까부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에이드 씨 이거 괜찮은 겁니까?"

동정 어린 시선이 제게 향하자 에이드의 기분은 급격히 나빠졌다.

"도대체 뭐가."

"저도 다 압니다, 두 사람 관계."

깃펜 끝으로 워로드와 에이드 쪽을 번갈아 찔러댄 네이브가 말했다. 에이드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을 때 워로드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안다고? 우리가 무슨 사이지?"

그러나 워로드에게는 안타깝게도 그의 '우리'와 네이브의 '우리'는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네이브는 용한 역술인처럼 눈을 좁히고 입을 열었다.

"보자보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기류가 묘한 것이 애매한 사이에 머물러 있군요. 아직 마지막 단계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뭐지?"

침을 꿀꺽 삼키며 되묻는 워로드의 질문과 함께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네이브는 내내 인상을 쓰고 있는 에이드를 노려봤다. 그의 단장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시큰둥하던 여자에게 눈을 다 돌렸을까.

그가 제대로 나서야 할 때였다.

"본인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에이드의 눈치를 본 네이브는 셋뿐인 사무실에서 의미 없이 목소리를 죽였다. 워로드와 에이드의 수그러든 고개가 귓속말이라도 할 듯 가까워졌다. 그에 콧방귀를 뀐 에이드가 네이브의 손에 들린 제 깃펜을 도로 빼앗아 들고 말했다.

"흰소리 그만하고 매니시 영애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나 하십시오."

"에이드 씨!"

네이브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외쳤다. 그 순간 뒤돌아 어깨를 떠는 에이드는 네이브의 심금을 울렸다. 비록 에이드 본인은 바보들의 대화에 끼어들기 싫어 돌아섰고, 뒤이어 눈에 띈 티끌을 털어내기 위해 깃펜을 흔들어댔을 뿐이었지만.

"에이드 씨가 그런 각오라면 더더욱 제가 그 단계를 알려드려야겠군요."

한껏 비장한 가운데 네이브의 입꼬리는 방정맞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부터 에이드의 불안감은 정수리를 치고 올라갔다.

"뜸 들이지 말고 말해."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바로, 으흠!"

헛기침을 하며 워로드에게 다가간 네이브가 에이드의 눈치를 보며 작게 입을 열었다. 에이드는 동정이 가득 담긴 그의 눈빛만 보자면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또 그가 어떤 황당한 발언을 할지 몰라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나 손으로 입을 가린 의미가 무색하게 네이브의 속삭임은 또렷하게 들려왔다.

"뽀뽀! 상대방이 뽀뽀를 해주면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연인으로."

"!"

페니에게 덮쳐지던 순간을 떠올리는지 얼굴이 발갛게 된 네이브는 연신 달콤하게 중얼거렸다. 심각한 얼굴로 그를 담아두는 워로드의 귀불은 네이브만큼이나 붉었다.

"하..."

에이드의 연이은 한숨 때문일까, 차가운 새벽 공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다.

벌써 며칠째 펜을 쥐고 책상에 엎어져 잔 매니시는 뻐근한 어깨를 두드리며 식당에 들어섰다. 기사단의 식당은 첫날부터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녀에겐 낯선 곳이었다.

다행히 그녀가 어제부터 드나드는 이른 아침 시간은 식사하는 사람이 몇 없는 안전한 시간대에 속했다. 그러나 주방에서 무거운 식기들이 부딪치는 소리라도 들릴라치면 작은 동물처럼 흠칫흠칫 놀라는 매니시는 기사들에게도 좋은 구경거리였다.

어제보다 식당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때문이기도 했다.

"프릴 경의 식사는요?"

쭈뼛쭈뼛 배식구로 다가간 매니시가 인사와 함께 건넨 말에 바쁘게 움직이던 조리사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역시도 어제부터 안면을 익힌 주방의 어린 조리사였다.

"여기, 잠 잘못 잤어요? 피곤해 보인다."

조리모 밑으로 삐져나온 곱슬머리가 땀에 절어 반짝이는데도 두툼한 고깃덩이를 내온 소년의 입가에는 상쾌한 미소가 걸려있었다. 매니시는 그를 따라 웃으며 따듯한 접시를 받아 들었다.

"조금. 오늘은 어제보다 사람이 많네?"

시끄러운 주방에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익숙한 소년을 따라 큰 소리로 묻자, 소년이 그녀를 손짓해 불렀다. 그의 손짓대로 귀를 기울인 매니시에게 그가 말했다.

"예쁜 하녀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있는 일이에요. 한동안 꽤 귀찮을걸?"

키득거리는 소년의 뒤로 주방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눈을 크게 뜬 소년은 쓴 약을 삼킨 것처럼 짧은 신음을 흘리고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수고해!"

소년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친 매니시는 간신히 핏기만 가신 거대한 스테이크를 들고 돌아섰다. 그녀를 흘긋거리던 몇 명의 기사들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난처한 미소를 띨 수밖에 없었다.

어린 조리사의 말은 틀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새로 들어온 하녀가 아니었으니까. 워로드의 명령으로 소문은 퍼지지 않았지만, 몇몇 기사들은 사교계에서 마주친 매니시의 정체를 알고 있을 테였다.

접시를 들고 걸어가는 그녀를 따라 시선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매니시는 식당을 벗어나 참고 있던 숨을 뱉으며 발을 빠르게 놀렸다.

뒤늦게 만난 그녀의 직속 상관은 그만큼 까다로운 식성을 자랑했다.

"프릴 경, 밥 먹어요."

잔디 위에 접시를 내려놓기 무섭게 곰처럼 두꺼운 다리가 그 옆을 차지했다. 매니시의 머리칼만큼이나 길고 풍성한 꼬리는 살랑일 때마다 바람이 일고 있었다.

화단 턱에 걸터앉아 그를 지켜보던 매니시는 어느새 흐뭇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맛있어?"

크르릉. 그녀의 말에 이빨을 드러내고 고기를 뜯던 그가 그르렁거리며 목을 울렸다. 매니시는 ‘합’하는 소리와 함께 손으로 제 입을 막았다. 언짢은 눈으로 그녀를 노려본 프릴은 식사를 이어갔다.

조용히 손을 내린 매니시는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직속상관의 출근 소식에 부랴부랴 안내된 곳은 빨래터로 쓰이는 후원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망아지만 한 크기의, …개였다.

낯선 이의 등장에 이를 드러냈던 프릴이 그녀를 제 부하로 인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매니시의 존댓말이 그 이유였다.

프릴은 전쟁의 포화 속에 어미를 잃은 새끼 마수였다. 병사에게 발견된 그는 곧 황실에 바쳐졌고 로망 황녀의 애완동물이 되었다. 거기서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프릴이라는 귀여운 이름도 아직 배냇털이 꼬불꼬불한 그를 보고 로망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이, 프릴. 밥 먹냐?"

존칭어가 안 달린 제 이름과 반말을 무척 싫어했다.

고기를 뜯던 프릴의 입에서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음산한 소리가 울리고 그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 짧은 행동의 반응은 좀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반말의 주인공에게서 나왔다.

"아!"

이콜로지가 불긋해진 이마를 부여잡고 있었다. 그의 발 근처에는 프릴이 뜯던 고기의 뼈가 굴러다녔다.

"그러게 프릴 경이 싫어하는데 짓궂게 왜 그러세요."

"나만 그래? 이 건물에 칼 쓰는 놈 중에 얘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만!"

가까스로 황녀에게서 벗어난 프릴의 또 다른 고통은 그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다. 무심한 기사들은 오히려 프릴의 고통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신관님은 칼 안 쓰시잖아요."

"…날씨가 좋네. 빨래 잘 마르겠다."

말을 돌린 이콜로지가 품에 끌어안고 있던 신관복을 팍팍 털었다. 젖은 빨래의 물기는 매니시의 얼굴까지 날아들었다.

"이쪽으로 털면, …신관님?"

의문에 찬 목소리였다. 따져 묻던 것도 멈추고 그녀의 정신이 팔리게 한 것은 빨랫줄에 갓 넌 이콜로지의 옷이었다. 짧은 신관복에는 세탁 후에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들이 많았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매니시가 그의 옷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얼룩, 피에요?"

여전히 정신을 다른 데 둔 것 같은 그녀의 질문에 이콜로지는 능청스럽게 얼룩의 정체를 밝혔다.

"그건 참교육의 흔적이랄까, 치열한 인생의 증거랄까. 거룩한…, 피 맞아."

"혹시 2년 전에 길에서 여자 한 명 구해준 적 없어요?"

"이것만, 이것만 전해주면 안 돼?"

"안 돼."

에이드는 벌써 몇 번째일지 모를 거절의 말을 되뇌었다.

"주소 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대신 전해주는 것도 안 되면 이거 어떡하라고!"

안으로 둥글게 말린 짧은 머리의 여자가 빽 소릴 질렀다. 그녀는 예쁘게 포장한 수제 초콜릿을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이고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의 그녀가 이렇게 나올 때면 그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이를 갈고 마는 에이드였다.

"그러게 왜 오빠 허락도 없이 그런 걸 만들어."

포크를 내려놓은 에이드는 입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여동생은 곧장 따라 일어나 그의 뒤를 졸졸 따랐다.

"직접 말하기 싫으면 힌트만. 응? 내 평생소원이야. 오빠 제발."

떼쓸 때만 누릴 수 있는 동생의 안마를 받으며 에이드가 입을 열었다.

"힌트, 여자다."

에이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깃펜을 찾던 동생은 벌컥 화를 냈다.

"어머, 여자… 그건 아는 거잖아!"

"힌트, 아가씨다."

"그것도 아는 거야!"

"진짜 아가씨라고. 귀족 아가씨."

"아가씨?"

그녀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말의 배신감과 기대, 흥분이 뒤범벅된 표정이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드러낼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아가씨들 사이에 가서 괜히 큰코다치지 말고."

"…오빠 미워!"

그녀는 촉촉한 눈을 하고 그에게 소리쳤다. 돌아서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가 들으라는 듯 요란했다.

"하아아."

오늘도 그의 하루는 한숨과 함께 시작되었다.

'두고 봐.'

불길한 한 마디를 남긴 여동생의 배웅을 받고 출근한 에이드는 소포 하나를 들고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소포는 익숙하게 그의 책상에 올라가 껍질을 벗었다.

"이번엔 다 쓰지도 못하셨는데."

저 혼자 중얼거리는 에이드의 손에 놓인 것은 워로드의 쥐색 손수건 다발이었다. 매달 손수건을 보내오는 사람의 정성은 알지만, 매니시가 온 이후로 워로드가 잉크를 쏟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다.

에이드는 손수건을 다시 포장해서 그의 책상 서랍에 넣고 몸을 일으켰다. 이제 조용히 그를 기다린 자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섬세하게 뻗은 이목구비, 다름 아닌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찬 서류 더미였다. 한 장씩 바닥에 깔아 글자를 만들면 사직서도 쓸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의 서류.

"하아. 화이트럼 이..."

가장 위에 있던 서류가 에이드의 손에서 처참하게 구겨졌다. 그가 흐린 말은 이보다 더 구겨진 감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에이드는 그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대신 그가 구긴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거친 손길로 다시 펼 뿐이었다.

한참 조용한 집무실에는 그의 깃펜 움직이는 소리가 전부였다. 그 일정한 소음의 굴레를 깬 것은 갑작스러운 방문자의 등장이었다.

"단장님!"

에이드는 아는 척도 않고 사무실을 가로질러 워로드의 방으로 직행한 이는 네이브였다. 그러나 의기양양하게 문을 열어젖혔던 그는 곧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서야만 했다. 방 주인의 부재 때문이었다.

"에이드 씨, 단장님은요?"

"요새 네가 잡은 포로 취조하느라 종일 바쁘신 거 몰라?"

곧 납득한 듯한 탄성이 들렸지만, 에이드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 집중했다. 화이트럼에게서 털어온 값나가는 것들이 국고로 환수되기 위해서는 일일이 목록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의 영예로운 업적은 과중한 업무를 동반하고 있었다.

"흠, 단장님이 안 계시는구나. 어떡한다?"

네이브는 멀쩡한 목소리를 다듬고 헛기침을 해가며 똑같은 말을 몇 번씩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에이드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더 무시했다가는 네이브의 성대가 제 기능을 못 하겠다는 에이드의 가정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

"그래. 안 계신다고. 이번엔 뭔데?"

한숨과 함께 서류에서 눈을 뗀 에이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네이브였다. 에이드는 네이브의 눈동자 대신 그의 볼에 남은 빨간 얼룩에 시선을 맞췄다.

노골적으로 속이 드러나는 자세였다. 에이드는 그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줬다.

"그건 뭐지?"

"앗, 깜박했다. 별 건 아니고 그냥 입술 자국이죠, 뭐. 많이 티 나요? 하하. 이거 참, 깜박하고 그냥 왔네요."

어색한 말투에 필사적으로 끌어내린 입꼬리, 벌렁거리는 콧구멍이 가당치도 않았지만 에이드는 한번 더 참고 말했다.

"'페라'의 그 아가씨?"

"소문이 그새 여기까지 퍼졌나요? 거참. 사실 오늘 단장님께 뽀뽀를 받는 비법에 대해 특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언제쯤 오실까요?"

소문의 유포자는 뻔뻔한 얼굴로 단장의 행방을 물었다. 그 순간 에이드는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의 손이 저절로 책상 한쪽에 놓아둔 수첩을 향했다.

"…단장님은 아직, 그놈이 끈질기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다물지 못한 입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하다 네이브의 발길이 돌아서자 뒤늦게 소리를 냈다.

"뭔데."

"네?"

"비법."

에이드는 이미 수첩을 펴들고 받아적을 준비를 끝낸 채였다. 네이브의 벌어진 입으로 짧은 침묵이 먹혀들어 갔다. 곧 그의 눈동자는 에이드가 지긋지긋해 하는 동정으로 물들었다.

"단장님에 대한 마음, 접으신 거 아니었습니까? 저도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에이드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2년 동안 이름 모를 소년만 쫓던 상관이 처음으로 내비친 마음이었다. 그런 워로드의 연애사업을 대하는 에이드의 자세는 경건하고 비장했다. 네이브의 거센 방해에도 그의 사명감은 시들지 않았다.

버럭 소리 지르는 것에도 한숨 쉬는 것에도 질린 그가 눈을 감고 평온을 가장해 말했다.

"아니라고."

그는 몰랐지만, 그 모습은 네이브가 눈시울을 적실 만큼 애잔한 모습이었다. 네이브는 침울한 얼굴로 입술을 뗐다.

"오늘은 꽃을 선물했더니 뽀뽀를 해줬습니다. 어제는 제가 먹는 모습이 귀엽다고, 그제는…"

뚝. 깃펜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네이브는 말을 흐리며 깃펜의 주인을 살폈다. 그의 생존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 그제는 별로 안 궁금하죠? 하하, 처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가게에 웬 건달이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구요. 그때 제가 나서서 쓱싹, 아시죠?"

그새 침울한 분위기를 벗어버린 네이브는 질문과 동시에 에이드가 필기 중인 수첩을 발견했다.

의사 표시는 분명히 (말로 하거나 편지 등)

선물을 자주 할 것 (꽃, 보석 등)

칭찬을 자주 할 것 (구체적일 필요 있음) 단, 허무맹랑한 칭찬은 분노를 살 수 있으니 주의!

그가 펼친 페이지에 빼곡히 적혀있는 것은 안쓰러운 노력의 흔적이었다. 네 번째 줄에 ' 구조 상황 연출 (필요시 건달 투입)'을 적고 있는 에이드의 정수리를 보며 네이브는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속삭이듯 튀어나온 말에 의아한 에이드가 고개를 들었다.

"단장, 아니 나보다 강한 상대한텐 안 통할 텐데… 그리고 꽃이랑 보석도 좀..."

"아니라고!"

질문에는 반쯤 확신이 섞여 있었다. 저런 불량한 신관이 또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됐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도 그녀의 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있지. 내가 항상 하는 일이거든."

게슴츠레한 눈에 낮은 목소리가 하녀들이 들었으면 또 자지러질 모양이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제 입술을 쓰다듬는 그의 손등을 때려 떨어트리고 다그쳤다.

"장난치지 말고 잘 생각해 봐요."

"글쎄. 그때는 내가 한창 혈기왕성한 때라."

태평하게 머리를 긁적이는 그에게 매니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다.

"하얀 머리를 내려뜨린 덕에 창녀로 착각 당했던 여자요."

어딘가 다급한 매니시의 목소리에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기억을 스치는 여자가 있었다. 외면당하던 불쌍한 여자. 그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 멋대로 동정했고, 귀족이었다는 사실에 멋대로 경멸했던.

못 알아본 게 이상할 정도로 똑 닮은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그 신분 애매한 여자?"

매니시는 제게로 향한 그의 손가락과 놀란 눈동자를 보며 기쁘게 웃었다. 넓은 제국 땅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인연과의 재회는 그랬다.

"그때는 고마웠어요."

오래 묵은 감사 인사에 그는 허탈한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 귀족이었네."

"누구보다도. 저는 레우카스니까요."

감사 인사보다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래서 그를 잊지 못한지도 몰랐다.

이콜로지는 개운한 얼굴로 답하는 그녀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레우카스라는 이름은 그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평민들 사이에서 주워들은 그 이름은 귀족을 혐오하는 그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아. 그야말로 귀족이지, 레우카스는."

"네. 레우카스로 태어난 건 더없는 영광이죠."

거만스레 어깨너머로 머리를 넘긴 매니시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쑥스러움과 약간의 장난기가 담겨있었다. 이콜로지는 빨랫줄에 널린 제 신관복을 쓸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좋겠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의 농담이 이어지지 않았다. 또 능청스레 대화를 이끌어나갈 줄 알았던 그는 어딘가 푹 젖어 든 눈빛이었다. 매니시는 그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타박했다.

"놀리는 거죠? 후작가 자제가 무슨."

다시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간 그녀는 천천히 고기를 뜯는 프릴을 구경하며 저를 따라온 기척을 느꼈다. 그는 매니시의 빈 옆자리를 채우며 입을 열었다.

"놀리긴. 귀족이라고 다 레우카스처럼 영광된 건 아니야.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이 끝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멍하니 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에 올 말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떤 이들이 그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뒤에 올 말은 앞 구절의 반대.

그는, 제 뿌리를 수치스러워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겠죠, 저처럼."

장난스럽게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는 창에라도 찔린 사람처럼 몸을 움찔했다.

"언제까지 여기서 죽치고 계실 거예요? 어제 가보니까 보육원 애들이 신관님을 애타게 기다리던데."

"…어떤 이들은 끔찍한 위선자지. 나를 포함해서."

차가운 음성이 그의 괴로움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겐 미안하게도 매니시는 그의 괴로움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투둑, 찌익, 쩝쩝.

한쪽 귀로는 한 남자의 고통이, 한쪽 귀로는 한 마수의 식사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콜로지의 고통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었던 매니시는 어설픈 위로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제가 글을 좀 써요. 생업 때문에."

매니시는 이콜로지의 눈치를 보며 침을 삼켰다. 그녀로서는 처음 꺼내는 깜짝 발표였다. 고뇌에 잠긴 그가 귀담아들을지는 미지수였지만.

"곧 출간될 거니까 자진 신고할게요. 거기에 당신을 모델로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제야 그의 시선이 매니시를 향했다. 매니시는 귀족의 신발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의 낡은 신발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양아치로."

"뭐?"

"아, 실수. 양아치 같은 신관으로요."

명백히 그를 지칭하는 표현에 이콜로지의 미간이 조여들었다. 식사 중이던 프릴이 갑자기 애교스러운 목울음을 내며 몸을 뒹굴었다. 이콜로지는 그것이 마치 배를 잡고 뒹구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래, 나 양아치다. 좋냐?"

비꼬는 말투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제게 말하는 줄 알았던 매니시가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확인하곤 조금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귀가 좋은 프릴 경에겐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양아치 같은 거지 양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신관이에요. 주먹질에 무전취식, 직권 남용을 일삼는 것만 빼면."

"야! 난 그래도 무전취식은 안 해."

"신관님 말고 제 책에 나오는 사람이요. 조용히 좀 해 봐요."

식사를 마친 마수의 콧방귀 소리가 들렸다. 이콜로지는 찢어진 눈을 더 길게 늘리려는 사람처럼 측면으로 커다란 개와 눈싸움을 시작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건 사람들을 싫어해서예요. 그는 사람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질릴 만큼."

"순진한 신관한텐 세상이 좀 자극적인가?"

어느새 눈싸움을 끝낸 이콜로지는 비웃고 있었다. 평범한 신관이 볼 수 있는 악은 어디까지일까. 책 속의 신관은 세상을 싫어했지만, 그는 혐오하고 있었다.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저도 잘 몰라요. 제 상상은 거기까지였으니까. 나머지는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태어나겠죠. 분명한 건 그 신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이콜로지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매니시를 향했다.

"…왜? 내가 그렇게 보였어?"

책 속의 신관은 어느새 이콜로지 그가 되어 있었다. 매니시도 그를 향해 말했다.

"처음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의 난 영주성 밖의 세상이 낯설고 무섭고 싫었거든요."

스스로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코는 빨갰다. 매니시는 그 빨간 코를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낸 인물을 떠올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지자 그에 대한 애정이 솟구쳤다.

"그런데 당신을 글로 옮기고 탐구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나를 구해줬잖아요."

차가운 봄바람이 빨랫줄에 걸린 신관복을 흔들고 달아났다.

"그건 그 새끼가 아니꼬워서 그런 거야."

"나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싫으면 아무도 구해주지 말아야죠. 그냥 무시하고 갔어야죠. 그때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난 못 해."

그가 입고 있는 신관복을 꽉 움켜쥐었다. 조인 몸이 답답해 보였다.

"거봐, 당신에게만 박하게 굴고 있잖아요. 신관복을 벗고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피나 묻히고 다니고, 욕먹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꼭 스스로 벌주는 것처럼."

"그랬나?"

그가 웃었다. 매니시는 그의 소매 끝에 묻은 갈색 얼룩을 가리켰다.

"이 핏자국이 당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상처투성이 신관."

"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박하네."

이콜로지는 입을 크게 찢고 킬킬거렸다. 그가 상황을 모면할 때 자주 짓는 경박한 웃음이었다.

"좋은 거죠! 제 신관이 상처투성이가 된 건 정이 아주 많아서거든요."

매니시는 화제를 책 속의 신관으로 돌려놓고 빙그레 웃었다.

"상처도 사랑이 주는 거잖아요."

말을 마친 매니시가 오그라든 손을 보여주며 웃을 때, 옆에서 '켁' 하고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로 누운 프릴이 네발을 오므린 채 혀를 빼물고 있었다. 실감 나는 죽은 척이었다.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진 매니시가 그 위로 엎어져 다투기 시작했다. 예쁜 여자와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잔디 위를 뒹구는 모습은 제법 보기 좋은 광경이었으나 그들은 나름 치열했다.

"너무해! 내가 엄청 엄청 어엄청나게 아끼는 등장인물이라고요!"

매니시가 프릴을 굴리기 위해 빨래하듯 뱃가죽을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은 프릴이 오히려 그녀의 머리만 한 발을 들어 덮치자 매니시의 작은 머리는 속절없이 하얀 털 사이로 빨려 들어갔다.

마수의 품속에서 기분 좋은 비명이 울렸다. 그녀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프릴은 투정을 부리는 와중에도 존댓말을 잊지 않는 부하를 위해 가볍게 몸을 굴렸다.

"하하, 네가 거기 있으니까 꼭 프릴의 가슴 털 같다."

이콜로지의 웃음 섞인 말에 털 속에 파묻혀있던 매니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묻혀있던 곳은 온통 까만 프릴에게서 유일하게 하얀 가슴 털 부분이었다. 그녀의 긴 머리칼과 섞인 마수의 털은 제법 윤기가 돌아서 길이가 아니라면 구분을 짓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장난스럽게 키득거린 매니시가 다시 프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가 무거운 분위기를 떨쳐낼 수 있도록 부러 익살을 떠는 듯한 그녀 덕에 이콜로지는 제법 가벼운 어조로 입을 뗐다.

"'만찬'까지만 해도 여자가 글 쓰면 큰일 날 거 같더니 요즘은 많이 바뀌었나 봐? 책 제목이 뭐야? 이 오빠가 책 나오면 읽어줄게."

"…파하, 숨 막혀. 오빠는 무슨, 그리고 신관님은 이미 읽었어요."

"내가? 아직 출간 전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신관이 등장하는 3부 얘기고, 2부까진 읽었다면서요. '만찬'."

그는 매니시의 대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썹만 들썩였다. 그리고 한 박자 후에 일어나 치마를 털던 매니시는 처음 보는 덜떨어진 얼굴의 그를 목격할 수 있었다.

"하하하, 뒤통수 맞은 얼굴이네요? 하긴 나도 죽다 살아나기 전까진 이걸 내 입으로 말하게 될 줄 몰랐어요."

매니시는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웃었다. 이콜로지는 그 시원스러운 미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덜떨어진 얼굴만큼이나 맥없는 손가락은 짧은 순간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아, 아가씨?"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에요. 신관님께는 여러모로 신세 진 게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매니시는 저를 향한 집게손가락을 잡아서 이콜로지의 코앞에 세로로 세워놓았다. 넋 놓고 당하던 그는 매니시가 손을 놓기 무섭게 손가락을 떼고 소리쳤다.

"기다려!"

그 박력에 몸을 움찔한 매니시에게 순식간에 일어난 그의 뒤로 쫙 펼쳐진 짧은 로브가 인사를 대신했다.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며 빨랫감 사이로 사라졌던 이콜로지는 흔들리는 빨랫감이 멈추기 전에 다시 돌아왔다.

매니시는 헐떡거리는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거지한테 책을 줘버리는 바람에 1부가 없거든? 지금 당장 사러 갈 거야. 사인해줄 거지?"

그가 왕창 쏟아내는 말에 매니시는 큰 눈을 끔벅거렸다.

"거지, 사인? 지금?"

"가자."

이콜로지는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매니시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 악마의 자식,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어라! 죽어, 신께서 네놈들을 용서치 않을 거다!"

쾅. 닫힌 문 너머로 요란한 쇳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놈이 또 의자를 집어 던진 모양이었다.

취조실 앞을 지키던 단원은 얼어붙은 워로드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첫째 날,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지키던 놈은 둘째 날 들어온 워로드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

"워로드 모나쿠스!"

그것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 만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놈 때문이야! 모두 네 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인데 네가 우릴 벌할 자격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 풀어!"

워로드는 문 너머 남자의 발악이 안 들리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다른 소리는 없었나?"

"예."

"이상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잘 지켜봐."

명령을 내린 워로드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발을 놀렸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워로드 모나쿠스!'

원한 맺힌 목소리가 부르짖은 것은 루푸스가 아니라 모나쿠스였다. 전쟁영웅 루푸스 백작이 아니라 전쟁 사령관 모나쿠스. 그를 원망할 이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저주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화이트럼의 수하로 시작해서 그의 칼에 스러진 적군의 것이 되었다가 탈영병의 것이 되었다가,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떤 어미의 것이 되었다.

숨이 조여들었다.

그는 목깃을 풀어헤치며 눈앞에 있는 문을 열어젖혔다. 물기를 머금은 시원한 바람이 이마를 스쳤다. 후원으로 나온 워로드를 맞이해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가자."

이콜로지가 매니시의 손목을 잡아끌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을 찌푸린 워로드보다 매니시의 대응이 빨랐다.

"아니 이 가출 신관이! 혼자 하는 건 지겨워서 남까지 끌고 가출하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매니시의 입은 다음 임무를 찾아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악! 개냐?"

이콜로지가 선명하게 남은 잇자국을 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코웃음 소리가 뒤따랐다. 이콜로지는 여전히 매니시의 손목을 쥔 채로 단 하나 있는 용의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프릴은 식사 후 달콤한 낮잠에 빠진 채였다. 매니시와 놀던 자세 그대로 배를 드러내고 잠든 마수는 크기만 아니라면 꽤 귀여운 모습이라 이콜로지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웃음소리의 주인은 곧 제 발로 모습을 드러냈다.

"꼴 좋군."

"단장님!"

매니시의 반가운 목소리가 그를 반겼다. 심장이 쫄깃했던 황성 파티날 이후 사흘 동안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그들이 서로를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해 보여요."

그는 통로에서 탈출한 직후보다 더 지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헛된 걱정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의 입에서 매니시의 이름자가 흘러나온 순간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피어났다.

"매니시."

눈앞에서 그 꼴을 목격한 이콜로지는 헛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그들 사이에 껴있던 그의 존재가 재차 두드러지고 있었다. 워로드는 달콤함에 취해 잠시 잊고 있던 이물질을 바라봤다.

물린 와중에도 이콜로지의 손은 꿋꿋하게 매니시를 붙들고 있었다. 워로드는 손날을 세워 그 엄한 손을 응징했다. 매니시가 물어도 떨어지지 않던 손은 쉽게 떨어져 나갔다.

"아! 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워로드의 도움으로 손이 자유로워진 매니시는 이번에는 제 의지로 이콜로지의 팔을 붙들고 그에게로 이끌었다.

"저 단장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했는데 안 통해요. 이럴 땐 어떡해요?"

이콜로지는 그의 손으로 결과물 보고라도 하는 듯한 매니시를 황당하게 바라봤지만, 워로드는 부하의 보고를 아주 흡족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물론 부하의 질문에 상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좋은 질문이야. 그럴 땐 이렇게 손가락을 꺾어. 그래도 안 통하면 파고들면서 명치를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도 상대가 멀쩡하면… 마지막 기회야, 가차 없이 차."

수사단장과 말단 부하는 이콜로지의 몸을 교본으로 유익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콜로지의 손가락을 놓고 설명을 잇는 워로드는 이번에는 그의 명치를 향해 위협적인 속도로 팔꿈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이콜로지가 물러난 것은 오로지 생존 욕구에 의한 움직임이었다.

팔꿈치를 거둔 워로드는 그가 뒤로 물러날 줄 알았다는 듯이 바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 워로드의 무릎이 허공을 찍었다. 그 허공이 정확히 조금 전 이콜로지의 중심이 있던 자리라는 것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네!"

"…좀 망설여. 오빠한테 정말 너무하네."

"누가 오빠라는 거지?"

"그러게. 전 오빠 없는데요?"

속에 든 이야기와 상관없이 후원의 공기는 따듯했다. 빨랫감 사이로 세 남녀의 웃음소리가 퍼져 나갔다.

후원을 둘러싼 담벼락 너머까지.

"행복한가 보네."

깊게 눌러쓴 중절모 아래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남자의 혼잣말은 부드럽고 경쾌했지만, 아래로, 더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조용한 그의 주위로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의 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남자는 담벼락에 기대고 있던 몸을 떼고 지나치는 병사의 어깨를 살짝 쥐었다 놓고 말했다.

"수고가 많네."

"예? 아닙니다."

얼떨떨한 병사의 대답을 뒤로하고 남자는 맞은편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깊게 심호흡을 한 매니시가 깃펜을 들었다. 작업실 창으로 기분 좋은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다. 느낌이 아주 좋았다. 지난 며칠 밤을 새우며 쓴 조각 글에 옷을 입히기도 좋은 날씨였다.

"떨이에요, 떨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펜을 놀리던 매니시는 갑작스레 귀에 꽂힌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사이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매니시는 기지개를 켜며 고개를 젖히고 저무는 하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 말고도 퇴근 시간인 사람이 많은지 부랴부랴 하루를 마감하는 소리가 요란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방은 시장통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의 다급함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마음의 소리였으니까. 매니시도 그 다급한 박자에 올라타고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잉크병을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두며 워로드를 떠올린 것은 부지불식간의 일이었다.

잉크 얼룩이 곳곳에 남은 그의 책상에서 일을 본지도 좀 되었다. 화이트럼의 창고를 찾은 이후 그는 무척 바빴으니까. 그 덕에 매니시는 그와 함께 퇴근하기는커녕 연일 조기 퇴근 중이었다.

오늘 잠깐 마주친 것만도 행운이라고 느낄 정도였다. 무슨 일인지 그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아."

그와 우연한 만남까지 떠올린 매니시는 치마의 안쪽에서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워로드가 선물한 마법 주머니는 그녀의 주먹 두 개가 겨우 들어갈 듯 작아서 겉치마의 안쪽에 달아도 전혀 티가 안 났다.

"단장님이 주신 쪽지가..."

마법이 걸린 주머니는 매니시의 손이 이리저리 휘저어도 아무 미동이 없었다. 곧 그녀의 손에 작은 쪽지가 들려 나왔다. 후원에서 헤어지기 전, 워로드가 그녀에게 살짝 쥐여준 것이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매니시는 숨을 들이켜며 쪽지를 펼쳤다.

나는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됐다. 언제든 시도해도 좋아.

"시도?"

쪽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의 삐죽빼죽한 글씨는 비장함이 넘쳤다.

쾅쾅쾅.

“엄마야.”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은 노크 소리에 놀란 매니시가 쪽지를 떨어트렸다. 그녀가 놀랄 소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야! 거기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집세 내놔!"

다행히 소리는 그녀의 방문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 작업실의 열악한 방음은 비단 바깥의 소리뿐 아니라 옆 방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이 사기꾼 자식! 이따가 저녁 달라고 기어 나오기만 해 봐."

구시렁거리던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문을 걷어찼는지 큰 소리를 내고는 멀어졌다. 매니시는 괜히 움츠러든 몸을 펴고 쪽지를 주워들었다. 긴 그림자가 함께 몸을 굽혔다 일으키고 있었다.

"일찍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 그림자를 발견한 매니시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그림자뿐 아니었다. 창밖의 크고 작은 그림자들은 매니시의 속도 모르고 길게 몸을 늘이고 있었다.

창문에서 눈을 뗀 매니시는 책상 정리를 마저 끝내고 티 나지 않게 두둑해진 주머니를 다시 치마 안쪽으로 숨겼다. 그즈음 워로드의 쪽지는 주머니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취를 감췄다.

외투를 챙겨 든 매니시는 문단속을 하며 옆방으로 향하는 시선을 막을 수 없었다. 굳게 닫힌 문이 호기심을 더했다.

"관심 두지 마. 얼굴만 멀끔하지 한량에 사기꾼 같은 놈이니까."

가까이서 속삭이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매니시가 가슴을 부여잡고 두리번거렸다. 곧 그녀는 자신의 왼발치에 쪼그려 앉아있는 집주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코앞에 손가락을 세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내곤 또 말이 없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세 받아야지."

"여기서요? 계속?"

고개를 끄덕인 집주인은 매니시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든 말든 관심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머쓱해진 매니시는 그녀를 응원하고 하숙집을 벗어났다.

좀 이상한 하루라고 생각하며 매니시도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었다. 어쩌면 그대로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 집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귀가 시간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또다시 늦춰졌다.

"레우카스 영애?"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매니시가 그를 발견했다.

"코로네 경."

"바이올런스로 충분합니다."

반가운 얼굴의 그가 손을 뻗었다. 주변을 둘러본 매니시는 그 손 위에 손을 얹는 대신 힘주어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조금 전 겪은 씩씩한 여주인에게 감화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당황한 그에게 한마디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저도 매니시로 괜찮아요, 바이올런스 경."

"…이걸로 우리가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건 좀 이르죠. 그냥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그녀가 구석으로 물러나며 하는 소리에 따라 걷던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그래요? 오래된 것 같았는데."

기분 좋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바이올런스가 입을 열었다.

"그사이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군요. 얼굴이 한결 편해 보여요, 옛날처럼."

"옛날?"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차 한 잔 어떻습니까? 그 후에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에 매니시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그가 이어 말했다.

"지난번엔 제 설명이 너무 부족했으니까요."

매니시는 짧은 고민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달그락, 두 사람의 앞에 차가 놓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서인지 찻집은 한산한 편이었다. 그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평민 차림의 매니시와 귀족 차림의 그가 함께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테니까.

"아깐 몰랐는데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조용한 찻집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를 마주하자 어색함이 몰려왔다. 매니시는 그제야 그들의 형편없는 만남들이 떠올랐다. 그것도 이제 겨우 세 번째였다.

그녀는 애써 미소 띤 얼굴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답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나 봐요."

실없는 농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선 기대 이상의 반응이 돌아왔다.

그는 워로드나 글램과 있을 때만큼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보다 편하고 뚜렷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정말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군요."

"그때요?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다소 유약해 보이던 그의 얼굴에서 그린 듯한 웃음이 지워지자 고운 얼굴선이 드러났다. 그는 긴 속눈썹을 아래로 드리우고 찻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릴 적에 몇 번. 어머니와 함께요."

"저희가요?"

동그란 테두리 안의 잔잔한 수면 위로 과거의 장면들이 지나갔다. 일찍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코로네 남작, 그들 모자를 거둬준 마리티무스 후작, 어머니를 따라간 레우카스 영지의 작은 성.

"두 분이 친하시니까, 어머니는 항상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마리티무스 후작님은 인자한 분이시지만 또 그만큼 엄격한 분이었거든요. 항상 그분의 기대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저를 쉬게 할 목적이셨겠죠."

"몇 살 때요? 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당연합니다. 영애는 아주 작았거든요. 노란색 리본을 좋아했고, 제 발로 걸어 다니기보다 안겨 다니는 일이 많았고,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매니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의 기억에 닿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지금도 레우카스 영지의 어떤 나뭇가지에 묶여있을 낡은 리본을 떠올렸다. 어린 매니시는 그 리본을 머리에 묶기보다 자작부인의 장신구처럼 제 손목에 묶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었다.

"우리가 친했나요?"

"아니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대화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 빼고요."

이제 그의 차 속에는 긴 노란 리본을 꼬리처럼 매단 꼬마 아가씨가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올런스가 찻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과거는 찻물에 뒤덮여 사라졌다.

후루룩, 탁. 그가 과거를 음미하는 동안 매니시는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흥미로웠기 때문인지 그녀의 차는 전혀 줄지 않고 있었다.

"자작님이 초대하신 만찬 자리에서였습니다.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인지 성인 남자를 유독 어려워했죠, 자작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기억엔 아주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실제로도 그랬는진 모르겠습니다. 자작님은 친절하게 제게 말을 붙여주셨고, 전 예의 바르게 대답했죠."

코피를 흘리면서.

그 말과 함께 바이올런스는 제 코 밑을 손가락으로 직 그었다. 굳은살이 박인 그의 투박한 손은 예쁜 얼굴과 지나치게 어울리지 않아 유독 시선이 갔다.

"다들 어쩔 줄 몰라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전 더 주눅 들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마 질질 짜고 말았겠죠."

"뭐가요?"

"당신이요, 꼬마 아가씨. 노란 리본을 질질 끌면서 다가온 당신이 리본 끝이 얼굴을 때릴 정도로 세게 제 이마를 짚고는 그랬습니다."

'너므 열씨미 해써?'

"제가요?"

동그래진 눈, 벌어진 입술, 의문으로 가득 찬 까만 눈동자는 그의 이마를 짚던 어린 아가씨와 겹쳐졌다.

"그래요. 덕분에 만찬 자리는 웃음바다가 되고 제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알고 보니 다들 얼어있는 저를 너무 배려해서 그런 분위기였던 거였어요. 아주,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부드럽게 굴러가던 그의 음성이 뚝 멈춰 섰다. 그전까지 부드럽게 풀려있던 얼굴도 정반대로 돌아선 것처럼 굳어있었다. 매니시는 조용한 찻집의 작은 소음에도 몸을 떨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싶어."

나직한 목소리 뒤로 그가 차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매니시는 마치 누군가에게 온몸으로 떠밀린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차를 마실 사람은 그가 아니라 저였다. 그러나 그녀는 제 앞에 놓인 찻잔조차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마른입을 힘겹게 뗐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이 글램 영애만은 아닐 거라고."

그는 그녀가 상기할 수 있도록 매니시 몫의 찻잔을 밀어주고 말을 이었다.

"복잡한 일이 얽혀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황가의 핏줄이 흐르는 모나쿠스 공작가의 젊은 형제는 황위 계승의 자격을 갖고 있죠. 그것은 황태자 전하께서 계신 바에야 사실 아무 소용없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들을 위하고 따르는 척해도 결국엔 견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매니시는 적당히 식은 차를 한 모금 넘기고 물었다.

"하지만 두 분 다 이미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정도면 상관없지 않나요?"

"첫째는 유서 깊은 모나쿠스를 잇는 것으로 훌륭히 제 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루푸스 백작님은 좀 애매합니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줄 몰랐으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죠? 다들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바로 그게 문젭니다. 그분은 영웅이에요.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게 된 실질적인 계승 서열 2위. 이제 그분이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식은 차에선 떫은맛이 났다. 하지만 매니시는 찻잔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누구보다 선대 공작 부처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이올런스는 바닥을 드러낸 매니시의 찻잔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무거운 입을 열었다.

"글램 영애는... 외동입니다. 마리티무스 후작가엔 작위를 이어줄 데릴사위가 필요하죠. 그들은 곧, 손을 잡을 거예요. 필요에 의해."

"…하."

눈을 질끈 감은 워로드는 한숨과 함께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새로 떠오른 포근한 햇살이 그의 피로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워로드는 따뜻하게 얼굴을 쓸어내리는 빛 아래서 혼몽한 눈을 뜨고 말했다.

"욕을 하도 먹었더니 배가 부를 지경이군. 오늘은 더 안 갈 테니 알아서 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요. 포로를 잡은 지 벌써 나흘짼데 보고서에 쓸 말이 불길한 욕설 한 줄뿐이라니."

그의 앞에 서서 심각한 얼굴로 중얼거리는 에이드는 종이의 하얀 부분이 무서운 사람처럼 손을 떨고 있었다. 워로드는 자연스레 그에게서 눈을 돌리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의 저를 닮은 그 모습에 에이드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반박이 나오기 전에 워로드의 질문이 날아왔다.

"알아봤나?"

창밖으로 훈련 중인 기사들이 보였다. 기사들은 최상위 맹수의 시선을 느낀 동물처럼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시종들은 그들의 기백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워로드의 눈에는 사각 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평화롭게만 느껴졌다. 그 어디에도 전쟁의 절박함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간을 찌푸린 에이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생긴 원한이라니, 이유도 시기도 모르는 상태로는 용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마른세수를 한 워로드가 고개를 젖히고 이어 말했다.

"놈의 소지품은."

그는 취조실에 갇힌 포로의 소지품을 떠올렸다. 당장 그의 주머니에도 있을 법한 흔한 것과 마도구 몇 가지, 정체 모를 약봉지가 그것이었다.

"그 약은 웬만한 의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소문해 실력 있는 자에게 맡겼으니 곧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에이드의 대답을 끝으로 워로드의 집무실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매니시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그녀를 발견한 워로드는 저도 모르는 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등받이에 가려 그를 보지 못한 에이드는 이미 산산이 조각난 침묵을 깨기 위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그 후로 영애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 알아서 잘했으니까. 두 사람 의견 모두 적절히 수용했다."

에이드의 의도는 적절했는지 워로드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또 그만치 힘이 들어간 턱은 내려올 줄 모르고 그의 뿌듯한 마음을 표 내고 있었다. 그에 익숙한 목소리가 질문으로 답했다.

"뭐를요?"

소리는 창밖에서 들려왔다.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워로드는 소리를 따라 눈동자만 굴려 매니시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창틀을 짚고 눈만 빼꼼히 내민 상태였다.

"일찍 나오셨군요."

창문 너머로 가까워지는 매니시를 보고 있던 에이드는 태연하게 그녀를 반겼다. 그의 인사에 반사적으로 미소를 짓던 매니시는 워로드의 눈치를 보곤 천천히 일어섰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각 틀 속에서 사라졌다. 이곳으로 오려는 모양이었다.

그를 인지하자 워로드의 심장은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에이드는 갑자기 더위를 느끼는 듯 옷자락을 펄럭이는 단장을 무시하고 여백이 압도적으로 많은 보고서를 접어 들었다. 그때 매니시가 닫혀있던 집무실의 문을 열었다.

"…음, 좋은 아침이에요."

박력 넘치게 열어젖힌 문과 다르게 워로드와 시선이 마주친 매니시에겐 이 말이 최선이었다. 지난밤 그녀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감정은 모두 넘쳐흐른 것처럼 반절쯤 줄어 있었다.

"…좋은 아침."

문이 열리기 직전, 염치없는 기대감으로 입술에 침을 발랐던 워로드도 바람 빠진 공처럼 힘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 기묘한 상황에 에이드가 한발 끼어들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아, 그게 잠이 잘…, 그냥 좀 일찍 깼어요."

모처럼 화사한 색을 칠한 입술이 어색한 곡선을 그렸다. 워로드는 매니시에게서 드는 위화감을 그제야 눈치챌 수 있었다. 그녀는 평소같이 평민 여성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아름다웠다.

워로드는 그녀의 얼굴이, 특히 꽃물이 든 것처럼 선명한 입술이 어떤 희망의 뜻이라도 품고 있는 듯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매니시의 주머니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그의 쪽지는 그녀의 머리에서 밀려난 지 오래였다.

"그런데 왜 여기로 바로 왔습니까? 후원으로 안 가시고."

"아직 시간도 이르고, 모처럼 단장님이 계시길래요. 곧… 가봐야죠. 오늘도 많이 바쁘세요?"

그녀의 질문은 모호한 데가 있었다. 눈동자는 워로드를, 몸은 에이드를 향한 채였기 때문이다. 에이드는 그녀가 저를 왜 찾았을까, 달콤한 상상에 빠져 반쯤 넋이 나간 워로드의 대답을 잠깐 기다렸다가 속으로만 한숨을 쉬고 대답했다.

"오늘은 계속 여기서 일을 보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일이 많이 밀려서 영애도 후원에 들렀다 다시 오셔야겠군요."

"어머, 아니에요. 그게 제 할 일인걸요. 그럼 저는 조금 이르지만 얼른 프릴 경에게 다녀올게요."

에이드의 말에 안심한 듯한 매니시는 오늘 중 가장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돌아섰다. 엉겁결에 단장 대신 사랑의 줄을 당겨댄 에이드도 어깨에 힘을 풀고 안심할 때였다.

매니시가 열어둔 집무실 문과 일직선상에 위치한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럼 다녀오십시오, 영애."

"오라버니."

에이드의 평범한 인사 뒤로 들릴 리 없는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에이드를 바라보고 있던 매니시는 그의 얼굴이 굳는 순간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뵈어요, 백작님."

이어 들린 목소리가 저를 향하자 워로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니시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감정을 재빠르게 훑었다. 반가움이 담긴 그의 눈동자에 그녀의 입이 비죽 나왔다.

"네가 어쩐 일이지?"

"그레이프, 너!"

워로드의 나직한 음성은 에이드의 고함에 묻혔다. 그제야 매니시의 시선도 쏜살같은 고함을 따라 새로운 방문자에게로 향했다.

둥글게 말린 고동색 단발은 여린 떡잎처럼 그녀의 걸음마다 흔들렸다. 부풀었다가 가라앉길 반복하는 귀여운 머리 모양과 다르게 에이드와 꼭 닮은 날카로운 눈매는 곧 매니시와 마주쳤다.

"요즘 오라버니가 너무 바쁜 거 같아서 내가 이것저것 좀 챙겨왔어."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매니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다가와 에이드에게 어깨를 부딪쳤다.

"가만있지 말고 같이 일하는 분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너 정말…, 이래봤자 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를 악문 에이드가 동생에게만 들리게 속삭이자 그레이프는 부러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근데 네이브 경이 안 보이네요? 네이브 경 주려고 피칸 파이 구워왔는데."

"녀석이 좋아하겠군. 네 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녀석이니까."

워로드의 말에 그레이프는 싱긋 웃었다. 일부러 준비한 뇌물이었기 때문이다. 고소한 파이를 입에 문 그의 입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났군요. 무거울 텐데 일단 내려놓으세요."

두 사람의 시선 사이로 끼어든 매니시는 호들갑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레이프는 얼떨결에 제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짧은 손잡이를 넘겨받기 위해 매니시와 그레이프의 손이 엉켰다.

매니시의 엄지에 박인 굳은살이 그레이프의 부드러운 손가락을 할퀴었다. 그 순간 손가락뿐 아니라 어떤 예감이 그녀를 할퀴고 지나갔다. 그레이프는 당황 반, 고의 반으로 바구니를 쥔 손에서 힘을 풀었다.

툭. 바닥에 떨어진 바구니의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예상치 못한 것은 에이드의 반응이 매니시보다 빨랐다는 것이었다.

그레이프는 그보다 먼저 몸을 숙이고 팔을 구부려 그의 진로를 방해했다. 곧 매니시도 바닥에 흩어진 것을 줍기 시작했다.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잘 받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손을 빨리 놓아서 그런걸요."

"비켜 봐. 도와줄게."

"아냐, 다 했어."

매니시 몰래 에이드의 복숭아뼈를 꼬집은 그레이프가 때를 노리다가 손을 뻗었다. 매니시와 그녀의 손이 마지막 남은 쿠키 봉지를 사이에 두고 또다시 만났다.

엄지 안쪽의 굳은살, 다시 만져 본 그레이프는 확신했다.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저절로 올라가는 입꼬리를 참지 않았다.

"그레… 동생, 그만 놔라."

"아, 잠깐 딴생각하느라. 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워로드의 말에 깨어난 그레이프는 처음보다 다정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매니시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 에이드는 누군가 등 뒤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한기를 느꼈다.

"아니에요. 뭘, 이 정도로…"

정말 감사해 보이는 그레이프의 모습은 그녀를 경계했던 매니시의 양심을 콕콕 찔렀다. 덕분에 그녀는 상황의 기묘함을 잊고 손을 붙잡힌 채 바구니를 마저 채웠다.

원상 복구된 바구니를 바닥에 두고 일어난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뒤늦은 통성명을 이어갔다.

"그레이프라고 불러주세요. 오라버니 지인이라면 제게도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매니시 레우카스라고 해요. 전 그냥 에이드 경이나 단장님 잔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해줘요."

잔심부름이라는 대목에서 그레이프의 미간이 꿈틀했다.

"이만 됐으니 손 놓자."

책상을 돌아 온 워로드가 두 사람을 떼어놓기까지 하자 그레이프는 처음으로 그에 대한 반발심이 치솟았다. 에이드는 사춘기로 되돌아간 듯 오래전의 뾰족했던 눈을 되찾은 동생을 어깨로 슬쩍 가리고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금방 갈 겁니다."

"왜요? 네이브 경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는 길에 찾아볼까요?"

"나가요? 왜요, 아니에요! 네이브 경은 다음에 봬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계세요. 같이 피칸 파이 먹어요!"

그레이프의 우렁찬 외침이 끝나자마자 우연인지 워로드의 책상에 쌓여있던 서류 꼭대기가 흔들리더니 스르르 허물어져 내렸다. 팔랑. 허공을 넘실넘실 항해한 종이 몇 장이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그레이프는 수줍은 얼굴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래요."

매니시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전의 갑작스러운 다과회는 이어붙인 사무실 책상에서 시작되었다.

"언니, 입맛에 맞으세요?"

어느새 혼자서 호칭 정리까지 끝낸 그레이프가 여린 목소리로 질문했다. 아직 포크를 입까지 가져가지도 않았던 매니시는 모종의 부담감에 휩싸여 파이를 입에 물고 씹기도 전에 대답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정말 맛있어요."

한쪽 볼에 욱여넣어 볼록해진 볼을 보지 못한 그레이프는 환희에 떨리는 입술을 안쪽에서부터 꼭 물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 천사 같은 얼굴은 에이드가 포크를 드는 순간 불량하게 번뜩였다.

에이드는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동생의 얼굴에 바로 포크를 내려놓았다. 동생은 다시 치켜뜬 눈에서 힘을 빼고 수줍은 얼굴로 돌아가 가지고 온 바구니를 뒤지고 있었다.

"잘 드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오빠 동료분들 드리려고 쿠키도 좀 구워왔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건 따로 뒀다가 출출할 때 드시고요."

"나는?"

"지금 먹고 있는 게 오빠 거야."

"..."

에이드의 질문에 돌아온 것은 성의 없는 대답과 내용물은 파이 옆에 가지런히 차려놓고 부스러기만 남은 봉지였다. 매니시가 쿠키 봉지를 두 개나 들고 있는 것과 무척 비교되는 모양새였다.

그때 매니시가 봉지 하나를 워로드에게 넘기려 하자 그레이프가 재빨리 이어 말했다.

"단장님은 이거요."

"고맙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깨져 조각이 많이 생긴 쿠키는 워로드의 손에 들어갔다. 매니시는 그를 아쉽게 보다가 이번에는 에이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레이프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에이드와 마주친 눈을 찌푸리고 있었다.

"…저는 됐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는 집에서 자주 드셔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요? 이렇게 맛있는데, 에이드 경 의외로 복에 겨운 타입이셨네요."

말을 마치고 쿠키를 깨문 매니시는 정말로 즐거운 얼굴이었다. 그레이프의 음식 솜씨는 꽤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워로드는 한 손으로 쿠키 봉지를 꼭 끌어안고 있는 매니시에게 제 몫의 쿠키 봉지도 내밀었다. 그를 본 그레이프의 입매는 흐뭇하게 늘어났다.

"이러다 돼지 될 텐데..."

매니시는 투덜거리면서도 애교스럽게 늘어지는 목소리를 어쩔 수 없었다. 그의 배경은 미웠지만, 이렇게 작은 호의에도 혼란스러운 그녀의 마음은 데굴데굴 그에게로 굴러갔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돼지겠지. …내가 키우고 싶어."

언젠가 에이드에게 배운 달콤한 모범답안을 던지면서 돼지가 된 매니시를 상상하던 워로드는 마음의 소리를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차를 마시던 매니시의 얼굴이 홍차 빛깔로 물들었다.

바쁘게 두 사람을 옮겨 다니던 그레이프의 눈동자가 에이드를 향했다. 몰래 파이를 입에 넣고 있던 에이드는 포크로 입천장을 찌르고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따 프릴 경에게 다녀와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매니시는 작게 말한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다과회의 중심에 놓여있었던 그녀의 목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없었다.

"좋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귓불을 붉힌 워로드의 대답은 조금 늦게 돌아왔다. 귀가 좋은 에이드만이 그가 침을 삼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도 하나씩 받으세요!"

달달한 기류를 흐트러뜨린 것은 그들 사이를 파고든 그레이프의 팔이었다. 그녀는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정 가운데에 투명한 원통형의 케이스를 들이밀고 있었다.

"그레…, 동생."

"왜요? 너무 이뻐서 그러세요?"

천연덕스럽게 웃은 그레이프가 케이스를 그에게 향할 때, 투명한 케이스 안을 확인한 매니시가 탄성을 내뱉었다.

"우와, 그런 건 어디서 산 거예요?"

"제가 직접 물들였어요."

순식간에 꺾인 팔의 종착지는 역시나 매니시의 앞이었다. 케이스 안에 든 것은 알록달록하게 물들인 깃펜으로 그레이프의 뛰어난 색조 감각과 섬세한 수작업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었다.

"쿠키도 잔뜩 받았는데 이렇게 귀한 걸 또 받아도 될까요?"

케이스를 두 손으로 가두고 하기에는 염치없는 말이었지만, 다과회의 과반수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레이프는 마법 주머니처럼 끝없이 선물을 토해내는 바구니에서 원통형의 케이스를 잔뜩 꺼내 들고 말했다.

"그럼요. 오라버니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잔뜩 가져온걸요!"

그레이프는 그것들을 넘기면서 오히려 생일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행복해했다. 선심 쓴다는 표정으로 워로드에게도 하나를 건넸다. 물론 에이드는 또 빈손이었다.

이후로도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바구니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매니시의 품에는 쿠키와 깃펜, 금가루가 들어간 잉크, 담요, 인형 등이 있었다.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요."

매니시는 텅 빈 에이드의 손을 보고 묘한 죄책감을 느끼며 말했다. 포장지만 잠깐 만지고 받는 족족 매니시에게 넘긴 워로드도 빈손인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차이가 컸다.

"뭘요, 동생으로서 당연하죠. 부디 잘 사용해주시면 오라버니도 기쁠 거예요."

"그레이프, 여기 뭐가 또! 남았구나."

혼자서 내내 홍차만 들이켜 촉촉하고 허기진 에이드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응?"

그의 손가락을 따라 비어있을 바구니를 살핀 그레이프가 두 손바닥을 짝 마주쳤다.

"아 참, 깜박하고 있었어.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는데 말이죠."

“뭘요?”

기분이 좋은 매니시의 호응에 그녀가 바구니에서 꺼내 든 것은 깔끔한 하얀색의 편지 봉투였다.

로얄 수사단장 워로드 루푸스 귀하

“단장님께 온 거네요.”

봉투는 그레이프의 손에서 옆에 앉은 매니시에게로, 매니시에게서 맞은편에 앉은 워로드에게로 넘어갔다. 네 명이 앉은 구조상 쓸데없는 경유를 한 꼴이지만, 봉투를 처음 건넨 사람도 마지막으로 받아든 사람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봉투는 편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약간 볼록한 채였다. 종이 아래로 작은 단추 같은 것이 여러 개 만져졌다. 워로드는 에이드의 한숨을 배경 삼아 시원하게 봉투를 뜯었다.

“뭡니까?”

조용한 그가 불안했는지 에이드가 성급하게 질문했다. 하지만 부하의 질문에도 굳게 닫힌 워로드의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다만 싸늘한 얼굴로 봉투를 뒤집어 떨어지는 것을 손바닥에 받아냈다.

“웬 약?”

그레이프의 목소리에 에이드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떨었다. 확장된 동공 안에 요 며칠 익숙해진 약봉지가 비쳤다.

벌떡 일어나 워로드의 곁에선 에이드가 물었다.

"그것뿐입니까?"

"카드도 있군."

이상한 낌새를 느낀 매니시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들의 눈이 카드에 머무른 시간은 짧았다.

"이 새끼가..."

책상을 짚고 있던 에이드의 손끝이 나뭇결을 파고들듯 구부러졌다. 하얗게 질린 손톱이 그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불안한 그레이프의 눈동자가 분노에 찬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순간 에이드는 분노의 끈을 놓치고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한기에 떨었다.

'나는 빼앗겼는데, 당신 주위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군.'

카드의 내용은 그 한 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 줄이 그레이프를 통해 전해졌다는 사실이 에이드를 더없이 두렵게 했다. 빳빳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뜨겁고 억센 손이 에이드의 어깨에 닿았다.

"이걸 준 사람이 누구지?"

고저 없는 목소리가 에이드의 두려움을 파고들었다. 그레이프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숨기지 않고 오라비의 눈을 쫓으며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요. 여자분이었는데, 나이는 30대 초반쯤? 어쩜 그보다 젊을지도 몰라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어서 잘 못 봤거든요. 어깨를 살짝 넘는 붉은 머리는 풀어헤치고,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빈민가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군."

워로드의 단정적인 발언에 그레이프는 에이드에게서 눈을 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빈민가의 여자 같진 않았어요! 뭔가 비밀리에 신고하려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레이프도 제 추측이 어디를 근거로 했는지 몰랐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심부름 값으로 은화 한 개를 줬고요."

"정말 그냥 심부름꾼이든 아니든 일단 찾아야 돼. 우리한텐 단서가 얼마 없으니까. 에이드, 정신 차려라."

"…예. 일단 빈민가부터 본부 근처까지 사람을 풀어 여자를 찾아야겠군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말을 멈춘 에이드는 언젠가 터질 뻔했던 그의 마법 주머니에서 제 애검을 빼 들고 말을 이었다.

"여동생부터 집에 데려다주고 와야겠습니다."

"그래."

에이드가 허리에 검을 차는 동안 워로드는 연락용 마도구로 수색조와 매니시와 그레이프 경호조로 인원을 나눴다. 심각한 분위기에 입을 다물고 서 있던 매니시는 그의 지시를 주워들은 후에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화이트럼? 화이트럼이 우리를 노린다고요?"

"정확히는 단장님의 약점을 노리는 거죠."

그레이프의 손을 잡은 에이드가 대답했다. 매니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요?"

"협박하는 겁니다, 제 부하를 내놓으라고. 생각보다 대담한 놈이에요.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그놈이 알고 있는 게 많다는 뜻이겠죠. 그놈 심문은 제가 돌아와서 맡겠습니다."

그는 매니시가 처음 보는 살벌한 얼굴로 미소 짓고 돌아섰다. 평소의 그답지 않게 워로드의 대답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매니시는 그 뒷모습을 불안하게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럼 약은 뭐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멈춰선 에이드와 막 지시를 끝낸 워로드 덕에 사무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얌전히 오빠의 손에 붙들려 있던 그레이프가 입을 열었다.

"독약?"

고개를 끄덕인 에이드가 덧붙였다.

"그자가 중독된 마약일 수도 있고. 제정신이 아니거든."

"음, 지병이 있을 수도..."

"뭐든 정체를 확인하기 전엔 먹일 수 없지. 집은 기사들이 지킬 테니 안심하고 가라."

그레이프에게 말하면서도 워로드의 눈동자는 매니시를 훑고 있었다.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요한 눈동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레이프는 워로드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매니시를 돌아봤다. 그녀는 에이드를 꼭 닮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매니시에게 그녀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매니시는 불길한 예언인지 시비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에 어설프게 웃어 보였다. 그레이프는 그 어설픈 미소에도 만족했는지 매니시의 입꼬리가 다시 내려오기도 전에 에이드와 함께 문을 나섰다.

"이제 저도 가야 하나요?"

"그래, 당분간 휴가야. 네이브 오기 전에 챙길 거 있으면 챙겨."

"네이브 경이요? 단장님은, 바쁘세요? 할 얘기 있는데."

"…직접 데려다주고 싶지만, 나랑 같이 있는 모습 보여서 좋을 거 없어. 화이트럼의 표적은 나니까. 얘기는 나중에,"

억지로 뜯긴 것처럼 끊어진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그레이프가 남기고 간 선물이 잔뜩이었지만, 매니시는 그것들을 챙기는 대신 돌아선 워로드의 등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새삼스레 그의 등이 무척 넓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났어요?"

그가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웃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다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은 얼굴이 지독히도 낯설었다.

"왜 등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런 표정이에요."

"내가 무슨 표정인데."

"…그 사람, 단순히 부하를 되찾기 위해 우리를 노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단장님을 두렵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휴가가 끝나긴 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네이브였다.

"도대체 이게 또 뭔 일인지, 저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요란하게 등장한 네이브는 가라앉은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다.

"어, 피칸 파이! 저 빼고 드신 거예요?"

욕심 많은 아이처럼 입에 하나를 물고 양손에 남은 조각을 하나씩 든 네이브가 눈짓으로 매니시에게 인사해 왔다. 매니시는 그에게 웃어 보이고 테이블에 늘어져 있던 것을 하나씩 주워들었다.

"천천히 드세요. 전 이것 좀 챙길게요."

네이브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시는 치마에 달아놓은 주머니를 풀어 물건을 모아놓은 책상 끝에 갖다 댔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작은 주머니 입구로 가지각색의 물건들이 쓸려 들어갔다. 그 와중에 쓰러진 깃펜 케이스 하나가 데구르르 책상 끝으로 달려왔다.

미처 반응하지 못한 매니시의 손 대신 가뿐히 그것을 받아낸 손이 있었다.

"주머니 그렇게 보이게 달고 다니지 말랬잖아. 돈에 눈 뒤집힌 놈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자연스레 주머니를 뺏어 들은 그는 깃펜을 집어넣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것까지 줍기 시작했다. 바닥은 순식간에 깨끗해졌다.

"놈은 나를, 증오해. …그러니까 꼼짝 말고 있어. 꼭 데리러 갈게."

성큼 가까워졌던 지하 통로에서처럼 마법 주머니를 건넨 그가 말했다. 매니시는 그가 내디딘 한 걸음이 기꺼워 새어 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기다릴게요."

"뭘 기다려요? 아직 할 말 남았어요? 전 좀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지금 볼일 보세요."

어느새 빈손이 된 네이브는 쫙 벌린 검지와 중지 사이로 눈만 빼고 얼굴을 가린 채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진 매니시가 주머니를 챙기는 동안 워로드는 그에게 다가가 귀를 잡아당겼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 네이브는 들리지 않은 명령에도 빠릿빠릿하게 대답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은 그는 집무실을 향해 먼저 돌아섰다. 그리고 그를 두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매니시는 그의 좋은 귀를 믿고 속삭였다.

"부디 몸조심해요."

그레이프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매니시는 뒤늦게 그녀의 걱정을 깨우쳤다. 혼자 남은 그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이틀 만에 숲속에서 잡혀 온 심부름꾼은 그레이프의 설명보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엉키고 기름진 머리는 다시는 풀 수 없을 것 같았고 긴 누더기 아래 감춰진 맨발은 상처투성이였다. 게다가 여인은 꼭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심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 거 아닐까요?"

이틀 새 두통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진 에이드는 목소리를 죽이지도 않고 코앞에서 품평하듯이 말했다. 다행히 여인은 전혀 듣지 못한 눈치였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어."

워로드의 눈동자가 기름져 뭉친 머리칼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검은 동자를 쫓았다. 순간 그와 마주친 동공이 몸을 부풀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내팽개쳐진 보석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아, 아악! 살려주세요. 사, 살려주세요..."

발작적으로 소리친 여자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계속 구걸했다, 자신의 목숨을. 중얼거리는 작은 목소리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들었다.

그들은 그제야 그레이프가 한 모호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냄새가 달랐던 것이다. 여인에게선 빈민의 오래 묵은 지린내가 아니라, 비릿한 피 냄새가 났다.

"…보통 심부름꾼은 아닌 게 분명하군요. 그레이프가 예전부터 예리한 데가 있습니다."

"됐으니까 의원부터 불러."

여인은 상태를 고려해 가장 깨끗하고 넓은 휴게실로 인도되었다. 의원을 부르는 일도 만만치 않아 여인은 몇 번의 고사 끝에 외부의 늙은 의원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세심한 손길로 치료를 마친 노의원은 여인에게 진정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을 연 것은 진정제보다도 따듯한 방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의원의 배려, 몸에 둘린 부드러운 담요였다.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오늘 하루는 멀건 수프만 먹이는 게 좋을 겁니다."

의원은 당부를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의원이 나간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던 여인은 곧이어 들어오는 따끈한 수프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전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나요?"

"왜, 잘못한 게 있나?"

"아니요. 네. 아니, 없었어요. 그제까지는."

그제라면 그레이프가 협박장을 받아온 날이었다. 에이드가 험상궂은 얼굴로 한발 다가가자 워로드가 팔을 들어서 막았다. 여인은 콧속을 스치는 바람도 버거운 사람처럼 담요를 바로 코밑까지 끌어당겼다.

"전 그냥, 여행… 여행을 왔을 뿐인데, 정신을 차렸을 땐 차갑고 어,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보내 달라고 울면서 비, 비니까 때렸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빌었어요. 누구든 좋으니까! 도와달라고!"

오래지 않은 과거에 사로잡힌 여인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곤 헐떡였다.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으로도 넓은 휴게실이 가득 찼다. 떨리는 손은 자꾸만 담요를 놓치고 있었다.

그때 워로드가 휴게실 창의 커튼을 젖혔다. 그의 그림자를 빼고 온 방 안이 눈부시게 환했다.

"똑바로 봐라. 넌 거기서 벗어났어."

에이드가 여인의 쪽으로 작은 탁자를 끌고 와 그 위에 수프 그릇을 올려주었다. 그녀 인생에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그릇에 따끈한 수프가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 소원을 이뤄준 건, 악마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꿈같아요. 이상하게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함께 갇힌 여자들도, 우릴 감시하던 남자들도. 그리고 전 곧 알 수 있었죠.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걸요."

여인은 차가워진 손을 따뜻한 그릇에 두르고 가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어느새 기억 속의 자신처럼 짧은 호흡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나도 팔려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땐 생각한 겨를이 없었어요.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머리는 핑 도는데… 뭐에 홀린 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군요."

여인은 며칠간의 끔찍한 경험이 단 네 글자로 표현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는 그녀조차도 그 네 글자가 주는 혐오스러움을 견딜 수 없어 닫을 수 없는 귀 대신 눈을 감았으면서. 그러나 그마저도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뜰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둠이 무서웠으니까.

"탈출방법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엔 인위적인 냄새가 강해."

"맞아요. 모든 게 지나치게 순조로웠어요. 뒤늦게 쫓아온 감시자들로부터 숨는 것도, 사람들의 친절을 구하는 것도, 마차를 얻어타는 것도. 그렇게 왔더니 웬 집 앞이었어요. 친절했던 마부는 어디냐는 제 질문에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집?"

"하얀 대문의 아담한 집이었어요. 마부는 웬 남자에게서 돈을 챙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 순간 아무리 멍청한 저라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던 에이드의 빈약한 상상력은 '하얀 대문의 아담한 집'이라는 대목에서 익숙한 집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스쳐 간 장면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불길함이 그의 목 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말했어요."

'이걸 저 집에 사는 여자에게 전해.'

"바닥을 긁는 것처럼 낮고 거친 목소리에선 도저히 호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럼 너는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도 난, 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을 간지럽히는 것이 비난의 시선인지 눈물인지 여인은 알 수 없었다. 눈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인은 굳어가는 수프의 표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목을 다듬었다.

"그 후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그 여자를 따라가서 봉투를 전해준 게 다예요."

'이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래, 넌.'

진심으로 기껍다는 듯 길게 찢어졌던 남자의 입매가 떠올랐다. 악마가 있다면 그가 아닐까, 그러나 여인은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악마에게서 제 안위를 샀으니까.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은화를 쥐여주던 여자의 호의는 진짜였다. 걱정스레 들여다보던 눈동자,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뜨거워진 은화가 손바닥을 짓눌렀다. 짜여진 호의와 악의 속에서 기어 나온 여인은 손 안의 그것을 자국이 나도록 움켜쥘 뿐, 쓸 용기 따위는 없었다.

"궁금하긴 한가 보네. 덕분에 내 동생은 집에서 감금 생활 중입니다."

뾰족한 목소리가 송곳처럼 찔러오자 그녀의 손에 있던 은화가 수프 그릇과 부딪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진동에 수프의 표면에도 주름과 균열이 잔뜩 일었다.

가는 균열 사이로 흘러나온 수프처럼 뜨거운 숨이 여인의 마른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울먹임은 통곡으로 삽시간에 모습을 바꿨다. 에이드가 한숨과 함께 머리를 벅벅 긁었다.

"에이드. 그냥 피해자다."

"저도 압니다. 그냥 좀 예민해서… 됐으니 좀 쉬어요. 이따 몽타주 따는 것도 진 빠지는 일이 될 테니까."

에이드의 거친 손이 여인의 흥건한 뺨을 우악스럽게 비비고 지나갔다. 그의 돌발행동에 눈물이 멎은 큰 눈이 처음으로 멀쩡하게 사람을 향했다.

"돌봐줄 사람 들일 거니까 놀라지 말고 얌전히 기다려요."

흘러내린 담요를 추켜올리며 그가 하는 말에 여인은 정말 떨거나 울지도 않고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확인한 에이드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다. 어느새 문 앞에서 기다리는 워로드와 눈이 마주쳤다. 여인을 등지고 선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달칵, 부드럽게 닫힌 문고리에서 떨어진 손은 푸른 힘줄이 돋아있었다.

"이게 놈의 진짜 협박장이었군요."

"차라리 위층 휴게실 하나를 비워서 두 사람이 지낼 공간을 만드는 게 낫겠어. 일단 준비될 때까지 경호 인력을 늘려."

워로드가 걸음을 내디디며 지시하자 에이드 또한 반걸음 뒤에서 쫓아가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실없는 소리. 놈은 아직도 약을 거부하고 있나?"

"예. 의사 말로는 한 번이라도 때를 놓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 죽음을 각오한 눈칩니다."

"화이트럼이 약을 보낸 걸 보면 이미 시기가 지났다는 뜻이다. 물에 타서 억지로라도 마시게 해."

"억지로라도 좀 마셔봐. 이게 감기에 직방이래."

"도대체 누가 그래요?"

매니시는 컵을 들고 다가오는 숙모에게서 기겁하며 달아났다. 거실 소파를 두고 술래잡기하듯이 뱅글뱅글 도는 매니시에게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숙모의 손에 들린 널찍한 컵에서 고추기름에 절인 양말을 하루쯤 겨드랑이에서 숙성시킨 냄새가 나고, 그것을 본인이 먹을 상황이라면 누구든 이해할만한 충분한 사정. 매니시는 진심으로 두려웠다.

"내가 요즘 자주 가는 레스토랑,"

"다시는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죽어요."

"에서 구두 닦는 할아버지가 그랬어. 잘 안 떨어지는 감기엔 약보다 이게 좋다고."

그런 그녀도 컵을 들지 않은 한 손은 코를 막은 채였다. 매니시는 없던 병도 불러올 듯한 악마의 수프를 추천한 할아버지가 후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숙모에게 대단한 원한을 품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됐어요. 약도 먹었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싹 나을 것 같아요."

숙모는 매니시가 물러서는 만큼 다가서며 말했다.

"그 소리만 이틀째야.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아픈데 나을 시도조차 안 하겠다고? 혹시 잘렸니? 창피해서 아프다고 핑계 대는 거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막느라 거의 붙어있는 콧구멍만큼이나 좁아진 눈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매니시는 범위를 좁혀오는 그녀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며 마침 들어선 하녀에게 매달렸다.

"그건, 그냥 휴가라니까요? 요즘 일이 없어서 휴가받았어요. 긴장이 풀렸더니 몸이 좀 처지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 알죠, 내니?"

"그럼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아가씨 직장에선 아가씨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못 먹을 거로 그만 노시고 도련님이랑 간식 드세요. 자작 부인께서 생크림 케이크 사 오셨어요."

내니의 말이 다 끝났을 때, 숙모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가 서 있던 근처의 탁자에 못 먹을 것이 담긴 컵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한숨을 내쉬는 매니시에게 작은 봉투가 내밀어졌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란 몸을 감추기 위해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뭐예요?"

"좀 전에 심부름꾼이 주고 갔어요. 급한 전갈이래요."

자연스럽게 봉투를 다시 빼간 내니가 그것을 뒤집어 다시 매니시의 손에 얹어주었다. 발송인 자리의 반듯한 글씨 한 줄이 곧장 눈에 띄었다.

로얄 수사단

순간 정오의 햇살을 받은 고양이처럼 매니시의 얼굴이 나른하게 풀렸다. 그를 못 본 내니는 숙모가 두고 간 파격적인 수프를 챙겨 들고 돌아섰다.

"얼른 간식 먹으러 와요. 아플 땐 잘 먹어야죠."

"응. 고마워요."

매니시의 대답은 두말하면 입 아프게도 성의 없이 이어졌다. 이미 반쯤 뜯은 봉투 속에서 하얀 종이를 발견한 차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봉투를 찢다시피 제치고 쪽지를 꺼내 들었다.

정갈한 글자들은 예의 바르고 튀지 않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가 기대한 남자의 말투는 아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새로 준비된 안전한 거처로의 이동에 관한 것이었다.

매니시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 다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식구들이 모여 있을 식당을 향해 소리친 그녀는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간단한 짐을 싸기 위해서였다. 매니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법 주머니를 채워갔다.

쪽지는 공식적으로 온 문건처럼 딱딱한 문장이었지만, 약속대로 그가 데리러 올 것을 매니시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매니시가 혼자 중얼거렸다. 삐져나온 머리카락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어쩐지 색이 부족해 보이는 얼굴을 빈틈없이 화장으로 메꾸자 영락없이 신혼의 단꿈에 젖은 새댁 같은 모습이 되었다.

"몰래 나가야겠다. 이 꼴을 뭐라고 설명해."

달아오른 얼굴이 하얀 손 뒤로 숨어들었다. 쪽지에는 눈에 띄는 머리카락을 감출 것만 권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꾸미지 못할 이유는 아니었으니까, 고민하던 매니시는 결국 작은 귀걸이도 집어 들었다.

그의 당부대로 주머니까지 치마 안쪽에 잘 숨겨 달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니시는 미리 써 둔 쪽지를 화장대 위에 잘 보이게 펼쳐놓았다.

출장 다녀올게요. 도착하는 대로 편지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걱정하라고 써놓은 것 같은 쪽지였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테였다. 쪽지를 발견한 가족들의 반응을 상상하며 고개를 든 그녀는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위협을 받아 도피하는 것치고 혈색 좋은 여자가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매니시는 마치 데이트라도 가는 사람처럼 설레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재빨리 발길을 돌렸다. 그에 대한 믿음일까, 철이 없는 것일까.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에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다만, 오늘도 화기애애한 가족의 목소리가 발길에 은밀함을 더하기는 했다.

"매니시는?"

어느새 외출에서 돌아온 레우카스 자작의 목소리까지 들렸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깐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가던걸요."

"내가 불러올까?"

귀여운 플럼의 목소리가 그토록 긴박하게 들린 것은 처음이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매니시는 빠른 고동에 맞춰 더욱 은밀하고 대담하게 발을 내디뎠다.

"플럼, 누나 못살게 굴지 말고 쉬게 둬. 다 나았다는 애가 왜 혼자 방에만 있겠니? 아직 아픈데 특제 수프가 먹기 싫어서 나은 척하는 거야."

"걱정되시면 제가 조용히 들여다보고 올게요."

"그래 줄래요? 부탁해요."

시간이 없었다. 매니시는 현관 앞에 있는 옷걸이에서 내니의 황색 모자를 골라 쓰고 문고리를 당겼다.

그 순간의 급박함 때문이었는지, 그 전부터 이어진 기다림 때문이었는지, 그도 아니면 주체 못 할 설렘 때문에? 그녀의 성급한 행동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을까.

목덜미에 떨어진 충격으로부터 튕겨 나온 이성은 그렇게 속삭였다.

흐릿한 시야에 저 멀리 거실을 벗어난 내니의 앞치마 자락이 보였다. 매니시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녀를 향했다. 그러나 거실을 향한 내니의 고개는 돌아올 줄 몰랐다.

문은 열릴 때와 같이 은밀하게 좁아졌다. 그때 좁은 틈으로 들이친 사나운 황소바람이 소리 없이 달려 내니의 머리칼을 물어 젖혔다. 하녀의 불만 어린 눈동자가 황소를 쫓아 현관문을 향할 찰나, 힘을 잃고 떨어진 손은 맞닿아버린 문 사이로 사라졌다.

"이게 최선이야. 단주만 믿고 있을 순 없어."

온몸으로 매니시를 받치고 선 남자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매니시의 늘어진 손은 남자의 차가운 옷과 스쳐도 미동이 없었다.

그는 부자연스럽게 늘어진 매니시의 손을 제 가슴께까지 끌어올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멀리서 보면 제법 애틋한 연인 사이로 보일 듯한 자세였다.

아니나 다를까, 담벼락 너머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남자는 미리 준비한 풍성한 꽃다발을 그들 사이에 끼워 매니시의 얼굴을 절묘하게 가렸다. 대신 그녀와 꽃다발을 제 가슴에 묻은 남자의 얼굴은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화이트럼의 비밀 통로가 공개되며 행방이 묘연했던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담벼락 너머의 매니시 경호조는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남자는 태연하게 매니시를 부축해 코앞에 정차해있던 마차의 앞으로 이끌었다. 마차는 거리에 잠깐 서 있기만 해도 다섯 대는 볼 수 있을 흔한 마차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켜보는 자들의 의심을 샀다.

알게 모르게 그를 향하던 시선들이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남자도 그를 느꼈는지 마차 문을 연 그는 마치 마지막 숨을 들이쉬듯 크고 길게 삼킨 숨을 일시에 내뱉었다.

그 수상한 모습에 기사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였다.

더 이상의 연극은 없었다. 정신을 잃고 늘어진 여자를 자연스럽게 태울 요령은 그에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매니시를 마차 안에 내팽개치고 꽃다발을 던졌다.

기사는 순식간에 빼든 검으로 그에게 날아온 꽃다발을 이등분했다. 가운데서 줄기가 잘린 꽃들이 흩어져 허공을 수놓았다. 기사의 동공이 확장된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짤막한 꽃송이들이 각각 시차를 두고 뒤집어지고 있었다.

가벼운 줄기 부분이 하늘을 찌르자 수줍게 입을 다문 꽃봉오리들은 바닥을 향해 검고 작은 씨앗을 뱉어냈다.

그 비일상적인 광경에 기사가 불길함을 느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돌아볼 새도 없이 뒤로 물린 발을 축으로 해서 몸을 틀고 동시에 바닥을 박찼다.

그가 허공을 나는 잠깐 사이 작은 씨앗들은 바닥에 제 몸을 내던졌다. 순차적으로 바닥과 충돌한 씨앗들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씨앗이 바닥에 닿고 달아올라 터지기까지는 모두 눈 깜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 멀어진 말발굽 소리 뒤로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누가 사람 좀 불러와요!"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조용한 주택가의 거리는 삽시간에 먼지구름과 비명으로 들끓었다. 그런 와중에 소란의 중심에 있는 붉은 벽돌집의 문은 조용히 열렸다.

"…뭐야?"

메케한 먼지와 함께 불어온 바람에 기침이 멎지 않았다. 코와 입을 가린 내니는 눈을 한껏 찌푸린 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으로 다가갔다.

검게 그을린 바닥과 쓰러진 남자.

엎드려 쓰러져있는 남자의 등은 고온에 녹아버린 옷이 들러붙어 처참한 모습이었다. 누구도 쉽사리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갑자기 뭔가 터졌어요. 이 남자분이 휩쓸렸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누군가 저걸 던져서 이 아저씨가 도망갔는데 저게 먼저 파바박 하고 터졌어요!"

맞은편 집에 사는 아이가 가리킨 것은 아직도 불타는 중인 꽃다발이었다. 내니는 밑동만 남은 꽃다발의 위로 뜨겁게 타오르는 꽃잎이 소름 끼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끄기 위해 다가가 구둣발을 쳐들었다.

"저게? 누가 던졌는데?"

쓰러진 남자의 곁을 지키던 주민이 묻자 아이가 대답했다.

"몰라요. 벌써 마차 타고 갔어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바쁘게 발을 놀리던 내니의 눈에 근처에 놓인 검이 보였다. 기사들이 차고 다니는 긴 검. 그리고 그보다 더 떨어진 곳엔 익숙한 황색 모자가 보였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는 모자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좋아, 화이트럼에 대해서 말하기 싫으면 나에 대해서는 어때. 네놈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 원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워로드는 포로의 앞에 놓인 빈 잔을 보며 말했다. 며칠 새 확연하게 안색이 안 좋아진 포로는 묶어놓지 않아도 얌전히 지낼 수밖에 없을 만큼 기운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이제 갈라진 입술 사이로 숨에 가까운 속삭이는 음성만 간신히 내뱉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마른 입술이 다시 터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입매를 길게 늘였다. 워로드의 질문에 비웃음으로 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힘없이 새는 바람 소리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자조에 가깝게 들렸다.

"어디서?"

고개를 숙인 남자가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헐떡이는 숨 사이로 꺽꺽 넘어가는 소리는 일순 위험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곧 고개를 든 남자는 웃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를 한가득 드리운 채로.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 못 할 거야. 안 그래?"

워로드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워로드 모나쿠스, 포르스테리의 영웅. 그 영예로운 이름이 제국인의 피로 쓰였다는 걸 귀족들은 모르지. 네 가족은 아나? 그때 같이 있던 여자는 어때, 네 여잔가? 그 여자도 네 놈에게서 나는 역겨운 피 냄새를 알아?"

"입 닥쳐."

"오, 불쌍한 아가씨. 영웅인 줄 알고 살인마를 사랑했네."

워로드가 반응하자 즐거운지 포로는 말에 곡조까지 붙여가며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수분이 부족해 바싹 마른 그는 기이하게도 눈만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쾅! 워로드의 주먹이 철제 책상을 치자 높고 날카로운 충돌음과 함께 책상이 내려앉았다. 그 상황에도 남자는 여전히 태연했다.

"억울해? 억울하면 날 죽여. 네가 제일 잘하는 걸 하라고."

악마의 음성처럼 은밀하게 속삭인 남자의 멱살을 틀어쥔 워로드는 그를 코앞까지 끌어당겨 마주 속삭여주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워로드에게 잡혀 조여든 목구멍에선 오래된 목제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워로드는 그것이 웃음소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챌 수 있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넌 항상 그랬잖아. 내 동생도 그렇게…!"

포로의 뜨거운 숨이 그의 얼굴까지 와닿았다.

워로드는 불쾌한 기운을 떨쳐내려는 듯 남자의 멱살을 쥐고 있던 손을 털고 뒤로 물러서 남자를 내려다봤다. 기울어있던 몸이 한순간 팽개쳐진 남자는 의자에 다시 앉지 못하고 쓰러진 의자와 함께 바닥을 뒹굴었다.

그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웅크린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지 마른 얼굴에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눈을 치뜬 채였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포로가 넘어지면서 낸 요란한 소리에 문밖을 지키던 단원이 소리쳤다. 워로드는 내내 냉정하게 굳히고 있던 얼굴을 찌푸리고 남자를 일으켰다.

"들어와."

작은 명령에도 취조실의 문은 벌컥 열렸다. 워로드는 안으로 들어선 단원이 문을 닫기도 전에 남자를 던지듯이 넘겼다.

"좀 회복할 때까지 제대로 된 방에 가둬두고 돌봐라."

"필요, 없어!"

단원이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대꾸하기도 전에 늘어져 있던 남자가 이를 갈았다. 이에 단원은 때를 놓치지 않고 불복종의 이유를 댔다.

"이놈이 거부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는 쪽이 싫다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해."

워로드는 팔짱을 낀 채 부하와 시선을 맞췄다. 조용한 방 안에 포로의 부질없는 반항과 병색이 완연한 숨소리만이 울리고,

"해."

잇단 단장의 명령은 힘이 단단히 들어간 단원의 턱에서 기어코 항복의 말을 뽑아냈다.

"예."

"좋아."

"누구 맘대로! 죽여, 내 동생처럼, 네 칼로 난도질하란 말이야..."

포로의 몸은 점점 바닥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마치 눈을 감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워로드와 마주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핏발 선 눈에 차오른 눈물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영주가, 강제로 징, 집한 거였어... 겁이 많은 애라, 내가 대신, 흑,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해보겠다고, 흐, 그런 애가 얼마, 나 무서웠으면! 도망을, 그런데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마치 짐승처럼! 갈기갈기 도륙해서, 시신도 돌아오지 않았다!"

"…탈영병이었나?"

힘겹게 낸 목소리는 끝이 흔들렸다. 그를 알아챈 워로드의 부하는 걱정스레 그를 불렀다.

"단장님."

"원하는 게 뭐냐고? 복수다. 네 놈의 비명, 고통! 죽음!"

마지막 힘을 다한 것처럼 멀쩡하게 외친 남자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기 무섭게 저주의 방문이 시작되었다.

"단장님! 매니시 영애가."

열려있던 문으로 일찍이 워로드와 눈이 마주친 에이드는 가슴이 서늘해져 달리던 다리를 멈춰 세웠다. 이어진 시선 끝은 낯설었다.

그의 단장은 두려움에 잠식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미 많이 지체된 시간은 사건을 어지럽힐 뿐이었다.

"영애가 납치됐습니다."

에이드가 제자리에 서서 이은 짧은 말에 워로드가 비틀거렸다. 움찔한 그의 부하들이 다가오기 전에 책상을 잡고 버틴 워로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키라고 붙여놓은 놈은."

"치료 중입니다. 정신을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소식이 늦은 것 같습니다."

까만 책상의 찌그러진 자국을 따라 더 깊은 골이 새롭게 생겨났다. 호흡을 가다듬은 워로드는 잠깐 사이 꽉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얼마나 됐어, 납치된 지."

"이제 두 시간쯤,"

워로드는 에이드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재빨리 그의 뒤에 따라붙은 에이드가 보고를 이어갔다.

"철저히 계획된 것 같습니다. 놈들이 중간에 무슨 짓을 꾸몄는지 매니시 영애가 제 발로 나왔고, 기다렸다는 듯 나타난 남자가 납, 영애를 데려갔습니다. 영애의 방에서 직접 쓴 편지가 나왔는데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했답니다."

"매니시를 데려간 남자는."

"우리가 수배 중이던 포목점 주인이었습니다."

으득, 이 가는 소리와 함께 워로드가 문을 열어젖혔다. 상쾌한 풀 내음이 그의 코를 스쳤다.

"프릴!"

워로드의 고함이 한적한 후원을 깨웠다.

제집에서 동그랗게 만 몸으로 잠을 자던 프릴의 귀가 쫑긋거렸다. 그러나 그는 꼬리만 성의 없이 두어 번 흔들 뿐 뒷다리에 묻은 고개를 더 깊숙이 밀어 넣고 있었다. 워로드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척척 걸어가 제 허리만 한 프릴의 목덜미를 훑었다.

수천 개의 금사를 꼬아 만든 비싼 목걸이가 워로드의 손가락에 걸렸다. 프릴의 체온에 데워진 목걸이는 반은 뜨끈하고 반은 금속성의 찬 기운을 띄고 있어 손에 착 감겨들었다.

"일할 시간이다."

낮은 언질과 함께 프릴의 커다란 상체가 워로드의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졌다. 그가 월척을 낚은 낚시꾼처럼 프릴의 목걸이를 쥐고 흔들자 프릴에게서 위협적인 울음이 새어 나왔다.

그러나 워로드는 전혀 상관치 않고 제 말을 이었다.

"매니시를 찾아라."

바늘 한 점 안 들어갈 듯 딱딱한 목소리 때문인지 그 내용 때문인지 프릴의 목울음이 뚝 멎었다. 워로드는 쥐고 있던 목걸이를 놓고 흐트러진 프릴의 머리털을 한 번 쓸어내리곤 말했다.

"꼭, 찾아줘."

잘 정리된 머리 위에서 그의 손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몸을 턴 프릴은 사자 갈기 같이 일어난 털을 뽐내며 워로드를 지나쳤다. 그리고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멈춰 선 프릴이 긴 몸을 늘이며 기지개를 켰다.

그의 네 발이 쭉쭉 펴질 때마다 날카롭게 솟은 발톱이 잔디를 뒤집고 흙을 움푹 퍼 올렸다. 프릴이 뒷발로 찬 흙은 워로드의 뒷무릎에 맞고 떨어졌다.

워로드가 돌아보자 커다란 꼬리가 그를 위로하듯 살랑이고 있었다.

"부탁한다."

문가에 서 있던 에이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자, 프릴은 그의 발을 밟고 유유히 안으로 사라졌다.

"넌 가서 동생부터 챙겨.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장님께선..."

"연락이 오길 기다려야지. 내 부하한테든, 놈들에게든."

돌아선 단장의 등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세찬 물소리에 네이브는 두려운 표정으로 연신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물은 물러난 만큼 그를 쫓아왔다.

"야! 그만 싸. 아주 홍수를 내라, 홍수를."

다리를 들고 볼일을 보던 프릴은 동행인의 타박에 몸을 틀었다. 힘찬 물줄기가 나무에 맞고 네이브가 서 있던 방향으로 튀었다.

"앗, 더러워. 이 레이스 쪼가리가!"

펄쩍 뛰는 네이브의 입에서 분기탱천할 말이 튀어나왔다. 자신의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프릴에겐 용서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볼일을 마친 프릴이 이를 드러내고 울부짖자 커다란 맹수가 동굴 속에서 울부짖은 것처럼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네이브는 짐승의 울음에 진동하는 노란 물웅덩이가 튀기라도 할까, 흘끗거리며 말을 이었다.

"폼 잡지 마, 이눔 시키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안 보여?"

네이브가 느슨하게 늘어져 있던 사슬이 팽팽해지도록 당기자 프릴의 거대한 몸이 조금 그 쪽으로 끌려갔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네이브는 관객의 반응에 신난 조련사처럼 프릴의 목걸이에 연결된 사슬을 좀 더 당겼지만, 프릴은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버텼다. 때아닌 줄다리기에 흥미 어린 시선은 점점 모여들고 있었다.

"…네가 자꾸 뻗대면 여기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 몰라? 조용히 끌려와라."

"킁."

짐승이 아니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법한 적나라한 콧방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와 다르게 프릴은 무슨 변덕인지 순순히 그를 따라갔다. 의기양양해진 네이브의 시선이 검문을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을 향하자 프릴의 눈이 번뜩였다.

은근슬쩍 바닥에 궁둥이를 붙인 프릴이 앞발로 목에 걸린 사슬을 잡아 눌렀다. 그러자 짧아진 줄은 커다란 마수 대신 힘을 풀고 있던 인간의 몸을 끌어당겼다.

철퍼덕.

"이, 레이스 쪼가리가..."

흙바닥을 얼굴로 들이받은 네이브가 중얼거리는 소리에도 프릴은 관대한 마음으로 넘어갔다. 무의식에 각인된 습관으로 앞발은 네이브의 뒤통수를 밟고 바닥에 비비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는 화가 나거나 하진 않았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얼핏 박수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너 뭘 잘했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냐."

프릴의 발밑에서 빠져나온 네이브가 얼굴을 털며 투덜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수도 검문소 앞에서만 반나절을 보낸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달려가더니, 응? 쪽팔리지도 않냐?"

프릴처럼 바닥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은 네이브가 한쪽 발로 프릴의 다리를 툭툭 찼다. 그러나 머쓱하니 눈을 굴린 프릴도 억울함이 없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바로 지금도 사방에서 진동하는 기름 냄새 때문이었으니까.

그의 시중으로 한가해 보이는 네이브를 달고 수사단을 빠져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익숙한 밥순이의 냄새는 지천으로 널려있었고, 밥순이의 집 앞에서 시작된 추적은 그가 좋아하는 싱싱한 불 냄새와 함께였다.

불 냄새가 나는 바퀴 자국을 따라 쌩쌩 달릴 때는 얼마나 즐거웠던지, 임무 성공의 보상으로 따라올 통돼지 구이를 떠올리며 미리 침을 흘리기도 했었다. 그의 체면을 위해 뒤에서 따라오던 네이브가 맞은 그 액체의 정체는 일급비밀이었지만.

아무튼, 순조롭게 검문소를 통과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인간들이 떠받드는 위대하고 현명한 그라도, 이런 일을 예상할 수나 있었겠는가.

멍청한 병사 놈들이 밤에 쓸 등유를 바닥에 엎는 바람에 프릴의 코를 채우던 다채로운 냄새들은 하나로 통일되어 버렸다. 프릴의 표현대로라면 일명 검은 냄새로.

온갖 사람의 발자국이며 바퀴 자국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두 그 위를 지나쳤는지 온통 검은 냄새뿐이었다. 수도의 거대한 문 앞은 무려 세 갈래의 길이 있었고, 사방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인간의 발자국이나 마차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 그의 고충도 몰라주고, 시중인 네이브는...

"아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락이라도 싸 오는 건데. 배고프다!"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네이브가 소리쳤다. 배고프기는 프릴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도 네이브의 옆에 털퍽 드러누웠다. 덕분에 먼지가 일어나 네이브는 한 손으로 하관을 가리고 한 손으론 연신 손부채질을 했다.

그 잠깐이었다. 그가 사슬로 된 프릴의 목줄을 놓은 것은.

"야, 야!"

누울 때와 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프릴이 그를 지나쳐 뛰쳐나가자 당황한 네이브가 소리쳤다.

프릴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도 꽤 멀어진 상태였다. 네이브가 뒤늦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빠르게 줄어드는 사슬을 잡아챘지만, 프릴을 막을 수는 없었다. 거대한 덩치의 마수가 달려나가는 힘을 누운 자세로 버텨내는 것은 그에게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슬을 쥔 채 맥없이 끌려가는 네이브의 주위로 자욱한 모래 터널이 만들어졌다. 시야를 가리는 터널 너머로 사람들의 급박한 비명이 들렸다.

네이브는 프릴을 믿는 한편, 절로 드는 끔찍한 상상에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그의 상상은 붉고 뜨거운 선혈이 없다는 것을 제하면 꽤 그럴듯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검문소의 줄은 흐트러졌고, 창을 들고 뛰쳐나온 경비병들도 감히 다가가지 못할 거대한 마수는 흙먼지에 휩싸여 울부짖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가족을 감싸고 주저앉은 젊은 가장의 등, 그것은 재앙이었다.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네이브의 팔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었다. 그는 끌려가는 와중에 몸을 뒤집고 사슬을 기어 올라갔다.

어느새 그와 프릴의 거리는 꽤 가까워져 있었다.

때마침 프릴이 몸을 오른쪽으로 꺾자 그의 몸이 붕 떠올랐다. 네이브는 때를 놓치지 않고 두 발을 바닥에 안착시켰다. 까만 부츠가 바닥을 미끄러지며 먼지로 하얗게 둘러싸였다.

철그렁

"프릴!"

네이브의 오른손에 감긴 사슬이 차가운 소리를 냈다. 흙투성이로 바로 선 그와 팽팽하게 당겨진 줄 끝에 의지해 상체를 들고 있는 프릴.

그 앞에는 주저앉아 서로를 꼭 껴안은 모녀가 있었다.

"괜찮으세요?"

물론 예의상 한 질문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네이브가 단단히 사슬을 잡고 있음에도 장정의 머리 위로 두 뼘은 더 솟아오른 마수의 위압감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몸을 틀어 네 발로 땅을 디딘 프릴이 네이브에게 다가왔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녀석이라기엔 태평한 표정으로 꼬리까지 흔들면서 말이다.

"이 녀석아, 사람들 놀라게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가라앉는 흙구름 위로 날카로운 눈초리들이 네이브를 향하고 있었다. 그가 저도 모르게 한걸음 물러설 때 누군가 소매를 잡아당겼다.

"응?"

개 주제에 무슨 방법으로 짓는지 모를 건방진 표정의 프릴이 그의 소매 끝을 물고 있었다. 그때 한껏 불편한 표정의 경비병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 기사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해서요."

경비병은 네이브의 정복을 불신의 눈초리로 훑으면서도 공손하게 말을 이었다.

"굳이 그, 개 산책을 여기서 하셔야겠습니까?"

대답은 네이브의 소매를 적시던 프릴에게서 나왔다. 무거운 돌덩이를 굴리는 듯한 울림이 날카로운 이 사이에서 흘러나오자 경비병이 흠칫 놀라 몸을 굳혔다.

"씁, 가만 안 있어?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하하."

네이브는 경비병과 프릴의 사이에 끼어들어 날카로운 분위기를 흐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사이 관심에서 멀어진 프릴은 그의 곤란은 나 몰라라 하고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인제 그만 자리를 피해 주시죠."

그의 코는 틀리지 않았다. 꼬마 인간에게서 밥순이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프릴은 경비병에게 정신이 팔린 네이브를 흘끗 보고는 돌아섰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어미의 품에 묻혀 있었다.

"음,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어."

잘게 떨리는 어미의 어깨너머로 그를 보고 있던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눈으로 프릴의 흔들리는 꼬리를 눈에 담았다.

"그게 무슨, 이건 엄연히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프릴이 한 걸음 다가서자 엄마의 팔 아래로 아이가 팔을 뻗어왔다. 긴 소매에 덮인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 있었다.

"이쪽도 공무 집행 중이라."

"개 산책시키는 공무도 있습니까?"

어느새 원형을 이룬 군중이 경비병의 말에 동조해 웅성거렸다. 각기 다른 높낮이의 목소리들이 절묘하게 섞여 파도를 이뤘다. 그러나 네이브가 주목한 것은 파도가 아니라 홀로 툭 튀는 높고 엉성한 목소리였다.

"멍멍아. 놀랐어?"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웅성거림은 삽시에 잦아들었다.

"이거 주려고 그런 거야."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가 상체를 떼자 아이가 내민 것이 더 잘 보였다. 그것은 투명한 비닐에 예쁘게 포장된 다 부스러진 쿠키였다.

"자."

프릴은 꼬마의 앞에 궁둥이를 붙이고 점잖게 앉았다. 그런데도 그들의 덩치 차이는 다섯 배는 될 듯했다.

"이거 주려고 다가갔던 거야?"

아이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힘차게 대답했다.

"응. 멍멍이랑 아저씨가 배고파 보여서."

엄마의 품에 다시 꼭 파묻힌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다. 프릴은 움직이는 둥 마는 둥 한참을 걸려 고개를 숙이고는 아이가 들고 있던 비닐의 끝을 물었다.

제법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 증거로 감수성이 풍부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네이브는 이미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을 찍고 있었다. 있던 투쟁심도 잠길 정도로 눈물을 빼내는 네이브의 모습에 머쓱해진 경비병이 소리쳤다.

"됐으니까 다들 다시 줄 서요! 기사님, 적어도 줄은 꼭 잡고 계셔 주십시오."

"크흥…, 네."

코맹맹이 소리로 대답한 네이브가 코를 들이마시는 소리를 배경으로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프릴은 창피하다는 듯 그에게서 슬금슬금 엉덩이를 물렸다.

손수건을 집어넣은 네이브가 아이의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다.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오빠랑 멍멍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을게."

"응."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을까?"

"으응, 싫어."

"왜? 오빠랑 멍멍이는 괜찮아."

"그치만..."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 뒷짐을 진 여자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고 있었다. 몸에 맞지 않는 커다란 외투가 아이의 귀여움을 더했다. 지켜보던 어른들의 입가에 미소가 맺힐 때쯤 아이의 엄마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그 쿠키 어디서 났어? 누가 줬니?"

어미의 품에 반쯤 매달린 아이가 웅얼거렸다.

"아니, 그냥 있었어."

"어디에?"

"주머니에."

아이가 제 손보다 널따란 성인용 외투의 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하자 여자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외투 주머니에?"

"응, 주머니에."

모녀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불길한 대화의 흐름에 네이브의 눈치를 살피던 어미가 슬며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을 때였다. 아이는 기어코 그 손을 떼어내고 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주운 거 지지야. 찝찝해서 나는 먹기 싫어."

"지지?"

아이가 한 말을 되뇌며 네이브가 눈을 껌벅거릴 때 무언가가 그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재빠른 순발력으로 그것을 잡아챈 네이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윽. 이게 뭐야."

축축한 물체를 집게손가락으로 눈앞까지 들어 올린 네이브는 마침내 그것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것은 프릴이 통째로 우물거리다 뱉어낸 쿠키의 포장재였다, 침이 잔뜩 묻은.

"웩. 지지."

"쉿!"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네이브는 비닐과 함께 뭉쳐진 어딘가 낯익은 리본을 빼 들었다. 젖어서 축 처진 빨간 리본을 타고 끈적한 타액이 고여있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져 내렸다.

"그레이프?"

종종 그레이프가 나눠주곤 하는 간식에 달려있던 리본이었다. 그를 깨닫기 무섭게 손에 감고 있던 사슬이 조여들었다. 프릴이 제 사슬을 물고 당긴 탓이었다.

프릴은 그의 주의를 끌자마자 사슬을 뱉고 아이에게 다가가 코를 묻었다.

"무슨 뜻이야?"

답답한 소리에 꼬리로 네이브의 뺨을 쳐 응징한 프릴이 아이의 긴 소매를 물고 잡아당겼다. 아이는 외투가 벗겨지려 하자 소리쳤다.

"이거 놔, 내 거야!"

단풍잎처럼 작은 손이 커다란 마수의 콧잔등을 찰싹거리자 주변에서 헛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프릴은 진짜 단풍잎이 얼굴에 내려앉은 것처럼 아무 변화 없는 얼굴로 네이브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외투…? 성인 여자의, 이거 설마?"

네이브의 의아한 목소리에 맞춰 프릴의 꼬리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엄마..."

칭얼거리는 소리에 아이의 어미가 나서서 물었다.

"이 옷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프릴의 눈은 마치 그를 부추기는 것 같았다. 기름 냄새에 시달려 잔뜩 풀이 죽어있던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에 네이브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외투 어디서 나셨어요?"

"왜요? 필요 없는 거라고 해서 받았어요, 어떤 신사분께."

여자의 두려운 얼굴에 네이브는 입을 말아 물고 눈을 굴렸다. 그러자 프릴의 꼬리가 다시 한번 네이브의 뺨을 때려 재촉했다.

"거기가 어디였죠?"

여자의 손가락이 오른쪽 길을 가리켰다.

"플로라 마을이요."

희열에 찬 네이브와 프릴의 눈이 마주쳤다. 플로라 마을이라면 말을 타고 최고 속도로 달리면 한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마을이었다.

"그렇지. 꼬리가 잡힐 때가 됐다 했어, 가자!"

쪼그리고 앉은 몸을 일으키며 네이브가 소리쳤다. 그러나 씩씩한 목소리로 그가 내디딘 걸음은 전진이 아니라 후진이었다. 엉덩이로 행해진 과격한 후진, 세간에선 엉덩방아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읏."

엉덩방아를 찧은 네이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반쯤 입을 벌린 프릴은 꼭 웃는 얼굴처럼 보여 얄밉기 그지없었다.

"얘가 정말! 괜찮으세요?"

당황한 어미의 목소리에 바지를 붙든 작은 손을 발견한 네이브가 울상을 짓고 대답했다.

"괜찮은데, 이것 좀..."

그는 차마 그 작은 손을 내치지 못해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황한 어른들의 사정이야, 애 알 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거 주인 있는 거야?"

아이는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매니시의 외투를 꼭 여몄다. 외투를 준 아저씨가 제게만 속삭인 목소리가 떠올랐다.

'벗지 말고 꼭 입고 있으렴.'

"주인은 있지만, 덕분에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가져도 될걸?"

여자의 도움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 네이브가 엉덩이를 털며 대답했다. 그의 상태는 엉덩이만 턴다고 될 상황이 아니었다.

'…행운이 찾아갈 수 있게.'

하마터면 아저씨가 말했던 행운이 찾아오기도 전에 옷을 빼앗길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 아이는 혹여나 네이브의 마음이 변할까, 작은 손 두 개로 외투를 감추려 애썼다.

어쩌면 그 사랑스러운 노력에 행운도 감동한 것일까, 돌아서던 네이브는 여자의 무릎께에 난 구멍과 핏자국을 발견했다. 눈이 커다래진 그가 횡설수설하며 건넨 주머니에는 빈손으로 올라온 모녀가 순조로이 수도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들어있었다.

당황한 마음에 빵빵한 공금 주머니와 사비가 든 가벼운 주머니를 착각한 기사의 실수 때문이었다.

"잘 가, 잘생긴 오빠!"

덕분에 네이브는 영문도 모른 채 자본주의에 흠뻑 젖은 배웅을 받으며 프릴의 등에 올라탈 수 있었다. 그러나 기분 좋은 인사도 잠시, 그가 쇠사슬을 마법 주머니에 챙겨 넣는 사이 프릴의 커다란 발이 땅을 박찼다.

"이, 레이스, 쪼가리야!"

갑자기 쏘아져 나간 프릴 때문에 몸통 위에 눕다시피 한 네이브는 다리에 힘을 주고 소리쳤다.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는 프릴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가만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한 문장처럼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았다.

물론, 함께 달리는 그와 프릴에게는 똑똑히 들렸지만. 그 열렬한 반응에 즐거워진 프릴이 지그재그로 달릴 수 있을 만큼 길이 넓고 한적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소리였다.

"으아아아. 잠깐, 잠깐! 토할 것, 웁. 단장님!"

마지막 단어를 들은 프릴의 발에 제동이 걸렸다. 네이브는 오늘만 몇 번째일지 모를 흙구름 사이에서 입을 틀어막고 허공으로 튕겨 나갔다.

네이브.

나직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엎어진 네이브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연락용 반지는 빛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로 그를 깨우고 있었다.

"단장님… 제가 죽으면 범인, 아니 범견은 프릴..."

방금 놈들의 두 번째 협박장을 찾았다. 때맞춰 발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모양이야. 놈들이, 인질을 교환하자는군.

벌떡 일어난 네이브가 얼굴을 굳히고 프릴과 마주했다.

"어쩌실 생각입니까? 추적에 나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차라리 인질 교환할 때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능해.

어느새 조금 전처럼 바닥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은 프릴이 꼬리로 바닥을 툭툭 쳤다. 워로드는 그 소리가 뜸 들이지 말라는 프릴의 재촉임을 알아들었다.

포로가 죽었다.

"갑자기 왜, 사인이 뭐죠?"

병사야. 얼마 못 버틸 줄은 예상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먼 훗날 돌아보면 그저 그뿐인 하루가 될 수 있을까. 점점 안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네이브는 문득 불안해졌다. 워로드도 그를 느낀 탓일까,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이 일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야지. 놈들이 알아채면 매니시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놈들이 교환을 요구한 날짜는요?"

내일 오후 7시, 야시장이 서는 광장.

"그렇게 빨리요?"

미간을 찌푸린 네이브는 까맣게 물든 하늘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검문소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날은 저물어 있었다.

시간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에 찾아야 한다.

"예. 그럼 저흰 추적을 계속하겠습니다. 목적지는 플로라 마을입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눈꺼풀이 무거운 적이 있었을까?

그녀는 빈 마차에 있었다. 평범한 삯마차.

그러나 그 평범함이 낯선 이유는 빛이 내려앉은 마차의 내부와 세상을 뚝 자른 것처럼 검은 면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 공간은 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면적을 키우기도, 좁히기도 하며 변덕을 부렸다.

혼몽한 시선으로 그것의 정체를 골몰하던 매니시가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을 때, 그녀는 멀어지는 정신으로 그것의 정체가 제 눈꺼풀이었음을 깨달았다.

마차는 정신을 잃은 매니시를 태운 채 유유자적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는 여타의 마차와 비교해도 전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가롭게 보이기까지 했다. 챙 넓은 모자로 오후의 햇빛을 가린 납치범은 마부석에 앉아 마주 오는 마차의 마부에게 모자를 들어 보였다.

그래서 누구도 그 마차에 탄 이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도와 가까운 꽃의 마을, 플로라에 들어설 때조차 마찬가지였다.

"안에는 누굽니까?"

상단과 관광 인구가 많은 플로라 마을의 입구는 검문이 간단했다.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남자가 대답했다.

"제 딸입니다. 친척 집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걸 데려왔더니 지쳐서 잠들었네요."

"저런, 플로라 마을은 아름다운 곳이니 곧 마음이 풀릴 겁니다."

호의 어린 말에 남자는 대답 없이 미소짓고 다시 마부석에 올랐다. 그의 채찍에 맞은 말이 걸음을 내딛자 멈춰있던 마차가 크게 흔들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힘없이 좌석에 기대있던 매니시의 몸이 기울 만한 흔들림이었다. 마차의 내벽에 머리를 박은 매니시의 속눈썹이 부르르 떨리더니 슬며시 들렸다.

"…단장님."

초점이 맞지 않는 가는 눈은 정착지를 찾지도 못한 채 다시 어둠에 먹혀들었다.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쪽엔 추적의 전문가가 있다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억눌린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러는 단주야말로 여태 뭘 하신 겁니까. 동료라곤 달랑 셋뿐인데 저렇게 죽어가게 놔두실 겁니까?"

"내가 곧 해결할 수 있었어!"

급한 박자로 맞받아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신경을 갉아먹는 뾰족뾰족한 말투에 매니시의 정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결? 정말 그럴 맘이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너…, 난 보좌관의 여동생을 노리고 있었다. 너처럼 위험천만한 계획이 아니라, 공들여 세운 안전한 계획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남자가 탁자를 내리쳤다. 탁자 위에 허술하게 놓여있던 티스푼 하나가 방정맞은 소리로 몸을 떨다 말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긴 손잡이 끝으로 한 번, 작은 머리로 한 번, 작은 충돌음이 노크 소리라도 되는 듯 매니시의 눈이 번쩍 뜨였다.

"…우리가 여태껏 더러운 귀족들 발바닥을 핥아가며 힘을 모은 건 이런 때를 위해섭니다. 이렇게 놈들에게 몇 년간 쌓은 것들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벌벌 떨기나 하려고 버틴 게 아니라고요!"

낡은 나무 천장은 남자의 고함에도 금방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매니시는 눈을 뜨자마자 덮쳐오는 분에 찬 음성에 숨을 벌컥 들이마셨다.

"진정해, 우린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이러다 일을 그르칠 거다."

음성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마지막 기억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억센 손에 붙잡혀, 내니가 그녀를 돌아봐 주길 애타게 바란 기억.

"아뇨, 단주는 애초에 흥분한 적 없는 사람처럼 담담해 보여요!"

하얀 머리칼과 창백한 얼굴, 굳은 표정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도드라지게 했다. 그러나 그 까맣고 아름다운 구슬 안에 담긴 것은 명백한 두려움이었다.

매니시는 상황을 인지하자 더욱 거칠어진 숨소리를 죽이기 위해 최대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려 노력했다. 질끈 감은 눈이 뜨거웠다.

공포는, 여리게 내쉬려 툭툭 끊어지는 호흡 사이로도 순간순간 비집고 들어왔다.

"그만."

"변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방 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도 그를 느꼈는지 둘 중 누군가가 근처를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막내가 놈들에게 잡힌 날부터, 전혀 당신답지 않아요."

매니시를 눕혀놓은 소파가 창가 쪽에 있었는지 창문 여는 소리가 근방에서 들렸다.

매니시는 절로 찌푸려지는 미간을 펴고 눈동자를 굴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미세하게 떨리는 턱은 그녀도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마무리해, 동료를 되찾고 나서."

그녀의 근방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청각에 집중하고 있던 매니시는 그 목소리가 전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마지못한 대답에 질문이 뒤따랐다.

"여자는 어떻게 할 거지."

그 차가운 목소리, 비웃는 듯한 어조, 초록빛으로 물든 기괴한 가면과 독한 술… 남자는 화이트럼이었다.

"계획대로."

"…나는 수도로 돌아가서 상황을 살필 테니 조심해."

근방에 있던 남자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매니시는 치마에 가려져 그가 볼 수 없는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의 손등이 그녀의 목을 쓸고 쇄골 근처에서 멈추자 심장은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빠르게 뛰었다. 툭, 첫 번째 단추를 푼 손가락이 밑으로 미끄러졌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춘 매니시는 그 움직임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생각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툭, 두 번째 단추가 그의 손에 풀렸다. 매니시가 잡고 있던 숨도 그와 함께 조금 새어 나왔다. 그는 움찔거린 그녀의 몸을 보고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추까지 풀러 버린 그의 손이 매니시의 허리를 따라 젖혀진 외투 속으로 들어왔다. 살짝 들린 허리 아래로 그의 팔이 둘렸다.

"말했잖아."

불시에 들린 매니시의 몸이 그의 품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매니시의 작은 신음은 그의 딱딱한 품속에서 흩어졌다. 살짝 뜬 눈으로 그의 둥그런 코끝이 보였다.

그러나 매니시의 시선은 그의 코끝을 넘어설 수 없었다. 그녀의 외투를 벗겨낸 그가 그녀를 다시 소파로 밀치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저쪽엔 추적의 전문가가 있다고. 이건 내가 가져간다."

그는 한 손에 든 외투를 흔들며 멀어지고 있었다.

넋을 놓은 사람처럼, 그의 허리쯤에서 흔들리는 머리칼을 멍하니 응시하던 매니시의 앞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바르르 떨리는 하얀 속눈썹 아래 평소보다 진하게 젖은 눈동자가 위를 향했다.

"깨어났으면 말을 하지. 일어나, 좋은 데 가자."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남자가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어떻게 돼가고 있지?"

워로드의 초조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머뭇거림이 담뿍 묻어난 작은 목소리였다.

그게…, 일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무슨 일 있나?"

전혀 몰랐는데, 플로라 마을은 제국 최대의 꽃 생산지로 특히 요즘은 만연한 봄꽃의 수확 시기라고...

국어책을 읽는 듯한 대답에 워로드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줄도 모르고 네이브가 말을 이었다.

프릴이 코를 전혀 못 씁니다. 그 녀석 꽃냄새만 맡으면 술 취한 것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여긴 꽃이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마을이 온통 꽃냄새로 진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코를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워로드가 쥐고 있던 찻잔의 손잡이가 깨끗하게 뚝 떨어졌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몸이 움츠러들었다.

아마 그 작은 파열음을 듣고 움츠러든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는지 곧 긴장한 기색의 네이브에게서 대답이 돌아왔다.

탐문 수사를… 해야겠죠? 사람들 다 자는데...

"당장 뛰어."

옙!

통신이 끊기자 워로드는 쥐고 있던 찻잔의 손잡이를 털어냈다. 우아한 곡선의 손잡이는 날카로운 단면으로 나무 탁자를 흠집 내며 맞은편으로 굴러갔다.

제 앞으로 굴러온 손잡이를 집어 든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 말 좀 해주지? 이 밤에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와야 했는지."

다리를 꼬고 피곤한 얼굴로 머리를 쓸어넘긴 남자는 짧은 신관복을 미처 갖춰 입지 못한 이콜로지였다. 그는 손잡이의 곡선 부분을 느릿하게 문지르며 연신 문 쪽을 흘긋거리고 있었다.

"사람 구하려는 거니까 협조해."

워로드는 이콜로지와 시선을 맞추지도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명령했다. 깔끔하게 손잡이만 떨어진 그의 찻잔엔 조금도 줄지 않은 차가 담겨있었다.

"그게 뭔데. 그리고 도대체 내가 왜 협조해야 하는데? 아니 아니, 이 시간에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게 협조야? 협박이야?"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잡이를 내려놓은 이콜로지는 손잡이의 깨진 단면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러나 워로드는 아랑곳하지 않는 얼굴로 문을 흘깃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라며, 네가."

그 나직한 말에 이콜로지가 의문을 표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그들의 잔에서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의 일이었다.

"이콜로지!"

자다가 급하게 나온 게 분명해 보이는 파르두스 후작은 흐트러진 머리로 소리치며 뛰어 들어왔다. 가운 속에서 반짝이는 그의 실크 잠옷만큼이나 환한 미소를 만면에 띄운 채였다.

"잘 왔다, 잘 왔어..."

그러나 이콜로지는 제게 뻗어오는 후작의 손을 쳐내고 찻잔을 집어 들었다. 뜨거운 차를 여유롭게 한 모금 들이킨 그는 피어오르는 연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거 왜 이래요. 나는 지금 얹혀사는 집주인이랑 차 한잔하러 온 거야. 볼일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 나눠요."

주먹을 움켜쥔 파르두스 후작은 마치 벌 받는 아이처럼 꼿꼿하게 서서 무거운 입술을 뗐다.

"아직도 내게 화가 안 풀린 거냐? 내 누누이 말했지만 그건 다 널 위해서였다."

"그만! 그 말이 제일 끔찍해. 모르겠어요?"

어느새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내던지듯 잔을 내려놓은 이콜로지의 시선이 파르두스 후작을 향했다. 넘쳐흐른 찻물이 그의 손등을 덮쳤지만, 그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파르두스 후작은 아들의 빨갛게 덴 손이 제 손이라도 된다는 양 고통스럽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줄 거냐.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마음이 편하겠니?"

"그렇게라도 해요. 나 말고 그 애 무덤 앞에서."

"그 아이도 원한 일이었어! 너를 위해서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단 말이다."

이콜로지의 귀에 풋풋한 소년의 음성이 스쳐 지나갔다.

'형, 혀엉. 전쟁은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 나한테도 물어봤어야지! 당신한텐 그냥 잔심부름 보는 애였겠지만 나한텐 동생이었어. 나한테도, 나한테도 목숨 바칠 기회는 줬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그 애가 나 대신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내가 웃게 하지 말았어야지..."

수월히 흘려듣던 워로드의 귀에 전쟁이라는 모난 단어가 걸렸다. 그 순간 이해 못 할 현재 상황들이 그에게도 선명하게 와닿았다. 명예와 권력을 갖춘 귀족일수록,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흐느끼듯 과거에 잠긴 이콜로지의 모습은 낯설었다. 워로드는 그에게서 잠시 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테이블을 똑똑 두들겼다.

"본의 아니게 부자 상봉을 방해해서 미안한데 이쪽 사정이 급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후작님께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드시면 제게 파시죠."

분위기에 맞지 않는 냉정한 음성이 심각한 분위기를 싹둑 자르고 지나갔다. 그와 함께 워로드가 턱짓으로 가리킨 것은 젖은 속눈썹을 반짝이며 빨간 코밑을 훔치던 이콜로지였다.

속눈썹을 바짝 치켜올린 그가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다.

"나?"

조금 전까지 회한에 젖어있던 파르두스 후작의 눈동자가 사나운 빛을 띠고 워로드를 향했다.

"파르두스 후작가의 후계자가 언제부터 자네의 사사로운 거래품목이 됐지?"

어느새 건조해진 눈동자를 굴린 이콜로지가 소파 등받이에 걸친 팔에 얼굴을 기대는 몹시 불량한 자세로 말했다.

"그것도 나?"

모순적이게도 치켜 올라간 그의 눈썹은 거만한 표정으로 워로드를 내려다보는 후작과 똑 닮아 있었다. 워로드는 이상한 걸 봤다는 듯이 눈을 돌리고 대꾸했다.

"본인은 후계자란 말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콜로지의 고개가 미미하게 끄덕여졌다. 그를 본 파르두스 후작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원하는 게 뭔가?"

"아드님 찾는다고 만들었다던 그 마도구, 저한테 넘기시죠."

야심한 시각, 후작가의 집 나간 아들 방에 또 누가 있을까마는 워로드의 입에서 나온 위험한 말에 후작의 눈이 바쁘게 사방을 오갔다.

후작의 뒤를 따라 들어왔던 집사가 급히 방문을 닫았다. 다행히 차를 준비한 하녀들은 워로드에게 일찌감치 쫓겨난 상태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모르는 일이네."

그렇다고 후작이 인정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슬쩍 발을 빼는 후작의 태도에 워로드의 한쪽 눈이 움찔거렸다. 슬쩍 바라본 이콜로지는 어깨만 으쓱일 뿐이었다.

"협조하라고 했을 텐데."

"그니까 내가 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네가 오빠라며. 매니시의."

가라앉은 워로드의 눈동자는 기묘했다. 뒷골이 서늘해진 이콜로지는 마치 핏빛처럼 보이는 그 눈동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길게 찢어진 눈을 할 수 있는 한 크게 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찻물을 쏟았던 손이 이제야 따끔거려 왔다.

"납치당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꽤 됐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콜로지의 몸이 워로드를 덮쳤다. 테이블에 놓여있던 두 사람분의 차구가 이콜로지의 무릎에 치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찻잔이 깨지는 소리는 워로드의 멱살을 잡은 이콜로지의 고함에 묻혀들었다.

"그게 그렇게 담담히 말할 일이야! 그렇게 될 동안 너는 뭐 했어!"

"이콜로지!"

뒤늦은 파르두스 후작의 외침에도 이콜로지의 손에서 힘이 빠지지는 않았다. 그의 손을 떨어트린 것은 씁쓸한 워로드의 목소리였다.

"경험해 봤으니 잘 알지 않나? 후회하고 있었다, …지독하게."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쳤다. 왜 몰랐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와 비슷한 눈동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도 얼마나 후회했던가. 바보처럼 왜 아무것도 몰랐는지, 왜 옆에 있어 주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늦었는지... 힘을 잃은 이콜로지의 손이 떨어져 내렸다.

"마도구는 무슨 소리야. 그거 있으면 찾을 수 있어?"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야."

그의 손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흐트러진 옷깃을 정리하지 않는 모습이 확실히 정상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눈동자를 눈꺼풀 아래 감춘 이콜로지는 테이블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부여잡았다. 워로드가 통신하던 내용까지 떠올리니 상황은 깜깜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때 분위기를 살피던 파르두스 후작이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걸 내놓으면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야. 마성구 거래뿐 아니라 연구 개발한 것까지 공론화되면 파르두스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그 말에 이콜로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직한 목소리는 무척 오랜만에 듣는 호칭을 담아냈다.

"아버지."

오랫동안 듣고 싶은 말이었다. 그러나 후작은 아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콜로지는 그에게 애원했다.

"또 동생을 잃을 수는 없어요."

파르두스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비친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커다란 갑옷을 입은 소년이었다. 소년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이미 저버렸지만, 이번엔 아버지가 지켜줘요."

그는 옛날부터 아들에게 약한 아버지였다. 저런 목소리로 부탁해올 때면 무슨 일이든 들어주는. 그래서 소년의 대리 출정에 대해서 침묵했었고, 오랫동안 후회했다.

고개를 돌려 자신과 꼭 닮은 눈을 마주하며 파르두스 후작은 집사에게 명했다.

"…가져오게."

"아악! 또 물렸어!"

"이거 완전히 미친 걸 잘못 산 거 아냐? 조심해!"

어두운 지하에 몇십 분째 이어진 소란은 지치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매니시는 저를 잡은 사내의 손가락을 꺾고 다가오는 다른 손을 다시 한번 깨물었다.

사내에게선 몇 번째인지 모를 비명이 튀어나왔다.

"악! 더는 못 참아."

여태껏 잡기 위해 뻗어오던 손이 목적을 바꾸고 빠르게 움직이자 매니시도 어쩔 수 없었다. 근육질 사내의 커다란 손이 작은 머리를 후려쳤다.

매니시는 쓰러지기 쉬운 긴 유리잔이 된 것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지러운 시야에 바로 곁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그림자가 잡혔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내뻗은 손에 닿은 것은 따듯한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차가운 창살이었다.

"야, 오랜만에 들어온 북부 하양인데 그러다 망가질라. 그냥 집어넣자. 어차피 주머니 뒤져봤자 푼돈이나 나올 텐데."

다른 사내가 근육질 남성의 팔을 잡고 말리고 있었다. 그녀를 사물 취급하는 그 무신경한 목소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스웠다.

"벌써 맛 간 거 아냐?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넣어. 한참 재밌었는데 이게 뭐냐? 빨리 올라가서 마저 놀자. 야, 너네들 얘 잘 돌봐라."

들고 있던 봉으로 창살을 두들겨 큰 소리를 낸 그가 창살 너머의 이들에게 당부했다. 그 와중에도 시선 한 점 주지 않는 그의 태도는 마치 가축을 대하는 것 같았다.

근육질의 사내가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하자 그가 한마디 더했다.

"나중에 안 보이는 데로 몇 대 더 때려. 그 정돈 눈감아줄게."

잔인한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비로소 근육질 사내의 입가에 미소가 맺혔다. 그가 가까운 철창문을 열고 늘어진 매니시를 던져 넣자 다른 사내가 그의 어깨에 팔을 걸쳤다.

"오빠들 놀고 올게, 얌전히 있어라. 내일 우리랑 놀고 싶은 애들은 발악해도 되고."

말을 맺은 사내의 시선은 철창 안에 나동그라진 매니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더듬더듬 몸을 일으키자 그들은 마치 엄청난 농담이라도 해낸 것처럼 실없이 웃으며 두꺼운 문을 여닫고 지하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나가자 빛 한 점 남지 않은 지하는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 긴장감 넘치는 고요를 깨운 것은 매니시의 침 뱉는 소리였다.

함께 갇혀있던 여자들은 정말로 그녀의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아요?"

헐떡이며 입술을 닦던 매니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더러운 걸 많이 씹었더니 찝찝해서요."

그녀의 대답에 여자들의 무리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안쪽에 있던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매니시에게 말했다.

"찝찝한 놈들이긴 하죠. 그래도 거기서 그만 비켜요. 요강 근처라 벌레가 많거든요."

그녀의 말은 기적처럼 비틀거리던 매니시를 바로 세웠다. 이번엔 다른 몇 명에게서도 웃음이 튀어나왔다.

"신선하네. 그런 건 여기서 며칠 있으면 없어지는 반응이거든."

다른 여자가 말했다. 매니시가 다가가자 그녀들은 조금씩 엉덩이를 물려 저들 사이에 자리를 내줬다.

"엄청 튼튼한 이더라. 맞을 땐 꽉 깨물고 소리도 안 뱉고."

"내 비명 한 톨도 아까운 인간들이었거든요."

매니시가 그녀들 사이에 앉으며 대답하자 희미한 빛이 닿는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고 말을 받았다.

"맞는 말이야. 그래도 다음부턴 그러지 마, 더 맞을 뿐이니까."

고개를 든 그녀의 목덜미 전체가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매니시는 어둠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멍의 경계가 남자의 손 모양이라고 확신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릴 구하러 올 거예요."

데리러 오겠다던 그의 말을 떠올리며 매니시가 말하자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지금까지 왜 몰랐나 싶을 만큼 매니시의 어깨가 곤두섰다. 그녀는 그보다 강렬한 부정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즐거운 기색이 담기지 않은 웃음은 텅 비어서 어딘가 굶주린 느낌이 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들을 설득하기에 매니시는 너무 지쳐있었다. 그녀는 그저 헛헛한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다. 아무도 그런 매니시를 건드리지 않았다.

지하 감옥은 곧 언제 시끄러웠냐는 듯 다시 조용해졌다. 의미 없는 웃음소리와 말소리 대신 여인의 젖은 숨소리와 간헐적인 흐느낌이 차가운 벽에 부딪혀 어둠 속을 맴돌았다.

이상한 밤이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벌레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간을 삼키다가, 삼켜졌다가, 끝나지 않는 어둠에 떨었다가 또 안도하는 밤.

그러다 가늘게 뜬 눈으로 매니시는 결국 확인한 것이다. 차가운 벽 저 높이 새어 들어오는 실낱같은 아침을.

아침 해가 이 감옥에 주는 것이라곤 잔혹한 깨달음뿐이었다. 매니시는 밝아오는 시야를 따라 모두가 잠들어 죽은 것 같은 그 공간을 걸었다. 비릿한 쇠 냄새를 맡으며 창살에 얼굴을 기댄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창살과 여자, 벌레뿐이었다.

자유롭게 창살 너머로 돌아다니는 벌레가 그녀들의 처지보다 나아 보였다. 멀지 않은 맞은편 창살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깨어 있어요?"

매니시가 속삭였다. 그녀의 뒤쪽에서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밤을 보낸 것은 매니시뿐이 아닌 모양이었다. 이곳은 하루고 이틀이고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다들 숨죽이고 견딘 모양이었다. 마치 멈춰버린 듯한 이곳의 시간을.

그러나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마음도 매니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도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이해하는데도,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화이트럼의 비밀 통로에서 잡았던 따뜻한 손 대신 차가운 창살이나 만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라고 매니시는 자조했다.

"난 돌아갈 거예요."

조금 커진 목소리로 매니시는 대답하지 않는 청중을 향해 말했다.

"꼭 데리러 온댔으니까, 믿고 기다려야겠지만"

그녀의 구두 위로 기어오는 벌레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매니시가 발을 털자 벌레는 쉽게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맨발로 걸을 때와 비하면 굽 낮은 구두를 신고 걷는 길은 참, 쉬웠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우리 아침은 먹을 수 있나요?"

이번에도 들려오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매니시는 포기하지 않고 어제 말을 섞었던 같은 방의 여자들에게 다가갔다.

"아침이요, 아침. 아침 식사는요?"

"없어. 식사는 오후에 한 번이야."

"그거 큰일인데, 뭘 좀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죠."

부러 호들갑스럽게 말한 매니시는 일어나 같은 자리를 맴돌며 침체된 몸과 머리를 깨웠다. 억지로 감고 있던 눈을 뜬 여자 몇몇이 그런 그녀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정신없으니까 제발 앉아요!"

신경질적인 외침에 돌아본 곳에는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걸었던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머리를 부여잡고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짜 미친 걸 그냥 넣으면 어떡해, 이 XX 새끼들."

"이리와."

여자의 다른 모습에 매니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목에 멍 자국을 단 여인이 손짓으로 그녀를 불렀다. 여인은 흉측한 멍 자국만 아니라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미인이었다.

"왜 저러죠?"

"원래 저래. 어제가 가짜고."

여인의 부러질 듯 가녀린 손가락이 근처의 벽을 향했다. 매니시가 어릴 때 성벽에 한 낙서처럼 투박한 선들이 있었다.

"3일에 한 번씩 팔려나가. 이런 곳이라도 노예로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대신 팔려줄 예쁜 신입이 들어오면 반기는 것뿐이야."

아래 놓여있던 돌을 주워든 여인이 세 번째 작대기를 그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만, 걱정할 거 없어. 오늘 예정된 상품은 나거든. 덕분에 어제오늘 달빛, 햇빛 직방으로 쬐면서 몸보신 잘했지 뭐."

태연한 말투와 다르게 여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돌조각을 뺏어 든 매니시는 차분히 물었다.

"언제 데리러 와요?"

"오후에 식사 배급할 때 겸사겸사."

"그럼 아직 한참 남은 거 맞죠?"

미약한 빛줄기를 따라 한참 고개를 든 매니시는 손가락 한 마디 폭의 구멍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멍은 높이 있고 작기도 했지만 벽의 두께 때문에 햇살이 얼마 못 들어왔다. 이곳에선 흐린 빛도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래. 지금 아마 이른 아침일 거야. 오후에는 여기도 꽤 소란스럽거든."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멀쩡히. 검문소 근처라 병사들도 꽤 자주 다닐걸."

병사에 관해 얘기하는 여인의 얼굴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차가웠다. 아마 실낱같은 희망은 이 감옥을 가장 끔찍하게 만드는 창살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네요. 그때 다 같이 소리 지르면요? 저기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녀도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멍을 가리킨 매니시의 뒤로 코웃음 소리가 들렸다.

"안 해봤겠어요?"

"여기는 조용해서 바깥소리가 들려도 밖에선 잘 안 들려. 워낙 벽이 두꺼운 데다 밖은 시끄러워서, 누군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올걸? 조용한 밤에는 이 앞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 마을에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나도 여기 와서야 알았으니까."

말을 마친 여인의 입가엔 모든 걸 체념한 듯 씁쓸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매니시는 여인의 멍 자국이 목에만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단 뭘 좀 먹어요. 마침 맛있는 쿠키가 있거든요."

물색없이 웃는 얼굴로 말을 꺼낸 매니시가 한 손으로 제 치마를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리 훑어본들 화이트럼에게 빼앗긴 외투의 주머니가 걸릴 일은 없었다.

"아, 내 외투..."

뒤늦게 그를 알아차린 손끝이 목적을 잃고 미끄러지다가 치마 밑에 숨어있던 것을 톡 건드렸다. 그 순간 아쉬움에 잠겨있던 매니시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겁지겁 치마 안쪽을 뒤지던 매니시가 얇은 줄 끝에 매달린 무언가를 꺼내 들고 소리쳤다.

"있다!"

여자들은 작은 주머니에 호들갑을 떠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정도 주머니야 우연히 갖고 들어온 여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동전 몇 닢으론 앞으로 그네들에게 펼쳐질 삶을 한 터럭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마주치는 시선 중 그녀의 기쁨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매니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를 풀었다.

주머니가 열리자 이번에는 여자들의 눈이 동그래질 차례였다. 매니시가 처음 꺼내 든 것은 주머니만 한 크기의 두둑한 쿠키 봉지였다, 투명한 비닐과 빨간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외투에 들어있던 워로드가 준 것을 제하고 딱 두 개. 부서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쿠키가 든 빵빵한 봉지가, 꼭 그만한 크기의 주머니에서 연달아 나오자 무리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생동감이 느껴졌다.

매니시는 가끔 광장에서 묘기를 부리는 곡예사나 마술사가 된 기분으로 모두의 시선을 끌며 일어나 철창 앞으로 갔다. 맞은편 방에도 그녀를 구경하는 시선이 한둘이 아니었다.

"받아요."

순식간에 창살 사이로 튀어나온 손 한 쌍이 매니시가 던진 쿠키 봉지를 받아들었다. 돌아선 매니시는 서늘한 창살에 기대앉으며 말했다.

"봐요. 내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웃으며 리본을 푸는 매니시의 주변으로 여자들이 모여들었다. 하얀 머리칼은 어두운 감옥의 작은 빛을 모두 흡수한 것처럼 유독 튀었다.

"왜 안 와요?"

멍을 단 여인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매니시의 물음에 대답은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다.

"쟨 먹으면 안 돼요. 팔리기 하루 전부턴 금식이거든요."

"이동 중이나 교육 중에 쟤가 실수하면 우리가 죽어."

모두의 손에 작은 쿠키가 하나씩 돌아가자 매니시가 봉지의 입구를 움켜쥐고 말했다.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못 먹으면 더 드릴 수 없어요."

매니시와 시선이 마주친 여인이 몸을 움찔했다. 그때 다른 여자의 손이 매니시의 손을 파고들었다.

"이리 내!"

"싫어요!"

굶주린 자의 손은 뾰족하고 억셌다. 누군가는 말리고 누군가는 동조하는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두려움이 차올랐다. 그러나 매니시는 손등을 다 뜯기더라도 놓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만해. 먹을 테니까."

어느새 다가온 여인의 목소리에 혼란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매니시 대신 날카로운 고음이 대답했다.

"신참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규칙이 다 무너졌네요. 들키면 누구 하나 죽어 나갈, 읍."

여자의 입에 쿠키를 밀어 넣은 매니시가 하나를 더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진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우릴 개돼지 취급한다고 진짜 개돼지가 되어줄 순 없어요... 절대."

저도 하나를 꺼내 문 매니시가 다시 무리에게 쿠키를 하나씩 나눠주며 덧붙였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면 지들이 어쩌겠어요. 우리가 입만 잘 털면 아무것도 모를걸요?"

사이좋게 쿠키를 두 개씩 손에 쥐자 봉지엔 가루만 남아 있었다. 비록 하룻밤 새 더러워진 손이지만 상징적인 느낌을 위해 손등으로 입술을 닦은 매니시가 씩 웃었다.

"또 없어요?"

"아쉽지만 먹을 건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거 마법 주머니야? 그 비싼 거."

"네. 비싸서 손가락만 빨던 건데 선물 받았어요."

"남자? 잘생겼어?"

당분이 들어가자 차가운 창살 사이로도 희미한 훈기가 돌았다. 이 어두운 공간에 처음 찾아온 활기가 매니시를 따라다녔다.

"어떻게 알았어요? 무지 잘생겼는데."

자랑스레 미소짓는 매니시의 주위로 잔웃음이 또로록 피어났다. 잠깐이지만 저들이 있는 곳이 어둠뿐인 감옥 안이 아닌 것처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고 있던 여자에게 묻자 대답은 맞은편 창살 사이에서 돌아왔다. 그 사이로 뻗어진 손에는 빈 쿠키 봉지와 빨간 리본이 들려있었다.

"우리 쪽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 대답에 홱 돌아선 매니시가 양손으로 창살을 붙잡고 물었다.

"여기 쓰레기통도 있어요?"

짧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이 돌아왔다.

"진짜 쓰레기통은 아니고, 벽에 작은 틈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 넣는 거죠. 오늘 쓰레기가 많아서 곧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붉은 리본을 흔들어 보인 여자가 그것을 들고 돌아섰다. 확실히 이 무채색의 공간에서 매니시의 머리카락만큼이나 눈에 띄는 색이었다. 그러나 지금 매니시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터져?"

순간 짠 것처럼 병사들의 군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매니시의 착각이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뒤돌아 확인한 얇고 네모진 빛을 가로막은 발은 진짜였다. 매니시가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왜 그래?"

그녀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매니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발을 내디뎠다. 구멍의 바로 아래에 설 때까지.

지켜보는 사람의 고개가 아플 정도로 고개를 쳐든 매니시에게 누군가 물었다.

"환풍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환풍구? 여전히 구멍, 작은 환풍구에서 눈을 떼지 못한 매니시의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맺혔다. 곱게 휜 눈매는 달콤해 보이기까지 했다.

"환풍구였구나..."

인연이 깊은 단어였다. 매니시는 이미 한 번 그를 통해 탈출한 적이 있었다.

"그래, 잘생긴 남자 두고 환풍구랑 사랑이라도 빠진 거야?"

매니시가 손을 뻗었다. 그녀의 팔길이로는 턱없이 모자란 높이였다.

"글쎄요. 둘 다 나쁘진 않죠. 근데 여기 닿는 사람 있어요?"

매니시의 질문에 제일 키가 큰 여자가 다가와 손을 뻗었다. 그녀는 매니시보다 한 뼘은 컸지만 환풍구까지는 여전히 약간 부족한 상태였다.

"아무래도 누가 엎드려야겠네요."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거기 닿아서 뭐 한다고, 개미가 아닌 이상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할 텐데."

누군가 투덜거리는 소리에 매니시는 활짝 웃는 얼굴로 돌아섰다.

"무슨 소리긴요. 탈출에 관한 얘기죠. 적어도 이 정도는 저 틈으로도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제 허리춤에 연결된 주머니의 줄을 잡고 흔들어 보인 매니시가 물었다.

"그거야 가능하겠지만, 신나서 주머니만 주워갈걸요. 엎드려서 보지 않는 이상 밖에선 이 구멍 속이 안 보이거든요."

"그거야 그렇겠죠. 하지만 우린 좀 요란하게 관심을 끌 거예요. 터트릴 거거든요."

"아!"

깨달음의 탄성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은 반대편 창살에 매달린 여성에게서였다. 그녀를 시작으로 매니시의 계획을 이해한 무리에게 침묵이 감돌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침묵이었다. 또 헛된 희망을 품어버린 자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다른 이의 설명으로 뒤늦게 계획을 이해한 여자가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터지면 우리를 알아줄까요? 사람들은 바빠요.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말을 하면서도 절로 상상되는 끔찍한 결말에 여자의 음성이 흐려졌다. 다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갑자기 찾아온 기회는 그만큼 모두의 심장을 채찍질했다.

"이 신호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와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가 준 마법 주머니를 끌어안은 매니시가 짧은 호흡으로 단언하자 불안을 표하는 이도 있었다.

"그런 불확실한 일에,"

"난 찬성. 여기서 더 나빠질 데도 없잖아."

다른 이의 말을 끊고 손을 든 사람은 목에 난 멍을 쓸던 여인이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생겼다던 그인가요?"

짓궂은 물음에 입술을 문 매니시는 자꾸만 올라가는 입꼬리를 붙잡을 수 없었다.

"이봐, 단장님. 이 길도 저 길도 아까 다 본 데야."

이콜로지가 자리에 멈춰서서 꼬집자 워로드의 발걸음도 멈췄다. 그의 한 손엔 후작에게 받은 마도구가 들려있었다. 그것은 평균보다 크기가 약간 크다는 것을 제하면 평범한 나침반과 다를 바 없었다.

"이쪽 반응이 제일 강해."

유리 안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바늘을 바라보며 워로드가 답했다. 가는 침은 그의 정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벌써 세 번째 일이라는 게 문제였다.

"망가진 거 아냐?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없잖아."

벌써 같은 구역만 세 바퀴째에 이르자 초조한 마음이 도를 넘어섰다. 해는 저 높이 솟은 지 오래, 점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탓에 관광 인파가 점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아니, 프릴과 네이브도 이 마을이라고 했으니 마도구엔 문제가 없어."

그와 시선 한 번 안 마주친 워로드는 바늘에 혼을 판 사람처럼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머리를 잔뜩 헝클어뜨린 이콜로지가 그의 뒤를 쫓으며 말했다.

"걔네야말로 믿어도 되는 거냐? 그 똥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던데."

이콜로지는 비틀거리며 걷다 여기저기 부딪치던 프릴을 떠올렸다. 같이 다니자니 도움보다 짐인 터라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외진 곳을 수색 중이었다.

"잔말 말고 따라와. 아무래도,"

마도구를 바라보는 워로드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곧 부서질 것처럼 진동하는 바늘이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핑그르르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다.

바늘이 요동칠 때마다 워로드의 피는 솟았다가 추락하기를, 끓어올랐다가 얼어붙기를 반복했다.

점심을 준비하는 가정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말의 울음, 무거운 짐이 마차를 오르내리는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워로드는 그 평화로운 소음에 갇혀있었다.

또다시 요동치는 바늘을 바라보며 그가 흔들리는 숨을 내뱉었다.

"여기 같으니까."

다시 한 걸음, 핑그르 돈 바늘이 정지한 곳은 워로드의 뒤를 향하고 있었다. 마도구의 오차를 감안해도 최대 열다섯 걸음, 그 안 어딘가 있었다. 매니시가.

"여기라고? 여긴,"

이콜로지가 말을 흐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중개 상단이 들어선 거리는 소란스러웠지만, 단순하기 그지없어 창고와 마구간, 커다란 여관이 전부였다. 수상해 보이는 창고며 늘어선 짐마차는 이미 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이콜로지의 시선이 정착할 곳은 하나뿐이었다.

점심 장사를 시작한 여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독한 꽃향기 속에서 그를 보며 워로드는 솔직히 인정했다. 그의 두려움을. 어떤 꽃이든 쉽게 꺾이고 마는 이 땅에서 그의 꽃이 마지막 향기를 뿜고 있을까 봐.

그는 천국을 잃을 작정이라면 차라리, 이 열다섯 보 안의 지옥에서 영영 서성이고 싶었다.

"정신 차려."

툭, 워로드의 어깨를 친 이콜로지가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워로드도 뒤늦게 걸음을 내디뎠다. 너무 무거운 걸음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던 매니시가 멈칫하고 고개를 들었다.

"왜?"

창살 앞에서 봐야 겨우 신발 밑창이나 볼 수 있는 환풍구를 들여다보던 매니시가 고개를 저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주머니를 들락거리는 매니시의 손이 빨라졌다.

"아직도 더 필요해요?"

불안한 얼굴의 여자가 물었다.

그녀뿐이 아니었다. 무릎 위로 껑충하니 찢어진 치마, 제각각 뜯긴 소매, 스타킹, 외투, 하다못해 머리끈 하나까지 몽땅 털어낸 여자들에겐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었다.

"…네."

야속한 주머니는 모은 것을 다 집어삼키고도 미동이 없었다.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주머니를 채우기에 그녀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감옥 속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다.

"쓰레기라도 다시 빼 올게요."

"…벌레라도 잡을까?"

일순 매니시뿐 아니라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침 구석에서 기어가는 벌레에게 원망의 시선이 쏠렸다.

"미안, 조용히 있을게."

다른 이들의 시선과 다르게 매니시의 시선은 벌레에게서 떨어져 제 밑을 향했다. 그녀는 정말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느니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을 쓰죠."

목소리는 단호했다. 매니시의 시선을 따라간 여자들이 발견한 것은 더 찢을 구석 없는 짧은 치마,

"그 아래."

구두를 벗고 바닥에 내려선 하얀 발이 보였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에 무리가 말을 잃고 서 있자 매니시가 덧붙였다.

"이 발로 나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같이 나가요."

에휴,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조용한 감옥을 흩트렸다.

"내 손으로 이곳 벌레의 씨를 말리느니 몇 마리 밟는 게 낫겠네요."

누구에게나 까칠한 여자가 퉁퉁거리면서도 신을 벗자 여자들은 하나둘 자신의 맨발을 내보였다. 결국엔 한 명도 남김없이.

맞은편 감옥에서도 신들이 넘어왔다.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감옥은 유례없이 떠들썩했다.

"빨리 빨리해요. 병사들 점심 먹으러 왔어."

환풍구 아래서 바깥소리를 살피던 여자가 말했다. 무리의 손이 좀 더 빨라졌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그놈들이 우리한테 올 거야."

곁에 있던 여인이 속삭였다.

매니시를 빼곤 모두 아는 사실인 모양이었다. 창백한 얼굴에 부릅뜬 눈이 그녀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여들고 있어. 더 없어요?"

주머니의 입구가 반쯤 넣고 있던 매니시의 손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빼내자 주머니는 좁아지는 것을 멈췄다.

반가운 일이었다.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든 매니시의 눈에 비친 것이 당황한 면면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없어요?"

"그게 다야."

곁에 있던 여인이 대답했다. 여인의 떨리는 손가락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쓸었다. 매니시의 눈이 순식간에 여자들과 창살뿐인 감옥 안을 훑었다.

옷 한 장만 남은 맨발의 여자들, 물러설 곳은 없는데 빠져나갈 구멍도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매니신지 뭔지 그런 여자 못 봤어요, 괜히 손님들 불안하게 이상한 소리 마시고 가세요!"

본능적으로 제 이름이 들어가는 소리를 놓치지 않은 매니시가 비틀비틀 환풍구를 향했다. 얼굴도 목소리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매니시의 심장은 그를 만난 듯 달려나가고 있었다.

"단장님!"

차가운 벽에 손을 올리고 소리를 높였다. 고여 있는지도 몰랐던 눈물이 넘쳐흘렀다.

"단장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밀쳐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멈출 수 없었다. 몇 번이고 외치는 그녀에게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 여기 있어요…, 워로드."

차가운 벽에 이마를 비비며 그를 불렀다. 내내 부르고 싶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걸까. 매니시의 움켜쥔 주먹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때 안쓰러울 정도로 마른 손이 축축하게 젖은 매니시의 손을 덮었다.

"부를 수 있어."

어른거리는 시야에 거뭇거뭇한 목이 보였다.

"집에 딸이 있는데, 잠깐 장 보러 다녀온다는 게 너무… 오래됐어. 나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홀딱 벗고 뛰어다닐 수도 있다?"

크게 뜬 매니시의 눈에 비장한 엄마의 얼굴이 비쳤다.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난 나갈 거야. 모자라면 다 벗어서라도. 그러니까,"

여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니시의 눈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물체가 잡혔다. 비장한 분위기를 흐리고 여인의 단호한 얼굴 위로 비죽 솟아오른 것은 여성의 속옷이었다.

"됐고, 그냥 이거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노출증 있어요?"

그 엄한 의혹에 꼭 부여잡고 있던 매니시와 여인의 손이 떨어졌다. 동시에 놀리는 것처럼 매니시가 팽개쳤던 주머니가 쓰러져 혀를 내밀었다. 실상은 그냥 누군가의 양말 한 짝이었겠지만.

"자, 그 사람들 오기 전에 해요. 더는 한시도 여기 있기 싫어!"

주머니를 주워든 매니시가 속옷을 받아들 때였다.

철컥, 걸쇠가 움직이는 소리 뒤로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이어졌다. 무리는 일시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숨을 멈췄다.

"하여간 이번에 완전 잘못 샀어. 순진하게 생겨선 귀족이랑 놀아나는 계집이었다니."

"아무도 없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 가겠지. …근데 너희 꼴이 왜 그러냐?"

저들끼리 대화하며 들어오던 남자들이 여자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들고 있던 것을 뒤로 감춘 매니시가 주춤 물러섰다.

"얼씨구, 아주 가관이고만? 빨리 팔려가고 싶어서 용쓰는 거냐?"

비아냥거리는 사내의 말에도 모두의 머릿속을 지배한 문장은 따로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 가겠지.'

그 말은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니까. 창살 사이로 여자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이 철창에 매달리는 사이 여자 두 명이 매니시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환풍구 아래 꽁꽁 뭉친 세 사람이 속삭였다.

"내가 엎드릴게요."

"괜찮겠어요? 제가 엎드려도 돼요."

"가벼운 사람이 올라가는 게 맞아. 그리고 그 주머니에 대해 잘 아는 건 너뿐이고."

매니시가 입을 꼭 다물자 눈치를 살피던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렸다. 찌르는 듯한 냉기는 심장까지 얼릴 듯 여자의 땀구멍을 바싹 조이게 했다.

잠시 망설이던 매니시가 다리를 들자 짧아진 치마가 허벅지까지 올라갔다. 그 하얀 다리가 어둠 속에서 눈에 띈 탓일까.

"거기 뭐하냐?"

동시에 매니시의 어깨가, 아니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완벽한 운명공동체의 모습이었다.

터벅터벅, 빠른 사내의 발걸음이 감옥 사이를 가로질렀다. 매니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의 등을 밟고 올라섰다. 여인은 매니시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등을 받혔다.

"뭐하냐고!"

"일단 잡아!"

남자들이 철창문에 닫기 직전, 창살 틈으로 빠져나온 가느다란 손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챘다. 잠시 주춤한 남자가 손을 털어내자 더 많은 손이 따라왔다.

"이것들이 미쳤나."

뒤로 물러서던 남자의 등에 동료의 등이 부딪쳤다. 힐끔 뒤를 돌아본 사내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곳에도 그들을 잡으려는 손이 창살마다 빼곡했다.

아비규환이었다.

"이것들이 단체로 뭘 잘못 주워 먹었나, 죽고 싶어?"

뒤로 물러서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말에 여자들에게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너 같은 놈한텐 안 죽어!"

그 외침을 이루기 위해 매니시는 주머니에 마지막 먹잇감을 집어넣었다. 홀쭉한 배와 다르게 거하게 포식한 녀석이 입을 닫고 몸을 잘게 떨었다.

그때 뒤에서 여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돌아본 매니시의 눈에 여자들의 손을 무참히 짓밟는 남자들이 보였다.

"저년 들어오고, 애들이, 말을 안 듣네! 까짓거, 다 밟아버려!"

중간중간 호흡이 끊길 정도로 그들의 발길질은 거침없었다. 벌레를 대하듯 무참한 그 걸음이 향하는 곳은 명백했다. 순간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네 주인은 특별히 신경 써서 골라줄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게 말야."

딱히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사내의 목소리는 비명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기어 올라왔다. 입술을 깨문 매니시는 그의 미소를 보며 주머니를 꽉 조였다.

"빨리!"

주머니의 진동이 강해졌다. 긴장으로 흠뻑 젖은 손은 눈에 보일 만큼 떨며 주머니를 환풍구에 맞췄다.

그와 동시에 철창의 잠금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비켜! 이거 안 놔? 야, 당겨!"

철컹거리는 소리와 악을 쓰는 여자들의 소리가 들렸다. 철창문에 매달린 여자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자 두 사람이 붙어 문을 당기자 무리의 몸은 갈대처럼 휘청였다.

"빨리, 곧 열려!"

여인의 재촉에도 매니시는 속수무책이었다. 환풍구에 밀어 넣은 주머니는 꿀렁이더니 누군가의 낡은 소매를 뱉어내고 있었다. 주머니를 빼서 입구를 다시 조여야 할 상황이었다.

흥분으로 떨리는 손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설펐다. 바싹 마른입, 온몸을 울리는 고동, 가파른 숨이 세상을 어지럽혔다. 매니시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인지할 수 없었다.

"제발, 제발..."

어느새 입은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소매를 넣고 입구를 다시 조인 주머니를 환풍구에 밀어 넣으며 매니시는 간절히 기도했다. 안온한 내일이 오기를.

순간 발밑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엎드린 여자의 힘이 다해가는 모양이었다.

여인은 재빠르게 매니시를 받히고 뒤를 돌아봤다. 여자들이 우르르 쏟아지며 철창문이 열리고 있었다. 덩달아 넘어진 한 명의 사내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 명은 입구에 널브러진 여자들을 막무가내로 밟아가며 넘어오고 있었다.

"온다!"

겁에 질린 목소리가 숨통을 조여왔다. 한껏 뻗어 올린 매니시의 팔이 부르르 떨렸다.

"제발…"

매니시의 손 때문인지 폭발 직전의 전조인지, 격렬하게 떨리는 주머니를 주무르며 매니시가 외쳤다.

"제발 터져!"

"이 미친 X들이!"

가로막은 여인을 밀친 남자가 그 억센 손아귀 안에 하얀 머리칼을 틀어쥐었을 때였다.

엄청난 폭음이 거리를 뒤흔들었다. 작은 환풍구에서 쏘아진 자유에 대한 갈망은, 불똥 하나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매니신지 뭔지 그런 여자 못 봤어요, 괜히 손님들 불안하게 이상한 소리 마시고 가세요!"

종업원에게 떠밀린 이콜로지가 넉살 좋게 웃으며 금화 하나를 꺼내 들었다. 파르두스 후작과 화해한 그의 주머니 사정은 꽤나 넉넉했기 때문이다.

"에이, 협조 좀 해줘. 조용히 몇 가지 물어보기만 할게.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금화에 눈이 팔린 종업원의 어깨에는 어느새 이콜로지의 팔이 얹혀 있었다. 그는 좀 더 극적으로 보이려고 금화에 반사된 빛을 종업원의 얼굴로 향하게 했다.

종업원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최면에 빠진 사람처럼 그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이콜로지는 은근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누구랑 오지 않았어? 하얀 머리가 눈에 띄는 예쁜인데."

"그게..."

"야, 바쁜 시간에 거기서 뭐 하냐?"

그러나 종업원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도 전에 끼어드는 목소리가 있었다. 사색이 된 종업원이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 지배인님, 그게, 손님이 자꾸..."

"너 들어가."

종업원은 짧은 턱짓을 거스르지 못했다. 이콜로지의 팔을 떨치고 돌아서는 눈길이 금화에 잠시 머물렀다가 떨어졌다.

"무슨 일인데 한창 바쁜 시간에 우리 종업원을 붙잡으십니까? 손님."

한쪽만 올라간 눈썹은 명백한 불만의 표시였다. 그는 이콜로지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금화도 본체만체 우드득 소리를 내며 목을 돌렸다.

슬쩍 금화를 챙긴 이콜로지가 그대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말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뭡니까?"

마치 누가 더 불량한 태도로 말할 수 있나 대결을 하는 사람처럼 지배인이 팔짱을 꼈다.

"잘 아는 아가씨가 여기 온 것 같아서 말야. 근데 자꾸 방어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지배인은 싱그럽게 웃는 이콜로지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대답했다.

"업무상 손님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손님이 범죄자라도?"

"밤늦게 와서 급하게 떠난 손님이 범죄자인지, 지금 눈앞에 있는 손님이 범죄자인지,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문제죠."

"밤늦게 와서 급하게 떠난…?"

그 의미심장한 예시를 이콜로지가 놓치지 않자 턱짓으로 검문소 쪽을 가리킨 지배인이 머리를 긁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맺혀 있었다. 검문소로 시선을 옮긴 이콜로지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더는 저도 곤란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잠깐만, 어이!"

지배인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그럴듯하게 곤란한 얼굴을 꾸며낸 채였다. 그는 이콜로지의 부름을 못 들은 사람처럼 돌아섰다.

조용히 내부를 수색하고 나오던 워로드가 그를 스쳐 지나왔다.

"무슨 얘기 중이었지?"

워로드는 이콜로지에게 다가오면서도 지배인의 뒤통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막 도착한 짐마차에서 짐을 내리는 인부들로 거리가 시끄러웠다.

"안에 없지?"

확신에 찬 물음에 워로드의 시선이 그에게로 돌아갔다. 그 침잠한 눈동자에서 대답을 얻은 이콜로지가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럴 때가 아니야. 검문소로 가자. 아무래도 이미 여길 떠난 것 같아."

"무슨 근거로?"

워로드가 여전히 바늘이 요동치는 마도구를 들어 보였다. 주춤한 이콜로지가 그의 팔을 놓았다.

"그게 정확하다는 근거야말로 없잖아. 실제로 여관 안에 매니시는 없었고."

그의 말이 맞았다. 그러나 워로드에게 의지할 데라곤 얇은 바늘뿐이었다.

"어젯밤에 급하게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었대. 검문소는 바로 이 앞이야. 그쪽부터 확인하고 별게 없으면 다시 와도 되잖아. 이렇게 마냥 헤매고 있는 것보단 일단 뭐라도 해 봐야지."

"…그래."

워로드가 마지못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여관을 등지고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 못 할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익숙한 음색이 얼핏 귓가를 스친 것도 같았다.

멈칫, 그가 돌아봤을 때 어떤 인부 하나가 짐을 떨어트렸다. 득달같이 달려온 중년의 여인이 그를 타박하는 것이 보였다. 소란스러운 거리였다.

다시 고개를 돌린 워로드가 어느새 멀어진 이콜로지를 따라잡을 때였다.

펑! 거리 안쪽에서 커다란 폭음이 울렸다.

"뭐야?"

그렇게 외친 것은 이콜로지뿐이 아니었다.

뒤쪽 검문소에선 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겨를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외쳤다. 폭음을 바로 앞에서 느낀 사람들과 워로드를 빼고.

거리 안은 난장판이었다. 인부의 손에서 벗어나 나동그라진 상자들, 울부짖으며 다리를 치켜든 말과 자욱하게 일어난 흙먼지. 사람이고 물건이고 온통 깨지고 흩어지고 엎어진 것투성이였다.

그러나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난장판 어디에도 열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대신 이상한 일은 있었다.

"저, 저게 뭐야?"

누군가의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절대 자연이 허락할 리 없는 비. 걸음을 내딛는 워로드의 눈동자가 공중에 뿌려진 낡은 옷가지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이콜로지는 제 발 앞에 떨어진 양말 한 짝을 주워들었다. 엄지와 검지 끝으로 간신히 붙든 양말은 낡고 더러웠다.

"하늘에서… 웬 양말? 세상이 멸망할 징조치곤 너무 구린데."

얼굴을 찌푸린 이콜로지가 중얼거렸다. 워로드는 뒤에서 그가 무어라 중얼거리든 멈추지 않았다. 짐마차의 모서리에 걸린 여자의 속옷이 보였다.

어느 파티에선가 주머니가 터져 망신을 당했다는 아가씨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마법 주머니에 대해 홀린 듯 설명을 이어가던 매니시의 얼굴도.

워로드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매니시!"

조금만 더 늦게 나섰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돌아봤더라면.

거리의 한가운데 선 그는 매니시의 마법 주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바닥에 있을지 높은 곳에 있을지조차 감이 안 왔다. 그저 그녀가 어딘가에서 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시야를 가리는 옷가지는 시간을 두고 계속 떨어져 내렸고 평범한 갈색 가죽은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그의 심장은 달음박질치다가 넘어지길 반복했다. 이제 그만 좀 하라며 누군가 그의 심장 안에서 툭툭 발길질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옷가지와 함께 쏘아져 여태껏 바람을 타고 떠돌던 종잇조각이 그의 눈앞을 스쳐 갔다. 날카로운 움직임이었지만 워로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가 얼마 전 매니시에게 건넨 쪽지였다.

종잇조각은 지그재그로 허공을 가르고는 바닥과 여관 건물 경계의 좁은 틈으로 쏙 사라졌다. 있는지도 몰랐던 틈이었다.

작은 가죽 주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흙먼지가 바람에 밀려 생긴 부채꼴의 공간이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갑자기 왜 그래, 뭔가 찾은 거야?"

급하게 쫓아온 이콜로지가 물을 때 워로드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매니시의 위치를 확신하는 순간 그의 손이 검 손잡이를 더듬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의 구조도 모르는 상태로 잘못 베었다간 그녀가 위험할 수 있었다.

"따라와.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야 하니까."

워로드는 반 뼘쯤 빼든 검을 놓는 대신 이콜로지의 멱살을 틀어쥐고 여관 입구로 향했다. 정체 모를 폭음에 손님들은 모두 입구에 몰려있었다.

"으아아, 비켜요, 비켜!"

멱살을 잡혀 게걸음으로 끌려가던 이콜로지가 외치자 거리를 향한 혼란스러운 시선들이 그들을 담았다.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워로드의 얼굴을 본 몇몇이 뒷걸음치자 무리에 균열이 갔다. 워로드는 지체 없이 그 균열 사이로 발을 들였다.

"악! 내 코, 좀 진정, 아니 내 발 누가 밟았어!"

좀처럼 입을 쉬지 않는 이콜로지를 끌고 인파를 빠져나오자 텅 빈 홀에 서린 긴장감이 살갗을 간질였다. 그제야 분위기를 파악한 이콜로지가 작게 속삭였다.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손님이 앉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 규모에 비해 많은 직원, 한 곳으로 향하는 분주한 기색의 사람들, 몇 안 남은 종업원도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직원들이 향하는 쪽에 정신이 팔린 상태였다.

갑작스레 등장한 워로드와 이콜로지를 발견하지도 못한 것이 그 증거였다.

그러니 워로드와 이콜로지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꽁무니를 따라갔다. 바깥보다 조용한 곳이어서 그런지 밖에선 들리지 않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저기야?"

가라앉은 이콜로지의 물음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고개를 끄덕인 워로드가 벌써 저만치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

"막아!"

순식간에 홀 안이 바깥보다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의 외침에 당황한 종업원들이 워로드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그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순식간에 직원들이 사라진 문 앞에 도달한 워로드가 검 손잡이를 앞으로 눌렀다.

"윽."

반대로 들려 올라간 딱딱한 검집 끝이 양손에 스카프를 감고 다가오던 남자의 배를 찔렀다. 신음과 함께 남자의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워로드가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전투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빠르게 다가서는 워로드의 발밑이 축축했다. 점심 전쟁을 벌인 부엌은 저 바깥과 다를 바가 없었다. 끓고 있는 냄비, 썰리다 만 채소, 나와 있는 온갖 집기 중에 없는 것은 사람뿐.

불쾌했다. 그러나 그가 불쾌감이라 일컬은 것은 공포와 더 닮아있었다. 일그러진 눈동자가 보다 빠르게 사방을 돌아다녔다.

비명이 새어 나오는 찬장을 발견하기 전까지.

"으으, 젠장. 따라가서 철문 잠가 버려!"

배를 움켜쥐고 몸을 일으킨 남자가 문이 열린 찬장을 보며 명했다. 대답은 바로 뒤에서 돌아왔다.

"누가?"

친절하게 대답한 이콜로지는 망설임 없이 들고 있던 의자를 내려쳤다.

폭발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감옥 안을 한동안 맴돌았다.

예상하던 여자들조차 놀랄만한 크기의 소리였다. 대부분이 귀를 막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것은 여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자라도 마찬가지였다.

덕분에 그에게서 풀려난 매니시였지만, 그녀는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당겨진 두피보다 아무런 제동 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몸이 비명을 질렀다.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시야는 꼭 지금의 그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먼저 몸을 일으킨 것은 소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여자들이었다. 떨리는 눈꺼풀이 달라진 세상을 담기 위해 걷혔다.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의심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성공이야?"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애매하게 떠오른 분위기에 하나둘 목소리를 더했다. 그중 잊혔던 사실을 꼬집는 떨리는 음성이 있었다.

"문이 열려있어요."

매니시였다. 머리를 부여잡은 그녀가 비틀비틀 일어나자 부축해주는 손이 있었다.

"나가려고?"

굳이 음성이 아니라도 알 수 있었다. 어깨를 붙잡은 억센 남자의 손. 매니시의 귓가에 축축한 숨이 닿았다.

"나가면 후회할 텐데..."

킬킬거리는 소리가 기묘한 정적에 휩싸인 감옥 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두꺼운 철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말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동시에 매니시가 휘두른 팔꿈치는 남자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읏, 이게 진짜!"

명치를 쥐고 웅크린 남자를 밀치며 매니시가 외쳤다.

"다들 나가요!"

매니시는 넘어진 남자를 등지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몸은 그녀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아 모든 것이 더디기만 했다.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서성이던 여자들은 그 모습에 정신을 차린 듯 문을 넘었다. 우르르 빠져나오는 여자들의 모습에 문가에 홀로 서 있던 남자는 슬쩍 발을 물렸다.

상황파악이 빠른 여자들은 문가에 엎어진 사내를 감옥 안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마침내 사내의 몸을 완전히 밀어 넣자 그녀들은 문을 잡고 매니시를 바라봤다.

하지만 바로 코앞까지 온 매니시는 문을 넘지 않고 주춤거리고 있었다.

"뭐해, 빨리 나와."

누군가의 재촉에 입술을 깨문 매니시가 돌아섰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내와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자. 쓰러진 사내는 커다란 열쇠를 쥐고 있었다.

망설일 새는 없었다.

무릎을 꿇은 매니시가 남자의 손에서 열쇠를 빼내기 시작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도 어찌나 꽉 쥐고 있는지 열쇠는 쉽사리 빠지지 않았다.

절뚝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매니시는 안간힘을 다해 열쇠고리를 당겼다. 이에 짓눌린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툭.

손에서 빠진 열쇠와 함께 몸이 뒤로 넘어갔다. 한 걸음 앞에서 내려다보는 남자, 멀리서 희미하게 울리는 음성, 최악의 상황이었다.

다 나왔다고? 어쩌다?

몰라. 멍청한 새끼들이 속았는지 어쨌는지,

철문 쪽에서 나는 소란은 점점 가까워졌다.

"아주 난리더라구."

마침내 소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의 시선은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쪽을 향했다. 그 사이 매니시는 일어나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바로 뒤에,

"문 닫아!"

쾅! 그 남자가 있다는 걸.

철창에 정면으로 부딪친 남자가 뒤로 넘어갔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지하로 내려오는 걸음이 꽤 많았다.

"저 바보 같은 놈. 계집애들 하나 못, 다루고!"

선두에 선 남자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팔을 휘둘렀다. 그의 두꺼운 손에 뺨을 맞은 여자가 철창에 부딪혀 쓰러졌다.

어찌나 세게 부딪혔던지 창살이 오랫동안 울렸다.

창살 안쪽에 갇혀있던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어느새 좁은 지하에 다섯이나 되는 장정이 들어와 있었다.

"기회 줄 테니까 니들 발로 다시 들어가, 처맞기 싫으면."

저벅. 남자는 공포를 다루는 것에 익숙해 보였다. 그의 느린 발걸음이 다가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러나 매니시만큼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선을 준 채 손으로는 열쇠를 가늠했다.

마침내 커다란 열쇠가 손에 착 감겼다.

매니시는 아무렇지 않게 아직 잠겨있는 철창으로 다가갔다. 열쇠를 맞추자 예상했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야! 거기 안 멈춰?"

시선을 마주친 매니시가 말했다.

"싫어."

태연하게 미소까지 지어 보인 매니시의 손이 움직였다. 달려오는 남자보다 열쇠가 돌아가는 것이 빨랐다.

엇박의 구타음과 철창이 흔들리는 소리 위로 비명과 신음이 어우러졌다.

하나둘 넘어지는 여자들의 끝에 서 있던 매니시에게도 남자의 손길이 미쳤다. 그녀의 멱살을 잡아챈 남자가 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찰나의 순간, 매니시도 팔을 들어 얼굴을 보호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녀린 팔은 돌처럼 단단한 주먹을 막기에는 무리였다. 연달아 내리쳐진 주먹에 신음은 이어지지 못했고 충격이 만들어낸 진동은 팔뼈를 엉금엉금 타고 올랐다.

남자가 멱살을 놓자 매니시의 몸이 허물어졌다.

"니들 나오면 이렇게 될 줄 알아!"

머리채를 잡은 남자가 창살에 갇힌 여자들을 향해 매니시를 끌고 갔다. 피범벅 된 얼굴이 남자의 손짓에 따라 창살에 이리저리 눌렸다.

창살보다 남자의 손길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예쁘지? 윽."

소름 끼치게 웃던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매니시가 제 머리채를 붙잡은 손가락을 반대로 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머리채를 놓치자마자 매니시는 창살을 쥐고 일어났다. 머릿속에서 워로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기회야, 가차 없이 차.'

망설임은 없었다, 그의 말대로.

"악!"

그와 동시였다. 누군가 걷어찬 듯 큰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활짝, 아주 가볍게.

그 순간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발길질하는 남자와 물어뜯는 여자, 그녀가 자신의 싸움으로 바쁠 때 다른 이들도 각자의 싸움으로 바빴던 것이다. 비명은 어느새 투쟁의 신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투쟁의 한가운데서, 매니시와 워로드의 시선이 맞닿았다.

바보같이 울음이 터졌다. 얼굴이 엉망일 텐데, 생각하면서도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 매니시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는 한 번도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걸으면서도, 검집을 휘두르면서도.

그는 용케도 뒤엉킨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만 쏙쏙 골라 예쁘게 물들 멍 자국을 각각 세 개씩 선사했다. 핏자국도 닦지 못한 매니시가 눈물범벅인 얼굴로 미소지었을 때는 그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그 대신 매니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단장님."

떨리는 그의 손이 뺨에 와 닿았다.

"…미안해."

"뭐가요?"

따뜻한 손이 기분 좋았다. 매니시는 굳은살이 잔뜩 박인 손이 부드러운 담요라도 된다는 듯 얼굴을 비비며 물었다.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늦게 와서."

"딱 맞게 왔어요."

물기 어린 그 음성에 매니시는 그의 손등에 제 손을 겹쳐 위로했다. 근처에서 신음을 내며 꿈틀거리는 남자를 보지도 않고 걷어찬 워로드가 진의를 확인하려는 듯 매니시의 얼굴을 살폈다.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워로드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에 턱을 걸친 매니시는 숨 막힐 듯 조여오는 팔에 환하게 웃었다.

그의 단단한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으니까.

"많이 아팠지."

녹아들 것처럼 달콤한 목소리였다. 그것만으로도 고통이 가시는 듯했다.

"아니요."

조금 더 그에게 매달려 있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자니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다.

"근데 발은 좀 시려요. 우리 신발 좀 구해줘요."

투정 부리는 말투에 그의 반응은 빨랐다. '우리'라는 말은 어디에 버렸는지 그가 매니시를 번쩍 안아 들었다.

바뀐 것은 없었다. 여전히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누더기 같은 옷, 맨발의 그녀였지만, 그의 품에 있자 놀라울 정도로 즐거운 기분이 되었다. 매니시의 청량한 웃음소리에 쓰러진 남자들을 짓밟던 여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일단, 우리 빨리 나가요. 여기서."

"그래."

그제야 워로드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맺혔다.

꽃의 마을 플로라, 그곳에 자리 잡은 인신매매단의 본거지는 의문의 쓰레기 비와 함께 궤멸하였다. 그것이 자유에 대한 외침이었고, 비명이었다는 사실은 소수만 아는 일이었다.

"신이 노한 게지. 검문소 앞에서 버젓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말세군, 말세야."

"아니, 거기 총각들 멀끔하고 성실한 줄 알았는데 거참. 믿을 놈 하나 없네요."

"아까 여자들 봤어요? 놈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피투성이에 얼굴은 하얗게 질려선..."

엉망진창인 여관 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있던 매니시는 실룩이는 입술을 꾹 물었다. 그를 놓치지 않은 이콜로지가 물었다.

"웃음이 나오냐?"

그러나 손에 괸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감돌기는 마찬가지였다. 매니시는 그를 알면서도 코앞의 옷자락을 조금 당겼다.

"구박하지 마."

머리 위에서 들리는 워로드의 목소리에 매니시의 뺨에 붙은 거즈가 또다시 들썩였다. 일부러 그의 품에 얼굴을 기댄 매니시가 이콜로지를 향해 얄미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엉덩이 아래 맞닿은 워로드의 허벅지가 긴장한 듯 바짝 조여들었다.

"얼씨구?"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이콜로지는 헛웃음을 짓고 고개를 돌렸다. 그가 무기로 사용한 의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부숴 먹었어야 했는데..."

한숨을 쉰 이콜로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가 처리한 인원에 비해 차고 넘치는 의자였는데도 멀쩡한 건 단 두 개뿐이었다.

어딘가 하자가 생겨 나뒹구는 의자들이 그가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그를 따라 엉망진창인 홀을 둘러본 매니시가 말했다.

"고마워요."

잠시 대답이 없던 이콜로지는 머리를 긁적이곤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하다, 난 위에 아무 객실에서나 잠 좀 자고 있을 테니까 돌아갈 때 깨워라."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피곤한 건 진실인 모양인지 찢어지게 하품을 한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매니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기다렸단 듯 돌아섰다. 덕분에 매니시와 워로드의 앞에는 누구도 원치 않는 빈자리가 생겨났다.

여전히 그에게 기댄 채로 매니시가 말했다.

"자리가 생겼네요.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 아프겠다."

누가 봐도 일어날 생각이 없는 모습이었다.

"…별로."

"그래요? 그럼 따뜻한데 계속 있을까요? 오늘 날씨가 좀 춥죠?"

매니시의 입가에 슬쩍 맺힌 미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신이 난 듯 흔들리는 다리는 워로드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입가에도 슬쩍 미소가 옮았다.

"그래, 많이."

"맞아 맞아. 이런 땐 사람 체온이 최고예요."

빠르게 뛰는 두 개의 고동이 부딪쳤다.

이콜로지가 있을 땐 그러려니 했던 병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욱신거리는 몸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고, 소란스러운 여관 밖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의 고동에 집중하는 순간, 애써 뒤로한 그 모든 불편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다.

각각 다른 두 개의 고동이 서로의 존재를 느낀 듯 맞물려 울리기 시작했다. 매니시는 어느새 부드럽게 풀린 그의 몸을 느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나 실은 전부터 당신한테 묻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망설이고 겁내느라 여태 묻지 못한 게 있어요. 지난밤에 내가 낭비한 시간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뭔데?"

그의 물음에 신나게 흔들리던 매니시의 다리가 멈췄다. 의아함에 그가 시선을 내릴 찰나,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그의 허리에 와닿았다.

숨을 들이켜는 워로드는 아랑곳없이 손가락은 움찔거리는 근육 위를 스치며 느릿느릿 전진했다. 그의 허리둘레가 보통 이상으로 긴지, 매니시가 보통 이상으로 느린지, 숨 막히는 시간이 지나 그녀는 마침내 그를 품 안에 가둘 수 있었다.

달아오른 얼굴을 그의 품에 더 꼭꼭 숨긴 채 망설이던 매니시가 입을 열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빠졌죠?"

그는 잠시 아무 말도 않고 그녀를 느꼈다. 그녀의 온기, 세찬 고동, 부드러운 몸짓, 향기…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완전히."

이미 확신하고 있던 대답임에도 기다리는 순간은 길고 힘겨웠다. 그래서 만족할만한 대답을 듣는 순간 그녀는 더 기뻤다.

입술을 물고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던 매니시는 아려오는 입술에 웃음을 참길 포기했다. 대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녀가 행복할 때면 온몸을 내주던 영혼의 단짝, 베개에게 할 때처럼 그를 꼭 끌어안았다.

기쁨의 함성은 작고 짧았다.

"나도요."

매니시의 흐트러진 호흡을 걱정하던 워로드는 뜻하지 않은 큰 선물에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얼굴을 슬쩍 떼고 반응이 없는 그를 올려다본 매니시는 멍청한 그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없었다. 그녀도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 그와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얼떨떨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입술을 뻐끔거리며 망설이던 매니시는 이내 결심한 듯 그의 어깨를 잡았다. 주춤주춤 나아가는 얼굴이 마침내,

워로드에게 닿았다.

터진 입술은 그의 턱에 스치듯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재빨리 떨어졌다.

플럼에게 틈만 나면 붙여댄 입술인데도 전혀 느낌이 달랐다. 찰나에 느낀 아릿한 통증과 떨어질 때의 아쉬움, 세상을 가득 채운 거센 박동이 부끄러웠다.

붉어진 얼굴이 다시 그의 품으로 숨어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빨개진 그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근처에서 서성이는 병사 한 명도.

"으흠, 흠. 저..."

어느 정도 얼굴을 수습한 매니시가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아직도 붉은 기운이 묻어나는 아가씨의 얼굴에 젊은 병사는 곤욕스러운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뭐지?"

워로드는 그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질문했다. 얼굴의 붉은 기운이 집약된 것 같은 붉은 눈동자는 한 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채였다.

"감옥에서 이 종이를 발견했는데 중요한 걸까 싶어서..."

"어? 그 쪽지는."

익숙한 종이의 모습에 매니시의 상체가 좀 더 돌아갔다. 그제야 워로드의 불만스러운 시선도 병사가 쥔 종이를 향했다.

"아시는 겁니까?"

"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야 할지..."

그녀가 받은 쪽지였지만, 그 의미는 오리무중이었다. 덕분에 종잇조각은 그녀의 기억에서 잊혀 주머니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지만. 매니시의 의문 섞인 시선이 쪽지의 원주인을 향한 것은 당연했다.

"무슨 뜻이었어요?"

고개를 바짝 치켜든 매니시가 까만 눈을 빛내며 물었다. 워로드의 눈매가 접히자 정적인 얼굴에 다정한 기운이 함빡 어렸다.

그가 활짝 웃는 얼굴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그 낯선 얼굴을 오래 보진 못했다.

"버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던지듯 명한 그는 연인이 된 여자의 입술을 찾아들기 바빴으니까.

병사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든 두 사람의 입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아래 맞붙은 입술이 희미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매니시!"

놀람을 넘어 충격에 빠진 듯한 얼굴들에 매니시는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작 부인의 몸이 휘청였다.

"여보!"

가까스로 아내를 받아낸 자작이나 멋쩍게 웃던 매니시나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매니시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힘없이 늘어져 있던 부인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병약한 겉모습과 달리 어미의 손은 남자 못지않게 강하고 억척스러웠다.

"얼굴이... 다른 덴, 다른 덴 안 다쳤어?"

떨리는 목소리며 저와 같은 까만 눈동자가 푹 젖어 너무 무거웠다. 너무 무거워서 억눌렀던, 있는지도 몰랐던 마음이 흘러나왔다.

매니시는 대답 대신 코를 붉혔다.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 아이처럼 울며 자작 부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악몽을 꾼 날 그랬듯, 울음과 함께 어두운 기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중년 여인은 영지를 지키고 돌아설 때처럼 든든하게 매니시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매니시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차례를 기다린 자작이 엉망인 딸을 꼭 끌어안았다.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집 앞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아프다던 딸은 사라진 상태였다. 사람이 찾아와 모든 설명을 들었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영지가 위기에 처했을 때보다 더.

딸의 비밀이 놀랍지 않았다. 그럴만한 아이였으니까. 그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제일 원망스러운 것은 딸에게 평범한 귀족 아가씨로서의 삶을 주지 못한 저 자신이었다.

"죄송해요."

자작은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고 태연하게 말했다.

"언제 이렇게 커서 부모한테 비밀도 생기고, 우리 꼬마가."

젖은 얼굴을 자작의 옷에 비빈 매니시가 울긋불긋한 얼굴을 들고 웃었다. 빨개진 코는 꽉 막힌 소리를 냈지만, 제법 유쾌했다.

"히, 언제 다 컸는데요."

"웃지 마. 입술은 다 부르터서는."

덩달아 눈가가 빨개진 자작 부인의 타박에 매니시가 입을 가렸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훌쩍이는 소리에 그들은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 매니시는 제게 내밀어진 휴지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눈을 굴렸다.

"그래도 내가 다 이겼어요."

여러 의미로. 입술에 침을 바른 매니시가 방황하던 눈동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때는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실 거짓말도 아니고. 그녀는 제 입술을 이렇게 만든 범죄자와 애인을 다 이겨 먹었으니까.

"그래. 우리 딸이야 언제나 믿음직하니까. 인제 그만 집에 가자."

자작의 제안은 다소 다급한 기색이 있었다. 그는 말랑한 분위기를 깨고 제 외투를 집어 들었다.

"벌써 집에 가도 돼요? 전 온 김에 진술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의 외투를 매니시가 입을 수 있도록 펼쳐 든 그가 시선으로 그녀를 재촉하며 대답했다.

"넌 환자야. 놀랐으니 좀 쉬어야지. 자, 팔 끼워."

순순히 돌아서 팔을 내밀던 매니시는 미처 닫지 못한 문틈으로 낯익은 이를 발견했다. 목에 붕대를 감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매니시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잠깐만요, 다들 여기 있나 봐요. 저만 갈 순 없어요."

매니시가 손을 빼자 자작 부인의 손이 따라왔다. 모녀의 손이 단단하게 이어졌다.

"매니시. 저 사람들도 곧 가족이 데리러 올 거야. 우리가 가까워서 좀 빨리 왔을 뿐이란다."

"그렇다면 더더욱 있어야죠. 아직 작별 인사도 못 했고, 모두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작 부인은 순진하게 웃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매니시는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가자, 매니시."

다만, 그녀의 기민한 감은 상처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한숨과 함께 소파에 앉은 자작이 외투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매니시."

"네."

다시 돌아선 매니시가 대답했다. 자작의 나직한 목소리는 점차 힘있게 울렸다.

"먼저 분명히 말하건대, 우린 널 사랑한단다. 그런 끔찍한 곳에서 스스로 이겨낸 네가 자랑스러워."

자작의 곧은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매니시는 뜨거워지는 눈가는 모른 척 살포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단다. 사실… 꽤 많아."

자작 부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매니시는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자작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세상은 아직 상처 입은 여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다."

상처 입은 여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라, 매니시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이상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나쁜 일이라 통칭할 만한 일을 겪고 돌아온 여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하지만 자작이 말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와 함께 갇혀있던 한 명 한 명의… 돌아갈 곳.

"우리에겐 너 하나뿐이지만, 다른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피해가고 싶을 거야. 버리거나, 함께 떠나겠지. 아마 밤새도록 그 문제로 시끄러울 거다. 너는 아파할 테고."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단다, 매니시. 우린 안 그래도 괴로웠을 네가 더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어."

매니시보다도 그들이 더욱 고통받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볼에 붙은 하얀 거즈를 더듬거린 매니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요? 저 때문에 두 분도 안 좋은 소문에 시달릴까요?"

"네 소문은 안 났지만 설혹 난다 해도 상관없어. 레우카스가 어디 흠집 낸다고 상할 사람들이니?"

자작 부인은 다친 볼을 괴롭히는 딸 아이의 손을 떼고 대신 어루만지며 반문했다. 심각했던 얼굴에 설핏 떠오른 미소가 보였다. 매니시도 알고 있었다.

제 일이 아니라면,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여자였다. 그 점이 매니시에게 용기를 주었다.

"맞아요. 저도 레우카스고요."

하아. 부부는 맞춘 듯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자작은 일어나 제 외투를 꿰입으며 투덜거렸다.

"잘 안 될 줄 알았어."

아버지의 음성에 매니시는 멍든 뺨이 당길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그런 그녀가 얄밉다는 듯 자작 부인의 손가락이 유일하게 멀쩡한 코를 찌르고 도망갔다.

"말대꾸하는 것만 늘어서는."

매니시는 어머니가 건드린 코를 긁적이며 부르튼 입술을 뗐다.

"이제 이기는 법을 좀 알 것 같은데 도망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나랑 같이 싸운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 줄래요."

코를 훌쩍인 자작 부인은 매니시를 등지고 자신의 외투를 챙겨 들었다. 자작은 모자를 천천히 써 슬며시 맺힌 미소를 가리고 물었다.

"단단해졌구나. 뭐가 널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의 이야기요."

망설임 없는 대답에 자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떻게요?"

부인과 함께 그녀를 지나치는 자작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앞서는 마음과 달리 매니시는 아직도 세상의 편견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가씨'로서의 인생 자체가 편견과의 싸움이었음에도.

문고리를 잡은 자작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네 말은 영주였던 나보다도 멀리 퍼지잖니."

말을 마친 자작은 부인과 함께 방을 나섰다. 문은 여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그제야 매니시는 문이 우연히 열려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갇혀있던 그녀가 두려울까 봐, 아무도 문을 닫지 않은 것이었다.

매니시는 문을 젖히고 부모님을 따라갈 생각이었다. 홀로 복도에 서 있는 여인만 아니었다면.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많은 이야기가 읽혔다. 순간 매니시의 머릿속을 번뜩이고 지나친 것이 있었다.

'네 말은 영주였던 나보다도 멀리 퍼지잖니.'

멀어지는 부모의 뒷모습이 보였다.

자작의 심중에 있던 것이 지금 매니시를 사로잡은 생각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뜻 실마리를 잡은 것도 같았다. 애초에 글쟁이인 그녀에겐 이 방법밖에 없기도 했다.

소리 없는 웃음이 나왔다. 제가 부르면 금세 돌아와 줄 부모를 알았기에 매니시는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 모습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동료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여기서 뭐해요?"

그녀는 텅 빈 얼굴로 매니시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마차 보고 있어."

창밖으로 막 기사단 앞에 멈춰선 마차 한 대가 보였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후드를 깊게 눌러 써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이였다. 매니시가 물었다.

"가족들 기다려요?"

잠시 침묵하던 여인은 엉뚱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 마차가 세 대째야. 다들 꼭꼭 가리고 왔지만, 어쨌든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세 대야, 이제 겨우 세 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매니시도 알았다. 감옥에서 매니시가 주머니에 넣은 신은 모두 열아홉 켤레였으니까.

"다들 아래층에서 마차 기다려. 그거 피해서 여기 있는 거야."

"왜요?"

"아무도 안 올 테니까."

한숨 반, 음성 반 대답한 여인이 몸을 돌려 창을 등지고 섰다. 궁둥이에 닿는 창틀이 꼭 그녀의 위치를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을에 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 모양이야. 그래서 못 오겠대, 알아서 잘 살래. 일 터지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일 먼저 얘기했다더라."

"애는요?"

잠시 실룩인 여인의 입술이 비뚤게 올라갔다.

"말 꺼낸 사람이 키우겠지. 우리 시어머니, 효자 아들 쥐고 흔드는 게 특기야. 내 딸도, 꼭 저처럼… 흠 없이, 반듯한 여자로. 예쁘게."

예쁘게 자란 딸을 상상하는지 버석한 입술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그도 얼마 안 가 제멋대로 일그러졌다. 상상 속에 없는 제자리가 서러운 듯.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친 여인은 말마따나 예쁘고 반듯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차들 보면서… 그냥 감옥 안에 있을걸, 후회하는 중이야. 여기가 더 어둡잖아."

아직 지지 않은 햇살을 등으로 받으며 하기에는 모순이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바람에 여인의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열린 창으로 아래층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재회의 기쁨이라기에는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들.

매니시는 그 소리를 모두 덮어버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딸만 만날 수 있으면 홀딱 벗을 수도 있다고 했죠?"

여인의 시선이 처음으로 매니시를 향했다. 매니시는 제 미소가 수상해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다.

"그럼 까짓거 벗죠?"

책상에 펼쳐져 있던 것은 오랫동안 써온 장부였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깃펜을 놀리던 페니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다.

"이번 달부터는 적자인가..."

방금 전의 것은 한숨도 아니라는 듯 거칠게 장부를 덮는 그녀의 입에서 또다시 한숨이 나왔다. 두툼한 장부 위로 엎어진 페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기억을 되짚어 올라갔다.

차라리 황녀를 초대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나았을까, 범죄에 얽힌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윤락 업소로 오해받은 그때부터?

그도 아니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쓸쓸한 혼잣말이 주위를 맴돌다 결국에는 그녀에게로 돌아와 맺혔다. 황녀의 효과로 몰렸던 인파는 연료가 다한 불처럼 시들해졌고, 사람들은 '페라'의 몇 없는 레퍼토리에 질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무대를 욕심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기 전에, 새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 성급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멋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그녀가 알 리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네 나라 역사 좀 썼다고 벌금을 이렇게 먹이냐, 날강도 같은 것들!"

물론 억울한 것도 많았다.

페니는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혼자 있는 방에서 외쳐봤자 돌아오는 대답도 없을 테지만.

"벌금 먹었어?"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답이 돌아온 문가에는 고개만 빼꼼 들이민 매니시가 있었다.

"매니시?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홀에서 부르지."

"오늘은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서."

"언제나 그냥 손님은 아니었지, 친군데. 일단 들어와."

평소의 쾌활한 미소를 되찾은 페니가 손짓하자 매니시는 기다렸다는 듯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내용물이 궁금해지는 도톰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건 뭐야?"

응접 테이블 위에 찻잔을 꺼내놓던 페니가 물었다.

"이거 때문에 온 거야."

"일단 앉아. 차가운 거 괜찮아?"

매니시가 고개를 끄덕이자 잔에는 향긋한 차가 따라졌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기분 좋은 향기가 떠돌았다.

"큰일 있었다며, 몸은 좀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졌지. 네이브 경한테 들었어?"

"자기가 너 그렇게 만든 사람 잡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귀여워서 혼났다."

잔웃음 소리에서 네이브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래서 매니시는 지금 제 제안이 그녀를 아프고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잠시 주저했다.

"그래서 그건 뭔데? 무슨 일이야?"

입술을 살짝 깨물던 매니시가 심호흡하듯 큰 숨을 들이마시곤 입을 열었다.

"자선 사업 계획안."

"나랑 하자고?"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제안인지, 페니의 어설픈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니시의 제안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한테는 자선 사업인데 '페라'에게는 그냥 전환점이 될 만한 사업이지."

"그냥 전환점?"

다리를 꼰 페니가 말해보라는 듯이 턱을 까닥였다. 페니가 권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매니시는 페니가 왜 집무실에 차가운 차를 두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톡 쏘는 단맛이 정신이 들게 하는 데는 최고였다.

"네이브 경에게 들었다니 잘 알겠지만, 나랑 같이 구출된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

"글쎄. 딱히 듣지 않아도 알 것 같긴 하다."

팔짱을 낀 페니의 음성이 어두워졌다. 어쩌면 그녀들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페라'의 연기자들인지도 몰랐다. 매니시와의 첫 만남도 편견과의 싸움이었던 그녀들.

"열아홉 명, 그중에 가족 품에 돌아간 사람은 나까지 일곱. 신전에서 수발들며 살겠다는 이가 셋. 남은 아홉은 붕 떴어."

"그래서?"

"그래서 그 아홉을 '페라'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어. 물론 무조건은 아니야. 검증을 거쳐서 필요한 사람만,"

"우린 사람 더 필요 없는데? 지금도 충분해."

웃는 얼굴이었지만 페니의 음성은 단호했다. 매니시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고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요즘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다고 들었어. 이건 어때? '납치된 여인들' 실화 바탕의 소설이야."

종이 뭉치를 받아든 페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인식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의 '페라'는 오래가지 못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원할 텐데 '페라'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정곡을 찌르는 말에도 페니의 시선은 종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매니시는 그것이 호조라도 된다는 양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을 이었다.

"무조건 뽑으라는 거 아냐. 네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연기자로 뽑아줘. 조를 두 개로 나눠서 연습과 무대를 번갈아 세우는 거야. 쉬는 기간 없이 바로바로 새로운 극을 올릴 수 있게."

매니시가 말을 하는 동안 종이 한 장이 넘어갔다. 페니는 대답이 없었다. 또 한 장이 넘어갈 찰나, 매니시가 그녀의 손에서 종이를 뺏어 들었다.

"미안한데, 아무리 친구라도 그 이상은 안 돼. 계약 전까지는."

"치사하긴. 친구는 맞아? 무슨 친구가 이런 걸 권해."

눈을 가늘게 뜬 페니가 매니시 쪽으로 몸을 숙였다. 응접탁자 위를 짚은 손 위로 굵게 웨이브 진 머리칼이 드리워졌다.

"진짜 납치됐던 여자들 데리고 이걸 무대에 올리라고? 겨우 윤락업소 꼬리표 뗐는데 잘못하면 모두 원점이야, 아니 더 밑."

"잘못하면 그렇다 치고, 잘하면?"

매니시의 반문에 등받이에 털썩 몸을 기댄 페니가 말했다.

"완전 기분 째지겠지."

페니의 눈동자가 천장 너머의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매니시는 쐐기를 박기 위해 덧붙였다.

"이 원고 주인의 허락, 인원이 늘면서 발생할 비용 지원, 무대 연출에 필요한 자금 투자까지. 이게 내 자선 계획이야. 이 연극이 무사히 무대에 오르기까지 최대한 협조할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페니의 속이 얼마나 시끄러울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매니시는 그녀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페니는 이 계획에 빠질 수 없는 조력자였다.

"같이 하자, 페니."

나직한 독촉에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한숨 소리가 매니시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느껴졌다. 아니, 애초에 이 계획을 거절한다는 것은 페니답지 않은 일이었다.

"하자!"

매니시가 원고를 흔들며 외치자 페니의 무거운 입이 열렸다. 그녀의 시선은 팔랑거리는 원고를 좇고 있었다.

"…소설은 확실히 써도 되는 거야? 누구 작품인데?"

"아가씨의 미발표 소설."

확장된 눈동자, 뻐끔거리는 입이 그녀가 얼마나 놀랐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페니의 얼굴은 단시간에 아주 극적으로 변했다.

"이씨, 어쩐지. 해!"

항복의 외침은 경쾌했다. 지지부진한 설득의 시간이 무색하게 협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덕분에 페니의 집무실을 나서는 매니시의 걸음에는 씻기지 않은 경쾌함이 묻어났다.

"잘 끝났어?"

문을 닫자마자 다정한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목소리를 향한 매니시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문과 조금 떨어진 벽에 기대있던 그가 몸을 떼고 다가왔다.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의 질문에 워로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문 너머로 사라진 후 뚫어져라 문만 쳐다보던 제 모습을 잊은 것 같은 반응이었다.

매니시와 그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찾아들었다.

"이렇게 나만 쫓아다녀도 괜찮아요? 나 이제 정말 괜찮은데. 나 납치한 사람도 잡혔다면서요."

두 사람은 '페라'를 빠져나가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걱정 어린 그녀의 잔소리에 워로드는 드물게도 단호한 대답을 돌려줬다.

"화이트럼이 아직이니까 안돼. 또 잃었다간,"

잠시 기다렸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없었다. 고개를 들자 입술을 꾹 깨문 그가 보였다. 매니시는 짙게 잠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주 잡은 손을 흔들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더없이 환한 얼굴로 조잘거렸다.

"그렇지만, 안 바빠요? 나는 단장님이 시간 빼줘서 초고도 거의 다 썼는데 좀 미안해요. 결국 진술도 안 했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자 매니시의 입가에도 길쭉한 곡선이 걸렸다.

"납치범한테 조서 땄으니까 괜찮아. 힘들겠지만 나중에 확인만 해줘. 먼저 잡힌 동료가 죽은 걸 안 이후로 그럭저럭 협조 중이거든."

마을 밖을 수색 중이던 네이브와 프릴의 눈에 마을을 빠져나가던 납치범이 띈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 워로드는 최근 들어 기세등등한 네이브의 얼굴과 텅 빈 표정의 납치범을 번갈아 떠올렸다.

"믿어도 될까요? 동료를 잃은 사람한테 이러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너무 순순히 나오는 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순순한 것도 아냐. 여전히 화이트럼의 정체에 관한 질문이나 나랑 관련된 얘기엔 흥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낫지."

그의 자조 섞인 웃음에 매니시는 따라 웃지 않았다. 대신 그보다 두 걸음 정도 앞선 후 돌아서서 그를 마주 봤다.

"어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예쁜 남자를?"

"어디가?"

장난스러운 되물음에 매니시가 양손으로 그의 볼을 감쌌다. 진지한 눈동자가 워로드의 얼굴 여기저기를 훑다가 눈이 마주쳤다. 동시에 미소가 떠올랐다.

매니시가 끄는 약한 힘에도 그의 몸은 쉽게 기울었다. 숙어진 고개가 그녀를 향했다.

"여기."

매니시는 코앞에 다가온 그의 얼굴에 닿기 위해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다가오는 그녀를 마지막까지 응시하던 붉은 눈동자가 눈꺼풀 아래로 사라지고, 부드러운 입술이 그 위에 내려앉았다.

"또?"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반짝 뜨인 눈이 기대에 차서 묻고 있었다. 매니시는 입매를 길게 늘이고 그를 위해 다시 한번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음… 여기도?"

그녀의 입술이 높다란 그의 코에 닿기 직전, 누군가의 요란한 기침 소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인위적인 기침 소리뿐 아니라 멈칫한 그들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제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여, 여기도 뭐가 묻었네. 하하, 그럼 얼른 가요."

볼이 빨개진 매니시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했다. 워로드는 그녀의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에서 쫓으며 소리쳤다.

"어디 가?"

"자꾸 왜 그래요!"

이번엔 제 볼을 감싼 매니시가 빽 소리 지르고는 거의 뛰다시피 앞서가자 워로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몇 걸음 만에 그녀를 따라잡은 그가 웃음에 범벅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우리 어딜 가는 건데?"

그즈음 매니시의 걸음이 차츰 느려졌다. 그녀는 뒤돌아 아까의 장소에서 충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대답했다.

"찾을 자료가 있어서 작업실 가려고요."

연신 빨개진 얼굴을 향해 손부채질 중인 매니시를 귀엽게 바라보던 워로드의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그때였다.

그의 걸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 아주 조금 느려졌다.

"작업실?"

매니시는 확실히 그의 떨떠름한 목소리나 느려진 걸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까 해맑게 웃으며 눈앞의 건물을 가리킬 수 있었다.

"네, 다 왔네요. 저번에 와서 기억하죠?"

"저기, 잠깐만. 배 안 고파?"

"아니요? 배고파요?"

워로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답지 않게 고개도 크게 끄덕이면서.

"응!"

"방에 간식거리 있어요."

망설임 없이 돌아온 대답에 워로드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그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매니시를 따라 하숙집의 낡은 계단을 올랐다.

매니시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맞추자 밀어 넣고 돌리기도 전에 문은 힘없이 밀려났다. 끼이익, 불길하고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방안 풍경이 드러났다.

"…미안."

넘어진 의자, 바닥에 널브러진 책과 쿠션,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소파를 보고 입이 벌어진 매니시에게 워로드가 한 말이었다. 이런 상황에 흔하게 외치는 멘트를 준비하던 매니시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도둑! …단장님이에요?"

까만 눈동자가 질책을 담고 반짝였다. 워로드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공손하게 맞잡고 대답했다.

"너 찾을 때 필요한 게 있어서. 그 마도구 있잖아, 그게 대상자의 신체 정보가 필요한 건데 비밀 통로에서 나온 날 네 구두에 피가 묻었던 게 생각나서... 미안."

"그거 그냥 책장에 떡하니 있었는데…, 문은 왜 안 잠갔어요?"

매니시는 방으로 들어서면서도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된 방을 살피며 순수한 의구심으로 묻자 엎어진 쓰레기통을 발로 세우고 있던 워로드가 놀라 대답했다.

"안 잠갔는지도 몰랐어. 제정신 아니었으니까."

풀죽은 목소리 뒤로 한껏 흔들리다가 다시 쓰러지는 쓰레기통의 소리가 처량했다.

"봐줘."

낑낑거리는 듯한 말투와 함께 뒤에서 뻗어온 팔이 매니시의 어깨를 감았다. 곧이어 빨려 들어가듯 단단한 품에 그녀의 등이 맞닿았다. 이 방에서 펜을 들고 몇 번이나 상상해본 장면이었다.

그러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글 속의 애정 행각과 실제로 맞닿은 애정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 매니시는 가슴에서 둥둥 울리는 고동과 그의 온기를 속으로 덧그리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청소하는 거나 도와요!"

찰싹, 워로드의 팔뚝에서 찰진 소리가 들렸다. 수줍은 미소를 매단 매니시는 바쁘게 움직이며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눈과 귀가 좋은 워로드가 그 웃음기를 놓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입가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손발이 잘 맞는 전문가처럼 착착 청소를 진행해 갔다. 쓰레기를 쓸고 책을 한데 모으고, 열심히 청소를 돕는 그를 본 매니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물수건에 손 닦고 앉아요. 배고프다면서."

소파가 벽 쪽으로 돌아가 있는 탓에 그녀는 물에 젖은 손수건과 쿠키 상자를 머리 위로 들어 보이고 있었다. 워로드는 외투를 벗어 매니시의 옆에 걸치고는 소파를 단단히 잡았다.

"다리 들어봐."

그의 말에 다리를 모아 올린 매니시를 태우고 소파는 썰매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와아, 매니시의 신나는 탄성과 함께 소파까지 제자리를 찾자 얼추 익숙한 방의 모습이 드러났다.

"앉아요!"

아이처럼 신난 매니시는 제 음성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손수건과 상자를 건네고 외투를 한쪽으로 치워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이리저리 옮겨 다닌 워로드의 외투 주머니에서 빼죽 튀어나온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이건 뭐예요?"

매니시가 종이를 가리키자 워로드의 시선이 곧장 따라왔다. 그것을 발견한 그의 얼굴은 결코 유쾌하다고 할 수 없는 표정을 드리우고 있었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할래? 화이트럼의 몽타주. 하관뿐이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뱉은 매니시가 접힌 종이를 펼쳐 들었다. 종이에는 아주 섬세한 펜 선으로 후드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후드의 그림자에 가려진 눈을 한참 바라보던 매니시가 말했다.

"내가 본 것도 이게 다예요."

그새 그녀가 준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았는지 차갑게 식은 워로드의 손이 종이를 쥔 손에 와 닿았다. 너무 뜨겁지 않아 오히려 좋았다. 매니시의 손도 종이를 놓고 그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무릎에 놓인 그림 위를 떠돌고 있었다.

망설이던 매니시가 결심한 듯 손가락을 뻗었다. 손가락은 정확히 남자의 날카로운 코 부근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다른가?"

워로드는 횡설수설하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다정히 말했다.

"생각나면 말해줘도 괜찮아."

"근데..."

한껏 진지해진 매니시의 목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그에 몽타주를 바라보는 워로드의 시선도 한층 신중해졌다. 하지만 매니시가 가리킨 것은 그녀의 무릎이 아니라 그의 무릎 위였다.

"이건 언제 다 먹었어요? 단 거 좋아해요?"

"아."

휑한 상자에는 쿠키 하나만이 덜렁 놓여 있었다. 제 먹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워로드의 입에선 깨달음보다 아연함에 가까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매니시는 키득거리면서도 언젠가 있었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남자들은 단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아니면 덩치 큰 사람들만 그런가?"

참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

창문을 흘긋 본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를 헤매다 돌아온 듯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가 누구를 떠올리는지는 묻지 않아도 명백했다.

"매니시. 사실은..."

쪽. 어렵게 입을 뗀 그의 말은 입가에 부딪힌 귀여운 소리에 먹혀들어 갔다. 제 입술에 옮겨붙은 부스러기를 핥은 매니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는 말했다.

"나도 단 거 좋아하니까 잘됐다."

아무려면 어때. 그 순간 마주 보고 웃은 두 사람의 머릿속을 차지한 말은 그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가 잡은 것은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 몇 올뿐이었다. 벌떡 일어난 매니시는 어느새 또 여자의 얼굴을 거두고 씩씩하게 외치고 있었다.

"먹었으니까 얼른 힘내서 마무리해요!"

"…응. 이건 어디 둘까?"

군데군데 모아놓은 책 탑을 들어 올린 워로드의 입에서 에이드와 닮은 긴 한숨이 나왔다.

"그건 그냥 묶어서 둬요. 곧 이사 나갈 거라 다시 꽂을 필요는 없어요. 아, 잠깐!"

멈칫한 그에게 다가간 매니시는 책더미의 가장 위에 있던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말했다.

"이거 제가 책 쓸 때 참고한 책인데 이콜로지 신관님께 선물하면 좋아할까요? 네이브 경도 그렇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매니시의 손에서 책을 빼간 워로드는 책을 들고 있던 더미 가장 아래에 받치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떡하니 장식된 구두를 찾으려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그는 매니시가 알려주지도 않은 끈까지 찾아와 책을 묶기 시작했다.

"그 둘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프릴 개껌이나 하나 사줘."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아쉬운 눈길을 보내는 매니시의 신경을 분산시키기 위한 말이었다. 다행히 그는 의도대로 그녀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

"프릴 경이요?"

"녀석이 네 외투를 찾아서 시간을 많이 단축했어."

매니시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까만 눈동자가 향하는 대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앉았던 소파가 보였다.

"내 외투를…, 그렇구나. 갚아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녀가 펼쳐둔 화이트럼의 얼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어제 연기 좋았어, 관객들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힘내자."

페니의 말에 각자 제 일에 집중하던 여자들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중 몇몇은 지하 감옥에서 보였던 얼굴로 낡고 더러운 옷까지 입고 있으니 감옥을 막 빠져나왔을 때와 다를 게 하나 없었다. 그래도 굳이 다른 점을 뽑자면, 그들의 면면이 밝았다는 것이다.

"공연 시작 10분 전!"

"소품용 마법 주머니 어딨어?"

"의상 체크부터 끝내고 찾아!"

새로 시공한 무대의 뒤편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페니는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무대 뒤의 소란과는 다른 소음이 들려왔다. 손님, 아니 관객의 소리였다. 페니는 두꺼운 커튼 틈으로 새로운 '페라'의 홀을 바라봤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의 밝은 홀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없이 의자만 늘어선 홀은 단정한 옷차림의 인파가 빼곡히 채운 상태였고, 가장자리를 따라 올린 복층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귀족들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층 하나 차이로 평민과 귀족이 어울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다. 귀족들이 마차로 이용하기 좋은 문을 새로 내는 바람에 입구를 차별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그 증거로 불만을 담아 웅성거리는 소리는 1층과 복층 어느 쪽에서도 지지 않고 들려왔다.

"어제보다 더 많네."

페니의 눈동자가 빈자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유행에 민감한 귀족들의 자리는 빈자리 없이 차 있었고 1층 좌석도 어제보다 눈에 띄게 찬 상태였다. 특히 복층에 한 자리를 차지한 황녀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기대 어린 눈을 반짝이며 찾아왔다.

불과 일주일 전 공연을 홍보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극적인 소재와 연기자의 이력을 들먹이며 비난했다.

무척 바쁜 시간이었다. 연습에, 무대를 준비하고, 홍보하고, 덩달아 욕을 먹게 된 제 연기자들을 다독이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책임이었다. 솔직히 말해 암담했지만...

"진짜 기분 째지네."

매니시의 장담이 맞았다.

외부의 압박은 '페라'의 오래된 공기와 새로 유입된 공기를 위화감 없이 하나로 뭉쳐주었고,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아가씨'와 황녀의 명성을 좇아왔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오고 싶게 만들지는 오로지 '페라'의 숙제였다.

그리고 그 숙제는 지금까지 꽤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홀의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차 사그라들고, 반대로 페니의 심장은 더 힘차게 뛰었다. 홀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기 직전, 그녀는 두 번째 줄 끝에 앉은 매니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는 빛이 작은 '아가씨'에게는 있었다. 그 빛은 페니, 그녀의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기도 했다.

”꺄악!”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비명과 함께 페니는 무대 뒤편으로 돌아갔다.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쉿, 골치 아프게 아는 척하지 말아요.”

무대 위 남자는 비명에 대해 쑥덕거리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결혼 준비로 바쁠 사랑스러운 약혼녀를 만나기 위해.

“이거 봐요, 내가 뭘 빌렸는지 알아요? 마법 주머니예요! 여기에 꽃잎을 가득 채워서 우리 결혼식 때 써요.”

하지만 예견된 불행은 곧 찾아왔다. 검은 창살 뒤에 선 여인이 '페라'의 좌석을 채운 군중을 향해 읊었다.

“바보 같은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기다릴 텐데…”

훌쩍이는 소리가 좌석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은 창살 뒤에 쪼그린 연기자들이었다. 현실과 무대 위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섞여들고 있었다.

그 속에 유일한 방관자가 있다면 그것은 매니시였다. 그녀는 관객들이 막 지나고 있는 감정의 곡류를 이미 여러 번 지나친 상태였다.

때문에 그녀의 시선은 무대보다 훌쩍이는 소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연인의 손을 잡고 예쁘게 눈물을 닦는 여자, 조용히 고인 눈물을 찍어내는 남자, 보이지 않는 저편에선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때때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무대 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묻어뒀던 비슷한 기억을 건드렸으리라.

“조금만 더 채우면 터질 것 같아요!”

이제 무대 위의 여인들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옷가지와 구두, 속옷까지 들어갔던 매니시의 주머니와 달리 이번 주머니를 채운 것은 결혼을 위해 한 장 한 장 따 모은 꽃잎과 여인들의 머리카락이었다.

펑, 제법 익숙하게 느껴지는 폭음과 함께 관객들의 머리 위로 낭만적인 꽃비가 내렸다. 무대에서는 단발이 된 여인들이 우스울 정도로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 모순된 광경에서 눈을 뗀 매니시는 꽃잎이 뒤덮은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하늘하늘 흩날리는 꽃비 너머로 마주친 시선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글램과 함께 온 것 같았다.

”그는 납치범이 맞아요, 불과 반년 전에 날 납치했었죠.”

감옥을 나온 여인은 약혼자와 마을에게 버려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과거의 인연을 돕기 위해 과거를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무대 위에서 여인과 웬 괴한에게 끌려갈 뻔한 약혼자 여동생의 시선이 마주쳤다.

매니시는 다시 무대를 보며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다. 숨겨왔던 제 과거까지 들켜가면서 구하기엔 너무 얄팍한 인연이었다. 인간의 도리나 의리를 따지기엔 여인의 앞날이 너무 비참했다.

”안 돼!”

뒤늦게 달려온 약혼자가 발견한 것은 불타는 여인의 집이었다. 그가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쓰러진 여인을 끌어냈을 때, 그녀는 이미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을음이 이곳저곳에 묻은 몸으로 신음하며 후회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깨닫는다.

“ 아이고, 어째.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몸에 묻은 그을음의 의미를.

관객을 훑는 남자의 시선은 차갑고 예리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남자 분장을 한 여자였으니까. 납치된 여인이었고, 버림받은 아내였고, 딸을 빼앗긴 엄마였으니까.

일시에 무대의 불이 꺼졌다.

홀은 코앞에 있는 것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적막 속에서 빛은 외로운 박수 소리 하나와 함께 스며들었다. 천천히 홀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작은 소리는 순식간에 몸을 불렸다.

곧 우레와 같은 소리가 홀을 뒤덮었다.

박수 소리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연기자들이 밝은 빛 가운데서 인사하고 들어갈 때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난 또 보러 올래."

눈가를 붉힌 옆자리 여자의 말에 비죽비죽 새어 나오는 미소를 어쩔 수 없었다. 매니시는 제가 들은 말들을 연기자들에게 꼭 전해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길게 이어진 퇴장 줄의 끄트머리로 향하면서도 사람들의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여자도 남자도 너무 불쌍하다."

"남자가 뭐가 불쌍해. 쌤통이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나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도 비슷한 언니가 있었는데, 두문불출하다가 결국 떠났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쫓아낸 거 같아. 그때, 마을에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울었는데."

상대에게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잠깐의 공백에는 또 다른 음성이 끼어들었다.

"이것도 '아가씨'가 쓴 이야기래요, 그것도 실화 바탕의. 얼마 전에 플로라 마을에서 있었던 그 일요."

"불쌍해서 어째. 듣기로는 파르두스 후작가에서 피해자들 지원에 힘쓰고 있다던데 저도 동참할까 봐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아가씨' 말이에요. 혹시 후작가의 지원을 받는 예술가가 아닐까요?"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부정의 말이 바로 뒤따랐다.

"설마요. 요즘 아주 난리던데 소문 못 들으셨어요?"

'아가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매니시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그녀의 온 신경은 귀에 집중되고 있었다.

"무슨 소문이요?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소문에 따르면 '아가씨'는 전통적인 북부 미인이래요. 하얀 머리요, 하얀 머리."

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뎠다.

매니시는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시선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앞 사람의 뒤통수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 앞 사람의 고개가 반쯤 돌더니 위를 향했다.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매니시뿐은 아닌 모양이었다.

"어머, 그럼 혹시 저기..."

겸양 떠는 목소리를 따라 앞 사람의 고개가 두리번거리는 것이 보였다. 코앞에 선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었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맞아요. 사실 어디 이런 데 올 이인가요?"

마주친 동그란 눈동자가 의심을 담고 그녀의 머리칼에 머물렀다. 앞 사람의 입이 벌어졌다. 주변에서도 그녀를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늘어갔다.

"어쩐지,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매니시는 시침을 뚝 떼고 순진한 얼굴로 눈을 깜박였다. 저도 궁금하다는 듯 두리번거리며 사람 찾는 시늉까지 하자 의심 어린 시선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시선도 몇 있었다.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릴 때쯤, 시늉만 하던 매니시의 눈에도 뭔가가 들어왔다. 온전히 무대만 향하던 빛이 꺼지자, 마치 세상의 진짜 주인공은 저라고 주장하듯 화려한 이였다.

"저것 봐요! 황녀님과 친근하게 대화 나누는 거. 황녀님께서 '아가씨'의 소설에 푹 빠져계신 건 유명한 얘기죠.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끈질기게 매니시를 쫓던 시선도 곧 글램을 따라 떨어져 나갔다. 교양있는 숙녀처럼 부채로 얼굴을 가린 글램의 하얀 머리가 조명 아래서 반짝하고 빛났다.

글램은 시선을 의식한 듯 멀리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살포시 지은 미소, 겸손한 눈인사는 마치 글램을 이 특별한 사교 활동의 주최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동안 제가 마리티무스 영애를 오해한 것 같아요. 전 이번에 그분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어요."

홀을 나서자 또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 진작부터 그분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답니다. 영애는 제 딸과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요."

앞에서도,

"모나쿠스 공작가 어르신들은 좋겠어요. 저런 훌륭한 며느릿감이라니."

뒤에서도,

"마냥 좋기야 하겠나? 좋은 집 아가씨가 얌전하게 있지는 못할망정 이런 글이나 써대고 말이야."

"그러게요. 마리티무스 후작이 이런 걸 용납할 성정이 아니신데."

좋은 얘기도 안 좋은 얘기도 모두 글램의 것이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매니시는 이상한 박탈감을 느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동안 '아가씨'는 한 번도 그녀였던 적이 없는 만큼 누구의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다.

"글램 영애!"

골목 끝에서 들린 이름에 매니시의 고개가 절로 돌아갔다. 대로 쪽으로 난 출구는 꽉 막힌 마차와 북적이는 귀족들로 소란스러웠다.

"오랜만에 봬요. 이번에 독서 모임을 개최하신다면서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제 자리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소양이 벗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쁠 뿐이랍니다."

글램의 낮고 부드러운 음성은 제법 신뢰감을 주고 있었다. 마주 선 여자는 그녀의 대답에 감격한 듯 말을 늘어놓았다.

"세상에, 어쩜. 영애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영애의 것을 탐내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지만,"

말을 하는 중에 매니시와 시선이 마주친 여자는 눈을 치켜뜨고 그녀를 훑어 내렸다. 조금 들린 턱과 입가에 걸친 비소가 우스꽝스러웠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추악한 욕심을 경멸하죠. 남자들이 둔감한 데가 있어 좀 늦을 뿐, 백작님께서도 곧 느끼실 거예요. "

훈계조의 말투는 오히려 글램의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그녀는 등 뒤로 줄줄이 달린 눈앞에 대놓고 면박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 가냘프게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골목의 그림자 안에 선 매니시의 시선과 대로의 햇빛 아래 선 글램의 시선이 부딪쳤다.

"…부디 그래야겠죠.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차가운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깎아 만든 조각처럼 또렷했다.

박수 소리에 끓어올랐던 매니시의 기분은 거짓말처럼 바닥에 처박혀버렸다.

"매니시."

그의 목소리가 닿기 전에는.

"연극 재밌었어?"

언제나처럼 따뜻한 손이 그녀를 잡아 왔다.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햇살을 빼앗긴 골목의 냉기가 저만치 물러났다. 덕분에 그녀는 조금 편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다.

"네."

"같이 보고 싶었는데. 다음엔 같이 보자."

매니시는 너무 당연해서 불필요한 대답이라는 듯 그를 보고 활짝 웃었다. 손을 잡고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쏟아지는 시선에 아랑곳없이 온 세상에 둘만 있다는 양 무심한 태도까지도.

"어머머."

글램과 대화하던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떠나는 연인과 홀로 남은 여인을 바쁘게 오가는 눈동자는 안쓰러울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제 입술을 짓씹느라 바쁜 글램은 그를 알아줄 정신이 아니었다. 저벅, 구원의 발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렸다.

"아가씨."

낮은 목소리에 글램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이어진 대답은 투정 부리듯 짧고 불퉁했다.

"바이올런스."

그는 익숙한 얼굴로 미소를 띠고 붉어진 글램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 손가락처럼 은근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입술 다 상하십니다. 곧 각하께서 오실 텐데 예쁜 모습만 보이셔야죠."

잠시 찌푸렸던 미간이 펴지는 장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유연하고 아름다웠다. 곧 글램의 붉은 입술도 우아하게 곡선을 그렸다.

"가요, 바이올런스."

인사도 없이 마차에 오른 글램 대신 바이올런스의 입술이 멋쩍게 서 있던 영애의 손등에 닿았다. 붉어진 여자의 얼굴 아래 바이올런스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빨리요!"

"그럼."

글램의 재촉에 그의 얼굴엔 그린 듯한 미소가 돌아왔다. 마차에 올라 여자에게 눈인사까지 마친 그의 시선은 멀어진 연인의 그림자를 뒤쫓고 있었다.

"기분 안 좋아?"

"그렇게 보여요?"

'페라'를 나와 나란히 걷는 워로드와 매니시 사이로 더운 바람이 지나갔다. 부쩍 더워진 날씨는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극 보고 나오면 매일 신나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용하잖아."

"그냥, 내가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그의 팔에 매달린 매니시는 입을 비죽거리며 아까부터 발에 차이던 작은 돌멩이를 멀리 걷어찼다. 그에 움찔한 워로드는 제 행적을 되짚어가며 눈을 굴렸다.

"…같이 못 봐서 미안해. 내일은 볼 수 있어."

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매니시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녀를 향해 튼 몸 때문에 그는 거의 옆으로 걷고 있었다.

"응? 아니에요. 벌써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요. 오늘 빼곤 늘 같이 봤고. 일 있다는 건 잘 보고 왔어요?"

그의 몸을 돌려 정면을 향하게 한 매니시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시무룩할 시간도 없었다. 그녀가 웃으면 웃고, 그녀가 슬프면 덩달아 슬픈 그 때문에.

"응, 잠깐만."

말과 동시에 이번엔 그가 매니시의 어깨를 돌려세웠다. 순식간에 그녀의 시야가 정반대를 향했다. 지나온 길 저쪽에 매니시가 나선 '페라'의 문이 보였다.

"저기 봐. 저것 때문에 같이 못 있었어."

그만큼 눈이 좋은 매니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눈을 찡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따라갔다. 울고 있는지, 손에 얼굴을 묻은 남자가 보였다.

"때렸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워로드의 말문이 막혔다. 매니시는 잘게 웃으며 벌어진 그의 입을 닫아줬다.

"농담이에요, 누군데요?"

그의 턱에서 손을 떼기도 전에 대답이 돌아왔다.

"가족들."

손가락을 타고 전해지는 성대의 울림이 유난히도 따뜻했다.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도 매니시는 그가 누구의 가족인지 알 수 있었다.

그의 다리에 매달린 작은 여자아이를 본 순간 최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 가족처럼 느껴지는 아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추측은 남자 분장을 채 벗지 못한 여인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사실로 변했다.

그들은 마주 선 가족을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어떻게 데려왔어요?"

"아무 말 없이 표만 줬어. 다른 가족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꼭 올 것 같아서 검문소에서 기다렸지. 기껏 마음먹은 걸 줄 서다 놓치게 할 순 없으니까."

매니시는 쑥스러운 듯 앞서가는 그의 팔에 매달려 활짝 웃었다. 그는 조금의 휘청임도 없이 그녀의 기쁨을 받아냈다.

"왜 이렇게 멋있어요? 누가 그렇게 자꾸 멋있으래요."

"있어."

너무 빛나서 생각 없이 좇고 싶은 사람.

뒷말을 삼키고 웃는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편해 보여서 매니시를 감격스럽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알게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거리가 성큼 좁아진 것 같았다.

"뭔데요, 무슨 심경의 변화지? 이 연극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으셨나?"

"내가? 전혀, 그냥… 걱정했던 거야. 아무리 가까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으니까. 아니, 가까울수록 그런 건 보여주기 싫잖아."

그는 그랬다. 검술을 좋아하던 아들이 그 실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영웅으로 칭송받는 동생이 전쟁터에서 뭐라고 불렸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알릴 수 없었다. 그게 당연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진.

"그래요? 나는 가족한테 투정 부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겠던데."

"응. 멋있어."

뜬금없고 확신만 넘치는 대답에 웃음이 터진 매니시가 그를 올려다보며 덧붙였다.

"응. 단장님은 상냥하고요. 가족들 마음 아플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난 좀 생각이 짧은 것 같아. 그래도 무슨 일 있거나 하면 나한테는 말,"

그의 향기가 매니시를 덮쳤다. 평소의 달콤한 입맞춤과 달리 쫓기듯 급박한 입술이었다.

짧고 깊게 맞닿았던 입술이 떨어지자 혼몽한 시선이 마주쳤다.

"기분 좋아졌나 봐? 종알거리는 거 보니까."

속삭이는 그의 숨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 입김이 닿은 그녀의 볼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매니시의 손가락 사이사이 제 손가락을 끼워 넣었다.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결속감이 마주 잡은 손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야시장 열리려나 봐."

"천천히 가요!"

야시장이 들어서기엔 어색한 시간이었다.

노을도 지기 전의 어정쩡한 하늘에 노란 등이 줄줄이 세워지고 빈 가판이 차려졌다. 구경하는 인파보다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번잡스럽게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매니시는 워로드에게 이끌려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잠시 후 제가 느낄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매니시는 차마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배고팠어요? 그냥 식당 가지."

꼬치구이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준비도 안 된 빈 가판 앞에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었다. 워로드는 상인을 노려보고 상인은 그들을 노려보고, 억지로 쟁취한 꼬치는 황송해서 바로 입으로 넣기도 언짢았다.

그래서 꼬치구이를 들고 만족스레 웃는 그는 참, 못마땅했다. 상인에게 몇 번이나 인사하고 돌아선 매니시의 눈은 곱지 않았다.

"꼭 이거여야 돼."

"흠, 갑자기 왜 이러지.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매니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노려보면서 꼬치를 한입 뜯었다. 익숙한 맛의 고기 한 점이 그녀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첫 데이트."

"첫? 처엇?"

워로드는 꿀꺽 삼킨 고기가 턱 걸릴만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앞서가고 있었다. 그의 옆에 바짝 따라붙은 매니시가 종알종알 따져 물었다.

"우리 어제 그제 그 전, 전전, 전전 전날도 계속 붙어 다녔어요. 같이 밥 먹고 걷고 연극 보고 별거 별거 다 했는데 웬 첫 데이트?"

"어제도 그제도 그전에도 일하는 데서 일하는 데로 옮겨 다닌 거뿐이잖아. 데이트는 코스가 중요하다고 했어. 디저트 먹으러 가자."

"그건 또 누구한테 주워들었는데요. 코스 따지는 거 보니까 이번엔 에이드 경이죠!"

종종거리며 그를 쫓던 매니시는 잠시 후 생각했다.

야시장 구경에도 정석이라는 게 있을까? 있다면 그걸 워로드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누굴까.

고기 한 점이 간당간당하게 걸린 꼬치 하나, 꿀이 삐져나온 팬케이크 하나, 한때는 따뜻했던 식은 뱅쇼 한 잔까지 간신히 들고 있노라면 누구나 저절로 드는 생각일 것이다. 심지어 조금 전 선물 받은 머리꽂이는 머리에 꽂았다기보다 매달려있는 것에 가까워 이 엉성한 데이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흘러내린 머리꽂이는 이제 정말 간신히,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정신 상태처럼.

그러나 워로드는 상황이 달랐는지 그는 정신없이 끌려다닌 매니시는 알지도 못하는 짐 하나를 더 들고 있었다. 매니시와 같이 산 그의 군것질거리들은 이미 뱃속에 보관한 채였지만.

"가자."

"또 어딜요? …코스가 아직 남았어요?"

"코스 말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말하며 그는 품에 안은 봉투를 더 꽉 끌어안았다. 그 목소리가 사뭇 진지해서 매니시도 한숨을 내쉬며 얌전히 그를 따랐다. 한 점 남은 고기를 그의 입에 물리고, 저는 팬케이크를 물어뜯으면서.

그녀가 빈손이 되었을 때는 그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여기는..."

이상한 느낌은 뒤늦게 찾아왔다.

사실 그와 있을 때 찾아오는 기시감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오늘도 몇 번쯤, 그리고 때때로 찾아왔던 기시감이 점점이 이어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야시장에서 사 먹은 양념 꼬치구이와 팬케이크, 그의 말버릇. 흐릿한 그림은 그들이 제2 광장에 도착한 순간 선명해졌다.

워로드는 당연한 듯이 광장 구석으로 향했다. 아무 말 없이, 기억 속의 그 자리로.

"전쟁이 끝나고,"

나란히 앉은 그가 입을 열기 전부터 매니시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사랑했던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이 엇갈렸다.

"시간이 남아돌았어.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가족들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족들은 그런 날 낯설어했고."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 수십 또는 수백 번, 빠르게 돌아간 시간이 그들을 2년 전의 어느 날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몰랐던 옛날의 나를 연기하자니 신물 나는 데다가 변한 내 모습도 보여주기 싫었어."

워로드는 마법 주머니에 든 장검 대신 허리춤에 찬 단도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딱, 딱, 단도 끝이 벤치를 두들기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그는 의식하지 못한 움직임인 듯 정면을 향한 눈동자는 메마른 채로 과거를 헤매고 있었다.

매니시는 덜컥 두려워져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의 손 밑에 차가운 단도 대신 제 손을 밀어 넣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도 지겹고, 눈치 보는 가족도 지겹고, 평범한 하루도, …그래서 여기 앉아있었던 거야."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기울여 그를 들여다보며 묻자 그제야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이어진 음성은 평소보다 힘이 빠져 있어서 전혀 그답지 않기도, 혹은 처음 보는 진짜 그 같기도 했다.

"무섭다. 아무렇지 않은 이곳도, 지루해하는 나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을 타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곳의 풍경은 늘 그랬다. 늦게까지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주 잡은 젊은 남녀의 손이 뜨거웠고 쉬어가는 노인의 지팡이 소리는 편안했다.

매니시는 살짝 맞닿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아직도요?"

그녀의 손이 빈틈없이 그를 잡아 왔다.

매니시의 맨손은 여느 여인의 것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그에게 익숙한 굳은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믿을만한 동료에게 등을 맡겼을 때처럼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아니. 여기서 누굴 만났거든."

비로소 그의 입가에 미소가 돌아왔다. 매니시도 그를 따라 웃자 그는 주섬주섬 품에 있던 봉투를 젖혔다.

"나처럼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던 예쁜 소년을."

그가 꺼낸 것은 빵이었다.

"에이, 예쁜 건 맞는데 무료한 얼굴을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설마, 겁쟁이 같은 얼굴을 순화해서 표현한 거라면 모를까."

매니시의 장난스러운 대꾸에 빵을 반으로 나눈 그가 대답했다. 달콤한 크림이 들어간 빵 반쪽은 매니시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질린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어야 했다.

"그건 단장님 얘기죠! 난 그냥 백수라서 할 일 없어서 온 건데?"

"아닌데? 엄청 불쌍한 얼굴 하고 있어서 빵도 줬던 건, 읍."

"빵이나 먹어요.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광장 친구가 얼마나 순하고 귀여운 사람이었는데."

불퉁한 목소리에 오물거리며 빵을 씹던 워로드가 급하게 입을 틀어막았다. 사레라도 들렸는지 고개를 돌린 채 한참 콜록거리던 그가 회복이 덜 된 목소리로 말했다.

"순하고… 귀여운…?"

"그럼요.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귀여운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도 그건 안 변하긴 했는데… 에휴."

한숨까지 내쉰 매니시는 안주라도 집어 먹는 사람처럼 빵을 조금 뜯어 머금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까 전부터 신이 난 듯 방정맞게 들썩이는 제 무릎을 모르는 눈치였다.

"첫사랑,"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 눈이 동그래진 워로드의 입꼬리가 들썩였다. 다시 한번 손으로 입가를 가린 그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첫, 그거 맞아? 그거라면서 알아보지도 못했잖아. 내가 말 안 했으면 평생 모를 기세던데."

"그거야 너무 변했으니까 그렇죠! 그땐 뭔가, 뭔가 더 크고, 까맣고, 귀엽고, 돌연변이 타조 알 같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왜 그래요?"

워로드는 커다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의아한 매니시가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면서 팔을 잡아 내리자 노란 마법등 밑에서도 확연하게 빨개진 얼굴이 보였다.

"그땐 막 귀환했을 때라. 머리가 길면 잘 엉키고 물도 많이 들고, 그리고 네이브는 더 까맸어. 나 정도면 많이 탄 편도 아닌데..."

워로드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벌떡 일어난 매니시가 그를 끌어안았기 때문이었다. 부드러운 품에 묻힌 워로드의 얼굴이 얼떨떨했다.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시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나직한 목소리에 뻣뻣하게 굳은 목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취한 것처럼 몽롱하게 내리뜬 눈으로 대답했다.

"폐하께 하사받은 영지 때문에 급하게 내려가느라, 네이브를 대신 보냈었는데… 엇갈렸나 봐."

용케도 그가 웅얼거린 소리를 모두 알아들은 매니시가 잔웃음을 흘렸다. 차분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처럼 사흘 내내 바람맞던 남자가 네이브 경이었구나. 네이브 경도 만만치 않게 변했네요. 근데 나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일찍 말 안 했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목, 어깨, 등을 따라 쓸어내리는 손길이 별거 아니라고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말하려고 했어.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그때 나 별로 안 멋있었잖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그리워했을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 그랬다."

늘어져 있던 그의 손이 매니시의 등허리를 감쌌다. 그는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몸을 붙여왔다.

힘이 들어간 어깨를 안쓰럽게 쓸어내리는 매니시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묻어났다.

"근데..."

이어지지 않는 목소리에 워로드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자 고민에 빠진 그녀가 보였다. 그녀가 했던 대로 가만히 등을 쓸어주자 매니시의 무거운 입이 다시 열렸다.

"이런 거 물어도 되나 싶지만, 그… 어디 갔어요?"

"뭐가?"

그의 어깨와 등을 맴도는 매니시의 손은 어딘가 집요한 데가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

"분명 여기 엄청 딴딴한 게 있었는데... 혹시 다이어트했어요? 근육도 빠지나? 사실 이 정도면 내가 못 알아본 것도 이해해줘야 해요. 그때랑 덩치가 다르잖아요, 덩치가."

찰싹 때리고 더듬더듬 내려온 손이 그의 가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당황해 몸을 젖힌 워로드의 눈에 제 가슴을 진지하게 관찰하는 매니시가 들어왔다.

늦지 않게 손을 막아낸 워로드가 해명을 위해 입술을 뗐다.

"가죽 갑옷이었어. 안에, 한동안 입고 다녔으니까."

"광장에서요?"

"…집에서도."

끔벅끔벅, 소리 없는 의문에 시선을 피한 그가 덧붙였다.

"그래서 그땐 내가 별로였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말할 건 없었나. 돌아오지 않는 목소리에 그가 후회할 때쯤 다시 옆에 앉는 매니시가 느껴졌다. 이번엔 서로의 팔이 부딪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뭐야, 평화로워서 지루하다면서요. 센 척한 거예요?"

"그건 별개야. 목숨을 잃는 건 순간이니까."

무거운 목소리에 그를 돌아본 매니시는 살짝 튀어나온 입술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다.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이내 고개를 든 그녀가 장난스럽게 그에게 어깨를 부딪쳤다.

"저쪽에 세 블록 더 가서 있는 보석상 알아요?"

뜬금없는 질문에 그가 고개를 저었다. 매니시는 사실 그의 대답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지금도 거기 가면 주인이 뛰어나와요. 이래 봬도 제가 거기 우수 고객이었거든요."

워로드는 자연스럽게 화이트럼의 보물 창고를 떠올렸다. 그 안에서 그녀가 얼마나 즐거운 얼굴로 보석을 주웠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아. 보석 좋아하잖아."

그의 시선이 매니시의 머리에 아슬아슬 걸친 싸구려 머리꽂이에 잠시 머물렀다. 그를 눈치챈 매니시가 씩 웃고는 그것을 뽑아 들었다.

"단장님처럼요. 그게 내 갑옷이었어요."

머리를 다시 정돈한 매니시는 그에게 머리꽂이를 건네더니 돌아앉았다. 그가 꽂기 좋게 반 묶음 한 머리가 단정하게 늘어져 있었다.

"평범한 차림의 여자와 돈 많아 보이는 화려한 여자, 불량배를 만날 확률은 어느 쪽이 높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워로드는 뒤늦게 그녀의 의도를 알아채고 머리꽂이를 들었다. 머리에 꽂는 빗처럼 생긴 부분이 생각보다 뾰족해 그의 표정은 아주 진지해져 있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체험해 본 바로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쁜 놈들이라고 다 간이 큰 건 아니라서 귀족같이 보이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워로드의 신중한 손놀림에 머리꽂이는 조금씩 머리카락 사이로 사라졌다.

"그래서 전 돈 들어오자마자 보석부터 샀어요. 급할 땐 되팔아 쓰기도 좋고 예쁜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든든했거든요. 외출할 때마다 한 세트씩 걸고 다니면 안전해진 느낌이었어요."

다리 없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리게 전진하는 머리꽂이 때문에 두피가 가려웠다. 매니시는 제 손을 뻗어 워로드의 손을 꾹 눌렀다.

뾰족한 빗살이 긁고 지나간 두피가 오히려 시원스러웠다. 놀란 워로드의 손이 떨어져 나간 것과 상관없이.

가짜 보석이 달린 머리꽂이는 매니시의 하얀 머리 위에 얹어놓으니 꽤 고급스럽게 보였다. 특히 그의 눈동자를 닮은 주홍색 보석이 하얀 머리와 썩 잘 어울려 시선을 끌었다.

"아마 우리 말고도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만의 갑옷이 있겠죠. 그러니까 별로라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뻐요?"

제 머리를 더듬더듬 만져 본 매니시가 돌아보며 묻자 그는 동그란 이마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입술을 붙였다 떼며 대답했다.

"아주 잠깐 눈 감는 것도 아까울 만큼."

코앞에서 내쉬는 숨에 자꾸만 눈이 감겼다. 속눈썹이 팔락거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매니시의 미소가 깊어졌다.

"이제 난 제법 단단해져서 갑옷이 없어도 잘 살지만 이건 꼭 하고 다닐게요. 마음에 들어요."

"내가 지킬게, 항상."

"누구한테서? 화이트럼한테서?"

"누구한테든."

그녀가 작은 손으로 워로드의 볼을 감쌌다. 마주친 눈동자 안에 바라마지 않던 완전한 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는 걸까.

매니시는 불안한 마음 위로 애써 환하게 웃었다. 대신 엄지와 검지에 힘을 줘 화풀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야.

"그럼 여자 문제부터 어떻게 해 보시죠?"

그의 볼은 말랑한 그녀와 달리 탄탄해서 놓치지 않으려면 꽉 잡고 있어야 했다. 생전 처음 뺨을 꼬집힌 그는 본능적으로 힘이 흐르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고 되물었다

"여아 운에?"

"단장님 인기 때문에 제 소문이 얼마나 험하게 난 줄 알아요? 소문만 들으면 제가 애 딸린 과부에 사치병이 심해서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꽃뱀이거든요? 단장님은 순진한 피해자고요."

말을 하다 보니 열이 받아서 손가락에 계속 힘이 들어갔다. 물론 그와 상관없이 진작부터 떠돌던 소문도 있었지만, 은근슬쩍 얹어도 그는 모를 터였다. 사실 그 때문에 다시 화제가 됐으니 매니시도 억울하긴 했다.

"그리고 도대체 마리티무스 영애랑 무슨 사이에요? 다들 둘이 결혼할 거라고 그러는 거 알아요?"

이쯤에서 매니시는 저도 모르게 손을 비틀었다. 차마 놔달라고 하거나 손을 떼지도 못하고 코앞까지 끌려온 워로드의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무 심했나... 반짝이는 물방울을 발견한 매니시의 양심이 콕콕 쑤셨다. 워로드는 매니시의 손에서 슬슬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부러 입을 크게 벌렸다.

"미…"

"미안하단 말 하면 미울 것 같아요."

움찔.

"몰…"

"몰랐다고 하면 열 받을 것 같고요."

움찔, 매니시의 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과 동시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랑해."

한마디만 남기고 꾹 다문 입술 옆으로 벌건 자국이 보였다. 매니시의 손이 떨어져 나간 자리였다.

잠깐 조용하던 매니시가 대답했다.

"…치사하게."

이제는 매니시의 뺨이 꼬집힌 워로드의 뺨보다 붉었다. 매니시는 쉽게 웃어주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입꼬리는 도무지 말을 들어 먹는 기관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양손에 얼굴을 묻은 그녀에게 그가 유혹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내용만 유혹적인 평소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소문을 한 번에 정리할 좋은 방법이 있긴 해."

눈만 빼꼼 나온 매니시가 물었다.

"뭔데요?"

"정식으로 초대받으면, 같이 갈래?"

어딜요? 그렇게 묻지 않은 것은 그가 떨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바로 덧붙였다.

"모나쿠스에."

이번에는 매니시가 떨 차례였다. 한계까지 치켜뜬 눈꺼풀 아래 검은 눈동자가 그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의중을 읽기 위해.

미혼 남녀가 가문의 정식 초대를 받는 것이 일종의 순서이기 때문이었다. 가족이 되기 위한 순서.

그 후에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결국 입양이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제가 초대받을 수는 있나요?"

언젠가 바이올런스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그는 몰라도 그의 가문에서 반겨줄 거란 기대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워로드의 대답은 산뜻했다.

"너만 원한다면."

"…정말요?"

"그래. 아, 애도 데리고 가도 돼. 미리 말해놨으니까."

워로드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던 매니시는 가로등이 깜박이며 어두워진 시야에 주변을 둘러봤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들어가 가족들이 걱정할만한 시간이 되어 있었다.

처음 수사단에 끌려갔을 때처럼...

그 순간 매니시는 번뜩 그의 말이 뜻하는 바를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오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과,

"잡았다, 요놈!"

이 눈치 없는 남자가 바로 헛소문의 근원이라는 것이었다.

짝. 남자의 거친 손바닥이 마찰음을 내고 떨어졌다. 세 사람이 들어선 방은 마치 아무도 없는 곳처럼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먹을 거, 입을 거, 원하는 거, 난 네가 바라는 건 뭐든 하게 해줬다. 내가 말했지, 뭘 해도 좋으니 마리티무스라는 이름에만 먹칠하지 말라고. 근데 넌 뭘 했지? 이게 네 대답이냐?"

돌아간 글램의 얼굴은 흐트러진 머리칼로 뒤덮인 채 미동이 없었다. 말아쥔 주먹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감정을 나타냈다.

바이올러스가 한 발짝 나서며 입을 열었다.

"각하, 진정하십시오. 얼마 후에 독서 모임에 나가셔야 합니다."

바이올런스의 시선이 벌겋게 달아오른 글램의 뺨을 훑자 그를 좇은 후작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후... 그러니 문제네. 이 상황에 자중하진 않고 그런 모임이나 하겠다니."

"제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임은 지금이라도 취소할까요?"

글램을 지나쳐 의자에 앉은 후작이 대답했다.

"됐네. 애초에 자네한테 맡긴 내 죄지. 들고 휘두르는 게 특기인 저 녀석을 자네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나."

말을 하면서도 후작의 눈은 테이블에 놓인 문제의 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방 안에는 그가 건성으로 책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열린 것은 그가 책을 두 장 정도 더 넘겼을 때였다.

"앉아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 미동 없이 서 있던 글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앉기 좋게 의자를 빼는 바이올런스와 빠른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후작이 보였다.

"정말 네가 썼느냐?"

그의 첫 질문은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글램은 손등으로 뜨거운 볼을 식히며 대답을 미뤘다. 하지만 그는 쉽사리 놓아주지 않고 재차 물어왔다. 명확히 비웃는 목소리로.

"네가?"

"…그래요. 내가 썼어요! 내가 바로 '아가씨'예요."

쾅! 욱한 글램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흔들리는 테이블 위로 그의 엄포가 쏟아졌다.

"어디서 큰 소리냐! 그것도 거짓말을,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흥분한 그의 팔이 테이블을 쓸자 책 '만찬'도 테이블을 장식하던 꽃바구니도 저 멀리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글램은 제 발에 튄 꽃잎 한 장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감쌌다.

"이제 어쩔 셈이냐. 이 일을 어찌해! 명문가의 딸이 음악이나 사교댄스가 아니라 펜을 쥐고! 그따위 글을, 그딴 것들이랑 같이 내보인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남들이 날 얼마나 비웃겠냔 말이야!"

그의 울분은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벽 한가운데 떡하니 걸린 글램의 맞춤 드레스로 향했다. 아직 시험 착용 외에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그것은 옷걸이 채 들려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 옆에 미리 맞춰놓은 장신구들까지도.

이런 건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물건 쏟아지는 소리 사이로 얼핏 들렸다. 글램은 제가 맞을 때도 내지 않던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다.

"안 돼요, 아버지! 제발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글램은 눈물과 비명을 섞어가며 그의 자비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후작의 분노는 쉽게 꺾이지 않아 방안은 점점 난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도에 두면 알아서 결혼이라도 하려니 했던 건데, 얼마 전에 공작가에서도 연락이 왔다! 헛소문이 심하니 두 남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로 잡자고. 기다리라고? 이런 지경에 아직도 내가 더 기다려야겠느냐?"

으직, 부녀의 활극을 지켜보고 있던 바이올런스는 소란 속에 발을 내밀었다. 그의 구두가 널브러진 꽃줄기를 밟아 뭉개고 있었다.

"후작 각하."

그 작은 목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숨을 내쉬던 후작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물건을 부수며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숨을 몇 번 몰아쉬자 평상시의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다.

"제가 비록 모자라서 이번 일을 미리 막지는 못했지만,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눈을 빛낸 후작이 풀려 있던 윗단추를 다시 채우며 숨을 골랐다. 소리 없이 오르내리는 그의 가슴이 진정되자 바이올런스의 설명이 이어졌다.

"황녀가 '아가씨'의 대단한 팬입니다. 덕분에 폐하께서도 그녀를 주목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가씨'의 정체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죠."

후작은 연달아 거론되는 황족에 구미가 당기는 듯 탄성을 흘렸다. 손가락을 세워 머리를 넘긴 그가 거울 속에 비친 바이올런스에게 물었다.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란 게 어디 있나. 본인이나 출판사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

"여태까지 비밀로 했다는 건 본인 스스로 공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 작가라니, 사실 리스크가 큰일이죠. 배경이 후작가 정도가 아니고선… 군중의 환호는 비난에 묻힐 테고요. 하지만 글램 영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가 감히 비난하겠습니까."

거울 속 두 개의 시선이 맞닿았다.

"황제와 황녀가 비호하는, 후작가의 여식을."

"확실한 게 아니면 손대지 않는 게 낫네."

거듭되는 후작의 당부에 바이올런스는 시선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 차 있었다.

"확실하게 만들면 되죠. 저쪽이 잠잠한 틈에 본인을 먼저 찾아내면 좋게 합의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글램이 타이밍 좋게 끼어들었다.

"잘할 수 있어요."

뒤돌아 그녀를 훑어내린 후작이 다시 반문했다.

"우리가 찾기 전에 본인이 정체를 드러내면?"

"제가 알기론, 영애께선 한 번도 제 입으로 '아가씨'라고 시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후작의 시선이 닿기 무섭게 글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비로소 그의 입가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위험한 도박이지만, 언제나처럼 자네만 믿겠네."

바이올런스를 끌어안은 후작이 두꺼운 손으로 그의 등을 쓸었다. 귓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정하고 나긋했다.

"널 거둔 게 아주 큰 복이구나. 넌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바이올런스."

바이올런스는 늘 그랬듯 조용한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글램 아가씨의 역할이 큽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 속에 방치된 보석을 훔치기 좋을 테니까요."

후작의 어깨너머로 글램의 하얀 머리칼이 보였다.

그래, 그가 훔치고 싶은 것은 감히 빛 속에서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강한 보초를 상대로 흠집 하나 없이 훔쳐내려면 어둠만 한 게 없지.

하물며 보석이 빛 그 자체라면야, 빛을 먼저 훔치는 수밖에.

"아무래도 일정을 새로 짜야겠구나. 어느 정도 대외활동을 유지하면서 소문의 신빙성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나서는 것도 보기 안 좋아. 글램 너는 예정된 일정표를 갖고 내 방으로 오너라."

후작은 마음을 정했는지 방을 나가기 전 힘찬 목소리로 그렇게 고했다. 그의 뒤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바이올런스가 몸을 일으킨 것은 문이 닫혔을 때였다.

높이 치켜든 글램의 손이 보였다. 그녀의 손이 떨어지며 바이올런스의 뺨에 불이 일었다.

"건방지긴, 나한테 이래라저래라하지 마."

쾅, 거칠게 닫힌 문소리와 함께 혼자 남은 바이올런스가 고개를 들었다. 맞을 때 글램의 손톱에 긁혔는지 뺨에 빨간 실선이 남아 있었다.

몇 걸음 걷던 그가 허리를 굽혀 탐스러운 꽃 한 송이를 주워들었다. 가는 김에 선물로 들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잘 어울리겠네."

눈부신 그녀의 머릿결은 꼭 그녀처럼 어떤 색깔과도 잘 어울릴 테니까.

짝짝짝짝짝짝

2층에 앉은 바이올런스는 군중과 함께 손뼉을 치며 홀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오늘도 1층에서 손뼉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머리 위에 내려앉은 꽃잎이 눈에 띄었다. 극 중반에 터지는 여린 분홍색의 꽃잎. 유치한 과거와 풋사랑의 색이었다.

누군가의 발밑에 짓이기고 나면 꽃물에 찔끔 젖고 마는. 그러나 매니시의 머리 위에 얹힌 꽃잎은 어쩐 일인지 달라 보였다. 부드럽고 달아 보이는 색에 침이 고였다.

그래서 그는 내내 떼지 못한 시선을 급하게 무대로 돌렸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연기자들이 아직도 극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극일까, 현실일까. 바이올런스는 다시 매니시를 돌아봤다.

환하게 웃는 그녀가 무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무대에도 꽃 같은 미소가 피어났다. 아침 해를 기다리는 나팔꽃처럼 온 힘을 다해.

"빨리 얘기 좀 해 봐. 벌써 소문 다 났거든?"

호들갑스러운 친구들의 재촉에 매니시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연극이 끝난 무대 뒤편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평소보다 배는 소란스러웠다.

"소문 다 났다면서 또 뭘 얘기하래."

"네 입으로 듣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야? 너 정말..."

남자 분장을 한 여인의 능청스러운 시선이 매니시의 배를 향했다. 어리둥절하게 그 시선을 따라갔던 매니시는 여인의 뒤에서 배 위로 동그란 곡선을 그려대는 친구들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곤 소리를 질렀다.

"아냐!"

연기라도 날 듯 붉어진 얼굴에 여인들의 웃음이 흐드러졌다. 모나쿠스 가문에서 정식으로 보내온 초대장은 '아가씨'의 정체와 함께 단연 사교계 제일의 화젯거리였다.

본의 아니게 화제의 중심에 선 매니시는 귀족 관람객의 시선이 쏠리기 전에 연극이 끝나자마자 관계자 구역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백작님 하시는 걸 봐선 한참 걸리지 싶었는데, 언제 이렇게들 컸나 몰라."

페니가 장난스럽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 나왔다. 혼자서만 마음껏 웃을 수 없던 매니시는 손부채질을 하며 다른 화제를 꺼내 들었다.

"새로운 기숙사는 어때? 마음에 들어?"

풋! 그 모습이 퍽 필사적이라 예의상 참아 보려고 노력한 몇 사람의 입에서 입방구가 튀어나왔다. 가장 먼저 터진 큰 소리는 물론 페니의 것이었다.

매니시의 눈초리에 입술을 말아 문 그녀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난 다른 것보다 집주인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 어제 우리 연극도 보고 갔어.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까 눈이 빨개졌던데."

그거 그래서 빨간 거였어? 그래, 안 운 척하는 게 엄청 귀엽지 않니? 오늘 집에 가면 안아줘야겠다!

매니시는 제 작업실이 있던 하숙집 주인을 떠올렸다. 다정한 구석이 있다 싶더니 페니에게 그새 간파당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충격이다, 눈이 빨간 집주인...

"나도 못 본 모습인데. 벌써 다들 많이 친해졌나 보네."

평소의 얼굴색을 되찾은 매니시가 중얼거리자 옆에 선 여인의 대답이 곧바로 돌아왔다.

"같이 산다는 게 그렇지 뭐. 난 요새 소외감 느낄 지경이라니까?"

추가 인원이 생기며 한동안 부딪치던 연기자 무리는 이제 완전히 한 무리가 되어 있었다. 동고동락한다는 게 끈끈한 유대감을 가져온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있었다.

가족을 되찾은 여인의 얼굴엔 눈부신 아름다움이 있었다. 생이 가져오는 기적의 흔적.

그것이 저들이 가져온 변화라 생각하면 그들은 가슴이 벅찼다. '페라'의 자부심은 어떤 유대감보다 끈끈하게 그들을 잇고 있었다.

"집에서 다니기 힘들지 않아?"

"전혀.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어두운 감옥 안에서의 첫 만남도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졌다. 다행인 일이었다.

탁.

"왜?"

매니시가 무대 쪽을 보고 있자 여인이 물었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홀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거야. 2층 손님들은 귀가가 늦거든."

"더 가까운 소리 같았는데..."

"그나저나 오늘은 왜 소문의 주인공이랑 같이 안 왔어? 금붕어 똥처럼 늘 따라다니더니."

짓궂은 질문이 다시 시작될 낌새에 부끄러운 얼굴이 된 매니시가 두 손을 마구 휘저었다.

"으아아, 몰라 몰라. 오늘은 그냥 며칠 못 볼 거라 인사하러 온 거였어. 나 이제 갈래!"

"왜, 좀 있으면 다음 공연조 연습하러 올 텐데 인사하고 가지. 안 놀릴게!"

"그래. 안 놀려! 그냥 무뚝뚝한 백작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만 알려줘!"

"몰라!"

매니시는 끈질기게 따라붙는 목소리들을 피해 커튼 쪽으로 도망갔다. 멀쩡한 문을 두고 하필 홀과 연결된 커튼으로 간 것은 거리상의 이유였다. 한시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그러나 두꺼운 커튼을 넘자마자 매니시는 그 선택을 후회했다.

"마리티무스 영애에 비하면 좀… 안 그래요?"

누구를 말하는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대화에 무대 구석에 선 매니시는 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다. 2층에선 아주 재밌는 소리라도 들었다는 듯 웃음이 떨어져 내렸다.

"혹시라도 마주치면 백작님을 유혹한 비결이라도 물어봐야겠어요. 또 알아요? 이중 운 나쁘게 몰락하는 집이라도 있으면 써먹을 수 있을지."

마치 그녀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그를 유혹했다는 듯이 들리는 대화였다. 주먹을 말아 쥔 매니시가 걸음을 뗄 때였다.

"쉿."

어둠에서 튀어나온 낯선 손이 그녀의 주먹과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그 은밀한 바람 소리, 놀란 심장이 빠르게 뛰자 온 신경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커다랗게 뜨인 눈은 손의 주인을 향했다. 그였다.

바이올런스 코로네.

"지금 나가서 싸우면 더 안 좋은 소문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대답 없이 코앞의 그를 올려다봤다. 온통 새까만 그는 무대 위 그림자가 드리운 구석 자리가 한 몸처럼 어울렸다.

어둠 속의 그는 평소보다 존재감이 뚜렷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가 잡지 않은 매니시의 한쪽 손이 하얗게 질렸다.

뒤늦게 그녀의 입이 열렸다.

"알겠으니 놔줘요."

그새 가라앉은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부딪혔다. 홀 안을 채운 귀족 영애들의 재잘거리는 목소리와는 전혀 딴판인 음성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뗀 바이올런스는 장난스럽게 손바닥을 내보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서."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미성이라고 느꼈던 평소와 달리 가라앉은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매니시는 그와 마주친 눈을 피하며 답했다.

"…그랬나요."

의무적인 느낌이 나는 그녀의 대답에 내리뜬 그의 눈에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벼웠다.

"기억도 안 나십니까? 사랑… 때문일까요? 모나쿠스에 초대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나쿠스'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매니시의 입가에 잠깐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반대로 바이올런스를 스쳐 지나간 것은 뜨거운 불길이었다. 그는 화끈거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어렵게 입을 뗐다.

"…그렇게 웃으니 정말로 서운하려고 하네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귓가를 떠도는 가벼운 음성과 달리 인내하는 얼굴이 보였다. 찌푸려진 미간, 의뭉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린 긴 속눈썹, 꾹 다문 입매까지도 맞춘 듯 그에게 잘 어울렸다.

이내 천천히 올라가는 눈꺼풀 아래 까만 눈동자가 담은 것은 그녀였다.

너무 다른 두 쌍의 눈동자가 서로를 탐색하려는 듯 이어진 끈을 놓지 않았다.

스윽, 스윽. 먼저 그 소리를 눈치챈 것은 바이올런스였다.

"난 이쪽부터 할게!"

어느새 2층의 손님들도 빠져나갔는지 직원들이 꽃잎을 청소하러 온 모양이었다. 무대로 다가오는 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이올런스는 그녀 뒤쪽의 다물린 커튼을 손가락으로 들춰 안을 들여다봤다. 가까워진 그의 몸에 매니시가 움츠러들었다.

좁은 틈으로 연기자들이 자리를 비운 적막한 방을 확인한 그가 매니시는 어깨에 손을 올렸다.

"조용히, 뒤로 걸어요."

어느새 무대 위로 올라온 직원을 흘끔 본 매니시는 그의 말대로 뒤로 발을 디뎠다. 직원은 반대편 끝 구석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빗자루를 바닥에 대고 빙글 돌아설 찰나,

"읏."

억누른 비명이 매니시의 목 근처에 머물다 흩어졌다. 제 치마를 밟고 뒤로 넘어가는 그녀를 받아준 건 바이올런스였다. 그의 뒤로 그들을 삼킨 무거운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분장실의 밝은 빛이 그의 높은 콧대에 명암을 드리웠다.

"그러고 보니까 굳이 제가 뒷걸음질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춘 그녀에게 씩 웃어 보인 그도 조용히 답했다.

"이쪽이 스릴 있으니까."

그의 어깨를 밀며 몸을 바로 한 매니시의 시선이 향한 곳은 빛 속에서 드러난 그의 상처였다. 빨간 실선은 부어오르기까지 해 예쁜 그의 얼굴과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았다.

"뺨이..."

"성질 고약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요. "

매니시의 시선이 빈 화장대를 향했다. 약상자가 보였다. 연극이 끝나고 한 연기자가 작은 상처를 치료하느라 늘어놓은 그대로였다.

"가만있어 봐요."

상처 위로 약을 펴 바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살살 움직이는 손에 숨결이 와 닿았다.

그 따뜻한 기운을 따라간 매니시는 그의 둥근 코끝을 발견했다.

"사실 오늘은 연극이 아니라 영애를 만나러 왔습니다."

동그랗게 휜 눈매 안에 자리 잡은 차가우리만치 새까만 눈동자,

"왜요?"

"걱정이 돼서요."

늘 단정하게 묶어 내린 그의 긴… 머리카락.

"왜 날… 걱정하는데요?"

매니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뛰던 것이 이제야 느껴지는지도 몰랐다. 그만큼 아무도 없는 분장실은 적막했다.

"모나쿠스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걸 알기 때문이죠."

터무니없는 일인데, 왜 차가운 눈빛 속에 온기가 보이는 걸까. 그는 뺨에 반창고를 붙이던 매니시의 손을 겹쳐 잡고 제 얼굴을 비벼 반창고를 마저 붙였다. 고양이처럼 나른한 얼굴이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깊이 응시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이 루푸스 백작과 가까워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서 좀 다른 방식을 써 보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진심이나 숨겨진 사연에 목말라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가씨'."

"그게 무슨…!"

"걱정 마요. 당신 비밀은 지킬 테니까. 사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예요. 이제부터 백작한테서 당신을 빼앗고 싶거든요."

그가 붙잡은 매니시의 손을 조여왔다. 그녀가 팔에 힘을 줘 손을 빼내려고 해도 그의 손은 매니시를 놓치지 않았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그는 혼란으로 물든 매니시의 얼굴이 가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다.

"그건 그들한테 물어야죠. 내가 충고했잖아요. 정말 무섭고 나쁜 사람들은 글램 같은 철없는 바보랑은 다르다고.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 엮이기엔 너무 순진해."

꼭 저처럼, 그의 눈동자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매니시는 그 뜨거운 눈동자가 견디기 힘들었다.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있을까 봐.

"내 어머니처럼."

어머니? 매니시는 대답 없이 시선으로 그에게 물었다. 떨리는 숨은 그에게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그래요, 내 어머니. 그들이 죽인."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 흉터로 가득한 목소리는 질기고 단단해서, 휘둥그렇게 떠진 매니시의 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때 문밖으로 웅성거리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속 연습조가 벌써 온 모양이었다. 매니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나 그는 곧 있을 침입자가 달갑지 않은 듯 매니시의 손을 잡아끌었다. 분장실 구석 연기자들이 의상을 갈아입기 위해 쓰는 공간으로.

접혀있던 파티션을 펼쳐 공간을 나눈 바이올런스가 입을 열었다.

"앓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아들이 전장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죠. 생전에 어머니가 한 번도 빼놓지 않던 결혼반지가 사라진 것부터,"

매니시의 손가락 끝에 입을 맞춘 그가 고개를 들자 예기가 흐르는 눈이 보였다. 오랜 시간 날카롭게 벼려 뾰족해진 눈이.

"방에 남은 흔적까지. 추적해 보니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찾아간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문전박대당한 다음 날 돌아가셨고요."

아가씨, 작가다운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여행을 떠날 정도로 멀쩡하던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때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짓이든 하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했죠. 정황 증거만으로 잡기에 그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의 눈동자에 담긴 것은 깊은 원한이었다. 여태까지 의아했던 그의 행동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매니시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빛무리를 머금고 부서졌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느렸다. 그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도, 그의 음성이 귀에 닿는 것도.

"의심. 계속 의심해요. "

그리고 한 번 닿은 목소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메아리쳐 그녀를 괴롭혔다.

벌컥, 그를 깨뜨린 것은 활짝 열린 분장실의 문이었다.

막혀있던 소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인들은 분장실 한쪽의 어둠은 상상도 못 한 채 활기찬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만 같았다. 매니시의 머리 근처로 고개를 숙인 바이올런스는 파티션의 좁은 틈으로 그를 확인하고 조금 물러섰다. 마치 저 너머는 제게 허락된 자리가 아니라는 듯.

그를 놓칠까 초조해진 매니시는 그의 옷깃을 붙잡고 말했다.

"아직 대답 안 했어요. 복수 때문이라면, 날 빼앗지 않아도 그에게 상처 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왜 그때 날… 도왔어요?"

단정 짓는 그녀의 말투에 바이올런스의 손가락이 움찔 떨렸다. 그의 반응은 그게 다였지만,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바이올런스는 생각했다. 하얀색 속눈썹이 가녀리게 흔들리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지만, 그 아래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검은 눈동자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 인생이 꽤 팍팍했어요. 아주 어릴 때 행복했던 한순간을 계속 곱씹을 만큼."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서 나온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다정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한 걸음, 소리 없이 불쑥 다가온 그가 매니시의 머리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이건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워로드가 사준 머리꽂이 옆으로 다른 것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떨어졌을 때, 그녀는 혼자였다.

"매니시? 여기서 뭐 해?"

파티션이 걷히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펄럭, 있는지도 몰랐던 창문이 그녀의 옆에서 제 존재를 알렸다.

바람결을 따라 커튼의 주름이 펴지는 상쾌한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를 인지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매니시가 스르륵 주저앉았다.

"매니시! 왜 그래? 어디 아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니시에게선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대신 제 머리를 더듬어 부드럽게 감기는 낯선 것을 빼 들었다.

"검은 백합? 불길하게 머리에 그런 건 왜 하고 있어?"

활짝 핀 백합은 그와 같은 검은색이었다.

그 음산한 자태가 여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는지 분장실의 소란은 다시 이어졌다. 그중에 반은 매니시, 그녀를 걱정하는 소리였다.

"그거 꽃말이 저주인데. 누가 언니 저주하는 거 아냐? 으, 무서워!"

저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었다. 마지막 그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으니까.

그 순간 호들갑스러운 소녀의 목소리 너머로 코이의 차분한 음성이 끼어들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다른 쪽 의미 같은데. 검은 백합의 또 다른 꽃말은…"

그가 그녀의 외투를 찾기 쉬운 곳에 버린 것도, 믿을 수 없는 의심을 심은 것도,

"사랑이야."

매니시를 위해서였다. 그게 바로, 화이트럼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의심의 싹이 움튼 마차는 모나쿠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나저나 의외네요. 에이드 경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공작가에서 보내준 마차는 매니시가 여태까지 탔던 어떤 마차보다도 편안하고 쾌적해서 창밖을 보지 않으면 여행 중이라는 사실도 잊을 정도였다. 매니시는 내내 기대있던 창가에서 몸을 떼며 워로드에게 말했다.

"그 녀석 요즘 바빠. 여자한테 푹 빠졌거든."

그러나 가볍게 던진 질물에 돌아온 답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다. 눈이 동그래진 매니시는 슬금슬금 배어나는 미소를 감추지 않고 물었다.

"에이드 경이요? 어떤 여잔데요?"

"화이트럼이 협박장 심부름시켰던 여자. 그 녀석이 수사단 상주 하녀로 쓰자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두근, 예상치 못한 순간 나온 이름이 심장을 짓눌렀다.

워로드에게 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 그러나 그에게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가 늘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몰랐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으니까. 화이트럼의 추측이 억측에 불과하다면, 지레 그에게 상처 주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런 건데… 음, 눈치가 보이네. 길게 눈을 굴린 매니시에게서 나온 것은 썩 어색한 음성이었다.

"아 그분. 와아, 그럼 연애하느라 바쁘시겠네요?"

"아니. 사기꾼 쫓는 중이야."

하지만 연달아 공개되는 의외의 사실에 어색함은 얼마 가지 못했다.

"사기꾼?"

"그 녀석이 애독하던 책, 저명한 심리학자가 쓴 거라고 맹신하더니 사기꾼이 사칭한 거였대. 열 받아서 제정신 아니야."

실소를 짓는 그의 옆에서 아직 이해가 안 된 매니시는 고개를 갸웃거려야만 했다. 사기꾼한테 속으면 열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연애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여간 그도 독특한 상관이었다. 매니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워로드에게서 명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연애도 책으로 배우는 녀석이니까."

책?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얼떨결에 시작된 수사단 생활, 신이 나서 서류를 정리하던 에이드의 책상에서 발견한 책 두 권. 분명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입문서 냄새가 풀풀 나는 책이었는데.

마주친 그의 눈동자에서 쌤통이라는 기색이 느껴져 매니시는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다.

"어쩐지, 단장님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한다 했더니 다 거기서 나온 조언이었죠?"

"…별로."

웃음을 머금은 매니시가 시선을 피하는 그의 무릎을 콕콕 찌르며 말했다.

"이제 이상한 거 배워오지 말아요?"

사실은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실없는 웃음은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하고 넓은 마차 안을 떠돌았다. 창 너머로 황성 못지않은 웅장한 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탑에 걸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한바탕 비를 쏟아낼 것만 같이 어두웠다.

어느새 그녀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도 자취를 감춘 채였다. 마차의 정적을 깨고 그가 물었다.

"긴장돼?"

그녀처럼 그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마차가 지나가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는 영민들이 보였다. 그리고 시선을 가르고 뚝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이내 마차 천장에 가는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 방울, 두 방울, 마차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늘어날수록 눈을 감고도 마차의 네모난 모양이 그려졌다. 불현듯 쾌적한 마차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들쑤시는 소리며 감은 눈 위로도 느껴지는 어두운 하늘… 어두운 하늘? 마차에 달린 조명은 어쩌고,

"매니시."

눈을 뜨자 그녀의 앞에 조명을 가리고 선 워로드가 보였다. 매니시의 머리 근처를 짚은 팔이 접히며 그가 점점 가까워졌다.

"걱정 마. 다들 널 좋아하게 될 테니까."

신기한 일이었다. 불안하게 널뛰는 고동처럼, 그렇게 거슬리던 빗소리가 한순간 뒤바뀐 것은.

코앞에 다가온 그는 입술이 맞닿기 전에 속삭였다.

"나처럼."

사나운 빗소리는 어디로 숨은 걸까. 감은 눈으로 들린 빗소리는 다정하고 장난기 넘치는 녀석이라, 뜨거운 남녀의 머리 위를 통통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둥이 울기 전까지는.

마수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에 놀란 매니시가 그를 밀었을 때였다. 멈춰선 마차의 문이 열렸다.

빗줄기 사이로 늘어선 인영들은 우산을 내미는 사람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먼저 내린 워로드는 매니시를 위해 준비된 우산을 뺏어 직접 들고 마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야말로 갑자기 다가온 운명의 시간이었다. 큰 숨을 마셨다 내뱉는 매니시의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들었다. 처벅, 물기가 흥건한 타일 위에 그녀의 발이 내려섰다.

우르릉 쾅. 순간 심장이 조여들 정도로 큰 소리에 움찔한 매니시는 가슴에 손을 올렸다. 여기 있다,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격렬한 고동이 느껴졌다.

동시에 낮임에도 외부등을 킨 것처럼 깜박 밝아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놀라지도 않고 표정 없는 얼굴로 꼿꼿하게 서 있던 모나쿠스 부처와 낯선 여인 한 명.

"어서 와라."

선대 공작이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별 반갑지 않은 얼굴로. 매니시는 혼란한 눈을 짧게 굴려 공작가의 면면을 확인했다. 마른 침이 넘어갔다.

죽은 바이올런스의 어머니, 코로네 전 남작 부인과 피 냄새 나는 사건으로 얽힌 이는 누구일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긴장한 목소리가 다 나오기도 전에 또 한 번 천둥이 울려 뒷말을 삼켜버렸다. 옆에서 잡아 오는 온기만 아니라면 당장 도망가고 싶은, 썩 불안한 시작이었다.

"오늘도 날이 안 좋아서 어떡하죠? 바다 구경도 하셔야 할 텐데, 모나쿠스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만찬장은 다섯 사람이 모인 것치고 아주 조용했다. 간간이 매니시와 공작부인만이 대화를 나눌 뿐이었는데 공작부인은 전날 매니시와 워로드를 마중 나왔던 낯선 여인이었다.

그녀는 딱딱했던 첫인상과 달리 친절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안타깝다는 듯 눈썹을 내려뜨린 그녀는 두꺼운 고기를 썰면서도 매니시의 안색을 확인하고 있었다.

매니시는 공작부인의 칼질 한 번에 드러나는 고기의 핏기 어린 단면을 보며 대화를 이어갔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돌아가기 전에는 날이 개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맘쯤에는 비가 많이 와서요."

마치 그녀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듯 커튼이 쳐진 창문이 또 번쩍였다. 후두두 쏟아지는 빗소리가 일시에 커졌다. 그 심술궂은 자연의 조화에 매니시의 입술은 빼죽 튀어나왔다.

"우산 쓰고 가지 뭐."

태연한 목소리는 통통한 알새우를 찍어 입에 갖다 댄 워로드의 것이었다. 물론 그 입은 그의 입이 아니라 매니시의 입이었다.

얼떨결에 새우를 받아먹은 매니시가 빠르게 식탁의 분위기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뿌듯하게 웃는 워로드의 맞은편에서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일어나죠."

냅킨으로 입술을 닦은 큰 부인은 소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동시에 그들 나름으로는 화목했던 식당의 분위기도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어제부터 이 패턴이었다. 워로드가 그녀에게 치근대고, 큰 부인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고, 공작부인은 이 모든 상황이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는다는 듯 얼굴이 벌게져서 관망했다.

이제는 민망하고 신경 쓰인다기보다 익숙하달까. 매니시의 오물거리는 소리 위로 얹히는 목소리도.

"나도 일어나마."

뿌윽. 선대 공작이 일어나는 소리는 대개 요란했다. 그는 제게 시선이 주목되면 꼭 한마디씩을 더 얹었다.

"워로드, 쓸데없이 우산 쓰고 돌아다닐 생각이라면 접어라."

듣기만 해도 베일 것 같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그래, 이놈의 집.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따갑게 구는가 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비 맞고 돌아다닐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저께는 두 분이 아가씨가 쓰실 방까지 직접 확인하셨는걸요."

방에 있는 인형도 아버님께서 주문하신 거예요.

어느새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상체만 한 돌고래 인형은, 그래, 매니시의 마음을 훔친 지 오래였다.

그러한 선대 공작의 상반된 면모, 큰 부인의 엄격한 태도, 코로네 부인이 죽은 3년 전쯤 시집온 공작부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제일 수상한 것은,

"그런데 공작 각하께서는 매번 따로 식사하시나요? 그래도 인사는 한 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공작의 부재.

테이블 끝, 비어있는 상석의 자리를 바라보는 매니시는 태연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가 온 이후로 한 번도 채워진 적 없는 자리는 텅 빈 의문만 켜켜이 쌓여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흐려지는 매니시의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공작부인의 단호한 음성이었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워낙 바쁘시니."

목소리만큼이나 단호한 얼굴에는 얼핏 찬 기운마저 서려 있었다. 공작부인의 방어적인 태도에 매니시의 입도 다물렸다.

달그락, 세 사람이 내는 선득한 식기 소리는 격정적인 빗소리와 만나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투투투툭, 투툭

"만나보면 어느 쪽이든 명쾌해질 줄 알았는데."

방으로 돌아온 매니시는 옆구리에 돌고래 인형을 낀 채 한 손은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은 매니시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작은 파편으로 나뉘어 튕겨 나갔다.

아무리 오랫동안 내밀고 있어 봐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잡을 수는 없었다. 단지 남아있던 물기에 새로운 방울이 부딪쳐 튕겨 나가고 덧씌워지길 반복할 뿐.

한참 동안 흩날리는 물방울들을 바라보던 매니시는 손을 털고 창문을 닫았다.

창문을 닫자 방금까지의 한기가 착각이라는 듯 훈기가 감도는 방. 폭신하고 부드러운 인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공작부인이 말했던 대로 매니시가 환영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잘 자요.'

방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주친 큰 부인은 그런 말도 했었다. 어색한 듯, 부끄러운 듯 망설이는 입술은 워로드와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좋은 사람들인 거 같기도 하고.

'쓸데없이 우산 쓰고 돌아다닐 생각이라면 접어라.'

"그 반대인 것도 같고. 하… 아?"

한숨을 쉬던 매니시가 제 입김이 서린 창문에 다가선 것은 어른거리는 인영 때문이었다.

굵은 빗줄기 속에 선 우산 두 개, 비 오는 밤에 누군가 산책을 할 리는 없고 사용인이라기엔 우산의 색감이 화려했다. 그래서 유독 시선이 갔다.

소매로 창문을 닦은 매니시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댔다. 굵은 빗줄기에 가려 비교적 선명한 우산을 제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요즘 들어 매니시를 두렵게 했던 번개가 그녀를 도왔다.

번쩍, 짧은 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는 누군지 몰랐지만, 여자의 차림새는 익숙했다.

"공작부인?"

정원에 선 두 사람은 곧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어찌나 격렬한지 우산이 휘청이고, 서로 흠뻑 젖어가고 있었다.

매니시는 다시 뿌옇게 김이 서린 창문을 문지르며 남자의 차림을 살폈다. 물을 먹고 늘어진 고급스러운 옷감, 친밀하게 부딪치는 두 사람의 몸, 상황이 그의 정체를 말하고 있었다.

모나쿠스 공작, 전혀 예상치 못한 첫 만남이었다.

마른 입술이 내뱉은 숨이 자꾸만 유리에 맺혀 시야를 가렸다. 실랑이 끝에 떨어진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매니시는 뜨거운 숨을 다문 입술 안으로 삼키며 물러섰다. 발에 뭔가가 걸렸다. 지레 놀라 돌아본 곳엔 그녀의 옆구리에 있던 인형이 어느새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다시 창으로 돌린 시야에는 우산도 없이 멀어지는 공작의 뒷모습이 보였다. 공작부인의 모습은 뿌연 자국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 밤 중에 어딜…"

소매를 끌어당길 새도 없어 손바닥으로 유리를 닦자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다. 바닥을 뒹구는 두 사람의 우산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그리고 흠뻑 젖은 몰골로 외롭게 선 인영.

불안한 마음에 커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폭력적일 정도로 큰 천둥소리는 그 직후 울렸다. 번쩍.

순간의 틈으로 고개를 든 공작부인과 매니시의 시선이 맞닿았다.

"아."

매니시는 운명에 떠밀린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어둠이 돌아온 정원도 아무 일 없었단 듯 잠잠했다.

벌컥!

매니시는 무작정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깊이 생각한 일이 아니었기에 목표도 없었다. 이리저리 엉키고 뒤섞인 머리에는 그럴 틈이 없었으니까.

야심한 시각도 아닌데 복도는 비정상적으로 어둡고 조용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워로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먼저 찾은 것은 워로드도 사용인도 아니었다.

어두운 복도에 드리운 빛줄기. 문틈으로부터 새어 나온 빛의 기둥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매니시의 걸음도 조심스러워졌다.

'페라'에서 본 첫 공연이 떠올랐다. 그녀가 마치 겁 없는 분홍 망토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다가가면 안 될 걸 알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은 피할 수 없었다.

매니시의 눈이 문틈에 딱 걸릴 때쯤이었다. 바닥에서부터 훑어 올라간 시선에 차례대로 여인의 치맛자락, 식당에서 본 잘 드는 나이프를 쥔 손, 창백한 얼굴에 떠오른 충혈된 눈동자가 담겼다.

공작부인은 울고 있었다. 핏발선 눈은 매니시를 향한 채.

그 충격적인 모습에 매니시가 굳어있는 사이 부인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좁은 문틈이 벌어졌다.

치켜든 손의 금속성이 발하는 차가운 빛이 확장된 동공을 향했다.

허억, 한 움큼 들이마신 숨과 함께 번쩍 뜨인 눈으로 천장이 보였다. 이틀간 익숙해진 그녀의 방 천장.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꿈? 달아오른 몸은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뜨거운 숨을 내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잠이 덜 깬 몽롱한 시선이 적의로 가득 찬 시선을 찾아 허공을 맴돌았다.

차츰 숨이 잦아들자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창밖으로 공작 부부의 실랑이를 목격하고, 그 순간 마주친 눈. 잊지 말라는 듯 심장이 뛰었다.

그 후에는 문만 바라보다 잠이 든 것 같았다. 그래, 상식적으로 부부싸움 좀 목격했다고 칼부터 들이대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평범한 부부싸움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이로써 모나쿠스 공작가에서 맞는 두 번째 아침이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러나 매니시는 어떤 확신이 들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공작가의 가장된 평화에 금이 가고 있었다.

이불을 끌어 올려 얼굴을 덮은 매니시가 중얼거렸다.

"나도 몰라..."

"뭘 모르는데?"

펄럭, 이불 끝을 잡아 내린 매니시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워로드가 보였다. 마치 동상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비비고 깜박이고, 별짓을 다 해도 그는 그대로였다. 으아! 벌떡 일어난 매니시가 소리쳤다.

"왜 여깄어요?"

자다 일어난 사람답게 참 자유분방한 목소리였다. 제 목소리에 놀라 얼굴이 빨개진 매니시가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일찍 깨서. 물 줄까?"

미소를 띤 그에게 매니시가 던진 인형이 날아들었다. 워로드는 그에게 닿기도 전에 힘을 잃고 떨어지는 인형을 마중 나가 받아냈다. 덕분에 그는 성큼 가까워져 있었다.

"당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그가 양손으로 돌고래의 귀여운 얼굴을 뭉그러뜨리며 웅얼거렸다. 허락을 기다리는 개처럼 숙인 고개가 안쓰럽기도 했다. 이불을 코까지 끌어올려 방패처럼 숨은 매니시가 조금 누그러든 태도로 타박했다.

"그렇다고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노크했는데? 들어오라고 했잖아."

돌고래의 앞발을 쥐고 허공을 노크한 워로드의 시선이 다시 그녀를 향했다. 마주친 눈동자는 티끌 하나 없이 맑았다.

"…제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워로드를 보며 매니시는 가끔 일어나면 태연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플럼을 떠올렸다. 그래도 덥석 믿을 수는 없지.

"거짓말."

"거짓말 아니고. 들어오라고 해놓고 안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한 손은 이불을 부여잡고 한 손은 머리를 쓸어내리느라 낑낑거리면서 매니시가 물었다.

"무슨 고민이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서 들려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디까지 허락된 건가… 하는. 그래도 착하게 저 끝에서만 기다렸어."

머리를 매만지던 작은 손이 그에게 붙잡혔다. 그는 붙잡은 손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하얀 머리칼 위로 제 손을 얹었다. 머리카락을 파고든 손가락이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살살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시끄러울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정적은 갑작스러웠다. 어색한 마음에 매니시는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이불을 한껏 끌어 올려 얼굴을 묻었다.

정수리에 닿는 시선이 뜨거워서 얼굴이 달아오르는지, 얼굴이 달아올라서 정수리가 뜨거운지. 발그레한 얼굴을 숨긴 매니시에게선 잔뜩 뭉그러진 소리가 들렸다.

"허락은 무슨…, 잘했어요. 자는 것도 봤어요?"

꼽사리 낀 작은 음성을 용케도 들은 그가 깔끔하게 대답했다.

"응."

얼마나? 글쎄, 생각 안 해 봤어. 생각해 볼 정도로 오래예요? 몇 시간 이상이면 오래인데?

"아니. 분이 아니라 시간인 것부터가… 아!"

그래, 지금이 달달할 때야? 두피로 전해오는 자극에 매니시는 급작스레 식는 기분을 느꼈다. 애초에 그가 자고 일어난 긴 머리를 잘 빗겨 줘도 식을 일이었겠지만.

머리카락에 걸린 손가락을 빼서 내팽개친 매니시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베개를 베고 말했다.

"에잇, 이미 늦었는데 나도 몰라요. 난 좀 더 뒹굴고 싶으니까 거기서 실컷 보든지 해요."

그리고 게슴츠레하게 뜬 눈으로 덧붙이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허락이에요.

"좋아."

그는 그것만으로 만족했는지 흔쾌히 대답했다. 매니시는 화장대 앞에 놓인 화려한 의자를 향하는 그를 눈으로 좇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해요?"

무거운 몸체 때문에 매니시가 고정된 의자처럼 사용했던 의자는 워로드의 손에 거뜬히 들려 침대 옆에 놓였다. 그에게는 조금 작아 보이는 의자였다.

"뭐 하고 놀까?"

"나야 모르죠. 벌써 여기 온 지 사흘짼데 비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단장님 집이니까 알아서 딱딱 데리고 다녀봐요."

"열다섯 이후로 나도 여기 안 살았는데."

쓸쓸한 얘기를 참 아무렇지 않게 하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묻지도 못하게.

그래서 매니시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의 사연 대신 추억을 물었다.

"그때는 뭐 하고 지냈는데요?"

"그냥 기사들이랑 대련하고,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아, 모래사장에서 승마하는 거 좋아했어. 형이랑."

그러고 보면, 매니시도 세상 사람들도 전쟁 영웅 이전의 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옛날얘기를 하며 미소짓는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편안해 보여서 매니시는 놓치고 있던 어떤 깨달음에 다다랐다.

그는 왜 하필 옛날얘기를 할 때만 그런 미소를 지을까?

왜 이 집에서 그는 그녀만큼이나 불편해 보이는 걸까, 꼭 남의 집에 온 사람처럼. 매니시는 옆구리 밑에 깔린 인형을 빼내 끌어안았다.

"형은… 단장님 가족은 어떤 분들이에요?"

조금 침묵하던 그는 뒤늦게 질문으로 답했다.

"혹시 어제 불편했어?"

"그냥 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아니더라도 그 냉담한 얼굴들은 긍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건 아니야. 평소에도 그러니까."

"평소에도요?"

"응. 내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론 쭉 이런 분위기였어."

인형이 매니시의 손안에서 짓눌리고 있었다. 워로드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문 매니시가 애틋해서, 그녀가 위로하기 전에 제 발로 일어나 외쳤다.

"뭐 할지 생각났어. 가자, 내 친구들 소개해줄게."

그래. 그의 친구라고 할 때부터 짐작했지만, 매니시는 연무장에 와 있었다.

캉!

금속의 통렬한 소리가 묵은 고민을 껴안고 저 멀리 날아갔다. 비를 막기 위해 마력으로 띄운 거대한 막도 그를 잡지는 못했다.

매니시는 한쪽에 놓인 벤치에 앉아 그 모든 감각을 누리고 있었다.

기운 마법막을 타고 흐른 빗물은 독특한 레이스 커튼처럼 방울방울 이어져 한 면에 드리워지고, 물기를 머금은 공기는 상쾌했다.

거기에 눈앞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벌이는 칼싸움까지.

캉, 캉!

마치 예술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용하던 그의 검술이 오늘따라 시끄러웠다. 그러고 보면 워로드가 누군가와 대련하는 모습 자체가 그녀에게는 처음이었으니까.

워로드가 튕겨낸 상대의 검이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일으켰다. 핏, 동시에 작은 돌조각이 매니시를 향해 날아들었다.

놀랄 새도 없었다. 탕, 질끈 감은 눈 위로 바람이 일었다.

"괜찮으십니까?"

낯선 목소리에 눈을 뜬 매니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놀란 워로드의 얼굴이었다. 본능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자 그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야 발견한 목소리의 주인은 목검을 늘어트린 중년의 기사였다. 그는 눈이 동그래진 채 워로드와 매니시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네, 덕분에 괜찮아요."

그의 정체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이나 차림새, 그의 놀라운 실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워로드의 두터운 신뢰가 무엇보다 확실한 증표였다.

그가 매니시의 옆에 서자 워로드의 움직임은 더 거칠어져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모나쿠스 기사단의…"

먼저 말을 꺼낸 매니시가 뒤를 흐리자 정신을 차린 그가 뒤를 이었다.

"단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가씨."

"반가워요. 단장."

익숙한 호칭 때문인지 워로드의 시선이 잠깐 그들을 향했다가 돌아갔다. 같은 단장이지만 그는 워로드보다 유연한 이인지 매니시가 내어준 자리에 자연스럽게 걸터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도련님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아직도 경이롭다는 듯 워로드를 바라보는 그가 한 말이었다. 쓰러진 상대가 태세를 가다듬길 기다리는 워로드의 얼굴이 확실히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그렇죠? 익숙한 곳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엄청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는 그녀의 목소리야말로 신이 난 듯 통통 튀고 있었다. 때문에 기사단장은 워로드를 향한 애정 어린 눈길을 보지 않아도 매니시의 애정을 헤아릴 수 있었다.

미소 띤 그의 얼굴에도 따듯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아니요. 그것보단 아가씨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종전 이후 저런 도련님은 처음이거든요. 어릴 때는 종종 저런 표정을 지으셨지만 말입니다."

그의 칭찬이 나쁘지 않은 듯 매니시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떠올랐다. 그는 또다시 그들에게 날아드는 돌을 쳐내며 말을 이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전쟁은 도련님의 영혼에도 많은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선대 공작 각하의 명으로 도련님을 보호하며 그 과정을 옆에서 모두 지켜봤죠."

매니시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녀가 아니라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열다섯은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열다섯? 열여덟 살에 출정하신 거 아닌가요? 사령관으로."

"열다섯 살입니다. 평기사로 출정해 성인이 되자마자 사령관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린 게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갑자기 끼어든 목소리는 젊은 남자의 것이었다. 중년의 기사단장은 익숙한 듯 그를 무시했지만,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린 매니시는 젊은 기사의 찌푸려진 미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들보다 빨리 배운 만큼 더 잘하니까요. 그것이 설령 살인이라 해도."

께름칙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가 반갑지 않은 것은 매니시뿐이 아닌지 단장에게선 날카로운 음성이 돌아왔다.

"비번인데 왜 나왔나?"

"영웅인 도련님께서 오셨다길래 저도 한 수 배우려고 왔습니다."

젊은 기사의 얼굴에는 승부욕과 미미한 적의가 뒤섞여 떠올라 있었다. 이어진 도발에도 그의 감정이 드러났다.

"그런데 여자나 데려와서 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규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딱. 매니시가 그를 째려보는 것보다 단장의 주먹이 빨랐다. 기사는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진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아!"

"시답지 않은 소리. 도련님은 우리가 모시는 분이지 네 동료나 내 부하가 아니다. 알았으면 그만 가."

꺄!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린 것은 그때였다. 저 끝에 주저앉은 하녀가 소리의 근원인 것 같았다. 문제라면 그 앞에 선 워로드였다.

"저 자식이!"

기사들이라 그런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흥분에 찬 기사는 벌떡 일어나 워로드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뒤늦게 일어난 단장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외쳤다.

"안 돼!"

하지만 어리석은 기사의 손은 이미 워로드의 멱살을 쥐고 있었다.

"이 여자한테 무슨 짓 했어!"

하녀가 떨어트린 쟁반에 깨진 주전자와 컵 조각을 대신 주워 담던 남자가 일어나 기사를 말렸다.

"막내 너 왜 그래. 도련님이랑 나는 그냥 물 마시면서 잠깐 쉬려고 한 거뿐이야."

"근데 왜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있습니까?"

젊은 기사의 삿대질을 당한 하녀는 커다랗게 뜬 눈을 불안하게 흔들고 있었다. 놀란 얼굴이 무슨 짓을 당한 것 같기도, 제 실수에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그거야 실수로 쟁반을 떨어뜨리고는 놀라서 그랬겠지. 그렇지?"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과 워로드의 시선이 동시에 하녀를 향했다. 어깨를 움츠린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썩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다.

덕분에 그들의 실랑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왜들 저러는 거죠?"

멀리서 그를 본 매니시가 묻자 두꺼운 손에 얼굴을 묻고 있던 기사단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강인해 보이는 눈동자 위로 속눈썹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 영지를 떠도는 공포 때문입니다."

"공포..."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챙기는 하녀가 보였다. 아까부터 말이 없는 워로드와 그를 등진 하녀, 어디에서 파생된 공포인지 뻔히 눈에 보이는 구도였다.

"모나쿠스는 제국에서 가장 많은 병사가 차출된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빠져나갔던 장정들이 우르르 돌아온 후로는 가장 많은 퇴역병이 사는 땅이 되었고요."

모나쿠스로 오는 마차에서 내내 영지민들을 바라보던 워로드가 떠올랐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그녀만큼이나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퇴역병들도 상처 입은 자들일 뿐이니 원망할 순 없겠지만, 도련님에 대한 공포를 몰고 온 건 그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했죠. 당시…"

워로드가 처음 통솔권을 쥔 전장은 패색이 짙은 곳이었다. 밀고 내려오는 크로쿠타의 군세에 비해 부족한 지원, 지친 병사들,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들도 직감한 것일 터였다. 그들이 바라던 물자와 병력이 적군을 앞에 둔 그들 대신 다른 작전지로 향한 이유를.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단장의 목소리는 침중했다. 매니시의 의아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대승을 거뒀잖아요."

누구보다 매니시가 잘 아는 일이었다. 바로 그 전장이 레우카스의 경계였기 때문이었다.

"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군을 하나로 모은 도련님을 제하고서는요."

매니시와 시선을 맞춘 그의 눈동자 속엔 그날의 워로드가 있었다. 아군의 피를 뒤집어쓴 채 칼을 늘어뜨린 그.

'목이 잘릴 날만 기다리는 꼴들이 우습군.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더 나와라!'

온전치 않은 시체를 밟고 선 그가 바로 모나쿠스를 떠도는 공포의 형상이었다.

"퇴역병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큼은 도련님의 이름이 영웅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놈처럼 도련님과 아무 접점 없는 이들이 늘어난다 해도, 그는 증오스러운 사신의 이름일 뿐이죠."

그날의 기억을 지워낸 깨끗한 시선이 매니시를 시험하듯 곧게 마주쳐 왔다. 그녀도 이 뿌리 없는 원한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그럼 선대 공작께서 마을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그러나 매니시의 반응은 그의 어떤 예상과도 달랐다. 그녀는 멀끔한 얼굴로 워로드를 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여간 아들 걱정에 노심초사인 건 세월이 흘러도 변하시질 않는군요. 여전히 티는 안 나시지만요."

"좋은 아버지네요."

속에서 휘몰아치는 수많은 감정을 이기고 매니시의 얼굴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안도의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발견한 기사단장의 눈이 커졌다.

매니시가 발을 뗐다.

"하여간 남자들은 순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사들의 실랑이에 끼지도, 빠지지도 못하고 선 하녀에게 묻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매니시는 그 시선들은 아랑곳 않고 어색하게 서 있는 하녀의 어깨를 돌렸다.

괜찮으니 새로 가지고 와요, 작게 속삭이며 등을 밀자 무거운 걸음이 차츰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용히 멀어지는 등을 지켜보던 매니시가 돌아서서 말했다.

"그러지 말고 해보는 건 어때요?"

어느새 당사자들은 두고 서로 멱살을 쥐고 있던 기사들과 매니시의 시선이 마주쳤다. 떨쳐내듯 상대의 멱살을 놓은 그들 중 대답을 한 것은 워로드의 대련 상대였다.

"예?"

그러나 매니시의 시선은 막내 기사에게 향해 있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졌다.

"한 수 배우러 왔다는데 괜찮으면 좀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하는 소리지? 가까이 다가온 기사단장을 포함해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매니시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그였다. 모나쿠스의 사신 워로드 루푸스.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매니시의 입가에 맺힌 것은 깊은 신뢰가 담긴 미소였다. 굳어있던 워로드의 얼굴에도 금이 갔다. 입가로부터 시작된 기분 좋은 실금이었다.

"좋아."

"지금 사람 옆에 두고 뭐 하는, 우악!"

워로드에게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막내 기사를 바라보며 기사단장이 그녀의 옆에 섰다. 저쪽에서 새 쟁반을 들고나오는 하녀가 보였다.

"제가 틀렸군요. 도련님을 위해 화를 내든지 가여워하든지 그보다 최선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더 좋은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화났어요."

매니시의 대답은 단장의 목소리처럼 작지 않았다. 애초에 그가 못 들었을 리 없었다. 매니시는 워로드의 귀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다.

언제고,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허투루 들을 리 없다는 것도.

"예?"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고 어떻게 가엽지 않을 수 있겠어요. 화도 나고 그도 가여워요. 마음 같아선 끌어안고 지켜주고 싶지만, 그런 건 저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도 잘 알죠. 그도 그럴 게, 영웅이잖아요."

매니시의 말이 맞았다. 대련은 워로드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가 지켜낸 사람을 수두룩하게 알고 있어요. 고향 레우카스의 친구들, 수도로 올라오며 마주친 인연들,"

그도 알길 바랐다. 그를 미워하는 이들도 알길 바랐다.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기사단장을 두고 매니시의 고개가 돌아갔다.

캉! 워로드가 휘두른 검이 막내 기사의 검을 하늘 높이 쳐올렸다. 소리와 함께 매니시와 하녀의 시선도 부딪쳤다.

"이 작은 세상을 벗어나면 그에게 감사하는 이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냉정한 말이지만, 투정도 원망도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가 살려준 목숨으로 원망밖에 할 줄 모른다면 제가 화를 내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울 날이 올 거라 믿어요."

막내 기사의 검은 빙글빙글 돌아 마법막에 상처를 내고 바닥에 꽂혔다. 마법장막의 꼭짓점에 떠 있던 매개물 네 개가 연달아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녀의 얼굴에 붉은 물이 퍼진 것은 그 순간이었다.

"저, 전..."

"그게 아니라면 난 그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화낼 자격이 없어요. 그가 거둔 목숨은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살아있는 우리 책임."

빗물은 하녀의 눈가에 유독 많이 고여 있었다. 심술을 너무 많이 부렸는지도 몰랐다. 쓰러진 막내 기사도, 검을 늘어뜨린 워로드도, 얼굴이 붉어진 하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정적을 깬 것은 대련 상대를 뺏겨 쉬고 있던 기사였다. 그는 한쪽에 쌓여있던 깨끗한 수건 더미를 들고 오는 중이었다.

"비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계속 맞고 계시면 체온이 떨어지십니다."

자연스럽게 단장을 지나친 기사가 제일 처음 멈춰선 곳은 매니시의 앞이었다. 헛웃음을 지은 단장은 그를 살짝 흘기고 입을 열었다.

"모나쿠스 사람들 주변엔 어째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지."

매니시에게 웃어 보인 기사가 덧붙였다.

"모시는 사람 입장엔 이보다 좋을 수 없죠."

그는 매니시가 수건을 한 장 받아들자 단장에게 한 장을 던지곤 워로드를 향했다. 한층 나지막해진 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황족인 큰 부인께서도 가발 쓴 도련님이랑 다를 바 없는 마당에 이제 더 놀랄 것도 없겠지."

풋! 갑자기 튀어나온 소리는 매니시의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빗방울을 정면으로 맞으며 누워있는 막내 기사에게서 난 소리였다. 그의 얼굴 위로 수건을 던지는 기사가 보였다.

떨어지는 빗방울이 정말 모처럼 유쾌해서, 매니시도 한마디 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게요. 비슷한 사람들만 모였네요. 친구끼리는 원래 닮는다지만."

얼굴에서 수건을 치운 막내 기사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단장과 다른 기사의 시선도.

매니시의 투정 부리는 말투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다가오는 워로드에게 향했다.

"친구 소개해준다더니 잘 놀았어요? 우린 벌써 알아서 인사 나눴어요."

마주 보는 남녀의 입가에는 꼭 닮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입술을 삐죽이던 막내 기사는 수건을 다시 끌어 올려 제 얼굴을 덮었다. 붉어진 눈가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여기까지가 단장님한테 못했던 말들이에요."

화이트럼의 정체, 모나쿠스와 얽힌 원한, 마침내 마지막 말까지 늘어놓은 매니시는 차마 그의 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얼마 못 가 찢어진 땅끝은 바다와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선 곳이 공작성의 명물, 후원으로 통하는 해안 절벽이었기 때문이었다. 절벽을 기어오른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간질이는 통에 매니시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빨리 얘기 못 해서 미안해요."

그를 위해서 참고 기다린 일이었지만, 막상 뱉고 보니 정말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 그녀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본 탓일까, 그도 아니면 절벽 아래 보이는 홀로 선 인영 때문일까.

해변에 선 외로운 그림자가 마치 워로드의 마음 같아서 매니시는 저가 어디쯤 서 있을지 헤아려 보았다. 고민할 시간에 다 털어놓고 그의 옆에 있어 줄걸, 후회하는 마음 위로 그의 대답이 들렸다.

"아쉽지만 휴가는 이걸로 끝내야겠어. 지금부터, 코로네 남작 부인의 죽음을 재조사해야 할 테니까."

그는 고개를 돌려 공작성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옆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매니시는 그에게 물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

그는 속에 있는 많은 말 대신 단 한마디로 말을 맺었다.

매니시는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바닥에 두고 그의 우산 밑으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 우산이 그녀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자 심각한 분위기에도 웃음이 나왔다.

"이미 내가 많이 의심해 봤는데, 상황은 꽤 긍정적이에요."

적어도 선대 공작 부부에 대한 의심은 좀 풀렸으니까. 그러나 아직 현 공작 부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비 오는 밤 그들의 실랑이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러니까 당신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해요."

의심은 내가 할 테니, 뒷말을 가슴에 담은 매니시가 두 팔을 벌렸다.

"안아줄게요. 그러고 나면 우리 단장님이 돼줘요."

"좋아."

대답과 동시에 단단한 팔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한결 그다운 대답에 만족스러운 숨이 품 안에 흩어졌다. 위로를 건네려고 벌린 팔이 오히려 한가득 위로를 끌어안은 기분이었다.

오른뺨을 그에게 기댄 채 다시 내려다본 해변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다리던 이가 있었는지 달려온 이와 나란히 선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게 보이지 않았다.

'4층에 잘 안 쓰는 서재가 있으니까 거기 먼저 가서 기다려. 난 3년 전 경비 기록을 찾아올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한 몸처럼 붙어있던 몸이 떨어졌을 때 그는 수사단장의 얼굴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

"서재 찾기부터 시작될 줄이야..."

매니시의 작은 음성이 조용한 복도를 울렸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그녀의 혼잣말에 시끄럽게 반응하는 것 외에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가 서 있는 공작성의 4층은.

그러나 정적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가구와 돌벽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이었다. 매니시는 움츠러든 몸을 떨며 워로드의 설명을 떠올렸다.

"하얀색으로 된 두 짝 문을 찾으라고 했지? 두 짝 문이라, 두 짝 문은 이거 하나뿐인데."

눈을 씻고 봐도 이 이상 설명에 부합하는 서재는 보이지 않았다. 비록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의 문이지만, 4층의 유일한 두 짝 문이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강아지처럼 세 걸음 정도 되는 문 앞을 서성이던 매니시는 결국 헛웃음과 함께 멈춰 섰다.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걱정도 따라붙었다.

"우리 단장님,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르는데 경비 기록은 잘 찾아오시려나..."

생각해보면 귀족가의 장식은 해마다, 때론 계절마다 바뀌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처럼 무심한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매니시는 그가 경비 기록을 찾아 돌아오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며 문을 밀어젖혔다. 관리가 잘 되었는지 묵직한 문은 바닥을 쓰는 소리만 내며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스으윽, 그러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공기가 맞아주리란 예상은 보기 좋게 깨져나갔다.

선객의 또렷한 눈동자가 매니시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나쿠스 부인?"

잘 안 쓰는 서재라면서요, 단장님! 매니시는 당사자에게 들리지 않을 원망을 곱씹으며 서재를 살폈다.

이삿짐이라도 싸는 것처럼 쌓여있는 책과 책상 위에 늘어진 포장 도구들, 열려있는 상자, 기대하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당황한 그녀가 돌아나갈 생각으로 사과의 말을 꺼낼 때였다.

"죄송해요,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뒤로 감춘 부인의 팔이 유독 눈에 띈 것은.

"그런데 여기서 뭐 하세요?"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에도 모나쿠스 부인은 눈을 깜박이는 것 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 톨의 변화도 없는 얼굴이 어쩐지 최선을 다해 놀라는 것 같다고 매니시는 생각했다.

그걸 알고도 그대로 서재에 발을 들인 것은 그러니까, 변덕 같은 것이었다. 그 놀란 표정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것과 닮은 까닭에 부리는 변덕.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평소라면 하지 않을 무례한 참견과 함께 고개를 길게 뺀 매니시가 다가갔다. 모나쿠스 부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툭, 근처에 놓여있던 상자와 부인의 뒤꿈치와 부딪쳤다. 상자는 아주 짧은 순간 위태롭게 흔들렸고,

"어!"

털썩, 우르르

한쪽으로 넘어갔다. 매니시의 손가락을 따라 불길한 소리의 근원지를 돌아본 부인이 마주한 것은 쓰러진 상자와 내용물이었다.

아마도, 지금껏 부인이 뒤로 감추고 있던 것과 같은 것들.

매니시에게 익숙한 두께의 사각형 꾸러미, 무엇보다 하얗게 펼쳐진 속살은 누가 봐도 책이었다. 펄럭, 종이 넘어가는 소리에 먼저 정신을 차린 매니시가 발을 내디뎠다.

"저도 같이 치울게요."

"됐어요!"

단호한 거절이 허용한 것은 한 걸음뿐이었다. 딱 한 걸음,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부인의 거절 때문이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거절의 손짓 때문이랄까.

툭, 툭, 툭, 툭…

부인의 손이 책상 위에 세워둔 봉투를 살짝 치자 나란히 선 봉투가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어 쓰러지기가 끝난 것은 책상 끝에 선 마지막 봉투가 쓰러질 때였다.

허공으로 쓰러진 봉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때.

쿵! 털퍽

이번에도 역시 내용물이 튀어나왔다. 바로 매니시의 발 근처로. 리본으로 묶인,

"'만찬'?"

이 뜻밖의 만남에 매니시가 조용히 읊조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재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익숙한 사고 후의 침묵이었다.

과연 모나쿠스 부인은 가발 쓴 워로드라는 말에 부족함이 없달까.

"나 좀… 도와줄래요?"

머쓱한 얼굴도 얼마나 닮았는지, 오늘에야 알아버린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제멋대로 꿈틀거리는 입술 사이로 씩씩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네!"

매니시는 부인과 함께 쓰러진 것들을 세우며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 다른 책들도 섞여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그녀의 책이었다.

"내가 이런 책을 읽는다니 이상한가요?"

부인은 리본으로 묶인 책을 집어 들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런 책의 저자가 된 매니시는 기분이 이상해져서 봉투의 입구를 벌렸다. 쑥 들어오는 책을 보며 매니시는 질문으로 답했다.

"이런 책이 어떤… 책일까요?"

"보수적인 귀족들은 펼쳐보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릴만한 책이죠. 꽉 막힌 나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란히 선 모나쿠스 부인은 바닥에 쏟아졌던 '만찬' 2부를 손으로 털어 리본으로 예쁘게 묶고 있었다. 입으로 뱉어내는 말과 다르게 섬세한 손길이었다.

싹둑, 매니시가 옆에 있던 가위로 리본 매듭에 맞춰 적당한 꼬리를 만들어주자 다정한 눈빛이 그녀를 훑고 지나갔다.

곱게 포장된 책들은 새로운 봉투에 넣어져 책상 위를 차지했다. 새로운 '만찬' 한 권을 또 책상에 올린 모나쿠스 부인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후원하는 집들에 보내는 책이에요. 나도 이런 책들을 읽고 자랐으면 어땠을까 가끔 상상하곤 하거든요."

태어나보니 황제의 딸이라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어쩌면 화려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허락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후계를 기다리던 황제가 십 년 만에 안은 장녀, 그것이 모나쿠스 부인이었다.

책을 감싸기 위해 길게 푼 리본처럼 그녀는 엉켜있는 기억을 더듬어 매니시 앞에 풀어내고 있었다.

"여자 소설가라니, 내가 어릴 땐 상상도 못 할 일이었죠."

현 황제는 가족 사랑이 지극한 이였다. 특히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제국인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다.

그중에서도 몇 년 전 사멸된 코르셋 문화는 제국 여인들이 황제를 칭송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모나쿠스 부인이 태어났을 적만 해도 코르셋을 벗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추태에 가까웠다.

"난 늘 이유도 모르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현 황제께서 나시고 그 죄책감은 덜 수 있었지만, 이후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었어요."

처음 제 입장을 깨달은 것은 8살 즈음이었다. 그녀가 누나라는 호칭에 퍽 감화되었을 무렵, 남동생과 그녀는 둘도 없는 남매였다. 그녀는 동생을 아꼈고 동생은 그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따라 해 제 애정을 증명했다.

나쁘지 않았다. 어른들이 죽고 못 사는 아이의 애정을 오롯이 받는 기분은.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애가 그녀가 들고 있던 것을 탐냈던가.

'이 욕심쟁이, 넌 글도 쓸 줄 모르잖아. 이건 누나 거야!'

그건 그냥 흔한 깃펜이었다. 그러나 남동생이 원한 것은 누나의 손에 있는 깃펜이었고, 어린 그녀는 그것을 지킬 수 없었다.

어른들은 당연한 듯 그녀의 손에서 깃펜을 뺏어갔다. 생애 최초의 상실감.

그것은 양보가 아니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일 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제가 욕심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날 깨달았다.

"제국과 폐하를 위해 사셨군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불만은 없었다. 아니, 미처 깨달을 틈이 없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게다가 그와 제국을 위해 맺은 인연은 그녀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을 선사했다. 가족.

'부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전쟁이 더 길어지면 조만간 추가 징집과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만한 대외용 인사가 불려갈 텐데, 아마 제일 먼저…'

그러나 소중한 것을 뒤흔든 것도 제국이었다.

"황실에 성년이 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내 아들을 전쟁에 보낼 때도, 다른 귀족가의 참전을 이끌려면 내가 먼저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제 손으로 몸이 약한 장남을 사지로 내몰 준비를 하며, 그녀의 마음에는 8살 이후 처음으로 의혹이 싹텄다. 둔한 그녀는 그마저도 형 대신 싸우겠다 나선 어린 아들을 배웅하며 깨달았지만.

"아들은 다 자라서 돌아왔어요. 키도 얼굴도 목소리도 눈빛도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 내게 그 애를 반길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회는 그때 고개를 들었다. 낯설고 지친 아들의 눈동자 속에서.

"이런 어미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돌아온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평생을 황녀로 살 줄만 알았지, 그 애 엄마로 산 적은 없는데."

매니시는 매듭을 짓고 기다리는 부인도 잊고 그녀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제국에서 고귀하기로 손에 꼽을만한 부인이 뒷골목에서나 볼 법한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그냥, 가족이니까."

"아니요. 굳이 부족한 내가 아니라도 그 애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 줄 사람이 생겼으니 됐어요. 이제 와 아픈 곳을 헤집고 싶지도 않고, …자."

그러고는 스스로 리본을 자른 부인이 마지막으로 포장하고 있던 책을 매니시에게 건넸다. 얼떨결에 그걸 받아든 매니시의 표정은 또 한 번 이상해졌다.

"이걸 왜 저한테?"

"선물이에요. 보다시피 엄청 많거든."

깊은 이야기가 오간 탓일까, 부인의 말투나 표정은 놀랍도록 편해져 있었다. 이 과정도 워로드와 꼭 닮은 느낌이라 매니시는 배어 나오는 미소를 숨기고 대답했다.

"그러게요. 아무리 후원이라지만 너무 많지 않나요? 유독 '만찬'만."

손에 든 것도 '만찬'이었다. 매니시는 이로써 아무 작가나 이루지 못할 쾌거를 연달아 달성한 격이 되었다. 제 소설을 제 손으로 스포일러 하질 않나, 선물 받질 않나.

"좋아하세요? 이 책."

"좋아하죠. 그런데 책도 좋아하지만, 이 책을 쓴 아가씨를 더 좋아해요."

흡, 콜록콜록! 급하게 입을 틀어막은 매니시는 자기 침에도 사레가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중이었다. 격렬한 기침 소리에 모나쿠스 부인의 손이 매니시의 등에 닿았다.

토닥이며 쓸어내리는 손이 생각보다 작고 따뜻했다.

"괜찮아요? 혹시… '아가씨'라는 게 신경 쓰여서 그래요?"

부인이 입을 열 때마다 첩첩산중이었다. 당황한 매니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침 사이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어진 부인의 말은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콜록콜록, 흡, 네? 콜록, 그게 무슨!"

"마리티무스 영애 말이에요."

별안간 튀어나온 이름이었다. 매니시가 목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부인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영애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할 텐데. 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녀에겐 정말 작가로서의 호감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아."

글램이 '아가씨'라는 것이 최근 사교계의 정설이라는 사실이 떠오르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깨달음의 탄성을 오해한 모나쿠스 부인은 조금 초조해 보였다.

"소문은 부풀려진 거예요. 마리티무스는 전쟁 중에 워로드의 승리로 덕을 본 영지인 데다가 여전히 살기 좋은 곳이니까, 워로드에게 그보다 좋은 혼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소문에 대해 입을 다문 탓이었죠."

"부풀려진 거라면, 어떤 식으로요?"

"장담하건대, 두 사람 사이엔 그 어떤 약속도 없었어요. 모나쿠스와 마리티무스 사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리티무스의 조건이나 '아가씨'에 대한 제 개인적인 호감으로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드는 혼처가 생겼으니까요."

부인의 손이 매니시의 손을 덮었다. 움켜쥔 손뿐만 아니라 시선이나 목소리도 한 자 한 자 새겨넣듯이 또렷했다.

"내 아들을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모나쿠스가 원하는 가장 훌륭한 조건이거든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지금도 충분하다고 얘기해도 부담스럽겠죠. 대신이라기엔 뭐하지만, 그 애 옆에서 아가씨도 행복하게 살아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꿈, 바라는 일 모두 해 가며. 모나쿠스는 언제나 아가씨 뒤에 서 있을 테니까."

달콤한 약속을 하는 것마저 그와 닮은, 그의 어머니. 매니시는 기분 좋은 심장의 울림을 거스르지 않고 물었다.

"부인은요? 바라는 일 없으세요?"

옅은 미소와 함께 손을 놓은 부인은 이런 화두 자체가 낯선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야 아들 걱정도 덜었고 열정적으로 살 나이도 지났잖아요.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 누구에게나 꿈꿀 자격쯤은 있는 세상이 오기를,"

부드러운 손으로 봉투를 쓸어내리는 부인을 보노라면 그녀가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테였다. 매니시는 마른입을 다시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 세상은 보고 눈 감는 게 남은 바람이라면 바람이죠."

말을 마친 부인은 책상 위에 나란히 선 봉투를 한 움큼씩 끌어안아 바닥의 빈 상자를 채워나갔다. 허리를 숙인 부인 뒤로 가려져 있던 벽 거울이 매니시의 눈에 띄었다.

"그 책이 할 수 있을까요?"

거울은 매니시가 들어온 서재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미처 닫지 못한 초록색 문이 복도의 우중충한 기운에 젖어 빛났다.

"아마도? 적어도 한 사람은 분명히 해냈잖아요. 작가 본인은. 난 마리티무스 영애를 잘 모르지만 그녀의 용기를 존경해요. 이 책이 이렇게 많은 것도 실은 후원보다도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였죠."

존경이라, 글램에게 주기는 아까운 마음이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의 마음만큼은. 매니시는 보기 좋게 달아오른 얼굴도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힘이 됐어요."

"응?"

씩 웃은 매니시는 한 걸음 움직여 거울 속 초록 문 너머가 더 깊이 보이는 자리로 옮겨 섰다. 검은 구두코가 보였다.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부인이 진짜 바라는 거요."

"포장 도와준 거로도 충분해요."

실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일어난 부인이 말했다. 그러나 매니시는 그녀의 대답에 아랑곳없이 검은 구두코를 보며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저한테 맡기지 말고 용기를 내시면 안 될까요? 단장님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방법을 몰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그의 구두코를 적셨던 흙탕물은 서재의 훈기에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 하얀 자국이 이상하게 눈에 박혀 코가 시렸다. 그래서 매니시는 두렵다는 듯 물러서는 모나쿠스 부인을 붙잡았다.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뜬금없는 물음에 부인의 눈썹이 들썩였다. 매니시가 말하는 소설이란 물론 그녀가 든 '만찬'이었다. 마지막 권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책.

부인에게서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매니시였기에 말은 금방 이어졌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주인공의 마지막에 대해. 실제 역사에서 차용된 이야기

"여주인공은 영지전을 지휘할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 신전의 도움을 받아요. 그들이 식량 지원 행렬에 끼어 전장의 한가운데 선 것은 굶주린 성탄일의 밤이었죠."

모나쿠스 부인은 홀린 듯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매니시의 이야기가 2부의 마지막을 훌쩍 넘어 뻗어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낸 것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한 병사의 용기였죠. 자기 진영에만 돌아온 빵을 적진의 어린 병사에게 나누어준 용기. 그거면 끝이죠, 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가장 쉬운 화해 법이잖아요?"

"무슨 소리죠? 영애가 그런 걸 어떻게…"

그 순간 모나쿠스 부인의 눈에 비를 맞아 유난히 구불거리는 매니시의 머리칼이 들어왔다. 마치 소문의 '아가씨'처럼 하얀 머리칼의 영애는 당당하게 웃고 있었다.

"다행히 만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부인."

툭, 와르르르… 기껏 채운 상자를 또 쓰러뜨린 모나쿠스 부인은 책을 주울 생각도 못 하고 한참,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달그락 달그락

모나쿠스 부인은 기름 낀 나이프에 시선을 고정하고 무거운 입을 뗐다. 식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속으로 수십 번은 외운 말이었다.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좋죠, 대화를 시작할 땐.'

그러나 부인의 입은 풀칠이라도 한 듯 자꾸만 붙어버렸다. 공백이 길어지자 워로드의 대답이 먼저 돌아왔다.

"…좋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질문을 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초롱초롱한 매니시의 눈을 피한 워로드는 잘게 썬 고기를 입에 물었다. 실망으로 물든 매니시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의 예상대로 매니시의 얼굴이 불퉁해지고 있었다. 어제 저녁 식사에 이어 오늘도 이 모양이라니.

"매니시 양, 입맛에 안 맞나요?"

"소스가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아니, 이미 묻어있으니까 아예 새로 가져오는 게 낫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식이었다. 서로를 향해선 한마디도 잘 못 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끼면 말이 많아졌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괜찮겠어요? 사양하지 않아도 돼요. 매니시 양이 건강한 게 중요하니까."

쨍그랑

"아, 죄송해요. 실수로 그만..."

포크를 떨어뜨린 사람은 공작부인이었다. 그녀에게 새 포크를 건넨 하녀는 자연스럽게 행주도 꺼내 들었다. 선대 공작이 흘린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어제저녁을 기점으로 반복된 작업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었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하녀인 그녀도 흠칫흠칫 놀라는 중인데 가족들의 기분은 어떨까.

"오늘도 서재에서 시간을 보낼 거면 간식을 좀 챙겨가렴. 책을 오래 보면 단 게 당기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큰 부인이라니, 너무너무 이상했다.

"이미 주방에 부탁해놨습니다."

모나쿠스 부인은 뿌듯한 얼굴로 대답하는 둘째 아들을 기특하다는 듯 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종류의 유대감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유대감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매니시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렇게라도 대화를 하니 다행인 건가..."

옆에서 그녀의 혼잣말을 들은 공작부인은 식탁 위에 흐르는 들뜬 기류를 훑었다. 모나쿠스에 찾아온 폭풍우처럼 거세고 급한 기류가 공작가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공작부인은 그 변화의 틈에서 저 혼자 고요한 태풍의 눈을 조용한 시선으로 지켜봤다. 한숨 끝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소짓는 매니시가 보였다. 여느 때 같지 않은 식사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펄럭, 오물오물, 펄럭

"아직 배고프세요? 그러게 모처럼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좀 가지시라니까요."

서재에서 일지를 넘기던 매니시가 산처럼 쌓인 마카롱을 마수처럼 처리해나가는 워로드에게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워로드를 붙잡았던 공작부인이 떠올랐다.

'도련님, 가족끼리 티타임 어떠세요?'

그 말을 반긴 것은 저와 선대 공작뿐으로, 어쩐 일인지 그렇게 죽이 잘 맞던 워로드와 모나쿠스 부인은 별 흥미가 없어 보였다. 펄럭, 워로드가 보던 일지가 한 장 넘어갔다.

"실은 어제 어머니와 술 한잔했어."

"정말요?"

"응."

3년 전 경비 기록을 살피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사들이란 다 그런 것인지 일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명료했고, 몇 번 설레발을 친 후에야 기록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덕분에 그들은 도로 내쫓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걸리는 내용은 방문 기록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해야 했다.

"잘하셨네요!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펄럭, 한 장 넘긴 매니시는 기쁜 얼굴로 일지에서 눈을 뗐다. 워로드는 그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에서 어젯밤 마신 와인을 떠올렸다. 둥그런 잔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던 검붉은 와인, 향긋한 내음이 다시 한번 코를 맴도는 것 같았다.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겠니?'

결혼이라니, 생각도 못 한 일이었다. 이렇게 눈앞에 그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경이롭고 충만한 기분일진대...

"그냥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나른하게 얼굴을 괸 워로드는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매니시를 빤히 바라봤다. 어느새 한 입 베어 문 마카롱을 든 그녀가 순진한 눈매를 휘며 웃고 있었다.

그 얼굴에 감히 매니시 루푸스라는 이름을 떠올려본 그에게 매니시가 대답했다.

"벌써 그렇게나 진전됐어요? 잘 됐다. 부인도 많이 좋아하시죠?"

'내가 보기에 이보다 좋은 혼처는 없을 것 같은데, 질질 끌다가 놓치면 어쩌려구.'

"응. 나만큼이나 좋아하는 것 같아. 놓칠까 봐 불안해하던데."

"당연히 그렇겠죠. 귀여운 막내를 되찾을 기회니 놓칠까 봐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단장님이 더 잘해서 안심시켜 드리세요."

"어떻게 더 잘해야 하는데?"

"그거야 대화도 자주 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그러는 수밖에 없죠. 별다른 게 있겠어요?"

"그건 지금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좀 더 제도적인 결실을 보는 게…"

결혼이라든가. 마카롱 접시에 남은 하얀색과 홍차색 마카롱을 차마 건드리지 못한 그가 속으로만 생각할 때였다. 매니시의 불호령 같은 것이 날아든 것은.

"단장님!"

"아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한 번 생각을…"

"이거 보시라니까요!"

"응?"

마카롱 접시를 밀친 매니시가 그의 앞에 놓은 것은 펼쳐진 책 두 권이었다. 경비 기록부와 방문 기록부.

그는 매니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로 같은 날짜의 경비 기록과 방문 기록의 일부를 눈으로 훑었다.

신원미상의 귀부인(흑발, 마른 체형) 접견 신청.

방문자 없음.

"이날 맞는 것 같죠? 정말 오긴 했나 봐요."

그런데 시간대가 이상했다. 이른 오전, 하녀들이 슬금슬금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주인들이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

문전박대를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간이었다.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고는.

페이지의 하단에 기록된 근무조를 확인한 워로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래, 확인해봐야겠어."

"꺅."

"조심해."

휘청이는 매니시의 뒤로 워로드의 팔이 둘렸다. 그는 아예 제 우산을 접어 던지고는 매니시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 손잡이를 쥐었다.

"고마워요."

정문으로 가는 짧은 길 사이 몇 번이고 휘청이던 매니시 때문이었다.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정문으로 향하는 이유는 일지를 작성한 기사를 찾기 위해서였다. 먼저 들린 당직실에서 그의 행방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녀석이라면 지금 정문 경비를 설 시간입니다. 급한 일이시면 불러드릴까요?'

당직실에서 정문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의 호의가 아쉬워졌다. 다행인 것은 거친 빗줄기 사이로 기사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매니시는 워로드 덕에 가벼워진 손으로 날뛰는 머리채를 움켜잡고 외쳤다.

"여기선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매니시의 생각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가 비바람 속에서도 아주 잘 들렸는지, 기사는 이미 그들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다.

기사가 갖춘 비옷도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를 막기엔 역부족인 듯 무척 지친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이 매니시를 지나쳐 워로드에게 닿는 순간 인상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경악으로 치뜬 눈과 그 속에서 기민하게 굴러가는 눈동자를 채 따라가기도 전에 남은 걸음을 재촉한 기사가 코앞에 서 있었다. 매니시는 그의 뒤로 어른거리는 인영 몇을 본 것 같았다.

"여,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도련님."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움찔대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시야를 가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움직임이었다. 워로드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얼쩡거리는 기사를 팔로 걷어낸 워로드가 말했다.

"형님이 왜 여기 계시지?"

그림자의 정체는 워로드의 입을 통해 바로 밝혀졌다. 입술을 깨문 기사가 커다란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형님…?"

매니시는 워로드를 따라 정면으로 눈을 굴렸다. 어둡고 흔들리는 시야에 저절로 눈이 찌푸려졌다. 한 뭉치처럼 서 있는 그림자… 두 개.

형님이라면 그였다. 비 오는 밤 정원에서 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자.

그녀는 걸음을 내딛는 워로드를 따라 그림자에 다가갔다. 점점 일그러지는 워로드의 표정, 비를 막아줄 어떤 우비도 없이 서 있는 두 사람, 매니시는 거친 바람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공작은 빗소리에 숨어 다가오는 그들을 모르고 여전히 감정에 취해 말하고 있었다.

"…안합니다. 미안해요. 보상이든 사과든 얼마든지 할 테니 제발 그만둬, 제발."

헛숨을 들이키는 소리는 매니시의 것이었다. 매니시는 머리카락이 날려 뒤엉키든 말든 두 손으로 입을 꼭 틀어막아야 했다.

공작에게 가려있던 인영을 발견한 탓이었다. 악령이라고 해도 믿을 모습이었다.

껑충하니 크고 마른 몸에 푹 젖어 달라붙은 옷은 섬뜩한 핏빛을 띄고 있었고, 끝단에서 떨어져 내린 핏물은 발치에 둥그런 피 웅덩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안에 선 이는 모순적일 만치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필요 없으니까 그 살인마 새끼 불러줘요. 죽이든 살리든 그 새끼 앞에서,"

소년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뜨겁게 달궈진 시선이 워로드에게 박혔을 뿐이었다. 거친 빗소리가 그들 사이를 메웠다.

"워로드… 모나쿠스, 맞아?"

떨리는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툭, 선명하게 와 닿았다. 돌아선 공작은 창백한 얼굴 위로 커다란 눈을 홉뜬 채였다.

"너 여긴 왜..."

"물러서 있어."

워로드가 우산 손잡이를 넘기며 말했다. 어깨를 감싼 그의 팔이 떨어져 나가자 한기가 몸을 덮쳤다. 그러나 매니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가 넘겨준 손잡이를 꽉 쥐는 것밖에 없었다.

"나한테 볼일이 있는 모양이지?"

빗속으로 나서며 워로드가 입을 열자 소년은 지금껏 무시한 한기를 한꺼번에 느낀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닥닥거리며 부딪치는 치아 소리가 분위기를 한결 서늘하게 몰아갔다.

"입이 붙어버렸나? 할 말 있으면 해."

으아아악, 워로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은 기합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절규를 내질렀다. 오랫동안 품속에 품어온 것 같은 칼을 꺼내 들고.

차박, 소년이 발을 내디뎠다.

"형님, 비켜!"

동시에 쏘아져 나간 워로드가 공작을 밀치고 내리그어지는 칼의 궤도를 피했다. 허공을 벤 소년은 마치 칼을 뽑아내듯 물리고 이번에는 가로로 칼을 휘둘렀다.

비에 젖은 가운데도 날카롭게 간 도축용 칼날이 예리한 잔상을 남겼다. 살의에 몸을 맡긴 소년과 아슬아슬 피해내는 워로드의 움직임이 살벌한 춤 선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어렵게 시선을 뗀 매니시는 두르고 있던 숄을 풀고 공작에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공작은 워로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대신 매니시의 숄을 받아든 기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을 꼭꼭 싸매도록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기사가 우의를 벗는 동안 우산을 기울이고 있던 매니시의 뒤로 서릿발 같은 음성이 들린 것은 그때였다.

"끌어내."

기사를 대동한 공작부인이었다. 기사는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못마땅한 듯 일그러진 얼굴의 공작부인을 지나쳐 달려나갔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움츠러든 매니시의 앞에 선 것은 기사가 아니라 유유히 걸어온 공작부인이었다.

"이제 속이 시원해요?"

그녀는 비 오는 그 밤의 정원에서처럼 시리고 까슬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묻고 있었다. 그러자 그려진 것처럼 미동이 없던 공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러고 아프면 누굴 고생시키려고."

다정한 음색에 잘못 들었나 싶은 순간 공작부인의 무릎이 진흙 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서슴없이 꿇은 무릎 위로 창백한 공작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프기만 해봐요. 내 말 안 들은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토록 달콤한 협박이 또 있을까. 공작의 입가에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 나른한 미소가 맺힌 것만 봐도 두 사람의 사이를 알 수 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매니시는 다정한 두 사람과 공작부인이 내던진 우산을 번갈아 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커다란 우산이 수상해서 그렇게 안을 들여다보려고 애썼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은 그저 필사적으로 비를 피하는 중이었던 것이다.

"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거 놓으라고!"

그때 소년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에도 면과 결이 있다면 갈가리 찢겨 있을 게 분명한 음성이었다. 기사에게 양팔을 붙잡혀 무릎 꿇려진 소년 뒤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워로드가 보였다.

그는 이미 푹 젖어 우산이 필요한 단계를 지나 있었다. 젖어가는 공작부인 옆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사에게 우산을 건넨 매니시가 그를 따라 빗속으로 들어섰다.

그의 걱정 어린 눈동자가 매니시를 때리는 빗방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따라붙는 게 느껴졌다. 매서운 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악의 서린 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닿았을 때였다.

"입 다물어!"

천둥 같은 호통이 폭풍을 뚫고 내리꽂혔다. 자리에서 일어난 공작부인이었다. 그녀가 소년에게 말했다.

"가만두니까 우리가 아주 우스운 모양이구나. 네가 지난 3년 동안 시위하듯 서 있는 걸 두고 본 게 죄책감 때문이라도 되는 줄 알았느냐?"

"아니라고요? 그럼 돈은 왜 보내셨어요. 그간 공작께서 하신 사죄는 뭐고, 부인께서 제 눈을 피한 이유는 또 뭐죠? 이제 와서 다 아니라고 하면! …내 아버지가 살아 돌아옵니까?"

"네 아비는 죄인이었어. 병사들 사이에 분쟁을 선동했으니까."

공작부인의 차분한 대답에 소년이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선동이 아니라 휘말린 거였어요! 다들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선동을 하려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철벅, 소년은 기사에게 짓눌려 바닥에 이마를 비비면서도 끝까지 분하다는 듯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옆에 나동그라진 도축용 칼도 떨어지는 비에 몸을 흔들었다.

"…머리카락만 돌아왔다고?"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소년에게 다가간 공작부인은 칼을 집어 들고 공중으로 던지며 말을 이었다.

"나보단 낫네. 내 아버진 살점 붙은 손톱 한 점이 다였으니까."

핑그르르 허공을 가르며 돈 칼날이 그녀의 손바닥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안착했다. 치켜뜬 눈으로 그 능숙한 손놀림을 목격한 소년이 얼굴을 일그러트렸다.

굵은 빗방울이 스치며 공작부인의 실루엣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여느 여인처럼 가녀린 선이 아닌 다부진 선이 칼과 썩 잘 어울렸다.

"군법은 엄준하고 그 형벌은 더 잔혹하다. 지금 네가 당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 그 이상으로. 내가 널 피한 이유도 거기 있어."

휘릭, 탁, 휘릭, 탁. 잠시 아무 말 없이 칼만 돌리던 공작부인이 다시 칼을 잡았을 때는 날이 바깥쪽을 향해 있었다.

순식간에 소년에게 다가간 그녀가 팔을 높이 치켜들었다.

매니시는 소년의 뒤통수만 보고도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앞에서 본 소년의 눈은 경악으로 한껏 확장돼 있었다.

공작부인은 그를 보며 입을 열었다.

"도련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지휘관이었는지 모르는 네 녀석이 한심해서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팔이 떨어져 내렸다. 소년은 순식간에 눈앞으로 다가오는 칼을 보며 질끈 눈을 감았다.

푹, 거기까지가 소년이 들은 소리였다.

그러나 공작부인의 칼은 완전히 멈춘 게 아니었다. 그녀가 소년의 눈앞에 꽂힌 칼을 앞으로 밀며 뽑아 들자 흙탕물과 함께 한 움큼 잘린 머리카락이 후두둑 떨어졌다.

젖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 물웅덩이 위를 떠다니는 모양이 처량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카락이면 아주 자비롭지."

철퍽, 공작부인이 버린 칼이 그 옆에 꽂히며 다시 한번 물을 튀겼다. 그와 함께 잘린 머리카락도 제 주인의 창백한 볼로 수줍게 뛰어올랐다.

매니시는 후련한 얼굴로 손을 터는 공작부인을 보며 입을 뗐다. 혹여나 그녀에게 들릴까,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공작가는 일부러 닮은 사람만 골라서 결혼을 하는 건가요?"

"뭐?"

"혹시 어머니께서도 저렇게 칼을 잘 쓰세요?"

"아니, 형수님이 특별한 거야. 타국에서 유명한 기사셨다던데."

대답을 하면서도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워로드의 머리가 기울었다. 덕분에 매니시의 머리 위로 펼치고 있던 손이 함께 기울어 코끝에 물벼락을 맞은 그녀가 그를 돌아봤다.

비가 약해졌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만의 착각이었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뒤늦게 알아챈 그의 커다란 손 우산은 꽤 안락했다.

매니시는 그의 새끼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행이네요. 칼 쓸 자신까진 없었는데."

잠시 그녀의 말을 곱씹던 워로드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퍼졌다. 마치 빗속이 아니라 난로가 앞에 선 것처럼 그의 주변을 맴도는 훈훈한 기운을 깨뜨린 것은 공작부인이었다.

"더 기다리다간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둘 있는데 그 뒤는 들어가서 하죠? 다들 들어가서 몸 좀 녹여요."

마침 그녀의 등에 죽은 듯 업혀있던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움찔거렸다. 공작부인이 먼저 돌아서 걷기 시작하자 병약한 외관에 비해 키가 큰 공작의 발은 질질 끌렸다.

멀어지는 부부의 뒤로 남은 얕은 고랑 두 줄에는 그새 물이 고이고 있었다.

거기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매니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신을 잃은 소년을 힘자랑하듯 어깨에 얹은 워로드가 덧붙였다.

"난 튼튼해서 업을 일 없어."

공작가의 수많은 손님방 중 하나, 따뜻한 햇살 대신 차가운 빗방울이 맺힌 창문 옆 침대에는 깊은 잠에 빠진 소년이 있었다.

쥐 파먹은 듯 훤하게 드러난 오른쪽 이마를 따라 황색의 덥수룩한 머리 아래를 쓸어내린 손의 주인이 말했다.

"열이 약간 있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았다니까."

워로드는 삐져나온 소년의 발에 이불을 덮어주며 매니시의 말을 받았다. 방에는 그들 셋뿐이었다.

"3년을 꼬박 그랬다는데 어떻게 단장님이 몰랐을까요?"

"…매번 형이 신경 썼겠지. 생업 때문에 온종일 서 있을 수도 없었을 테고."

"공작님은 괜찮으실까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하인들이 소년을 돌보는 동안 다녀온 공작의 방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선대 공작 부부부터 공작부인, 주치의까지 이미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다. 주치의는 매니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쉬지 않았다.

덕분에 공작이 잔병치레가 잦은 허약한 체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매니시는 방을 나올 때 본 공작의 하얀 얼굴이 신경 쓰였다. 그러나 워로드는 나름대로 짐작 가는 바가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관망하던 공작부인, 그녀의 눈치를 보던 형님, 매니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엇갈리던 부부의 안색. 마지막으로 그들의 뒤로 소심하게 뻗어졌던 공작의 손가락을 떠올리며 워로드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형수 잔소리 들을 생각에 질린 것 같던데?"

벽난로가 내는 평화로운 허밍 위로 잔잔한 웃음소리가 섞여들었다.

"지금쯤 듣고 계시겠네요. 가서 구해드리는 건 어때요? 단장님이 말리면 공작부인께서도 들어주실 텐데."

매니시는 공작의 넓은 방에서 들었던 공작부인의 얘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그녀의 의식이 멀어지기 전에 워로드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은 좀 혼이 나야 해."

애정이 묻은 불퉁한 음성에 입가를 길게 늘인 매니시가 물었다.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죄로요?"

그래, 공작 부부의 이야기에는 그가 있었다. 워로드 모나쿠스와 그에 대한 깊은 애정.

이야기는 그들이 공작의 방에 막 들어섰을 때, 매니시의 걱정 어린 시선을 느낀 공작부인이 시작한 것이었다.

'아까 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볼 것 없어요.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것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마저 낯선 어느 타국 아가씨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영지 없이 기사 녹봉으로만 살아가던 어느 남작의 딸이었다. 비록 사치스러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기사 녹봉으로도 평민보다 부유한 생활이 가능했기에 그녀의 어린 시절은 꽤 단란했다. 전쟁에 불려간 아버지가 손톱 한 점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났어요. 뭘 미워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모국이든 적국이든, 검을 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녀의 원수였다. 그러다 생활고까지 닥치자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분노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진짜 원수를 찾기로.

'기사라는 건 과장된 얘기예요.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여자 용병이라 헛소문이 많이 따라다녔죠.'

검을 빼든 그녀는 여러 전장을 떠돌며 날카롭게 벼려졌고, 전쟁의 생리를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의 생사가 걸린 전장에서 아버지의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허탈한 결론이었지만, 검은 이미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과 다르게 발은 이미 전쟁을 따라 포르스테리로 향하고 있었죠.'

포르스테리는 모국보다 더 고리타분한 곳이었다. 성별이 드러난 순간 고용이 해지된 그녀는 동료와 헤어져 진영을 벗어나야 했다.

제국의 지휘관 워로드 모나쿠스를 만난 것은 그 짧은 한순간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멋있었길래 공작부인께서 모나쿠스령에 정착할 생각까지 하신 걸까요. 그때 기억 안 나요?"

생각에서 빠져나온 매니시의 질문에 워로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매니시는 평온한 얼굴로 잠든 소년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단장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는지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돈 아니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왜요.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컸으면 단장님 얘기를 하다가 공작님과 부부의 연을 다 맺었겠어요."

놀림조로 이어진 매니시의 음성에 그가 답하려는 차례였다. 평온하던 소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신음이 흘러나왔다. 대화를 멈춘 두 사람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으… 할아버지..."

제게 집중된 시선도 모르고 마음 한 자락을 내보인 소년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 낯선 천장을 담은 깨끗한 눈이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다.

번쩍, 콰콰광!

그 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 벼락이 쳤는지 잠깐 번쩍인 시야와 달리 공간을 찢을 듯한 울림이 방을 맴돌았다.

거대한 성벽과 지붕으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 소리에 매니시의 심장은 불안한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흐트러진 숨을 알아채고 붙잡은 것은 워로드였다.

맞춘 것처럼 탄탄하게 어깨를 받쳐오는 팔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를 때였다.

"괜찮아. 지금 공작성은 마력을 두르고 있어서 벼락이 떨어지더라도 상쇄되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로 심장이 뛸 만한 소리였다. 이 큰 공작성을 두를 정도의 마력을 뽑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마석이 필요할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지."

다른 사람이 했다면 웃어넘기고 말았겠지만, 씩 웃으며 대답하는 워로드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깨달은 공작성의 놀라운 재력에 입을 닫은 매니시는 어느새 상체를 일으켜 앉은 소년을 발견하고 한걸음에 다가갔다.

소년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좀 괜찮아요? 이불을 잘 덮고 있어야 돼요. 아직 열이…"

소년은 이불을 둘러주기 위해 다가갔던 매니시의 손을 쳐내고 몸을 틀었다. 시트를 움켜쥐고 침대 아래로 다리를 내린 그가 고개를 들자 시선이 마주쳤다.

번쩍이며 쏟아져 들어왔던 번개의 불씨를 담은 듯 번들거리는 눈동자였다. 그녀를 거쳐 워로드에게 닿았던 눈빛은 잠시 흔들리더니 그 뒤를 향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깨닫기도 전이었다. 그가 그 시선의 끝으로 달려간 것은.

"…잠깐만, 어디 가요!"

뒤늦게 매니시가 소리쳤을 때는 흔들리는 방문 너머로 소년이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워로드를 쳐다보자 그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이고 있었다.

"쫓아가야죠."

"왜?"

"왜긴, 환자잖아요!"

때맞춰 거센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매니시의 얼굴을 한 번, 비가 맺힌 창문을 한 번 바라본 워로드는 느릿하게 한숨을 내쉬고 뒤돌아 내달렸다.

가볍게 발을 놀리는데도 금세 쏘아져 나간 워로드는 이미 시야를 벗어나 있었다. 매니시는 엉성한 뜀박질로 두 사람의 소리를 뒤쫓았다.

얼마 안 가 그녀는 소년의 목덜미를 잡아챈 워로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거 놔! 할아버지한테 가야 한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밖에 있다고."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악에 받친 듯 외친 후로는 비는 것처럼 안쓰러운 음성이 이어졌다.

방보다 방음이 약한 복도 위로 형체 없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워로드가 되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다릴까 봐 그래요? 사람을 보낼까요?"

종종걸음으로 다가간 매니시에게 워로드의 시선이 새자 소년은 다급한 몸부림으로 저를 잡은 손을 털어냈다. 그리고는 다시 잡히기 전에 힘껏 내달렸다.

이리저리 휘청이는 위태로운 뒷모습은 금세라도 잡을 수 있을 듯했지만, 워로드는 그를 뒤쫓지 않았다.

"왜?"

매니시가 그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니시가 대답했다.

"사정이 있나 봐요. 잡지 말고 우리 따라가요."

"그럼 날이 험하니까 여기,"

"빨리 와요!"

어느새 저 앞에 선 매니시가 소리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있으라니까."

하아, 그가 흘린 한숨이 싸늘한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는 복도에 남은 사람이 없었다. 줄줄이 사라진 남녀를 반기듯 번개가 또 한 번 번쩍였다.

"할아버지!"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오싹한 소리를 내며 내달리는 바람 때문에 소리는 멀리 가지 못했다.

그것은 워로드와 매니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소년을 따라 공작성이 선 절벽 아래 모래 해변에 와 있었다.

매니시는 비옷의 후드가 넘어가지 않게 꼭 쥐고 주변을 살폈다. 절벽 위에서 워로드와 대화를 나눌 때 봤던 그림자가 혹시 소년의 할아버지였을까. 그러나 그때와 달리 찌푸린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림자라곤 그들뿐이었다.

"할아버지! 어딨어? 장난하지 말고 나와!"

차라리 정직하게 우는 것이 나을 듯한 소리였다. 소년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매니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두운 하늘, 피부가 아릴 정도로 거세게 쏟아지는 비, 모든 것을 삼킬 듯 거센 모래바람, 거기다…

콰광!

심심치 않게 떨어지는 벼락. 이런 곳에 가족이 있다면 누구라도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하늘부터 거칠게 휘갈겨진 빛의 선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닿아있었다.

마수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은 것처럼 섬뜩한 울림이 끊이지 않는 하늘에 소년의 외침은 더 간절해지고 있었다. 워로드는 시야도 확보되지 않는 모래바람 속으로 무작정 나아가는 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다.

"이봐, 여긴 너무 위험해! 기사들을 부를 테니 넌 일단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칫하다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린 빠져요! 방해만 될 뿐이라고요!"

매니시까지 나서서 말려봤지만 소년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덤덤히 몸을 트는 소년과 그 앞을 선점하려는 워로드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그들의 몸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방향이 바다 쪽이었단 걸 안 것은 사방으로 튀는 파도 거품이 발등을 적실 때였다.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갔던 매니시는 제 발등에 닿은 것이 불똥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 바닥을 살폈다. 그녀의 구두를 적실 듯 밀려왔던 물이 코앞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매니시는 실랑이 중인 두 사람을 향해 외쳤다.

"이쪽은 바다예요! 돌아가야 해요!"

"그럴 리가, 바다까지는 아직 한참…"

워로드의 혼잣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정신없는 와중에 그가 딛고 서 있던 곳이 물웅덩이가 아니라 바닷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탓이었다.

코앞에서 그의 혼잣말을 들은 소년의 얼굴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처럼 파랗게 질렸다. 평소에 그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밀물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바다는 본 중 가장 많은 것을 삼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바다 코앞에 서 있었다.

성실한 그의 손자를 기다리는지, 혹은 바다에 떠나보낸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모를 일이었다.

"할아버지, 설마..."

워로드는 소년의 턱이 얼마나 심하게 떨리는지 볼 수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도 뭔가에 홀린 듯 바다로 향하는 소년의 앞을 가로막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정신 차려! 그쪽은 바다다."

"알아! 아버지 머리카락을 여기에 뿌렸으니까!"

벼락처럼 외친 소년은 워로드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싫다는 듯 그를 모래사장 쪽으로 밀쳤다. 워로드는 창백한 얼굴에서 유일하게 색을 띤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힘없이 밀려났다.

매니시는 차가운 빗물과 함께 숨을 들이켰다. 절벽 위에서 내려봤던 해변의 외로운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가 벌써 아버지한테 갔으면…"

소년은 꾹 쥔 주먹 안에 뒷말을 숨기고 돌아섰다. 눈가에 차오른 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푹 젖은 소매에 얼굴을 비벼본들 뿌연 시야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소년을 지나친 매니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워로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금세 그녀의 무릎까지 삼킨 바다가 또 한 번 꿀렁이며 몸을 들썩였다.

덕분에 파도가 흩어진 자리에서 보고 싶은 것을 확인한 매니시가 소리쳤다.

"저기에!"

매니시의 손가락이 가리킨 것은 멀지 않은 곳을 표류하는 공이었다. 아니, 표류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바다에 삼켜질 듯 서 있는 공. 분명 사람이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할아버지!"

쿠르릉, 그 순간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하늘의 굶주린 울음소리가 들렸다. 더군다나 저 끝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는 인간의 걸음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빨리 바다에서 나와!"

워로드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 여깄어!"

"안돼! 너무 위험해. 어르신! 이쪽으로…!"

몸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뛰쳐나가려는 소년을 붙잡고 돌아본 곳에는 물 위로 머리만 솟은 작은 인간을 삼키려 손아귀를 벌린 바다가 있었다.

"매니시! 뛰어, 빨리!"

어느새 다가온 워로드였다. 그는 마찬가지로 정신을 놓고 있는 소년을 짊어지고 매니시를 잡아끌었다. 달리는 그들 뒤로 소년의 할아버지를 집어삼킨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얼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는데 모래사장은 멀게만 느껴졌다. 아무리 달려도 물은 얕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어느새 물살은 매니시의 허리를 밀고 있었다. 워로드의 어깨에 얹혀 그의 허리를 구경 중이던 소년이 정신을 차린 것도 그 때문이었다. 거꾸로 늘어진 머리카락이 물에 담겨 꼭 그를 잡아채는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소년의 중얼거림을 들었을까, 허리를 감은 워로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뒤에서 때를 노리던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

순식간에 몸이 허물어졌다.

머리끝까지 물에 잠기자 요란한 하늘이나 바다의 소리도 멀어졌다. 몸을 맡긴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물살을 따라 흔들리는 긴 머리칼에 시선을 고정한 채 멈춘 것 같은 시간을 견딜 때였다. 앞으로 쭉 펼쳐진 매니시의 머리칼이 끝부터 둥글게 말리고 있었다.

워로드는 지체 없이 잡고 있던 매니시의 손을 당겼다.

물살에 흔들리는 머리칼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가늘게 뜬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어땠는지, 시선이 마주친 매니시는 평소처럼 입꼬리를 끌어올리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끝내 웃지 못한 그녀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숨을 놓치고 말았다.

워로드는 매니시의 입에서 솟아오르는 거품까지 모두 가둘 것처럼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다른 손에는 이미 소년을 안고 있었다.

쿵, 촤르르르.

충격은 준비가 끝나자마자 닥쳤다. 얇은 평상복과 비옷 정도로는 절벽과 부딪힌 몸을 보호할 수 없었다. 괴로운 몸 위를 그와 같이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가 쓸고 내려갔다.

"윽."

워로드는 짧은 신음을 주워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파도에 휩쓸려 당도한 곳은 절벽과 맞닿은 모래사장의 끝이었다. 한 덩어리로 뭉친 이들이 흩어져 숨을 고르는 동안 바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양 물러나고 있었다.

"하아 하아, …우리 할아버지,"

잔뜩 갈라진 목소리 사이사이 거친 숨을 토해내면서도 소년은 말을 이어갔다.

"어떻게 됐,"

콰광! 소년이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소년의 할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 위로 벼락이 떨어져 내린 것은.

바로 옆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큰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렇지 않을까.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진 벼락은 바다에 신비로운 빛을 뿌리고 사라졌다.

숨 쉬는 것도 잊은 세 사람의 시선이 아연함에 물들어 바다를 향했다. 번개가 사라진 자리는 순간의 반짝임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 으아..."

내내 분노에 차 있던 소년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절망에 찬 신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매니시는 어떤 말로 소년을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소년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기사인 워로드 루푸스는 달랐다.

그는 고통이나 절망에 물들어 할 일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뇌운은 아직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소년과 매니시가 있었다. 워로드는 언제나 매고 다니던 마법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익숙한 자루를 손에 쥐었다.

고개를 치켜든 그의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머니 안의 긴장한 손가락이 기지개를 켜듯 유연하게 펼쳐졌다가 자루를 다시 감쌌다.

그때, 어떤 일의 전조처럼 하늘이 우르릉 울었다. 뇌운 주위로 짧은 빛의 가지들이 꽃처럼 피어났다 지길 반복했다. 약해진 빗발이 꼭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워로드도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그의 손에는 매번 고비의 순간을 함께해온 검이 들려있었다.

"하, 그딴 흉기 꺼내서 뭐 하려고."

소년이 움켜쥔 모래가 손톱 밑을 파고들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화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나 화풀이라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생각나는 게 고작 그거야? 무기를 챙겨 드는 거? 왜, 그걸로 또 시체 찢어놓게? 할아버지를 찾을 수는 있어?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조금 전까지 비틀거리던 소년은 무슨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 워로드에게 달려들었다. 창백한 피부 탓에 유난히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마른 주먹이 맥없이 허공을 강타했다.

분노에 몸을 맡긴 소년의 몸은 빈틈투성이였다. 휙, 휙, 헛주먹질을 반복하는 소년의 앙상한 팔 밑으로 바다가 보인 것도 어쩌면 그 탓이었다. 기막힌 우연이 섞인.

검집에 든 검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소년의 오금에 틀어박혔다. 윽, 짧은 신음과 함께 허물어진 소년은 워로드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소년이 중얼거리기 무섭게 워로드가 쏘아져 나갔다. 소년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물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힘이 다했는지 허우적거리는 팔이 가라앉고 있었다. 가야 했다.

소년은 바닥을 기다가, 절뚝이며 걷다가, 곧 뛰기 시작했다. 앞서 달리는 워로드가 검집을 벗겨 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느새 첨벙첨벙 바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르르릉. 또다시 하늘이 말썽이었다. 워로드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조금 전에 느꼈던 낙뢰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빛의 가지, 세상의 귀퉁이가 깨져나가는 굉음, 순식간에 두려움에 잠식되어 모래에 박힌 발은 소년의 것이었다.

그때였다. 기억에 새겨진 것보다 굵고 진한 빛이 바다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 걸음을 멈춘 워로드는 두 손으로 쳐든 검을 사선으로 내려그었다. 부풀 대로 부푼 빛이 검 끝을 떠나 쏘아져 나갔다.

모든 일이 물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에 벌어지고 있었다.

번개는 하늘로 뻗어진 노인의 주름진 손가락과 만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번개와 맞닿은 것은 초승달 모양으로 쏘아진 워로드의 마력이었다.

콰과과광!

상충하는 두 힘이 만나 어마어마한 소리를 냈다. 노인의 손가락 가까이 뻗어있던 빛이 움츠러들듯 워로드의 마력도 일그러지고 있었다.

갑자기 쥐어짜듯 마력을 쏟아낸 워로드의 몸이 휘청거렸다. 흠뻑 젖은 몸에 새롭게 식은땀이 배어났다.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이어졌다. 거대한 두 힘은 살아있는 줄기처럼 서로를 휘감고 엉켜 들며 눈 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마치 먹구름 아래로 해가 내려앉은 것처럼.

굉음과 달리 정오의 햇살이 비춘 듯 밝아진 해변의 분위기가 기이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몸처럼 반쯤 가라앉은 정신으로 느끼고 있었다. 눈이 멀 듯한 강렬한 빛을 눈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제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수는 없었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강대한 힘이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실제로 파도의 결이 바뀌고 있었다. 자연의 흐름과 이질적인 흐름이 부딪쳐 바다뿐 아니라 바람도 기이한 소리로 우짖었다.

그 혼돈은 노인의 머릿속과 닮은꼴이었다. 아들을 잃은 후로 그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오히려 비일상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그의 정신은 한결 명료해져 있었다. 흐릿한 기억 속에 발부터 차오르던 바닷물과 차가운 세상이 떠올랐다. 수면 아래서 본 반짝이는 하늘.

신관들이 말씀하신 천국의 문이 저렇게 생겼을까. 그는 혹시나 아들의 그림자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눈을 부릅떴었다. 그러나 애꿎은 바다는 그를 다시 세상으로 밀어냈다.

수면에서 휘적인 팔은 살기 위해서라기보단 다시 가라앉기 위한 것이었다.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다행이었다. 이 혼돈이 금세 그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 내릴 테니까...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닿지만 않았더라면.

"안 돼! 포기하면 가만 안 둬, 제발…!"

먹먹한 귀에도 그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다. 노인의 여유가 깨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손자의 우는 얼굴을 시작으로 짜 맞춘 듯 평화롭던 그의 세상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파도와 잦아드는 번개의 소리보다 큰 그의 헐떡이는 소리가 물에 먹혀들고 있었다. 노인은 그때 비로소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었다.

하늘에 똬리를 튼 두 힘은 잦아드는 폭음과 함께 크기를 줄여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머리 위에 있던 빛이 어느새 그의 앞에 떠 있음을 깨달았다.

점점 작아지는 손자에게 향한 시야에는 몇 번이고 찬물이 끼얹어졌다. 그는 코밑을 간질이는 수면을 느끼며 마지막을 예감했다.

마지막까지 손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내내 아들의 죽음을 곱씹다가 이제는 제 죽음마저 후회로 얼룩지게 만들다니, 그야말로 후회뿐인 인생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 노인의 눈은 잔뜩 구겨진 채 감겼다.

그로부터 사흘, 폭풍이 지나간 모나쿠스의 하늘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서 자꾸만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니시도 벌써 몇 번째 짝사랑에 애달픈 소녀처럼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답답한 속이 좀 풀릴 테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작자가 부인을 데려갔다?"

"예. 새벽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기억이 납니다. 참전한 아들 때문에 부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서 특별히 마음이 쓰이기도 했었고요."

한바탕 지나간 폭풍우에 밀어뒀던 대화를 꺼낸 워로드는 기사의 대답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남작부인은 미망인이었으니까.

한숨은 푹 쉰 워로드가 다시 물었다.

"인상착의는 확실하고?"

"예. 검은 머리에 마른 체구, 단정한 차림새의 귀부인이었습니다. 남편 쪽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잘 보지 못했는데 그쪽도 비슷한 차림새 같았고요. 다만…,"

"다만?"

"이건 도련님께서 물어보셔서 괜히 드는 의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쩌다 그 남편이란 사람과 손이 닿았었는데… 손이 너무 거칠더군요. 차림새랑 안 어울릴 정도로."

"검을 잡은 흔적이 있었단 소린가?"

"아니요. 그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험한 일을 해서 엉망이 된 것처럼."

이윽고 다 말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인 기사가 입을 다물자 매니시가 기습적으로 물었다.

"결혼반지는요?"

"예?"

"결혼반지는 못 봤어요?"

"결혼반지라... 죄송합니다."

한참 뜸을 들이던 그는 정말 죄송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단 한 번 본 사람의 손가락까지 샅샅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어깨를 토닥인 워로드와 매니시의 눈이 마주쳤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에요, 퇴근 중에 붙잡은 우리가 미안하죠."

사복 차림의 기사는 비 오던 그 날에는 몰랐지만, 제법 쾌활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열심히 고개를 젓는 그를 보니 정말 공작가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모두 갠 것 같았다.

그와 인사하고 공작가의 정문을 향해 돌아서던 길이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춘 워로드가 공작가와 마주 보는 골목을 응시하고 있었다. 얄궂게도 그가 멈춰선 자리는 공작과 소년을 조우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왜 그래요?"

"손님이 왔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골목의 어둠 속에서 발 하나가 삐져나왔다. 피가 잔뜩 묻은 신발, 곧 빛 속으로 나온 몸을 타고 올라가노라면 며칠 새 잊을 수 없게 된 얼굴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소년이었다. 어제까지 공작가에서 본 얼굴이었음에도 반가운 마음이 솟은 매니시가 외쳤다.

"레인!"

백정 소년 레인, 그것이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이름이었다. 소년은 어제까지 공작가에서 몸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그런 소년이 다시 얼굴을 비추자 걱정이 된 매니시가 그를 맞으러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또 어디가 아프니? 혹시,"

"할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매니시에게 잡힌 손을 내려보며 얼굴을 붉힌 레인이 대답했다. 소년의 대답에 매니시의 입가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맺혔다.

사흘 전, 마력 소진으로 휘청거리던 워로드는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었다. 머리가 잠겼던 노인은 제 옷깃을 잡아채는 힘에 수면 위로 올라와 눈을 떴다.

눈 부신 빛이 그를 맞았다. 먹먹하게 가라앉은 눈은 잠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본 하늘은 강대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불똥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상태였다.

저 먼바다 끝에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황금빛 폭포수가 보였다. 폭풍은 무서우리만치 아름다운 광경과 함께 끝이 났다.

이후 닥친 열감기는 무시무시했지만,

"넌 어떤데?"

물어 무엇하겠는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에는 처음으로 웃음이 감돌았다. 레인의 입가에도 햇살 같은 미소가 맺혔다.

"좋아요. 그 일이 있고 할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이제부터 바닷가는 같이 다니기로 했고요. 하루 한 번, 저녁 산책으로."

"정말 잘 됐다."

"네."

수줍게 대답하는 레인의 얼굴을 보며 웃던 매니시는 그녀의 뒤쪽에서 옆으로 훅 끼어든 덩치에 놀라 움찔거렸다. 당연하게도 그는 워로드였다.

매니시와 레인의 이어진 손부터 끊은 그가 미묘하게 매니시의 앞에 서며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지?"

그러자 맑게 개었던 레인의 얼굴도 야릇하게 실룩이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를 알고 나선 참이었지만, 레인은 아직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레인의 원수였다. 그리고 은인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울 텐데 레인은 공작가에서 지낸 이틀, 공작부인의 병문안을 받았다. 그사이 그는 군법이 지향하는 각종 형벌에 관해 준전문가로 거듭나야 했다.

게다가… 핏줄인 저조차 두려움에 망설일 때, 워로드는 주저하지 않고 몸을 내던졌었다. 강함과는 상관없이 그도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 것이다. 단지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이유로 레인은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었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딴에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생각도 못 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뜬 그를 보니 괜스레 골이 났다.

"근데 안 할래요."

"뭐?"

"대신 보답은 할게요. 아까 하던 얘기 들었어요.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고..."

그냥 해주려던 얘기였지만, 팔짱을 낀 레인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서?"

불만과 기대가 섞인 기묘한 표정의 워로드에게 소년이 대답했다. 새침한 음성으로 시작된 대답은 순식간에 아래로 가라앉았다.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 3년 전에 여기서."

"정말?"

워로드를 밀치고 앞으로 나선 매니시가 되묻자 당황한 소년이 눈을 깜박이며 한걸음 물러섰다. 레인은 금세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반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기대 이상의 대답에 매니시와 워로드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아까와 달리 만족감이 차오른 서로의 눈동자를 확인한 두 사람은 곧 소년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반지가 있는 소년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가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봐."

"부탁하는 태도가 뭐 그래요?"

"구해준 보답이라며."

"…내가 공작가 앞에 서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땐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서워서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옛 기억을 떠올린 소년의 음성은 무거웠다. 가라앉은 목소리 위로 세 명의 걸음이 저벅저벅, 이야기의 공백을 메우며 나아갔다. 잠시 침묵했던 레인은 제 옆에서 걷고 있는 워로드의 눈치를 살피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골목에 숨어 당신의 전령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몸져누워계시고 저도 일을 하지 않을 때라 잠자는 시간을 빼면 항상 거기 있었죠. 그 사람은, 어스름한 새벽녘에 조용히 나타났었어요."

마차 소리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여인, 지친 정신에도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다.

"기사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몰라요.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들렸거든요."

조용한 공작가 근처와 달리 영주성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인기척이 늘고 있었다. 매니시는 소년을 향해 귀를 기울이면서도 처음 만나는 모나쿠스의 본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나쿠스의 영민들은 그들이 지나칠 때마다 짠 것처럼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다. 워로드와 레인에게 못 박힌 시선 때문이었다.

"제가 보고 들은 건 그다음부터예요."

여자는 뒤늦게 나타난 남자에 의해 레인이 있는 골목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들은 버려진 나무 상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소년을 보지 못했다.

'이러지 마세요, 부인.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아들이 가엽지도 않으십니까.'

높낮이 없는 목소리가 어두운 골목길과 어우러졌다. 레인은 그들에게 향하는 시선을 애써 돌리지 않았다.

'안 돼요, 아들만은 제발!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불쌍한 애란 거 아시잖아요...'

기사에게 안 보일 정도로 골목 깊숙이 들어오자 남자의 태도는 한층 거칠어졌다. 여인은 남자에게 손목을 붙잡힌 채로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순간 반짝인 그녀의 약지를 남자의 투박한 손이 덮었다.

레인은 그때 남자의 손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자고.'

남자의 손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한 덩이처럼 엉겨 붙은 약지와 소지, 심한 화상 흉터 같았다.

'약속해줘요. 뭐든지 할 테니까, 내 아들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약속, 약속해요. 약…!'

남자가 손을 잡아당기자 여인이 주저앉아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건 조용한 소란이었다.

남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남자와 숨 막힌 여자의 발버둥 치는 소리, 레인은 처음 접하는 공포에 굳어있었다. 팅, 그때 들린 작은 소리를 방관자였던 소년은 놓치지 않았다.

여인의 손에서 반짝거리던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반지로 향한 눈은 레인뿐이 아니었다. 공포에도 형형하게 빛나는 여인의 눈동자.

"마주쳤었어요."

생생히 떠오르는 기억에 부르르 몸을 떤 레인이 워로드와 눈을 맞췄다.

"내가 그 눈빛을 잘 이해한 건진 모르겠지만, 그 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요. 한동안 외부인들이 많이 보였는데 별로 좋은 신호 같지 않았어요. 특히 그 남자. 그 남자를 몇 번 더 봤어요."

아무도 소년을 나무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느새 아담한 집들이 늘어선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때 어떤 집을 가리킨 레인은 곧장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다.

둘만 남은 매니시와 워로드는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워로드였다.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겠어."

"도대체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일단 그 화상 흉터 있는 남자부터."

워로드가 말을 마치자마자 레인이 집에서 튀어나왔다. 매니시와 워로드는 소년의 주먹으로 가는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를 건네는 레인의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다. 독특한 디자인의 반지에 매니시에게서 감탄이 흘렀다.

링 대신 손가락을 감싼 날개가 올리브색의 커다란 페리도트를 떠받치고 있는 모양이 아주 섬세하게 조각된 반지였다. 주인 잃은 반지는 3년 만에 만난 온기가 반가운 듯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워로드는 손바닥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느낌에 사건에 한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새로운 의문도 있었다.

"왜 나지?"

의아한 매니시와 레인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좀 더 친절히 늘인 말을 다시 내뱉었다.

"여태껏 보관하던 반지를 왜 하필 나한테 맡기냐고."

그는 단지 원망의 대상일 뿐일 텐데. 레인의 마음속 변화를 알지 못하는 워로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레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까 그 여자를 찾고 있었잖아요."

"내가 남자 쪽이랑 한편이면?"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그랬다면 남자가 모나쿠스 기사의 눈치를 안 봐도 됐겠죠."

"글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그럴 수도 있지. 가족과 고용인들에겐 알릴 수 없는."

워로드의 말이 끝나자 한껏 못마땅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은 레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한숨과 함께 나온 것은 소년의 진심이었다.

"그럴 리 없잖아요. …당신은 기사니까."

레인은 워로드의 커다래진 눈이 달갑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도 이제 조금은 알아요. 기사란 게 어떤 건지. 당신은, 아니 백작님께선 기사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이제 날, 원망하지 않는 건가?"

"그냥저냥..."

"그냥저냥?"

"미뤄두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건 감사하고 백작님께서 믿을만한 기사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반지도 맡길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워로드의 뒤로 건넛집에서 나온 이웃이 젖은 빨랫감을 떨어트리는 모습이 보였다. 틀림없이 저 때문이었다. 모나쿠스의 사신과 아무렇지 않게 말을 섞는 레인이라니, 이 마을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일 테니까.

저들의 상상 속에 이 만남은 낭자한 피와 살벌한 칼부림으로 가득할 터였다. 실제로도 첫 만남은 꽤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끝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이 한 상상의 끝은 아마도 죽음, 십중팔구는 땅 위에 널브러진 레인의 차가운 몸뚱이를 상상했겠지.

그러나 레인은 이제 그 상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았다. 워로드는 철없는 평민 소년을 단칼에 벨 위인이 못됐다. 지금도 저렇게 긴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자가 무슨.

"백작님의 결정이 최선이었다 해도 아버지는 죽을 때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소년의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리던 워로드의 차가운 손끝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 언젠가,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를 응원하듯 잡아줬던 손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기사가 될 테니까. 그때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긴 외출을 끝내고 돌아온 집은 유독 좁은 느낌이었다.

커다란 공작성과의 차이 때문이든 처음 보는 가구 때문이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 녀석 때문이었다.

"누나, 이거 봐봐!"

훙, 훙, 먼지떨이를 검처럼 휘두르는 플럼의 행패는 공작가에선 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매니시는 한참 대청소 중인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가 보통 위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 있었다. 거기에 귀를 덮는 모자 하나와 긴 자루가 달린 먼지떨이 하나만 있으면 꼬마 기사님은 천하무적이었다.

"아유, 이 먼지 좀 봐. 플럼! 가만있지 못하겠니?"

엄마 앞에서만 빼고.

"앗, 내 검!"

외침과 함께 등장한 숙모는 곧장 플럼의 손에서 먼지떨이를 빼앗아 들었다. 억울함에 젖어 드는 아이의 표정에 매니시는 웃음 섞인 기침을 터트렸다. 그러나 플럼의 수난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여름에 겨울 모자는 또 왜 쓰고 있어."

귀를 덮는 모자 역시 쏘옥 벗겨져 숙모의 손에 들렸다. 플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정전기 때문에 모두 하늘로 치솟은 상태였다.

"으앙! 내 투구!"

"네가 먼지 일으켜서 누나가 콜록거리잖아. 가족들 청소할 동안 얌전히 앉아있기로 했지?"

콜록, 말마따나 여전히 기침 중인 매니시는 모자의 실랑이를 들으며 책장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모나쿠스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녀가 왜 책장 정리나 하고 있냐면, 그것은 모나쿠스 부인의 호의에서 시작되었다.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길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모처럼 걱정 없이 쉬다 가면 좋았을 텐데 고생만 하고 가는 것 같네요. 체력이 좋아야 또 좋은… 흠흠. 아무튼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집으로 선물을 보냈으니 가족들과 꼭 챙겨 먹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식선에서 이상할 게 없었기에 별생각이 없던 매니시였다. 그러나 모나쿠스 부인은 과연 매니시의 팬이었다. 집에 돌아온 매니시를 맞은 것은 어마어마한 종류의… 건강식품이었다. 식당에는 오로지 그것들을 위한 진열장이 새로 놓여 있었다.

가족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

'매니시, 대체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렸기에...'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레우카스 자작부터,

'혹시 사교계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고 있니? 내가 요즘 뜸한 바람에 중병에 걸렸다고 헛소문이 떠도는 건 아닐지.'

사교 활동을 걱정하는 자작 부인,

'아무튼 그쪽에서 우리 조카님이 아주 마음에 드셨나 보구나. 이건 황실에나 납품되는 귀한 약재야. 비싸기도 하지만 구하기는 더 어렵지. 1급 마성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인답게 물건값을 감정하는 외숙부까지.

'그 정도라면 혹시 손주 욕심 때문 아닐까? 매니시 너 몸보신시키려고.'

의외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건 숙모였다. 매니시가 낳아줬으면 하는 게 애가 아니라는 것만 빼면.

숙모의 추측에 아버지는 기분이 별로인 눈치였지만, 이유가 어쨌거나 결론은 하나였다. 명목상 매니시의 약혼자나 다름없게 된 워로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를 집에 초대해야 한다는 것. 이왕이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라도 완벽하게.

이 대청소는 그런 목적을, 아니 사명감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라기엔 쓸데없는 작업도 많았다. 예를 들면,

"멀쩡한 책을 죄다 뽑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콜록."

지금 매니시가 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녀는 거실 책장에 책을 꽂아 넣고 있었다. 각 방을 뒤져 고르고 고른 소위 있어 보이는 책들로. 원래 꽂혀있던 플럼의 동화책은 한쪽에 쌓여 구박을 받는 중이었다.

매니시는 책에 무관심한 워로드가 이런 노력을 알아줄 리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나쿠스며 루푸스며 하나같이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에게 갖는 가족들의 근심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기에 부지런히 손을 놀릴 수밖에 없었다.

책장은 색깔별로 착착 채워지고 있었다. 매니시가 한창 정리 중인 새로운 칸의 책은 붉은색이었다. 붉은색 소설, 붉은색 화집, 붉은색 성서,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 학술지를 꽂을 찰나였다.

무더기로 떨어진 책들이 먼지와 소음을 일으켰다.

"매니시, 무슨 일이니? 도와줘?"

"…네? 아니에요. 그냥 몇 권 떨어진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 음성에 대답하면서 쪼그려 앉은 매니시는 붉은색 사이로 삐죽 보이는 낡은 종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책에 끼어있던 게 튀어나온 것 같았다.

매니시가 손을 뻗었다. 성서에 반의반쯤 물려있던 종이가 툭, 손 안에 들어왔다.

부스럭부스럭, 펼쳐본 종이는 '친애하는 레우카스 부인'으로 시작하는 편지였다. 홀린 듯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매니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창백한 얼굴의 그녀가 소리쳤다.

"어머니!"

누가 들어도 절박한 음색에 부름 받은 당사자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휘둥그레 뜬 숙모와 플럼의 눈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왜 그래. 어디 다쳤니?"

식당을 정리하다 말고 뛰쳐나온 자작부인의 눈이 바쁘게 매니시를 훑어내렸다. 주변에 흐트러진 책들을 빼곤 어딘가 다친 것 같진 않았다.

그녀는 우선 주저앉은 매니시를 부축해 일으키고 소파로 이끌었다. 매니시는 자작부인의 궁둥이가 소파에 닿기 무섭게 입을 열었다.

"이 편지, 뭐예요?"

"어머, 이건... 어디서 찾았니?"

"성서 사이에 껴있었어요."

"그래, 그랬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거기 끼워뒀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오래된 일도 아닌데 말이야."

매니시에게서 편지를 넘겨받은 자작부인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편지의 발신인은 그녀였다. 자작부인과 우애를 나누었던, 코로네 남작부인.

"그런데 이 편지는 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진지한 딸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던 자작부인은 조용히 눈을 내려 편지를 들여다봤다. 불편한 여건에서 간직해온 더럽고 구깃구깃한 종이, 그 안에는 한쪽으로 몸을 기운 글자들이 빼곡했다.

"우리가 레우카스 성에서 짐을 쌀 때 온 편지란다. 급하게 답장을 보내고 성을 떠나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었어. 여기 와서야 다시 편지를 보내고..."

코로네 부인은 단정한 사람이었다. 그녀와 많은 편지를 나누었지만 이토록 두서없는 내용과 흐트러진 필체는 처음이었다. 수도로 오는 내내 주머니 한편을 차지한 이 편지가 얼마나 불안했던가.

아니나 다를까 수도에서 들은 소식은 그녀를 아프게 했다.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단다."

자작부인은 마치 친구의 죽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처럼 눈시울이 붉어졌다. 매니시는 당시에는 몰랐던 어머니의 슬픔을 끌어안았다.

가녀린 어깨너머로 어렴풋하게나마 상황이 보였다.

상세한 설명 없이 오로지 당시의 불안과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편지, 그 안에 단서가 남은 덕분이었다.

무슨 일인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황성에선 제 이야길 귀담아듣지 않아요.

'황성'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리고 편지 끝부분에 쓰인 문장.

당신 말고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분이 있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은 말아요.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를 돕지는 못할망정 걱정을 더하는 것 같아 괴롭지만, 다시 만나 이 모든 일을 설명할 날이 금방 오겠죠?

안타까운 물음 위로 매니시는 보지도 못한 코로네 남작부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게 닥친 어떤 문제, 불안, 초조, 남작부인은 그것들을 마찬가지로 어려운 친구에게 함께 들어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편지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쓰여있었지만 '귀 기울여줄 분'이라는 것은 아마도 모나쿠스 공작가,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그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의문의 사내에게 끌려갔을 것이다.

"전쟁터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다 병을 얻었다고 들었어. 위로받고 싶어서 편지를 했을 텐데… 내 사정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어."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로드의 탓도, 바이올런스의 탓도, 모나쿠스의 탓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코로네 부인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일까.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에 빠진 매니시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자리는 곧 아버지 차지가 되었다.

매니시는 편지를 잘 접어 들었다. 기워진 단서의 끝자락을 워로드에게 건네주기 위해.

끊임없는 바람의 참견에, 비의 괴롭힘에 강물도 지치는 날이 있을까. 눈앞에 흐르는 강물은 어느 때보다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마치 그처럼. 바이올런스는 흐르는 물에 비친 제 얼굴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부드러운 얼굴선, 고양이 같은 눈, 짙은 눈썹, 어머니를 닮은 예쁜 얼굴이 수면에 붙잡혀 찰랑찰랑 흔들렸다.

그중 가장 그리운 뾰족한 눈매를 손가락으로 짚자 물결이 갈라지며 잔상이 망가졌다. 바이올런스는 허탈한 마음으로 젖은 손가락을 주먹 안에 숨겼다.

어머니의 온기는 없이 그저 축축하기만 했다. 수면에 비친 잔상이 그에게 웃어주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흔들리는 수면 위에 떠오른 눈은 그를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처럼 손으로 물을 휘저어놓고 일어섰다.

찌르륵 찌르륵

여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매일 오간 길을 걸었다. 무성하게 자란 풀은 그의 발밑에만 자라지 않아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가 만든 길을 거슬러 가면 무너져 까맣게 그은 동굴이 있었다. 복수의 결과물이었다.

'그럼 일단 같이 가서 본거지를 확인하고 저는 수사단에 돌아가 알릴게요.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마력은 아껴야죠.'

계단 밑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해야 했는지도 몰랐다. 그랬다면 비밀 자금을 지키고 엉뚱한 매니시를 휘말리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복수에 눈이 멀었던 그는 충동적인 결심을 이기지 못했다. 동료가 잡힐 걸 알면서도 먼저 몸을 피했던 이유는 비밀 방의 환풍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놈이 눈치채면 더러운 보물들과 함께 터뜨려줄 생각으로.

그러나 부서진 환풍구로 불쑥 기어오른 사람은 매니시였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창백해진 얼굴을 확인한 그 순간 바이올런스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정신이 들었다.

그는 뒤돌아 한참을 달렸다. 까맣게 손을 물들인 그을음에 뒤덮이지 않으려고.

턱 끝까지 차오른 숨에 시야가 까맣게 물들 때였다. 헐떡이는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있었다.

"…매니시?"

시끄러운 숨소리에 가려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뒤늦게 바이올런스를 깨웠다. 어느새 멀어진 풀벌레 소리 대신 의아한 시선들이 그의 주위를 떠돌았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서 웬 여자에게 붙들려 곤란해 보이는 매니시.

"남작님..."

얼마 전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다. 당장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싶기도, 뒤돌아 그녀에게 멀어지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의 안위만 확인하고 멍청이처럼 제자리를 지킨 것인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존댓말도 집어던진 그가 매니시에게 다가갔다. 멀쩡하다는 정보가 무색하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매니시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박혔다. 날카로운 눈으로 옆에 선 여자를 훑어보자 그녀는 억울한 듯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죠?"

"전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 분이세요?"

반가움과 난처함이 섞인 낯선 이의 음성에 고개를 끄덕일 때 매니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덥다고… 생각했는데, 추운 거였어..."

"매니시!"

늘어지는 몸을 받아든 바이올런스는 매니시의 체온에 미간을 찌푸렸다. 축축하게 젖은 몸이 차갑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든 생각은 워로드에 대한 원망이었다. 강가에 난 길처럼 그의 머리와 가슴에도 이미 길이 나 있는지 몰랐다. 입술을 짓씹은 그가 매니시를 안아 들었다.

늘어진 얼굴에 다닥다닥 붙은 하얀 머리칼이 그녀를 더 위태로워 보이게 했다. 바이올런스는 급해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달래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도 제 발이 향하는 곳을 모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조금 전까지 원망하던 마음이 무색하게 매니시를 안아 들고 그가 도착한 곳은 기사 본부였기 때문이다. 경비병이 멀뚱히 서 있는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의 발은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한 것이다. 가깝고, 빠르고, 최선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수사단 의무실이 어느 쪽이죠?"

다행히 매니시의 얼굴을 알아본 경비병이 쉽게 문을 터줬다. 의무실로 향하는 길, 바이올런스는 이상한 감상에 빠져들었다.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 들여다보던 담장 너머에 너무도 쉽게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기회를 이용할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허탈한 목소리가 조용한 처치실을 울렸다. 각오하고 들어온 것치고 순조로운 상황이었다. 그녀를 데려오면 워로드 루푸스 그자가 바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당직 의원까지 자리를 비우자 침대 세 개가 전부인 작은 처치실은 그와 매니시 둘뿐이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매니시, 정신이 듭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수사단의 의무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매니시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다. 촉촉하게 젖은 까만 눈동자는 바이올런스를 잠깐 보다가 무언가를 찾는 듯 허공을 떠돌았다.

"루푸스 백작은 황성에 불려갔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을 사람은 아니니까요."

의무실에는 잠시 적막이 감돌았다.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유쾌하게 떠들만한 화제는 아닌 탓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나쿠스 공작가에서."

힘없는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말을 할수록 감정이 이는 듯 바이올런스의 목소리가 조급하게 성량을 더해갔다.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비가, 왔거든요. 거긴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그러나 분노에 떠는 목소리는 환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금세 잦아들었다. 침대에 올려둔 그의 손에 뜨거운 손가락이 닿았다.

"비를 맞아서 아픈 거예요. 우린 그저 비를 맞은 거예요."

푹 잠긴 목소리는 울림이 심해서 여린 진동이 바이올런스의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갑자기 눈을 덮친 뜨거운 기운에 매니시와 맞닿은 손을 들어 눈을 비볐다.

매니시는 가려지지 않은 일그러진 입매를 바라보다가 천장으로 눈을 돌렸다.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슬픔을 삼키는 일이 익숙한 듯했다.

매니시는 그 슬픈 사실에 눈을 내리뜨고 말을 이었다.

"그 사건을 조사해봤어요."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짧은 순간 매니시는 치열하게 고민했다. 아직 워로드조차 보지 못한 편지를 그에게 건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건네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건네야 할 이유가 크고 분명했다. 수신인이 레우카스 부인이었다고는 해도 편지는 온통 그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우리도 아직 다 밝혀내진 못했지만,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콜록콜록, 매니시의 기침 소리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됐다. 경비기록을 살핀 일과 기사의 증언부터 레인이 그려낸 그 날의 일까지.

매니시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바이올런스의 심장 소리가 커졌다. 그는 온몸이 고동에 꽉 차서 터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입을 열었다.

"그럴 리 없어. 그걸 어떻게 믿지? 당신은, 빌어먹을 그놈을 사랑하잖아."

소리는 구역질처럼 쏟아져나왔다. 혼란에 찬 그의 눈을 보며 매니시가 손을 움직였다. 마침내 그의 앞에 당도한 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코로네 부인이 일을 당하기 전, 저희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에야 발견했어요."

매니시의 말을 듣고는 있는지 그의 온 정신은 편지 겉면에 쓰인 수신인의 이름자였다. 매니시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어머니의 이름.

그러나 그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굳어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누군가가 정성 들여 썼을 이름자를 손끝으로 한 번 쓸고 편지를 펼쳐 드는 그의 모습은 선물을 개봉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빨리 나아요. 어머니가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게."

열린 창가로 바람이 불어왔다. 여름의 훈훈한 바람에도 몸이 떨린 매니시는 이불을 치켜들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린 까만 머리를 토닥이는 손은 이불 속으로 숨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흥분한 워로드의 질문에 대답하는 음성은 태연했다.

"들은 그대로네. 와해된 조직에 매달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화이트럼한테선 이제 손을 떼게."

"화이트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범죄 동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귀족이 타살된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 일도 급해. 내가 로얄 수사단을 창단한 이유기도 하니까."

황제의 대답에 워로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수사단의 단장인 그조차 처음 듣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어느새 창가로 돌아선 황제의 등을 보며 워로드가 말했다.

"수사단을 창단하신 이유라니, 저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그가 알기로 수사단은 워로드와 같이 전쟁에 공을 세운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변변한 기사 작위 하나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만든 둥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수사단에 굳이 로얄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이유를 모르겠나?"

"기사 작위 수여에 잡음이 생기면서 직속 수사단을 꾸리신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얄의 이름이 붙는 황제 직속 단체는 여타 다른 귀족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역대 황제들이 그처럼 평민 단체를 꾸려댔던 것은 아니었다. 뛰어난 한두 명이라면 모를까, 로얄 수사단처럼 단장을 제하고 단체로 평민인 경우는 없었다.

덕분에 기사 본부의 계급 절차는 이상하게 꼬여서, 귀족들에게 뿔이 난 황제가 홧김에 벌인 일이라는 소문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 상황이 아주 그럴듯했거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도 나는 로얄 수사단을 만들었을 걸세."

"어떤 이유로 말입니까?"

"고위 귀족도 잡아넣을 수 있는 평민이 필요했으니까."

다시 돌아선 황제의 눈이 번뜩였다. 허허실실 평소 인상 좋은 그라도 귀족들이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는 제 권위에 도전하는 이를 그냥 두지 않는 군주였다.

그때 황제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었다.

폐하. 에이드입니다. 수사단에 일이 생겼습니다.

"들어오게."

집무실의 거대한 문이 요란한 기척을 내며 열렸다. 에이드는 시간이 아깝다는 듯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틈을 비집고 방에 들어섰다.

"그래, 수사단에 무슨 일이 있나?"

"별일은 아닙니다만,"

그답지 않게 말을 끌며 망설이자 황제의 호기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 워로드는 에이드와 시선이 맞닿자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단장님께는 중요한 일일 듯해서 왔습니다. 매니시 영애가 쓰러져서…"

"뭐?"

"이런, 그게 왜 별일이 아닌가. 매니시 양의 건강은 내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네. 상태는 어떤가?"

"단순한 열감기입니다. 다행히 본부 근처에서 쓰러져 수사단 의무실로 모셔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영애를 모셔온 분이."

에이드의 시선이 워로드와 황제 사이를 방황했다. 화이트럼의 정체는 그도 최근에야 단장에게 들은 사실이었다.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인 지금 화이트럼과 매니시의 기묘한 관계를 황제에게 알려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그러나 워로드는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당장에 에이드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말했다. 어쩔 수 없었다. 직속 상관도 황제도 그가 기다리게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입니다. 영애 주변을 맴도는 귀족이요."

에이드의 말이 끝나자 황제의 집무실은 묘한 정적에 잠겼다. 에이드의 곧은 눈빛에 안 그래도 굳어있던 워로드의 얼굴은 쩡 소리가 날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직감한 워로드가 입을 열 찰나였다.

"그게 무슨 소린가? 매니시 양 주변을 맴도는 귀족이라니. 성별은?"

워로드보다 억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황제가 소리쳤다. 에이드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예?"

"그 귀족이 남자냔 말일세!"

또 병이 도졌구나. 에이드는 확신했다.

"…예. 그렇습니다."

한심해하는 어조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답하자 황제는 안절부절못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워로드는 불만 어린 얼굴로 문을 흘끔거리고 있었다.

"이를 어쩐다, 매니시 양한테 다른 남자라니. 공작가에도 다녀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건만. 내가 너무 안일했어. 향기로운 꽃에 벌레가 꼬이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말이야.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만."

무섭게 중얼거리기까지 하는 황제를 앞에 두고 에이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황제는 그 억지 긍정에 힘을 얻었는지 비장한 얼굴로 워로드에게 다가갔다.

황제의 다부진 손이 워로드의 어깨에 얹혔다.

"가거라. 절대 아무한테도 빼앗기면 안 된다, 워로드. 난 이미 이모저모로 매니시 양을 낙점해 두었어."

이모저모? 사뭇 불길한 단어가 들렸지만 황제의 허락이 떨어지자 워로드는 지체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를 따라오는 에이드의 발소리 뒤로 황제가 조용히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사단장, 새 임무는 곧 사람을 통해 전달하겠네. 그때까진 하고 싶은 수사든 뭐든 마음대로 하게."

돌아본 황제는 그새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불만스러운 얼굴을 숨기지 않은 워로드가 고개를 숙여 보이자 웃음소리가 커졌다.

"설마 단둘이 두고 나온 건 아니겠지?"

홱 고개를 돌린 워로드는 길을 재촉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곧장 돌아온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것이었다.

"사람을 붙여두긴 했습니다."

의무실 문밖에. 뒷말을 속으로만 되뇐 에이드는 마지막으로 본 의무실 풍경을 떠올리고 있었다.

의무실 문의 작은 사각 창으로 보이던 기류, 풀어헤친 흑발에서 뚝뚝 떨어지던 남자의 우울, 그 위를 쓰다듬던 작고 하얀 손, 나른하게 감긴 영애의 눈꺼풀, 점점 느려지는 손의 박자...

실로 완벽한 그림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그 순간을 방해할 수 없었다. 에이드는 사실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아비를 일찍 여윈 바이올런스에게 가족이 어미 하나였던 것처럼, 에이드에게도 가족이라곤 그레이프 하나뿐이었으니까.

그가 전쟁에 나간 사이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도 아마 복수심에 사로잡혀 화이트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아는 그레이프는 언제나 작고 약해서 그가 지켜야만 했으니까.

다만, 그가 화이트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덕분이었다. 하나는 다시 만난 여동생이 세상 풍파를 어찌나 잘 견뎠는지 무사하다 못해 무섭게 변해있어 준 덕이었고.

"오셨어요?"

생각에 빠진 사이 그들은 어느새 의무실 앞에 서 있었다. 에이드의 미지근한 대답에 워로드가 거의 날 듯이 달린 덕이었다. 의무실 앞에는 에이드가 붙여놓은 단원과 함께 하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화이트럼이 불행을 예고하기 위해 보낸, 그의 천사.

그녀가 바로 에이드가 복수에 사로잡힐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 설령 그에게 절망이 닥치더라도 무너질 수 없는 이유.

그녀를 눈앞에 두니 나무문 너머의 고통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붙들 것도 붙들어줄 이도 없이 혼자 무너지고만 바이올런스 코로네의 고통이.

"왜 다들 나와 있지?"

그러나 워로드에게는 동정보다 질투가 먼저인 모양이었다.

"두 분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나왔어요."

하녀의 대답에 워로드의 발소리에 힘이 실렸다. 에이드는 워로드의 얼굴을 보고 뒷걸음질 치다 중심을 잃은 하녀를 붙잡았다.

벌컥! 힘차게 열린 의무실 문과 함께 에이드의 손도 내팽개쳐졌다. 하녀의 새침한 얼굴에 에이드가 손을 거뒀다. 사실 천사는 아직 '그의' 천사는 아니었다.

워로드는 의기소침해진 에이드를 뒤로하고 의무실에 발을 들였다. 동시에 날 선 웅얼거림이 그를 반겼다.

"조용히 들어와."

침대맡에 엎드린 얼굴을 들지도 않고 내뱉은 말에 워로드의 미간이 조여들었다.

"내숭은 집어치웠나 보지?"

말투는 얌전하지 않았지만, 바이올런스의 요구대로 작은 목소리였다. 그새 자는 매니시의 얼굴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문밖에서 대기하던 이들이 물러나는 소리가 났다. 바이올런스는 팔 사이에 묻고 있던 얼굴을 들고 코웃음 쳤다.

"다 들킨 마당에 얌전떠는 것도 웃기잖아?"

그가 몸을 비틀어 워로드와 마주하자 발갛게 부어오른 눈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알면 내가 오기 전에 꺼졌어야지.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날 잡아넣을 증거는 있고?"

"글쎄, 궁금하면 일단 잡혀 보든지."

실소를 터뜨린 바이올런스가 대답했다.

"이미 반쯤 잡힌 거 같은데. 여기서 당신이랑 실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게."

"싫으면 나가. 그 의자 놔두고."

워로드의 으름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바이올런스가 바로 근처에 놓인 뜨거운 손을 잡았다. 커다란 남자의 손에 힘없이 붙잡힌 것은 매니시의 손이었다. 직전까지 그의 머리를 토닥여주던.

"싫은데…, 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더."

탁, 워로드가 바이올런스의 손목을 붙잡았다. 매니시에게 영향이 갈까, 차마 끊어내진 못하고 붙잡은 손목을 힘주어 죄며 물었다.

"뭘 어쩌겠다는 거지?"

"이거나 읽어봐."

기묘한 대치 속에서 바이올런스가 가리킨 것은 침대 위에 펼쳐져 있던 종이였다. 워로드는 의심스런 눈길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남은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 들었다.

"…이건 어디서 났지?"

"누가 줬겠어?"

워로드의 손을 단 채로 이불을 들친 바이올런스가 매니시의 손을 고이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다. 가지런한 속눈썹이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 확인한 바이올런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황성에 내 얘길 보고했어?"

"그건 네가 알 바는 아닐 텐데."

"거기 쓰여 있는 걸 봤으면 알 텐데. 황성도 관련 있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2년 동안 헛물만 켠 거 아닌가?"

그 순간 조곤조곤한 목소리만 울리던 조용한 의무실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다. 그와 함께 일어난 바이올런스는 코앞에 있는 워로드의 얼굴을 보며 짓씹듯 내뱉었다.

"그럼, 당신이 알아내 보든가."

"내가 알아내면, 믿을 수는 있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다시 조용해진 의무실에는 부산스러운 소리 하나가 끼어든 상태였다. 눈싸움 중인 두 남자는 그 기척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둘이… 뭐 하는 거예요?"

휙, 동시에 돌아간 고개가 발견한 것은 열에 들뜬 얼굴로 그들을 보는 까만 눈동자였다. 매니시는 제가 보는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어 눈을 비볐다.

그대로였다. 겹쳐진 얼굴선, 기묘한 분위기, 뒤엉킨 팔. 손목을 붙잡은 이는 그녀의 연인이었고 손목을 붙잡힌 이는 조금 전까지 그의 원수였던 이였다.

매니시의 혼몽한 머릿속엔 말도 안 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다. 오해가 풀린 두 사람이…

"안 돼."

서글픈 듯 촉촉한 목소리에 후다닥 떨어진 두 사람이 동시에 인상을 찡그렸다.

"매니시, 괜찮아?"

"영애, 정신이 듭니까?"

또 동시에 말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가 마치 튕겨 나가는 것처럼 서로 반대를 향했다. 매니시는 아픈 와중에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안 되는데… 허락 못 해..."

"아니야!"

"아니에요!"

입이 잔뜩 튀어나온 매니시가 덧붙였다.

"둘이 떨어져 앉아요."

시간은 빠르게 그들을 지나쳐갔다. 매니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다. 코로네 부인의 편지는 당시의 상황과 수사의 방향을 알려줬다.

하나, 코로네 부인은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다.

둘, 그녀는 그것을 황성에 얘기했지만 무시당했다.

셋,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모나쿠스 공작가를 찾아갔다.

넷, 어떤 남자로 인해 그녀는 공작과 만나지 못하고 끌려갔다.

다섯, 바이올런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갑작스럽게 병사한 상태였다.

수사는 두 지점에서 출발했다. 레인에게 따온 몽타주 속의 남자를 찾는 것과 황성에 남아있을지 모를 코로네 부인의 흔적을 찾는 것.

그러나 별다른 진전 없이 결전의 날은 찾아왔다.

"엄마, 이 형아 쓱싹이 같아."

천진한 아이의 목소리가 생각을 끊자 워로드가 되물었다.

"…쓱싹이가 뭐지?"

풋! 당황한 아이의 엄마가 포크를 내려놓고 아이의 입을 막는 동안 식탁에 동석한 이들에게서 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보. 쓱싹이는,"

"플럼!"

기어코 큰소리가 나온 식탁은 플럼이 매일 발을 동동거리며 식사를 하는 장소이자 워로드가 초대된 오늘의 만찬장이었다. 기실 이른 만찬은 이미 끝났고 식탁에 차려진 것은 달콤한 다과였지만.

"검은 솔이 달린 빗자루예요. 부엌 청소할 때 쓰는."

입이 막힌 플럼 대신 '쓱싹이'의 정체를 밝힌 매니시는 편한 자세로 턱을 괴고 워로드를 구경하는 중이었다. 그는 제 검은 머리칼을 집게손가락으로 잡은 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긍정이었다. 플럼이 그를 '쓱싹이'라고 부른 이유는 검은 머리칼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드세요, 백작님"

저 먹성 때문인 것 같으니까. 빙글거리는 낯으로 숙부가 권한 타르트는 감사 인사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워로드의 주위만 깨끗한 접시가 잔뜩 포진하고 있었다.

과연 우수한 세정력을 자랑해 이 댁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 '쓱싹이'와 닮았달까. 어린아이의 표현력에 새삼 감탄한 매니시는 새어 나오는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딱딱하게 얼어있던 가족들의 얼굴도 어느새 느슨하게 풀려있었다.

"저희도 사 온 거긴 하지만 입에 잘 맞으시면 좀 싸드릴까요?"

"아닙니다. 가족들도 단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매니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플럼을 등에 진 워로드의 시선이 식당을 나서는 그녀를 따라왔다.

매니시는 그를 한 번 돌아보고 알싸한 냄새를 따라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왜 나왔어."

황급히 돌아서는 자작의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매니시는 등 뒤로 슬쩍 감춘 아비의 손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담배 태우시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동안도 가끔 피웠다."

"그리고 하필 오늘도 피우시고요."

말이 없어진 자작의 옆에 다가간 매니시가 망설이다가 물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랐다는 듯 자작의 대답은 곧바로 돌아왔다.

"오, 그런 게 아니란다.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단장님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하. 아비가 걱정스런 일이 있다는데도 얼굴이 확 살아났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게냐?"

"네."

짓궂은 질문에 돌아온 여상한 대답은 깊은 미소와 함께였다. 자작이 딸의 얼굴에 맺힌 미소를 낯선 기분으로 관찰할 때, 매니시는 워로드를 떠올리고 있었다.

'미안해.'

'갑자기 뭐가요?'

의무실에서 한나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마차에서의 기억이었다. 뜬금없는 사과에 되묻자 그는 침통한 얼굴로 대답했었다.

'나 때문에 비도 많이 맞고…'

'비 내리는 게 왜 단장님 때문이에요.'

'바닷물에 휩쓸리고.'

'자연재해였잖아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잘게 부딪치던 몸, 귀 옆에서 들리던 나직한 한숨 소리, 매니시는 오랜만에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살아가면서 부닥칠 모든 문제를 막아줄 순 없어요. 비에 젖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금방 털고 일어날게요. 단장님은 그냥 옆에만…'

'싫어.'

'네?'

어깨에서 머리를 떼고 바라본 그의 눈은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불꽃처럼.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제 몸으로 감싸 안고 바람이 불면 앞서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내가 맞을 거까지 자기가 다 맞을 거라고 바보같이 우기는 사람을."

"저 무뚝뚝한 남자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네. 융통성이 없어서 아마 진짜 그대로 하려 들걸요?"

"그래…?"

말을 흐린 자작은 이내 달아오른 담뱃대를 저택 외벽에 툭 쳐서 털어냈다. 떨어지는 불씨처럼 저녁 하늘에 붉게 수놓아진 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단장님이 혼자 비를 맞게 두지 않고 제가 꼭 붙어서 두 손 더할 거예요. 빗물에 좀 젖어도 따뜻할 수 있게."

말마따나 저택 외등의 노란 빛이 내려앉은 하얀 머리는 따뜻해 보였다. 아비로서의 콩깍지를 제하더라도 남 주기엔 너무 아까운 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좀 예뻐해 줘요, 아빠."

하아, 알싸한 연기 대신 깊은 한숨이 허공에 흩어졌다. 한숨의 주인은 졌다는 듯 미소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같이 갈 데가 있다. 들어가서 그 사람도 데려 나오려무나."

갑작스러운 제의였지만 워로드의 적극적인 동의로 세 사람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매니시가 그를 데리러 식당에 갔을 때 그는 파리해진 낯빛으로 그녀를 반겼다. 아쉬워하는 숙모와 플럼의 얼굴에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발랄함이 그와는 영 맞지 않는 모양이었다.

"걸으면서 제가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딴생각에 빠져있던 매니시를 깨운 것은 자작의 목소리였다. 뜬금없는 밤 산책에 의아했던 매니시는 그가 지금 꺼낼 이야기가 이 산책의 목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워로드의 반응을 살피기도 전에 그에게서 긍정의 답이 흘러나왔다. 자작은 작은 음성으로 옛 기억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백작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때의 얘기입니다. 협정이 체결됐던 그해 여름, 레우카스는 부상자와 병자로 넘쳐났습니다."

워로드와 매니시, 둘 다 예상치 못한 화두였다. 그러나 자작의 입술과 발은 멈칫거리거나 빠르게 쫓아오는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나아갔다.

"그쯤에는 사실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끊임없이 병자를 받아들인 탓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전염병이었죠. 정말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든 워로드는 앞서 걷는 자작에게 안 보일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자작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병의 치사율입니다. 당시 북부 인구를 4분의 1이나 줄인 그 전염병이, 사실 관리만 해주면 열에 아홉은 살 수 있는 병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제국 남부 같은 풍요로운 곳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겁니까?"

"무지와 돈 때문이죠."

낮 동안 달궈진 땅 위로 찬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어쩌면 이 밤에 어울리는 스산한 이야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매니시도 잘 아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영주들은 병자를 추방하고 오염된 구역에 불을 놓기 바빴고, 병은 공포와 함께 확산됐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고 대응할 시간 따윈 없었죠. 우리가 그 병을 상대할 줄 알게 됐을 땐,"

"돈이 떨어졌군요."

워로드가 끊어진 말을 이어받았다. 당시 레우카스의 선택은 아주 이례적이었던 만큼 사교계의 식지 않는 안줏거리였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는 다수의 귀족에 포함되지 않는 워로드는 늘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왜 황성에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울컥한 매니시가 주먹을 움켜쥐고 입을 열려는 찰나였다. 앞장선 자작의 발은 멈춰있었다.

그제야 매니시의 시야에 달라진 풍경이 보였다. 큰길을 따라 걷던 그들은 어느새 좁은 골목의 외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도 아는 곳이었다.

"여긴..."

좁고 초라한 문 옆에는 현판이 걸려있었다. 워로드가 현판에 써진 글자를 읊었다.

"전쟁 피해 구호 모임."

"여긴, 수도에 오신 후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단체예요."

자작은 뒤에서 매니시가 설명하는 소리를 들으며 열쇠를 돌렸다. 끼이익, 오래된 문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종이 냄새가 가득한 어두운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작은 들어오라는 말을 흘리고 어두운 공간을 제집처럼 다니며 방 안의 불을 밝혔다.

파앗, 한순간 환해진 방 안에서 쏟아진 빛이 어두운 골목까지 밝히고 있었다.

드러난 공간은 '전쟁 피해 구호 모임'이라기보다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었다. 칠이 안 된 칙칙한 내벽, 수납장 대신 들어앉은 듯한 상자 더미, 바닥에 떨어진 종이와 잡다한 물건들, 거대한 테이블에 쌓인 서류. 정리나 질서라곤 털끝만치도 찾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 혼란스러운 공간으로 먼저 발을 내디딘 워로드는 곧장 위화감을 느끼고 눈동자를 굴렸다. 허술한 보안, 초라한 입구와 달리 자작이 건드리고 다닌 것은 마법등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비싼 물건들이 꽤 보이는군요."

사무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커다란 테이블, 그 위를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큰 까마귀 깃털로 만든 펜, 마법등의 쨍한 빛을 은은하게 품어내는 종이까지 모두 최고급 품질의 물건들이었다.

눈치 없는 워로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똑같았다, 황제의 집무실에 있는 물건과.

"그렇습니까? 후원하는 분 취향이 좀 고급스러운 편이시긴 하죠."

발에 밟힌 종이를 주워들며 사무실의 더러운 환경에 감탄하던 매니시의 뒤로 문이 닫혔다. 그녀는 문을 잠그는 자작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디 가요?"

"예를 들어, 지금 들고 있는 종이."

워로드의 대답에 매니시가 들고 있던 종이를 살폈다. 전쟁고아를 돌보는 사설 기관의 목록이었다. 발자국이 찍혀있긴 했지만 탄력 있고 부드러운 감촉이 상품의 종이 같긴 했다.

테이블에 다가가 서류를 든 워로드가 말했다.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늘어져 있고, 마법등을 사용할 정도로 자본이 탄탄한 단체의 사무실이 너무 허름한 곳에 있군요. 보통은 종이를 싼 걸 쓰고 사무실에 더 투자하든가, 양쪽 다 아껴서 자금을 운용하든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순히 인정한 자작은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을 줍고 있었다. 종이는 뚜껑이 없는 폐지함에 넣고 정체 모를 물건들은 주워서 품에 끌어안았다.

"평범한 모임이라면 굳이 낡은 방을 구해서 방음 마도구를 문 위에 달 필요가 없었겠죠."

벽 한편에 놓인 '기부 물품' 상자에 끌어안은 것들을 쏟아 넣은 그가 그들이 들어온 문 위를 가리켰다. 문틀 위에 평행하게 붙은 봉에 은은한 빛이 걸려 있었다. 마치 커튼처럼.

공작가에서나 볼 법한 특이한 마도구의 형태에 매니시의 눈이 커다래졌다.

"아버지?"

오늘만 몇 번이고 부른 호칭이었다. 당황한 딸과 눈이 마주친 자작은 어깨를 으쓱이며 테이블에 다가섰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왜 황성에 구호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끝났던가요?"

쿵, 바닥에 떨어진 서류 묶음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자작이 이번에 한 일은 테이블을 치우는 일이었다. 테이블의 무늬가 안 보일 정도로 쌓여있던 온갖 것들이 자작의 발치로 떨어지고 있었다.

자작의 수고로 깨끗해졌던 바닥이 혼잡했던 첫인상대로 원상 복귀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매니시는 대청소 날이면 아버지가 집 밖으로 쫓겨났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대답부터 하자면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해야겠군요. 우리는 전서도 전령도 보냈었습니다."

자작이 테이블의 모서리 아래로 손을 집어넣자 찰칵, 소리가 나며 테이블이 들썩였다. 정확히는 자작이 선 쪽만 들리고 반대쪽은 내려간 모습이었다.

미처 치우지 못한 깃펜 몇 개가 기운 면을 따라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작은 신경 쓰지 않고 테이블을 들어 올렸다.

"무시당했을 뿐."

빙그르르, 탁, 찰칵.

가운데 축을 두고 반 바퀴 돈 테이블이 다시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드러난 테이블의 밑면은 전혀 다른 생김새였다. 자작은 윗면이 된 테이블 밑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덧붙였다.

"종전 후 따지듯 여쭸을 때, 뒤늦게 사실을 안 폐하께선 애석해하며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간 워로드가 입을 열었다.

"확실히 폐하의 취향이시군요."

상하가 반전된 테이블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테이블처럼 나무로 된 테두리 안, 무늬 없는 까만 면은 종이나 필기구 따위를 올려놓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종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위에 하얀색으로 그어진 복잡한 선과 글씨, 달랑거리며 붙어있는 누군가의 초상화가 시선을 끌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후원자가 폐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게,"

테이블의 중심에는 수년째 황성 검문대장을 역임 중인 아젠트 백작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초상화에 그려진 인물 역시 그였다.

부리부리한 눈에 긴 인중, 더부룩한 수염을 멋들어지게 다듬은 중년은 그림 속에서도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제 가슴 아래 속속들이 적힌 죄명을 모르고서 말이다.

백작이 황성의 검문대장으로 지내며 누락시킨 정보는 한둘이 아니었다. 척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내용에 매니시와 워로드의 시선이 마주칠 찰나, 뜸을 들이던 자작의 입이 다시 열렸다.

"로얄 수사단의 새 임무입니다."

"…새 임무요?"

"새 임무."

"새 임무?"

마지막으로 되물은 이는 워로드였다. 그제야 잊고 있던 황명을 떠올린 워로드는 머리를 긁적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자작의 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아젠트 백작이 누락시킨 정보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평민 상단주의 신고부터 한 영지의 구호 요청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 그 사이에서 한 가지 접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누락된 정보들로 이득을 보는 사람."

"아젠트 백작 뒤에 배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단다."

"그게 누군데요?"

매니시의 질문에 자작의 손가락이 테이블에 붙어있던 아젠트 백작의 초상화를 가리켰다. 이어진 선을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자작이 입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출납원장 자리를 탐내오던 아젠트 백작에게 최근 그 자리를 추천해준 귀족이면서, 평민 상단주가 신고한 상단에 지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레우카스의 구호 요청이 무시된 덕에 헐값에 영지를 사드릴 수 있었던 자..."

"…마리티무스 후작?"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위로 목 졸린 속삭임이 던져졌다. 자작은 다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억눌린 음성으로 긍정했다.

"그래, 그자."

영지를 매매할 당시 자작의 선택을 꾸짖으면서도 노잣돈을 따로 챙겨줬던 후작이 떠올랐다. 귀족이라는 이름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진 그답게 금화가 넉넉하게 담긴 돈주머니였다.

영지를 잃어도 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니 품위를 지키며 떠나라 말했던 후작.

그 돈을 영지 대금과 마찬가지로 신전에 두고 떠난 자작과 귀족으로서의 가치관은 다르지만, 마음 한편으론 그를 인정하고 존경했다. 누구보다 귀족다웠던 인자하고 위엄있는 그를.

레우카스 자작은 누구보다 그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정황 증거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그 증거를 찾으라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인 자작은 그들을 이끌고 방 안쪽으로 향하며 말을 이었다.

"정확히는 증거를 찾아서 체포하는 것까지가 로얄 수사단의 임무입니다. 고위 귀족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의 말대로였다. 후작 정도 되는 귀족을 건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분상 평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이해관계로 얽힌 귀족도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다만, 황제 직속을 의미하는 '로얄'의 이름을 단 평민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신분의 격차가 무색해질 만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면서도 귀족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이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황실 혈통의 영웅.

그것이 로얄 수사단이었다.

'내가 수사단에 굳이 로얄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이유를 모르겠나?'

황제와의 지난 대화를 떠올린 워로드는 수사단의 창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가 그러는 동안 칠이 벗겨진 문 앞에서 열쇠를 찾고 있던 자작이 다시 입을 열었다.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아젠트 백작을 조사하면서 잃은 조사원이 몇 있어요. 사실 이 일에 매니시가 끼어들지 않길 바랐지만..."

짤그락, 열쇠 꾸러미에서 하나를 꼽아 든 자작은 흐린 말과 달리 망설임 없이 열쇠를 돌렸다.

"전 하고 싶어요."

잠금쇠가 돌아가는 단호한 소리와 함께 곁방의 문이 열렸다.

'폐하, 제 딸 아이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 애가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명을 거둬주십시오.'

'그럴 순 없네. 이 일은 매니시 양이 꼭 함께해야 하는 일이야.'

자작은 황제의 속만치 어두컴컴한 방에 발을 들였다. 끼이익, 낡은 나무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다. 익숙한 소리에도 괜히 움츠러든 자작이 뒤를 돌아봤다.

뒤따라오는 남녀가 보였다. 반 발짝 앞선 남자와 금세 따라잡는 여자, 다시 정면을 향한 자작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맺혀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

끼이익, 끼익, 뒤에서 비치는 어스름한 빛에 의지해 융단이 깔린 계단을 두 개 정도 내려가자 반짝,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우선 지금까지 모은 자료부터 인계해드리죠."

그와 함께 자작의 목소리에도 반짝 불이 들어왔다. 워로드는 처음 본 자작의 미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차마 신경 쓸 상황은 못 됐지만, 그는 매니시의 아버지였으니까.

3단짜리 짧은 계단을 내려선 자작은 두 걸음 정도 물러나 그들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방이었다. 아니, 방이라기보다는 창고. 짐이 가득 든 창고였다.

매니시는 맞은편 벽을 채운 철제 선반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반지하의 서늘한 기운에 몸이 떨렸다.

"이 물건들은 다 뭡니까?"

때맞춰 선반을 가리킨 워로드가 매니시에게 어깨를 붙여왔다. 맞닿은 팔에서부터 온기가 퍼져나갔다.

"기부된 것들입니다. 곧 필요한 곳들로 보내질 예정이죠."

"표면적인 활동을 계속 유지하려면 일이 꽤 많겠군요."

워로드는 가득 찬 선반 위부터 오른편에 쌓인 자루들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밀가루 포대와 안에 든 것을 알 수 없는 올록볼록한 베자루들이 창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뇨. 이것도 우리 모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있거든요."

"익명이요?"

"고급스런 취향의 후원자 말이다. 비켜 보렴."

매니시를 물러서게 한 자작은 볼품없이 쪼그려 앉아 계단에 융단을 고정하기 위해 박아놓은 핀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단단해 보였던 핀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자작의 손에 쏙쏙 뽑혀나갔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 인계."

"자료가 이런 데에 있어요?"

잔뜩 부푼 목소리와 함께 융단이 걷혔다. 갈라진 곳 없이 관리가 잘 된, 그저 평범한 나무 계단이었다. 서랍으로 쓸 수 있다는 것만 빼면.

드르륵, 마치 나무가 깨져 나간 것처럼 거칠게 나 있는 홈을 잡고 당기자 비밀 서랍이 열렸다. 그곳에는 매니시가 기대하던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조사 초기엔 도둑이 꽤 드나들어서 이게 아니었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죠. 아무래도 상대는 폐하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사 철저한 걸 좋아하는 후작이라면 그럴만합니다. 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진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의외지만, 이미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면 절대 꼬리를 남길 이가 아니죠. 아젠트 백작도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포섭해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약하다?"

"맞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준비해놓을 패는 아니죠, 아젠트 백작은."

자작은 자료 한 묶음을 워로드에게 건네며 말했다.

"몇 푼이 아닙니다. 후작의 수입 구조론 설명이 안 되는 비자금이 있었어요."

펄럭, 서류를 넘기는 워로드의 손길이 바빠졌다. 잠시 후 자료의 한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워로드가 입을 열었다.

"이건…"

"예, 후작이 쿠피오 산맥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마성구 관리는 특별히 엄격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들키지 않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성구도 엄연히 자연이 주는 부산물입니다. 때에 따라 채집량이 천차만별이죠. 그 때문에 황성에서 고용한 마학자가 분기별로 산맥의 생태 조사를 나오는데 후작이 마수 몰이를 해 개체 수를 속인 모양입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가관이었다. 제국의 끝에서 당당하게 벌어진 일들에 워로드가 실소를 흘릴 때였다.

"이건 왜 아무 설명이 없죠?"

어느새 다른 자료를 손에 든 매니시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탓에 고개를 기울여 그녀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워로드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의아한 자작이 매니시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았다. 종이의 상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아젠트 백작 누락 정보 목록 >

조사원들이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취합하여 그가 작성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자작에겐 익숙한 자료였다. 아젠트 백작이 중간에서 누락시킨 신고 내용과 신고자, 누락시킨 사유를 정리해놓은 자료에서 빈 곳이라고는 한 곳뿐이었다.

"코로네 남작부인 말이니?"

"네."

신고자만 덜렁 쓰인 서류의 여백, 그 작은 공간이 세 사람 사이에 놓인 끈을 팽팽히 당기고 있었다. 자작은 어느새 달아오른 창고의 공기를 느끼며 입을 열었다.

"그게 전부였단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자작은 조사원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처음 그 이름을 발견했었다. 다른 신고자들과 달리 버려진 신고서나 기억하는 이 하나 없이 방문 기록만 달랑 남은 여자.

"우리가 조사한 바로 아젠트 백작은 부하들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 버려진 신고서들도 대부분 검문대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용 폐지함에 있었지. …그런데 그녀의 것만 찾을 수 없었어. 신고서도, 목격자도."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받은 편지에는 분명히…!"

"그래. 나도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단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번에도 마리티무스 후작의 짓일까요?"

근심 어린 매니시의 질문에 워로드가 대답했다.

"글쎄. 가능성은 높지만 단정할 순 없어. 행동 패턴이 변한 걸 보면 아젠트 백작이 사사로이 벌인 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알려야 할까요?"

"좀 더 확실해지면."

워로드의 대답에도 매니시는 싱숭생숭한 마음을 좀처럼 다잡을 수 없었다. 마리티무스 후작에게 거둬졌다는 그, 언제나 마리티무스 영애의 옆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그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때 우렁찬 박수 소리가 상념에 잠긴 그들을 깨웠다. 레우카스 자작이었다.

"아무튼 일단 이 자료들을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곧 모두 폐기처분 될 예정이거든요."

"폐기처분이요? 왜요?"

"인계도 끝났고, 워로드 백작께서 다녀가셨단 소식이 돌면 또 한동안 도둑이 드나들 테니까 말이다. 여태 이 비밀 공간이 들킨 적은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안 돼."

"돼요."

"안 돼!"

"된다니까요! 정신 사나우니까 앉아요."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자리에 앉은 워로드는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거울에 비친 매니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기 나는 어깨를 드러낸 와인색 드레스는 그녀를 한층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이게 나아요, 아까 그게 나아요?"

"둘 다 이상해."

그러나 대답은 마음과 다르게 퉁명스러웠다. 그를 향해 홱 돌아선 매니시가 다시 물었다.

"정말요?"

그는 마주치는 시선도 피한 채 재차 대답했다.

"그래. 그러니까 가지 마."

"그래. 그러니까 가지 마."

"흐음… 거짓말 같은데."

그녀의 음성이 가까워져도 그는 꿋꿋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을 셈이었다. 턱에 닿은 작은 온기만 아니었다면.

요지부동이었던 그의 고개는 매니시의 손가락 하나에 맥없이 방향을 돌렸다.

"워로드, 정말 나 안 예뻐요?"

"…예뻐."

항복의 말은 지체 없이 튀어나왔다. 그제야 만족한 매니시의 입가에도 활짝 미소가 피어났다. 워로드는 덩달아 솟구치려는 입꼬리에 단단하게 힘을 주고 말했다.

"이건 반칙이야."

"그러니까 왜 심통을 부려요. 나름 전투복 고르는 건데 성심성의껏 봐줘야죠.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굴면 바이올런스 경이 단장님한테 질릴걸요?"

매니시는 미련 없이 돌아서며 근래에 빠져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녀가 원한 반응은 바로 돌아왔다.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다니, 참 묘한 대답이었다. 잘게 웃은 매니시는 탁자에 놓인 장신구를 머리에 갖다 대며 거울 속의 그에게 말했다.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 아니에요?"

거울 속의 그가 마침내 속을 드러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향 선을 그리는 그의 눈썹이 안타까웠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워로드의 얼굴은 조금 전까지의 장난기를 모두 털어버린 후였다. 바로 그녀의 뒤에 멈춰 선 그가 거울에 비친 매니시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매니시, 제발. 걱정돼서 그런 거 알잖아."

그의 두 손 안에 잡힌 매니시의 어깨는 유난히도 가녀려 보였다. 그러나 그의 손등 위에 닿은 하얀 손은 가녀린 생김새와 다르게 거칠고 단단한 느낌이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위험한 곳에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위험한 곳은 아니었다. 위험한 인물이 있을 뿐.

"내가 보기엔 위험투성이야."

다른 방향에서 시작됐던 수사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코로네 남작부인을 끌고 갔던 몽타주 속 남자, 은밀하게 수소문 중이던 그를 드디어 찾았다는 소식이.

그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조심할게요.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나 확인만 하고 올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 난 솔직히 네가 이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건 반대야."

"이미 너무 지체한 사건이에요. 한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또각, 돌아선 그녀의 얼굴이 그를 향했다. 그림자를 드리운 얼굴은 지나치게 상냥했다. 다른 남자를 떠올리는 것치고.

워로드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네가 그놈 신경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역시 안…"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리고 질투는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매니시는 짓궂게 입술을 모아 쪽쪽거리는 소리를 냈다. 바이올런스와 워로드의 얼굴선이 겹쳐졌던 순간을 좀 더 생생히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녀의 장난스러운 얼굴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어진 목소리가 꽤 단호했기 때문이었다.

"말 돌려도 안 통해. 이 일에서 빠져. 이건 단장으로서의 명령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을 감싼 공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었다. 매니시가 한 걸음 물러나자 워로드의 고집스러운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발을 내딛는 대신 주먹을 꾹 쥐고 말을 이었다.

"전쟁 피해 구호 사무실에 또 도둑이 들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놈들은 절대 방심하지 않아. 자기네 뒤를 캐내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죽어 나간 조사원 수 봤잖아."

"그래봤자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고 후작은 조사원의 배후를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위험한 일 없다고요!"

"네가 가서 뭐 얼마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냥 포기해!"

쩌적, 얼어붙은 공기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릴 듯했다. 그 균열로 불어닥치는 뜨거운 바람이 방 안의 기류를 순식간에 바꾸고 있었다.

워로드는 달라진 공기에 땀을 빼며 표정이 변하는 매니시를 지켜봤다. 방금 한 말은 물론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그녀의 대단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그게 문제였다. 그녀는 또 넘치도록 임무를 완수하고 올 텐데, 이 일은 훌륭히 해낼수록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뱉은 말이 어쩐 일인지 역효과를 불러온 것 같았다. 시시각각 변한 매니시의 얼굴은 분노를 지나친 후로 열정에 다다른 상태였다.

"두고 봐요. 내가 제대로 알아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씩씩거린 매니시는 그대로 워로드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렇다, 그는 건드리고 만 것이다.

"매니시?"

이 시대에 최고로 성공한 여자라는 평을 듣는 '아가씨' 매니시 레우카스의,

"황명과 상반돼서 단장님 명령은 못 들어드리겠네요!"

자존심을.

"매니시!"

이어진 행동은 꽤 쪼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매니시는 문을 나서기 전 이렇게 말했으니까.

"임무 성공하고 올 때까지 연락하지 마요."

워로드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혹시나 임무에 실패하면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소린가?

"…매니시!"

급하게 쫓아 나간 워로드가 매니시의 뒷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상히 걷고 있었다.

그 순간 워로드는 깨달았다. 그녀의 임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야 할 때라고.

"그럼 그 애를 데려가. 도움이 될 거야."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야 단호한 고개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누구? 라고 써진 듯 의아한 시선에 워로드의 입이 열렸다.

"그레이프 양?"

높고 가녀린 음성에 기억에서 헤어나온 매니시가 고개를 들었다. 며칠 전 워로드의 앞에서 뽐냈던 와인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앞에는 잘생긴 흑발의 남자 대신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발랄한 목소리로 입을 연 그레이프도 함께였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아젠트 영애. 평소에 흠모하던 자리라 떼를 써서 따라왔는데 혹 기분 상하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듣던 대로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방긋방긋 웃는 그레이프의 앞에서 낯선 여자는 떨떠름한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투명한 심이라도 끼워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말린 머리를 늘어뜨린 통통한 체구의 여자, 아젠트 영애였다.

그녀는 그레이프의 재빠른 처신 덕에 불청객에 대해 불만을 토할 수 없게 되자 통통한 입술을 내려뜨리고 환영의 인사를 웅얼거리고 있었다.

워로드의 장담대로 톡톡히 활약 중인 도우미를 흘깃 본 매니시가 입을 열 차례였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아젠트 영애."

매니시가 입을 열자 싱그러운 공기에 날 선 긴장감이 실렸다. 몇 안 되는 초대객의 시린 눈동자가 모두 그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찍 온 덕에 눈동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애초에 환영받으리란 기대를 품고 온 곳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이들이 글램을 주축으로 모인 독서 모임의 영애들이고, 이곳이 아젠트 백작의 저택인 이상.

"별말씀을요. 이런 여인들의 사교 활동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부득불 초대장을 보내 오히려 죄송한걸요."

생기를 되찾은 영애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웃음기 섞인 음성과 어울리자 묘한 분위기를 냈다. 촤륵, 동시에 힘차게 펼쳐진 부채가 여인들의 얼굴 위에서 살랑였다.

면전에서 비웃는 것만큼이나 노골적인 행위였다. 안 봐도 가려진 하관들이 그리고 있을 곡선이 눈에 선했다. 아젠트 영애가 확인 사살하듯 덧붙였다.

"정말 오실 줄 아무도 예상 못 했답니다."

"그것도 개인 시녀까지 달고 말이에요."

아젠트의 뒤에 서 있던 여인이 들으라는 듯 중얼거리자 지휘자가 조율한 것 같은 절제된 웃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그중 몇은 하녀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매니시도 알 수 있었다.

"어머, 누가 봐도 신분을 넘어선 우정 아닌가요? 레우카스 가에 시녀를 고용할 만한 재력이 있을는지..."

"풋, 그렇다면 정말 신분을 넘은 우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껍데기만 남은 귀족 영애보다는 영웅을 보좌하는 기사의 누이가 나은 자리니까요."

"들리겠어요. 푸흡."

"어쨌든 오셨으니 저쪽에 앉으세요."

아젠트는 뒤에서 들리는 조롱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미소 띤 얼굴로 자리를 권했다. 친절한 안내도 없었다. 매니시와 그레이프는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구석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불쾌한 환영과 함께 다과회가 시작됐다.

쪼르륵, 성의 없는 하녀의 손길에 찻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다. 매니시는 수군거리는 무리의 소리보다 그 청명한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키득키득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까득까득 비스킷 씹는 소리로 덮어버린 그레이프가 한껏 낮춘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노골적이네요."

"끼리끼리 모였으니 눈치 볼 사람이 없겠죠."

그녀와 그레이프는 기준 외의 인물일 테고. 하지만 그것은 그녀들도 마찬가지였다. 뒤이어 도착한 초대객들이 그들을 보는 족족 코웃음을 쳐도 전혀 기죽지 않는 매니시와 그레이프의 모습에 무리의 관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주목받고 있어서 슬쩍 빠져나가기도 어렵겠어요."

"기회를 봐야죠. 어쩌면, 이 분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누군가를 반기는 아젠트의 음성이 들렸다. 대화가 끊긴 두 사람은 다과회의 바뀐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을 향하던 웅성거림은 어느새 반가운 기색을 띠고 새로운 방문자를 향한 채였다.

매니시도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시선의 끝에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글램이 서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의 관심을 독식하려는 듯 과장스레 웃던 그녀와 매니시의 눈이 마주친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와인색 드레스를 입은 매니시와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글램, 흔하지 않은 백색의 모발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비슷해 보이게 만들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뇌리엔 엄청난 착각이 진실처럼 똬리를 틀었다.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이로 구분 짓지 않고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다. 진짜와 가짜로.

귀하고 좋은 것은 언제나 복제품이 존재했으니까.

이 경우 진짜로 보일 사람은 명백히 그녀였다. 눈이 시릴 정도 빨간 드레스를 아름답게 소화하고 있는 마리티무스 글램. 사람들은 황홀한 눈으로 그녀에게 찬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달콤한 말이 저를 향해 쏟아지자 물을 맞은 꽃처럼 점점 싱그러워졌다. 한순간 떠올랐던 날카로운 기운은 환상처럼 자취를 감춘 채 그녀가 매니시에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레우카스 영애."

"마리티무스 영애께선 그새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공간의 끝과 끝을 차지한 두 여인은 관중을 사이에 두고 인자한 미소를 띠었다. 매니시는 그것이 마치 폭풍전야처럼 느껴져 각오를 다졌다.

아젠트 백작 영애의 다과회에 참석하기로 한 순간부터 계속된 각오였다. 그도 그럴 게 온통 자신의 추종자들만 모아놓은 다과회는 글램의 놀이터나 다름없을 테니까.

그러나 공들여 다진 각오가 무색하게 글램의 시선은 매니시에게서 쉽게 떨어져 나갔다. 자리에 앉은 글램의 주변으로 영애들이 모여들었다. 마치 다과회의 중심이 통째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처음보다 더한 외곽이 되어버린 매니시의 자리로 찬 바람이 불었다. 매니시는 식어버린 눈동자로 거대한 장막처럼 드리운 여인들의 목소리 너머 반짝이는 글램을 보고 있었다.

"글램 영애, 마리티무스 령에 '만찬'이 문을 열었다면서요?"

간과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린 것은 그때였다.

"저도 들었어요. 책 속에 나왔던 북부 요리만 판매한다고."

"영애께서 메뉴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 중인지 몰라요. 저도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전 이미 다녀왔어요."

좌중에서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 나오자 마지막으로 말한 영애의 콧대가 슬쩍 올라갔다. 그녀는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쏟아지는 질문에 뿌듯한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다.

"수도의 웬만한 식당보다 더 고급스럽더라구요. 밖에서 침 흘리며 구경하는 평민들만 빼면 모든 게 정말 완벽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곧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가야 해요."

손가락까지 흔들며 늘어놓는 것치고 실속 없는 내용에 몇몇 얼굴에 비웃음이 걸릴 때, 매니시는 몇 없는 정보를 머릿속에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었다.

'만찬'은 마리티무스 령에 문을 연 고급 식당이다. 매니시의 소설에 나왔던 북부 요리를 선보이고, 그 메뉴 선정에는 마리티무스 글램의 입김이 닿았다.

감히. 그렇게 생각하며 헛웃음을 터뜨리던 매니시는 옆에서 느껴지는 진동에 고개를 돌렸다. 진동의 근원지는 그녀 못지않게 얼굴을 굳힌 그레이프였다. 부들부들 떨리는 그레이프의 손을 바라보던 매니시가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왜 그래요?"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에 흠칫 놀란 그레이프는 얼떨결에 진심을 털어놓았다.

"너무 분해서 그래요."

"뭐가요?"

그러나 깜빡이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진한 눈동자를 보자 말문이 막혔다. 저 까만 눈동자에 담긴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그레이프가 속속들이 읽었다는 사실이나, 심지어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작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그레이프의 입은 헛소리를 내뱉었다.

"…이딴 다과회에 나온 쿠키가 생각보다 그럴듯해서요."

"걱정 마요. 그레이프가 만든 것만 못하니까. 진심이에요."

확실히 그레이프의 쿠키만 한 메뉴는 없을 것 같았다. 맛으로도, '아가씨'가 고를만한 메뉴로도.

언젠가 인신매매단의 감옥에서 나눠 먹었던 쿠키를 떠올리는 매니시의 얼굴에 시원한 미소가 떠올랐다. 헉, 헛숨을 들이킨 그레이프의 얼굴은 발긋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내심 제 헛소리에 감탄한 그레이프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음성은 생각보다 크게 주위를 울렸다.

"맞아요. 진짜는 다른 법이니까!"

"뭐가 다르단 거죠?"

갑자기 끼어든 목소리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의 고개가 소리를 향했다.

"아젠트 영애."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두 분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요."

"영애의 파티가 아름답고 훌륭한 덕분이죠."

모범 답안을 외운 매니시와 아젠트의 사이에 형식적인 미소가 오갔다.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다. 넓게 펼쳐진 야외 테라스에 놓인 하얀 테이블들, 아름답게 치장한 아가씨들, 커다란 나무 그늘에 끼얹은 빛의 부스러기, 장소만은 넘치도록 훌륭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아젠트 영애는 의도를 알 수 없는 말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매니시와 그레이프의 주위로 비어있는 자리들을 보며 한숨을 쉬는 얼굴은 진심으로 안타까워 보였다.

"그런 것 같아요. 참석 못 한 분들이 아쉬워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아젠트 영애의 입가에 불길한 미소가 떠올랐다.

"레우카스 영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리가 아깝다고!"

"…그렇죠?"

"그럼 양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제가 아끼는 이들에게도 이 기분을 누리게 해주고 싶거든요."

말을 마친 아젠트의 고갯짓에 다가온 이들은 주변에 시립해 있던 하녀들이었다. 털썩털썩, 방정맞게 앉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향한 비웃음도 들렸다.

수준에 딱 맞네, 누군가의 음성이 그렇게 말했다.

매니시가 자신을 떠나있던 오만한 눈빛과 다시 마주한 것은 그 순간이었다. 기묘하게도 조롱의 순간 매니시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고한 시선이 실은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달그락, 소리를 내 시선을 끈 매니시가 천천히 찻잔을 기울였다. 다들 뭔가 기다리듯이 그런 그녀를 주목했다. 그리고 마침내 찻잔이 다시 테이블에 놓였을 때, 매니시는 웃고 있었다.

"빈자리가 차니까 차 맛이 더 훌륭해졌네요."

글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매니시가 한 말이 '만찬'의 대사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주인공이 귀족사회 밖의 세상과 처음으로 소통하는 장면에서 나온 이 대사는 일부 귀족들의 비난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적어도 동석한 하녀들의 차를 챙기고 있던 그레이프에게는 사랑만 줘도 부족한 대사였다. 그레이프는 눈앞에서 느닷없이 실현된 명장면에 벅차 급하게 차를 들이켜고 있었다. 명장면을 오롯이 함께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평범한 홍차는 어쩐 일인지 평소보다 향긋하게 입안을 감쌌다.

"아, 정말..."

매니시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밀려든 찻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과정은 황홀했다. 씁쓸한 뒷맛도 어딘지 짜릿하다고 생각할 때쯤, 그레이프는 조용해진 주변을 살필 수 있었다.

매니시가 그들의 짓궂은 장난을 피하려고 '만찬'을 인용한 탓에 좌중의 시선은 호의와 적의가 섞여 혼잡스러운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입을 연 사람은 글램이었다.

"레우카스 영애도 좋아하나 보죠? '만찬'이요. 대사도 외울 정도로."

"좋아하지만, 딱히 대사를 외운 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게 진짜 작가의 위엄이지! 속으로 환호한 그레이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매니시 반격이 이어졌다.

"마리티무스 영애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하기야,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쓸 수 있었겠죠?"

글램은 대답 없이 그림 같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불쑥 심술이 치솟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글램이 스스로 '아가씨'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다.

"그럼 마리티무스 영지에 있다는 그 식당에서 호밀빵도 파나요?"

"아뇨. 아무리 소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게라도 가격대랑 안 어울리는 메뉴는 생략해야죠. 손님들을 위한다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가르치듯 난감한 얼굴로 대답한 글램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매니시의 어설픈 유도 신문 따위에 걸려들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니시의 반문에 지친 듯 글램의 상냥한 표정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무표정해진 글램의 얼굴은 제법 차가운 편이라서 다과회는 또다시 정적에 휩싸이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제 기억에 '만찬'에 나오는 음식들이 고급스러운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감자 수프 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고급 요리가 될 수도, 평범한 가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이 마음을 정했다면 양심에 따라 가격에 맞는 음식만 내오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자 수프는 메뉴에 있나요?"

"당연하죠. 최고급 감자로 만드니까요. 어디서도 그런 품질의 요리는…"

글램의 말을 끊고 끼어든 매니시의 음성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호밀은요? 고급 재료가 없었나요?"

그러나 글램의 인내심은 다해 가고 있었다. 그동안 누구도 그녀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글램의 인내심은 짧았다.

"그런 시꺼먼 걸 누가 먹어!"

버럭 소리를 지른 글램을 향해 놀란 시선들이 쏟아졌다. 그를 눈치챈 글램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을 표정을 다잡고 급하게 '…요.'를 갖다 붙였지만,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사이 훌륭한 연기자처럼 도로 상냥한 가면을 쓴 글램이 이어서 말했다.

"호밀빵은 전쟁이라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겨난 거친 음식이에요. 굳이 그런 것까지 재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가요? 전 비쩍 마른 노파가 배고픈 주인공에게 건넨 검은 빵 반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저도요. 전쟁에 휘말린 영애가 적령에 혼자 남겨져 두려움에 떨 때, 그녀에게 건네진 첫 호의였으니까요."

그레이프가 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하고 맞장구를 치자 조용히 있던 여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그 장면을 좋아해요. 그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감화되기도 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어쩐지 그걸 읽고 난 후부터는 평민들이 가여워져서…"

"물론!"

큰소리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막은 이는 글램이었다.

"저도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충고했었지만, 말을 듣지 않더라구요."

씁쓸한 미소, 살포시 숙인 얼굴과 여린 한숨은 오랜 시간 공들여 연습한 듯 훌륭했다. 글램의 가녀린 모습에 영애들은 식당 주인을 흉보며 그녀를 위로했다. 매니시는 극적인 어조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희극에 동참했다.

"오, 그랬군요. 직접 쓴 입장에서 참 안타까울 일이네요. 그런데,"

상큼하게 웃은 매니시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호밀빵은 평민들이 평소에도 먹지 않나요?"

"하, 그런 걸 왜 굳이…"

실소를 흘린 글램의 시선이 동의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른 영애들도 잘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그때 저들끼리 소곤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하녀들이 눈에 띄었다.

글램의 흔들리는 눈빛에 못을 박은 것은 그레이프였다.

"호밀이 더 저렴하니까 많이들 찾죠. 오빠한테 듣기로 북부는 더 하다면서요?"

"맞아요. 호밀은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니까 레우카스에선 없어서는 안 될 식량이었죠. '만찬'에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어서 북부인의 정취가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영애의 반응을 보니 마리티무스는 일반적인 북부와 상황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고도 네가 '아가씨'야? 매니시의 의심 어린 음성이 글램의 귀에는 이렇게 들리고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글램의 입은 머리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그린 듯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였다.

"마리티무스가 워낙 풍요로운 곳이라 식문화가 다르게 느껴질 만해요. 그래도 제가 어엿한 북부인이라는 사실에는 이상이 없어요. '만찬'은 제가 전시의 북부를 상상하며 쓴 글이니까요."

글램이 말을 맺자 마치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어리둥절한 그녀가 정적의 이유를 깨달은 것은 함성과 같은 안달 난 목소리에 이리저리 치인 후였다.

"드디어 솔직히 말씀해주시는군요!"

"아, 이런 날을 너무 기다렸어요. 그동안 대놓고 말씀을 안 하셔서 속으로 얼마나 애가 탔는지… 작가님!"

"그게, 좀 진정해요. 이건…"

북적북적한 소리에 글램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승냥이 떼처럼 몰리는 여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매니시는 만족했다. 그녀가 원하던 말을 들었으니까.

글램의 섣부른 인정은 '아가씨'의 베일이 걷히는 날 귀하게 쓰일 예정이었다.

"이럴 거면 토론할 책은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잘 됐죠, 뭐. 이참에 전 숨 좀 돌리고 와야겠어요."

그것은 일종의 신호였다. 다과회에 참석한 목적을 되살리기 위한.

매니시와 눈을 맞춘 그레이프는 그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마침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다. 주변의 눈치를 살핀 매니시가 의자를 슬쩍 뒤로 뺄 때였다.

"그러면 제가 안내르, 흡."

일어나려는 하녀를 붙잡아 앉힌 그레이프는 가루가 묻은 빈손을 털고 있었다. 들고 있던 쿠키는 하녀의 입을 막는 데 쓰인 후였다.

"괜찮아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쿠키 먹어봤어요? 꽤 맛있던데."

행동보다 한참은 늦은 질문이었다. 하녀는 이미 쿠키를 물고 있었지만 입이 막혀 그에 대해 타박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소리 없는 실랑이를 하는 동안 매니시는 조용히 테라스 계단을 내려가 멀어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을 텐데..."

저택의 외벽을 따라 코너를 돈 매니시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갈 문을 찾고 있었다. 며칠 전 이 집 문턱을 넘어 다시 나오지 않은 몽타주 속 남자를 찾기 위해서.

부스럭부스럭. 그때 어디선가 수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멈칫, 발이 붙어버린 매니시의 가슴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속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하녀 하나 없는 산책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생각하며,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잠시간의 침묵 후 매니시는 참고 있던 숨을 내뱉었다.

"…후우, 이래서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되는 건데."

방정맞게 울리는 심장박동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께에 손을 올린 매니시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앙증맞은 범인을 담고 있었다. 정원수의 나뭇잎 사이로 툭 튀어나와 흔들리는 꼬리는 다람쥐의 것이었다.

절로 지어지는 미소를 달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때였다. 싹둑. 소름 끼치는 날붙이의 소리와 함께 다람쥐가 중심을 잃은 것이다. 녀석은 곧 나뭇가지 째 아래로 추락했다.

싹둑, 투둑, 싹둑, 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쯤 매니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인영을 발견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넓은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커다란 가위로 가지를 쳐내는 뒷모습은 정원사의 것이었다.

숨을 죽인 매니시가 발을 내디뎠다. 열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그렇게 찾던 문이 있었다. 고용인들이 사용하는 작은 문이었다. 하지만 저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들켰다간 내놓을 변명이 더욱 궁색해질 상황이었다.

으직, 흙 밝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콧노래를 부르는 정원사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소리 없이 문을 여는 데까지 성공한 매니시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고 문을 닫았다.

달칵, 동시에 콧노래를 멈춘 정원사가 돌아본 곳엔 아무도 없었다.

"후..."

손 아래에서 콩닥거리는 심장을 느끼며 한숨을 쉰 매니시가 고개를 들었다. 곱게 개켜 놓은 세탁물이 가득한 방이었다.

숨을 고른 매니시는 볕 내음이 벤 듯 상쾌한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많은 선반과 옷걸이, 빽빽이 들어찬 알록달록한 직물에 시선을 빼앗긴 그녀가 안쪽에 있던 문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높은 목소리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매니시가 천장까지 닿을 듯 키가 큰 선반 뒤로 몸을 숨겼을 때 문이 열렸다. 흥분한 하녀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그 오이지가 너한테도 그랬어?"

"그렇다니까. 그 인간 지 딸은 그렇게 아끼는 주제에 딸뻘 아니면 쳐다도 안 봐."

오이지? 누구를 말하는 거지? 매니시는 선반에 쌓인 수건 사이로 손가락을 벌려 틈을 만들고 눈을 갖다 댔다. 바퀴가 달린 트레이에 세탁물들을 챙기는 하녀 두 명이 보였다.

"으으으, 변태 새끼. 오늘도 아주 신나서 여자 만나러 나가더라. 영지에 있는 마누라는 한 번도 만나러 간 적 없으면서."

"그럼 또 며칠 있어야 돌아오겠네? 오이지 딸만 얌전히 있어 주면 완전 딱인데!"

"그러게. 오늘 다과회 끝나면 걔도 며칠은 쉬겠지."

즐거운 상상에 웃음을 터뜨린 하녀들은 여유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들을 꼽아가며 물건을 챙겨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고개를 내민 매니시가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오이지가 아젠트 백작?"

그녀는 길고 홀쭉했던 아젠트 백작의 초상화를 떠올리며 하녀들이 나간 문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오늘 집에 없단 말이지..."

흐으음, 콧소리를 낸 매니시가 발걸음을 뗐다. 코로네 부인을 죽인 남자가 마리티무스 후작의 사람이라면 아젠트 백작의 성향상 며칠씩 집을 비울 리 없었다.

그가 아젠트 백작의 부하라고 가정하면 이 1층 어딘가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용인 전용의 좁은 계단은 매니시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백작가의 식구들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저 계단을 오를 절호의 기회인지도 몰랐다. 융단이 없는 복도에 발을 내딛자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가지 마.'

며칠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의 음성이 머리를 울렸다. 걱정에 차 만류하던 워로드의 목소리.

'매니시, 제발. 걱정돼서 그런 거 알잖아.'

끽, 매끄러운 바닥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꾼 구두가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계단을 등진 매니시는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를 향해 걸었다. 미련을 떨치려 머릿속으로는 남자의 몽타주를 그리고 있었다.

마흔 정도 된 중년, 요철이 심한 피부에 발달한 하관, 짙은 눈썹과 쌍꺼풀 짙은 눈, 레인은 기억해낸 남자는 꽤 선명해서 마주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주치기만 하면.

"얼굴만 기억하면 뭐 해. 여자밖에 없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여자밖에 안 보여?"

중얼거린 매니시는 여자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문에서 귀를 뗐다. 길게 이어진 복도가 암담하기 그지없었다. 인원 대부분이 다과회에 불려가 조용한 복도에 그나마 울리는 목소리라고는 여자의 것뿐이었다.

내가 간식거리 좀 챙겨올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매니시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그녀의 발이 계속 의식하고 있던 계단으로 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뭐라도 나와라."

집무실이라거나. 그건 너무 위험하려나.

계단을 올라 작은 문을 열고 나오자 융단이 깔린 따뜻한 복도의 끝이었다. 활짝 열린 창문에서 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주욱 훑어본 매니시는 조용한 복도로 발을 내디뎠다.

마주 보는 여섯 개의 문과 화려하게 꾸며놓은 중앙 계단이 얼핏 보였다. 첫 번째 문에 귀를 대본 매니시는 문고리를 살짝 잡아당겨 안을 확인했다.

문이 열리기까지 온갖 상상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텅 빈 방에 보물처럼 잠들어있는 사건의 실마리라든가, 최소 한 명의 귀부인을 살해했을 살인마가 눈을 번뜩이고 있다든가.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청소를 하고 있을 하녀를 상상하며 세 번째 문까지 허탕을 칠 때였다. 네 번째 문고리를 잡은 매니시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바이올런스 겨엉, 뭐 하고 계시려나?"

흠칫, 중앙 계단을 올라오는 목소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매니시의 어깨가 굳었다. 좀 전에 매니시를 맞아줬던 것과는 다르게 끈적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아젠트의 목소리였다.

매니시의 시선이 비어있는 세 번째 방을 향했다. 당황한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저절로 내려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문이 열린다는 인식보다 몸이 끌려가는 게 먼저였다. 순식간에 어둠에 먹혀든 매니시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허리를 휘감은 팔은 신음이나 비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정체 모를 품으로 낚아채인 매니시의 뒤로 옅은 빛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달칵. 매니시는 그것이 문을 닫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맞은편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정체 모를 이의 손은 아직도 문고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 아빠? 오늘 외출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젠트 영애의 당황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매니시는 바깥의 소음에 맞춰 살살 문고리를 놓는 남자의 옆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남자의 까만 머리칼이 눈앞에서 흔들거렸다.

아이구, 우리 딸. 아빠 갔을까 봐 놀다 말고 왔어? 아빤 볼일이 있어서 이제 막 나갈 참이었지.

으응, 그럼 얼른 가. 난 좀 있다 나갈 거야.

으응? 아니, 그냥 같이 나가면 안 될까? 아빤 딸 배웅받고 싶은데.

그게…

말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미련 가득한 영애의 시선이 문에 가려져 있을 그들을 훑는 것 같았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며 끈적하게 불러댄 이름의 주인공이 이 방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치, 알았어. 하여간 아빤 어리광쟁이라니까!

곧 두 사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아직 제 허리에 걸쳐진 바이올런스의 팔을 붙잡았다.

"왜 여기,"

"쉿."

오히려 단단히 틀어 잡혀 당겨진 매니시는 힘없이 그에게 이끌렸다. 따뜻한 손이 그녀의 목덜미와 허리를 감싸 품에 가두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았다.

다 쉬어빠진 게 어리광쟁이는 무슨.

그 외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귓가를 잠식한 심장 소리 때문이었다. 그의 심장은 걱정될 만치 크고 빠르게 뛰어서 매니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급한 박자마다 담겨있을 그의 마음이 무겁고 가여워서. 그에게 안긴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느슨해진 팔을 떼어낸 매니시가 속삭이듯 물었다.

"갔어요?"

문밖의 상황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물론 백작과 함께 있던 여자는 자리를 뜬지 한참이었다. 바이올런스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마음이 남았는지 빈손은 주먹을 꼭 쥔 채였다. 그를 보지 못한 매니시가 안도의 한숨을 흘리며 질문했다.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저야말로 묻고 싶군요.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불 꺼진 방에서도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매니시는 그 뜨거운 눈동자를 피해 검은 머리카락을 타고 시선을 미끄러뜨렸다. 평소랑 다르게 묶지 않고 흐트러진 머리가 눈에 띄었다.

그 시선을 의식한 듯 머리를 쓸어넘긴 그가 이어 말했다.

"그것도 그런 수상한 움직임으로 말이죠."

바이올런스는 복도에 돌아다니는 기척을 따라 문틈으로 봤던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다. 살금살금 걸어 방을 훔쳐보고 다니던 매니시는 누가 봐도 수상했을 테니까.

그를 부르는 목소리에 그녀를 숨긴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오래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여유가 생기자 그의 머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상하긴요. 전 다과회에 초대됐을 뿐이에요."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이유군요."

흘끗, 그의 시선을 따라가자 은은하게 빛나는 얇은 커튼이 보였다. 창문이 열려있는지 살랑 흔들린 커튼과 함께 까르르 높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리티무스 영애와 함께 오셨어요?"

"훌륭한 보모가 해야 할 일이죠."

자조적으로 웃는 얼굴에 고인 그림자가 안쓰러웠다. 저도 모르게 뻗은 손끝에 거칠어진 피부가 닿았다. 마주친 눈동자는 마치 그녀를 삼킬 것만 같았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스치듯 금방 떨어진 손가락에 남자의 아쉬운 눈길이 따라붙었다.

"글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겠죠."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의 어미를 죽인 진범을.

사실 증거는 없지만 의심 가는 이가 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도 그 용의자 중 하나를 위해 글램을 데리고 이곳에 왔을 테니까.

그쯤에서 매니시가 입을 다물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 것 같군요. 오늘 여기 온 걸 보면…"

성큼성큼, 틈이 남아나지 않도록 그는 계속 다가왔다. 주춤거리며 물러서던 매니시의 등에 문의 울퉁불퉁한 양각이 느껴졌다.

똑똑.

바이올런스 경?

그때 짧은 노크 소리와 함께 내숭 섞인 아젠트 영애의 음성이 들렸다. 그녀가 아버지의 배웅을 마치고 벌써 돌아온 모양이었다.

문과 맞닿은 등을 통해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문을 잠근 범인은 태연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덜컥덜컥.

문이 왜 잠겨있지? 바이올런스 경?

등 뒤에서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매니시의 심장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와중에 그녀를 향해 기우는 바이올런스의 고개가 매니시를 벼랑까지 몰고 갔다.

불 꺼진 방, 덜컹거리는 문과 덜컹거리는 그림자 사이에 선 매니시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숨결은 눈을 감아도 모른척할 수 없었다.

등 뒤의 덜컹거림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그를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녀의 귀 옆에 있는 그의 숨소리, 그 온기까지도.

"…아젠트 백작이 관련 있는 모양이죠."

속삭이는 목소리에 매니시의 눈이 번쩍 뜨였다. 흔들리는 매니시의 눈이 코앞에 있는 고요한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고요함 속에 어떤 의심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지도.

잠드셨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문이 또 살짝 흔들렸다. 매니시는 보지 않아도 조심성 없이 문에 귀를 바짝 댄 영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눈이었다.

다과회 끝나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는데... 이씨,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바이올런스는 쿵쿵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다.

"뭘 알아내려고 온 겁니까? 아니, 어디까지 알아냈습니까?"

"아직 알려드릴 수 없어요."

"백작에 대해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안 돼요."

시선 끝에 불이 붙을 것처럼 격렬한 눈싸움 끝에 먼저 포기한 것은 그였다.

"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요?"

매니시의 어깨로 고개를 떨어뜨린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가 쏟아낸 숨결이 매끄러운 살을 타고 아슬아슬한 곳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딱히 답을 바라고 한 말이라기보단 투정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그녀가 위로해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어깨에선 거부의 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져 나간 고개가 다시 들린 것은 여전히 조용한 매니시 때문이었다. 움츠러든 어깨를 펴지도 못한 채 땡그란 눈을 굴리고 있는 그녀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바이올런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보다 약은 사람이 됐네요, 매니시 당신은."

미련 없이 그녀를 놓아준 그는 돌아서서 소파로 향했다. 그가 직전까지 길게 늘어져 있던 소파였다. 매니시가 오기 전의 나른하고 무기력한 자세로 돌아간 바이올런스는 팔로 눈을 가린 채 대화의 끝을 고하고 있었다.

그 익숙해 보이는 몸짓에 굳어있던 매니시의 얼굴에 틈이 생겼다.

"제가요?"

"내가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당신한테 화낼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입술 안쪽을 깨문 매니시는 발소리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순서는 이렇게 돼요. 당신이 먼저 필요한 정보를 주면 그다음에 나도 정보를 줄게요."

"왜 내가 먼저죠? 당신을 어떻게 믿고?"

팔 아래 드러난 바이올런스의 눈이 껌벅이는 매니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매니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설마 좋아하니까 공짜로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걸린 거래잖아요. 담보가 있어야죠."

"담보요? 무슨…"

매니시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바이올런스는 점점 신이 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어쩔 수 없는 악당이기 때문인지, 드디어 미쳐버린 탓인지 알 수 없었다. 넘칠 듯 끓어올랐던 감정은 푹 꺼져서 바보 같은 웃음 아래 묻혀버렸다.

행복을 되찾기 위해 오래도록 수풀을 헤치고 다녔다. 그런데 지쳐서 잠시 앉은 자리에 당연한 듯 놓여있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기분일까.

"예를 들면 다과회가 끝나고 남은 매니시 레우카스의 오늘."

"오늘?"

"오늘. 데이트 하자구요, 나랑."

소득 없이 정원으로 돌아온 매니시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투정을 들어주느라 얼굴도 비치지 않고 착하게 기다리고 있을 워로드, 구해달란 얼굴로 손을 내민 바이올런스. 인간의 도리를 지키자니 연인의 얼굴이 발을 잡고 연인의 도리를 지키자니 양심이 발을 붙잡았다.

치열한 선택의 기로에 선 매니시는 어느새 문제에서 회피하듯 잘 닦인 길을 벗어나 잔디를 밟고 있었다. 그때였다. 잘못 내디딘 발은 순식간에 미끄러졌다.

"아!"

쿵. 손가락 사이를 파고든 젖은 잔디를 움켜쥐고 매니시가 살짝 눈을 떴다. 드레스 뒤쪽이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도피만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 일어나야 했다.

찡하니 울리는 골반 때문에 힘들게 상체를 일으킨 매니시의 옆으로 뭔가가 떨어졌다. 반짝이는 진홍색 모조 보석을 보자마자 그녀는 머리를 더듬었다. 머리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곤란한 일이었다. 다과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차림새는 엉망이 되었으니까. 조심스럽게 머리꽂이를 주운 매니시는 벗겨진 구두 주변에 늘어진 나뭇가지들을 바라봤다.

그녀가 넘어진 이유가 저 나뭇가지 때문인 모양이었다. 당장이라도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얼굴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던 그녀는 머리칼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신 한 짝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도 바로 그때였다.

"누구…?"

고개를 든 매니시가 눈을 찡그렸다. 한낮의 강한 빛을 인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다. 한순간 먹먹했던 얼굴은 구름이 해를 가리자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남자의 눈이었다. 짙고 굵은 눈썹 아래 진한 쌍꺼풀, 번들거리는 눈동자.

그 눈동자는 하얀 머리칼에 잠시 머물렀다가 푹 꺼졌다. 그 시선 끝에는 구두가 벗겨진 매니시의 발이 있었다. 순간 온몸의 털이 쭈뼛 서며 발가락이 오그라들었다.

번들거리는 눈동자에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햇빛이 쏟아지고, 한껏 올라간 치마 아래 매니시의 다리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다리를 웅크린 매니시는 치맛자락을 끌어 내렸다. 그런데도 핥듯이 오가는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명망 있는 백작가의 정원에서, 그것도 다과회에 초대되어 온 매니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리는 없었다. 알면서도 어떤 불길함이 그녀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매니시가 스스로 일어나기 전에 까맣고 투박한 손이 먼저 내밀어졌다.

"잡고 일어나세요."

얌전한 목소리와 다르게 손은 강압적이었다. 불식간에 그에게 손을 잡혀 일으켜진 매니시는 훅 끼친 비린내에 뒷걸음질 쳤다.

"놔, 놔주세요."

하지만 단단히 붙잡힌 손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었다. 그의 손에선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버석버석 메마르고 울퉁불퉁한 손. 매니시의 시선이 무심코 그 손을 향했다.

흉터. 약지와 소지가 엉겨 붙을 정도로 심한 화상 흉터가 있었다.

레인의 증언들이 남자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40대의 요철이 심한 피부, 각진 턱선, 짙은 쌍꺼풀.

그 남자였다. 몽타주 속의 남자.

"아, 이 흉터. 제대로 만져보실래요?"

천천히 올라간 뾰족한 입꼬리가 섬뜩했다. 매니시는 덜덜 떨리는 몸을 감추지 못한 채 붙잡힌 손을 당겼다.

"됐으니까 이거 놔요."

단호한 목소리로 몸을 빼던 매니시가 나뭇가지를 밟고 다시 한번 휘청였다. 남자는 붙잡은 손을 당겨 무너지는 몸을 가볍게 끌어올렸다. 배려 없는 손길로 낯선 품에 안긴 매니시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어이구, 조심. 내가 좀 전에 이 근처 나무들을 다듬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예쁜 엉덩이 다 닳는 수가 있어요."

키 차이가 크지 않은지 남자의 축축한 숨이 얼굴 근처에서 느껴졌다. 불쾌한 감각에 정신을 차린 매니시가 그를 밀치자 그는 쉽게 밀려났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포로처럼 그에게 붙들린 채였다.

내리깐 그의 눈이 그녀의 엉덩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소름이 돋았다. 매니시는 왼손에 쥐고 있던 머리꽂이를 더 꽉 움켜쥐었다.

남자는 얇은 입술을 그의 기분대로 한껏 늘리며 사냥감에게 다가갔다. 으직, 발밑에서 뭉개지는 나뭇가지에 그의 쾌감은 고취되고 있었다. 귀족이라는 여자들은 늘 그랬다. 어설프게 손대면 그를 찔렀지만, 완전히 뭉개놓으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었다.

그 과정에 두려움에 떠는 여자는 그의 취향에 딱 맞았다.

"그런데…"

무표정으로 돌아온 남자의 다른 손이 머리꽂이를 움켜쥔 손에 닿았다. 그 속에 뾰족한 금속과 떨리는 손을 간지럽히듯 쓸어 만진 그가 차가운 눈을 들어 속삭였다.

"왜 이렇게 떨어? 내가 무서워요?"

"…넘어질 때, 놀라서."

"아하, 많이 놀라셨구나. 내가 부축해드려야겠네."

"됐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돌아가 볼게요. 이거나 놔…"

빠져나가려는 매니시와 붙잡으려는 남자 사이의 몸짓이 격렬해졌다. 창백한 얼굴의 매니시가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했을 때, 남자의 손은 허무하게 펼쳐졌다.

"아..."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는 순간 입맛을 다시는 섬뜩한 얼굴이 보였다.

포옥.

"한들러,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들뜨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해."

어깨를 잡은 손에 놀라기 무섭게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싸늘하게 굳은 얼굴의 바이올런스였다.

젖은 잔디 위를 뒹구는 대신 따뜻한 품에 안착한 매니시는 힘이 빠진 몸을 그에게 기대며 오래도록 참고 있던 것처럼 긴 숨을 내뱉었다.

매니시의 얼굴이 편안하게 풀어질수록 남자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바이올런스는 그 험악한 얼굴에 대고 태연히 말했다.

"영애는 내가 도와드릴 테니 가보게. 가서 자네 할 일이나 하라고."

한동안 바이올런스와 눈싸움을 벌이던 남자는 붉어지다 못해 시커메진 얼굴로 나무에 기대어 놓았던 커다란 가위를 향했다. 정원사들이 쓰는 가위였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매니시의 심장 고동은 목 끝까지 차올라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이올런스의 옷깃이 그녀의 손 안에서 구겨졌다.

쳇,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런, 정말 부축이 필요한 거였습니까?"

긴장이 풀린 매니시를 부축한 그가 물었다. 걱정 어린 시선은 하얗게 질린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아니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당신 온몸이 쿵쿵 울리고 있거든요."

그제야 편안히 안겨있던 저를 알아챈 매니시가 몸을 떨어트리고 말했다.

"이상하게 진정이, 잘 안 되네요."

간신히 싱긋 웃은 그녀는 워로드가 선물해줬던 머리꽂이를 두 손으로 꾹 쥐고 숨을 크게 쉬었다. 빨리 그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바이올런스의 손이 여전히 떨고 있는 매니시의 손가락 끝에 닿았다. 강제할 생각이 없다는 듯, 톡 치고 물러났던 손이 손가락 밑을 파고들었다.

부드러운 움직임에 매니시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마침내 그 작은 손을 얻은 그는 경건한 얼굴로 손등에 입을 맞췄다.

매니시의 동그래진 눈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은 그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혼 남녀가 단둘이 있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은지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윙크까지 하는 모습에 매니시에게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느새 손의 떨림은 멈춘 후였다.

"바이올런스 경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라고요?"

"보통은 그렇다고 하던데요?"

뻔뻔한 얼굴로 잘난 척 말했지만, 그 말은 그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기운을 차린 매니시의 작은 미소에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숨긴 채, 조금은 상기된 어투로 바이올런스가 말했다.

"지금 갈래요?"

"어딜요?"

"데이트하러."

눈을 몇 번이나 깜박였을까. 잠시 공백이 생긴 대화를 매니시가 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다과회 중에 나온 건데 다시 돌아가야죠."

"부득이하게 먼저 돌아가는 사람은 종종 있어요. 새삼 이상할 것도 없죠. 오히려 그러고 돌아가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올런스의 충고에 그제야 제 모습을 내려다본 매니시의 입이 벌어졌다. 풀물이 든 등이며 구겨진 치맛자락, 헝클어진 머리가 나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분주하게 머리를 쓸어내리고 치마를 터는 매니시의 목소리는 부쩍 자신이 없어진 상태였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순 없어요. 일행도 있고..."

"그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말을 전하면 되니까."

동시에 그의 시선이 한 쪽을 향했다. 그 시선을 따라간 매니시가 발견한 것은 놀란 얼굴로 굳어있는 그레이프였다.

"그레이프 양?"

"흐앗, 그게, 언니가 너무 안 오셔서, 걱정이 돼서 왔는데…"

갑자기 매니시에게 지목된 그레이프는 말을 흐리며 가슴께를 더듬었다. 옷 아래 목걸이에 걸린 반지가 만져졌다. 작은 마성구와 마석이 박힌 연락용 반지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단장님이 맡기신.

짧은 사이 그레이프는 치열하게 고민했다. 이정도면 단장님이 말씀하신 '무슨 일'이 아닐까? 저 둘은 무려, 무려…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러 가신다고..."

입 밖으로 내뱉고 보니 더 충격적이어서 그레이프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결심했다. 그래, 보고하자!

"아니에요! 저 그런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닙니까? 그럼 그러고 돌아가시게요?"

합, 또다시 찾아온 충격에 그레이프의 입이 다물렸다.

"언니, 꼴이 왜 그래요!"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나 싶을 만큼 매니시의 꼴은 엉망이었다. 순식간에 그레이프의 머릿속에는 100가지의 야만적인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감히 우리 '아가씨'에게 그렇고… 그런 짓을! 불붙은 상상력에 얼굴이 붉어진 그레이프가 뾰족한 눈으로 바이올런스를 쏘아봤다.

그러나 시선의 당사자는 오히려 다정하고 여유 있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넘어지셨는데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네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엥?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스쳐 간 생각은 오늘따라 가녀려 보이는 매니시와 그녀를 보호하는 미남의 모습에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래, 작가님의 행복이 최우선이지. 엄지를 들어 보인 그레이프가 말했다.

"여기는 저한테 맡기시고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당황한 매니시의 목소리는 방해꾼의 목소리에 이어지지 못했다.

"그레이프! 뭐 하고 있어? 다들 너 찾는다고."

바이올런스가 매니시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하녀의 목소리 같았다. 음성에 담긴 친근한 기운이 조금 전에 만난 사람 같지 않았다.

"아, 미안미안. 지금 갈게."

급하게 돌아선 그레이프에게 바이올런스가 외쳤다.

"글램 영애께는 사정이 있어 먼저 돌아간다고 전해주십시오."

매니시는 바이올런스의 팔 사이로 상큼하게 윙크하고 떠나는 그레이프를 볼 수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에 넋이 나간 매니시의 어깨에 옷이 하나 덮였다.

세련된 향이 도는 재킷은 바이올런스의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엉망이 된 드레스를 대부분 가릴 수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옷 아래 낀 머리카락들을 섬세한 손길로 정리해주던 바이올런스가 말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먼저 물어봐요."

그 여상한 음성에 기색을 살피던 매니시가 물었다.

"한들러라는 그 사람, 누구예요?"

"백작가의 정원사입니다."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나중에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얄미운 소리를 하고는 예쁘게 웃는 그의 모습에 한숨이 푸욱 나왔다. 삐죽 나온 입술로 그를 지나치며 매니시가 말했다.

"대신 코스는 내가 정할 거예요."

"배 별로 안 고프다면서요?"

잔뜩 든 군것질거리를 내려다보며 매니시가 말했다. 할 말이 있기는 바이올런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매니시는 안내한다던 장소가 여깁니까?"

심란한 얼굴로 고개를 든 그의 앞에는 멋들어진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기사가 있었다. 바이올런스와 마주친 기사의 표정이 언짢아지자 멋쩍게 웃은 매니시가 그를 잡아끌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수사단이 있는 기사 본부의 현관이었기 때문이다. 매니시에게 끌려가던 바이올런스는 뒤를 흘끗 돌아봤다.

백작가를 나올 때부터 함께한 그림자가 묵음으로 기사의 인사를 받아넘기고 있었다.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사댈 때만 해도 숨어서 부들대는 녀석을 실컷 비웃을 수 있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될 모양이었다.

미래를 예감한 바이올런스의 표정이 비뚤어졌다. 매니시는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니, 뭐 알다시피 제가 오늘 보고할 것도 있고..."

어색한 미소로 말을 흐린 매니시는 오히려 그를 타박했다.

"그리고 이게 다 바이올런스 경이 갑자기 데이트하자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그녀의 말에 타격을 입은 사람은 한참 뒤에서 그들을 몰래 따라오고 있던 그림자였다. 바이올런스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큰소리로 대답했다.

"생각보다 루푸스와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군요. 굳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움찔, 흔들리는 그림자를 놓치지 않은 바이올런스는 유쾌한 웃음을 띠고 말을 이었다.

"보이겠다니 재밌겠네요. 어차피 데이트란 건 둘이서! 하는 거고."

움찔, 움찔. 이번에는 매니시의 몸도 움찔거렸다. 저들끼리 신경전을 나누기 바쁜 남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매니시라고 찔리는 게 없진 않았다. 워로드가 그들을 본다면 결코 바이올런스가 바라는 대로 둘만 두진 않을 테고, 사실 그건 매니시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

헛된 기대를 품은 남자에게 미안해진 매니시와 둘만 두다 못해 미행 중인 그녀의 남자, 헛된 기대 따윈 이미 버리고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바이올런스.

세 사람의 완벽한 동상이몽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는 거죠?"

충분히 즐긴 바이올런스가 질문하자 기둥 뒤에 숨어있던 워로드는 자연스러운 등장을 위해 몸을 물리기 시작했다. 매니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단 배부터 채워요."

그러고는 싱긋 웃는 얼굴이 예뻤다. 그를 만날 기대에 나온 미소였지만, 그를 몰랐던 워로드의 얼굴은 조금 시무룩해졌다.

"점점 더 오늘이 걱정되네요."

"왜요? 재밌을 거예요."

어느새 수수한 일복으로 갈아입은 매니시와 바이올런스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바이올런스는 돗자리를 옆구리에 낀 매니시의 양아치 같은 얼굴을 보다가 물었다.

"…화났습니까?"

"예에?"

공손한 말투였지만 불량하게 들리는 억양에 바이올런스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녀가 그러는 이유는 조금 전 만난 그 사람 때문이었다.

'단장님께선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늦게 오실 것 같던데요.'

힐끔힐끔 바이올런스를 보며 말했던 에이드. 그에게 악의라곤 전혀 없었을 테지만, 덕분에 창문까지 넘어가며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다리던 워로드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장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며칠 만에 보게 된 그가 저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보러 갔다는 사실에 삐진 매니시는 덤이었다.

물론 그의 중요한 일이란 매니시를 스토킹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바이올런스 그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스토킹은 마중이 되었겠지만, 그는 그런 사소한 사실에 연연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아무튼, 그는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즐기기로 했다.

"아까부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닌데요. 지금 엄청 기분 좋아요!"

삐죽 나온 입으로 말해봐야 믿기 어려웠지만 바이올런스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초조한 걸음 소리가 마음에 들었고 뿔난 매니시의 얼굴은 귀여웠으니까.

"프릴 경!"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달려 나간 매니시의 앞에는 거대한 개가 있었다. 소문의 '프릴 경'을 마주한 바이올런스는 곰 같은 덩치에 잠시 질린 얼굴을 했다가 얼굴을 굳혔다. 자다 깬 프릴이 코를 벌름거리다가 이빨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으르렁.

처음 보는 프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매니시가 멈춰 섰다.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프릴 경, 왜 그래요. 혹시 어디 아파요?"

프릴은 코를 땅에 비비다가 성질을 내다가 돌아서서 흙을 뿌려댔다. 결국은 한참 떨어진 자리에 돗자리를 펼친 바이올런스가 그녀를 앉히며 말했다.

"이쯤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코 때문이겠죠."

그가 커다란 발로 코를 막은 개를 가리켰다. 시무룩해진 매니시가 제 팔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별 냄새가 나지 않자 킁킁거리는 코는 바이올런스 쪽을 향했다.

갸웃거리는 하얀 정수리 위에서 붉어진 얼굴을 감싼 바이올런스가 말했다.

"그나 되니까 맡는 거예요. 인간의 후각이랑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잘 아시네요?"

"나쁜 짓 하려고 공부 좀 했었죠."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납치해놓고 제 외투는 왜 갖다 버렸어요? 그것도 수도로 향하는 사람들한테."

"…동료가 제멋대로 벌인 일을 수습한 것뿐이에요. 매니시 당신을 납치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럼 제가 납치돼서 다행이네요."

의아한 얼굴로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에게 매니시는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당신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린 바이올런스가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펼치며 웅얼거렸다.

"다른 사람을 납치했어도 험한 일을 당하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인신매매단은 일이 끝난 후에 죄를 덮어씌울 요량으로 속속들이 알아둔 곳이었고."

그의 서툰 손은 점차 느려지더니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러니까 납치당한 이가 바로 팔리지 않을 거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을 수 없었다. 그게 매니시라서.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과 동료에게 환멸을 느꼈다.

매니시는 기름이 묻은 그의 손에 냅킨을 쥐여주며 남은 일을 마쳤다.

"알아요. 당신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었는지. 마성구를 거래할 때도 구매자에 대해 끈질기게 조사해서 위험한 사람을 걸렀잖아요."

"바보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얻은 이익 중 일부는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참전병 유가족들을 돌보는 데 썼고요."

"발악이었습니다. 목적을 흐리지 않기 위한 발악. 하지만 우린 결국 무뎌졌어요."

자신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얼굴이었다. 음식을 뒤적거려가며 그의 눈치를 살피던 매니시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안 궁금해요?"

매니시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가 놓아버린 동료, 마침 그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를 위해 어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했으니 끊어진 인연이죠."

"치료감호 중이에요. 그 사람."

초점 없이 방황하던 눈이 그녀를 향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상처 때문에. 법관이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단장님이 계속 애쓰셨어요."

"…잘 지내나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단장님을 봐도 흥분하지 않고 수사에도 잘 협조하고요. 다만, 다른 건 다 말하면서도 당신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푹 젖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신한테 피해 갈까 봐 말은 못 하지만, 당신 소식이 궁금할 거예요. 괜찮아지면… 찾아가 봐요."

"…당신한테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의 음성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 잠겨있었다.

"벌써 사과받았어요."

히히, 귀엽게 웃는 매니시를 보며 실소를 터트린 바이올런스가 물었다.

"혹시 이러려고 온 겁니까? 다음 데이트 코스가 치료 감호소라든가?"

"어머, 절 뭐로 보고요. 그런 건 데이트가 아니죠. 일단 든든하게 먹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데이트를 참 이상하게 하네요, 매니시는."

"어렸을 때 같이 해본 적 있다면서요.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또 하자는 겁니까?"

"얘기 들었을 때부터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즐거운 얼굴인데요."

"바이올런스 경도 즐거워 보이거든요?"

시답지 않은 소리와 장난을 반복하던 그들에게선 연신 웃음이 터지고 있었다. 조화롭게 섞여 울리는 남녀의 웃음은 절로 따라 웃고 싶을 만큼 평화로웠지만, 아까부터 듣고 있던 워로드의 주먹은 흉악하게 핏줄이 선 상태였다.

그의 마음도 모르고 매니시는 천진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기분전환으로 딱이죠?"

"말똥냄새를 맡으면서 말입니까?"

득득, 삽질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은 본부의 마구간이었다. 더러운 지푸라기가 가득 쌓인 수레에 마지막 삽을 털어 넣은 바이올런스가 매니시를 바라봤다.

다음 작업을 위해 젖은 솔을 준비하던 매니시는 얼굴에 흐른 땀을 어깨에 닦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할 대답은 잊지 않았다.

"깨끗해지면 얼마나,"

어깨에 걸린 마스크가 쑥 내려가자 기막힌 냄새가 매니시를 습격했다. 그 순간 바로 뛰쳐나가는 그녀의 뒤에서 바이올런스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매니시의 계획이 훌륭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 꽤 기분이 좋았으니까. 그는 매니시를 따라 나가 장갑을 벗었다. 제가 끼고 있던 귀걸이를 빼기 위해서였다.

"뭐 하는 거예요?"

"더워하는 것 같아서요."

귀걸이를 든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매니시가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매니시의 두 걸음은 그의 한 걸음에 성큼 좁혀지고 말았다.

차마 더러운 손으로 그를 밀칠 수 없었던 매니시의 귀에 뜨거운 손이 닿았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뭉근히 문지르더니 비어있는 자리에 귀걸이를 찔러 넣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치장한 적이 없는 매니시는 이상야릇한 기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묘한 죄책감에 고개를 못 들 때 누군가의 손이 다가왔다.

"손 떼!"

거칠게 그들을 떼어놓은 손은 당연하게도 워로드의 것이었다.

"단장님?"

놀란 매니시와 달리 바이올런스의 얼굴은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기만 했다. 조금 전의 프릴처럼 이를 드러낸 워로드는 험상궂은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어디서 수작질이야."

"더워 보이길래 내 마도구를 빌려준 것뿐이야. 수작질은 네가 하는 게 수작질이고."

목소리의 온도 차만큼 반응도 달랐다. 깔끔하게 비웃음을 띤 바이올런스는 눈짓으로 조금 전까지 그가 숨어있던 쪽을 가리켰다. 뜨끔한 워로드가 매니시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매니시는 그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다.

"이거 마도구였어요? 정말 시원해지는 것 같긴 한데."

"열기를 방출하는 마도구예요. 딱 이상체온만 잡아내서 적정 체온을 지켜주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쓰이죠."

"우와, 이런 것도 가지고 다녀요?"

"여자 꼬실 때 쓰려고 가져 다니겠지."

"스토킹하는 것보단 꼬시는 게 낫잖아?"

"뭐?"

"뭐."

"둘이 또 왜 그래요. 저 소외감 느껴지거든요?"

에휴, 한숨을 쉰 매니시는 장갑을 벗어 워로드에게 건네고 씻고 오겠다며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장갑뿐 아니라 청소용 솔까지 들려있었다.

남은 한 개의 솔을 들고 있던 바이올런스는 마사로 돌아가며 흘리듯 말했다.

"오해할 거 없어. 정보 주는 대가로 어울려달라고 내가 떼쓴 거니까."

"누가 뭐래? 매니시는 날 좋아해."

비록 오늘은 그가 선물한 머리꽂이를 안 하고 있었지만. 입을 삐죽 내민 워로드가 그를 따라 들어가며 한 말에 냉큼 장갑이 날아들었다.

"결투하자고?"

"내가 죽으면 매니시가 슬퍼할 텐데."

바이올런스의 대답에 워로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어진 말에 계속 인상을 쓰고 있을 수도 없었다.

"네가 죽으면 날 미워할 테고."

바이올런스의 장갑을 도로 던진 워로드는 청소를 시작하며 괜히 불퉁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아 보든가."

"사양하지, 아픈 건 딱 질색이라. 이 정도 심술은 그냥 웃어넘기라고."

"내가 왜?"

"…무슨 얘길 해도 결국은 네 변호로 이어지는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불쌍하지 않아?"

"전혀. 눈이 있으면 매니시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워로드의 당당한 음성에 웃음을 터트린 바이올런스가 제 몫의 솔을 움직이며 긍정했다.

"그건 그렇지."

쓱싹쓱싹, 한동안 이어지던 소음 끝에 참지 못하겠다는 듯 워로드의 입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매니시는 계속 네 얼굴을 살폈어."

바이올런스의 의아한 시선이 그를 향했다.

"네가 물먹은 솜처럼 밍밍한 얼굴을 하고 다니니까 그렇잖아."

"뭐?"

"그대로 늘어져 있을 거냐?"

장갑 안에 감춰진 손은 아플 정도로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툭 힘이 풀린 손으로 청소도구를 내려놓은 바이올런스가 말했다.

"아니, 씻으러 갈 거야. 안내나 해."

장갑을 벗은 손은 유달리 하얬다. 짓눌려 빨갛게 자국이 남은 손바닥이 거슬릴 정도로.

덩달아 청소를 끝낸 워로드는 그의 목깃을 쥐고 이끌며 대화를 이어갔다. 사실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은 대화라기보단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다.

"일이 생각보다 커. 그만 방황하고 정식으로 공조하지?"

워로드의 손을 떨쳐낸 바이올런스가 되물었다.

"공조?"

"인정하긴 싫지만 네가 합류하면 크게 진척될 거다."

"글쎄..."

바이올런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죽은 네 동료,"

순간 멈칫했던 바이올런스의 머릿속엔 오래된 장면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다. 씩 웃는 막내의 얼굴이 보였다.

'형님, 이거 써요.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악당이 땀 흘리면 멋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병에 대해서 말 안 했어. 약도 거부했고. 내 도움따위 받느니 죽겠다는 각오였지."

"고집도 세고… 정도 많은 녀석이었으니까. 녀석한테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어."

"그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워로드는 그에게 시선도 한 번 주지 않고 앞만 보며 나아갔다.

"앓는 동안 녀석이 끊임없이 중얼거린 이름들. 동생만이 아니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미간을 찌푸린 바이올런스는 녀석에게 제가 모르는 가족이 있었던가 고민하다가 워로드의 음성을 들었다.

"어머니와 형을 찾던데."

쿵,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그의 머리를 쳤다.

'우린 가족이니까, 형님들 가족도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 한 분, 형님 한 분, 동생 하나, 가족을 세 명이나 잃었으니까 우리 셋 목숨 걸고 복수하는 겁니다.'

"네 동료도 마지막까지 안 놨는데 넌 놓겠다고? 반성하고 착한 놈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갑자기 멈춰 선 바이올런스는 저와 같은 까만 뒤통수를 보고 이를 갈며 반문했다.

"…그래서 너랑 같이 진짜 원수를 찾아서 다시 복수 계획이라도 세우라는 거냐?"

돌아선 워로드는 고갯짓으로 코앞의 샤워실을 가리키고는 대답했다.

"돌이켜 보자고, 잘못된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봐라."

상쾌한 몸으로 다시 만난 그들의 다음 코스는 워로드와 함께가 아니었다. 바이올런스는 그 이유가 그만의 배려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동행 제의를 거절하는 워로드의 표정은 무척 억울하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더라도.

"거기서 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트 코스가 점점 거칠어지는군요."

하지만 그의 배려는 별 효과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다음 코스를 이미 알고 한 배려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지금 매니시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단장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와요."

싱글벙글 웃던 매니시가 문을 열고 말했다. 바이올런스는 주춤거리며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 잠깐도 매니시에겐 고역이었는지 그녀는 이미 큰소리로 그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누가 왔다고?"

바랜 기억 속의 목소리가 대답해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인영에 머쓱하게 인사하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세상에, 바이올런스!"

격의 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꽉 안기는 것도 아주 오랜만이었다. 자작부인에게 안긴 바이올런스는 한껏 풀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만에 뵙네요…, 부인."

그 말을 끝으로 폭풍 같은 재회의 시간이 이어졌다. 워로드의 말을 고민할 시간도, 자괴감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다.

그가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건 반가움이 지나쳐간 응접실 한 쪽, 테이블이 치워진 카펫 위에 모르는 아이와 함께 눕혀진 후였다.

"이제 자요."

"…남의 집에서, 응접실 바닥을 차지한 채로 말이에요?"

"이런 게 힐링이에요. 이것도 안고요."

매니시는 선심 쓰듯 잠든 플럼을 그에게 밀어주고 얇은 담요까지 덮어줬다. 품을 파고드는 아이는 무척 따끈따끈해서 바이올런스는 생경한 눈으로 아이의 머리꼭지를 바라봤다.

"따끈따끈하니 기분 좋죠?"

"…네."

소파 사이에 깔린 동그란 카펫 위로 어린 매니시와 바이올런스가 덧그려졌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아이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다른 가족들의 소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밉지 않아요?"

"왜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죽을 뻔하고, 다치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난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후회해요?"

"창피해요."

부스럭, 옆으로 돌아누운 매니시가 그를 빤히 바라봤다. 그는 한쪽 팔을 플럼에게 내어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의 시선도 매니시를 향했다. 매니시는 담요를 끌어 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만찬' 첫 권은 되도록 안 펼쳐봐요. 어떤 부분은 너무 부끄럽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좋은 장면이 떠올라서 미련이 남거든요."

"글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완벽해질 때까지 다듬으면 되죠."

"완벽한 게 어딨어요. 쓰는 내가 자꾸 달라지는데. 그때의 나라면 그게 최선이었지만, 오늘의 나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는 언제나 남을 거예요."

코 밑까지 끌어 올린 담요 때문에 매니시에게선 웅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얼핏 졸음이 묻은 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후회라는 건 조금 좋은 신호 같지 않아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됐다는 신호."

"안 좋은 쪽으로 달라졌을 수도 있죠."

"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진짜 자요."

"에?"

"역시 후회 따윈 자고 일어나서 잊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눈 감아요."

그러면서 먼저 눈을 감아버리는 매니시를 황당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도 피식 웃으며 눈을 감았다. 멈춘 듯 나른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다. 매니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전편을 되돌릴 수 없다면. 자고 일어나서 더 좋은 후편을 쓰죠, 뭐."

눈을 뜨자 살짝 미소 띤 채 눈을 감은 매니시가 보였다.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바이올런스는 손을 뻗어 허공을 쓸었다.

하얀 속눈썹이 고르게 펼쳐진 눈가를 한 번, 부드럽게 휘어진 입가를 한 번, 다부진 손끝은 허공을 스치면서도 잘게 떨리고 있었다.

"어이."

무언가가 그의 등을 성의 없이 툭툭 치고 있었다.

"민폐니까 그만 일어나지?"

귀에 익은 목소리에 눈이 떠졌다. 잠들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무섭게 사람들에 둘러싸인 그는 금세 어떤 자리에 앉혀졌다.

시끌벅적한 식탁의 한가운데였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맞은편에 앉은 매니시, 그의 무릎에 앉은 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시기를 떠오르게 하는 가정적인 식탁, 모든 게 꿈처럼 완벽한 저녁시간이었다.

옆에 이물질이 하나 앉아있긴 했지만.

"아하, 제가 말이죠?"

"그래. 첫사랑이 다 그렇겠지만, 매니시가 널 너무 좋아해서 약혼을 맺어줘야 하나 잠깐 고민했었어."

"제가 그랬어요?"

"매니시..."

바이올런스의 옆에 앉은 이물질이 잔뜩 풀 죽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평소라면 질색했을 바이올런스는 그조차도 어쩐지 기껍게 느껴졌다.

매니시의 말대로 괜찮은 뒷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함께 재밌겠네요, 워로드 단장."

그의 말에 시무룩하던 워로드의 눈이 커졌다. 나란히 앉은 둘은 좁은 자리에 굴하지 않고 악수를 하더니 곧 별거 아닌 이유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원조 트러블 메이커 플럼에게 단련된 이 댁의 식구들은 그런 그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매니시만이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단장님을 좋아한다니까."

"뭐?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코로네 남작이?"

모자를 벗던 로망이 놀란 얼굴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 순간 모자 속에 숨어있던 분홍 꽃잎 한 장이 매끄러운 금발을 타고 미끄러졌다. 나풀나풀 온몸을 흔들며 떨어지는 분홍빛은 수줍은 소녀의 마음 같아서 시선을 뺏는 구석이 있었다.

수석 시녀는 틀림없이 페라에서 왔을 그 마음을 주워들며 대답했다.

"네. 그 스캔들 때문에 요새 아주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누가 뭐래도 사교계 여성들이 꼽는 최고의 남자들이니까요."

로망은 당연하다는 듯 이미 책까지 펼치고 대기 중이었다. 시녀가 주운 꽃잎을 그 위에 올려놓자 다음 장에 책갈피를 꽂은 로망이 책을 덮었다.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지나쳐온 책갈피는 벌써 책의 중간쯤에 꽂혀있었다. 꽃잎이 한 장이라도 떨어질까 봐 힘을 준 손 안에는 '납치된 여인들'이라 적힌 표지가 보였다. 최근 페라에서 상연 중인 매니시의 신작이 발간되어 로망의 손에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얼마 안 된 일이었다.

"최고의 남자들? 오라버니야 물론 최고지만, 코로네 남작은…"

"미인이죠."

"…음, 미인이지."

몽롱한 눈으로 기억을 헤집던 로망은 얼굴을 붉힌 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곧 정신을 차린 듯 발작적으로 고개를 휘저은 그녀가 외쳤다.

"그래도 안 돼! 매니시 언니가 아까워! 언니는 미인인 데다 착하고 똑똑하고 우아하기까지 하잖아. 게다가,"

살짝 올라간 입꼬리며 반짝이는 두 눈, '만찬' 옆에 신간을 내려놓는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흘렀다. 로망의 뒤에서 외투를 벗기던 수석 시녀는 알만하다는 듯 말을 받았다.

"멋진 분이고요."

그런 그녀의 입가에도 뿌듯한 미소가 걸려있긴 마찬가지였다. 황녀를 따라 매일같이 '페라'에 드나들게 된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듣고 있었다.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세 남녀의 스캔들뿐 아니라 나비의 날갯짓같이 작게 일고 있는 바람까지도.

예를 들면, 편견이 심했던 시골의 작은 영주성에서 범죄 피해 여성을 우선 고용하겠다 공표한 일이나 수도에 생긴 여성 쉼터 같은 것들. 아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화들이었지만, 그녀는 요즘같이 설레 본 적이 없었다.

뭔가 움트고 있었다.

"응. 그러니까 언니는 오라버니가 아니면 절대 양보 못 해."

"그렇지만 무엇보다 매니시 영애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녀의 입바른 질문에 고집스레 닫혀있던 로망의 입이 벌어졌다. 뒤늦은 깨달음은 분노를 동반했다.

"오라버닌 대체 뭘 하는 거야!"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친 로망이 안절부절못한 모양새로 자리를 서성일 때였다. 똑똑, 작은 노크 소리였다.

수석 시녀는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진 황녀를 확인하곤 재빠르게 움직였다. 로망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문 앞에 도달한 그녀는 열리는 문을 가로막으며 숨을 헐떡였다.

겨우 그녀만 보일 정도로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당황한 시녀의 얼굴이 보였다.

"루, 루푸스 백작님께서 오셨대요. 지금 폐하와 접견…"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속삭이던 시녀는 말을 마칠 수 없었다. 머리가 휘날린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바람이 지나간 후였다. 활짝 젖혀 흔들리는 문짝, 텅 빈 방,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은 뒤늦게 머리에 입력됐다.

이마를 부여잡은 수석 시녀는 들고 있던 외투를 아직도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는 시녀에게 안겼다. 한껏 움켜쥔 치마를 들어 올리자 흠칫 놀란 시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부터 달려야 했으니까.

"전하! 머리라도 풀고 가세요!"

그렇게 야생마 같은 두 여자가 황성을 질주하던 그 시각, 황제의 집무실에선 소동의 원인 워로드가 황제를 독대하고 있었다.

"코로네 남작과 손을 잡았다고."

"예. 능력이나 동기, 위치를 봐도 후작을 수사하는데 그만한 우군은 없을 테니까요."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 소문은?"

은근한 목소리는 경박한 관심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류를 검토하는 척 펜을 놀리던 황제는 꿈틀거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워로드를 흘깃거리는 중이었다. 마침 떨어진 서류 몇 장을 줍던 워로드의 손에서 구깃, 불길한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잠깐잠깐! 그건 내려놓고 열 내게. 나중에 혼나는 건 나라고."

"열 낸 적 없습니다."

워로드의 대답은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허공을 울릴 뿐이었다. 심지어 그 스스로에게도.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나."

워로드의 손에서 서류를 구해낸 황제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무룩한 조카의 얼굴은 또 안쓰러워 의자를 가리키는 그였다. 저 억울한 얼굴을 풀어내려면 꽤 긴 얘기가 될 것 같았다.

워로드는 마지못한 척 의자로 향하면서도 변명의 말을 잊지 않았다.

"조심이고 뭐고, 작전의 일부일 뿐입니다."

침통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담담한 말투였다. 본인은 무척 진지한 모양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일곱 살 난 아이의 오기처럼 귀여운 구석이 있어 황제는 비실비실 배어 나오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

"그럼 얼굴 좀 피게. 좋은 작전 아닌가. 마리티무스야 체면 빼면 시체인 족속들이니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할 테고. 영애의 명예가 좀 걸리지만, 일이 해결되면 만사형통 아니겠나?"

미소를 띤 채 서류를 정리하던 그가 별생각 없이 덧붙였다.

"진짜 삼각관계만 아니라면 말이야."

딱,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맑은 충돌음이 돌아왔다. 의자에 앉다 말고 팔꿈치를 부여잡은 워로드가 보였다.

짧은 정적 끝에 황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프지?"

"아니요."

"아플 텐데."

천연덕스럽게 단언하는 얼굴에 워로드가 입을 다물자 황제는 기울인 고개를 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작위적으로 내리뜬 눈이 정말 안쓰럽다는 듯 그를 향하고 있었다.

"하긴 그 아가씨 정도면 경쟁자가 없는 게 이상하지."

맞는 말이라 반박할 수조차 없었다. 작전회의를 하는 내내 그녀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시선이 얼마나 부딪혔는지가 그를 증명했다. 달콤해 보이는 머리칼에 파묻히다가, 고뇌에 빠진 깊은 눈동자를 헤매다가, 깨끗한 피부 위를 훑다가도 시선은 마주쳤다.

이유는 분명했다. 바이올런스 코로네, 그 녀석의 눈에도 같은 것이 담겼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생각하던 그의 인상이 구겨질 찰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있었다. 바스락, 잡아챈 손 안에서 나는 귀여운 소리를 무시하며 고개를 드니 잊고 있던 황제가 눈에 들어왔다. 태연하게 사탕을 까서 먹은 황제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그래, 그만치 참아가며 얻으려는 게 뭐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워로드가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사탕을 보며 대답했다.

"껍질부터 깔 생각입니다. 사탕을 먹으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부스럭부스럭, 워로드가 사탕을 까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황제가 반문했다.

"껍질?"

"아젠트 백작 말입니다. 후작과 그자 사이에 확실한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후작가에 드나들던 심부름꾼이 지금은 백작가의 정원사가 돼 있더라고 바이올런스가 그러더군요. 둘이 생각보다 돈독한 관계인가 본데 백작에게 밴 냄새만 맡아도 안에 든 사탕이 무슨 맛인진 알 수 있을 겁니다."

단 냄새를 풍기는 반질반질한 사탕 알이 워로드의 입안으로 사라졌다. 황제의 볼록한 볼에 든 것과 같은 빨간 사탕 알이었다. 버리려던 껍질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은 황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쉽지 않을 게다. 생각보다 영악한 인간이야. 지독하게 밝히는 성격만 아니었어도 출납원장 자리에서 계속 미끄러질 일도 없었겠지."

"믿긴 어렵지만 바이올런스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누락시킨 정보들을 공용 폐지함에 버려대는 무신경한 인간과 영악하단 단어를 연관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워로드도 그 말을 아주 무시할 순 없었다. 실제로 그를 뒷받침하듯 레우카스 자작이 건네준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렇게나 버려졌다는 신고서들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본을 넘긴 정보원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쯤 되니 바이올런스가 했던 말은 꽤나 그럴듯하게 다가왔다.

'그건 그 인간이 자주 쓰는 방식이야. 허술한 척 대수롭지 않은 약점을 흘려서 사람을 시험하지. 여태껏 그렇게 배신자를 솎아낸 덕분인지 그의 더러운 소문들엔 실체도 없어. 이 자료들처럼. 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 중입니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황제를 보며 입안에서 굴리던 사탕에 이를 박아넣었다. 작은 균열에 파고든 이는 깔끔하게 사탕을 쪼갰다.

"그런 영악한 자라면 틀림없이 쥐고 있을 테니까요. 저가 손잡은 귀족의 약점쯤은. 어쩌면 그 이상도."

"오호. 그거참 솔깃한 추측이다만, 찾을 수 있겠느냐?"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한쪽 볼을 볼록하게 늘리고 눈썹을 치켜든 황제의 얼굴은 눈가의 주름과 어울리지 않게 혈기 넘치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백작은 이달의 휴일을 다 끌어써서 영지로 내려갈 상황은 아닙니다만, 명색이 대장이니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라도 영지로 달려갈 수 있겠죠.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빈집에 방문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붙잡아달라? 빈집에 들어갈 방법은 있고?"

"정식으로 초청되어 갈 생각입니다. 백작의 딸에게."

모처럼 유쾌한 미소를 띤 그는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렸다. 매니시의 재기 넘치는 목소리가 그 포문을 열었다.

'스캔들을 이용해요. 아무도 속셈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떠들썩하게.'

'그걸로 눈 정도야 돌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백작에게 접근하려고?'

'뭐하러 백작에게 접근해요. 바이올런스 경 말대로라면 증거들은 수도 별장이 아니라 집에 다 있을 텐데. 우리 빈집 털러 가요.'

'어떻게요?'

바이올런스는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물었었다. 다음 순간 그에겐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웃어 보인 매니시가 폭탄을 던졌다.

'미인계로?'

거기까지 회상했을 때 당시의 그들만큼이나 작전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황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이끌었다.

"백작의 딸이 자네를 왜? 설마…"

"제가 아니라 바이올런스 쪽입니다. 처음엔 못한다고 빼더니 제법 적성에 맞는 모양이에요.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은 그저 영애가 보는 곳에서 결투를 신청하,"

쾅쾅쾅쾅.

오라버니! 문 열어!

"오, 올 것이 왔구만."

덜컹거리는 문에서 눈을 뗀 워로드는 미처 못 끝낸 말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이 빨라졌다.

"아무튼 우리는 사냥 내기를 벌일 생각인데,"

도저히 말을 이을 수 없었다. 튼튼한 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광기 넘치는 노크에 로망의 손을 걱정할 때쯤,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들었다.

"…얄미울 정도로 바이올런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입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문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드문드문 들리는 비속어가 누구를 향하는진 명백했다. 워로드는 일그러진 얼굴로 말을 이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아젠트 영애가 끼어들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말이죠."

아악!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두고 봐!

악에 받친 비명과 함께 선전포고 같은 것을 남긴 로망이 멀어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평화를 되찾은 문밖이 조용했다. 황제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사랑에 눈이 먼 여인은 참 저돌적이지."

"다시 오기 전에 돌아가게 확답이나 주시죠."

"까칠하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아젠트 령에서 사냥을 하는 동안 백작이랑 놀고나 있으라는 소리 아니냐. 그 친구랑은 취향이 영 안 맞아서 곤란한데."

"그럼 이참에 파티라도 여시죠? 우리가 매니시를 두고 결투를 벌인다는 소식이 퍼지면 따라붙을 할 일 없는 작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눈치 없는 귀족 몇이야 상관없지만 로망 같은 사고뭉치라도 끼어드는 날엔…"

"큰 도움이 되겠지!"

말을 가로챈 높고 발랄한 목소리에 두 남자의 고개가 빠르게 돌아갔다.

"너…?"

오랜 세월 황제의 집무실을 지킨 초대 황제의 초상화, 무수한 세월에도 가려지지 않은 괴팍한 인상의 남자는 오늘따라 색다른 몰골을 하고 있었다.

주름 하나까지 섬세하게 그려진 구식 예복 위로 늘어진 금발이라든가, 뻣뻣하게 힘을 준 남자의 목 위로 솟아난 생기 넘치는 소녀의 얼굴이라든가.

"어허, 로망. 초대 폐하의 초상화로 그렇게 장난치면 못쓴대도."

"그러게, 누가 날 따돌리래?"

황제의 꾸지람을 장난스럽게 받아친 로망은 짓궂은 표정으로 얼굴을 흔들어댔다. 그녀의 주위로 일렁이는 그림은 괴팍한 남자의 얼굴을 띄웠다 지웠다 바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폐하."

"…하하, 누구 딸인지 참 귀엽지?"

워로드의 한숨 섞인 음성에 아비가 난처해하든 말든, 신이 난 로망은 몸을 날렸다. 그림 속에서 폴짝 뛰어내린 그녀가 아직도 입씨름 중인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어흠, 흠, 요란한 헛기침으로 시선을 끈 그녀는 제법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언니를 두고 코로네 경과 결투를 한다는 거지? 손 놓고 있을까 봐 한 소리 하러 온 건데 생각보다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안심이야, 오라버니. 매니시 언니는 걱정 말고."

그쯤에서 로망에게 손을 붙잡힌 워로드는 새가 둥지를 틀 듯한 산발을 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가 그녀의 머리와 초상화를 번갈아 보며 뭐부터 지적할지 고민하는 동안 로망이 다시 말을 이었다.

"오라버니가 결판을 내는 동안, 내가 하이에나 같은 여편네들 사이에서 흠 하나 없이 지켜낼 테니까."

그녀의 말은 결투에 따라붙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지만, 격정적인 고민을 끝낸 워로드가 뱉은 말은 이것이었다.

"어떤 간 큰 자가 황녀의 머리채를 잡은 거지?"

로망의 대답은 빠르고 간결했다.

"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결투에서 지면 루푸스 백작의 머리도 이렇게 만들 생각이야!"

말과 다르게 굳은 믿음으로 눈을 빛낸 로망은 등장만큼이나 갑작스럽게 그를 껴안고 떨어졌다.

"로망, 아빠는?"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부터 짐을…"

로망은 그렇게 말을 채 끝내지도 않고 액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워로드의 머릿속엔 머지않은 미래의 한 장면이 그려졌다.

귀엽게 웃는 매니시의 얼굴 앞으로 끼어드는 능글맞은 얼굴, 사사건건,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는...

으득. 가뜩이나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할 지경이었다. 바이올런스 코로네, 그자 덕분에. 거기에 방해꾼을 하나 더 얹게 되었으니 저절로 이가 갈렸다.

그때 그의 눈에 이 사태의 원인이 들어왔다. 등받이에 삐딱하게 기댄 워로드가 물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황태자에게만 계승될 비밀통로가 황녀의 산책로가 된 겁니까?"

콜록콜록, 미련스럽게 초상화를 바라보던 황제는 사레가 들린 듯 목을 만지며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팔짱을 낀 워로드가 조용히 기다리자 숨을 크게 들이마신 황제는 한숨처럼 말했다.

"비밀이란 게 원래 때가 되면 들통나기 마련 아닌가. 자랑은 아니지만 진작에 들켰지. 오가는 방법까지 완전히."

사실 들킨 것은 통로의 입구뿐이었고 오가는 법을 털린 이유는 딸의 애교 때문이었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씩 웃은 황제는 잠시의 휴식은 끝났다는 듯 다시 서류와 펜을 끌어당겼다.

"주의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러다 누가 보기라도 하는 날엔 비밀이 문제가 아닐 텐데요."

"글쎄... 참 이상하지 않나? 난 황태자를 공표한 기억이 없는데 다들 10살도 안 된 내 아들이 황태자라고 떠든단 말이야."

집중할 생각인지 어느새 안경까지 걸친 황제가 눈살을 구기고 있었다. 그가 익숙한 손길로 읽고 있던 서류를 구겼다. 워로드는 점점 공의 형태를 갖춰가는 서류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런 자리, 로망은 준다고 해도 걷어찰 겁니다."

"그 아이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적어도 걷어찰 기회는 있어야지 않겠나?"

냉소적인 물음과 함께 검지로 튕겨낸 종이공은 책상 근처에 있던 상자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상자 안에는 책상 한쪽에 쌓인 결재서류보다 많은 양의 종이공이 들어있었다. 황제가 말을 이었다.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작자가 많아. 화이트럼 덕분에 귀족들에게 잔뜩 뜯었더니 너도나도 탐을 내는구만. 국가 예산이 저들 비자금으로 보이는지.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나?"

조용히 대답을 기다리는 워로드를 보며 그가 스스로 대답했다.

"딸애 애교야. 그걸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풀리거든. 자네도 결혼하거든 딸은 꼭 낳게. 곧, 세상이 변할 거야."

당당하게 선언한 황제는 로망의 장난스러운 미소가 어디서 왔는지 알만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나는 딸바보에 팔불출이거든."

바스락, 노란 낙엽 위로 또 다른 낙엽이 덮이며 아젠트 령으로 향하는 좁은 길목엔 폭신한 옐로 카펫이 깔려있었다. 마치 어제오늘 연이어 들이닥치는 마차 행렬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나 여유로운 자연의 태도와 다르게 성에서 행렬을 맞이하는 인간은 곤란한 형편에 처해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통신용 마도구를 통해 잔뜩 화가 난 음성이 울리자 온갖 귀물을 모아놓은 성의 꼭대기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통신구를 들고 있던 손의 주인은 어깨를 들어 귀를 문지르곤 침을 꿀꺽 삼켰다.

노한 음성의 주인이 바로 아젠트 백작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딸바보란 사실은 유명했고, 그런 그가 사랑하는 딸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란 무척 드문 일이었다.

물론 때때로 예외적인 날도 있었다. 오늘처럼.

"그게, 갑자기 결정한 거라 말할 시간이 없었달까."

아젠트 영애는 마치 그가 앞에 있기라도 한 양 몸을 엉거주춤하니 굽히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간 내가 너무 오냐오냐했나 보구나. 아비 없는 집에 사람을 들여가며 흥청망청 놀 생각을 다 하고.

"흥청망청이라니, 난 그냥 불의를 참지 못한 것뿐이야. 내가 또 아빠 닮아서 그런 건 못 참잖아."

참았어야지! 남이야 사랑싸움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남 아냐! 아빠가 사랑을 알아?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면 아빠야말로 흥청망청 놀지 말고 집에 오면 되잖아."

이것아, 이 아비가 너처럼 흥청망청 노느라 안 가는 줄 아느냐? 이번 파티에 폐하께서 참석하신다는 정보가 있었어. 필시 출납원장 자리를 물색하러 오시는 걸 게다.

백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다를 이어갔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욕심과 치졸한 질투, 불만들이 뒤범벅돼 본래 목적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그가 덜떨어진 목소리로 붙잡고 늘어지는 일은 꽤 익숙한 일이었다. 평소처럼 입을 삐죽이며 듣고 있던 영애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자기는 인생 자체가 흥청망청이면서."

제 얘기에 심취해 딸이 흉보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백작과 달리 그녀는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이를 위해.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정원, 선대의 바보 같은 동상 곁에 까만 정수리 하나가 보였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빛나는 외양, 기품있는 자세, 눈을 씻고 봐도 바이올런스 코로네가 맞았다.

그를 보자 생각은 자연스럽게 수도의 중심가로 달려갔다. 군중 속에서 그가 당당하게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던 그 날로.

그날은 마음이 맞는 영애들과 그녀가 정기적으로 만나 거리를 순회하는 날이었다. 새로 나온 디저트들을 섭렵해가며 기분이 정점을 찍을 무렵, 우연히 그를 발견했다. 한 여자를 두고 루푸스 백작과 대치하고 있는 그를.

그 순간의 감정을 그녀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여자 때문에 결투 신청을 받는 그가 너무 미웠지만, 동시에 안쓰러웠다. 아무리 사냥 대결이라 한들 상대는 제국 최강의 사내였고 또 백작이었다. 주변의 모두가 그 점을 인식한 듯 웅성거릴 때 그녀는 한 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가엽게도 바이올런스 그에게는 제 영지나 사냥터마저도 없었으니까.

요즘 파르두스 후작이 제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양이던데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새파랗게 어린 게 뭘 안다고. 폐하께서도…

정원에 바람 한 점이 부는지 단정히 내려 묶은 바이올런스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계산한 듯 완벽한 장면에 가슴을 부여잡은 아젠트 영애가 비틀거렸다. 그는 정말 영지가 없다는 것만 빼면 완벽한 남자였으니까.

영애는 그런 남자가 저렇게 한 곳만 보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까부터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문제의 그 여자, 매니시 레우카스가 서 있었다.

정원에서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모습이 아주 태평하고 게을러 보이는 여자였다. 외모도 그저 그렇고, 빈곤해 보이는 차림새는 웃기기까지 한. 그나마 환하게 웃는 모습이 조금, 아주 조금 괜찮달까.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발맞춰 걷는 루푸스 백작이 있었으니까. 다시 바라본 바이올런스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연 아젠트 영애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바이올런스 겨엉!"

딸,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내려갈게요! 같이 산책할래요?"

그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귀여운 얼굴은 순식간에 난처한 미소로 변했지만, 마주 웃는 아젠트 영애의 얼굴은 활짝 피어났다. 그의 어중간한 미소가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다닥 돌아선 그녀의 뒤로 꺼지지 않은 마법 통신구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아젠트 령을 무대로 한 사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탕!

와아아!

말발굽 뒤에서 터진 작은 불꽃이 시작을 알렸다. 두 필의 말은 마른 흙을 꼬리처럼 휘날리며 쏘아져 나갔다.

다치지 말고 다녀오세요, 바이올런스 경!

백작님! 쉬엄쉬엄하세요!

사심 섞인 응원을 뒤로하고 내달리는 그들은 마치 사냥이 아니라 경주가 목적인 것처럼 사냥터 초입의 넓은 길목을 빠르게 지나치고 있었다. 집요하게 따라붙던 관중의 소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그들이 일정한 발굽 소리에 적응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두 필의 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속도를 늦춘 것은.

"잘해라. 발목 잡지 말고."

"너나 잘해."

바이올런스의 대답은 짧았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어쩌면 둘 다 때문인지도 몰랐다. 긴 여정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바이올런스가 고삐를 쥔 손에 약하게 힘을 줘 말의 머리를 틀었다. 말발굽이 땅을 박찰 때마다 그들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나란히 달리던 길을 벗어난 그와 워로드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 사이로 아주 잠깐.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워로드가 다시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고삐를 놓은 바이올런스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머리가 닿기 전에 뻗은 손이 꿈틀대는 말의 엉덩이를 짚었다. 그대로 차올린 바이올런스의 다리는 커다란 원을 그리며 말의 꽁무니 쪽으로 떨어져 내렸다. 탁.

착지와 함께 돌풍이 그를 휘감았다. 누가 내렸건 말건 상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앞만 보고 달리는 그의 말 때문이었다. 잠시 멀어지는 말을 감상하던 바이올런스가 눈을 떼고 걸음을 내디뎠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워로드의 임무였지 그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의 할 일은 따로 있었다. 달리기 시작한 바이올런스가 익숙한 손짓으로 머리를 풀어 내리고 하얀 가면을 꺼내 들었다. 화이트럼의 가면이었다.

'터는 건 내가 할게. 백작한테 마법 금고를 판 적이 있거든. 중요한 건 모두 거기 있을 거야. 대신…'

가면을 쓴 바이올런스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의 까만 눈동자 안에 비친 것은 저 멀리 서 있는 아젠트 성이었다.

'한들러 그 자식은 건드리지 마. 내 사냥감이니까.'

나쁜 짓 하러 갈 시간이다.

쿵 쿵 쿵

공터를 울리는 커다란 북소리를 들으며 모여있던 이들 중 하나가 아쉽다는 듯 입을 열었다.

"이런 이벤트도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벌써 끝이네요."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과 입에 넣기보단 눈에 담기 좋은 음식들, 쓸쓸한 가을 냄새를 잊게 하는 꽃장식까지. 평소라면 휑한 공터였을 땅은 아름다운 파티장으로 탈바꿈한지 오래였다.

특히 오늘의 파티장 전역엔 웅장한 음악 대신 은은한 피리 소리가 흘러, 때때로 기분 좋아진 바람이 몸을 흔들면 우수수 쏟아지는 나뭇잎의 웃음소리가 그 위로 범람하곤 했다.

대체로 만족스러운 파티의 분위기에 만족한 이름 모를 영애 하나가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녀의 대화 상대는 그녀가 여운에 잠기게 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게요. 아까 루푸스 백작님 눈빛 보셨어요? 제가 다 무섭던데. 아무래도 레우카스 자작이 코로네 남작 쪽을 더 밀고 있다는 소문이 진짜가 봐요."

눈치 없는 상대가 던진 화두는 다수의 여인이 기다리던 것이었는지 너도나도 한마디씩 얹기 시작했다.

"하긴 그쪽은 명예뿐인 자리 나마 물려줄 아들이 없잖아요. 백작을 모셔와 자작위를 물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남작이 낫겠죠."

"그래도 본인 마음은 다르지 않을까요? 상대가 그 워로드 루푸스인데. 짱짱한 시댁에 폐하의 신임을 받는 기사고 영웅이시잖아요. 게다가 얼굴은 또…"

"얼굴이야 코로네 경도 빠지지 않죠. 동그란 눈매에 짙게 가라앉은 눈동자 하며 청초한 콧방울까지. 웬만한 여인은 얼굴도 못 들 미인이라구요. 그분이 손만 내밀면 조건이고 뭐고 두 팔 벌려 환영할 여인네가 줄을 섰는데 겨우 저런 여자한테 목매고 계시니."

억울한 음성으로 말을 맺은 이는 역시나 아젠트 영애였다. 그녀의 짝사랑은 이미 유명한 일이어서 옆에 서 있던 여인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나 아젠트 영애가 한쪽을 흘기며 한숨을 내쉬자, 전염이라도 된 듯 침울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짝사랑은 대개 유명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법이었다.

"무슨 수로 그런 분들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냥 보기엔 좀… 평범해 보이잖아요."

시선을 따라간 자리에는 외롭게 서 있는 매니시가 있었다. 워로드가 봤다면 숲의 요정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할 모습이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자 중에 그것을 인정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파티에서 혼자 분위기를 잡는 것 같아 아니꼬울 뿐이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을 듣기라도 한 듯 활짝 웃는 매니시가 보였다. 반사적으로 움찔거린 여인 중 몇은 그 활짝 웃는 얼굴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다고 잠깐 생각했다.

"그냥 이렇게 둘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면요?"

이미 체념한 음성이 반문했다. 다들 알고 있었다. 저 빽빽한 나무 너머만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냥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사는 사교계 또한 철저한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있는 세계였다.

아무리 그들이 무리를 이루고 위협해도 진짜 맹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예를 들면, 레우카스 영애의 곁을 맴도는 저 어린 호랑이한테라든지.

"나 없는 사이에 뭐 했어요?"

딴청을 부리는 여자무리에서 눈을 뗀 로망이 매니시의 안색을 샅샅이 살피며 물었다. 다행히 그녀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그냥 있었어요. 폐하께서 주셨다는 호신용품이 그건가요?"

로망의 손에는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마법 주머니 하나가 들려있었다. 어딘지 낯익은 모양에 갸웃거리던 매니시가 불현듯 제 치마를 더듬었다. 로망의 주머니는 지금도 매니시의 치마 안쪽에 잘 매달아둔 마법 주머니와 제법 유사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조금 전 깜박한 것을 눈치채고 비명까지 내지른 로망이 직접 방에 다녀올 정도로 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게다가 황제가 하사한 호신용품이라니, 평범한 것은 아닐 테였다. 사실 매니시의 주머니도 수사단의 지급품인 점을 생각하면 황실에서 새로 개발한 마도구인지도 몰랐다.

호기심이 담긴 반응이 내심 뿌듯했던 로망은 신이 나서 입을 열었다.

"네. 이것만 있음 어디든지 안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을 흐린 로망이 주섬주섬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한 손에 안고 있던 애완견 때문에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매니시는 시녀가 대신 받아드는 애완견을 관찰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처음 보는 로망의 애완견은 머리에 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새끼라 온종일 인형처럼 잠들어 있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였다.

도롱도롱 잠들어 움찔거리는 코를 보다가, 보송한 눈꺼풀을 보다가, 그 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동자는 어떤 색일까 상상하던 매니시를 로망이 일깨웠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순식간에 주머니를 연 그녀가 매니시의 곁으로 다가와 흥분한 목소리로 입을 떼고 있었다.

"안에 보이죠? 이…"

"어맛."

로망의 강아지가 잠에서 깬 것은 하필 그때였다.

귀엽게 뒤척이던 녀석은 시녀의 손을 피해 뛰어내리더니 발작적으로 뛰어다니며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뛰어다니는 소리는 이랬다.

콩콩

짖는 소리는 이랬고.

앙앙! 앙!

덜 자란 성대의 높고 여린 소리에 주변에선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타다닥.

"잠깐, 어디가!"

강아지는 작지만 아주 빨랐다.

"황녀 전하!"

"전하!"

강아지를 따라 급히 결성된 행렬의 구성원이 꽤 화려했다. 선두에서 달려가는 황녀, 뒤쫓는 매니시와 시녀들, 소란을 느낀 호위까지 제법 큰 무리가 숲을 향해 뛰고 있었다.

툭, 활시위를 놓은 워로드가 사냥감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갔다.

걸음이 멈춘 곳엔 헐떡이는 고라니 한 마리가 누워있었다. 그의 화살이 꽂힌 채 천천히 빛을 잃어가는 녀석의 눈을 본 워로드가 칼을 빼들었다.

대결로만 보자면 점수를 깎아 먹는 행동이겠지만, 그것이 사냥감에게 베풀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자비였다. 마침내 숨이 끊긴 고라니를 어깨에 들쳐 멜 때였다.

쿵 쿵 쿵

이로써 세 번째, 약속된 북소리가 울렸다. 사냥의 끝을 예고하는 북소리는 여유시간을 두고 세 번에 나눠 울리기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남은 것은 진짜 끝을 알리는 나팔 한 번뿐.

고개를 쳐든 워로드가 하늘을 확인했다. 추워진 날씨에 부쩍 짧아진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잘난척하더니 늦잖아."

워로드는 숨이 끊긴 고라니를 말에 매달며 투덜거렸다. 오늘 그가 몰고 다닌 두 필의 말에는 각각 사냥의 결과물이 달려있었는데 한쪽엔 고라니가, 한쪽엔 토끼 두 마리가 든 주머니가 달려있었다.

누가 봐도 편파적인 결과였지만 그마저도 워로드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잠시 토끼가 든 주머니를 노려보던 워로드는 결국 그것을 풀어헤쳤다. 괜히 중얼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한 마리 잡는 동안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건 역시 말이 안 되지."

토끼 한 마리를 제 주머니에 옮겨 넣고 고개를 끄덕인 워로드가 말에 올랐다. 아무래도 늦장 부리는 놈을 데리러 가야 할 모양이었다.

두 마리가 함께 돌아다닌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일부러 풀잎 위를 골라 다니다 보니 제대로 된 길로 다니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침입자의 존재에 숨죽인 숲은 음산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한참 동안 마른 풀잎 소리와 그 사이를 은밀히 돌아다니는 설치류의 소리만 들었을까.

덫에 걸린 듯 푸드덕거리는 날갯짓이 요란하게 숲을 깨웠다.

고요한 숲의 분위기에 잠겨있던 워로드는 그 긴박한 소리에서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가 소리를 향해 말을 달렸다.

푸드덕!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온 무언가가 아슬아슬하게 그를 스쳐 지나갔다. 재빨리 뒤돌아 확인한 무언가는 날렵한 몸체와 커다란 날개를 가진 매였다. 꽁지깃 밑으로 펄럭이는 리본 같은 것을 발견한 워로드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신음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려줘."

워로드의 좋은 귀가 아니라면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는 파리한 안색에 거품을 문 남자에게서 난 것이었다. 신음의 주인을 확인한 워로드의 몸이 경직되었다.

한들러, 바이올런스의 사냥감이 그 앞에 쓰러져 있었다.

말에서 내린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억센 손에 발목을 붙잡혔다. 심한 화상 흉터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이는 손이었다. 파랗게 질린 손톱을 보며 쪼그려 앉은 워로드가 고했다.

"…독이 손끝까지 퍼졌다. 늦었어."

단호하게 내려진 선고에 한들러가 눈을 부릅떴다. 쉽게 마지막 끈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부르르 떨리는 눈꺼풀 밑 핏발 선 흰자엔 거무죽죽한 그림자와 함께 미련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워로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달아나는 거친 숨소리가 죽음에 완전히 따라잡히기 전에 해야 할 질문이 있었다.

"대답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저벅.

아직 대답을 듣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눈치채지 못했던 발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들린 탓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반쯤은 예상하던 인물이 그곳에 서 있었다.

달려온 듯 숨을 몰아쉬는 바이올런스. 아니, 어쩌면 살인의 흥분 때문인지도 몰랐다. 순간 머릿속을 스친 의심에 경계를 띠었던 워로드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를 보며 의심을 거둬들였다. 그가 거리를 좁힐수록 드러나는 충격받은 표정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때, 신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소리가 워로드의 주의를 끌었다.

그새 죽음에 한 발을 걸친 듯한 한들러는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그가 입을 뻐끔거릴 때마다 악취 나는 거품이 튀어 올랐다. 이상한 것은 그 절박한 와중에 그의 입 모양이 꼭… 웃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워로드의 생각은 얼추 진실에 근접해 있었다.

재수 없는 한들러.

어릴 때부터 이름처럼 불리던 별칭을 떠올리며 한들러는 웃고 있었다. 반쪽짜리 형제의 도구로 살다 버려지는 인생에 딱 어울리는 별명 아닌가.

그렇다고 그의 웃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라든지 허탈함 때문이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즐거웠으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빌어먹을 고통만 아니라면 큰 소리로 웃고 싶을 만큼 즐거운 기분이었다.

시선의 끝에서 발견한 것 때문이었다.

한때 멍청하다 비웃었던 바이올런스의 얼굴이 보였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중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저 음울한 눈동자 안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키워온 '분노'였다.

한들러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에게 익숙한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복수는 생각만으로도 달콤한 맛이 있었다. 죄 많은 형제는 저자의 손에 심판을 받으리라.

한들러는 달콤한 미래를 그리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숨을 쥐어짰다.

"…쿠…오…"

잔뜩 쉰 목소리로 힘겹게 잇는 말은 무척 알아듣기 어려웠다. 거기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리기 시작한 여러 명의 발소리도 한몫을 했다.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소리 사이엔 로망의 절박한 음성도 껴있었기 때문이었다.

안 돼!

흠칫 놀란 워로드가 숲을 돌아봤을 때였다. 쾅! 갑작스런 굉음이 숲을 울렸다. 동시에 날아오른 새들은 하늘을 까맣게 덮었고 작은 동물들이 도망치는 소리로 숲은 때아닌 난리 통을 겪고 있었다.

워로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로망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 난리 통 속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다. 몇 걸음 만에 이상한 기시감을 느낀 그가 걸음을 멈추자 얼굴에 찰싹 와닿은 것이 있었다. 어디선가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향기가 떠도는 것도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내 꽃잎들…!"

워로드가 얼굴에서 떼어낸 것은 꽃잎이었다.

저 멀리 엎드린 시녀들 사이를 개처럼 뛰어다니는 로망과 칼을 빼든 채 상황 파악에 애쓰는 호위들, 그를 향해 달려오는 진짜 개 한 마리, 뒤쫓는 매니시까지.

뒤를 돌아봤을 뿐인데 펼쳐진 희한한 세상에 눈을 비빈 워로드가 다시 뒤를 확인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그의 뒤에는 여전히 파리한 안색의 한들러가 있었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녀석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정도.

한동안 미처 감지 못한 핏발 선 눈을 바라보던 워로드는 어딘지 조급한 마음이 들어 매니시를 찾았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굳은 듯 서 있는 그녀가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코앞에 있는 그를 발견할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발치를 향한 매니시의 시야에 무엇이 담겨있을지는 뻔했다. 적어도 시신 옆에서 눈치 없이 앙앙거리는 강아지는 아닐 터였다.

"…매니시."

그녀가 충격받지 않기를 바랐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어느새 바이올런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꼭 꼬리 잡기를 하는 것 같았다.

워로드는 매니시를, 매니시는 바이올런스를, 바이올런스는 시신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성공한 이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감만 차오르는 게임이었다.

워로드도 알고 있었다. 매니시가 왜 그를 바라보는지. 그 마음에 남녀 간의 애정이 섞여 있지 않으리라는 것도. 심지어 그조차도 바이올런스의 충격받은 얼굴이 신경 쓰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마음은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불쑥불쑥 들썩였다.

그녀 앞으로 흩날리는 꽃비 때문일까.

그 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매니시를 잃을 뻔했던 그날, 그의 심장은 지금처럼 뛰고 있었다. 기실 그날 흩날린 건 향기로운 꽃 따위가 아니라 의류 폐기물에 가까웠지만.

지금처럼 숨이 막혔었다.

간격이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던 워로드는 그제야 제 마음의 향방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질투가 아니었다. 그는 무서웠다.

바이올런스의 아픔이 매니시의 원동력이 될까 봐. 다음에 한들러의 자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일까 봐.

그때 까만 눈동자 한 쌍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그를 향했다.

과거의 어느 날처럼 흩날리는 꽃비 속에서 마주친 시선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겁쟁이였다.

워로드는 수사단장이란 직함이 아깝지 않게 움직였다. 그는 로망의 마법 주머니가 내뱉는 꽃잎이 한들러의 마지막을 기리는 동안 난리 통이 난 사냥회를 파했다.

이후 백작의 사람들은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별 의욕은 없어 보였다. 고용인들은 사냥회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고 한들러는 사냥으로 인해 통행을 금지한 숲속에서 발견됐으니까. 사건은 자살로 종결될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귀족이 똥물이라도 튈까 염려되는 사람처럼 황급히 성을 떠났고 이제 아젠트 성에 남은 사람이라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들과 로망, 그리고 이 성이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아젠트영애 뿐이었다.

그러나 로망과 매니시, 아젠트 영애가 각자의 호위에게 붙잡히면서 아젠트 성은 급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였다. 덕분에 워로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바이올런스의 방에 들어설 수 있었다.

"독극물은 즉사하는 종류로 밝혀졌고 주위에 다른 인기척은 없었어. 하지만 자살이라고 하기엔…"

"그럴 사람이 아니지. 네가 봤다는 그 매가 그랬다면 모를까."

말을 받은 바이올런스는 언제 충격받았냐는 듯 제법 냉철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짐을 챙기는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 않았다. 워로드가 그의 손목을 붙잡으며 물었다.

"좀 진정해. 어딜 가겠다고 그래."

"쿠피오."

지체 없이 그의 손을 뿌리친 바이올런스가 마저 짐을 싸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말, 쿠피오였어. 바로 알아들었다고. 왜냐하면 거기까지 달려가는 동안 계속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쿵. 가방이 놓여있던 책상을 내려친 바이올런스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거칠어진 숨을 고른 그가 이어 말하기 시작했다.

"집무실에 침입했을 때, 누군가 이미 금고를 딴 흔적이 있었어. 마석이 무식하게 들어가는 방법이라 웬만한 뜨내기는 상상도 못 할 짓인데 말이야. 마도구에 익숙하고, 돈도 많은… 그래, 이를테면 마리티무스 같은 인간이나 할만한 짓이었지."

으득, 이를 간 그가 품에서 제법 두툼한 책자를 꺼내 워로드의 앞에 던졌다.

"이건?"

"금고에 남아있던 아젠트 백작의 보물. 백작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의 이름은 그 안에 다 있어.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비리, 그 증거까지도."

휘리릭 넘어가는 책장 사이로 찢긴 페이지를 발견한 워로드가 멈칫했다.

"후작의 이름도 있었겠군."

"그래, 확신할 수 있어. 거기에 후작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이 성에서 누군가 그 종잇장을 탐냈다면 용의자는 한사람밖에 없어."

동시에 얼굴을 구긴 두 사람이 한 인물을 떠올렸다.

"한들러, 결국 후작의 사람이었나."

"여태 기회만 노리고 있었겠지. 백작이 자리를 비우고 성의 온갖 시선이 다른 쪽에 쏠릴 오늘 같은 날을."

"우리가 놈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군."

손으로 눈을 가린 바이올런스는 축축한 한숨이 연상되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다.

"백작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분명 어머니가 작성한 신고서였을 거야.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고 자료는 후작의 손에 들어갔으니 이대로면 영영 묻힐 테고. 매달릴 거라곤 어머니를 죽인 그놈 말뿐이라고."

"그래서. 네가 쿠피오에 가면 뭘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나?"

어쩌면 워로드의 질문이 합리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바이올런스는 그런 것을 고려할 정신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워로드의 멱살을 잡아챈 바이올런스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짓씹듯 말을 내뱉었다.

"증거든 뭐든 찾아서 끌어내릴 거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번뜩이는 눈이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뜩잖은 말에 눈썹을 꿈틀거린 워로드가 반문했다.

"증거가 어딨는데. 마리티무스 영지? 쿠피오 산? 잘 생각해봐. 한들러를 중독시킨 매가 누구에게 돌아갔겠어?"

"그야 후작…,"

"그래.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야."

바이올런스의 손을 끌어내리며 워로드는 수도로 난 창을 가리켰다.

"자기 부하도 못 믿고 죽인 자다.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커. 방법이 있다면, 확실한 쪽이 더 좋겠지."

"…확실한 방법?"

"돌아가. 후작의 곁에 있어."

"그쪽이야말로 이미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니. 후작은 지금 파티에 참석 중이야. 누군가에게 대신 받으라 시킬 수도 없었을 테니 매는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아... 바이올런스의 작은 탄성을 뒤로하고 돌아선 워로드가 마저 말했다.

"타이밍 좋게 가서 빼돌리면 더 좋겠지만, 안되면 붙어있기라도 해.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너는?"

"쿠피오로 간다."

"네?"

"로망한테 부탁해놨어. 곧 출발할 거야."

먼저 간 바이올런스와 사정에 대해 들은 매니시는 놀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가 놀란 이유는 후작이나 바이올런스 때문이 아니었다.

"저만 가라고요?"

"그래. 지금 바로."

"단장님은요? 아무리 조용히 움직인다 해도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는 거야. 수도에 돌아가면 에이드를 만나서 지원조를 보내줘."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이거면 지금이라도 누구든 부를 수 있잖아요!"

워로드의 손을 잡아든 매니시가 그의 통신용 반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같았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근 몇 년을 제하면 평생을 북부에서 살았는걸요.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꽃비가 내리는데,"

그는 안정이 필요한 사람처럼 매니시의 손을 감싸며 말을 이었다.

"그 속에 네가 서 있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를 거야. 그때가 생각났어. 낯선 골목에서 널 찾아 헤맸던 날, 널 잃는 줄 알고 내내 떨었던 게."

"워로드."

"후작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위험해질 거고. 나는 이기적이지만, 너만은 거기에 데려갈 생각이 없어."

매니시는 그의 커다란 손 안에 숨어있는 제 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레우카스 영지였던 곳까지만 따라갈게요. 몸을 의탁할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엔 그녀를 감싼 손이 너무 단단했다.

"제발, 매니시. 이번만 내 말을 들어줘."

절박하게까지 들리는 그의 목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녀의 욕심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다.

매니시는 마지못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럼 지원은 부르고 출발해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끌어안긴 매니시에게 그가 속삭였다.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니까."

그는 기어코 매니시가 짐을 꾸리는 것까지 확인하곤 제 길을 떠났다. 매니시는 곧 출발할 로망의 마차 옆에서 손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자꾸 불안해요, 워로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올려다본 하늘은 어둑어둑해져서 불길하게만 느껴졌다.

"…영애. 매니시 영애?"

"네?"

어느새 로망과 마차에 앉아있던 매니시가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눈앞에는 걱정스런 얼굴의 로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걱정 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잠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프릴이 제 호위로 있을 때 얘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사고가 잦았거든요."

순순히 대답하면서도 로망은 여전히 그녀의 안색을 살피는 중이었다. 얻어타는 처지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었다. 돌아가는 내내 그녀가 저를 걱정하게 할 수 없었던 매니시는 목소리를 높여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예를 들면요?"

"그때 프릴 취미가 지렁이 굴리기였거든요. 어린 마수들이 힘 조절을 배울 때 종종 하는 놀이죠. 프릴도 딱 그 시기였어요."

다행히 로망은 상대와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세련된 사교계 인사였다. 아니면 매니시를 앞에 둔 로망이 언제나 평소의 두 배는 흥분해 있기 때문인지도.

로망은 쉴 새 없이 애교 있는 목소리로 조잘거리며 공백을 메웠다. 매니시는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또 그 시기가 어떠냐면, 어린 마수들이 타고난 감각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착각하고 다닐 때거든요. 그날 프릴이 지렁이로 착각한 건 뱀이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렁이가 기는 소리나 뱀이 기는 소리나 프릴에겐 천둥소리처럼 선명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프릴은 그날도 취미 생활에 열중했고 덕분에 여길 야무지게 뜯겼어요."

톡톡, 로망은 제 무릎에서 잘 자는 강아지의 코를 몸소 쳐 보였다. 배를 보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녀석이 반작용처럼 앞발을 휘적거렸다. 그 모습은 어쩐지 몇십 배나 될 듯한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릴을 떠올리게 했다.

어쩌면 저 강아지는 그런 이유로 황녀의 선택을 받았는지도 몰랐다. 황녀의 호위 기사라는 그럴듯한 명칭이 붙기 전부터 프릴을 키운 로망이었으니, 그를 수사단에 보낸 후 적적하지 않을 리 없었다.

매니시는 쿨쿨 자는 것으로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강아지를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며 로망의 말을 경청했다. 로망은 강아지가 휘두르는 앞발을 잡아 흔들며 말을 이었다.

"제아무리 건강한 프릴이라도 독사에게 뜯긴 코는 몇 날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 뒤론 뱀 냄새만 맡으면 아주 예민하게 굴어요."

때마침 로망의 손길이 귀찮은 강아지가 잠결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전 본 적 없는 것 같은…"

매니시는 말을 맺을 수 없었다. 순식간에 많은 장면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를 드러낸 프릴이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리던 장면, 울퉁불퉁한 흉터로 가득했던 손, 품에서 난 비릿한 냄새. 장면 장면을 이어붙이던 매니시가 홀린 듯 내뱉었다.

"비린내?"

"맡아본 적 있어요? 전에 프릴 놀린다고 귀여운 애로 몇 마리 키워봤는데 그 비린내는 영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냄새가 났어요."

"네? 어디서요?"

괜히 한 번 킁킁거린 로망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물었다. 매니시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 사람."

"누구요? 주변에 뱀 키우는 사람 있어요? 오라버닌 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아닐 테고."

"죽은 남자요! 단장님한테도 알려야겠어요. 참, 프릴 경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대로 수사단에 바로 들려서…"

갑자기 정신을 차린 매니시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길 잃은 눈동자는 창밖과 마차 안을 정신없이 떠돌고 있었다. 가만히 그 시선을 따라다니던 로망이 정곡을 찔러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단서예요?"

"그…런건 아니지만, 단서가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저도 수사단 소속이기도 하고 또,"

"오라버니 때문이죠?"

불만 어린 얼굴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대답을 재촉했다. 매니시는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잘은 모르지만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제가 괜히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괜히가 어딨어요? 당연한 거지. 왜 같이 가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 묻는 로망이 진정된 매니시의 속을 다시 한번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저 자신에게 대답했다.

"가봤자 짐만 되고 방해만 될걸요."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확 낮아진 음성에 놀라 바라보니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로망이 보였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사실이니까요."

"매니시 영애."

입술을 깨문 로망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하다가 별안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가 마차 벽을 쿵쿵 두드리자 화답하듯이 바깥의 소란이 느껴졌다.

점점 속력을 늦추는 마차 곁으로 말발굽 소리 하나가 가까워졌다.

무슨 일 있으십…

벌컥, 활짝 열린 문 사이로 찬바람을 느끼기도 전에 놀란 기사의 눈과 매니시의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정작 문을 연 당사자는 태평하게 손을 휘젓고 있었다.

"좀 비켜봐."

기사는 놀란 와중에도 착실히 황녀의 명령에 따랐다. 그가 마차에서 좀 떨어지자 그제야 깜깜한 길이 드러났다. 차가운 기운을 머금은 밤공기가 매니시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혼자 고개를 끄덕거리던 로망의 질문은 무척 뜬금없는 것이었다.

"길이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무섭지 않겠어요?"

"네?"

"따라가고 싶잖아요."

매니시의 눈을 들여다보던 로망이 단언했다. 갑자기 막힌 말문에 매니시가 눈만 깜박이는 사이 마차는 완전히 멈춰선 채였다. 로망의 어깨 너머로 눈치를 보듯 서 있는 기사 한 명이 보였다. 아마 그뿐 아니라 다른 기사들과 마부도 이 정적 속에 숨을 죽이고 있을 터였다.

"사람 가는데 순서 없는 법이에요."

참지 못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강한 오라버니나 늘 호위에게 지켜지는 저도 그래요. 아무리 대단해봤자 결국 사람인데, 남겨진 사람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라버닌,"

매니시는 기다렸다는 듯 한참 전부터 속에 걸려있던 말을 뱉어냈다.

"이기적이죠."

"구제 불능이고,"

"치사해요."

"기사들이 종종 그런 편이에요."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기사는 머쓱하니 머리를 쓸어 넘겼다. 혼잣말하듯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족이 보고 싶어지는 밤이었다.

"자기만 맘 편하면 다인가?"

작은 목소리의 주인은 매니시였다. 로망은 작게 터져 나온 그녀의 속마음이 기꺼워서 자신의 두툼한 후드를 풀어 내렸다. 후드는 매니시의 허전한 어깨 위에 얹어졌다.

"영애도 이기적으로 굴어요. 그럴 자격 있어."

매니시는 로망이 둘러준 후드를 여민 채 까만 숲길을 응시했다. 전쟁의 말미, 가족과 갖은 고생을 하며 지나온 길이었다. 자신이 혼자 그 길을 거슬러 그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녀가 말없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둠이 무게를 더해갔다. 정적 속에서 가끔가다 들리는 말의 투레질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서성이는 기사의 발소리에서 초조한 기색이 묻어날 때였다.

"…무섭지 않아요. 혼자 가는 길이든 밤길이든."

자리에서 일어난 매니시가 마주 선 로망을 향해 웃어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손 하나가 내밀어졌다. 어느새 마차의 문 앞에 서 있는 로망의 호위 기사였다.

매니시는 그의 손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손에 담긴 응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여느 기사에겐 아무것도 아닐 이 한 걸음이 그녀에겐 3년이나 걸린 일이었다.

저벅, 마차에서 내려선 매니시가 후드를 단단히 여미고 있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망은 성큼 멀어진 매니시를 눈에 새기면서 불안한 마음을 뒤로 밀어냈다. 그게 썩 잘 밀리진 않아서 한 손은 마법 주머니를 뒤져 매니시에게 줄 쓸만한 물건을 찾고 있었지만, 표정 관리만큼은 완벽하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매니시는 마법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로망의 손을 잡아빼고 후드의 끝자락을 들어 보였다.

"이걸로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하."

그녀의 표정 관리가 아주 완벽하진 않았던 모양이었다. 아니면 미세한 차이를 잡아낸 매니시가 대단한 사람이든가. 아무래도 후자 같았다.

"감사하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갑자기 무슨 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언닌 놓치면 안 돼. 걱정보다 커진 마음속 욕망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촉촉한 눈으로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자니 눈만 깜박거리던 매니시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앗, 뒤늦게 질문을 인식한 매니시가 후회의 탄성을 내뱉었을 때는 로망의 환호성이 터진 후였다.

"로망이라고 불러요, 언니! 그리고 이거."

로망은 여태껏 소중하게 안고 있던 강아지를 매니시의 품에 덥석 밀어 넣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강아지가 후다닥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태를 파악하던 녀석은 로망과 시선이 마주치자 이빨부터 드러냈다.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로망에 대한 강아지의 불신은 아주 확고해 보였다. 앙.

로망은 몸을 흔들어 제 드레스에 매달린 강아지를 떨어내며 말했다.

"내숭 그만 부리고 언니 잘 지켜. 프릴."

그렇게 말한 로망이 강아지의 목에 감긴 레이스를 풀었다. 강아지는 삽시간에 익숙한 생김새로 자라나고 있었다. 제게 일어나는 변화가 달갑지 않은지 앞발로 얼굴을 가린 채로.

호위들조차 몰랐던 일인 듯 놀란 얼굴로 검을 쥐고 있었다. 황당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던 매니시는 그제야 황녀의 호위 규모가 생각보다 단출했던 이유를 깨달았다. 프릴이 그녀를 모른척하며 잠만 잔 이유도.

로망을 째려보는 프릴의 얼굴은 누가 봐도 비밀을 폭로 당한 자의 원망을 담고 있었다. 매니시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커다란 덩치를 애써 외면하고 로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로망은 저 혼자만 태연한 얼굴로 레이스를 건네고 있었다.

"이걸 채우면 원래 크기로 돌아가니까 가지고 있어요."

"원래 크기요?"

"힘만 세지 아직 아기거든요."

"마력을 제어하는 건가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이래 봬도 황실의 최신기술이에요. 마력 제어는 아직 연구 중인 분야라."

마수의 시간이 평범한 동물보다 몇 배나 긴 것을 따지자면 생후 5년도 안 된 프릴은 아직 유아기가 맞았다. 그러나 툭하면 프릴을 놀리는 본부의 기사들조차 그를 아기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게 저렇게 사납게 포효하는 아기라니, 사실을 들은 후에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기사 한 명은 프릴의 박력 넘치는 모습에 이미 검을 빼 들고 있었다.

모두가 심장을 졸인 가운데 오로지 두 여자만 태평했다. 매니시는 그의 화내는 모습이 익숙했고, 로망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게 누나한테."

작고 고운 손이 커다란 마수의 코를 찰싹 내려쳤다. 그 순간 매니시는 기사들의 헛숨 들이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프릴은 고양이처럼 그릉거리는 목울음을 내며 돌아설 뿐이었다. 흙을 퍽퍽 쳐대는 앞발이 무척 억울해 보였다.

로망은 프릴의 화풀이 한 번에 맥없이 파이는 바닥을 무시하곤 다시 활짝 웃었다.

"철은 없지만 뱀 찾는 덴 도사니까 데리고 가면 쓸모가 있겠죠."

그녀를 따라 활짝 웃은 매니시는 뛰어들 듯 로망을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날 믿어요. 그 사람 상처 하나 없이 무사한 모습으로 데려올 테니까."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은 것이었다. 그녀를 놓은 매니시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새 용감한 마부가 프릴에게 짐 끈으로 된 고삐를 매어놓은 후였다. 그녀가 올라타기 쉽게 엎드린 프릴도 보였다.

매니시는 여느 아가씨들이 말에 오를 때처럼 다리를 모으지 않고 프릴의 등에 올라탔다. 한껏 드러나는 다리에 기사들이 시선을 돌릴 때, 아랑곳하지 않는 큰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 결투로 더 단단해진 두 사람이 남은 휴가를 즐기는 중이라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로망?"

"...네!"

처음 불린 이름에 얼굴을 발갛게 물들인 로망이 대답했다. 달콤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남긴 매니시는 이미 떠난 후였다.

"딱! 은화 한 개만 빼줘요. 진짜 없어서 그래."

"아 글쎄, 수도에서 사려면 큰 금화 1개짜리라니까요. 작은 거 6개는 받아야 저희도 먹고살죠."

"알죠, 잘 아는데 나 중부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올라왔단 말이야. 이 정도면 살 줄 알고 딱 이거만 챙겨서. 여기까지 와서 그럼 그냥 가요?"

"아이참..., 정말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흔들리는 상인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눈이 모여들었다. 더 나은 품질, 더 저렴한 가격의 마도구를 구하기 위해 제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로 가득한 이곳이 마리티무스의 마도구 거리였기 때문이다.

귀족처럼 차려입은 남자 옆으로 누더기 같은 갑옷을 걸친 사내가 지나치고 빛이 나는 가짜 칼을 든 아이들은 골목을 활개 쳤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흥정 소리와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신제품들, 관광객의 섣부른 걸음과 잠재 고객의 재빠른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이 짧은 거리를 환상 속으로 이끌었다.

물론, 그 환상 속에 젖어 들지 못하는 사람도 한 명 있었지만.

"추적계의 스페셜리스트라더니..."

중얼거린 이가 시야를 가리는 후드를 들추자 하얀 속눈썹이 드러났다. 그간의 여정이 쉽지 않았는지 피로해 보이는 낯의 매니시였다. 그녀는 지나가는 이들의 면면에 시선을 옮겨가며 무언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부근이 꿈틀거린 것은 그때였다.

킁, 촉촉한 콧소리와 함께 등장한 것은 까만 털 뭉치였다. 반짝이는 코를 훑는 앙증맞은 혓바닥과 심통 맞은 눈이 오밀조밀 달린 털 뭉치.

망토 속에서 두문불출하던 프릴과 매니시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늘게 뜬 눈이 매니시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애초에 추적할 일이 생긴 게 누구 때문이냐고.

찔리는 게 있는 매니시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벌써 뭘 알아냈나?"

프릴은 매니시의 입에서 나온 '벌써'라는 단어를 참을 수 없다는 듯 코를 찡그렸다. 그의 정수리에서 불편한 심기를 읽어낸 매니시가 덧붙였다.

"고작 열두 시간 정도 차인데 여기 어디 있겠죠?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까요?"

그녀의 친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프릴의 꼬리는 '열두'라는 음절이 끝나기도 전에 팔딱 일어나 매니시의 팔을 내리쳤다.

"...열두 시간보단 좀 더 걸렸나, 하하."

찰싹. 다시 한번 팔을 내리치는 꼬리의 감촉에 시무룩해진 매니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알아요, 적어도 열네 시간은 늦었다는 거. 나 때문에."

꼬리처럼 따라붙은 한숨은 지난 나흘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시작은 황녀와 헤어진 직후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워로드를 쫓는 일은 꽤 낙관적이었다. 그들 사이에 있는 약간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평범한 말과 프릴의 속도 차이는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저라고 멀미가 날 줄 알았겠어요? 마수는 처음인데."

사실 승마조차 익숙하지 않은 그녀였지만 매니시는 그 사실을 굳이 털어놓지 않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워로드와 한스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다.

다행히 아직 남아있던 냄새는 그들을 워로드가 짐을 푼 여관까지 안내해줬다. 그러나 그곳엔 또 다른 변수가 숨어 있었다. 워로드가 그들보다 열네 시간이나 이르게 도착했다는 것, 아침나절 기다린 그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망망대해 같은 이 거리를 헤매는 이유였다.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나흘간의 탈 많은 동행이 프릴과 매니시를 격의 없는 사이로 발전시킨 듯했다. 그러나 매니시의 투정 부리는 말투에도 프릴의 표정은 단호했다. 사실 그라고 어쩔 도리가 없기도 했다. 워로드의 냄새는 진작에 사라지고 없었으니까.

영 시큰둥한 프릴의 태도에 입을 삐죽 내민 매니시가 거칠게 발을 뻗었다. 한결 더러워진 승차감에 프릴이 성을 내려는 찰나였다.

그들의 귀에 어떤 소란이 와 닿지 않았다면 매니시의 팔에는 빨간 꼬리 자국이 하나 더 생길 예정이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의 덕분으로.

"여기 댁들이 먹을만한 건 안 파니까 가라고. 손님들 입맛 떨어지게 기웃거리지 말고."

"이게! 지금 말 다 했어?"

소란의 중심은 단정한 차림의 사람들이 늘어선 어떤 줄의 꼬리 부근이었다. 격해지는 실랑이 소리를 따라가자 대치 중인 두 남자가 보였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종업원과 추레한 행색의 남자, 상황 파악은 어렵지 않았다.

"어어, 멱살 잡았어? 경비대! 누가 경비대 좀 불러봐요. 여기 거지가 사람 팬다고."

종업원이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외쳤다. 멱살을 잡히고도 전혀 겁먹지 않은 그는 구경꾼들과 눈을 맞추며 남자를 비웃어댔다. 매니시는 저런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영지를 잃은 레우카스에게 쏟아지던 시선이었고, 새로운 길을 걷는 페니에게 쏟아지던 시선이었다. 한때는 그녀를 좀먹던 그 눈빛이 오늘은 그녀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웃고 있는 구경꾼들 사이에서 눈살을 찌푸린 매니시가 발을 물릴 때였다. 누군가 이 상황에 반기를 들 듯 나선 것은.

"그거 놔줘. 댁도 진정하쇼. 먼저 함부로 말했으니 억울할 것도 없잖아."

종업원과 대치하던 남자의 일행인 듯 남루한 옷을 걸친 중년이었다. 그는 종업원을 둘러싼 다른 일행을 눈짓으로 만류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낮은 음성엔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힘이 느껴졌다.

그러나 팽개치듯 풀려난 종업원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 손짓으로 구겨진 옷을 털던 종업원이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 거지한테 거지라고 한 것도 잘못인가?"

"뭐라고!"

참지 못하고 튀어 나가는 일행을 몸으로 막은 중년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말했다.

"그 말은 정정해줘야겠는데. 우리도 손님이거든."

투박한 손에 들린 것은 반짝이는 금화였다. 종업원이 주춤하는 사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프릴이 고개를 쳐든 것도 그때였다.

앙증맞은 코가 움찔거리기 무섭게 짧은 꼬리가 흔들렸다. 그의 변화를 기민하게 눈치챈 매니시가 속삭였다.

"혹시,"

부대끼며 지낸 나흘이 헛수고는 아닌 모양이었다. 프릴의 의미심장한 눈빛에 매니시가 탄성을 내뱉었다. 마주친 눈빛 사이로 종족을 뛰어넘은 수많은 이야기가...

"벌써 배고파요?"

그 순간 프릴은 이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귀여운 얼굴 가득 최대한의 흉악스러움을 담은 프릴은 생각했다. 얘를 믿고 있다간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망토 속에서 폴짝 뛰어내린 프릴은 인간들의 다리 사이를 누비며 멋지게 내달렸다. 그의 용맹함에 놀란 인간들의 경악성이 줄을 잇고 있었다.

"프릴 경, 또!"

귀여운 이름에 미소짓는 사람들을 헤치며 나아가자 도도도 달려가는 프릴의 뒤태가 보였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대치 중인 두 남자가 있었다.

"...훔친 돈으로 잘난척하면 뭐라도 될 줄 알아? 그 돈으론 어림도,"

오오, 사람들의 탄성과 함께 종업원의 음성이 끊겼다. 눈높이까지 날아오른 어떤 덩어리 때문이었다.

유난히도 펄럭거리는 짐승의 작은 귀가 사람들의 시선을 홀릴 때, 매니시는 외쳤다.

"프릴 경!"

탁, 바닥에 착지한 프릴의 입에서 금화를 발견한 매니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런 그녀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기양양한 프릴의 걸음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우리 돈!"

"웬 개야? 거기 서!"

"저기 주인이다!"

마지막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녀를 향해 두꺼운 손가락을 펼쳐 들고 있었다. 순식간에 적의 서린 손가락 끝에 서게 된 매니시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주변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설상가상 끼어드는 목소리도 있었다.

"거기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의 머리 위로 얼핏 보이는 경비병의 모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다. 신상을 밝힐 수 없는 매니시에게 달가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다가오는 군화 소리는 유독 크고 무자비했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던 매니시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비장하게 숨을 들이마신 매니시는 어느새 그녀 앞에 당도한 프릴을 안아 들었다. 가증스럽게도 그는 해맑은 눈동자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쫓아오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은 까맣게 잊은 얼굴로. 그래서 매니시는 대신 외쳤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돌려드릴게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돌아선 매니시는 땅을 박찼다. 후드가 벗겨지지 않게 움켜쥔 그녀는 놀라서 길을 내주는 사람들 사이를 내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뒤를 흘겨본 매니시는 곧바로 울상이 돼서 소리쳤다.

"부탁이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이따 두 배로 드릴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자 쫓아오던 무리 중 한 명이 그녀의 옆으로 따라붙어서 말했다.

"도둑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 내놔."

"얘가 입을 안 열어서 지금은 좀, 곤란해요!"

"그럼 할 수 없지. 여기서 왼쪽."

태연하게 읊조리는 중년의 말대로 왼쪽 길로 들어선 매니시는 어느새 그들에게 포위된 채 달리고 있었다. '거기 서!'라는 경비병의 식상한 외침도 뒤따랐다.

목 끝까지 차오른 숨을 붙잡고 복잡한 골목을 누비던 매니시가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가파른 비탈과 좁은 골목, 누더기처럼 이어붙인 지붕들이 혼잡스럽게 뒤엉킨 낯선 동네가 보였다.

"경비대원들이 싫어하는 동네다. 여기까진 잘 안 따라오니까 안심해."

어느새 낮은 돌담 위에 자리 잡은 중년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앞뒤로 포진한 남자들을 느끼며 숨을 고른 매니시가 되물었다.

"그게 보통 안심할 사안은 아니지 않아요?"

"우린 이게 보통이라. 그쪽도 썩 떳떳해 보이진 않아. 아주 열심히 달리던데?"

그가 제멋대로 자란 수염을 쓸며 웃자 무리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여유로운 모습들이 더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매니시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다. 비록 그 구석탱이가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더라도 그녀의 믿음엔 변함이 없었다.

아르릉, 그가 아무리 귀여운 소리로 울더라도 말이다.

"그만 내놔, 이 똥개야."

"착하지?"

남자들이 한 걸음씩 다가오자 여전히 금화를 물고 있던 프릴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한층 깊어진 짐승의 목울음에도 주위를 에워싼 남자들 사이에선 태평한 토론이 오고 갔다.

"먹을 것도 없겠는데."

"그래도 간식거리는 될걸?"

"그럼 외식하기 전에 배 좀 채울까?"

"좀 키워서 먹는 게 안 나아?"

점점 수위를 더해가는 말들에 프릴의 앞으로 끼어든 매니시가 말할 때였다.

"제가 대신 드릴게요. 아직 아기라 호기심이 많아서,"

짤그랑.

반가운 소리에 모두의 이목이 옮겨갔다. 그곳엔 자유를 찾은 금화 하나가 침 범벅이 된 채 바르르 몸을 떨고 있었다.

납치범 프릴은 이제 금화야 어찌 됐든 매니시의 치마를 물어뜯는 데 여념이 없었다. 금화를 주워든 매니시는 그들의 허무한 표정을 외면하며 손을 뻗었다.

"...여기요."

"간식 취급보다 아기란 말을 더 싫어하는 아긴가 보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야! 말이 심하잖아, 애기한테."

그들의 우스갯소리는 대체로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시시덕거리다 미련 없이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 프릴의 이빨이 번쩍였다. 그 밑에는 여전히 매니시의 치맛자락이 물려 있었다.

매니시는 잘근잘근 떡이 되고 있는 치맛자락을 당기며 말했다.

"그만하고 가요, 프릴 경. 이렇게 장난칠 시간 없잖아요. 얼른 그 사람부터 찾아야죠."

그제야 치마를 놓은 프릴은 그녀와 사내들을 번갈아 보며 짖기 시작했다. 퍽 억울하게 들리는 그 소리에 키득거리는 사내들의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매니시의 표정은 점점 기묘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아는 프릴은 제 기분이 상하면 말보다 이빨이 먼저 나가는 마수였다. 이렇게 얌전히 짖을 게 아니라.

잠시 생각에 잠겼던 매니시의 시선이 건들거리는 사내들의 등을 향했다. 곧바로 돌아온 시선이 유리구슬처럼 투명한 프릴의 눈동자 속을 헤맸다.

"그 금화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꼬리가 긍정을 표했다. 앞발로 제 코를 툭툭 친 프릴은 따라오라는 듯 시선을 길게 주곤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무리를 향해서였다. 홀린 듯 그를 따라나선 매니시가 외쳤다.

"...잠깐만요!"

"뭐야?"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은 그녀가 아니라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바지 끝단을 물고 늘어진 프릴 때문이었다.

프릴과 마지막으로 시선을 맞춘 매니시는 사내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금화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 금화... 어디서 났어요?"

그 질문은 남자의 얼굴을 순식간에 일그러트렸다. 매니시는 다급한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홍색 눈에 키 큰 남잔데 혹시 모르세요? 그 금화, 그 사람 꺼 맞죠?"

매니시의 질문이 만족스러웠는지 프릴은 그제야 물고 있던 바지를 뱉었다. 그의 침으로 축축한 낡은 바지는 이미 작은 구멍이 생긴 후였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손에 들린 금화만 빤히 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도 누굴 찾고 있던데."

퉁명스러운 어조에도 대번에 안색이 밝아진 매니시가 성큼 다가서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딨는지 아세요?"

"글쎄...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알려주긴 했지. 덕분에 이 돈도 벌었고."

"오, 거기가 어딘데요?"

기대에 찬 눈이 반짝이는 순간, 남자의 입에도 미소 같은 것이 번졌다.

"맨입으로? 어젠 이거 벌었다니까."

팅, 맑은 소리를 내며 튀어 오른 금화가 다시 남자의 손으로 떨어졌다. 짧은 궤적을 눈으로 따라가던 매니시가 돈주머니로 손을 가져갈 때였다.

"이번엔 다른 걸 받고 싶은데. 똑같은 정보라도 어제랑 가치가 다르니까 말이야."

남자의 얼굴엔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조금 전 그녀가 순진하게 드러낸 반응 때문이었다.

"두 명분이니까 당연히 값도 늘지 않겠어? 별거 아니야. 아까 봤지?"

"...뭘요?"

"그 식당."

그는 의심 섞인 시선에도 끄떡없다는 듯 뜸을 들였다. 어느새 그녀는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거기서 만찬을 즐길 수 있게 협조해줘야겠어."

"돈 말고?"

"말고. 봤잖아,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

자조적인 내용과는 달리 만족스런 주름을 입가에 매단 남자였다. 그를 망연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매니시는 조용히 대답을 기다리는 남자의 일행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한숨과 함께 내뱉어진 것은 수락의 말이었다.

"일단 좀 씻죠."

"그러게, 내가 너 좀 씻고 다니라고 했잖아."

"입 다물어라. 냄새난다."

"그거 네 냄새야."

언제 조용했냐는 듯 끝없이 이어지는 수다의 향연에 다시 한번 한숨을 쉰 매니시가 외쳤다.

"출발!"

앞장서 걷기 시작한 그녀를 따라 험악한 아저씨들도 발을 내디뎠다. 순식간에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매니시는 조금 전까지 느꼈던 위압감도 잊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낡고 더럽지만 예의에 맞게 갖춰 입은 옷과 짤막하게 다듬은 손톱, 그들 사이의 끈끈한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이 산다고요? 다섯 명이?"

"빈집 하나 고쳐서 쓰는 거지. 셋인 날도 있고 여덟인 날도 있고 대중없어."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그럼 이것도."

혼잣말을 중얼거린 매니시가 비누 한 상자를 남자의 품에 안겼다. 이미 만석인 품은 작은 상자도 버거운 듯 주춤거렸다. 마찬가지로 양손 가득 짐을 든 일행은 질린 표정으로 매니시에게서 떨어졌다.

모두 출발 직후 시작된 그녀의 쇼핑이 불러온 결과였다. 그녀의 쇼핑은 무엇이든 상자째 구매할 만큼 대범했고, 또 즉석에서 수레를 사 끌게 할 만큼 거칠었다. 그 덕에 그들 일행의 손에는 비누를 비롯한 각종 위생용품과 장작이 가득 실린 수레의 손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냄새가 게으름의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집에 쓸만한 세숫대야는 있어요?"

"하나 있어. 줄줄 새긴 하지만."

"...사장님, 튼튼한 거로 5개요."

잡화점 주인이 가게 안쪽으로 사라지자 일행을 돌아본 남자가 말했다.

"고맙긴 한데 더 드는 건 무리야."

"괜찮아요. 마법 주머니에 넣으면 되니까."

그들은 해맑은 얼굴로 주머니를 들어 보인 매니시를 황당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들 중 누군가가 퍽 멍청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짓궂은 얼굴로 미소 띤 매니시가 대답했다.

"안 물어봤잖아요."

"뭐?"

"농담이에요. 아저씨들이 행복해 보이길래요."

경비대가 싫어한다던 동네를 지나 좀 더 올라가자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숨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 속에서 매니시는 질척한 바닥의 정체를 상상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물건을 가득 실은 수레바퀴가 튀어 오를 때마다 튀기는 방울들을 전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 거리에는 정체 모를 오물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었다. 매니시는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 뒤에 웅크린 작은 어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긴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마리티무스는 부유한 영지라고 들었는데."

울타리뿐만이 아니었다. 창문이 깨진 집 안에도, 버려진 항아리 뒤에도, 울창한 나무 속에도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모두 작은 어깨를 채 펼치지 못한 어린애들이었다.

"사실이야. 단지 다른 데보다 빈부격차가 심할 뿐이지."

그 같은 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위험한 거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 방치된 아이들. 그러나 이 거리의 참담함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부쩍 서늘해진 공기에 후드를 여미던 매니시는 문득 깨달은 것이다. 정오가 막 지난 우중충한 하늘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

한낮의 햇살은 어디로 갔는지 거리는 얇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고 따라붙던 시선도 사라졌다. 한발 먼저 튀어 나간 중년이 앞을 가로막은 나무판자를 밀어 재끼자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절그럭, 망가진 자물쇠가 흔들리고 짧은 골목이 입을 벌렸다. 더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찬,

"쿠피오의 그림자 속에 들어온 걸 환영해."

망가진 세상이.

거리를 침범한 나무뿌리, 무엇이든 남김없이 타고 오른 덩굴, 인간의 기척이 사라진 마을은 반쯤 숲에 먹혀든 모습을 하고 있었다.

푸드덕, 낯선 인기척에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를 펼쳤다. 날아오르는 녀석의 발톱에 덩굴의 시든 잎들이 바스러져 흩날렸다. 은밀히 움직이던 쥐는 예고 없는 마른 비에 고개를 쳐들고, 익숙한 동굴로 몸을 피했다.

작고 하얀 공에 침입자를 노려보는 텅 빈 두 눈, 섬뜩한 동굴의 정체에 매니시가 헛숨을 들이켰다. 어쩌면 그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사람 때문인지도 몰랐다. 해골 못지않은 몰골의 남자는 해골 밖으로 튀어나온 쥐의 꼬리가 손등을 스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재밌지? 담벼락 하나 차이로 이딴 세상이 펼쳐지다니."

무리를 이끄는 중년, 딘이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를 따라 걷기 시작한 매니시는 해골 옆의 남자를 눈짓하며 속삭였다.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둬, 시체니까."

어깨가 움츠러들 만큼 차가운 말투에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였다. 시체의 눈이 깜박였다. 게다가 그의 가슴은 얕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있어요."

홀린 듯 중얼거린 매니시가 그에게로 발길을 틀자 딘이 가로막으며 말했다.

"알아. 숨은 쉬고 있겠지. 여긴 그런 사람투성이야.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빼앗겨서 텅 빈 사람들."

"...왜요?"

"전염병이 시작된 마을이니까."

동그래진 매니시의 눈이 저를 향하자 그제야 다시 걷기 시작한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띠고 있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빼고는 내내 이렇게 그림자로 뒤덮여있으니 없던 병도 생길 만하지... 이 마을은 유령마을이야. 원래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영지 밖으로 추방당했거든."

"그럼 당신이나 저 사람들은요?"

"우린 그냥 여기 버려진 거고."

그들뿐 아니라 마을의 모든 것이 그랬다. 버려진 집과 버려진 사람이 숨 쉬는 버려진 땅. 그 속에서 그나마 멀쩡한 집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다.

깨진 창문에 덧댄 낡은 옷가지와 판자 쪼가리를 주워다가 기워놓은 지붕이 보였다. 울타리를 뒤덮은 덤불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위압감을 줬으나 그 속에는 발 없는 남자 한 명이 누워있을 뿐이었다.

딘은 마루에 짐을 내려놓고 이어 말했다.

"불구가 돼서 쓸모없어진 병사나 노인들, 나 같은 부적응자, 재산도 가족도 없는 것들이 내쫓기듯 흘러들어오는 곳이랄까. 산에 맞닿아 있어서 마수가 가끔 내려오는 것만 빼면 여기도 살만해. 세금이 없거든."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맞대고 장난스럽게 웃는 그를 따라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들이 터져 나왔다. 근처에 누워있던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웃을 때마다 무릎 밑으로 헐렁하게 늘어진 바짓자락이 파르르 떨렸다.

"어이, 그만 좀 웃고 비켜 봐. 손님 온 거 안 보여?"

키득거리던 남자가 가자미눈을 뜨고 그녀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다. 비싸 보이는 망토에 한참을 머물렀던 시선이 코까지 눌러쓴 후드를 보더니, 흥미를 잃고 떨어졌다.

게으름이 뚝뚝 묻어나는 몸이 두 바퀴 굴러 마루 한편에 자리를 내줬다. 그 위에 프릴을 내려놓은 매니시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눈치를 살핀 보람도 없이 사방에서 가벼운 대답이 쏟아졌다.

"모르라고 담벼락까지 지어놨으니 댁 잘못은 아니지."

"우리가 지어놓은 것도 아니지만."

"알아서 뭐 하게?"

"바보야. 그냥 하는 말이잖아. 딱 보면 모르냐?"

"바보? 이게 진짜!"

집안이 떠들썩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텅 빈 거리를 맞춘 듯 채워나갔다.

나이에 안 맞게 뛰어노는 아저씨들과 그 사이에서 태연히 짐을 정리하는 딘, 그새 잠든 남자의 코골이가 더없이 평화로웠다. 익숙한 듯 그들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영영 끝나지 않을 것처럼 소란이 계속되자 딘의 미소는 곧 자취를 감췄다. 그는 새로 사 온 바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기 위해 타깃을 하나 정했다.

바가지는 제일 시끄러운 사람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가서 마른풀이나 주워와. 오랜만에 뜨끈한 물에 씻어 보게."

한 사람의 항의와 다수의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결국 가장 점잖았던 딘까지 끼어 낡은 집은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워졌다.

프릴은 그런 인간들의 즐거운 한때가 한심하다는 듯 눈꺼풀을 반쯤 덮고 마루에 늘어져 하품했다. 매니시를 태우고, 달리고, 지키느라 며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도 이 그림자 속의 기묘한 평화를 느낀 탓이리라.

매니시는 쓰고 있던 후드를 내리고 프릴의 옆에 엉덩이를 걸쳤다. 졸린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는 프릴의 꼬리가 느릿하게 호응해왔다.

드러난 하얀 머리에 닿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선수 치듯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식당에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보니까 종업원도 불친절하고 귀족도 많이 드나들어서 편하게 식사하긴 그른 것 같던데."

"언제 그런 귀한 밥을 구경이라도 하겠어. 돈 있을 때 한번 가보자는 거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거기가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식당인가 보죠?"

"제일 비싸긴 하지."

딘의 얼굴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를 보지 못한 매니시는 하품과 함께 허물어진 울타리 사이를 보고 있었다. 죽어버린 마을의 전경, 그 속에는 알아채지 못한 많은 소리가 있었다.

고롱고롱 잠든 프릴의 숨소리라든가, 그녀의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앉는 소리 같은...

탁

타닥

불씨 튀는 소리가 멈췄던 시간을 깨웠다. 눈을 뜨자 여전히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하늘이 그녀를 반겼다.

조용한 사위를 느끼며 몸을 일으키던 매니시의 어깨에서 낯선 천 자락 하나가 흘러내렸다. 정확히는 그녀가 오늘 시장에서 산 커다란 수건이었다.

"집에 깨끗한 담요가 없어서. 그나저나 너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더라. 여자애가 그래도 되는 거냐?"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등장한 딘이었다. 그의 뒤로 작은 모닥불에 둘러앉은 사내들이 보였다. 어느새 여덟 명으로 불어난 이들은 그녀가 사준 주전부리를 하나씩 입에 문 채였다.

옹기종기 어울려 다니는 귀여운 아저씨들의 모습에 살풋 웃은 매니시가 대답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진 않아요. 그런데 벌써 다들 씻었나 봐요?"

"그럼! 간만에 뜨신 물로 바지 속까지 박박,"

딱, 딘의 주먹이 주책맞은 남자의 머리에 닿았다.

"먹는데 더러운 소리 좀 그만해."

"아가씨도 여 앉아. 돈 쓴 사람이 빠지면 안 되지."

"그럼 그럼. 이 집 맛은 내가 보장한다니까. 게다가 몸에 꼬랑내가 안 나서 그런가? 어째 평소보다 더 맛있어. 먹고 행복해서 죽지들 마."

"행복한데 왜 죽냐? 더러운 꼴 보고도 살았는데 행복하면 더더 오래 살아야지."

"너 때문에 속 터져 죽지 싶다. 그냥 비유잖아!"

"형님도 머리 대충 말리고 앉으슈."

언제 조용했냐는 듯 금세 왁자지껄해진 사람들이었다. 매니시는 그녀가 깰까 눈치 보며 소곤거렸을 그들을 상상하며 불가의 빈자리에 끼어 앉았다.

"아가씬 귀족이야?"

"귀족이겠냐?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맘씨 좋은 부잣집 딸이겠지. 맞지?"

"여긴 왜 왔는데? 이 영지 사람 아니지?"

"머리 색깔 봐라. 완전 북부 토박이 아냐. 근처에서 관광하러 왔겠지. 맞지?"

"부잣집 아가씨가 뭔 관광을 혼자서 와?"

"아까 누굴 찾는다고 했잖아! 일행이 있는데 잃어버린 모양이지. 맞지?"

"그럼 큰일인 거 아냐?"

매니시의 대답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 이상한 질의 끝에 사내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험악한 얼굴들이 우스워 보이는 걸 보니 벌써 정이 든 모양이었다. 그들의 걱정만큼 그녀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도 그럴 게, 매니시의 옆에는 무시무시한 마수가 코를 골고 있었고 워로드는 그런 마수조차 두려워하는 인간이었다. 그를 위험하게 하려면 적어도 군대나 전시용 마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영지는 쑥대밭이 될 테고...

거기까지 생각한 매니시가 나긋하게 미소지었다. 괜한 걱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도 몰랐다. 멀쩡히 돌아가는 세상이 무엇보다 그의 무사함을 증명했다.

다만, 일렁이는 모닥불을 보면서도 그의 따뜻한 눈동자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이제 그만 알려주실래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 어제 그 남자! 그 사람 저, 읍."

입이 틀어막힌 남자의 눈이 바쁘게 돌아갔다. 그는 제 입을 막은 두툼한 손의 주인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부리부리한 눈을 자랑하는 딘이었다. 그는 젖은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주전부리를 자연스럽게 강탈해갔다.

"아직 아니지.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다음은? 씻는다고 종업원이 우릴 못 알아보겠어?"

"다시 쇼핑하러 가야죠. 든든하게 먹어둬요."

"그것보단 이게 어울린다니까!"

"바보야! 그게 맨날 입는 옷이랑 뭐가 다르냐? 이 정돈 입어줘야 부티가 나지."

"그딴 느끼한 옷을 언제 입고 다녀. 너 오늘만 사냐? 오늘만 살어?"

"한 번 입고 버릴 거야. 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딱! 뒤통수에서 울리는 청명한 소리가 이제는 익숙하게 들릴 지경이었다.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바보 같은 패턴에 이미 환복까지 마친 딘의 한숨이 따라붙었다. 그의 한숨도 꽤 익숙해진 매니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말했다.

"여기 앉아 봐요."

가게 한편의 작은 의자를 툭툭 두들긴 매니시가 기대 어린 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딘은 의심스럽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면서도 자리에 얌전히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등지고 앉은 그는 경직된 고개 위로 다가오는 손길을 느꼈다. 이윽고 부드러운 빗살이 그의 머리를 쓸어넘기기 시작했다.

"머리가 이게 뭐예요? 묶고 다니기라도 하지."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앞으로 생길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눈이란 게 있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니까요?"

매니시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는 점점 단정해졌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탓에 꽃장식이 달린 그녀의 핀이 귀여운 꽁지 위에 얹혔다.

"이거 봐요. 훨씬 예쁘잖아요."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친 딘의 귀 끝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오랜만에 드러낸 얼굴이 낯선 탓이었다. 그래도 그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는 등에서 수줍은 표정을 읽어낸 매니시는 먼저 돌아서며 말했다.

"옷 고르고 있어요. 식당 예약하고 올 테니까."

그제야 거울 보는 연기를 집어치운 그가 매니시를 돌아보며 물었다.

"같이 갈까?"

"요 앞이라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웃으며 옷가게를 빠져나온 매니시는 이름 모를 식당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딘의 설명대로 걷기만 하면 되는 쉬운 코스였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멈춰선 그녀는 멀찍이 보이는 옷가게를 돌아보고 있었다.

갑자기 품에서 내려진 프릴이 의아하다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자 매니시는 금화 1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금세 의미를 깨달은 프릴의 고개가 새침하게 돌아갔다.

"밥값도 빠듯한데 옷값이 어딨겠어요."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발을 할짝대는 태도가 여간 얄미운 게 아니었다. 매니시가 덧붙였다.

"아까 간식도 얻어먹었잖아요."

움찔. 시장표 주전부리부터 그들이 직접 딴 과일, 꿍쳐둔 육포까지. 제 뱃속으로 들어간 메뉴들을 떠올린 프릴은 순순히 금화를 받아 물었다.

앙증맞은 엉덩이에 대고 흐뭇하게 손을 흔들던 매니시가 돌아섰을 때였다. 어두운 골목에서 튀어나온 낯선 손 하나가 매니시의 팔을 붙들었다.

펄럭, 순식간에 매니시가 사라진 자리에는 망토 휘날리는 소리만 맴돌 뿐이었다.

모나쿠스 사령관, 아니 워로드 루푸스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국의 영웅이 네 녀석들 손에 잡혔다는 소릴 나보고 믿으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단호한 목소리에 통신구 너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반면, 여유롭게 소파 손잡이를 두드리던 후작은 혼잣말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진짜라면 잡힌 게 아니라 잡혀준 거겠지. 확신할 수 없으니 일단 아는 체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

확실합니다, 각하. 아직도 그 얼굴이 꿈에 나옵니다. 제가 몰라볼 리 없어요!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 진짜라면 더더욱, 네 녀석이 감당할 일이 아니지. 안 그래?"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예.

"좋아. 녀석을 감시해서 수상한 행적이 보이면 바로 보고하고. 그렇다고 너무 초조해할 건 없다.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매니시 레우카스. 최근에 백발 흑안의 젊은 여자가 영지에 들어왔는지 확인해봐. 만약 있으면,"

마리티무스 후작의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잡아."

잡으면 믿어주시는 겁니까?

"그래. 네가 운 좋은 녀석이란 건 인정해주지."

...그럼 확인된 후엔 둘 다 제 선에서 처리할까요?

"아니, 여자를 찾으면 일단 연락해. 이번에 그걸 써 볼 생각이니까."

그거라면..., 굳이 그거까지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국 영웅을 무너트리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덕분에 실험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데로 준비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후우웅.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을 잃은 펜던트는 옷깃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워로드 루푸스라..."

만족스러운 얼굴로 소파에 기댄 후작은 소리 없이 닫히는 문을 볼 수 없었다. 집무실의 두꺼운 문 너머,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간 문고리에서 핏기없는 손이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에 비할 수 없었다.

하하, 재밌... 실...이 ...겠어.

작게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바이올런스는 마치 그 너머가 보이는 사람처럼 흔들리는 눈동자로 문을 노려봤다. 그러나 아직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갈 때는 아니었다.

적어도 어머니의 신고서를 찾을 때까진.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바이올런스가 손을 들었다. 똑똑.

"앉아."

언제 웃었냐는 듯 차분한 목소리가 바이올런스를 맞았다. 아니, 그보다 좀 더 차가운 목소리는 좋은 일로 불러들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테이블에 펼쳐놓은 신문 한 부가 바이올런스의 시선을 끌었다. 신문에는 그도 몇 번 본 적 있는 익숙한 구도의 그림이 실려 있었다.

그와 매니시, 워로드의 그림. 바이올런스는 그림 속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마리티무스 후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의 영지에서 잡힌 워로드, 수상하기 짝이 없는 레우카스 자작의 딸, 그들과 어울리는 바이올런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또 바이올런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등 뒤로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바이올런스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태연하기 그지없었다.

"아직도 시끄러운가 보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더 그런 모양인,"

"이때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그의 말을 끊은 후작은 무심한 눈동자로 그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매니시를 향해 선 그의 뒷모습이었다.

"...제 표정 말씀입니까?"

바이올런스의 되물음에도 한참 뜸을 들인 후작은 이내 웃는 얼굴로 신문을 덮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네가 자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말이야."

"낯설다니, 누구보다 저에 대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지. 근데 요사이 네 행동의 의미를 도통 모르겠구나. 처음에야 글램을 위해 네가 희생하는 줄 알았다만 답지 않게 일을 요란하게 벌인 것도 그렇고."

따뜻한 미소와 사려 깊은 눈동자는 평소 바이올런스가 알던 후작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 담긴 탐색의 뜻을 모를 그가 아니었다.

후작은 두 사람과 바이올런스의 관계가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협조했는지, 모르고 협조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에게 좋지는 않겠지만.

물론 바이올런스도 그 장단에 순순히 어울려줄 생각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봐라. 그 아가씨에게 진심인 게냐?"

친근하게 몸을 기울인 후작은 기민하게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바이올런스는 난처한 듯 웃어 보이며 말했다.

"역시 각하를 속일 수는 없군요. 사실 꽤 열심히 유혹하는 중이었습니다. 백작이 결투를 신청한 건 저도 의외였지만요."

"그것도 너답지 않게 너무 미련스러웠어. 평소의 너라면 판을 좀 더 네게 유리한 쪽으로 돌렸을 텐데 말이다."

후작은 바이올런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굳은 얼굴로 덧붙였다.

"그러니 마치 네게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잖느냐."

바이올런스는 마주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팽팽한 줄 위에 선 기분이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뎠다간.

"제가... 외부의 시선만 생각하고 각하께 어떻게 비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군요. 모든 게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한 게 있습니다."

침착한 대답은 후작이 예상한 그 어떤 반응과도 달랐다. 급변하는 공기의 흐름에 후작이 미간을 움찔거렸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은 바이올런스는 긴 한숨을 내쉰 후 고단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일부러 접근한 겁니다. 알아볼 게 있어서요."

"루푸스 백작에게?"

"매니시 레우카스에게요."

몸을 바로 세운 후작의 얼굴이 완전히 찌푸려졌다.

"레우카스는 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가씨'를 찾아내겠다고요."

"아가씨?"

생각지도 못한 주제였던지 후작의 표정이 멍청하게 흐려졌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커다랗게 뜨인 눈이 바이올런스를 잡아먹을 듯 다가왔다.

"그럼 레우카스 자작이 그 작가라도 된단 말이냐?"

"아뇨. 레우카스 영애 쪽입니다. 아직 증거는 못 찾았지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인이 그런 글을 썼다고?"

"예."

영락없이 흥분한 목소리가 바이올런스를 다그쳤다.

"확실한 거냐? 아직 증거도 못 찾았다면서."

"정황 증거가 모두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산 상황도 이상할 정도로 풍족하고요."

"흠, 네가 허튼소리를 할 녀석은 아니지. 어련히 잘 알아봤으려고. 그래, 이다음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사실 지금 증거보다 간절한 건 그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루푸스 백작 때문이냐?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이라는 단어의 차가운 울림이 바이올런스를 흔들었다. 조금 전에 들은 통신의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후작은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레우카스 영애와 황녀의 친분이 꽤 깊어 보였습니다. 전하께선 '아가씨'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죠."

"알고 계실 수도 있다?"

"예. 다른 이들이야 협박이나 회유가 먹히겠지만 그 두 사람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레우카스 영애 본인을 회유해,"

"아니."

시간을 벌 생각이었다. 그러나 후작은 바이올런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마음이 급해진 바이올런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들어보십시오. 레우카스 영애는 일부러 정체를 숨기던 사람입니다. 회유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친분이 있던 글램 아가씨의 부탁으로 대리인 노릇만 했던 거라고 입을 맞추면 일은 훨씬 매끄러워질 겁니다. 소설의 초고나 사용된 자료 같은 구색 맞출 것들도 넘겨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 작품을 쓰게 한다던가..."

갑작스런 웃음소리가 바이올런스의 말을 끊고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후작은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네가 아직 덜 컸구나. 걱정 말아라. 그런 변명은 회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테니."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나머지 입을 맞추는 일이야 어려울 것도 없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쯤은 바이올런스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런 계획을 감추지도 않고 말하는 후작의 태도에 이가 갈렸다.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자료 몇 개 가져다 구색을 갖추면 되겠지."

"하지만 레우카스 저택까지 살펴본 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섣부르게 결정하시면 일이 다 틀어질 수도 있어요."

"글쎄. 가까운 길을 두고 굳이 돌아가고 싶지는 않구나. 그깟 증거야 만들면 그만이고."

나른한 신음과 함께 등받이에 몸을 묻은 후작이 말했다. 그는 근래 들어 가장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비록 훼손 불가 마법이 걸린 황성의 신고서는 보통 방법으로 훼손할 수 없어 아직 처리하지 못했지만, 하늘은 그의 편이었다. 눈엣가시 같은 워로드와 '아가씨'는 제 손안에 있었고, 바이올런스는 여전히 충직했다.

만족스런 미소를 띤 후작이 눈을 감고 읊조렸다.

"그래도 굳이 불안 요소를 안고 갈 필요는 없지. 네가 계속 알아봐 주렴.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무언의 축객령이었다. 눈을 감은 후작의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가 졌다. 경련하는 눈살 아래 차가운 눈동자가 후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후작은 태연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책상 위에 쓰레기 같은 서류도 좀 들고 나가거라. 영 쓰잘데 없는 소리에 허무맹랑한 소리만 가득하니 보기도 싫구나."

"...예."

바이올런스는 누르고 눌러서 뱉어낸 제 대답이 분노보다 순종으로 들렸기를 바랐다. 다행히 후작은 여전히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후작의 뒤로 돌아가 책상 앞에 서자 엑스자가 쳐진 종이 다발이 보였다. 한 쪽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와 깔끔한 책상, 그가 이미 몇 번이나 들여다본 곳이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어머니의 신고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작에겐 복잡한 마법 파훼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야.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찾아보거라. 무리하지는 말고. 내게 믿을 만한 이라곤 너밖에 없잖니."

기분이 좋은 탓인지 퍽 너그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바이올런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이대로 그를 죽이고 천천히 증거를 찾는 건 어떨까.

그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있고, 그의 책상에는 내리치기 좋은 액자가 있었다. 꼴에 가족사진이.

바이올런스는 배어나는 웃음을 참지 않고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액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죽어가던 한들러를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 그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웃었던 걸까?